

동두천시 30년사

DONGDUCHEON HISTORY OF 30 YEARS 1981~2011

| 제 7 권 · 문화유산 |



동두천시 30년사

DONGDUCHEON HISTORY OF 30 YEARS 1981-2011

| 제 7 권 · 문 화 유 산 |

지명유래 / 세거성씨 / 인물 / 금석문 / 고문서 / 문헌자료





逍遙寺東
方化窟

景名
一
寫





● 어유소장군사당



● 경기도 동국지도 부분

醫演軒岐肘後千方皆奏効

儒醫龔雲林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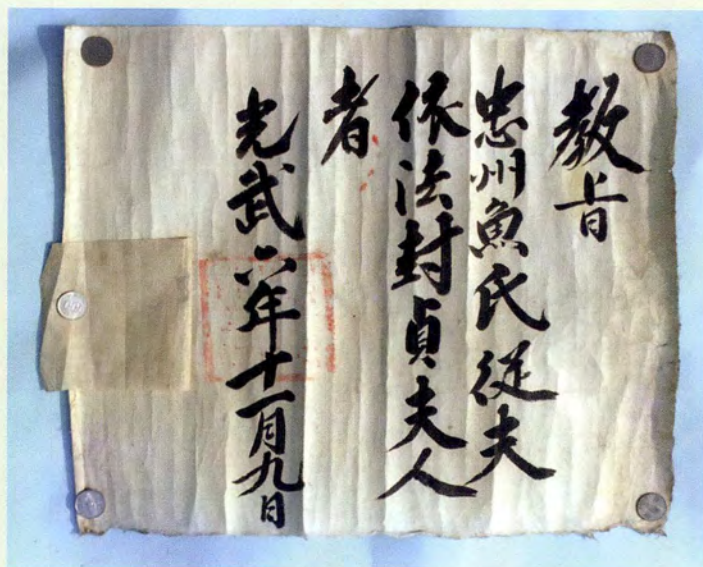
萬曆丁酉歲秋月吉旦周對峰刊行

新編萬病回春集

心同天地人間萬病盡回春

萬病回春序

古昔詰王御極天下熙熙焉如登春
臺此曷繇哉太和融液淪肌理漸腸
腎其時六氣不侵而疢膏不作稟氣
含生之屬靡不百體堅強而相愉佚
於耄耋期頤中堪崖收日遲上壽







光武元年陽九月初二日崔生亥

完發丁謂夢

在明文子殿委他以後買冷楊州

伊侯面而相休

呂个上日

叫卜數則二下云東四標段東睡

冰連得田西山南睡水化福白北睡

雙文回標內底分鹿右人步低

折錢文八百五十品依數得上是

違本支記段他田告並付故不得許

給是遺後背交內以新文記一大事

致費后去分日後若有相與或路別

持此文記告 官本正書

四王崔生亥

完發丁謂夢

呂个上日

伊侯面而相休

在明文子殿委他

以後買冷楊州

叫卜數則二下云

東四標段東睡

冰連得田西山南

睡水化福白北睡

雙文回標內底分

鹿右人步低

折錢文八百五十

品依數得上是

違本支記段他田

八羸賦

全



CONTENTS

7권 목차 『동두천시30년사』는 8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02 화보로 보는 30년 그리고 오늘

제32장 지명 유래

028 제1절 동두천시의 위치

029 제2절 면적과 지형

030 제3절 동두천시의 연혁

031 제4절 행정 연혁

033 제5절 행정구역과 자연부락의 변천사

- 033 1. 이담면(1912~1914)-19개 리, 30개 부락
- 034 2. 이담면(1914~1942)-16개 리, 42개 부락
- 035 3. 이담면(1942~1953)-10개 리, 2개 부락
- 036 4. 이담면(1953~1963)-23개 리, 34개 부락
- 037 5. 동두천읍(1963~1981)-26개 리, 40개 부락
- 038 6. 동두천시(1981~1988)-10개 동, 47개 부락
- 039 7. 동두천시(1988~2009)-행정동 8개 동,
법정동 17개 동, 65개 마을
- 040 8. 하천 현황
- 041 9. 소요동(逍遙洞)
- 041 10. 동두천(東豆川:동두<둔>내<해>)
- 042 11. 동두천동(동편 내 동두천)
- 043 12. 보산동(保山洞)

- 044 13. 결산동(傑山洞)(결미, 결뫼, 결산)
- 046 14. 광암동(廣岩洞)[넓은바위, 너른바위 광암]
- 048 15. 탑동(塔洞, 탑골)
- 054 16. 상패동(上牌洞)
- 059 17. 생연동(生淵洞)
- 061 18. 송내동(松內洞)
- 063 19. 지행동(池杏洞)
- 066 20. 안흥동(安興洞)(안흥골, 안흥리)
- 068 21. 상봉암동(上鳳岩洞)[웃봉바위, 웃새바위,
웃사아위, 상봉암]
- 069 22. 하봉암동(下鳳岩洞)[아랫새바위,
아랫사아위, 하봉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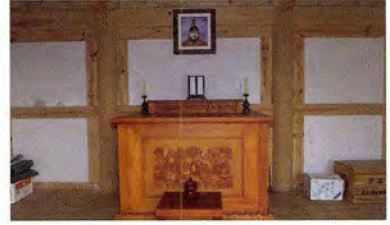
071 제6절 맺는 말

제33장 세거 성씨

080 제1절 동두천 세거 성씨의 개관

- 080 1.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
- 082 2. 동두천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
- 082 3. 자료에 나타나는 동두천 지역의
토성(土姓)들
- 083 4. 『태조실록』에서 「성종실록」까지 사이에
발견되는 양주 지역의 농장 일람
- 083 5. 현지 조사에 나타난 동두천 지역
집성촌의 변화 과정
- 083 6. 동두천 지역의 집성촌의 규모
(강릉 김씨의 경우 1933년 조사)

DONGDUCHEON HISTORY OF 30 YEARS 1981-2011



084 제2절 동두천의 세기 성씨 일람

084	1. 여산 송씨
085	2. 충주(忠州) 어씨(魚氏)
088	3. 함중 어씨
089	4. 죽산 안씨
092	5. 청주(淸州) 한씨(韓氏)
093	6. 청송 심씨
095	7. 강릉 김씨
098	8. 의령 남씨
100	9. 여흥 민씨
102	10. 고령 박씨
104	11. 반남 박씨
106	12. 함양 박씨
107	13. 온양 방씨
109	14. 전주 이씨
115	15. 파평 윤씨
117	16. 해평 윤씨
118	17. 광주 정씨
122	18. 동래 정씨
124	19. 창녕 조씨
126	20. 청풍 김씨
128	21. 선산 김씨
129	22. 김녕 김씨(金寧 金氏)
132	23. 김해 김씨
133	24. 경주 김씨
137	25. 광산 김씨
138	26. 진주 강씨
140	27. 한산 이씨
142	28. 전의 이씨
144	29. 벽진 이씨
146	30. 광주 이씨

148	31. 수성 최씨
151	32. 문화 류씨
152	33. 평해 황씨
154	34. 창원 황씨
157	35. 양천 허씨
159	36. 한양 조씨
161	37. 공주 이씨
162	38. 안동 김씨(구)
164	39. 경주 이씨
167	40. 사천 목씨
169	41. 해주 오씨
171	42. 밀양 박씨
174	43. 남양 홍씨

제34장 인물

제1절 고대

182	1. 근초고왕(?~375)
182	2. 김범문(金梵文, ?~825)
183	3. 소서노(召西奴, 기원전 66년?~기원전 6년?)
183	4. 온조(溫祚)
183	5. 요석공주(瑤石公主)
184	6. 원효(元曉, 617~686)

제2절 고려시대

185	1. 견훤(甄萱 ?~936(고려 태조 19))
185	2.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
186	3. 능현(能玄, 생몰년 미상)

186	4. 이규보(李奎報, 1168~1241 (의종 22~고종28))
187	5. 이인실(李仁實, 1081~1153)
188	6.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

제3절 조선시대

189	1. 김계(金桂)
189	2. 김문기(金文起, 1399~1456)
189	3. 김연경(金演慶, 1543~1591)
190	4. 김육(金陸)
190	5. 김정려(金晶麗)
190	6. 김협(金鉉, 1538~1622)
191	7. 김충렬(金忠烈, 1503~1560)
191	8. 김현(金現, 1557~1637)
191	9. 남을진(南乙珍, ?~?)
192	10. 민신(閔伸, ?~1453)
192	11. 목기선(睦嗜善, 1597~1673)
192	12. 목사흠(睦思欽, 1572~1661)
192	13. 목인각(睦仁珪, 1812~1874)
192	14. 목임형(睦林馨, 1623~1698)
193	15. 목행선(睦行善, 1609~1661)
193	16. 목호룡(睦虎龍, 1684~1724)
193	17. 박수소(朴守素, 1600~1669)
193	18. 박장휘(朴長輝)
194	19. 박주(朴綯, 1623~1690)
194	20. 방륜(方輪, 1464~1534)
194	21. 방희진(方曦進, ?~1177)
194	22.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씨 (尹氏, 1894~1966)
195	23. 신량(申亮, 1596~1663)
195	24. 신벌(申撥, 1523~1616)
196	25. 신여주(申汝柱, 1502~1558)
196	26. 신용개(申用溉, 1463~1519)
196	27. 신익상(申翼相, 1634~1697)
197	28. 신응구(申應渠, 1553~1623)
197	29. 신한(申澣, 1482~1543)
197	30. 어계장(魚季璋)
198	31. 어득해(魚得海)
198	32. 어승진(魚升震)

198	33. 어유소(漁有沼, 1434~1489)
199	34. 울산(蔚山) 박씨(朴氏, 1602~1682)
200	35. 윤충지(尹忠祉)
200	36. 이기조(李基祖, 1803~?)
200	37. 이광식(李宏植)
201	38. 이달준(李達俊, 1585~1669)
201	39. 이만백(李敏白, 생몰년 미상)
201	40. 이상경(李商卿)
201	41. 이상급(李尙偆, 1571~1637)
202	42. 이성신(李省身, 1580~1651)
202	43. 이세진(李世璉, 1669~1749)
203	44. 이세근(李世瑾, 1676~1749)
203	45. 이재(李梓, 1606~1657)
204	46. 이장혁(李瓘赫)
204	47. 이정매(李挺梅, 1698~1756)
204	48. 이정집(李挺輯, 1691~1750)
205	49. 이종건(李鍾建, 1843~1930)
206	50. 이중경(李重庚, 1680~1757)
206	51. 이직간(李直幹)
206	52. 정명호(鄭明湖, 1559~1585)
207	53. 정사호(鄭賜湖, 1553~1616)
207	54. 정순인(鄭純仁)
207	55. 정이주(鄭以周, 1530~1583)
208	56. 정치상(鄭致相, 1658~1722)
208	57. 조극관(趙克寬, ?~1453(단종 1))
209	58. 조종제(趙宗著, 1631~1690)
209	59. 조중려(趙重呂, 1603~1650)
209	60. 조진주(曹進周, 1669~1739)
210	61. 최명(崔瀛)
210	62. 최태식(崔泰錫)
210	63. 허도(許道)
210	64. 허란(許欄)
211	65. 허수(許售, 1564~1624)
211	66. 허재(許磁, 1496~1551(연산군 2~명종 6))
211	67. 홍결(洪潔, 1470~1516)
212	68. 홍극제(洪克濟, 1545~?)
212	69. 홍순로(洪純老, 1416~1476)
212	70. 홍약(洪約, ?~1460)
213	71. 홍언수(洪彦修, 1347~1650)
213	72. 홍진(洪璉, 1595~1654)

213	73. 홍원로(洪元老)
214	74. 홍정로(洪貞老)
214	75. 홍준(洪濬, 1475~1525)
214	76. 홍형로(洪亨老)
214	77. 황계조(黃繼祖)
215	78. 황서(黃瑞, 1514~1569)
215	79. 황선신(黃善身, 1570~1637)
215	80. 황신중(黃愼中, 1561~1627)

제4절 조선시대 효자, 열녀

216	1. 이지운(李祉運, 1606~1672)
217	2. 김진태(金鎭泰, 1835~1894)
217	3. 정석조(鄭錫祚, 1793~1871)
218	4. 안승덕(安承德, 1818~1943)
219	5. 수원 윤씨(水原 尹氏)
219	6. 수성 최씨(隨城 崔氏)
220	7. 외손봉사(外孫奉祀) 350년

제5절 근대

221	1. 강기동(姜基東, 1884~1911)
221	2. 고복돌(高福斗)
221	3. 김병기(金秉氣, 1850~?)
222	4. 김병시(金秉著)
222	5. 김병원(金秉源)
222	6. 김병주(金秉周, 1884~1908)
222	7. 김연성(金演性, 1870~?)
223	8. 목연욱(睦然旭, 1916~1949)
223	9. 목자상(睦子商, 1870~?)
223	10. 박경필(朴慶弼)
224	11. 박영철(朴永喆)
224	12. 박창배(朴彰培)
224	13. 송창근(宋昌根, 1888~?)
224	14. 우병창(禹炳昌, 1866~1952)
225	15. 이금래(李兢來, 1883~?)
225	16. 이은찬(李殷贊, 1878~1909(고종 15~순종 3))
226	17. 유재만(柳在萬, 1882~?)
226	18. 윤인순(尹仁淳, 1880~1909(고종 17~순종 3))

226	19. 이명기(1881~?)
226	20. 이병하
227	21. 전목기(全木基, 1881~?)
227	22. 전순만(全順萬, 1879~?)
227	23. 정두환(鄭斗煥, 1880~?)
228	24. 정용대(鄭用大, 1882~1910)
228	25. 정원이(鄭元伊)
228	26. 정제환(鄭濟煥, 1878~?)
229	27. 정충환(鄭忠煥, 1888~1962)
229	28. 차홍녀(車紅女)
230	29. 추담(秋潭, 1898~1978)
230	30. 추삼만(秋三萬, 1881~?)
231	31. 한원택(韓元澤)
231	32. 홍다니슬라오(1813 ~ 1868)
232	33. 홍몽로(洪夢老, 1786 ~ 1868)
232	34. 홍병준(洪秉俊, 1864~1925)
232	35. 홍성원(1825~1868)
233	36. 홍성국(1811~1867)
233	37. 홍성선(1829~1879)
233	38. 홍선(泓宣, 1905~1979)
234	39. 홍희영(洪喜永, 1881~?)
234	40. 황용호(黃龍浩, 1881~?)
234	41. 김병주(金秉周, 1884~?)
235	42. 이명기(李明基, 1881~?)
235	43. 김병원(金秉源, 1882~?)
235	44. 이병하(李秉夏, 1873~?)
235	45. 김병시(金秉嫻, 1891~?)

제6절 현대

236	1. 민병철(동두천시 상패동 출신)
236	2. 박제철(동두천시 생연2동 출신)
236	3. 신명선(동두천시 생연1동 122 출신)
236	4. 엄복동(1892년(고종 29)~1951년)
237	5. 정지용(鄭芝溶, 1903~1951)
238	6. 차영환(동두천시 생연동 출신) 씨의 가족

제7절 자료

239	1. 역대 경기관찰사 명단
248	2. 일제하 경기도장관

248	3.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249	4. 역대 양주목사 명단
255	5. 선생 이름은 나타나지만 부임 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왕조실록』 등 전거문헌 에도 관련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별도 명단
256	6. 일제하 양주군수 명단
257	7. 양주군수 명단(광복 후에서 동두천시 승격까지)
258	8. 일제강압기 역대 이담면장
258	9. 대한민국 역대 이담면장
259	10. 역대 동두천읍장
259	11. 역대 동두천시장(관선)
260	12. 역대 동두천 시장(민선)
260	13. 역대 부시장 명단 및 재임기간
261	14. 동두천 출신의 각계 인사들

제35장 금석문

270	제1절 신옹구 묘갈명(申膺渠 墓碣銘)
275	제2절 정명호 묘지명(鄭明湖 墓誌銘)
278	제3절 신량 묘비명(申亮 墓碑銘)
282	제4절 조종저 묘지명(趙宗著 墓誌銘)
288	제5절 박수소 묘갈명(朴守素 墓碣銘)
291	제6절 박주 묘갈명(朴綰 墓碣銘)
293	제7절 정석조 묘갈명(鄭錫祚 墓碣銘)
297	제8절 신벌 묘갈명(申撥 墓碣銘)
302	제9절 이지운 묘표(李祉運 墓表)
304	제10절 이세근 묘갈명(李世瑾 墓碣銘)
307	제11절 목행선 묘갈명(睦行善 墓碣銘)
310	제12절 김충렬 묘갈명(金忠烈 墓碣銘)
315	제13절 김협 묘갈명(金峽 墓碣銘)
318	제14절 조중려 묘갈명(趙重呂 墓碣銘)

323	제15절 이중경 묘음기(李重庚 墓陰記)
327	제16절 홍약 신도비명(洪約 神道碑銘)
332	제17절 정사호 신도비명(寅陽湖 神道碑銘)
339	제18절 정이주 비명(鄭以周 碑銘)
344	제19절 정장공 신도비문(貞莊公 神道碑文)
351	제20절 방륜 신도비명(方輪 神道碑銘)
356	제21절 신용개 신도비(申用溉 神道碑)

제36장 고문서

364	제1절 교지 1
365	제2절 교지 2
366	제3절 교지 3
367	제4절 호구대장 1
371	제5절 호구대장 2
375	제6절 호구대장 3
377	제7절 호구대장 4
380	제8절 호구대장 5
383	제9절 호구대장 6
386	제10절 호구대장 7
388	제11절 호구대장 8
391	제12절 고목
393	제13절 시호
395	제14절 재산 분할 기록[分財記]
397	제15절 간찰(簡札)
399	제16절 토지매매문서
401	제17절 成績戶口帳 [호구대장]
403	제18절 진정 및 청원서[白活] 1
405	제19절 진정 및 청원서[白活] 2

407 제20절 동두천의 지도

414 제37장 문헌자료

416 제1절 「고려사」

417 제2절 「조선왕조실록」

- 417 1. 태조와 소요산
423 2. 「세종실록 지리지」
-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
426 3. 사천현
426 4. 어유소

428 제3절 「추강집(秋江集)」

429 제4절 「율곡전서(栗谷全書)」

430 제5절 「졸옹집(拙翁集)」

431 제6절 「창랑집(滄浪集)」

432 제7절 「기언별집(記言別集)」 卷之九

436 제8절 「중암선생문집(重庵先生文集)」 卷之二

437 제9절 「기봉집(騏峯集)」 卷之一

438 제10절 「용헌집(容軒集)」

439 제11절 「편양당집(鞭羊堂集)」

440 제12절 「윤치호 일기(尹致昊日記)」 9卷

444 제13절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

- 444 1. 「개벽」 제5호
447 2. 「동광」 제38호
449 3. 「별건곤」 제33호

452 제14절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卷之十

- 452 1. 詩遊關東錄
452 2. 詩遊關東錄
453 3. 詩遊關東錄

453 4. 詩遊關東錄

454 5. 詩遊關東錄

455 제15절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卷之二十七

456 제16절 일제시대 독립군 체포 보고

- 456 1. 七.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457 2. 문서제목(172) 情報 [暴徒首領 金演性 ·
鄭容大 楊州郡에 告示文配布 件](京畿道)
457 3. 四. 隆熙 二年(1908 · 明治 四一)
459 4. 七.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460 5. 七.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461 6. 七.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462 7. 七.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463 8. 九.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466 제17절 제목 '동두천우편소'
(楊州郡 伊湓面 東豆川)

467 제18절 「삼천리」 제8권 제6호

470 제19절 동두천 소재 회사

- 470 1. 1927년 09월 10일
470 2. 1930년 09월 17일
471 3. 1941년 01월 09일

472 제20절 해방 후 신문 기사

- 472 1. 제목 "5월 중 만여 명의 북조선 동포 월남"
473 2. 제목 "청량리 철도경찰대, 김일성대학 출신
남조선노동당 세포 30여 명 체포"

CONTENTS

전체 목차 『동두천시30년사』는 8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권]

1장 동두천시 소개

제1절 동두천시 소개

2장 동두천시 연혁

제1절 동두천시명 유래

제2절 동두천 관할 영역의 변천

제3절 역사적으로 살펴 본 동두천의 연혁

3장 지리

제1절 자연 환경

제2절 인구

4장 식물

제1절 동두천 식물

5장 언어

제1절 개관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동두천 지역 어휘 체계의 특성

제4절 동두천 지역 언어의 문법체계

제5절 동두천 지역 언어의 음운 체계

제6절 동두천 지역 언어의 특성

6장 동두천 연표

제1절 선사시대

제2절 삼국시대

제3절 고려시대

제4절 조선시대

제5절 대한제국

제6절 한말

제7절 일제강점기

제8절 동두천의 연표 (1945. 8. 15~2010. 11. 30)

7장 동두천의 문화재

제1절 문화재의 개념

제2절 문화재의 종류

제3절 동두천 문화재

[2권]

8장 역사

제1절 선사시대의 동두천

제2절 동두천의 고대사

제3절 삼국시대의 동두천

제4절 통일신라시대의 동두천

제5절 고려시대의 동두천

제6절 조선시대의 동두천

제7절 근대의 동두천

제8절 대한제국기의 동두천

제9절 일제강점기의 동두천

제10절 동두천 현대사

제11절 한국전쟁과 동두천

9장 고고학 자료로 본 동두천

- 제1절 새로 찾은 동두천 고대문화
- 제2절 상봉암동 황희터
- 제3절 안흥동, 담안
- 제4절 사천과 골말(상패동)
- 제5절 안골과 아차노리
- 제6절 지행동 사당골
- 제7절 지행 행단중이골
- 제8절 생연동 못골
- 제9절 생연동 못골과 황매동
- 제10절 안창말
- 제11절 하봉암동의 안말
- 제12절 하봉암동의 동막골
- 제13절 불현동
- 제14절 탑동
- 제15절 걸산동
- 제16절 결론

[3권]

10장 정치

- 제1절 지방자치와 동두천
- 제2절 선거
- 제3절 정당
- 제4절 시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

11장 행정

- 제1절 행정 개황
- 제2절 역대 면·읍·시장
- 제3절 훈·포장 수훈자 및 대통령표창 수상자
- 제4절 '시민의 장' 수상자

- 제5절 동 행정
- 제6절 동두천시의회
- 제7절 부서별 업무
- 제8절 각급 행정·사법기관
- 제9절 동두천시 직제 및 공무원 현황

[4권]

12장 동두천문화원

- 제1절 동두천문화원사(史) 개관
- 제2절 문화사업 지표 및 역점사업 추진방향
- 제3절 문화지향 변천과정 개설(概說)
- 제4절 문화원 기구
- 제5절 향후 주요사업 추진 사항

13장 문화·예술

- 제1절 동두천의 고전문학
- 제2절 동두천의 현대문학
- 제3절 동두천의 문화예술 단체

14장 종교

- 제1절 불교
- 제2절 기독교
- 제3절 천주교
- 제4절 동두천 유림(儒林)의 성장과 변화
- 제5절 기타 종교
- 제6절 동두천의 민속신앙

15장 민속

- 제1절 동두천시의 일생의례
- 제2절 세시풍속
- 제3절 민요
- 제4절 설화
- 제5절 속신어 · 속담 · 수수께끼

[5권]

16장 산업

- 제1절 농업
- 제2절 임업
- 제3절 축산업
- 제4절 공업
- 제5절 광업
- 제6절 금융
- 제7절 상업
- 제8절 서비스업

17장 도시계획

- 제1절 도시계획

18장 건축

- 제1절 주택

19장 도로 · 교통

- 제1절 도로 · 교통

20장 관광

- 제1절 개요
- 제2절 동두천의 관광자원

21장 보건 위생

- 제1절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 제2절 환경위생

22장 의료

- 제1절 우리나라 의료의 변천
- 제2절 동두천시의 의료의 변천
- 제3절 동두천시의 의료현황
- 제4절 동두천시의 의료관련 단체
- 제5절 질병관리

23장 언론

- 제1절 신문
- 제2절 방송

[6권]

24장 사회단체

- 제1절 동두천 시민사회운동 개요
- 제2절 동두천의 시민사회 단체

25장 동두천 새마을운동

- 제1절 새마을운동 전개 과정
- 제2절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26장 보훈

- 제1절 개요
- 제2절 동두천 보훈
- 제3절 동두천 지역 구국 항쟁
- 제4절 보훈 관련 단체
- 제5절 동두천 보훈사업의 미래와 전망

27장 사회복지

- 제1절 사회복지 총설
- 제2절 동두천 지역 사회복지 역사
- 제3절 지역복지
- 제4절 사회복지 성격

28장 묘지

- 제1절 장례(葬禮)의 시원(始原)
- 제2절 우리나라 장례 및 분묘의 변천
- 제3절 동두천의 전통 무덤
- 제4절 동두천 지역의 전통 묘역
- 제5절 산송(山訟)
- 제6절 동두천 묘지의 현황

29장 여성

- 제1절 동두천시 여성 현황
- 제2절 여성의 정치 및 사회 참여
- 제3절 동두천시 여성복지

- 제4절 동두천 여성 관련 단체
- 제5절 동두천과 기지촌
- 제6절 동두천 여성을 위한 발전 방향

30장 교육

- 제1절 교육의 개요
- 제2절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
- 제3절 일제(日帝)의 침탈기
- 제4절 일제 교육의 피해
- 제5절 동두천의 교육
- 제6절 공립유치원
- 제7절 사립유치원
- 제8절 초등학교
- 제9절 중학교
- 제10절 고등학교
- 제11절 대학교
- 제12절 평생교육
- 제13절 대안교육
- 제14절 사회교육
- 제15절 동두천 교육의 과제와 전망

31장 체육

- 제1절 동두천 체육의 과거와 현재
- 제2절 동두천시체육회
- 제3절 동두천시생활체육회

[8권]

38장 동두천의 옛사진

- 제1절 미군기지

- 제2절 초창기 교회
- 제3절 농촌 풍경
- 제4절 동두천 시가지
- 제5절 교육

39장 동두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 제1절 동두천 사람들
- 제2절 동두천 살아가는 모습들
- 제3절 동두천 사람들의 말과 주장
- 제4절 동두천 시장 풍경
- 제5절 동두천 신앙 현장
- 제6절 동두천 배움의 현장
- 제7절 동두천의 노포
- 제8절 동두천 기행문
- 제9절 동두천 쟁점들
- 제10절 동두천의 축제
- 제11절 동두천에서 사라져버린 것들
- 제12절 동두천 사건 · 사고
- 제13절 동두천 무속신앙

동두천시 30년사

DONGDUCHEON HISTORY OF 30 YEARS 1981-2011

제32장

지명 유래

제 1 절 동두천시의 위치

제 2 절 면적과 지형

제 3 절 동두천시의 연혁

제 4 절 행정 연혁

제 5 절 행정구역과 자연부락의 변천사

제 6 절 맺는 말

DONGDUCHEON HISTORY OF





제1절 동두천시의 위치

우리나라의 중북부 서쪽으로 치우친 도시로 소요산과 마차산을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는 포천시와 왕방산이 있으며, 서쪽으로 감악산, 남쪽으로는 칠봉산이 동서로 양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3번 국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은 평화로는 옆을 끼고 달리며 발전의 꿈을 안고 2006년 12월에 경원선 위에 교량을 놓고 개통한 소요산→인천 전동차는 신시가지를 탄생시켰으며, 평일과 주말에는 몇 천, 몇 만 명의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에서 유일하게 북으로 흐르는 신천은 감악산에서 원류가 되어 신암, 신산리, 사기를 거쳐 동두천시로 흘러들고 있다. 시내(市內)를 휘감고 돌아 마차산 끝자락을 적시며 마니커를 거쳐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닿으니 기다리고 있던 한탄강과 만나 임진강으로 흘러들어 서해(西海)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동두천 중심을 함께 지나가는 신천과 전철, 3번 국도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1차 왕자난 때 함흥으로 낙향하며 걷던 길이였다. 그리고 북쪽으로 흔히 펼쳐진 평야에는 연천군이 인접해 있다.

제2절 면적과 지형

동두천시의 총면적은 95.66km²이며 임야가 67.08km²로 전체 면적의 70.6%를 산(山)이 차지하고 있다. 소요산, 왕방산, 칠봉산 등 큰 산들이 많아 동남쪽 산악지대로 평지가 없으며, 북으로 소요산 양지쪽 동두천이 흐르고 있는 옥토는 일찌감치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동두천의 곡창지대 평야였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형성되었지만 땅이 모자라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났다.

동두천에는 동두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산들로 왕방산, 칠봉산, 천보산, 해룡산, 마차산 등이 있다.

특히 소요산은 산세가 수려하고 경기의 소금강이라 일컬을 정도로 유일한 수도권의 관광지로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보고로 잘 활용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하겠다.

제3절 동두천시의 연혁

동두천은 고구려 때 내을매(奈乙買) 또는 내이매(內爾米)라 하여 신라 경덕왕 16년(757) 때 사천현(沙川縣:상패동)으로 승계되었으며, 그 후 견성군(堅城郡:지금의 포천시)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견주(見州)가 양주(楊州:양주시)로 편입되고 견성군의 영현이었던 사천현이 뒤를 이어 양주에 속(屬)하게 되었다. 조선 세조 12년(1466)에 양주가 목(牧)으로 승격되고 방리(方里) 34개 면(面) 중의 하나인 이담면(伊淡面)이 동두천시의 기원이 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7호로 이담면이 양주군 동두천읍(邑)으로 승격되었고, 1973년 7월 1일 법률 제6543호로 포천군 포천읍 탑동(塔洞:3개 리)을 편입하였다.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로 동두천시(市)가 되면서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가 되었다. 1983년 2월 15일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가 편입되어 동두천시는 현재 12개 법정동(法定洞)과 8개 행정동(行政洞)을 관할하고 있다. 동(東)쪽으로는 포천시, 서(西)쪽으로는 양주시 은현면, 남(南)쪽으로는 양주시 회천읍과 북(北)쪽으로는 연천군 청산면과 인접되어 있다.

제4절 행정 연혁

조선 왕조 건국 초기 지방 조직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양주가 목(牧)으로 된 것은 세조 12년(1466)의 일로 그 이전까지 읍격(邑格)에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양주는 태조 3년(1394) 조선 건국 직후 수도가 한성부로 천도됨으로써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되었다가 태조 4년(1395) 이민(吏民)들을 견주(見州)로 옮기고 견주는 양주군으로 개정되었다. 또 3년 뒤에는 양주부(楊州府)로 태종 13년(1413)에는 도호부로 다시 세조 12년(1466) 목으로 승격되고 군제 개편에 따라 진(鎭)이 설치되었다.

한편, 조선시대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에 따라 고려시대부터 속현으로 남아있던 군현이 주현(州縣)으로 승격되거나 인근 군현으로 통폐합되었다. 이 같은 행정 조직의 구분은 인구밀도(人口密度)에 따라 자치적인 면(面), 방(坊), 사(社)를 두었고 그 밑에 리(里), 촌(村:마을, 동네), 동(洞)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조직(地方組織) 편제가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담면(伊淡面)의 지명과 편제도 이때에 이루어졌으며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의 조직 편제로 여러 번 바뀌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7호로 이담면이 양주군 동두천읍(東豆川邑)으로 승격되면서 이담이라는 지명은 없어졌다.

1973년 7월 1일 양주군 조례 제173호에 의하여 광암출장소(廣岩出張所)가 설치(設置)되었으며 그 해에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 포천군 포천면 탑동(塔洞)의 3개 리(三個 里)를 편입하여 구역(區域)이 확대되고 1981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3425호로 시(市)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83년 2월 15일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가 편입되어 상패동이 생겨났으며, 1998년 11월 30일 생연3동과 생연4동이 통합하여 중앙동이란 새로운 동 이름이 되었다. 같은 연월일(1998.11.30) 내행동과 광암동이 통합하여 불현동이 되었고, 소요동과 동안동

이 통합하여 소요동이 되었다.

2007년 5월 14일에는 송내동과 지행동 별판에 신시가지가 조성(造成)되면서 새로운 행정동인 송내동이 탄생되었다. 2011년에 시 승격 30년이 되었으며 30년 동안 10개 동에서 3개 동이 줄어든 7개 동이 되었으며 신시가지가 탄생하여 1개 동을 낳아 다시 8개 동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동두천시는 현재 12개 법정동(法定洞)에 8개의 행정동(行政洞)을 관장(管掌)하고 있다.

제5절 행정구역과 자연부락의 변천사

1912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두천시의 행정구역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담면(1912~1914년) - 19개 리, 30개 부락

1914년 3월 1일 부군면 폐합 시 양주군 중 영근면은 연천군으로, 고(古) 양주면은 고양군으로 편입되고 이담면의 리(里) 편제도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행 정 리	자 연 부 락
松蘿里(一名 서낭댕이)	峨嵋洞(아차노리) 松蘿(서낭댕이)
內洞(안골)	內洞(안골)
杏丹里 (一名 杏壇 又 祠堂谷)	無水洞(무수구미) 杏壇里(一名 祠堂谷)
紙洞(종이골)	紙洞(종이골)
生骨里(산고리)	陵內(능안) 生骨里(산고리)
淵洞(못골)	防築谷
黃梅洞(黃末音)	間谷(새골)
杻山里(싸리말)	윗장거리(一名 비석거리)
廣岩里(넓은바위)	坐起谷(一名 松亭) 基村, 承旨谷(一名 턱거리) 谷末, 內村, 開內(개안), 細目, 넓은바위
傑山里(걸뢰)	德水洞, 陵末, 塔溪巒
保安里(보뚜독이)	濱陽末, 店末, 保安里(보뚜독이)
東豆川里	院址, 東豆川里
嘉亭子里	嘉亭子里
倉洞	倉洞
安興里	陶谷, 外安興, 潭安, 內安興(一名 永進)

上鳳岩里(윗사아위)	쇠둔치, 黃喜垜, 鳳谷(윗사아위)
下鳳岩里(아랫사아위)	鳳岩(아랫사아위)
東幕里	龍淵洞, 東幕谷

2. 이담면(1914~1942년) - 16개 리, 42개 부락

1922년 10월 1일 군치소를 주내면 유양리에서 시둔면(현 의정부시)으로 이전하였다.

행정리	자연부락
松蘿里	서낭댁이, 아차동(아치노리)
內洞	안골
紙杏里	종이골
杏丹里	一名 杏壇里 또는 祠堂谷, 無水洞
生淵里	生骨里(산골리), 陵內(능안)
淵洞	못골, 防築洞
黃梅里	一名 황말음, 間村(셋골)
柎山里	싸리말, 윗장거리(一名 비석거리)
保安里	보뚜독이, 濱陽, 店末, 嘉亭子里
傑山里	陵末, 德水洞, 塔溪鬱
廣岩里	基村, 承旨谷(터거리), 細目, 넓은바위, 坐起谷, 內村, 開安, 谷末
東豆川里	院址, 東豆川里
倉里	창말
安興里	外安興, 陶谷, 潭安, 內安興
上鳳岩	윗사아위, 쇠둔치, 黃喜垜
下鳳岩	아랫사아위, 東幕谷, 龍淵洞

3. 이담면(1942~1953년) - 10개 리, 2개 부락

1942년 양주군의 행정구역은 1읍 16면으로 되었고 이담면은 10개 리로 개편되었다.

행정리	자연부락	비고란
松 內 里	內洞(안골), 松蘿(서낭댕이), 아차동(아차노리)	
紙 杏 里	紙洞(종이골), 杏丹里(杏壇里, 一名 祠堂谷), 無水洞(무수구미)	
生 淵 里	生骨里(산고리), 陵內(능안), 防築洞 淵洞(못골), 黃梅洞(一名 黃末音), 間村(셋골)	
廣 岩 里	넓은바위, 坐起谷(一名 松亭), 內村, 開安, 紐目, 谷末, 基村, 承旨谷(一名 턱거리)	넓은바위, 좌기골, 내촌, 개안 이 4개 부락은 1953년 미군 주둔 으로 소개되어 현재에 이른다.
保 安 里	柎山(싸리말), 보뚜독이, 濱陽末, 店末, 윗장거리(一名 비석거리)	보뚜독이, 빈양말, 점말 등 3개 부락은 1953년 미군 주둔으로 소개되어 현재에 이른다.
傑 山 里	德水洞, 塔溪鬱, 陵末	
東豆川里	院址, 東豆川里, 倉末, 嘉亭子 里	
安 興 里	陶谷, 外安興, 潭安, 內安興 (一名 永進)	
上 鳳 岩	윗사야위, 쇠둔치, 黃喜垆(황희대)	
下 鳳 岩	아랫사야위, 東幕谷, 龍淵洞	

4. 이담면(1953~1963년) - 23개 리, 34개 부락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면사무소 소재지는 동두천리 192번지였는데 9·28 수복 이후 이 지역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복구하지 못하고 1955년 8월에 면사무소 청사를 생연2동 689번지에 신축하고 1968년 11월까지 13년간을 한 곳에 있었다. 1953년 이담면·리 개편은 다음과 같다. 1963년 1월 1일 이담면은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다.

행정리	자연부락	비고란
松 內 里	內洞(안골) 松蘿(서낭댕이) 아차洞(아차노리)	
紙 杏 1 里	종이골	
紙 杏 2 里	杏壇里(一名 祠堂谷) 無水洞(무수구미)	
生 淵 1 里	淵洞(못골) 防築谷, 黃梅洞, 間村(셋골)	
生 淵 2 里	沙洞(모래말)	
生 淵 3 里	御水洞	
生 淵 4 里		
生 淵 5 里		
生 淵 6 里	生骨里(산고리) 陵內(능안)	1963. 11. 5
生 淵 7 里		1964. 12. 5
廣 岩 1 里	承旨谷(一名 턱거리)	
廣 岩 2 里	基村, 谷末, 細目	
保 山 1 里	柎山(싸리말)	1954년 미2사단 비행장 주둔으로 소개되었음
保 山 2 里	윗장거리(一名 비석거리)	
東 豆 川 1 里	院址	
東 豆 川 2 里	倉末	
傑 山 里	德水洞, 塔溪鬱	
安 興 1 里	外安興, 陶谷	
安 興 2 里	潭安, 內安興	
上 鳳 岩 1 里	鳳洞(윗사아위), 黃喜垆	
上 鳳 岩 2 里	쇠둔치	
下 鳳 岩 1 里	鳳岩(아랫사아위)	
下 鳳 岩 2 里	東幕谷, 龍淵洞	

5. 동두천읍(1963~1981년) - 26개 리, 40개 부락

1973년 7월 1일부터는 양주군 조례 제173호에 의하여 광암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73년 7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 포천군 포천면 탑동 3개 리를 편입시켰다. 읍 당시의 행정구역 편제는 다음과 같다.

행 정 리	자 연 부 락
松 內 里	內洞(안골), 松蘿(서낭대이), 峨嵋洞(아차노리)
紙 杏 1 里	紙洞(종이골)
紙 杏 2 里	杏壇里(一名 祠堂谷), 無水洞(무수구미)
生 淵 1 里	淵洞(못골) 防築谷, 黃梅洞, 間村(셋골)
生 淵 2 里	沙洞(모래말)
生 淵 3 里	御水洞
生 淵 4 里	
生 淵 5 里	
生 淵 6 里	生骨里(산고리), 陵內(능안)
生 淵 7 里	
廣 岩 1 里	承旨谷(一名 툃거리)
廣 岩 2 里	基村, 谷末, 細目
保 山 1 里	柎山(싸리말)
保 山 2 里	
傑 山 里	德水洞, 塔溪鬱
東 豆 川 1 里	院址, 嘉亭子里
東 豆 川 2 里	倉末
安 興 1 里	外安興, 陶谷
安 興 2 里	潭安, 內安興
上 鳳 岩 1 里	鳳洞(윗사아위), 黃喜垆
上 鳳 岩 2 里	쇠둔치
下 鳳 岩 1 里	鳳岩(아랫사아위)
下 鳳 岩 2 里	東幕谷, 龍淵洞

행 정 리	자 연 부 락	비고
塔洞 1리	旺方里	1973.7.1부로 抱川郡 抱川面 塔洞 三個 里가 楊州郡 東豆川邑으로 편입
塔洞 2리	銅店	
塔洞 3리	落隅(낭모루), 造山, 섬말, 塔谷(一名 長林)	

6. 동두천시(1981~1988년) - 10개 동, 47개 부락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에 의거 동두천시로 승격되어 당시 9개 동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었던 것이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거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가 편입, 상패동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동 되었다. 그 당시 동별 부락별 행정구역 개편은 다음과 같다.

행 정 동	법 정 동	자연부락의 고유지명	비 고 란
生淵一洞	生 淵 洞	淵洞(못골), 防禦谷, 黃梅洞(黃末音), 間谷(샛골)	
生淵二洞		沙洞(모래말)	
生淵三洞		御水洞	
生淵四洞			
保山洞	保山洞 傑山洞	扭山(싸리말), 德水洞, 塔溪嶺 비석거리(윗장거리)	
內杏洞	松內洞 紙杏洞	松蘿(서낭덩이), 아차洞 (아차노리), 內洞(안골), 祠堂谷(杏壇), 無水洞(무수고미), 紙洞(종이골), 生骨里(산고리), 陵內(능안)	
東安洞	東豆川洞 安興洞	院址, 倉末, 潭安, 陶谷, 外安興, 內安興	
逍遙洞	上鳳岩洞(윗사야 위) 下鳳岩洞(아랫사야 위)	쇠둔치, 黃喜岱(황희대) 東幕洞, 龍淵洞	

廣巖洞	廣岩洞 塔洞	承旨谷(턱거리), 基村, 谷末, 細目, 造山, 塔洞 (一名 長林)섬말, 落隅(남머루), 銅店(통점), 旺方	
上牌洞	上牌洞	南山隅(남산머루), 新村, 沙川里, 仁谷, 間村, 谷村, 釜淵洞(가마소), 정감, 仙谷	1983.2.15 楊州 郡은 현 면에서 本市로 편입

7. 동두천시(1988~2009년) -

행정동 8개 동, 법정동 17개 동, 65개 마을

동두천시의 발전에 획을 긋는 전철화시대가 도래되면서 동두천 곡창지대였던 전농벌과 신내벌에 모두 주택과 상가가 들어차면서 송내·지행의 일부를 합쳐 송내동이 생겨났다.

행정동명	법정동명	옛마을의 이름과 지명
소요동	상봉암동	웃봉바위, 웃새바위, 웃시아위, 쇠둔치
	하봉암동	아랫바위, 내림새바위, 아랫야위, 동막골, 용연동
	동두천동	동편내마을, 원터마을(원대), 창리, 창말, 황새, 빈양마을, 가정자리
	안흥동	빛안흥, 윗안흥, 아랫안흥, 독터골, 담암, 영진
보산동	보산동	보안리, 유산리, 이름을 따서 보산리(동), 보뚝뚜기
	걸산동	걸외능말, 덕수동, 탑개울
중앙동	생연3동	어수마을, 어수물(예전에는 넓은 들에 어수마을 7~8채가 있었음)
	생연4동	신천이 옆으로 흐르고 있어 마을은 없고 논밭뿐이었음
생연1동	생연동	방축골, 못골, 황말음, 샛골
생연2동	생연동	생연2, 3, 4동이 전부 생연동으로 분할한 행정동이며 모랫말이 있다
불현동	송내동	안골, 아치노리, 서낭댕이
	지행동	사당골, 조골, 무수구미(고미)
	광암동	넓은바위, 너븐바위, 광암리, 쇠목, 좌기골, 턱거리
	탑동	기촌, 송지골, 장림, 서말, 조산, 낙우, 동점, 왕방
상패동	상패동	중패리, 하패리, 가마소, 샛골, 골말, 사천리, 선곡, 새말, 인곡, 정감, 남산, 모루
송내동	송내동(一部)	옛마을 이름은 없었으며 동두천의 곡창지대이며 논과 밭이 많아 전답(田畓)을 전농으로 불러 전농벌(뚝) 또는 신천 인쪽에 논밭이 있어 신내벌, 신내뚝이라 불리어 왔다.
	지행동(一部)	

8. 하천 현황

남북통일을 염원(念願)이나 하듯 신천(莘川)은 대한민국에서 유일(唯一)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신천의 발원지(發源地)는 경기의 오악(五嶽)의 하나인 양주시 감악산(紺岳山) 수분지(水分地:물뿌랭이)에서 시작되었다.

감악산에서 흘러내린 하천은 신암리 마을을 거쳐 신산리 회천읍으로 흘러 동두천시 송내동 담안으로 유입되어 강화천(江華川)이 되어 북류하며 무궁화유지 방향에서 상패천(上牌川) 동류하며 입수되고 왕방산에서 서쪽 미 2사단 영내로 흐르는 동두천천(東豆川)은 신천의 중간 줄기인 울탄천(栗灘川)과 합류되어 상봉암, 하봉암을 지나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학담마을을 지나 한탄강으로 흘러들어 큰 강을 이룬다.

일련 번호	하 천 명	연장		연장 (km)	폭 (m)	관 할 행 정 구 역	
		시 점	종 점			관 할 동	통(마을)
1	신천(강화천)	양주-동두천	연천	13.3	140	시관할	
2	동두천(준)	탑동 왕방리	보산동58통	14.1	14	광암동, 보산동	11.5통
3	울탄천	동두천	연천	12.3	150	시관할	
4	상패천(준)	양주, 은현 시 계	11통무궁화유 지	3.85	31	상패동	11통
5	지행천(소)	내행, 종이골, 행단	생연2동 모래 밭	207	31	상패동	11통
6	생골천()	내행, 생골	"	0.85	5.9	내행, 생연2	2,12,1통
7	송내천()	내행, 안골	내행7통	2.75	6	내행동	7통
8	연동천()	생연1동, 연동	연동	1.24	4.8	생연1동	8통
9	황매천()	생연1동, 황매 동	황매동	0.56	3.6	"	6통
10	안흥천()	동안동 윗안흥	10통	4.5	1.0	동안동	1~10통
11	빈양천()	동안동 5통	5통	1.24	1.6	"	5통
12	소요천()	소요 1통	2통	2.68	7.5	소요동	1통
13	봉동천()	소요 3통	3통	1.78	5.6	"	3통
14	요골천()	소요 5통	4통	2.88	6	"	5통
15	복골천()	소요 5통	6통	0.82	7.3	"	6통
16	말뚝천()	소요 4통	4통	1.82	10	"	4통
17	세목천()	광암세목	좌기동	3	14	"	6통
18	왕방천()	탑동, 왕방리	왕방리	0.64	7.8	"	11통
19	탐골천()	탑동, 탐골	조산	4.52	10	"	8,9통

20	탑개천(°)	덕수동, 결산	점말	1.5	6	보산동	결산동
계				73.1			

9. 소요동(逍遙洞)

소요동은 동두천시의 최북단에 있으며, 예전에 이담면(伊淡面) 면소재지 행정중심지였던 동두천동과 안흥동 2개의 법정동(法定洞)으로 편성(編成)되었으며 그 후 상봉암동과 하봉암동을 합쳐서 4개의 법정동이 소요동이란 행정동이 되었다. 소요동이란 본래 '쇠둔치'(소요둔치)라 하여 동두천시 하류에 있어 장마철이면 둔덕(언덕)진 곳까지 물에 잠기는 침수 지역이었다.시(市) 승격과 더불어 초



동막골

기(初期)에는 동두천동과 안흥동의 첫 머리 약자(略子:반자)를 따서 동안동 동사무소로 행정 일을 맡아 오다 주민 5,000명 미만의 동 인구 폐합에 따라 소요동 양측 주민들의 의결 결정에 의해 소요동이라고 행정 동명을 정(定)한 것이다.

동막골은 소요산(逍遙山) 자락의 일부로서 마을 전체가 산동성으로 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며 동쪽이 산으로 막힌 골짜기라는 뜻에서 동막골(東幕谷)이라고 불리었으며 마을 주민은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10. 동두천(東豆川:동두<둔>내<해>)

동두천은 본래 마을 이름이 아니었다. 내천(內川) 이름이었다. 동쪽에 있는 결산천, 세목천, 왕방천(장림천)의 산골에서 가정자리마을, 좌기마을, 빈양마을이 있는 동두천천(東豆川)으로 흘러 내렸다. 당시(當時) 마을 벌판 밭에는 농사를 주로 많이 지었으며, 물이 동쪽에서 내려온다 하여 동녘 동(東)자에 들에 콩을 많이 심어 콩 두(豆)자를 붙여 동두천이 되었다는 설(說)로 전해오고

있다. 아무튼 동쪽에 근원(根源)을 두고 냇물이 흐르고 있어 붙여진 지명(地名)이며, 6·25한국전쟁까지만 해도 ‘동둔해’란 이름으로 불려져 왔다. (동두내로 표기된 곳도 있음) 그러던 것이 지금은 동두천으로 표기되어 예전에는 머리 두(頭)로 써오다가 콩 두(豆)로 바뀌었다. 머리 두(頭)자는 문헌(文獻)에도 고증(考證)되어 있다.

11. 동두천동(동편 내 동두천)

본래 양주군 이담면(동두천시) 내[川]가 동편에서 흘러오므로 동편 내 동두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정자, 창리(창말), 원터와 유산리, 보안리, 안흥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동두천리(동)라 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 동두천시로 승격되면서 동안동(東安洞)으로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었다.

동두천 냇가 이름【마을】동두천동

동편내【마을】동두천동

이담원터(伊淡院址)【마을】동두천동 관리들이 출장 중 유숙(留宿)하던 곳

원대(院岱)【마을】→원터(院址)

원터(원대)【마을】창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

원(院)은 고려와 조선시대 관리(官吏)들의 출장에 유숙하는 숙소(宿所)를 뜻하며, 공무(公務)로 출장 오는 공무원들의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하여 날이 저물면 하룻밤 묵고 가는 주막집 역할을 하였다. 원은 한때 크게 번성하였으나 국한된 이용자로 인하여 조선 후기에는 점차 쇠퇴하여 갔다.

동두천 240번지 창말 고갯마루에서 북으로 연천의 넓은 벌이 보이며, 연천에서 철원, 원산, 함흥으로 이어져 태조 이성계가 원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설도 있다. 남으로는 양주목에 의정부(議政府·최고 행정 관청)의 길로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이어지던 곳이 원터의 길이었다.

이담못—동두천은 예전부터 “세상에 물이 말라도 동두천은 물이 풍부하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관리(官吏)가 출장을 가다 이곳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기이하게도 물이 풍부하여 사방을 살펴보고았는데 각 산골 마을의 내천(內川)이 많아 저이(伊)에 물 모양 담(淡) 또는 깊을 담(潭)이라 하여 이름을 붙여 이담으로 불러 내려오기도 했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군사 요충지로서 동편에는 포천, 서편에는 파주, 남편에는 양주, 북편에는 연천, 철원이 있어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원에서 북향 1km 지점에는 북창(北倉)이 있었다. 이곳에 설치된 이담원은 자좌오향으로 자리잡았으며 그 규모를 살펴보면 초석과 기와의 조각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백여 칸은 된 듯하다. 그러나 200여 년 전에 원이 폐지되었으며, 원터란 지명만 전해올 뿐 지금은 주택지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창리(倉里)【마을】→창말(고개)

창말(倉末)【마을】→동두천 북쪽 길목에 있는 마을

임진왜란(1592) 후 재정상 곤란으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이원익(1547~1634)의 주장에 따라 공납물(公納物:백성들에게 받아들이는 쌀, 잡곡)을 쌓아둔 창고의 크기는 좌기청 4칸, 창사(倉舍:물건 쌓아 놓는 집, 건물) 30칸 등이 있었다. 그 후 창고가 있던 마을이라 하여 <창말>로 불러 전해지고 있다. 창고가 있던 자리는 6·25한국전쟁 전에는 동두천초등학교와 이담면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지금은 미 2사단 캠프 캐슬 공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황새【마을】 소요산 줄기 따라 북쪽의 야산(동산)이 있는 곳으로 소나무가 우거져 황새들이 둥지를 튼 서식지라서 황새마을로 불러왔다. 이 마을은 조선 21대 왕 영조(1724~1776) 때 대사헌을 지낸 이세근(李世瑾)이 뿌리를 내렸던 곳으로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온 마을이었다. 마을 앞에는 동두천의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노송(老松)이 많았으며, 사대부들 간에 매사냥도 이곳에서 있었다. 북으로 수려한 소요산이 있고 사냥철이면 양주목사가 최북단인 이담면을 시찰하였다고 한다. 물가 빈(濱)자에 별 양(陽)자를 써서 물가 비치는 태양이 투명하게 보인다 하여 빈양마을이라 하였다.

12. 보산동(保山洞)

본래 양주군 이담면(동두천시)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

두천리, 보안리, 뉴산리, 황매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보안과 뉴산의 이름을 따서 행정동이 되었다.

조상대대(代代)로 이어져 웅기중기 모여 살던 평온한 마을은 6·25한국전쟁 후 동두천의 중심지에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마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곳에는 미국을 연상시키는 군부대 건물과 장비들로 차 있다. 미 2사단 정문 앞 3번 국도와 나란히 달리던 경원선 철도 위로 고가철도가 세워지고 그 아래 1950~1970년대에 번창하여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던 상가의 건물은 모두 철거되어 전철 완공 후 새롭게 상가를 신축하고 장사를 하지만 예전만 못하다. 이라크로 떠난 미군이 없는 상가는 쓸쓸하기만 하다.

보뚜뚜기(보안)【마을】빈양 서쪽에 있는 마을 보둔과 안양(保屯과 安陽) 두 마을이 합하여 첫 글자를 따서 보안이라고 하였다.

보안【마을】보뚜뚜기, 보뚝이, 보뚝뚜기 조선시대부터 가뭄을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놓기 위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수리시설(水利施設)인 축대형식을 가로질러 보(淤)를 만들어 놓고 보뚝이, 보뚝뚜기로 불려져 왔다. 보안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한자화한 것이다.

솔 모퉁이(송헌:松軒)【마을】보산동 뒷산 산길 돌아가는 곳에 있는 마을

능골【마을】보산동 선비의 묘지를 높여 불러 능골이라 하였음

송헌【마을】보산동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아 학이 많이 날아들었다.

싸리말(뉴산:柎山)【마을】보안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

뉴산【마을】싸리말, 싸리산, 싸리마을(柎村)

싸리산은 보산동 동쪽에 위치한 산이다. 싸리산 아래 싸리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하여 싸리울은 먼 옛날부터 강릉 김씨(江陵 金氏)가 터를 잡고 자손대대로 살아오며 번성하여 동두천의 대표 성씨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3. 결산동(傑山洞)(걸미, 걸외, 걸산)

양주군 이담면(동두천시)의 지역으로서 소요산(도산천) 아래 골짜기로 걸미 또는 결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능말, 점말, 탑개울, 덕수동과 보안리, 광암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결산리(동)라 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보산동 관할이 되었다. 걸피는 능말(陵末), 덕수동(德

水洞)과 함께 1개 법정동을 이루었으나 미군의 주둔으로 민가 마을은 없어지고 보산동이란 행정동에 편입되었다. 소요산 웅봉을 등에 업고 동천(東川)물이 옆으로 흘러 산간지대에 형성된 아늑한 풍치의 사지(寺地)와 탑지(塔地)는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고 구전되어 온 것으로 미루어 볼때 불교문화가 융성하던 고려 때부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소요산 양 날개로 포근히 감싸주고 있는 소요산 남록(南麓)을 가리켜 호걸다운 뒤편[山]라 하여 걸뒤편(傑山)라고 이름을 붙였다. 일설에 의하면 풍수지리설의 산수(山水)가 수려하고 소요산의 정기를 받아 인걸(人傑:人材)이 태어날 수 있는 지형이라는 데서 유래한다는 설이 있다. 10개의 자연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교통의 불편으로 모두가 떠나고 2개 마을만 남아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간촌(間村)【마을】→새골

걸미【마을】걸산동

곰의-골【골】걸산동에 있는 골짜기

걸산→걸뒤편【마을】(傑山), 인걸(人傑), 인재(人材)

굴 바위(바위) 걸산동에 있는 바위. 굴이 있다고 함

너븐바위(마을) 너븐바위가 있는 마을

너븐바위(바위) 걸산동에 있는 너븐바위

교통 : 동두천의 섬 마을로 통행이 가능한 길은 생연1동 연못골을 지나 고개를 넘어 미군부대 러비장을 경유해 굽이굽이 산비탈 소릿길을 따라 들어가야만 하였다. 자동차로 통행을 하려면 미 2사단 영내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패스포트(Passport:통행증)가 있어야 가능하다.

능골(陵村)(능촌마을)【마을】걸미 남서쪽에 있는 마을

조선 선조(宣祖, 14대, 1567~1608) 때 명필인 한성부윤(漢城府尹) 김협(金鉉)은 경주 사람으로 그의 후손들이 김협의 묘를 가리켜 능(陵)으로 높여서 부른 데서 유래되어 능말(陵末), 능촌(陵村)이라 불려지고 있다.

능촌【마을】능동(陵洞)마을 능골, 능말, 능촌, 능동

덕수-네미(덕수동:德水洞)【마을】걸산 남서쪽에 있는 마을

① 덕수동(마을) 덕수네미(德水內未)

② 소요산 남서쪽으로 흐르는 계곡의 울창한 숲과 샘솟는 물은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물이 부족한 이웃마을까지 농사짓는 데 도움을 주었다.

농사에 기본인 수로를 터주어 수덕(水德)물을 내려주는 덕을 베풀었다 하여 덕수(德水)말 또는 마을로 전해오고 있다.

걸산동에서 또는 탑개울에서 포천군 청산면 덕둔리 열두 개울(열두 구비) 산안으로 가는 산안고개

선바위【바위】걸산리에서 서있는 바위

웃말【마을】걸미 위쪽에 있는 마을

자기울(자하동)【골】걸산에서 있는 골짜기

자하동(紫霞洞)【마을】→ 탑개울

숙저-골【골】걸산리에 있는 골짜기

술청바위【바위】걸산리에 있는 바위

점말(점촌)【마을】능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기와점이 있었다.

점촌(店村), 점말(店末)은 조선 초기부터 쇠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一間, 一칸) 풀무를 놓고 시우쇠를 다루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이었다. 이곳에 주막(酒幕)이 있어 보부상, 장돌뱅이들이 연장을 받아 팔기 위해 점말로 모여들었다. 1945년까지 이어져 왔으나 지금은 미군부대로 인하여 점촌마을까지 1950년 6·25한국전쟁으로 없어져 그 뒤에 미군 군장비만 쌓여 있다.

14. 광암동(廣岩洞)【넓은바위, 너른바위 광암】

양주군 이담면(동두천시)의 지역으로 넓은 바위가 있으므로 광암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쇠목, 좌기골, 덕거리를 병합하여 광암리(洞)라 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 동계 실시에 따라 탑동을 합하여 광암동으로 통합하였다.

덕거리고개【언덕】마차를 끄는 말의 턱이 고개턱 땅에 닿았다 하여 생긴 말로써 높은 고개를 뜻함

광암골【마을】덕거리 동쪽에 있는 마을

개안【마을】광암동에 있는 마을

골말【마을】광암동에 있는 마을

너른 바위【마을】광암동

넓은 바위【마을】광암동

뒷물내【내】자라물

물안굴【골】물이 많다는 골짜기

자라물(뒷물)【내】너븐바위 뒤쪽에 흐르는 물

기촌(基村)【마을】쇠목

새목고개【고개】넘어지고개. 고개가 가파른데 사람들이 자주 넘어져서 생겨난 이름

부처고개【고개】턱거리에서 생연 삼거리로 가는 고개

송정(松亭)【마을】턱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 좌기골

송정동산(松亭洞山) : 1467년(세조 13년) 길주(吉州)의 호족 이시애(李施愛)가 지방 세력으로 난(亂)을 일으키자 정장공 어유소 장군이 평정하여 큰 공을 세웠다. 훗날 성종(成宗)은 정장공의 묘역을 성역화(聖域化)하여 높은 공적을 기리고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좌기골【座起洞】【마을】예성군 어유소 장군(1434~1489)이 용맹스런 기질을 타고난 이곳에서 성종(1457~1494)이 행차하여 북벌에 관한 이야기를 마주 앉아 나누었다 하여 자리 좌(座), 일어날 기(起) 좌기골이라 함

송정벌【들】송제 옆에 있는 들

내촌(內村) 좌기골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1950년 6·25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군이 영구히 주둔하고 있어 60년 전에 없어졌다. 내반(內班) 동네로 불려오던 이 마을은 광주(廣州) 이씨가 300년 살아오던 곳이었다.

궁기(弓起)골【골짜기】또는 궁종(弓宗)골 : 어유소 장군이 임금 앞에서 높이 나는 솔개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하여 생겨난 장소로 전해오고 있다.

매산【산】매 사냥을 하던 봉우리

승지골(承旨谷)【마을】예전에 벼슬을 지낸 황서가 태어난 곳

기촌(基村)【마을】(턱거리)

구들장(一짚)【골】겹겹이 쌓여있는 넓은 돌, 방골 방고래 위에 깔아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구들돌. 턱거리 남쪽산에 산재해 있었음

구들돌(一돌) 구들장

턱거리는 옛 지명이 승지골(承旨谷)이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 11대 중종(中宗:1488~1544) 때 충청, 전라, 경상도관찰사와 도승지를 지낸 황서가 태어나 성장한 마을이라 하여 승지골로 전해오다 1914년 일제하에서 행정구역 개편

때 기촌(턱거리)으로 되었다.

기촌은 1945년 광복의 해부터 터기(基) 뜻인 터지(地와 동음(同音))의 거리 터(街地)란 말의 뜻이 합쳐져 턱거리로 불려졌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군을 대상으로 유흥업소가 생겨나고 주택이 늘어나면서 소도시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턱거리란 마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도 광암동이란 이름보다 턱거리로 기억되고 있다.

15. 탑동(塔洞, 탑골)

본래 포천군 서면의 지역으로 탑골 또는 탑동이라 하였는데 탑동리라 하였다가 1973년 동두천읍(시)에 편입되고 1981년 시(市)로 승격되는 동(洞)제 실시에 따라 광암동으로 있다가 내행동으로 행정동이 되어 1998년 11월 30일 불현동회의 관할이 되었다.



낙모루

뒷골【마을】탑골 뒤쪽에 있는 마을

건너말【마을】탑동 건너쪽에 있는 마을

못 아래【들】탑동에 있는 들 위에 연못이 있었음

검은골【골】탐동이 있는 골짜기 숲이 우거져 검게 보임
 벼락바위【바위】탐동에 있는 바위 벼락을 맞아 깨졌음
 사그막【골】탐동에 있는 골짜기 사기그릇을 구웠음
 쇠목【마을】좁고 긴 골짜기(골)
 쇠목바위【바위】소머리 닮은 바위. 쇠목 들어가는 내천에 있음
 울목동(栗木洞) 쇠목마을 밤나무골. 산림이 우거지듯 밤나무가 많았음
 밤나무(谷)【마을】쇠목
 절골(쇠목)【마을】유명한 사찰(寺刹)에 고승(高僧)들이 불경을 연구했다.
 건너말【마을】왕방천 건너에 있는 마을

조선 명종(明宗) 13대(1545~1567) 양주의 백정(白丁:소, 돼지를 잡는 사람)이자 협도(俠盜:대장부다운 호탕한 기상)의 도둑으로 유명한 임격정(林臣正)이 양주에서 칠봉산, 왕방산을 타고 출몰(出沒)하여 산세가 험한 긴 골짜기 쇠목을 은거지(隱居地)로 포천, 연천, 철원 등지로 다니며 활동하였다. 쇠목을 마을 입구에 이루기(용이 되려다 못되고 물 속에 산다는 큰 구렁이를 이르는 말)가 살았다는 소(沼:연못)가 있었다. 또 다른 설은 이 연못에 커다란 이루기가 누런 황소를 잡아 지금도 비가 오면 황소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쇠목 입구에 세웠다)

쇠목 높은 언덕 천 년 고찰(古刹)이라는 절골 위에는 백운폭포수가 시원스럽게 여름철 피서객을 맞이하고 있다. 중요문화재는 1925년~1930년경 일본인들에 의해 도굴(盜掘)되었다. 쇠목의 발굴 현장에 가끔 나타나는 유물로 보아 천

여 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골말(광암동) 산골 마을

외부인골(골말)【마을】젊은 부인(婦人:며느리)골 마을

광암동마을은 인조 때(仁祖, 16대, 재위 1623~1649), (인조 14년)~1637(인조 15년) 청태종(淸太宗)이 침입하여 일어난 우리나라와 중국의 청나라 사이에 싸움은 병자년(丙子年)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정축년(丁丑年)에 끝났다. 당시 병지참지 이상급 배위인 울산 박씨가 난리를 피해 이곳에 정착하여 외명부(外命婦) 서열이던 부인(婦人)이 마을을 돌보았다 하여 부인골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탐동석불(塔洞石佛)【부처】이 장림골 큰골짜기에 있음

나한골【마을】화전민이 살던 곳. 나한대 중턱에 화전밭이 있었음

회암사 암자지(庵子地)【절】윗 장림마을 뒤편에 있었음

탐동【장승촌】장승이 있는 마을

광암교【다리】탐동 가는 왕방천 위에 새로 놓은 4차선 다리

낙우(落隅) 동구밖 입구 탐동

조산【마을】낙우 서남쪽에 있는 마을

조산(造山)【마을】



조산마을

조산마을은 토종꿀과 천마를 생산하기도 하며, 한여름에는 장림계곡이 무더위를 식혀주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주민은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기로 정평이 나 있으며 조산이라는 마을 명칭은 1637년 충의교위로 있던 이달준

이 죽자 묘를 이곳에 썼는데 한 지사(地師)가 말하기를 묘 앞사이 허전하면 후손들이 가난하고 번창하지 못하니 앞에 흙을 돋우어 작은 봉을 만들면 후손들이 번창하고 부(富)를 누린다고 하여 후손들이 묘 앞에 작은 산을 만들어 놓고 조산(造山)이라 불렀다.

내림산(內霖山)【마을】장마철에 떠내려 온 산

사기막골【마을】조선 초기부터 자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다. 그곳을 사기막골로 불렀음

동산【마을】마을 앞에 자그마한 산, 조산

동산소(同山所) 마을 안에 두 집안의 무덤을 같이 씀

설화에 의하면 충의교위(忠毅校尉) 이달준(李達俊:전주인)이 세상을 뜨자 조산 뒷산에 묘를 썼는데 풍수설에 의해 지관이 앞이 확 트여 자손과 재물이 빠져 나간다고 하여 신라왕릉을 닮은 조그마한 산을 만들어 놓았다. 또 한 설은 한 해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 큰 산에 붙어있는 산이 떠내려 와 이곳에 멈추니 장맛비가 만들어 놓았다 하여 지을 조(造)자를 써서 조산(造山) 또는 동오리산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건너말【마을】탐골 건너 쪽에 있는 마을

낙모루(낙우樂隅)【마을】→낙모루

장승길【거리】낙모루 밖에 장승을 세워 마을의 안녕을 빌며 치성을 드렸다고 함
회암사 암자터(檜岩寺 庵子址) 탐동 뒤편에 회암사 암자의 한곳

검은골【탐동】골짜기 숲이 우거져 검게 보임

고인돌【바위】탐동 계단식 논 위에 있음

낭바위【바위】낭떠러지 같은 가파른 바위

논위턱【들】탐동에 있는 들. 턱이 진 위에 논이 있음

탐동 고인돌【분묘】탐동마을 발 한가운데 있음

돛내미벌【마을】탐동에 있는 들

뒤골【마을】탐동에 있는 들 위에 못이 있었음

벼락바위【바위】탐동에 있는 바위. 벼락 맞아 깨졌음

사그막골【골】탐동에 있는 가마터. 골짜기. 사기를 구웠음. 가마터

쇠매기고개(쇠목고개) 장림 동북쪽에 있는 고개

쇠목고개(쇠매기고개)

쇠목교【다리】턱거리에서 쇠목 가는 왕방천 위에 새로 놓은 다리
섬말【마을】탐동 변두리에 있는 마을. 섬 같이 생겼음



동점마을

마을 주민이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동점(銅店)마을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李之函) 선생이 지었다는 향토유적 11호 동점마을 암각문이 있다. 오행설에서 유래하는 이 암각문은 동점마을이 한반도의 중심지이며, 가장 좋은 길지(吉地)로서 잡귀를 물리치고 무병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라 한다. 또한 세조~성종 대의 탁월한 무인 어유소(魚有沼, 1434~1489) 장군의 사당이 있는 마을이며,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많은 피서객이 찾는 탐동(塔洞)계곡이 일품이다.

숨배골【골】탐동에 있는 골짜기
안짜리【들】탐골 안쪽에 있는 들
피나무골【골】탐동골짜기 피나무가 있었음
왕방동(旺方洞)【마을】왕방리
왕방이(왕뱅이)【마을】동점 동쪽 위에 있는 마을. 왕방산 도산천 아래
원터골【골】탐동에 있는 골짜기
아들바위【바위】왕뱅이 마을→남근(男根)같이 생겼음

거북바위【바위】왕뱅이 마을 거북이등같이 생겼음
 임경바위【바위】탐동에 있는 바위
 낙우마을사지(寺址) : 탐골, 절골이라 함
 장승거리【길】탐동에 있는 길
 절골【곡】탐동이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음
 사기막골【가마터】질그릇 자기를 굽던 가마터. 탐동 아래 마을에 있었음
 탐동석불(石佛)【좌상】장림 윗마을에 있음
 지피물고개【고기】왕뱅이에서 포천군 신북면 양곡리 지피물로 가는 고개
 동점(銅店)【마을】장림 동쪽에 있는 마을
 암각문(탐동) : 동점마을 내천에 있음
 통지미(동점)【마을】통쇠점이 있었음
 석적(石積)【돌탑】동점마을 입구에 있음
 통쇠광산(광)【鑛山】: 구리를 캐내는 광산. 동점마을 입구에 있었음
 주막점(酒幕店)【주막집】광산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숙식 제공하던 곳



순정효황후의 생가터

생가(生家)【마을】통지미 조선 순종(純宗) 1874년 대한제국 순종황제의 황후
 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 씨(尹氏)의 생가 터【生家址】가 있던 곳
 민초(民草), 민촌(民村) 음식점 자리
 사당골(祠堂谷) 동점마을 예성군 정장공 어유소 장군의 제단(祭壇)이 모셔져
 있는 곳. 어유소는 세조(世祖)~성종(性宗) 때 무장(武將)으로 이름을 떨친 장군

16. 상패동(上牌洞)

본래 양주군 현내면의 지역으로 사천현(沙川縣)이 있었으므로 상패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패리, 하패리라 하던 곳을 1965년 1월 1일 상패 1·2·3리로 분리하였으며,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해 1983년 2월 15일 양주군 은현면에 속해 있던 상패리가 동두천시 상패동으로 행정동이 폐합되었다.

자연마을로 상패, 사천, 정감, [가마소(釜谷)], [셋골(間村)], [골말(谷末)], [남산모루(南山隅)], [선곡(仙谷)], [새말(新村)], [인사적골(仁谷)] 마을들이 있다.

가마소(부연)【마을】새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 연못이 있었음
가마소고개【고개】가마소에서 골말로 가는 고개



가마소마을

가마소마을: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가마소마을은 마을 입구에 가마솥 모양의 큰 연못(沼)이 있었는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는 적이 없어 이를 귀중히 여겨 마을 이름을 가마소라 했다. 마을에는 부처골, 행장과녁터, 신주터 등이 있으며, 주민들은 무병장수하며 인심이 좋은 마을에 토지가 비옥하여 연중 배추, 열무 등 엽채류를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그림의 아치형 기둥은 벼가 무르익는 모습을 모티브로 하여 표현, 하부 기둥은 풍요롭고 진취적인 사천마을의 기상을 표현하였다.

갈매지【마을】골말에서 동두천동으로 가는 고개

곡촌(谷村)【마을】골말

사천관아지(官衙址) : 죄지인을 다스리는 집 관터



사천마을

사천마을: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사천마을은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던 민신(閔伸), 조극관(趙克寬), 김문기(金文起) 등 세 충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호패비(戶牌碑)를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삼충단(향토유적 제9호)이 소재한 마을이다. 제10대, 제12대 국회의원이 배출된 마을이며, 마을청년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잔치를 베풀어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효'(孝)의 마을이기도 하다.

관터(인곡, 인서, 적골)【마을】사천 동쪽에 있는 마을. 어질고 덕망이 있는 관인이 살았다고 함

광리【마을】상패동에 있는 마을

군개【들】상패동에 있는 뜰

김성골【골】상패동에 있는 골짜기. 짐승이 많았음

남산【마을】상패남쪽에 있는 마을

남산모루【마을】남산 모퉁이에 있는 마을

남산모루다리【다리】남산모루에 있는 다리

마고개【고개】새말에서 동두천동으로 가는 고개

마켓(Market)【마을】남산모루 북쪽 마을. 미군 공병대 주둔으로 마을이 생겼음

배봉재【산】상패동에 있는 마을

멀미【들】상패동에 있는 들
 박가모루【마을】상패동에 있는 마을. 집집마다 박을 심어 초가지붕에 올렸다 함
 부연(釜淵)【마을】→가마소 관아터[官衙址] 마을. 관아터로 불리우고 있음
 사천(沙川)[새천]【마을】가마소 서북쪽에 있는 마을
 상패【마을】→상패동 사천현(沙川縣)이 있었음
 상패동 석비(石碑) 경계비 : 옛날 선비들이 사냥 왔다가 하마(下馬)했다가 다시 말을 타고 갔다고 함
 상패 큰도로【길】상패동에 있는 큰 길
 새말(송현, 신촌)【마을】사천 동쪽에 새로 된 마을. 소나무가 많았음
 새천【마을】→사천
 골말【마을】정감골짜기에 있는 마을
 새터【마을】상패동의 새로 된 마을
 샘들【들】상패동에 있는 들. 샘이 있었음
 미동(彌洞)【마을】셋골마을 북서쪽에 있음
 셋말【마을】골말과 정감 사이에 있는 마을. 셋골[間村]
 서낭당골(선곡)【마을】가마소 동북쪽에 있는 마을. 서낭당이 있었음
 선곡(仙谷)【마을】서낭당이 있었음



새말마을

새말마을 : 1700년대부터 양천 허씨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며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으로 새말이라 불렀다. 130세대 150여 명이 모여 살고, 매년 마을청년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노인잔치를 베풀어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효'(孝)의 마

을이며, 2005년 9월 장수 어르신들이 많아 동두천시로부터 장수마을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선곡·인곡마을

선곡·인곡마을 : 예부터 신선이 사는 동네 또는 어진 선비가 모여 사는 마을이라 하여 선곡·인곡이라 불렸다. 50세대 100여 명이 모여 살고, 매년 마을 청년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노인잔치를 베풀어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효'(孝)의 마을이며, 2005년 9월에는 장수 어르신들이 많아 동두천시로부터 장수마을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송현(淞峴)【마을】→새말

인골(仁谷)【마을】고려 때 어진 선비가 살았다 하여 인골이라 함

신촌(新村)【마을】→새말

부군돌【돌】마을 부근에 있는 부군돌이라 하며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함

아래광리【마을】광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

아랫사천【마을】사천 아래쪽에 있는 마을

옥녀봉【산】상패동에 있는 산

웃광리【마을】광리 위쪽에 있는 마을

웃사천【마을】사천 위쪽에 있는 마을

인곡(仁谷)【마을】관터

돌미륵【부처】인곡마을 뒤 골말 언덕에 있음
 인서저적골【마을】관터
 자근개【내】【개울】가마소 북쪽에 흐르는 작은 내
 작은 골【골】상패동에 있는 작은 골짜기
 작은 매봉재【산】매봉재의 작은 산



정감·골말마을

정감【井甘】【마을】골말 북쪽에 있는 마을. 약수물이 있던 곳
 정감고개【고개】정감에서 가마소로 가는 고개
 벌말【마을】상패동 넓은 뜰에 있는 마을
 정감골말【마을】정감마을과 골마을이 함께 이웃해 있는 마을
 그네뜰말【마을】예전부터 그네 뜰이 있어 불리어진 마을
 선골【마을】예전에 신선들이 사는 동네 또는 어진 선비가 모여 사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인곡마을【마을】고려 때 어진 선비가 살았다 하여 인곡이라 불림
 관터마을【마을】조선시대 관(청) 터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새터마을【마을】새로 생긴 마을. 가마소 길목에 있는 마을
 큰고개【고개】사천에서 안흥동으로 가는 고개
 큰매봉재【산】매봉재의 큰 산

17. 생연동(生淵洞)

본래 양주군 이담면(동두천시)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연동리와 함매동, 생골리, 뉴산리, 지동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생골과 연동리의 이름을 따서 생연리(동)라 하며, 1981년 7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갈라져서 생연 1, 2, 3동이 되고 일부는 내행동, 현재 불현동 관할이 되었다.



못골

고려 공양왕 때 공조판서를 지낸 홍언수(洪彦修)는 고려가 망하자 이태조(李太祖)의 출사(出仕) 권유를 뿌리치고 개성에서 낙향하여 집 앞 정원에 연못을 만들고 살았다 하여 600여 년째 못골로 불려지고 있다. 현재 58세대 161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마을 어귀에 수령 700여 년 된 은행나무가 마을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남양 홍씨 집성촌인 이곳은 마을 청장년들이 대동계를 운영하며 마을 어르신들을 봉양하며 '경로효친'을 스스로 실천하는 마을이다. 그리고 2005년 9월 장수어르신들이 많아 동두천시로부터 장수마을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능안말【마을】생연동에 있는 마을
동두천시장(場) : 장마당 못골 서남
쪽에 있는 마을. 시장이 있었음
모래말【마을】신천변에 있는 마을.
6·25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살
았음. 사동초교가 있음



못골(연동)【마을】어수동 동쪽에 있는 마을. 연못이 있음
방축(防築)【마을】생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 연못이 있음

방축 저수지【저수지】방축이 있는 저수지를 매립하여 동두천시청 청사가 자리 잡고 있음

산고리(생골)【마을】못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산골이 남

사패지 경계석(賜牌地 境界石) : 생연동 생골 입구에 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으로 옮김



방축골【마을】생연동 못골 큰 연못. 예전에 방축저수지 근처에 있던 마을

생골【마을】산고리 사람의 뼈가 무더기로 나왔다 함

신내물(신천)【내】생연동에 서 흐르는 내

신천(莘川)【내】신내물

양짓말【마을】생연동에 있는 마을 양지쪽에 있음. 오래된 '우리전당포' 근처에 있던 마을

장구맥고개【고개】생연1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어수동역(御水洞驛) : 연못골(연동) 서쪽에 있는 역. 현재는 동두천중앙역으로 명칭 변경

송터말【마을】동두천중앙역 부근.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송질의 후손 송반이 낙향하여 살던 집터가 있던 곳으로 유래됨

어수동(御水洞)【마을】생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낙향하던 도중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속병을 고쳤다고 전해내려 옴

연동(淵洞)【마을】못골

용개울【마을】생연동에 있는 마을

장림골【마을】생연동에 있는 마을. 긴 숲이 있음. 탑동에도 같은 지명(地名)이 있음

전농벌(田畓)【들】밭전, 논답에 논이 룡자로 바뀌 논을 룡으로 부르다가 전농벌이 되었다. 지금은 신시가지가 자리잡고 있음

현충탑【탑】생연초등학교 뒷산에 있는 현충탑

황마름(황매)(黃梅)【마을】황마름. 평해 황씨 집성촌. 황매화 군락지였다.

생연1동(生淵一洞)【동】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에 의하여 생연동 일부

를 갈라서 생연1동이라 함
 생연2동【마을】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에 의하여 생연동 일부를
 갈라서 생연2동이라 함

우미네 : 생연2동. 전철 서쪽 국민
 주택 남쪽 부근

월두물 : 생연2동. 전철 서쪽, 현 의
 료보험조합건물 남쪽, 전 도살장이
 있던 부근

달래피 : 생연2동. 전철 서쪽 농협창고 남쪽 지행천 남쪽

한섬지기 : 생연2동. 전철 서쪽 세아프라자 남쪽 사동초등학교 앞

중앙동(中央洞)【동】1998년 11월 30일 생연3동, 생연4동 행정구역 통합에 따
 라 중앙동이 됨



18. 송내동(松内洞)

본래 양주군 이담면(동두천시)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
 동리, 송라리, 행단리 일부를 병합하여 송라리와 내동리 이름을 따서 송내리(
 동)[법정동]라 하여 1981년 7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행정동 내행동의 관할이
 되었음



내동(內洞)【마을】안골

가라니 : 송내동과 지행동 경계 부근,
 전철 동쪽 한북관광 사무실 부근

냉정(冷井) : 송내동에 있는 골짜기.
 찬 우물이 있음

된봉【마을】송내동에 있는 산. 비탈져
 서 오르기가 힘들다 하여 생긴 이름

벽장바위【마을】송내동에 있는 바위. 벽장같이 생겼다 함

서낭당이【마을】송내동에 있는 마을. 서낭당이 있었음

서낭당벌 : 송내동 전철 서쪽에서 신천변까지

송라(松蘿)【마을】안골 동쪽에 있는 마을

송래【마을】송내동에 있는 마을
진터벌 : 송내동 전철 서쪽들.
선조가 몸소 와서 머무는 관계로
호위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하여 진터벌이라 칭함

송나마을【마을】송내동 들어오
는 입구에 있는 바깥 마을

거북말【마을】송내동 동산이 거북이 등같이 생겨 붙여진 마을
숫고개【고개】안골에서 지행동 사당골로 가는 고개
고인돌【바위】송내 윗골의 연못화한 습지에 놓여 있음
모래산【산】송내동 남쪽에 있는 민둥산 동산에 굽은 모래가 깔려 있어 80~90
세 노인들이 어릴 때 미끄럼 타던 곳
검정개울【개울】온수골 건너 산비탈에 있음
모래유황광산【광산】모래산 중턱에 유황을 캐던 광산이 있었음
송내피난굴(窟)【유황광산】난(亂)이 있을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피난했던 곳
아차노리(아차동)【마을】송라 동북쪽에 있는 마을. 무학대사가 칠봉산맥을
타고 못(뫼 묘(墓))자리를 찾다가 여기에서 산맥이 끊겨서 “아차” 하고 한탄했
다고 함

안골(내동)【마을】아차동 동남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온수골【골】송내동 위쪽에 있는 골짜기. 더운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음
송내윗골(온수골)【마을】1972년 유행성출혈열 발생지
송내윗골【골】이호왕 박사 기념비. 이호왕 박사는 1992년 유행성출혈열 예방
백신인 한타박스를 녹십자와 함께 개발하였다.

장림고개【고개】안골에서 탑동 장림으로 넘어가는 길고 긴 고개
송내동【동】새로 생긴 시내 (송내동, 지행동)

동두천시의 유일한 곡창지대로 전농(田畠)벌 신천이 흐르는 안쪽에 있다 하
여 신내벌로 불리어 오고 있었다. 경원선 복선 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인구의 증가와 행정 구역상 변화가 있었다. 행정을 맡
고 있던 불현동에서 2007년 5월 14일 송내동이 분동이 되었다. 옛 지명과 자



연 부락을 거느리고 있던 법정동, 송내동과 마을이 없었던 송내, 지행 그 넓은 농업지역에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된 행정동 송내동이 새로 생겨나 법정동과 행정동이 헛갈리는 송내동이 되었다.

19. 지행동(紙杏洞)

본래 양주군 이담면(동두천시)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지동리, 생골리, 단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지동과 단행리 이름을 따서 지행리(동)라 하며, 1981년 7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내행동 관할이 되었다가 1998년 11월 30일 불현동이 되었음

사당골(祠堂—)행단【마을】종이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

- ① 은행나무 아래 어유소 장군 연못【池河】이 있었음
- ② 사당이 있었음
- ③ 은행나무 밑에 단을 모으고 글을 배웠음



종이골

종이골(지동 화성)【마을】지행동에서 으뜸가는 마을. 닥나무를 심어 종이를 만들었음

지동(紙洞)【마을】종이골

가라니골【마을】지행동에 있는 예전 마을 이름

무당모루【마을】예전에 용한 무당이 살던 모퉁이 집

사당골【마을】예전에 세조~성종 때 명성을 날렸던 정장공 어유소 장군의 사당이 있었던 곳

빼골【마을】예전 지행동에 기와집이 백 채가 있던 동네라 하여 빼골이라 유래되었음

종이골【마을】지행동. 예전에 닥나무를 재배하여 종이를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

샘밭【마을】지행리에 마을사람들이 먹던 샘물이 있는 마을

종이골:마을주민들의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종이골은 예로부터 닥나무를 많이 재배하며 종이를 만들던 마을이란 뜻으로 '종이골'로 불리게 되었으며, '종이골'의 종이 '지(紙)'자와 이웃마을인 '행단(杏壇)' 마을의 은행나무 '행(杏)'자를 따서 지행동으로도 부르고 있다.

인근에 중앙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최근에는 지행초등학교와 한수 이북 최고의 명문인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의 개교(2005.3.3)로 지역 인재 및 대한민국 인재들을 육성하는 교육산실의 마을이다.

【일등전】지행동 전철 동쪽 3번국도 사이 외기노조 주택 앞

【무당모루】지행동 전철 동쪽 중앙중고 부근. 전언에 의하면 무당모루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녀갔다는 설이 있다.

【살미리】지행동 전철 서쪽. 들 중앙 부근인 이곳에 박윤희 씨 집과 전답으로 미루나무로 된 정자목이 있었으며 정자나무 옆에 웅덩이가 있어 일하다가 쉬는 곳이기도 하였다. 살미리 물이 마르면 들 전체가 마른다는 설도 전해져 내려왔다.

【삼패기】지행동 전철 서쪽으로 이곳에서 삼이 나왔다 하여 삼패기라 하였다.

【대전 때】지행동 전철 서쪽 삼패기 서쪽 부근 큰 밭(大田)이 있었다.

【거북마루】지행동 전철 서쪽이며 이곳에 가면 양쪽 들이 다 보인다 하였으며 중앙 부근에는 약간 높은 곳으로 거북이등같이 생겼다 하여 거북마루라 하였다. 거북마루는 지행동, 송내동 농부와 사람들이 오가는 현재의 지행역 부근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이었다.

마을 주민이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사당골(祠堂)에는 수령 5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동두천 인근 지역에서 수령이 가



사당골

장 오래된 나무로서, 그 옆에는 오랜 세월을 같이 한 연못과 세조~성종 대의 탁월한 무인 어유소(魚有沼, 1434~1489) 장군의 생가가 있어 한층 그 의미가 깊다.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수호신으로 여겨 나무 근처에서는 상서롭지 못한 행동을 금하였으며 상여가 지나갈 때에도 나무를 피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구렁발】지행동 전철 서쪽 강변도로 부근으로 예부터 호미를 많이 심어 왔다.

【상수통】송내동 전철 서쪽으로 양주시 봉양리 3번국도변을 따라 송내, 지행, 생연동 별판에 물을 공급해 주던 보가 있었다. 맨 위 붓물을 대는 곳이라 하여 상수통이라 하였다.(상수, 上水)

【고분논이】지행동 전철 서쪽으로 전철 바로 넘어서 인근지대

【동터지기】지행동 전철 서쪽으로 장마 때 개울물이 넘칠 정도로 수량이 많아 지면 샘배기 보가 터지면 동터지기 뚝도 터진다는 말이었다. 거북마루 동쪽에 있다.

【잉어보】지행동 모랫마을. 사동초등학교 앞 지행천에서 시작하여 송내동까지 연결된 보로 장마 때 신천의 물이 많아지면 한탄강에 있던 잉어들이 상류로 올라오다가 보에서 따뜻한 맑은 물이 내려오므로 이 붓물을 따라 잉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들판 전체 논에 잉어들이 올라왔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미처 물 따라 내려가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다. 이때 사람들이 논에 나와 삼등 도구로 때려서 잉어를 잡았다 하여 잉어보라 칭하게 되었다.

【웅그머리】지행동으로 전철 서쪽 지행천 동쪽 부근(전철 바로 넘어)

【황새개울】전철 서쪽으로 지행동에서 내려오는 지행천으로 황새가 많다 하여 황새개울이라 하였다.

【벚뽕】지행동으로 전철 서쪽으로 지행천 남쪽 들

【장구논】지행동으로 전철 서쪽으로 지행천 남쪽 들 중앙 부근. 논 모양이 장구같이 생겼다 하여 이름이 지어졌다.

【칠성배기】지행동으로 전철 서쪽. 동터지기와 구레논 중간지점

【구레논】지행동으로 전철 서쪽. 동터지기와 구레논 중간지점

고인돌【바위】아차노리 마을에 있음

행단(杏丹)【마을】사당골

화성(和成)【마을】조이골

20. 안흥동(安興洞)(안흥골, 안흥리)

본래 양주군 이담면(동두천시)의 지역으로 안흥사(安興寺)가 있었으므로 안흥골 또는 안흥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독토(독도)골 담안을 병합하여 안흥리(동)라 하며, 1981년 7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동안 동회의 관할이 되었다가 1998년 11월 31일 안흥동, 동안동 폐합하여 소요동의 관할이 되었다.

관모(官帽)바위【바위】안흥다리 상류에 있음. 여름장마 때 물이 감모바위를 덮으면 신천을 건너지 않았음. 관모바위가 물의 양을 측정(測定)했음

사금(砂金)파리바위【바위】신흥고등학교 다리 입구 신천이 흐르는 하류에 있는 바위. 모래에 섞여 수정같이 반짝이는 얇은 금이 나왔다고 함

아리랑다리【다리】마을 주민과 신흥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당시 미 7사단에서 밧줄로 묶어 만든 출렁거리는 다리. 예전에 없어졌음(1966년)



도곡골

마을 주민들의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도곡골은 마차산의 수려한 계곡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조선 중엽부터 이곳에서 질그릇을 굽는 도요(陶窯)가 있어 질그릇을 굽는 가마터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도곡골이라고 불리어 왔다.

골안【골】안흥동에 있는 골짜기

내안흥(內安興)【마을】안안흥

담안(潭安)【마을】도곡 서남쪽에 있는 마을

독도골【마을】독토골 안흥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 도기를 만드는 가마터가 있었음

도곡(陶谷)【마을】독 굽는 가마터가 있었음

둔지말【마을】밭 안흥

박쥐굴【굴】안흥동에 있는 서식지 굴 안에 박쥐가 많았음

밭안흥(둔지말 외 안흥)【마을】안흥골의 바깥 마을

사기장골【골】안흥동에 있는 골짜기. 사기를 구웠음

승저골【마을】안흥동에 있는 골짜기

안흥골【마을】안흥동

안흥리【마을】안흥동

지석묘(支石墓) : 바위를 세워 놓는데 입석묘(立石墓)라고 함. 안흥 윗마을에 있음

안안흥(내안흥, 영진)【마을】안흥골의 안 마을

내안흥【마을】안흥사가 있던 담안골

외안흥【마을】바깥 마을 바깥말

안흥사지【절】담안마을에 있는 골짜기

어은골【골】안흥동에 있는 골짜기

영진(永進)【마을】안 안흥

외안흥(外安興)【마을】바깥 안흥

자작골【골】안흥동에 있는 골짜기

장내(牆內)【마을】담안

어운산(御雲山)【산】남쪽 외안흥동에 있는 산

사당골(祠堂谷)【골】강릉 길 사당이 어운산 중턱에 있음

태봉산(太峰山)【산】안흥동에 있는 산

평풍바위【바위】안흥동에 있는 바위. 병풍같이 생겼음

21. 상봉암동(上鳳岩洞)[웃봉바위, 웃새바위, 웃사야위, 상봉암]

본래 양주 이담면(동두천시)의 지역으로서 봉바위 위쪽이 되므로 웃봉바위, 웃새바위, 웃사야위 또는 상봉이라 하였는데 하봉암리, 동막동, 안흥리, 창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상봉암리(동)라 하며, 1981년 7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소요동의 관할됨

금송굴(金宋窟)【굴】백운암 북동쪽에 있는 굴. 임진왜란 때 김 씨와 송 씨가 피난했다 함

쇠둔치마을【마을】소요산 길목에 있었음

궁터(궁지:宮址)【터】조선 이태조(李太祖) 별궁지. 소요산 남쪽 능선 아래 있었음

자재암(自在庵)【절】소요산 큰골(골짜기)에 있는 사찰

백운암(白雲庵)【절】쇠골 동쪽에 있는 절

벨기에 참전비【탑】상봉암동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한 탑

봉골(鳳谷)【봉동】봉골

백운사(白雲寺)【절】태조 별궁지 골짜기 아래 있음

봉동(鳳洞)【마을】봉골

도솔암【절】원각종이 있었다 함

원각사【절】소요산 남쪽에 있는 사찰. 소요사지 올라가는 길목에 있음

봉바위【바위】상봉암동에 있는 바위

책바위【바위】수천 줄로 겹겹이 쌓여 있음. 봉바위 아래 있는 바위

천원금광(天苑金鑛)【광산】마을 웃사야위. 1932~1937년 백백교 사이비 이단 종교터

광산골(鑛山谷)【광】광산이 있던 골짜기

금셋물(金水)【골】금광에서 골짜기로 흐르는 계곡물

금광굴(金鑛窟) : 천원금광 순금을 캐던 광산

봉바위굴(窟) : 자연동굴. 고구려, 고려, 조선 때 전망대(展望臺)역할을 하였음

봉암시장【마을】상봉암동에 서는 시장

상봉암【마을】상봉암동

석굴나한전(石窟羅漢殿)【절】자재암 뒤 석굴이 있는 나한전

소요동(逍遙洞)【마을】첫골

웃봉바위【마을】상봉암동

웃사야위【마을】상봉암동

웃새바위【마을】상봉암동

자재암(自在庵)【절】상봉암리에 있는 절

황아티(黃喜一)【마을】봉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세종 때 황희 정승이 살았다고 함

22. 하봉암동(下鳳岩洞)【아랫새바위, 아랫사야위, 하봉암】

본래 양주군 이담면(동두천시)의 지역으로 봉바위 아래쪽이 되므로 아랫봉바위, 아랫새바위, 아랫사야위 또는 하봉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막골 상봉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하봉암리(동)라 하며 1981년 7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소요동의 관할이 됨



먹쟁이골

먹쟁이골 : 산세가 아름다운 동두천의 대표적인 명산인 소요산 자락에 자리잡은 이곳은 한국전쟁 직후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80여 세대 200여 명

이 이웃 간 훈훈한 정을 나누며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을 청장년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기금 마련에 애쓰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기도 하다.

노르웨이참전비【비】아랫봉바위 아래 있는 노르웨이참전기념비. 2005년 소요산 입구 자유수호평화박물관으로 옮겨 놓았음

모덕골【골】하봉암동에 있는 골짜기

동막(東幕)【마을】하봉암 동남쪽에 있는 마을

동막골【골】동막이 있는 골짜기

떡쟁이골【골짜기】나무가 우거져 햇볕이 안 들어 캄캄한 골짜기

머러니고개【고개】하봉암리에서 연천군 전곡면 양원리 멀원리로 가는 고개

용연(龍淵)【마을】하봉암 끝마을에 폭포와 용못(웅덩이)이 있었으며 전설에 도적이 숨어 살았다고 함

말터고개【고개】하봉암리에서 연천군 초성리로 가는 고개. 경사가 높아서 말의 턱이 땅에 닿는다고 말터고개라고도 함

말뚝골【마을】연천 경계 말뚝고개 아래 있는 마을

머리니골【골】머리니고개가 있는 골짜기

모통이【마을】하봉암동에 있는 마을

고려장골(高麗葬谷) : 동막골짜기에 있다고 함

아랫봉바위【마을】하봉암

아랫사야위【마을】하봉암

아랫새바위【마을】하봉암

안말【마을】하봉암 안쪽에 있는 마을

요골【골】하봉암동에 있는 골짜기

용수샘【못】하봉암동에 있는 못

용연동【마을】용수샘이 있는 마을

잣은사리【골】하봉암동에 있는 골짜기

조개바위【바위】하봉암동에 있는 바위. 조개같이 생겼음

중간말【마을】하봉암동 가운데 있는 마을

황새바위【바위】(중말)하봉암동에 있는 바위. 황새같이 생겼음

제6절 맺는 말

지명 유래는 땅 이름과 번지수를 말하며 선조의 생활 모습이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는 정신적 유산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말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 그 시대의 역사문화 환경을 알 수 있는 살아 있는 화석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땅 이름에 마을 이름을 국어, 역사, 민속, 지리 등 여러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동두천에는 땅 이름 마을 연구는 아직 학문적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 찾아뵙고 마을의 형성 과정과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시 찾아 뵈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이렇게 옛 사람들이 이미 해마다 고인이 되어서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향토 사학자로서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예전에 자료 조사를 했어야 하며 조사가 늦어진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윗 안흥리 화전 발 아래 골짜기에 터를 잡고 떠난 분들의 잊힌 이름도 있으며, 미 2사단 군부대



동두천사와 중국 심문협시 우호협력체결 기념 조형(造形)(2009. 5. 17)

주둔으로 몇 개의 마을들이 송두리째 없어져 기억 속에 아련한 지명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대표 도시 동두천은 6·25한국전쟁으로 향토마을이 없어지고 새로운 마을이 생겨났다. 지금의 신시가지 송내동과 지행동은 동두천의 곡창지대였다. 신시가지의 옛 자리는 논과 밭의 비닐하우스 단지에 각종 채소 농사가 특산물 생산지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숲을 이루어 특산물 경작도 없어졌다. 미군부대가 들어서서, 마을이 사라지고 사회가 산업화함에 따라 지명의 유래가 없어진 곳도 있어 숙제로 남게 되었다.



얼어붙은 북녘 땅에도 지명(地名)은 있는데... (연천 신탄리역에서)

※ 지명유래 제보(提報)해주신 분

이 채 혁	생연동 821-14	011-751-2029
김 택 기	생연동 633-3	010-7455-4910
어 성 운	탑동 251	011-266-3977
김 춘 경	불현동(생골추어탕)	011-9029-5031
김 영 옥	생연동 에이스@	011-708-9701

◎ 참고 문헌

「한국 지명 총람2」〈경기편〉 - 학글학회
 「향토지」 - 동두천향토지편집위원회
 「동두천시사 上下」 - 시사편찬위원회
 「국어대사전」
 「한국대사전 편찬회편」
 「국사대사전」 - 한국출판사
 「전설과 지역문화」 - 의재 최운식 박사 논총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한양대박물관
 「문화유적 분포지도 동두천시」 - 국민대학교박물관
 「고운 이름 한글 이름」 - 해냄출판사
 「땅 이름 국토사랑」 - 집문당

제7권 제32장 동두천의 지명 유래

※ 부록 : 동두천시 도로명 조사

도로 번호	도로 구분	도로의 관할구역	도로명	기종점위치설명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폭과 도로길이		기초간격 및 번호		비 고
				기점위치	종점위치		폭	길 이	간격	번호	
1	로	동두천시	강변로	송내동 446-2	하봉암동 327-51	신천변을 따라 시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로 도로의 고유명칭	16	10,569	20	1~1056	
2	로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지행동 674	지행동 692-3	옛날 거북마루라 불리던 지역명을 도로이름으로 부여	23	830	20	1~82	
3	로	동두천시	광암로	광암동 518-1	광암동 178	법정동명을 도로의 이름으로 부여	20	758	20	1~76	
4	로	동두천시	동광로	상패동 51-23	보산동 390-2	이전부터 호칭되는 도로의 고유명칭	14	1,793	20	1~180	
5	로	동두천시	동두천로	송내동 673-2	생연동 567-61	동두천 중앙을 가로 지르는 길로 동두천로로 명명	20	3,523	20	1~352	
6	로	동두천시	못골로	생연동 282	생연동 199-4	생연1동의 자연촌인 못골로 진입하는 주된 도로임	15	1,632	20	1~162	
7	로	동두천시	방죽로	생연동 427-7	생연동 431-1	옛날 방축(저수지)이 있던 곳으로 이 일대가 방축골이라 불림	12	479	20	1~48	
8	로	동두천시	봉동로	상봉암동 140-4	하봉암동 269-1	옛지명을 도로 이름으로 명명	6	2,732	20	1~272	
9	로	동두천시	삼육사로	상패동 1081-2	탑동동 산40-2	인접시군(양주시, 포천 시)간 현의대상 도로로 지방도 고유의 명칭인 삼육사로로 협의	20	13,395	20	517~ 1856	도협 의 대상 도로
10	로	동두천시	상패로	상패동 114	보산동 437-38	법정동명을 도로의 이름으로 부여	19	2,200	20	1~222	
11	로	동두천시	생골로	생연동 420-7	생연동282 (대진아파 트압)	예전부터 부르는 마을 호칭					
12	로	동두천시	생연로	지행동 690-2	생연동 570-22	이전부터 호칭되는 도로의 고유명칭	11	2,343	20	1~232	
13	로	동두천시	송내로	송내동 662-4	송내동 29-1	법정동명을 도로의 이름으로 명명	10	3,444	20	1~344	
14	로	동두천시	송터로	생연동 516-16	생연동 222-22	조선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송질의 후손 송반 이 이곳에 낙향하여 살 던 집터가 있었던 곳으 로 유래함	11	514	20	1~52	
15	로	동두천시	승전로	하봉암동 116-1	하봉암동 420-7	승전교 다리 이름에서 유래	9	957	20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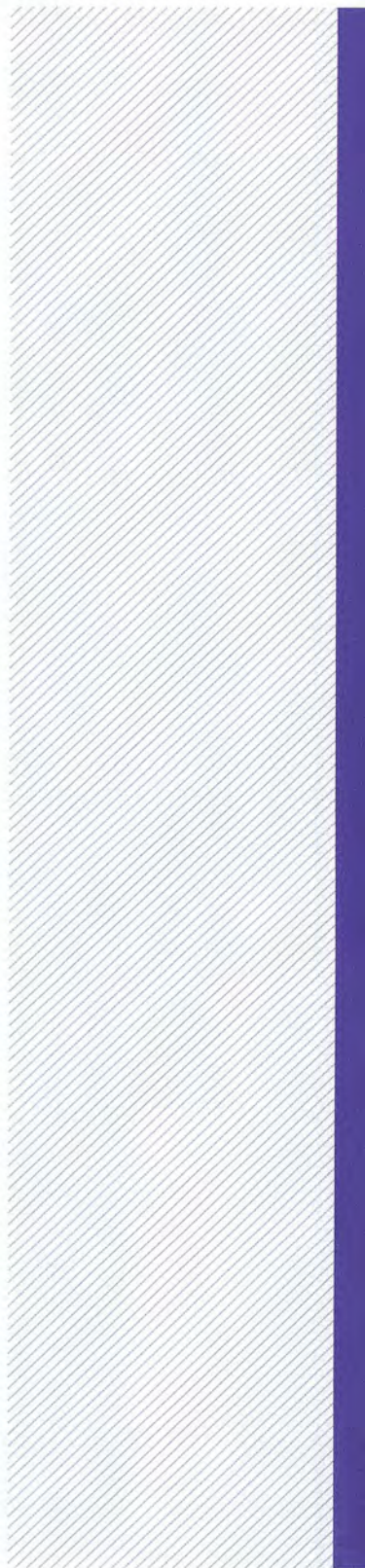
16	로	동두천시	신천로	상패동 5-12	상봉암동 209-5	신천변을 따라 남에서북으로 가로지르는 길	6	3,762	20	1~376	
17	로	동두천시	싸리말로	보산동 354-4	보산동 산14-8	옛부터 산등성이에 싸리가 많이 자랐다하여 싸리말로 불리었음	6	1,614	20	1~162	
18	로	동두천시	안창말로	동두천동 282-4	동두천동 24-13	기존 지역명을 도로명으로 지정	10	874	20	1~88	
19	로	동두천시	안흥로	동두천동 542	안흥동 500	법정동명을 도로의 이름으로 부여	7	3,578	20	1~358	
20	로	동두천시	어등로	생연동 268-11	생연동 57-5	예전 임금이 사냥하기 위하여 올랐다는 어등산이 주변에 있어 도로 이름으로 부여	25	741	20	1~74	
21	로	동두천시	어수로	상패동 83-1	생연동 684-7	이전부터 호칭되는 도로의 고유명칭	14	1,178	20	1~118	
22	로	동두천시	원터강변로	동두천동 531-5	동두천동 204-1	원을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들의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소를 말하는데 이 숙소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원터로 불리어짐	12	549	20	1~54	
23	로	동두천시	이담로	송내동 664-1	지행동 163-2	동두천의 옛 이름에서 유래하여 도로명으로 명명	21	1,656	20	1~166	
24	로	동두천시	장고갯로	생연동 365-8	보산동 438-15	옛날 지명이 장고갯길이라고 불렸음	23	2,889	20	1~288	
25	로	동두천시	정장로	생연동 818-131	생연동 219-11	이전부터 호칭되는 도로의 고유명칭	14	1,427	20	1~142	
26	로	동두천시	중앙로	송내동 695-2	생연동 149-1	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고유명칭	20	4,971	20	1~496	
27	로	동두천시	지행로	지행동 687	지행동 234-1	법정동명을 도로의 이름으로 명명	23	1,887	20	1~188	
28	로	동두천시	큰시장로	생연동 728-5	세아아파트오거리	도로끝에 위치한 큰시장에서 이름을 차용	7.1	431	20	1~50	
29	로	동두천시	천보산로	탑동동 495-2	광암동 172-12	양주와 우리시 경계에 천보터널에서 유래하여 양주와 협의하에 같은 이름으로 지명 명명	6	4,022	20	301~704	도 협의 대상 도로
30	로	동두천시	탑신로	탑동동 822-5	탑동동 산1-1	포천과 연결된 지방도로로 인접시군과 협의하에 탑동에서 "탑"자와 포천의 신북면의 "신"자 한 자를 따서 명명	7	7,093	20	1~710	도 협의 대상 도로
31	로	동두천시	평화로	송내동 466	하봉암동 산21-3	시군구 협의대상 도로명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명명	21	12,076	20	2037~3244	행안부 협의 대상 도로

제7권 제32장 동두천의 지명 유래

32	로	동두천시	하봉암로	하봉암동 321-10	하봉암동 192-2	법정동명을 도로의 이름 으로 명명	6	1,447	20	1~144	
33	로	동두천시	행선로	지행동 365-4	상연동 384-23	향토유적 제2호인 조선 중기 문신 목행선의 묘 가 소재한 곳으로 역사 성을 반영	19	1,302	20	1~130	
34	길	동두천시	갈마지길	지행동 674	상패동 400-2	옛지명을 도로 이름으로 명명	3	2,865	20	1~286	
35	길	동두천시	걸산길	걸산동 178	걸산동 50-1	법정동명을 도로의 이름 으로 명명	7	2,390	20	1~232	
36	길	동두천시	벌마들길	상패동 126-9	상패동 350-5	옛날부터 상패동의 넓은 밭을 벌마들이라고 부르 는 데서 유래하여 도로 명으로 부여	7	1,387	20	1~138	
37	길	동두천시	쇠목길	광암동 205-1	광암동 10	예부터 형성된 광암동 자연마을인 쇠목으로 진 입하는 주된 도로	5	4,211	20	1~422	
38	길	동두천시	아차노리길	송내동 440	송내동 219-3	예부터 형성된 자연촌인 아차노리마을로 진입하 는 주된 도로임	4	1,188	20	1~118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 고시 후 3년간 도로명 변경 불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만 사용





제33장

세거 성씨

제 1 절 동두천 세거 성씨의 개관

제 2 절 동두천의 세거 성씨 일람

DONGDUCHEON HISTORY OF





30 YEARS 1981-2011

東豆州市30年史

제1절 동두천 세거 성씨의 개관

1.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

1) 양주 김씨(楊州 金氏)

시조 김원보(金元寶)는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김은열의 9세손으로 고려 고종 때 예부상서, 추밀부사로 양주백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양주로 하였다.

2) 양주 노씨(楊州 魯氏)

본관은 함평(咸平)·강화(江華)·개성(開城)·양주(楊州)·밀양(密陽)·광주(光州)·수원(水原) 등 60여 본이 있는 것으로 전하나, 모두 같은 시조의 분파로서 노씨의 세거지(世居地)이다. 중국 주(周)나라 때 백리(伯理)가 노(魯)에 피봉되어 그 후손이 노를 성씨로 삼게 되었다

3) 양주 송씨(楊洲 宋氏)

양주 송씨는 조선조(朝鮮朝)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된 성본이지만 시조, 연원 등을 접할 수 없다. 다만 200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360가구 1,09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희소 성본이다.

4) 양주 최씨(楊州 崔氏)

양주 최씨(楊州崔氏) 시조는 최억(崔億)으로 자는 원가(遠可), 호는 청계(淸溪)이고, 소벌도리(蘇伐都利)의 후손이다. 고려시대 태사(太師)와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다. 1353년(공민왕 2)에 양주군(楊州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양주로 삼아 세계를 이어 오고 있다.

5) 양주 윤씨(楊州 尹氏)

양주 윤씨(楊州尹氏)의 시조는 고려시대 삼중대광(三重大匡) 도첨의정승(都僉議政承)을 역임한 윤숭(尹崇)이다. 그의 선계(先系)는 문헌이 실전되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양주에 정착한 사족(士族)으로 전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양주로 하여 세계를 이어 왔다.

윤숭의 아들은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를 역임한 윤덕방(尹德方)이다. 한편 『조선씨족통보』에 의하면 양주 윤씨의 시조는 윤덕방이며, 그는 윤숭의 아들이 아닌 후손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양주 윤씨가 윤숭으로부터 세계(世系)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6) 양주 조씨(楊州 趙氏)

양주 조씨(楊州趙氏)의 시조 조잠(趙岑)은 고려 때 양주호장(楊州戶長)을 역임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추증되었다. 문헌이 실전되어 선계를 상고할 수 없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따르면 고려 때 사람인 조군우(趙君祐)의 손자이며, 조정질(趙景質)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다. 1453년(단종 1)에 계유정란(癸酉靖難) 때 피해를 입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 후 후손들이 번성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워 그를 시조로 삼고 양주(楊州)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7) 양주 진씨(驪陽 陳氏)

여양 진씨(驪陽陳氏)의 성씨 유래에 보면 시조는 진충후(陳寵厚)인데 고려

인종 때의 장군이다. 이자점의 난을 토평하는 데 공을 세워 신호위대장군에 오르고 여양군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여양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면서 나주, 강릉, 삼척, 홍덕, 양주, 덕창 등으로 분적되어 각각 본관을 달리 사용해오다가, 모두가 충후를 시조로 하는 동원분파이므로 여양으로 합보하여 나주, 강릉, 삼척파로 통일하여 현재 양주 진씨는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8) 양주 한씨(楊州 韓氏)

시조 한란(蘭, 태위공)은 고려 태조가 견훤을 정벌하려고 그의 집 앞을 지날 때 칼을 차고 나가 종군하여 삼한통합의 공을 세우고 삼중대광 문하태위가 되고 개국백상공신에 서훈되었다. 청주 한씨에서 8세손 한란경이 양주 한씨로 분적되었으나 이후 모든 한씨가 청주 단일본으로 합본되었다.

2. 동두천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

성씨	가구	인구		계	성씨	가구	인구		계
		남	여				남	여	
康	1		1	1	禹	1		1	1
金	1	1		1	全	1	1		1
文	1	1		1	趙	2	2		2
朴	1	1		1	崔	3	3		3
成	1	1		1	吳	1	1		1
宋	1	1		1					

*1998년에 발간된 『동두천시사』에 본 자료가 실려 있으나 이후의 변천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보존된 자료가 없어 상세 추적이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임

3. 자료에 나타나는 동두천 지역의 토성(土姓)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사천(沙川 지금의 동두천 지역) - 이(李), 경(耿), 임(任), 송(宋), 허(許)

4. 『태조실록』에서 『성종실록』까지 사이에 발견되는 양주 지역의 농장 일람

소유자	본관	위치	근거 문헌
완평군(完平君)	전주 이씨	양주	『태종실록』 권1. 1년 2월 병신조
조벽(趙璞)	평양 조씨	양주	『태종실록』 권13. 7년 6월 계사조
노한(盧閑)	교하 노씨	양주	『세종실록』 권101. 25년 7월 갑인조
민근(閔謹)	여흥 민씨	양주	『문종실록』 권4. 즉위년 11월 신축조
한보(韓堡)	청주 한씨	양주	『성종실록』 권61. 6년 11월 을묘조
어유소(魚有召)	충주 어씨	경기	『성종실록』 권113. 11년 1월 병신조
안상계(安桑鷄)	죽산 안씨	양주	『성종실록』 권203. 18년 5월 갑자조

5. 현지 조사에 나타난 동두천 지역 집성촌의 변화 과정

지역			본관	1934	1953	1990년	입항시기
동두천 (이담면)	보산동	보산리	강릉 김씨	54	80	해체	1670
	(이담면)	지행리	고령 박씨	27	35	해체	1650
	소요동	하봉암리	진주 강씨		56	해체	1640
	생연1동	생연리	남양 홍씨	50	125	해체	1550
	동안동	안흥리	전주 이씨	28		해체	

6. 동두천 지역의 집성촌의 규모 (강릉 김씨의 경우 1933년 조사)

지역	본관	입항조	입항 시기	호 수	동족의 호수	자산가	농가계층	문중 재산
양주 이담면 보산리 뉴산(紐山)	강릉 김씨	김몽상	1670	44	10	김연주 (金演周) 16만 5천원	지주 자작 7 자작 겸 소작 16 소작 21	없음

제2절 동두천의 세거 성씨 일람

1. 여산 송씨

1) 시조 및 가문의 개창 과정

여산 송씨의 시조 송유익(宋惟翊)은 고려 때 사람으로 과거에 나아가 진사(進士)가 된 후 나라에 훈공을 세워 여산군에 봉해졌으며 은청광록대부(銀靑光錄大夫)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추증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그의 선계(先系)는 중국 경조(京兆)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낸 송주은(宋柱殷)의 후손 자영(自英)이다.

송자영은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남인 유익(惟翊)은 여산 송씨(礪山宋氏)의 시조가 되었고, 둘째 천익(天翊)은 은진 송씨(恩津宋氏), 막내 문익(文翊)은 서산 송씨(瑞山宋氏)의 시조가 되어 우리나라 모든 송씨의 연원(淵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산 송씨는 남한에 총 48,209가구, 200,3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산 송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영의정을 지낸 송질의 고손 송탄(宋坦 1575-1637)은 동지중추부사로 18년을 재직하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슬기롭게 대처한 인물인데, 동두천 지역의 여산 송씨는 이탄의 아들 영업(英業)으로부터 계대된다. 영업이 병자호란을 피해 소요산 석굴에 피난하였기에 지금도 그 석굴의 이름을 금송굴이라 한다.

3) 동두천에서의 여산 송씨 가문의 발전

영업의 아들이 각(珏 1660-1718)이다. 구전에 따르면 송각이 정착한 곳이 현재 동두천초등학교 뒤 언덕(송터고개)이라고 전하며 송 씨가 살던 터라 하여 ‘송터고개’라고 전한다. 아울러 전 생연3동(어수물) 근방을 이전에는 송터별이라 하였다. 우리 지역에는 영업으로부터 15대가 계대되었고, 후손 12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하고 현재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4) 동두천 여산 송씨의 주요 인물들

양주시, 포천시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한 송계영(宋係榮) 씨가 송각의 10대 손이다. 그리고 탐동1리 이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송세영이 현재 여산 송씨 종친 회장을 맡아 여산 송씨 재실인 숭모재(崇慕齋)를 2007년도에 건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의학박사 송완영(宋完榮), 용산역장과 서울역 여객과장을 역임한 서기관 송오영(宋昨榮), 사무관 송국영(宋國榮), OFTA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학박사 송요탁(宋堯卓), 육군 소령 송창봉(宋昌奉), 육군 중령 송요승(宋堯丞), 문학박사 송요후(宋堯厚) 그리고 동원클럽 전무로 있는 송태천(宋泰天) 등이 있다.

2. 충주(忠州) 어씨(魚氏)

1) 시조 및 가문의 개창 과정

비조는 충주 지씨의 시조 선의공 지경의 6세손 어중익이다. 어중익(魚重翼 1061~1132)은 본래 충주 지씨 6세손으로 지중익(池重翼)이었는데 그의 겨드랑이에 비늘이 세 개가 있다고 해서 고려 문종이 이것을 보고 “인감이 있으니 이는 물고기다.” 하며 어씨 성을 하사했다고 한다. 벼슬은 평장사를 지냈다.

2) 가문의 성장

선계를 고증할 문헌이 없어 고려 말에 성균관 진사를 지낸 어승진(1344~?)을 시조로 하는 계통(系統)과 현감을 지낸 어백평(? ~ ?)을 시조로 주장하는 계통과 시중을 지낸 어호문(? ~ ?)을 시조로 주장하는 계통이 있었는데, 어승진은 예성 어씨로, 어백평은 신충주 어씨로 각각 분관하였으나 모두가 동원(同源)으로 밝혀져서 합의에 의하여 동행(同行)으로 합보(合譜)를 하였다. 성균관 공파(예성 어씨) 어승진, 삭주공파(신충주 어씨) 어백평, 곤양공파(충주 어씨)를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각각 기일세(起一世)로 하고 있다.

충주 어씨는 시조 어중익에서 성균관공 어승진, 삭주공 어백평, 곤양공 어호문에서부터 따져도 1천 년 이상 된 문중이다. 충주 어씨 문중이 조선 초기부터 무성한 숲을 이루기 시작했고, 그 후 성종에 이르는 약 1백 년 동안 충주 어씨는 전성기를 맞는다. 충주 어씨는 조선에 문과급제자 1명, 무과급제자 9명을 배출하였다.

3) 충주 어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충주 어씨는 시조 중익으로부터 누대가 실계되어 후손 어승진과 어백평을 각각 1세로 하여 계대한다. 동두천시 탑동에 뿌리를 내린 분이 어승진이다. 그는 고려 말 문인으로 학문에만 힘쓴 분으로 조선 개국 후에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어승진이 동두천에 입향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는 문헌상으로는 물론 전승으로조차 전하여지는 것이 없다. 단, 고려의 인물인 그가 수도 개경을 떠나 동두천에 입향하게 된 동기를 조선 개국에 협찬하지 않으려는 고려 절신의 충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이후 관계 문헌 및 답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할 과제라고 보인다.

어승진의 입향 이후 충주 어씨 일가는 동두천의 지행동 지역을 근거로 세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득해, 어유소 부자의 묘가 인근 어등산 자락에 위치하는 것은 물론 근년까지 어유소가 태어난 고택이 일부 변형되고 또 소유주가 타성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지행동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 지행동을 근거로 세거해온 충주 어씨가 지역을 뛰어 넘어 일약 중앙의 명문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어득해, 어유소 부자의 출중한 활약에 기인한다.

어유소는 세종 16년(1434년)에 무신(武臣) 어득해의 아들로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태어났다. 자는 자유(子游)이며, 본관은 충주로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활쏘기와 말달리기에 뛰어난 기술이 있었으며 성품이 너그러워 남과 다툼이 없었다. 어유소는 나이 18세에 특별히 뽑히어 내금위에 보직되고 세조 2년(1456년)에 무과에 1위로 급제하였다. 세조 5년에는 북방 오랑캐를 토벌하여 공을 세운 바도 있다.

세조 13년, 길주의 호족 이시에 형제가 지방 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북도의 수령을 납도 사람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북도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종실인 귀성군 준(浚)으로 도총사를 삼고 호조판서 조석문으로 부사를 삼고 허중, 어유소, 남이, 강순으로 대장을 삼아 평정케 하였다. 같은 해에 명나라가 건주의 오랑캐를 칠 때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세조는 강순으로 서정장군을 삼고, 어유소를 좌대장으로, 남이를 우대장으로 삼아 건주를 공격하였다. 어유소는 명나라 군사가 오기 전에 그들의 소굴을 쳐서 추장 이만주와 그의 아들 등을 베어 소탕하였다. 성종 13년(1482)에 영안도 오랑캐들이 침입할 기세가 보이자 어유소가 북변의 병마사로 오랫동안 오랑캐들을 다스렸으므로 그를 투입시켜 오랑캐들을 잘 설득시켜 따르게 하고 추장 15명을 데리고 돌아와 북변 국경 지대의 평온함을 존속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성종 19년(1488)에 판중추부사 겸 도총관에 이르렀다. 다음해인 성종 20년 겨울에 성종이 경기도에서 군사를 열병할 때 임금을 모시고 영평에 이르러 열병장에서 순직하였다. 시호를 정장(貞莊)이라 하였다. 『왕조실록』에는 어유소의 농장이 양주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어유소에게 내린 사패지를 이른 것 같다. 어유소가 사패지를 하사받게 된 동기를 전승에서는 성종이 어등산에 올라 때마침 창공에 떠있는 매를 보고 어유소에게 이를 쏘라 하여 한 살에 적중하자 이를 기특히 여겨 어등산 일대의 토지를 사패하였다고 하나 이는 후대의 부회인 것 같고, 오히려 그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에게 주어진 별사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동두천 충주 어씨의 발전과 주요 인물

현재 충주 어씨는 그 가세가 비교적 떨치지 못하여 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문중의 상당이 동두천 지역에 거주하여 그 대종이 동두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최근 어유소 장군의 사당이 있는 바로 현지에 충주 어씨의 문중 재실이 건립된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어득해, 어유소 두 부자의 묘소는 현재 미 2사단 주둔지 안에 있어 자유롭게 답사나 참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어유소의 사당이 탑동에 있다. 어유소의 아들 3형제가 모두 무인으로 출사하였는데, 장자가 효성(孝誠 - 전략장군(宣略將軍))이다. 효성의 아들이 승복이고, 그의 아들이 경하(景河)이다.

충주 어씨는 전국에 1천여 세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동두천에 세거한 어승진으로부터 24세가 계대되어 이제는 동두천 어씨처럼 되어 있다. 현재 동두천에는 승진의 후손들이 약 20여 세대 살고 있으며 그의 종손인 어성운(魚性芸) 씨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어유소 장군 사당 근처에 충주 어씨의 문중 재실을 새롭게 지었다.

3. 함중 어씨

1) 시조와 가문의 개창 과정

함중(咸從) 어씨(魚氏)의 시조 호장동정공(戶長同正公) 어화인(魚化仁)은 중국 풍익(지금의 섬서성)에서 남송 때(고려 명종 원년) 난을 피하여 처음 강릉(江陵) 땅에 왔다가 뒤에 평안남도 함중(咸從)으로 옮기고 6세 검교군기감사공(檢校軍器監事公) 어석공(魚石公)까지 고려조에 벼슬하여 현족(顯族)으로 세거하였기에 어씨(魚氏)는 함중을 본관으로 삼게 된 것이다.

2) 가문의 성장

함중 어씨의 파명록(派名錄)을 보면 文貞公派(문정공파), 襄肅公派(양숙공파), 縣監公派(현감공파), 訓導公派(훈도공파), 護軍公派(호군공파), 浪仙公派(낭선공파), 司直公派(사직공파), 漢宗公派(한종공파), 漢緯公派(한위공파), 漢亨公派(한형공파), 副正公派(부정공파)로 11계파가 성세를 이루었다.

2000년도 정부의 인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280 성씨(姓氏) 중(中) 어씨(魚氏)가 순위 95위(17,551명)로 3개 魚氏(咸從, 忠州, 慶興) 중에서 수위를 차지

하고, 서울과 경기, 강원, 경남 등지에 많이 살고 있다.

3) 함중 어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함중 어씨로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어계장(魚季章)은 시조 어화인(魚化仁)의 16세 손이다. 어계장이 동부 참봉을 지내다 동두천시 송내동에 정착하여 15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르니 계장의 후손이 번창하여 경향 각지에 1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계장의 배위는 정장공 어유소의 손자 예원군 어승복의 딸이다.

4) 동두천에서의 함중 어씨의 발전과 주요 인물들

어세공(魚世恭 1432-1468)과 어유소는 1467년 길주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적개공신에 올라 나란히 봉군되었다. 계장의 아들 익신(翼伸)은 무과로 출세하여 충좌위(忠佐衛) 좌부장에 이르렀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참전하여 전사하였다.

계장의 후손으로 근대에 의정부읍장과 이담면장을 역임한 어명례(魚命禮)가 있으며, 지역에서 송내리 이장을 지내고, 시 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어윤선(魚允先)이 있다. 어명례의 딸 어경자가 1989년 9월 25일 동두천시 시민의장 지역사회발전 부분을 그리고 1998년 10월 6일 어윤선이 문화체육장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4. 죽산 안씨

1) 시조와 가문의 개창 과정

안씨동원보(安氏同源譜)에 따르면 시조 안원(安瑗)은 한편 경(瓊)이라고도 한다. 중국 농서사람으로 807년(신라 애장왕 8년)에 동생 황(璜)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 송악산 밑에 살았다. 이때 광주(廣州)사람이 그 성주를 죽이는 반란을 일으키자 형제가 이를 평란하는 데 전공이 크니라 나라를 평안히 한 안국지신(安國之臣)이라고 현창하여 안씨(安氏)로 사성(賜姓)하고 동생 황(璜)에게는

본성을 지키어 고성군(固城君)을 봉하였다.

안원(安瑗)에게는 지춘(枝春), 엽춘(葉春), 화춘(花春)의 세 아들이 있어서, 신라 경문왕(景文王) 4년(864)에 일어난 갑신왜란(甲申倭亂)을 평란하자 이들 삼형제를 개명, 봉군하니 이가 바로 방준(邦俊)-죽산군(竹山君), 방걸(邦傑)-광주군(廣州君), 방협(邦俠)-죽성군(竹城君)이며 여기에서 동방의 안씨(安氏)가 비롯되었다.

2) 가문의 성장 및 주요 인물

죽산 안씨(竹山 安氏)의 시조(始祖) 안방준(安邦俊)은 당(唐)나라에서 동래(東來)해 온 이원(李瑗)의 아들 3형제 중 장남으로, 본래의 이름은 이지춘(李枝春)이었으나 두 아우와 함께 모반(謀反)을 평정(平定)하여 죽산군(竹山君)에 봉해졌고 안씨(安氏)의 성(姓)을 하사(下賜)받아 방준(邦俊)으로 개명(改名)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방준을 시조로 받들고 죽산(竹山)을 관향(貫鄉)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그 후 시조의 맏아들 국보(國輔)가 고려조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으며, 둘째 국필(國弼)은 문하시랑(門下侍郎)을 역임하여 죽산 안씨의 양대 인맥(人脈)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들의 후대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가문(家門)의 중흥을 다졌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죽산 안씨(竹山 安氏)는 남한(南韓)에 총 12,471가구, 53,52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죽산 안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동두천에 죽산 안씨가 입향한 것은 아마도 안방경으로부터인 것 같다. 方慶公(1513년(중종 8)~1620(광해 12))의 자(字)는 선응(善應), 호는 자배헌(炙背軒)이다. 1540년(중종 35) 생원시 급제 이어 문과에 오르다, 자괴원(自槐院)의 입한원(入翰院)에 선발되어 삼사를 역임하고 이어 승정원으로 옮겼다가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를 거쳐 중직으로 가선대부, 사헌부,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동지경연춘추관 성균관사(嘉善大夫, 司憲府, 弘文館 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同知經筵春秋館 成均館事(중2품))를 지냈다. 『양주군지』에

는 그가 양주목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묘소는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방축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서 동두천에 안씨가 정착한 것으로 본다.

4) 동두천 죽산 안씨의 발전

창(昶, 1552년(명종 7)~1620(광해 12년))

자는 경종(景宗), 호는 석천(石泉), 우계(牛溪)의 문도로서 1589년(선조 12)에 상원진사 양과에 급제하여 선공감 가감역(繕工監 假監役)에 있을 때 정여립(鄭汝立)의 역모가 일어나자 추국청에 참여한 공으로 원종(原從) 일등공신에 녹훈되어 1594년(선조 27)에 전시(殿試)병과에 등과하여 연안부사(延安府使(通政大夫정3))가 되었으나 김제남(金悌男) 사건에 연루되어 광해군에 의하여 삭탈관직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관직이 복권되었다. 21세 때 정암 조광조와 우암 송시열을 배향한 도봉선원 창건에 참여하였다.

홍중(弘重)

호는 구암(龜岩) 1586년(선조 19)~1620년(광해 12), 동생 홍량(弘量)과 함께 등과하여 공조좌랑 춘추관 기주관 등 역임. 묘소 충남 서천

홍량(弘量)

호 취봉(醉峯) 1590년(선조 29)~1616년(광해 8). 1606년 사마시 등과 승정원주서 춘추관 기사관 한림관 설서 세자 시강원 설서 증직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겸 경연 읍관 상서원정 춘추관 수사관 예문관 직제학(通政大夫 承政院 都承旨 經筵官 尙書院正 春秋館 修史官 藝文官 直提學) (正3) 배위(配位)는 침성(侵城) 군의 따님. 묘소 남양주시 별내면

발(鉞) 1607년(선조 40)~1679(숙종 5)

1696년(인조 14)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심양에 볼모로 끌려갈 때 공께서 배종하여 8년간을 심양에서 보냈으며 원종 1등 공신에 녹훈되시고 예남(禮南) 선전관을 거쳐 군기부정과 덕천군수(德川郡守)(통정 정3)를 지냈으며 시에 능하였다. 묘는 덕계리에 있다.

鉞 1614년(광해 6)~1692년(숙종 18)

세마(洗馬)를 역임하고 사복시정(정3) 역임함. 묘소는 희천면 덕계리

5) 동두천 죽산 안씨의 주요 인물

연세대를 나와 미국 유시엔대학에서 수학하고 미국 LA통신사 부사장으로 있는 충환(忠煥) 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길환(吉煥)이 서울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졸,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받고 현재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5. 청주(淸州) 한씨(韓氏)

1) 시조와 가문의 개창 과정

청주 한씨(淸州 韓氏)의 유래(由來)는 후조선(後朝鮮)인 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기원(起源)한다. 마한(馬韓) 원왕(元王)의 아들 3인이 있어 우평(友平), 우량(友諒), 우성(友誠)이니, 나라가 쇠(衰)하자 우평은 고구려(高句麗)에 입사(入仕)하여 북원 선우씨(北元 鮮于氏)가 되고, 우량은 신라(新羅)에 입사하여 상당한씨(上黨 韓氏) 즉 청주 한씨가 되었고, 우성은 백제(百濟)에 입사하여 덕양기씨(德陽 奇氏)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씨는 모두 기자(箕子)의 후예(後裔)가 되는 것이다.

2) 가문의 성장

고조선시대의 왕실이었던 한씨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는데, 우선 조선시대에 문과급제자 315명, 상신(相臣) 12명, 공신(功臣) 24명, 대제학 1명을 배출하였다. 한편, 왕비도 6명을 배출하였다. 청주 한씨의 세계(世系)는 시조 한란의 후대에서 30여 파로 나뉘는데, 그 중 후손이 많기로는 (1) 양절공파, (2) 문정공파, (3) 충간공파, (4) 몽계공파, (5) 관북파, (6) 충성공파 등 6파가 청주 한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 청주 한씨의 동두천 입향 동기

동두천에 입향한 분은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한 우량(遇良)이다.

4) 동두천에서의 청주 한씨의 발전 및 주요 인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청주 한씨는 동두천시 입향 후 11대에 걸쳐 300여 년 동안 생연동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청주 한씨는 입향 이후 세거 연혁이 오래이기는 하나 가세가 크게 떨치지는 못하였고 특히 10여 대를 독신으로 내려와 현재 4가구에 20여 명이 생연동에 살고 있다. 인물로는 현재 32대 명현(命鉉)이 육사를 졸업하고 국방대학을 거쳐 미국에 유학 중이다.

6. 청송 심씨

1) 시조 및 가문의 개창 과정

청송 심씨는 고려 중엽 1100년대에 중국 북송 절강성에서 심공좌(沈公佐) 일명 심현좌(沈賢佐))가 그의 아버지 심충(沈忠), 아들 심수정(沈守貞)과 함께 고려로 귀화한 성씨이다. 현재 청송 심씨의 시조가 되는 심홍부가 바로 심수정의 아들이다. 심씨의 원래 성은 희(姬) 씨로서 주(周) 왕실의 왕성이 바로 희씨이다. 주 왕실의 왕자 <희담계>가 중국 남부 심(沈)의 제후로 봉해지면서 봉지의 지명을 따서 새로이 심씨를 칭하게 되었다. 희씨는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조상으로 받드는 황제(黃帝) 현원(軒轅)이 개창한 성씨로 강(姜) 씨에 이어 두 번째로 연원이 오래된 성씨이기도 하다. 고려에 귀화한 심수정의 아들 심홍부가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문림랑(文林郎)으로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내고, 그의 증손 덕부(德符)가 우왕(偶王)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러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해졌다가 청성군 충의백(靑城郡忠義伯)에 진봉되어 후손들이 청송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2) 가문의 발전

심씨는 우리나라 256개 성씨 가운데 인구 순위 31위로 총 인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조선조 전체로 볼 때 정승을 배출한 것이 13명으로 남양 홍씨와 함께 공동 5위에 이르고 다수의 과거 합격자와 당상관, 청백리, 제학을 배출하였으며 왕비도 여러 명이 나와 가문을 빛내었으니 심씨는 조선조의 5대 별족 중의 하나이며, 고려조의 10대 별족에 하나로 꼽히는 당당한 명문이기도 하다.

3) 청송 심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동두천에 300여 년간 세거해온 청송 심씨의 상계는 덕부(德符)의 넷째 아들 등(登 인수부윤(仁壽府尹))으로부터 기대한다. 그의 8세손이 원강(元剛 1545-1647 전라병마절도사)이고 원강의 아들이 한걸(漢傑 1563-1631 절제도위)이다. 동두천 탑동에 낙향한 언천(彦千 1582-1675)은 한걸의 아들이로서 벼슬에서 물러나 산수가 아름다운 이곳에 깊은 뿌리를 내려 현재 14대가 계대되어 후손 40여 세대가 이 고장에 거주하며 경향 각지에 100여 세대가 분포한다.

4) 동두천 청송 심씨의 주요 인물

동두천 지역의 청송 심씨 후손으로서 주요한 인물은 단국대학 공학과 교수이며 국립방제연구원 방제연구관인 공학박사 심기오(沈其五)가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인사로는 종회 회장과 동두천시노인회 회장을 역임한 심석구(沈石求) 씨와 지행리 새마을 지도자를 역임하고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지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심경식(沈京植) 씨, 심석구 씨의 자제로 연세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철도공사 전철 총괄부장으로 있는 심규식(沈奎植) 씨와 포스코파워 인사구매담당 부장으로 재직하는 심민식(沈珉植) 씨 등이 있다.

7. 강릉 김씨

1) 시조

김주원(金周元)

2) 가문의 개창 과정

시조 명주군왕은 신라 김씨의 시조 알지(閼智) 대보공의 21세손으로 신라 37대 선덕왕이 후사없이 서기 785년에 승하하여 당시 시중 겸 병부령(지금의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인 주원(周元)공을 왕위에 오르도록 군신회의에서 결의하였으나 주원공의 저택이 경도의 북쪽 20리에 있었는데 때마침 큰비가 내려 냇물이 넘쳐 건너지 못하자 “인군(人君)자리는 잠시도 비울 수 없다”하고 당시 상대등인 김경신(金敬信) 공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신라 38대 원성왕이다.

주원(周元) 공이 비가 갠 후 임상(臨喪)차 단기(單騎)로 입궁(入宮)하니 왕위에 오른 김경신(金敬信)이 주원(周元) 공에게 왕위(王位)에 오르기를 권(勸)하니 주원공은 인군대위(人君大位)는 천명(天命)이라 하며 사양하고 어머니의 고향인 명주로 퇴거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원성왕은 왕위를 양보한 덕을 생각하여 명주(강릉)를 중심으로 강릉, 울진, 평해, 삼척 등 동해안 일대를 분할하여 다스리게 하고 명주군왕으로 봉하였다. 『동국여지승람』 이때부터 명주도성을 중심으로 세습통치하면서 자손이 번성하여 강릉 김씨로 득관하고 명문거족의 발상지가 되었다.

그 후 후손들은 그를 시조로 삼고 강릉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그의 아들 김헌창(金憲昌)은 현덕왕 때 공주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고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을 한때 점령했으나 끝내 실패하여 자결하였다. 강릉 김씨는 고려 건국 초기에는 저항하였으나 왕건의 설득으로 협력하게 되어 왕씨(王氏) 성을 하사받았다가, 조선이 건국 후에는 다시 김씨로 환원하였다고 한다.

3) 가문의 성장

시조 주원(명주군왕)은 슬하에 3형제로 장자 종기(宗基) 공의 손자 양(陽)의 자손이 무전하고 차자 헌창(憲昌)의 부자(父子)는 반란으로 무후(無后)하고 3자인 신(身)이 유일한 강릉 김씨로 증손 3형제에서 강릉 김씨의 최초 분파가 되었다. 강릉 김씨는 주원후(周元後)와 건후(鍵後)로 구분하는 두 개의 본관이 있다. 흔히 강릉 김씨라 하면 김주원을 시조로 하는 후손 계보를 말하나 경순왕의 아들 건을 시조로 하는 또 다른 강릉 김씨가 있다.

또 다른 강릉 김씨의 시조 김건(金鍵)은 신라 56대 마지막 왕 경순왕(敬順王)의 제6자로 고려 태조(太祖)의 외손(外孫)이며, 고려조(高麗朝) 강릉군(江陵君)에 봉(封)해졌으므로 그 후손들이 본관을 강릉(江陵)으로 하게 되었다. 강릉 김씨 시조의 탄생 연대가 전혀 다른 본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계분종(同系分宗)으로서는 홍천 김씨(洪川 金氏)와 강서 김씨(江西 金氏)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4) 강릉 김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김양남(金揚南)의 호는 일로정(逸老亭)이며 고려 말 공조판서를 역임한 추(鍾)의 아들이며 1382(우왕 8)년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 그는 고려가 망하자 전곡읍 은대3리 반곡에 은일하여 살았는데 조선 태종이 그의 인품을 사모하여 지평(持平)을 제수하는 등 여러 차례 불렀으나 끝내 모두 거절하였다. 현재 고려 말 5충신을 모시고 있는 의정부 송산사에 배향되었다.

김충렬(金忠烈)은 1503(연산군 9)년에 태어나 24세(1525, 중종 20)에 사마시(司馬試)에 등과하여 1531(중종 25)년 다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전적(典籍) 감찰(監察)을 거쳐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온 후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 경기(京畿)도사(都事)를 역임하고 춘추관(春秋館) 편수관(編修官)이 되었다. 그 후 장령(掌令), 사간(司諫)을 거쳐 명종(明宗) 때에는 제주 목사, 삭령군수 등을 지냈다. 김연경(金演慶)은 충렬의 아들이며 선조(宣祖) 때 승정원(承政院) 좌부승지(左副承旨)를 지냈으며 김몽상(金夢祥)이 연경의 아들로 인조(仁祖) 때 사직(司直)을 지내다 동두천시 보산동, 축동으로 낙향한 인물이다.

5) 동두천에서의 강릉 김씨 문중의 발전

김익겸(金益謙)은 몽상의 아들로 학문을 닦아 후학을 길러낸 유명한 성리학자였다.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몽상으로부터 16대가 계대되어 후손들이 150여 세대로 번성하였으며 그 중 70여 세대가 동두천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

6) 동두천 강릉 김씨의 주요 인물들

활동 중인 후손으로는 양주향교 전교, 강릉 김씨 판윤공파 종친회장, 양주군 농업협동조합장,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지부 고문, 동두천애향동지회 고문을 지냈으며, 특히 3·1운동 구국만세운동 주동자인 홍덕문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자 동지들을 규합하여 소요산 입구에 거액을 희사하여 기념비를 건립한 김석경(金錫卿) 씨가 있다. 그는 또 한시(漢詩)를 즐겨하여 1992년 『간송시문집(澗松詩文集)』을 발간한 바 있다.

동두천농업협동조합장과 판윤공파 종친회장을 역임한 김진국(金振國) 씨, 동두천시의회 초대위원으로 시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판윤공파 종친회장 재임 시 안흥동 중증산에 사당인 숭모재(崇慕齋)를 건립한 김성경(金晟卿) 씨,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행정학 박사 김욱경(金旭卿) 씨, 동두천시 광암동, 보산동장을 역임한 김완경(金琬卿) 씨, 축구전문기자이면서 현재 한국축구발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덕기(金德起) 씨, 현 동두천문화원 부원장인 김춘경(金春卿) 씨, 전 안기부 이사관 김진오(金振吾) 씨, 신학박사 김국경(金國卿) 씨, 기계공학박사 김진수(金振洙) 씨,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 교수로 있는 물리학 박사 김덕경(金德卿) 씨, 이학박사 김홍기(金弘起) 씨, 의정부시 녹양동장 김대경(金大卿) 씨,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춘천경찰서에 재직하는 김정 김성민(金聖旻) 씨, 이학박사 김진관(金振寬) 씨, 동두천고등학교 교감 김돈경(金敦卿) 씨, 중앙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객원 논설위원으로 있는 김진우(金振雨) 씨, 한국가스안전공사 춘천지점 부장으로 있는 김진형(金振亨) 씨, 그리고 동두천시 생연3이장으로 오래 지역사회에 봉사한 김연무 씨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해방 63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지역의 강릉 김씨 애국지사인 김연성 선생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였다.

8. 의령 남씨

1) 시조

남민(南民), 초명은 김충(金忠)

2) 가문의 개창 과정

남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로 문헌에는 57본이 전해지고 있으나 영양, 의령, 고성 3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 이들 세 본관은 모두 같은 시조에서 분파한 혈족으로 영의공 남민을 유일조로 삼고 있다. 시조 남민은 원래 중국 봉양부 여남(지금의 하남성 여남현) 사람으로 본명은 김충이었다. 그는 775년(경덕왕 14) 당나라 현종 때 이부상서로 안렴사가 되어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신라 유린지(지금의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 표착, 신라에 영주할 뜻을 밝히자 경덕왕은 그가 남쪽에서 왔다가하여 성은 <남>, 이름은 <민>으로 사성명하고, 영양현을 식읍으로 하사하였으며, 사후에 시호를 영의로 내렸다.

3) 가문의 발전

시조 이하 누대가 실전되어 세계를 잊지 못하다가 고려조에 이르러 남민의 후손 3형제가 있어 맏이 홍보(관직 삼중대광 도검의찬성사)는 영양 남씨, 둘째 군보(호 백천, 관직 밀직부사)는 의령 남씨, 막내 광보(고성군)는 고성 남씨의 1세조가 되어 각각 세계를 잇고 있다. 그 중 둘째 집인 의령 남씨가 가장 번성하고 인물도 많이 나와 중추를 이루고 있다. 시조의 묘소는 영양현 북도향 동대항구(지금의 영양군 영양읍 동부동)에 있었다고 전하나 실전되고, 1675년 그 산 서편에 제단을 모아 매년 10월 10일에 향사하고 있다.

남씨는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움으로써 중양 정계의 중추에 오른 뒤 왕실과 척연을 맺거나 당쟁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또 대대로 현신과 석학을 배출하여 명문의 열좌에 올랐다. 남씨는 조선조에서 상신 6명, 대제학 6명, 호당 3명, 청백리 1명, 공신 7명, 장신 1명을 배출했다. 상신 6명은 본관별 서열로는 20위에

지나지 않지만 씨족 규모에 비해서 대단한 숫자요, 대제학 6명은 전주 이씨, 연안 이씨, 광산 김씨의 각 7명에 버금가는 숫자이다. 그리고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과 조선조에서 충무로 시호를 받은 인물 9명 중 한 사람인 남이를 내어 더욱 빛난다. 문과 급제자는 모두 180명으로, 이를 본관별로 분류하면 의령 남씨가 139명, 영양 남씨가 28명, 고성 남씨가 8명, 본관 미상이 5명이다.

4) 의령 남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의령 남씨의 시조는 고려 충렬왕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남군보(南君甫)이다. 그의 증손 을번(乙番)의 아우가 두문동 현인인 을진(乙珍)이다. 그는 사천의 감악산에서 절세하고 살다 죽었다. 조선 숙종(肅宗)이 사천에 서원을 세우고 배향하였는데 정조(正祖)가 이에 정절사(旌節祠)라 이름하고 사액(賜額)하였다. 을번의 아들이 조선 개국 초기의 상신(相臣)이요 개국공신인 남재(南在)이며, 그 남재의 아우가 조선 개국의 일등공신인 은(閔)이다. 은은 조준, 정도전, 윤소중, 조인옥 등 이성계 추대 52인 중의 상위에 자리한 인물이다. 어릴 때부터 성품이 호기롭고 남의 구애를 받지 않았으며 기묘한 계책을 좋아했다고 전한다.

의령 남씨 인맥은 남재 계보와 남은 계보로 대별된다. 남재는 그의 손자 남휘(南暉), 남지(南智, 좌의정) 그리고 5대 손인 남효온, 11세손인 남용익 등 네 지맥으로 다시 갈라선다. 남휘 인맥은 그의 손자 남이(南怡, 병조판서)의 죽음에서 그치고, 남지 인맥이 번성하여 많은 현신과 학자를 배출시켜 시대의 명문으로 부상한다. 우리 지역에 분포하는 의령 남씨의 상계는 사천백(沙川伯) 을진(乙珍)에서부터 계대되어 500여 년을 세거해 온 토족으로 동두천 관내에만 40여 세대가 분포하고 있다.

5) 동두천 의령 남씨의 주요 인물들

이 지역 출신 인사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공학박사 남영일(南永日) 씨와 동두천부시장과 연천군수를 역임한 남상훈 씨,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남부희 씨, 강원도청 산하 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남상현 씨, 환경청 중앙환경조정위원회 위원장 남재우 씨, 경희대 체육행정학과에서 강의하

는 남성우 씨, 동두천시 기획감사관을 역임한 남상호 부이사관, 동두천시 세무과장을 역임한 남재희 서기관, 소요동장을 역임한 남상은 씨 그리고 동두천시에서 계장으로 퇴임한 남도희 씨 등이 있다.

9. 여흥 민씨

1) 시조

민칭도(閔稱道)

2) 가문의 개창 과정

여흥 민씨의 시조는 민칭도인데 고려 사의봉어이다. 시조(始祖)의 연대(年代)는 고려중엽(高麗中葉)인데, 그 후(後) 자손(子孫)들이 번영하여 고려조(高麗朝)에는 삼대명문(三大名門)으로 일컬어 왔고, 조선왕조(朝鮮王朝)에 와서는 네 분의 왕비(王妃)와 함께 정승(政丞), 판서(判書) 등 고관대작(高官大爵)이 즐비하며 사대명문(四大名門) 중 두 번째로 손꼽혔으니 이는 오로지 자손(子孫)들의 노력(努力)과 타고난 운명(運命)이겠지만 선조(先祖)께서 베푸신 은덕의 혜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가문의 발전

민씨의 본관(本貫)은 여흥을 비롯하여 황려(黃驪)·영주(榮州)·여주(驪州)·대전(大田)·해남(海南) 등 32본이 있는 것으로 문헌(文獻)에 전해지고 있으나 모두가 동조동근(同祖同根)으로 여흥 민씨(驪興 閔氏)의 세거지명(世居地名)에 불과하다. 고려 말기에서부터 명문(名門)의 지위를 굳혀온 민씨(閔氏)는 시조의 증손 영모(令謨)가 고려 인종(仁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郎)을 지내고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왕(王)의 총애를 받았으며 벼슬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거쳐 태자 태사(太子 太師)에 이르렀고, 신종조(神宗朝)에서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오른 아들 식(湜)과 판명부사(判

兵部事)와 태자소보(太子小保)를 지낸 공규(公珪) 형제를 낳아 가문(家門)의 양대 산맥을 이루어 가세(家勢)를 크게 일으켰다.

4) 여흥 민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여흥 민씨는 시조 민칭도(閔稱道, 상량봉어(尙良奉御))의 증손인 민영모(閔令謀, 고려 명종 조 평의사)의 두 아들 민식(閔湜, 상서)과 민공규(閔公珪)에 의해 그 인맥이 대별된다. 민식의 인맥은 식의 증손 민지(閔漬)이다. 그는 원나라와 고려 사이의 외교에 공이 컸고, 『본조강목(本朝綱目)』 전 24권을 남겼으며 불교를 좋아하여 북한산 서암사(지금은 없다)에 은거하여 노후를 지냈다.

지의 두 아들이 민상정(閔祥正, 찬성), 민상백(閔祥伯, 상신)인데 상백으로부터 다시 명맥이 이어진다. 상백의 두 아들이 민현(閔沔, 도평의), 민선(閔璿, 판서)이고 현의 아들이 민여익(閔汝翼, 개국공신 판서), 선의 아들이 민유의(閔由誼)이며 유의의 증손이 민효증(閔孝曾, 찬성 공신), 효증의 증손이 민몽룡(閔夢龍, 우찬성)과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호종한 절신 민형남, 형남의 아들이 민여진이다. 다시 소급하여 현의 아들이 민수천이다.

동두천 상패동의 여흥 민씨 상계는 여익의 둘째 아들 민화(閔和)로부터 계대한다. 화의 아들이 민안손이고 안손의 아들이 수복이다. 수복의 증손 민곤서의 3자 민홍이 동두천 상패동에 입향하여 깊은 뿌리를 내린다.

홍(泓)으로부터 14대가 계대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동두천 관내에 30여 세대 거주하는 한편 각지로 뻗어나가 경향 각지에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10. 고령 박씨

1) 시조

박언성(朴彦成)

2) 가문의 개창 과정

박씨는 문헌에 314본으로 나타나 있으나 강릉 박씨를 비롯하여 44본을 제외한 270본에 대해서는 미고이다. 박씨는 모두 신라 박혁거세왕을 시조로 한 혈손이며 가장 순수한 성씨이다.

박씨의 선원은 혁거세왕이 초대왕이 되었고, 2대 남해왕은 혁거세왕의 적자이며, 3대 유리왕은 남해왕의 적자이고, 4대왕 석탈해왕, 5대 파사왕은 유리왕의 둘째 아들이며, 6대 지마왕은 파사왕의 적자이고, 7대 일성왕은 유리왕의 적자이며, 8대 아달라왕은 일성왕의 적자이었으며, 53대 신덕왕은 아달라왕의 후손으로 혁거세왕의 28세손이고, 54대 경명왕은 신덕왕의 적자이며, 55대 경애왕은 신덕왕의 둘째 아들로서, 박씨는 신라 박, 석, 김 세 성 중 초대왕으로부터 55대 경애왕까지 모두 10명이 왕위에 올랐다.

고령 박씨의 시조 박언성(朴彦成)은 신라 경명왕의 둘째 아들로 고양대군(高陽大君)에 봉해졌다.

3) 가문의 발전

고령 박씨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29대손 경명왕(景明王)의 제2자 고양대군(高陽大君) 박언성을 시조로 하고 본관은 고양(高陽)과 영천(靈川) 두 지명의 첫 글자를 합쳐서 고령이라 하였다.

고령 박씨는 고양대군의 후손 3형제가 사인공파(섬), 부창정공파(환), 주부공파(연)를 각각 중조로 하는 3파를 형성하였다.

고령 박씨는 비록 수는 많지 않아도 64본의 박씨 가운데서 주축을 이루는 상위 8박의 하나로 꼽힌다. 2000년 현재 8박의 인구는 ▲밀양...3,031,478명 ▲

반남...139,438명 ▲고령...39,239명 ▲함양...123,688명 ▲죽산...53,489명
▲충주...27,486명 ▲순천...87,631명 ▲무안...78,817명이다. 조선조 박씨 문
과 급제자 가운데 밀양(261명), 반남(215명)에 이어 세 번째가 고령(58명)이다.

4) 고령 박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명문을 대계한 호장 박인황의 현손이 박지순(朴之順)이며, 지순의 8세손이
교하 현감을 지낸 박수림(朴秀林)이고, 수림의 손자가 박은(朴闇)으로 좌의정
신용개의 사위이다. 박은의 아들이 박인량(朴仁亮)이고 재종손은 선조(宣祖)
때의 명신 박점, 현손은 역시 선조조의 명신 박경업(朴慶業)이다. 수림의 7세
손이 박장원이고 장원의 현손이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朴文秀)이다.

고령 박씨의 명맥을 이끈 박수림의 7세손인 박장휘는 장사랑 동몽교관을 지
내고 동두천시 사당골에 뿌리를 내렸다. 그의 아들이 박만(朴鑓)이고 만의 차
자 박보한(朴保漢)은 영조 1년(1725)에 행단에서 태어나 무과에 출사하고 승진
하여 부호군 절충장군을 지내다 노년에 귀향하여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
다. 우리 고장에 뿌리를 내린 박장휘로부터 자손이 번창하였고, 그 후손이 12
세가 계대되어 오늘날엔 30여 세대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5) 동두천 고령 박씨의 주요 인물들

현재 활동하는 인물로는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인 박현희와 고려대 행정대학
원을 졸업한 후 미국에 유학하여 텍사스주 오스틴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있는 박통희가 있고, 지역 사회 발전에
매진해온 박영빈과 지행2이장을 역임한 박양희, 지행1이장을 역임한 박이빈,
역시 이장을 역임한 박찬희, 어수역장을 역임한 박춘빈 그리고 육군 대위로 예
편하여 지역에 헌신하고 있는 박동빈 등이 있다.

11. 반남 박씨

1) 시조

박응주(朴應珠)

2) 가문의 개창 과정

반남 박씨(潘南 朴氏)는 기왕(既往)에 나주 박씨(羅州 朴氏)라고 전기(傳記)된 문헌(文獻)이 있으나 이는 지금의 나주시(羅州市) 반남면(潘南面)이 고려조(高麗朝)에는 구현(舊縣)으로 조선조(朝鮮朝)에 이르러 행정구역(行政區域)이 나주목(羅州牧)에 병합(併合)된 관계(關係)로 나주 박씨(羅州 朴氏)라고 칭(稱)하였으나 고려조(高麗朝) 구현(舊縣)으로 나주(羅州)에 속(屬)한 지명(地名)을 본관(本貫)으로 삼은 박씨(朴氏)는 반남 박씨(潘南 朴氏) 외(外)에도 종의(從義), 복룡(伏龍), 압해(押海), 임성(任城), 나주 박씨(羅州 朴氏) 등(等)이 있었으니 모든 박씨(朴氏)들이 나주 박씨(羅州 朴氏)로 본(本)하면 혼동(混同)될 우려(憂慮)가 있는 고로 반남 박씨(潘南 朴氏)라고 지칭(指稱)한 것이다.

전의(典義) 홍무(洪武) 6년 공민왕(恭愍王) 22년 계축(癸丑) 호적(戶籍)에 본(本) 潘南(반남)을 근거(根據)로 하였으나 반남 박씨(潘南 朴氏) 시조(始祖) 호장공(戶長公) 선계(先系)는 고증(考證)이 없으므로 고려조(高麗朝) 중말엽(中末葉)에 탄생(誕生)한 호장공(戶長公) 휘(諱) 응주(應珠)를 시조(始祖)로 하였다.

3) 가문의 성장

반남 박씨(潘南 朴氏)는 고려조(高麗朝) 31代王 공민왕(恭愍王) 때에 각(各) 성씨(姓氏)에게 본관(本貫)을 정(定)하게 하자 이때, 반남 박씨(潘南 朴氏) 4세 조(世祖)인 밀직공(密直公) 휘(諱) 수(秀)는 선계(先系)를 살펴보신바 증조(曾祖)이신 휘(諱) 응주(應珠)께서 고려조(高麗朝) 21代王 희종(熙宗) 때에 탄생(誕生)하시여 반남(潘南) 고을에서 사시며 23代王 고종(高宗) 때에 이곳 반남현(潘南縣) 호장(戶長:지방행정관(地方行政官))을 지내신 사적(事蹟)을 근거(根據)로 호장공(戶長公) 휘(諱) 응주(應珠)를 시조(始祖)로 모시고 본관(本貫)은始祖

(시조)께서 생장(生長)하시던 반남(潘南)으로 정(定)하고 공민왕(恭愍王) 22년 계축년(癸丑年) 호적(戶籍)을 기초(基礎)로 반남 박씨(潘南 朴氏)가 득관(得貫)되어 세세(世世) 상속(相承)하고 수많은 자손(子孫)과 문족(門族)이 번창(繁昌)하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4) 반남 박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및 발전

반남 박씨 시조 응주(應珠)는 반남(潘南 - 나주의 속현)에 세거하던 호족의 후예로서 호장(戶長)을 지냈다. 그의 6세손 박은(朴闇)이 조선 초기 왕자의 난 당시 태종을 도와 익재동덕좌명공신으로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반남군에 봉해졌다가 금천부원군에 진봉되었으므로 후손들이 응주를 선조 1세로 하고 본관을 반남으로 하여 계대되고 있다. 우리 동두천 지역에 누대를 세거한 반남 박씨의 상계는 박은(朴闇 1370-1422)의 장자 규(葵, 예조판서)로부터 계대한다. 그의 아들들은 병문(秉文)이고 병문의 아들이 박임종(朴林宗, 상주목사)이며 그의 현손이 명종 때 도정(都正)을 지낸 응인(應寅)이다.

동두천에 응인의 현손 태기(泰期)가 입향하여 12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르며 후손 2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한다.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5) 동두천 반남 박씨의 주요 인물들

지역 인사로는 동두천 초대 우체국장을 지낸 박윤양(朴允陽)과 1961년 무장간첩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박인양(朴麟陽)이 있는데 모두 태기의 8세손이다. 그리고 동두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에 평생을 바쳐 온 박승돈 교감,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을 거쳐 연세대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획득하고 현재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로 있는 박광서, 동두천 시청 총무과 시정계장으로 있는 박승조가 있다.

위에 설명된 반남 박씨와는 다른 별파가 동두천에 입향 정착하여 또 하나의 세거 가문을 이루었으니, 보산동 축촌의 반남 박씨이다. 동두천 보산동 뉴촌(紐村)에 뿌리를 내린 반남 박씨 상계는 응주(應珠)의 13대손 박혁(朴赫)이 양주

시 회천읍으로 입향하여 세거하면서 그 중 일부가 다시 동두천 지역으로 이동하여 뉴촌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 현재 동두천 지역에는 입향조 필구(弼求)로부터 10대가 계대되었고, 후손들의 분포는 경향 각지에 50여 세대, 동두천 지역에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지역 유지로는 고양식당을 운영하던 박한서(朴漢緒) 씨와 고 박승화 씨가 있다.

12. 함양 박씨

1) 시조

박언신(朴彦信)

2) 가문의 개창 과정

시조는 박언신(朴彦信),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朴赫居世)의 29세손 경명왕의 셋째 아들이다. 그가 속함대군(速咸大君)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삼게 되었다. 속함(速咸)은 함양(咸陽)의 옛 이름이다.

그러나 신라 8대군의 분봉 뒤 거듭되는 내우외환과 변혁을 거치면서 문헌의 유실 등으로 계대(系代)를 밝힐 수 없어 고려조 예부상서를 지낸 박선(朴善)을 중시조로 삼아 기세(起世)하고 있다. 그는 고려조에 문과 급제하고 조청대부예부상서(朝靑大夫禮部尙書)를 지내고 은청광록대부추밀원사(銀靑光祿大夫樞密院使)에 추증되었다.

3) 가문의 발전

함양 박씨의 시조 언신(彦信)은 박혁거세의 29세손인 경명왕(景明王)의 8대군 중 셋째 아들이다. 그러나 이후에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 중엽 예부상서를 지냈으며 함양군에 봉해진 선(善)을 중시조로 하고 함양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함양 박씨는 고려시대에 매우 번성하였는데 선(善) 이후로 의종 때 인정(仁

挺), 명종 대의 신정(信情), 윤정(允情) 등 3대에 걸쳐 예부상서를 배출했으며 무장으로 이부상서를 거쳐 의천군에 봉해진 신유 등이 뛰어났다.

또한 조선 선조 때 이조판서를 거쳐 좌찬성을 지낸 대립(大立)은 명필로 이름을 떨친 세영(世榮)의 아들이며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지은 세무(世茂)와 직언을 잘했던 이조참의 세옹(世翁)은 형제지간이다.

4) 함양 박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및 주요 인물

동두천에 뿌리내린 함양 박씨의 상계는 시조 박선의 15세손 세옹(世翁 1493-1541)으로 그의 자는 경운(景雲), 호는 진수정(眞水亭)이다. 세옹의 손자가 수암(守庵) 박기화(朴妓華)의 수제자로 임진왜란 당시 선조(宣祖)를 의주까지 호송한 박지기, 그 박지기의 아들이 풍덕군수를 지낸 재신(再新 1682-1751)으로 유관의 5세손이다. 재신의 아들이 태옹인데 그가 우리 지역으로 입향하여 자손을 번창시킨다. 태화(台樞)의 장자가 현좌(顯佐), 차자가 현우(顯佑)이다. 현우의 고손이 동익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함양 박씨는 낙향조 태화(台樞)로부터 10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르며 그의 후손이 경향 각지에 20여 세대이고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완희는 동익의 넷째 아들이다.

13. 운양 방씨

1) 시조

방지(方智)

2) 가문의 개창 과정

방씨는 중국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에서 계출(系出)된 성씨이며, 주(周)나라 때 대부(大夫) 방숙(方叔)의 후예로 전한다.

남양 방씨(南陽 方氏)는 중국 산둥(山東) 사람인 방지(方智)가 당(唐)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로서 서기 669년(당 고종 총장2, 신라 문무왕9)에 나당동맹(羅唐同盟)의 문화사절(文化使節)로 동래(東來)하여 설총(薛聰)과 함께 '구경(九經)'의 <회통(會統)>을 국역하여 불교의 전성시대인 신라에서 유학(儒學)의 체계를 수립하였고, 장씨(張氏)와 혼인하여 가유현(嘉猷縣: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에 뿌리를 내렸다.

3) 가문의 발전

그 후 그의 6세손으로 전하는 방운(方雲)이 고려 태조를 도와 후백제를 정벌하는 데 무공을 떨쳤고, 고려창업에서부터 성종대(981~997)에 이르기까지 60여년간 6대의 왕을 섬기면서 무훈을 세워 온수군(溫水君)에 봉해지고 온양(溫陽), 신창(新昌), 아산(牙山) 3읍을 식읍(食邑)으로 하사받았으며, 그가 살고 있던 온양군 팔동리(八東里) 과안산(過雁山)은 <방씨를 우러러 본다>는 뜻으로 배방산(裴方山)으로 일컬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누대(累代)로 사패지(賜牌地)인 온양지방에 살면서 방지(方智)를 시조(始祖)로 하고 운(雲)을 일세조(一世祖)로 하여 온양을 관향(貫鄉)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계승하였다.

방씨의 본관은 온양을 비롯하여 상주(尙州), 군위(軍威), 신창(新昌), 개성(開城), 강화(江華) 등 26본이 문헌에 전해지나, 모두가 동조동근(同祖同根)이며 근대에 와서는 온양으로 단일화하고 있다.

그 후 온양 방씨는 12세에 이르러 문정공(文定公) 우선(于宣)과 그의 아우 우번(于番), 목사(牧使) 득세(得世)의 아들 대에서 장암공(壯岩公) 서(曙)를 파조(派祖)로 하는 판서공파(判書公派)와 간의대부(諫議大夫) 현(縣)을 파조로 하는 간의공파(諫議公派), 안렴사(按廉使) 흰(暄)을 파조로 하는 안렴사공파(按廉使公派), 군위군(軍威君) 적(迪)을 파조로 하는 태상경공파(太常卿公派), 우번(于番)을 파조로 하는 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 평장사(平章事) 신제(臣悌)를 파조로 하는 광록대부공파(光祿大夫公派),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신우(臣佑)를 파조로 하는 상락부원군파(上洛府院君派)로 분파되었으나, 안렴사공파 흰(暄)과 상락부원군파 신우(臣佑)는 절손되었고 현재는 다섯 파만 세계가 이어진다.

4) 온양 방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온양 방씨는 고려조에서 우수한 명맥을 잇고 있는데, 방운의 후로 방중탁(方仲鐸, 복사정장), 방휴(方休, 명장), 방유(方裕, 평장사), 방재(方宰, 대장군), 방휘진(方諱進, 상서령), 방우선(方于宣, 정당문학), 방서(方曙, 판도판서), 방신우(方臣祐, 원나라 평장사), 방신제(方臣悌) 등이 문무로 방문을 더욱 번창시킨다.

동두천에 850년간이나 세거해온 온양 방씨의 입향조는 방휘진으로 고려 의종 때 상서령(尙書令)을 지내고 명종 7년(1177)에 지행동(紙杏洞)에 묻히면서 그 뿌리가 크게 번창하였다.

5) 동두천에서의 온양 방씨의 발전과 주요 인물

입향조 방휘진의 증손이 방우선(方于宣, 정당문학)이다. 우선의 아들이 방서(方曙, 장헌공), 방현(方玄, 중서령), 방훤(方暄, 안렴사), 방적(方迪, 군위군)이다.

다시 방현의 아들이 지주(枝株)이고 지주의 손자가 천주(千株), 천주의 현손이 생연1동에 묻혀있는 방륜(方輪, 병마절도사)이다. 이렇듯 방휘진으로부터 26대가 계대된 가장 오래된 토착 성씨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 후손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경향 각지에 2만여 세대가 산재한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유명 인사로는 방제환 전 동두천시장이 있다.

14. 전주 이씨

1) 시조

이한(李翰)

2) 가문의 개창 과정

전주 이씨 시조의 휘(諱)는 한(翰)이요, 호는 견성(甄城)이다. 신라의 사공(司

空) 벼슬을 지냈다. 배위(配位) 경주 김씨는 신라 태종무열왕의 10세손 군윤(軍尹) 은의(殷義)의 딸이다.

3) 가문의 발전

시조 이한의 18세손 되는 이안사(李安社)는 대대로 전주에 살아온 호족이었는데 새로 부임한 지주의 탐학을 규탄하자 지주가 군사를 휘둘러 보복하려 하여 그를 피해 강원도 삼척으로 피했다가 다시 함경도를 거쳐 원나라 간동으로가 그곳에서 다루가치 벼슬을 지냈고 증손자되는 이자춘(李子春)이 고려시대에 공을 세워 사복경(司僕卿)에 이르렀다.

이용부는 전주 이씨 시조 1세 이한의 15세손이다. 그 다음이 16세로 이준의, 이의방, 이린, 이저 형제이고 17세가 이양무로 이양무의 묘가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의 준경묘이다. 18세가 목조 이안사, 19세가 익조 이행리, 18세가 도조 이춘, 19세가 환조 이자춘, 20세가 태조 이성계인 것이다.

조선 제1대 왕(1392~1398) 성은 이(李), 이름은 성계(成桂), 자는 중결(仲潔), 호는 송헌(松軒), 본관은 전주(全州), 즉위 후 이름을 단(旦), 자를 군진(君晉)으로 고쳤다. 이자춘(李子春)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최씨(崔氏)이다. 비는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 계비는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이다.

전주 이씨는 조선 500년을 이끌어온 왕가이므로 가문의 번성기를 따로 기술할 필요가 없다. 시조로부터 목조대왕(穆祖大王)의 아버지인 양무장군(陽茂將軍)까지를 선원선계(璿源先系)라 하고, 목조대왕으로부터 왕통계(王統系)인 순종황제까지를 선원세계(璿源世系) 또는 선원본계(璿源本系)라 하며, 목조대왕의 왕자파(王子派) 이후 순종황제의 왕자 군(王子君)까지의 각 파를 선원파계(璿源派系) 또는 선원속계(璿源續系)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조로부터 17세 양무장군까지의 직계와 방계의 3파 곧 시중공파(侍中公派)·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주부공파(主簿公派)는 모두 선원선계에 속한다.

선원세계는 추존왕 4대와 태조 고황제부터 순종황제까지 20세를 합쳐 24세의 역대 왕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목조대왕의 5왕자로부터 장조의 3왕자 군까지 도합 125의 파계가 있었으나 무사(無嗣)의 군파가 있어 현재는 105여 파로 분리되고, 2005년 12월 현재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 종약원'에 등록된 파종회는 89개 파다.

1985년 통계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주 이씨(全州 李氏)는 남한에 총 558,019가구 2,379,53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4,330명의 과거 급제자가 있다. (문과 784명, 무과 374명, 사마시 2,719명, 역과 120명, 의과 70명, 음양과 77명, 율과 17명, 주학 169명)

※ 상신 22명, 궤장을 하사 받은 자 5명 등 최고의 명문대운 인재를 배출하였다.

4) 동두천의 전주 이씨 파별 입향 과정 및 발전, 파별 중요 인물

전주 이씨는 파별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2,379,000명을 헤아릴 수 있다. 우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전주 이씨도 무려 1,321호(5,212명)으로 각 동마다 거의 분포되어 있으며 300년 이상 뿌리를 내려온 세거 성씨로 자처하는 7개 파가 있다.

(1) 송내동의 주부동정파

송내동에서 10대를 세거해온 전주 이씨의 상계는 시조 이한의 18세손 이영습(李英襲)으로부터 계대한다. 영습의 증손 이세분(李世芬)은 조선 개국에 협력하여 예조판서를 지냈고, 그의 아들 중배(仲培)도 이조판서를 지내는 등 부자 상신이 배출되었고, 그 손자는 단종 때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를 지낸 소생(紹生, 호는 우계당)이다. 그는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내몰고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충청도 예산으로 낙향하여 은둔하였다. 그러나 처남인 서거정이 수차례 찾아와 출사(出仕)를 거듭 권하자 자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도리를 내버릴 수 없다 하여 끝내 사양하고 부득이 아들 3형제만을 출사시켰으니 큰 아들 열(洌, 행 흥덕 현감), 둘째 연(演, 행 안주 목사), 셋째 준(浚)이 바로 그들이다.

열의 손자가 우(瑀 1483-1536)인데 그는 성종 때 1헌 3군 4부 1목의 목민관을 지냈으며 안동도호부사(安東都護府使)를 지낼 때 선정비가 세워지기도 한 인물이었다. 이우는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셋째 아들이 신희(愼孝)이고 신희의 아들 담(談)은 효로 임사하여 옥천군수를 지냈는데 청백 선치하여 청덕비(淸德碑)가 세워진 유능한 행정가였다. 담의 아들이 영식(永式, 진주목사)이고 숙종 때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서(胥)는 영식의 증손이다. 동두천 송내동에 뿌

리를 내린 문규는 서의 증손이며 그 후로 10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동두천에는 그의 후손이 20여 세대 거주하고 있으며 경향 각지에 10여 세대가 분포하고 있다. 현재 문중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이사로 있는 이회중이 있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이현오, 양주시 총무과장 이진규, 동두천시 기획감사실 법무담당 고 이호연 등이 있다.

(2) 상패동의 덕천군파

상패동 부곡에서 누대를 세거해온 전주 이씨의 상계는 조선 제2대 임금인 정종의 열째 아들 덕천군(德泉君, 휘 후생)의 넷째 아들 송림군(松林君, 휘 효창)에서부터 계대한다. 송림군의 차자가 안현군(安賢君)이고, 그의 여덟 번째 아들 연천부정(漣川副正, 휘 상경)이 이곳으로 입향하여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의 아들 온(蘊)과 진(蘊) 형제를 두었고 온의 아들이 경휘(慶輝)인데 그도 아들 역(櫟)과 주(株) 형제를 낳아 자손을 번성시켰다. 역의 현손이 담(湛)이고 담의 증손이 복원(馥遠 1835-1891)이다.

우리 지역에는 연천부정 상경으로부터 15대가 계대되었고, 후손 20여 세대가 거주하며 경향 각지에 30여 세대가 분포한다. 이 지역의 인물로는 덕천군파의 종손인 이용하와 그의 아들 농학박사 이은섭 그리고 종종 일을 맡고 있는 이은성 씨가 있다.

(3) 지행동의 효령대군파

지행동에 250여 년째 세거해온 전주 이씨 효령대군(휘는 보)의 12대손 이장혁(李鏞赫)이 지행동에 정착하여 세거하면서 명문을 연다. 장혁의 현손인 이회룡(李會龍)은 고종 8년 (1871) 종친과에 등과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에 올라 가업을 이었고, 그 후손이 번창하여 9대가 계대되어 지행동에 15세대가 거주하며 경향 각지에는 20여 세대가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인물로는 초대 이담면 의회의원을 역임한 이기봉, 공직생활을 하던 이강진이 있고, 지행1리 이장을 역임한 이기학, 새마을 지도자를 오랫동안 역임하고 궁도회 회장을 맡았던 이강주, 소요산악회 회장과 종친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정원, 공학박사로 삼성에 근무하는 이강석, 문학박사 이강건, 공학박사 이수정, 육군 소령으로 제대한 이강진,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이강혁 등이 있다. 아울러 지행2리 새마을 지도자를 오래 역임하고 1996년 10월 5일

동두천시 시민의장 새마을장을 수상한 이덕재 씨 등이 있다

(4) 탐동의 무림군파

탐동 조산마을에 15대를 세거해온 전주 인맥의 상계는 정종 제15왕자 무림군의 6세손인 이달준(李達俊 1586-1669)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깊은 뿌리를 내린다.

이후 현손 대에 5형제가 번성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7세 손 이종건이 고종조에서 어영대장을 지내 명문을 계승하여 갔다. 낙향조인 이달준의 후손이 이제 300여 세대로 번창하였고, 조산마을에도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후손 중에 주요 인물로는 1873년 탐동 조산에서 출생하여 1908년 정용대의 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포천, 영평 등지에서 일본군과 투쟁을 전개하다 1910년 일본군에게 잡혀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애국지사 이병하(李秉夏) 선생이 무림군의 15대 손이고,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흥묵 씨 등이 있다.

(5) 동두천동의 전성군파

동두천동에 13대째 세거해온 전주 이씨의 상계는 효령대군의 3자 보성군(寶城君) 함(合)에서 시작된다. 함의 차자 울원군(栗元君) 종(宗)의 손자가 전성군(田城君) 대(對)이다. 대의 7자가 박(樸)이고 그의 5대 손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석령(錫齡), 석령의 아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이중경(李重庚)이다.

공조판서를 지낸 그가 말년에 정자를 짓고 정호(亭號)를 가정자(柯亭子)라 한 것에 연유되어 이곳을 가정자(동두천의 옛 지명)라 불러 왔다. 이경중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이후 세계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장자 명오(明吾), 차자 장오(章吾)의 후손들이 경향 각지에 분포하여 살고 있다.

중요 인사로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동두천지부장과 동두천 전주 이씨 종친회 회장을 역임하고 1988년 '소요산'이란 제목의 사진집을 발간한 이필성 씨가 있다. 그 손자 이은성 씨가 형제불고기 식당을 경영 중이다. 이필성 씨는 1997년 동두천 시민의장 문화의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6) 안흥동의 장천군파

안흥동에서 350년간 세거해온 전주 이씨의 상계는 조선 2대 임금 정종의 13자 장천군(長川君)에서부터 계대한다. 장천군(長川君, 휘는 보생, 시호는 공소공)의 장자가 형(炯, 악림군), 차자가 혼(混, 악양부정), 삼자가 석동(石童, 삼양부정)이다.

안흥동 산87번지에는 이장해온 혼의 묘가 있고 이곳에 6세손 덕룡(德龍)이 1636년 병자호란을 피해 안흥동에 정착하여 세거하게 되었다. 덕룡의 아들이 홍익(弘益)이고 그의 아들이 군자감정을 지낸 김이다. 김이 3형제를 두었는데 장자가 경립(慶立), 차자가 경춘(慶春), 3자가 이춘(以春)이다. 우리 고장에서 악양부정 혼의 자손이 번창하게 된 것은 경립의 아들 5형제로 장자 만기(萬杞), 차자 천기(千杞), 3자 백기(白杞), 4자 성기(聖杞), 5자 상기(尙杞)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입향조로부터 15대가 계대되었고, 후손 20여 호가 안흥의 한 마을을 이루었다. 경향 각지에 50여 세대가 분포한다.

근대의 인물로는 석천(石泉) 이덕형(李德亨)이 한학자로 이름을 남겼다. 1959년에 이정남 씨, 1961년에 이재수 씨, 1961년에 이정현 씨, 1979년에 이의열 씨, 1980년에 이재필 씨가 각각 이장으로 수고하셨고 현재 이재합 씨가 종친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7) 상패동의 동양정공파

상패동 인곡에 12대째 세거해온 전주 이씨의 상계는 효령대군의 손자 동양정(東陽正) 이서(李徐)에서부터 계대된다. 서의 아들이 강성도정(江城都正) 견손(堅孫)이고, 그의 아들이 효손(孝孫)이다. 효손의 현손이 창마(昌麻), 그의 아들 태영(太永 1663-1725)이 상패동에 정착하였다.

태영으로부터 현손 대길(大吉)까지 5대를 독자로 이어 내려오다가 대길이 아들 형제 회만(會晩), 회석(會錫)을 낳고 회만도 형제 택우(澤宇), 서우(瑞宇)를 두었다. 서우의 아들이 존의(存儀)인데 그가 아들 3형제 기선(起善), 기환(起煥), 기복(起福) 등을 두어 자손이 번성하였다.

전 동두천시의회 의원인 이강준(李康俊)은 택우의 증손이다. 우리 지역에는 입향조 태영의 후손 20여 세대가 거주한다. 이강준이 동두천시 2·3대 의원을 역임하였고, 공군 소령으로 전역한 이유재, 공군 소령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순훈 등이 있다.

(8) 지행동의 영산군파

지행동의 영산군(寧山君)파는 성종의 13남 영산군이 파조이며 현재 영산군의 13대손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시조에서부터 41세이고 태조로부터 20세 손인 영산군의 손자 영풍군의 묘가 회천읍 옥정리에 있고, 6, 7, 8, 9세조의 묘는 연천군 전곡읍에 있으며 6세 조모의 묘가 지행동에 있다. 현재까지 10대가 계대하여 세거하고 있으며 지행동의 15가구를 비롯 생골의 이창득 씨를 포함한 여러 세대와 함께 연천 등 경향 각지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의 인사로는 지행2리 이장을 각각 역임한 이채빈 씨와 이채영 씨가 있으며 경기도 도의원을 역임한 이익훈 씨가 있다. 동두천시 의용소방대장, 동두천시예총 회장, 동두내옛소리보존회 회장을 역임하고 1986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한 이채혁 씨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북진하여 압록강 가에 이르러 그 물을 마시고 온 경력이 있고, 전주 이씨 동두천시 종친회장을 맡고 있으며, 1998년 동두천 시민의장 향토애향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15. 파평 윤씨

1) 시조

윤신달(尹辛達)

2) 가문의 개창 과정

파평 윤씨(坡平 尹氏)의 시조(始祖) 윤신달(尹辛達)은 신라(新羅)의 천년사직(千年社稷)이 기울고 후삼국(後三國)의 격동기에 고려(高麗) 태조(太祖)를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창업에 훈공을 세운 명신(名臣)이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와 「용연보감(龍淵寶鑑)」 등의 문헌에 의하면 시조 신달은 경기도 파주 파평산(坡平山) 기슭에 있는 <용연지(龍淵池)>라는 못 가운데 있던 옥함(玉函) 속에서 출생했다고 하며, 그가 옥함(玉函)에서 나올 때 겨드랑이에 81개의 비늘과 발(足)에는 7개의 검은 점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윤(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성(姓)을 윤(尹)으로 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특히 시조 신달은 문무(文武)를 겸비한 현신(賢臣)으로 왕건(王建)이 후삼국을 통일하기까지 항상 곁에서 인의(仁義)와 도덕(道德)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충간(忠諫)했으며,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벽상삼한익찬 2등공신(壁上三韓翊贊 二等功臣)으로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의 관작을 받아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받들고 본관(本貫)을 파평(坡平)으로 삼아 명문세도(名門勢道)의 가문으로 기틀을 다져왔다.

3) 가문의 발전

신달의 현손(玄孫) 관(瓘)이 고려 문종(文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선종(宣宗) 때 함문지후(閣門祗候)와 좌사낭중(左司郎中)을 지내고, 1107년(예종 2년) 여진정벌(女眞征伐)에 원수(元帥)가 되어 17만 대군을 이끌고 동북계에 출전, 함주(咸州)와 영주(英州) 등 9지구에 성(城)을 쌓아 침범하는 여진을 평정(平定)하고 개설했으며, 뒤에 벼슬이 수태보 문하시중 판병부사 상주국 감수국사(守太保 門下侍中 判兵部事 上柱國 監修國史)에 이르러 가세(家勢)를 크게 일으켰다.

아들 5형제를 두었으며 아랫대로 내려가면서 수십 파로 분파되었다. 파평 윤씨 가운데서 주로 판도공파(版圖公派:承禮)와 소정공파(昭靖公派:坤)에서 대대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고, 이 두 파의 후손이 가장 번창하여 파평 윤씨의 약 80%를 차지한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파평 윤씨(坡平 尹氏)가 남한(南韓)에 총 154,496가구, 646,63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파평 윤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및 주요 인물

시조 윤신달의 현손이 고려 명장 윤관이다. 윤관의 다섯 아들 윤언인, 언순, 언신, 언이, 언귀 중 두 명은 중이 되었고 윤언이는 전공이 커 고려 희종 때에 정당문학의 벼슬에 올랐다. 언이의 아들이 윤인첨, 인첨의 손자가 윤자연, 자연의 손자가 윤지호, 지호의 9세손이 윤천보, 천보의 7세손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윤근이다. 다시 윤언이의 5세손이 윤보, 보의 아들이 윤비, 비의 증손이 윤승순과 윤승례다.

동두천 송내동에 세거해 온 파평 윤씨의 상계는 윤승순의 아들 윤곤부터 계대한다. 곤의 아들이 희제이고 희제의 아들이 윤배, 윤배의 아들이 윤탁이고, 윤탁의 손자가 윤시인데 송내동으로 입향하여 뿌리를 내린 이가 윤시의 현손 원석이다. 동두천에는 원석으로부터 9대가 계대된다. 동두천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이 20여 세대이고 경향 각지에 40여 세대가 분포한다.

현재 문중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전 애향동지회장 윤학병과 양주군 당시 동두천 보산파출소장을 역임한 윤상섭이 있다.

16. 해평 윤씨

1) 시조

윤군정(尹君正)

2) 가문의 개창 과정 및 발전

해평 윤씨(海平尹氏)의 시조(始祖)는 고려(高麗) 고종(高宗)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수사공(守司空),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판공부사(判工部事) 등을 역임한 윤군정(尹君正)이다.

군정(君正)의 아들 만비(萬庇)가 충렬왕(忠烈王) 때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와 상호군(上護軍)을 지냈고 후에 일등공신이 되었으며, 손자(孫子) 석(碩)은 충숙왕(忠肅王) 때 충근절의동덕찬화보정공신(忠勤節義同德贊化保定功臣)으로 우정승(右政丞),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 등을 지내고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에 봉군되어 원(元)나라로부터 진국상장군(鎭國上將軍), 고려도원수(高麗都元帥)의 직위(職位)를 받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해평(海平)을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 왔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평 윤씨(海平 尹氏)는 남한(南韓)에 총 5,489가구, 22,75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해평 윤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및 주요 인물

해평 윤씨의 시조는 고려 고종 때 대부인 윤군정(尹君正)이고 시조의 손자가 윤석(尹碩), 석의 5세손이 윤정명(尹廷命, 태조의 부마)이고, 중종 때의 상신 윤은보(尹殷輔, 영의정)는 석의 7세손이다. 은보의 형이 은필(殷弼, 이조참판)이고 북관정벌에 공을 세운 선조 때의 상신 윤승훈(尹承勳, 영의정)은 은필의 손자다. 다시 소급하여 석의 8세손이 정암 조광조 문하의 학자 윤변(尹忭, 군자감), 변의 아들이 해평 윤씨 인맥의 근간을 이루는 선조 때의 명신 윤두수(尹斗壽, 영의정 공신)이다. 두수의 아우가 임진 공신 윤근수(尹根壽)이다. 그는 임진란에 선조를 호종하여 반 년 동안 세 번 광녕(廣寧)에, 여섯 번 요동에 사신으로 나갔던 국난 외교의 명신이다.

두수의 아들이 윤방(尹昉, 영의정), 그의 세 아우가 혼(昕, 예조판서), 휘(暉, 형조판서), 선(宣, 대사헌)이다. 우리 지역에 세거해 온 해평 윤씨의 상계는 도제공 혼으로부터 계대한다.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입향조는 윤일선(尹一善)이고 그로부터 8대가 계대되었으며 동두천읍장을 지낸 달섭(達燮)은 혼의 13대 손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남가좌동장을 역임한 윤영섭, 읍장을 지낸 달섭의 아들 윤승로가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을 하고 있다.

17. 광주 정씨

1) 시조

정신호(鄭臣扈)

2) 가문의 개창 과정

광주 정씨의 시조는 정신호(鄭臣扈)인데 고려 말에 봉은사진전직(奉恩寺眞殿直) 상호군(上護軍)을 지냈고, 삼중대광 문하찬성사(三重大光 門下贊成事) 판도사(版圖司) 판사(判事)에 추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주 정씨는 온양, 연일, 하동 등과 함께 경주 정씨에서 분파되었다고 하나 분파조 정온극(鄭溫克)으로부터 중시조 정신호에 이르는 세계가 멸실되어 그 정확한 계대를 알 수가 없다. 일설에 따르면 공민왕 대의 공신 정세운(鄭世運)이 광주인으로 사료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가 광주 정씨인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3) 가문의 발전

시조(始祖) 이래 500여 년 조선조에서 문과 급제 33인에 무과 사마(司馬) 급제자까지 다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유수의 잠영(簪纓) 세가(世家) 도학(道學) 명문(名門)이다.

권좌에 올랐으되 그러나 한 번 권세를 함부로 한 일 없고 한 줌 재화(財貨)를 탐한 일 없이 강명(剛明) 청직(淸直)으로 이어내려 왔다. 외적 침입에는 목숨 바쳐 나라 지키니 임진란 때 예조문첩(禮曹文帖)이나 그 밖의 여러 절의록(節義錄)에 많은 열사(烈士), 그 열사 따른 열부(烈婦)의 창의(倡義) 순절(殉節)이 빛나며 근세 일제 강점(強占)에 중부 지방 의병장과 3·1운동을 주도한 33인의 한 사람이 일족의 기개를 대표한다. 한편으로 『동문선(東文選)』,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녹선(錄選)된 문장가와 조선 중기 중국 사행(使行)에서 문명 이기 과학 서적을 들여와 이 나라 근대화에 획을 그은 선구자가 있으며 서울 화동(花洞) 1번지에 나라에서 처음으로 화비(畫碑)를 세운 조선 제일의 산수화가(山水畫家)가 있다. 이 겨레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빛냄에 광주 정씨는 내일을 위하여 다시 더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85년 통계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주 정씨(光州 鄭氏)는 남한(南韓)에 총 3,446가구, 14,92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광주 정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광주 정씨는 고려 말 삼중대광문하찬성사(三重大匡門下贊成事) 정신호(鄭臣憲)를 시조로 한다. 신호의 장남 정윤부는 개성부윤(開城府尹)이었고, 차남 윤형(允亨)은 형조참의(刑曹參議)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 윤부(允孚)의 장남 인진(麟晉)이 전라감사를 지냈고, 차남 구진(龜晉)이 강원감사를 지내 문중에서는

완백공(完伯公), 동백공(東伯公)으로 부른다. 조선조 500년 동안 완백공, 동백공 두 후손에서 문과 급제 32인이 배출되었다.

조선조의 뛰어난 화가(畫家) 겸재 정선(鄭敾)은 완백공 11대손이고, 기미독립선언 33인 중 한 사람인 춘수(春洙)는 동백공의 15대손이다.

고려 우왕 임술년 과거에 장원 급제한 구진은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여지승람』 광주 인물 조에 그 이름이 보이는데, 남원부와 평창군 제영(題詠)에 시구가 인용되어 전한다. 구진의 네 손자 가운데 넷째 찬우(贊禹)의 후손들이 안흥동 정씨 문중이다.

찬우는 청도군수를 지냈고, 찬성(贊成)에 추증되었으며 부인 동래 정씨는 여류 문장가로 유명하여 글에 대한 칭송이 사서에 전한다. 찬우의 장남 순인(純仁)은 아산군수를 지냈고, 차남 인인(麟仁)은 연산군의 무오 식년시에 장원한 명인이었으나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을 때 갑자사화로 해를 입었다. 5세 찬우와 6세 순인, 인인의 묘는 포천 일동에 있다.

5) 동두천에서의 광주 정씨 가문의 발전

안흥동 광주 정씨는 순인의 손자인 8세 이주(以周) 이래로 24세까지 17대를 이어져 내려 온다. 이주는 선조 1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여섯 번 사헌부장령을 지내면서 직언으로 일관, 당시의 권신들을 떨게 만들었던 강직한 유현(儒賢)이었으며 마침내 그의 직언이 권신들의 비위를 거슬러 정주목사로 나갔다가 춘천 선조의 묘 아래에 은거하여 독서로 여생을 마쳤다.

이주는 3남을 두었다. 장남 사호(賜湖, 호는 화곡(禾谷))는 선조 10년에 등과하여 정유재란 때 안동부사로 명군(明軍)과 함께 왜군을 토벌하였으며 황해, 평안, 경상, 경기 4도의 감사를 지내고 다섯 번째 대사헌에 올랐으며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선조실록』 편수에 참여했다. 이어 형조판서에 제수되고 마지막으로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시호는 충민(忠敏)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1604년 사호는 난리 중 온양의 사위 정희(鄭晦)의 집에 피난 갔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난 모부인 동래 정씨와 춘천에 장사한 선고 성재공을 도곡 묘지로 옮겨 합장(合葬)하고 최립(崔笠)의 글, 사호의 글씨, 김상용(金尙容) 전(篆)의 신도비를 세웠다. 이 신도비는 동두천의 오래된 석물 가운데 하나이다. 사호도 1616년 이 곳에 묻혔는데 이 사호의 묘는 지금 동두천 향토

문화유적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호의 장남인 현원(玄源)은 호를 조영당(苕蔞堂)이라 했다. 조영당은 대제학 월사 이정구(李廷龜)의 사위이고 조영당의 딸은 대제학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손부(孫婦)가 되었다. 상촌(象村) 신흠(申欽)이 이주의 묘지(墓誌)를 썼으니, 문장 4대가라 일컫는 월상계택(月象谿澤) 가문과의 관계에서 안흥동 정씨의 가계(家格)를 짐작해 보게 된다. 안흥동 정씨 문중에서 조영당 이후에 출사한 후손으로는 아들 11세 전창(展昌)이 의금부 도사, 전창의 장남 치상(致相)이 하양현감, 18세 먼수(勉洙)가 등과하여 고종 때 사간원 정언을 거쳐 사헌부 집의에 올랐다.

6) 동두천 광주 정씨의 주요 인물들

현재 조영당의 후손은 100여 호가 되며 종손(宗孫) 영호(永鎬)는 문교부에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문중을 지키고 있으며, 전창의 차남인 수상(遂相)의 10대손 문학박사 기호(琦鎬)는 인하대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역시 귀향하여 연구 활동에 전념 중이다. 문학박사 광호(光鎬)는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완호(玩鎬)는 이학박사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과학교육협회 회장으로 있다.

이 밖에 보령여자고등학교 교장, 한북대학교 교무과장을 역임한 정용관, 안흥리 이장을 역임한 정용완, 정용집, 정용국, 정돈호, 걸산리 이장을 역임한 정용철, 정용학 그리고 현재 동두천농협 조합장으로 있는 정진호 등 많은 지역의 일꾼을 배출하였다.

아울러 의정부로 이거한 정영수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품질과 공정관리, 신지식인 분야에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임되었을 뿐 아니라 경기도 으뜸(철강 분야)에도 선정되는 등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한편 동두천 광주 정씨의 세손은 아니지만 광주 정씨가 배출한 뛰어난 애국열사가 바로 의병장 정용대이다. 1908년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해산에 대한 의분으로 수백 명의 의병을 모집, 적성·풍덕(豐德)·통진(通津) 등지에서 활발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해 2월 인근에서 활약하던 다른 의병부대와 연합전선을 구축, 동두천, 양주, 파주 일대에서 일본헌병대 및 경찰대와 교전하였다. 그 뒤 군자금과 군량미 조달 등 전투준비를 하다가 1909년 체포,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순국하였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18. 동래 정씨

1) 시조

정지원(鄭之遠)

2) 가문의 개창 경위

본래(本來) 동래 정씨(東萊 鄭氏)는 신라(新羅) 6부촌(六部村)의 진지촌장(珍支村長) 지백호(智伯虎)의 후손(後孫)이다. 동래 정씨(東萊 鄭氏)는 고려(高麗) 때 보윤호장(甫尹戶長)이었던 정지원(鄭之遠)을 시조(始祖)로 하는 성씨(姓氏)인데, ‘을미보(乙未譜)’에는 안일호장(安逸戶長)이었던 정회문(鄭繪文)을 시조(始祖)로 하여 기세(起世)하였으나, ‘병신보(丙申譜)’ 이후(以後)부터는 문안공(文安公) 정항(鄭沆)의 묘지(墓誌)가 발견(發見)된 이후(以後), 그로부터 묘지(墓誌)에 의해 3세(三世)를 소급(遡及)하게 되었으므로, 정지원(鄭之遠)을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기세(起世)하고 있다. 정지원(鄭之遠)과 정회문(鄭繪文) 사이의 세계(世系)는 알 수 없는 실정(實情)이다.

3) 가문의 발전

동래 정씨(東萊 鄭氏)는 3세조(三世祖) 정목(鄭穆)이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오르고, 그의 네 아들이 모두 문과(文科)에 오름으로써 명족(名族)이 되기 시작(始作)하였다.

고려조(高麗朝)에 이미 대족(大族)으로 성장(成長)할 수 있었던 동래 정씨(東萊 鄭氏)는 조선조(朝鮮朝) 전 기간(全 期間)에 걸쳐서 17명(十七名)의 상신(相臣)을 배출(輩出)하였는데, 이는 전주 이씨(全州 李氏) 22명(二十二名), 안동 김씨(安東 金氏) 19명(十九名)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외에 대제학(大提學) 2명(二名), 호당(湖堂) 6명(六名), 공신(功臣) 4명(四名), 판서(判書)가

20여 명(二十餘名)이 나왔고, 198명(一百九十八名)의 문과(文科) 급제자(及第者)를 배출(輩出)하였다.

4) 동래 정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동래 정씨의 시조는 정지원(鄭之遠)으로 시조의 손자가 정목(鄭穆)이며 목의 아들이 전항(鄭沆), 항의 아들이 <정과정곡>으로 유명한 정서(鄭陟)이다.

동래 정씨의 명맥은 목의 8세손 정양생(봉원군) 계보와 목의 9세손 정구령 계파로 대별된다. 동두천 안흥동에 입향한 락(洛)의 선계는 양생에서부터이다.

양생 계파는 고려 공민왕 때 등과한 아들 정구, 기준과 구의 현손이며 선조 때의 상신인 9세손 정대년으로 이어진다. 동두천에는 대년(大年)의 아들 돈복(敦復)의 후배인 언양 김씨가 안흥동에 정착하였고, 돈복의 아들 낙이 아들 3형제를 낳아 후손이 번창하며 그 뿌리를 깊이 내렸다. 낙(절충장군)에서부터 15대가 계대되어 경향 각지에 50여 세대가 번성하였고,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거주하며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5) 동두천 동래 정씨의 주요 인물들

대표적인 지역의 인물로는 애국지사 정충환(鄭忠煥) 선생이 있다. 선생은 1888년 송내리에서 태어나 1908년 황재호 의병부대에 가입하고 동료 의병 80여 명과 함께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시며 투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으셨다가, 포천 덕둔리에서 활동 중 일제에 잡혀 5년간 모진 옥고를 치렀다. 묘소는 남양주 별내면 용암리 도감촌에 모셔져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의원을 지낸 12세 정인백 씨, 유럽에 몸담고 활동하시는 13세 정연승 씨, 그리고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정대식 씨 등이 있다.

19. 창녕 조씨

1) 시조

조계룡(曹繼龍)

2) 가문의 개창 과정

모든 조씨(曹氏) 성은 창녕 조씨에서 분파되었다. 본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모두 창녕 조씨 단일본으로 통한다. 시조 조계룡(曹繼龍)은 신라 진평왕의 사위로 창성부원군에 봉해지고 벼슬이 보국대장군 상주국대도독 총지휘제군사(輔國大將軍 上柱國大都督 總指揮諸軍事) 금자광록대부 태자태사(金紫光祿大夫 太子太師)에 이르렀다.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본관을 창녕으로 하고 있다.

3) 가문의 발전

창녕(昌寧)·능성(陵城)·남평(南平)·옥주(玉州)·장흥(長興)·안동(安東)·청도(淸道)·수성(壽城)·가흥(嘉興)·창평(昌平)·영암(靈巖)·인산(仁山) 등 10여 본이 전하나 창녕 조씨의 분파라는 것이 통설이어서 현재는 사실상 '창녕' 단일본으로 통한다. 시조 조계룡(曹繼龍)의 5대손인 겸(謙)을 중시조(中始祖)로 삼고 있다. 겸은 신라 말기에 아한시중(阿干侍中)을 지내고 시문에도 뛰어났던 흠(欽)의 아들로서 고려 태조 왕건의 딸 덕공공주(德恭公主)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었다고 한다. 창녕 조씨 세보에 의하면, 고려시대 겸의 손자 연우(延祐)로부터 15세 자기(自奇)에 이르기까지 8대에 걸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배출하였는데, 이것은 광산 김씨(光山 金氏)가 10대에 걸쳐 평장사를 배출한 것과 함께 기록적이라 하겠다. 창녕 조씨는 조선시대에 113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1960년도 국세 조사에 의하면 3만2,605가구에 인구 18만4,822명으로 성별 순위는 285성 중 제28위였고, 1975년도 국세 조사에서도 가구 수 4만5,751가구, 전국 가구구성비 0.7%로 249성 중 역시 제28위였다. 198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가구 7만3,206호에 인구 30만4,837명이었다.

4) 창녕 조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창녕 조씨 인맥은 시조의 5세손 조겸이 고려조에서 명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겸의 손자가 연우(延祐), 연우의 아들이 한지, 한지의 아들이 지현, 지현의 아들이 사전(思詮), 사전의 아들이 정린(正麟), 정린의 아들이 중용(淸장사), 중용의 아들이 의문, 의문의 아들이 자기로 8대에 걸쳐 평장사를 이어 내리는 고려 초기의 우수한 명문을 이루었다. 자기(自奇) 후로 고려 중기에는 명맥이 일시 끊겼다가, 그의 10세손 광한과 익청이 고려 말에 인맥을 부활시킨다.

자기의 9세손 우희의 아들이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을 감행하여 우왕을 세운 민수이고, 민수의 아우가 경수이며 항(抗)의 아들이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석문이며, 『세종실록』을 편찬한 위(偉)는 경수의 현손이 된다.

동두천 광암동에 세거해 온 창녕 조씨의 상계는 상치(尙治)부터다. 상치의 증손이 계상, 계상의 아들이 광원, 광원의 아우가 명원과 휘원이다. 명원의 아들이 대정(大貞), 대정의 고손이 진주이다. 그리고 진주의 손자가 회원이고 고종 때 감역을 지낸 진승(震承)은 진주의 6대손이다.

동두천에는 진주로부터 12대가 계대되어 후손이 경향 각지에 30여 세대, 동두천에는 50여 세대가 분포한다.

5) 동두천 창녕 조씨의 주요 인물들

근대의 인물로는 대한제국 때 성리학자로 많은 후학을 길러낸 병윤(秉潤)과, 제2대 면의원을 지냈던 규철(圭哲), 신홍대 교수 경현(景紘)이 있다. 그리고 광암1리 이장을 역임하고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조규진, 예비군 광암대장 조규산 등도 있다.

20. 청풍 김씨

1) 시조

김대유(金大猷)

2) 가문의 개창 과정

청풍 김씨(淸風 金氏)는 신라 대보공(大輔公) 김알지(金閼智)의 후예(後裔)인 대장군(大將軍) 김순웅(金順雄)의 12세손 김대유(金大猷)를 시조(始祖)로 하고 있다. 그는 고려(高麗) 말에 문하시중(門下侍中 : 고려 때 문하성의 정1품 으뜸 벼슬)을 지내고 청성(淸城 : 청풍의 별호) 부원군(府院君)에 추봉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관향(貫鄕)을 청풍(淸風)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3) 가문의 발전

청풍 김씨는 조선조(朝鮮朝)에서 상신(相臣 :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의 별칭) 8명, 대제학(大提學 : 홍문관 · 예문관의 정2품 벼슬) 3명, 왕비(王妃) 2명이 나왔으며, '3대 정승'과 '부자 영상(父子 領相)'을 배출하여 청송 심씨(靑松 沈氏) · 달성 서씨(達成 徐氏)와 함께 명문(名門)으로 명성을 날렸다.

1985년 통계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풍 김씨(淸風 金氏)는 남한(南韓)에 총 2만189가구, 8만2,88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풍 김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청풍 김씨는 시조 김대유의 8대손인 김식(金湜) 계보와 9세손인 김우증(金友曾) 계보, 13세손인 김진국(金盡國) 계보 그리고 중시조인 김소중(金小中) 계보로 대별된다.

조선조 4대 문장 중 하나로 꼽는 김구는 우증의 6세손이며, 박세채의 문우였던 김유는 그의 아우이다. 그리고 영조의 묘정에 배향된 상신 김재로와 호화로운 벼슬만이 반드시 가문의 번영을 뜻하지 않는다면 일찍 은퇴한 김희로는 김

구의 아들이다.

재로의 아들이 영의정을 지낸 김치인으로 김구, 김재로에 이은 3세 입상(入相)의 드물게 보는 영예를 누렸고, 김종후와 정조 묘정에 배향된 명상 김종수 형제는 그의 증손으로 4대째 상신을 이었다. 김서 계보는 증손 김종정, 종정의 손자가 김동건, 동건의 조카 김학성은 이조판서로 판서의 명맥을 이었다.

300년 전 동두천 탑동에 뿌리를 내린 청풍 김씨의 입향조는 우증의 6대손 김계이다.

계의 아들이 좌로, 좌로의 아들이 치흥이며, 치흥의 후대로 세가 계대되어 한마을을 이루고 있다. 입향조인 김계의 후손은 전국에 60여 세대, 이 지역에 20여 세대가 분포되어 있다.

5) 동두천 청풍 김씨의 주요 인물들

주요 인사로는 이 마을의 이장을 지낸 김상우 씨가 종중을 관리하며 청풍각 사당을 지어 조상을 모시고 있다. 김상우 씨의 앞마당에는 비룡승천원길지(飛龍升天元吉地)라 새겨진 비석이 마당 한 모퉁이에 서 있는데 이는 무학대사가 작성해준 글이라 한다. 그리고 좌측에는 “고귀한 인간 생활의 수양터”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한편, 바로 인근에는 후손 김항구 씨가 민초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21. 선산 김씨

1) 시조

김선궁(金宣弓)

2) 가문의 개창 과정

시조(始祖)는 고려 '개국벽상공신삼중대광영문하시중(開國壁上功臣三重大匡領門下侍中)'으로 전주백(善州伯)에 봉해진 김선궁(金宣弓)이고 사후(死後) 순충(順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경오보(庚午譜)』(1690)를 보면, 김선궁은 신라 태보공(太輔公) 김알지(金閼智)의 30세손이자 신라 46대 문성왕(文聖王)의 8세손으로 신라 김씨(金氏) 왕세대(王世代)의 마지막 왕손인 체의공(體誼公)의 아들이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고려 태조의 원정군으로 종군, 태조로부터 하사된 어궁(御弓)과 함께 선궁(宣弓)이라는 이름을 사명(賜名)받고 후백제군과의 일리천(一利川)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고려 삼한통일에 기여한 개국공신의 반열에 올랐다. 김선궁은 태조의 부름을 받고 개경에서 출사 길에 오른 후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고 나중에 전주백(善州伯)으로 봉해졌다.

『이존록(彝尊錄)』을 보면 고려의 개국공신이자 문하시중이었던 김선궁이 사거한 후 큰 아들 봉술(奉術)이 문하시중을 습작하고 이어 그 후손들이 개경(開京)에 계속 머물러 벼슬을 하게 되자 후예들이 그를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일선(一善)'이라 하였다. '일선'의 지명은 그 후 전주(善州) · 승선(崇善) 등 몇 차례 바뀌었다가 조선조(朝鮮朝) 태종(太宗)이 국명(國令)을 내려 '일선군(一善郡)'을 '선산부(善山府)'로 개칭하고 도호부사(都護府使)를 두어 다스리게 한 후 5백여 년이 계속되면서 '선산(善山)'이라는 지명으로 고착되었다. 이에 따라 '일선(一善)'의 본관(또는 관향) 또한 '선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3) 가문의 발전

선산 김씨의 분파는 18개 파다. 분파되는 대수(代數)는 일정치 않다. 분파되

기 이전의 대는 파의 구분 없이 모두 선산 김씨(또는 일선 김씨)로 내려왔다. 시조 김선공의 큰아들 봉술(奉術)의 아들부터 6대가 실전(失傳)되었다. 그러나 그 후손은 건실하게 번창한 나머지 13개 파를 이루고 있다.

4) 선산 김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및 정착

동두천 광암동에 입향하여 뿌리를 내린 선산 김문의 김홍주는 시조의 24세 손이다. 홍주의 아들 김태흥(金泰興)이 숙종 때 첨지중추부사를 지냈고, 후손이 계속 뿌리를 내려 이 고장에서 11대를 계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손이 많이 번창하지는 못하여 광암동에는 한 세대만이 거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광암동에는 산41번지와 산43번지에 시제를 올리는 11분의 묘소가 있어 종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지금은 한 집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2. 김녕 김씨 (金寧 金氏)

1) 시조

김시흥(金時興)

2) 가문의 개창 과정

김녕 김씨(金寧 金氏)의 시조 김시흥(金時興)은 경순왕(敬順王)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9세손으로 의성(義城)에서 출생하여 고려 인종(仁宗) 때 묘청(妙淸)의 난을 평정(平定)하여 금주군(金州君)에 봉해졌으며, 명종(明宗) 때에는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토평하는 데 공을 세워 식읍을 하사(下賜)받고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관향(貫鄉)을 김녕(金寧)으로 하여 혈통을 이어 오게 되었다

3) 가문의 발전

김시흥을 시조로 하는 김녕 김씨는 김해 지역을 식읍으로 받아 상당 기간 김해 김씨를 칭해왔다. 이는 필연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김해 김씨와 혼동될 수밖에 없어 이를 스스로 구별하기를 수로계를 선김, 김시흥계를 후김이라 칭했었다. 여기에 일본계 귀화 성씨인 우록 김씨마저 당시에는 김해 김씨라 칭하게 되니 혼란은 자못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국 고종 대에 이르러 사야가 계통의 귀화 가문을 우록 김씨로 김시흥 계의 김해 김씨를 김녕 김씨로 구분하도록 정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단종 복위 사건을 주도하였던 김녕 김씨 백촌 김문기의 기도가 실패하면서 멸문에 가까운 대역죄로 몰리게 되자 일족 일부가 김춘의 인술 아래 황해도로 이주하면서 김해 김씨 범흥파라는 관향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복귀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조선 개국 공신 김인찬이 한때 양근 김씨를 칭하다가 다시 합본 복귀하였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양근 김씨를 여전히 유지하는 상황이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녕 김씨(金寧 金氏)는 남한에 총 10만2,896가구, 42만4,3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김녕 김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동두천 상패동에 뿌리를 내린 김정려(金晶麗, 호 송은)는 김현석(金玄錫, 영월군수)의 셋째 아들 김충윤(金忠尹)의 13형제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그는 경상도 상주로 내려가 살다가 광주(廣州)를 거쳐 다시 현재의 동두천시 상패동으로 이주 입향하였다. 김정려의 아들이 김택(金澤)이고, 김택의 두 아들이 천보(天寶), 천경(天景)이다. 이들은 병자호란에 출병하여 공을 세웠다. 김정려의 후손은 지금까지 13대가 계대되어 동두천에 200여 세대가 거주하며 양주 일원에 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등 명실공히 대성으로 번성하였다.

5) 동두천 김녕 김씨의 주요 인물들

동두천에 입향한 후 융성한 가세를 자랑하는 김녕 김씨 문중을 대표할 만한 인물로 13대손 형중(炯鍾 1922~1983)을 들 수 있다. 그는 한신공영을 창설하

여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육성하였고, 한국주택건설협회 초대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기업인으로 국가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대통령으로부터 공헌표창(제234호)을 받았다.

전 국회의원 형광(炯光) 씨, 신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전 의정부 시장을 역임했던 문원(文元) 씨, 전 동두천읍장 양권 씨, 전 경기도의원 홍규(弘圭) 씨, 시청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형진 씨 등이 주요 인사이며 현 육군대령 용규 씨, 동두천시청 문화체육과 과장 진왕 씨 등도 있다.

한편 걸산동에는 입향조를 달리하는 또 한 갈래의 김녕 김씨가 세거해오고 있다. 신라계 김해 김씨는 시조가 김염(金濂)이며 신라 56대 경순왕의 4자 대안군(大安君) 김은설(金殷說)의 셋째 아들이다.

그는 고려조에서 벼슬이 봉어(奉御)에 이르렀고, 김해군(金海君)에 봉해져 후손들이 김해를 관향으로 삼았다. 따라서 가야국의 초대왕인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김해 김씨와 임진왜란 때 왜군으로 참전했다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김씨로 사성(賜姓) 받은 김충선(金忠善)계의 김해 김씨와는 그 출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동음이성(同音異姓)이다. 그리하여 김수로왕계를 선김(先金) 김녕계를 후김(後金)이라 불러 왔다.

김시흥(金時興)이 고려 인종 때 김녕군에 봉해진 이래 그를 중시조로 삼아 관향을 김녕으로 고쳐 삼게 되었다. 김녕은 김해의 옛 이름으로 이는 조선 헌종 때의 일이다. 여기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법흥파가 후김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후 중시조로부터 16세 되는 김상애(金相愛)가 동두천에 입향하여 이곳에 정착하였고, 그로 인하여 후손들이 현재까지 14대를 이곳에서 번성하였다.

전국적으로 80여 세대로 늘어난 후손들 중 약 20여 세대가 이곳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다. 선산은 광암동에 있으며 현재 10여 기의 조상 묘가 모여져 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후손들은 동두천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하고 전 시 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문규(金文圭)가 있고, 소중중회장을 맡고 있는 김석규(金錫圭)가 있으며 동두천시 중앙동에 근무하는 김재규(金在奎) 중앙동장이 있다. 김문규 씨는 1992년 동두천 시민의장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을 수상하였다.

23. 김해 김씨

1)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

2) 가문의 개창 과정

서기 40년경 변한의 땅에 살던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오도간(五刀干), 유수간(留水干), 유천간(留天干), 신천간(神天干) 등 9간이 백성들을 통솔하고 정중한 의식을 거행하던 중 하늘에서 내려온 금갑을 받게 되고 그 금갑에서 나온 김수로왕이 나라를 세워 가락이라 하였는데 그가 맞이한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과 사이에 얻은 자손들이 바로 김해 김씨이다.

3) 가문의 발전

고보왕세계(古譜王世系)에 의하면 허왕후(許王后)께서는 10남 2녀를 낳으셨는데 맏아드님은 제2대 임금이신 거등왕이며 차남은 거칠군(居漆君)으로서 3남과 같이 허씨(許氏)로 사성(賜姓)되었고 나머지 7왕자는 모두 성불(成佛)하여 칠불사(七佛寺)에 병향(並享)되었다.

김해 김씨(金海 金氏)와 허씨(許氏)와 인천 이씨(仁川 李氏)는 가락국 시조대왕을 시조로 하는 동일 혈족이다. 즉 허씨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계(母系)의 성(姓)을 좇고 있다는 데서 타 씨족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김해 김씨는 신라 김씨의 알지계(閼智系)와 함께 우리나라 김씨의 양대 산맥(兩大 山脈)을 이루어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변성하여 왔으며 족세(族勢)가 크게 번창해짐에 따라 148여 파로 분파(分派)되었고, 그 중에서 금녕군파(金寧君派 = 京派)와 감무공파(監務公派 = 四君派), 판도판서공파(版圖判書公派 = 三賢派), 문경공파(文敬公派)의 후손들이 가장 번성하다.

2000년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해 김씨는 남한에 총 89만 2,328가구, 412만5,86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김해 김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및 주요 인물

동두천시 광암동에서 14대를 세거해 온 김해 김씨는 김수로왕을 비조로 하고 그의 51세손 금녕군(金寧君) 김목경(金牧卿)을 1세로 하여 대계한다. 목경의 아들 보(普)의 시호는 충간공이며 보의 아들이 도문(到門), 그의 손자가 효원이다.

조선 명종 때 전라관찰사를 지낸 영정(永貞, 호 운당(雲塘), 시호 안경공(安敬公)은 효원의 손자가 된다. 영정의 5세손이 수정(守正, 자는 명중(明仲), 의금부도사 1576-1659)이며 수정의 넷째 아들 연(漣)이 우리 고장에 입향하여 뿌리를 내린다. 연의 초휘는 원(沅)이고 자는 한오(漢五)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성균진사에 이르렀는데 임진왜란으로 부득이 원주를 떠나 동두천에 와 정착하였고 그로부터 14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후손 2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하며 우리 지역에도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김용화(金容化) 씨가 문중 일을 살피며 동두천 무공수훈자 사무실에서 봉사하고 있다.

24. 경주 김씨

1) 시조

김은열(金殷說)

2) 가문의 개창 과정

경주 김씨는 신라왕실의 三姓(박, 석, 김) 가운데 하나로 시조 김알지의 7세손 미추왕(신라 13대)부터 왕위에 오르기 시작하여 신라 마지막왕인 경순왕(알지의 28세손) 때까지 총 38왕이 재위하였다. 신라를 상대(上代), 중대(中代), 하대(下代)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대는 시조왕(朴赫居世)부터 진덕왕까지 28왕이요, 이 중 김씨가 3왕이고, 통일신라의 위업이 빛났던 중대는 태종무열왕에서 혜공왕까지 8왕이요, 이 모두가 김씨이고, 하대는 선덕왕에서 경순왕까지 20왕이라 하였는데 이 중 17왕이 김씨 임금이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후손에서 부안 김씨(扶安 金氏), 나주 김씨(羅州 金氏), 경주 김씨(慶州 金氏) 영분공파(永芬公派), 경주 김씨(慶州 金氏) 대안군파(大安君派), 의성 김씨(義城 金氏), 강릉 김씨(江陵 金氏), 언양 김씨(彦陽 金氏), 삼척 김씨(三陟 金氏), 울산 김씨(蔚山 金氏)가 분성된 것을 비롯하여 다음의 김씨는 모두 같은 조상에서 유래한 동원이다.

가평김씨 가흥김씨 간성김씨 감물김씨 감천김씨 강동김씨 강릉김씨 강서김씨
강양김씨 강음김씨 강화김씨 개령김씨 개성김씨 견주김씨 결성김씨 京山김씨
慶山김씨 경성김씨 京州김씨 계림김씨 고령김씨 고양김씨 고원김씨 공주김씨
공촌김씨 광릉김씨 광리김씨 光山김씨 廣山김씨 광성김씨 광양김씨 광주김씨
괴산김씨 교강김씨 교동김씨 교주김씨 교하김씨 구례김씨 군위김씨 금교김씨
金山김씨 錦山김씨 금천김씨 기계김씨 길안김씨 길주김씨 금녕김씨 김제김씨
金化김씨 金華김씨 나주김씨 낙안김씨 남원김씨 남천김씨 남평김씨 남포김씨
남해김씨 녹명김씨 능성김씨 능주김씨 단양김씨 달성김씨 담양김씨 당성김씨
당약김씨 당울김씨 대구김씨 대울김씨 대명김씨 대원김씨 대흥김씨 덕산김씨
덕수김씨 덕인김씨 덕울김씨 덕천김씨 도강김씨 도전김씨 동래김씨 동성김씨
동주김씨 등주김씨 만경김씨 명산김씨 명주김씨 명천김씨 무산김씨 무장김씨
茂朱김씨 務州김씨 무풍김씨 문소김씨 문의김씨 문주김씨 문천김씨 문화김씨
밀양김씨 담녕김씨 백천김씨 보령김씨 保恩김씨 報恩김씨 봉산김씨 봉주김씨
봉화김씨 富寧김씨 扶寧김씨 부여김씨 부평김씨 분성김씨 사천김씨 삭녕김씨
삼가김씨 삼척김씨 삼화김씨 상낙김씨 商山김씨 常山김씨 상원김씨 상음김씨
서산김씨 서주김씨 서하김씨 서흥김씨 석원김씨 선산김씨 선성김씨 설성김씨
성안김씨 성주김씨 성천김씨 송림김씨 송음김씨 송지김씨 수안김씨 수원김씨
수주김씨 순천김씨 순흥김씨 승평김씨 시흥김씨 신의김씨 신천김씨 신평김씨
아산김씨 아성김씨 안강김씨 안노김씨 안동김씨 안성김씨 안악김씨 안주김씨
야성김씨 약목김씨 양구김씨 양근김씨 양산김씨 양악김씨 양양김씨 양정김씨
양주김씨 양택김씨 양평김씨 언양김씨 여산김씨 여주김씨 연기김씨 연안김씨
연일김씨 연주김씨 連川김씨 延川김씨 連平김씨 延平김씨 연풍김씨 영가김씨
영광김씨 영김김씨 영변김씨 永山김씨 靈山김씨 영성김씨 영암김씨 영양김씨
영월김씨 榮州김씨 永州김씨 영천김씨 영흥김씨 예안김씨 醴川김씨 醴泉김씨
옥과김씨 옥강김씨 옥성김씨 沃川김씨 玉川김씨 옹릉김씨 완포김씨 용강김씨

용궁김씨 용담김씨 용비김씨 용성김씨 용안김씨 용인김씨 우봉김씨 운봉김씨
 울산김씨 울주김씨 울진김씨 웅천김씨 원주김씨 월성김씨 위성김씨 유동김씨
 유천김씨 은녕김씨 은율김씨 은주김씨 은율김씨 은풍김씨 음성김씨 음행김씨
 의성김씨 의녕김씨 의창김씨 의흥김씨 伊川김씨 利川김씨 익산김씨 인동김씨
 임실김씨 임율김씨 임치김씨 임파김씨 임하김씨 자주김씨 잠성김씨 잡계김씨
 장서김씨 장연김씨 적성김씨 전주김씨 정선김씨 정산김씨 정읍김씨 定州김씨
 貞州김씨 제주김씨 중화김씨 중원김씨 직산김씨 진강김씨 진능김씨 진도김씨
 진산김씨 진안김씨 진위김씨 진영김씨 진주김씨 진천김씨 진해김씨 창녕김씨
 창원김씨 창평김씨 천녕김씨 천안김씨 철원김씨 청거김씨 청도김씨 청산김씨
 청성김씨 청송김씨 청양김씨 청원김씨 청주김씨 청풍김씨 초계김씨 춘양김씨
 충주김씨 칠원김씨 태안김씨 태인김씨 토산김씨 통천김씨 통율김씨 파주김씨
 파평김씨 평구김씨 평산김씨 평양김씨 평주김씨 평창김씨 평택김씨 평해김씨
 포천김씨 풍기김씨 풍덕김씨 풍산김씨 풍양김씨 풍제김씨 풍천김씨 풍해김씨
 하동김씨 하양김씨 하음김씨 한남김씨 한산김씨 한양김씨 함덕김씨 함령김씨
 함안김씨 함양김씨 함창김씨 함평김씨 함흥김씨 협천김씨 해남김씨 해미김씨
 해상김씨 해주김씨 해평김씨 해풍김씨 행주김씨 현풍김씨 홍산김씨 홍원김씨
 홍주김씨 화개김씨 화순김씨 화원김씨 황간김씨 황금김씨 황리김씨 황주김씨
 회산김씨 횡천김씨 흥덕김씨 흥천김씨 흥해김씨 희천김씨

동원이관성(同源異貫姓)

안동권씨 광주이씨 수성최씨 감천문씨 강릉왕씨 철원궁씨 곡산연씨 태안함씨
 영양남씨

3) 경주 김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동두천 걸산동에 세거해 온 경주 김씨의 상계는 은설의 12세손 김인관(金人琯, 태사공)을 파조로 하여 계승한다.

그의 8세손인 상촌(桑村) 자수(自粹)는 고려가 망하자 안동에서 은거하였고, 조선 태종이 형조판서를 제수하고 출사를 권고하였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다가 고려가 망한 것을 비탄하여 자결하였다.

상촌 선생의 6세손이 문과에 급제하여 응교를 지낸 구연(九淵)이고 그의 아들 육(輿)과 협이 이 고장에 입향하여 뿌리를 내렸다.

4) 동두천 경주 김씨의 발전

김협(1538-1622)은 16세 때 동몽교관이 되었고, 선조 1년(1568) 증광 별시로 등과하여 선조 20년(1587) 금산군수로 나갔다가 선조 25년(1592) 철원부사로 옮겼으며 선조 30년(1596) 전주부윤에 승계되고 충청감사로 전관되었다가 부평부사로 다시 옮겨 민생 구휼에 힘썼다.

광해군 2년(1610) 의정부참찬에 임명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고, 광해군 4년(1612) 원종공신 1등에 녹공되어 정2품에 가자되었다. 그러나 광해군 난정을 거부하고 벼슬에서 퇴거하여 서체(書體) 연구에 전념하다 광해군 13년(1621) 84세로 별세하였다.

그 분은 초서를 잘 썼으며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묘소는 걸산동에 있으며 협의 아들이 영암군수를 지낸 수신(壽臣)이고, 수신의 아들이 영유, 영유의 아들이 현령을 지낸 율(醵)이고, 율의 손자가 숙종 대에 사헌부 감찰을 지낸 섭(涉)이다.

5) 동두천 경주 김씨의 현황과 주요 인물들

이 고장에는 룡과 협의 형제로부터 현재 동두천에 후손 3세대(영국, 영운, 이종)가 향토를 지키고 있고 이어진 후손들 60여 세대가 포천 비동과 심곡 등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많은 자손들 중 김광종 씨가 사비로 묘표 14개를 제작하여 동두천에 8개, 축석령에 6개를 2007년 5월에 설치하였다.

주요 인물로는 동두천읍 광암출장소장을 지낸 김이중 씨, 포천일동우체국장으로 있는 김주섭 씨가 있고, 6·25 후 각처에서 모여든 경주 김씨 600여 세대 약 5,000여 명이 종친회(회장 김대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5. 광산 김씨

1) 시조

김흥광(金興光)

2) 가문의 개창 과정

시조(始祖) 김흥광(金興光)은 신라 45대 신무왕(神武王) 셋째 아들이다. 그는 통일신라 말기 곳곳에서 민란이 일어나 국가 사직이 위태로워지자 경주(慶州)를 떠나 무진주(武珍州) 서일동(西一洞, 현재 담양군(潭陽郡) 평장동(平章洞))에 은거하여 자연을 벗 삼아 살았다. 이로써 광산 김문이 득관하게 되었다.

3) 가문의 발전

시조가 정착한 서일동은 후손들에 의해 8명의 평장사(正2品職)가 배출되자 사람들이 마을의 이름을 평장동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광산 김씨는 세도가 당당했던 집안이라기보다 대대로 석학, 거유(巨儒)를 많이 배출한 명문(名門)이다. 5개파(문정공파, 문숙공파, 양간공파, 낭장공파, 사온직장공파) 중 양간공파의 후손이 현재 전국의 약 70%로 제일 많으며, 그 후손에서 많은 명현들이 배출되었다.

1985년 통계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산 김씨(光山 金氏)는 남한에 총 17만4,912가구, 750만70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광산 김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시조 김흥광(金興光)의 아들이 김식(金軾), 식의 아들이 김길(金吉), 길의 아들이 김순(金順), 순의 아들이 김정준(金廷俊), 김약온(金若溫)이며, 김의원(金義元)의 손자가 김광세(金光世), 광존(光存 호위 별장)이다. 광산 김씨는 김광세 계보와 김광준 계보로 대별되는데 동두천에 세거하는 광산 김문의 상계는 광존에서 시작된다. 광존의 13세손 기서(基瑞)가 증중 때 벼슬을 하다가 선조 7

년(1574) 양주 마전에 묻히면서 그 후손이 세거하게 된다. 기서의 아들 덕망(德望)의 셋째 자남(自南)의 아들이 상현(尙賢)이며 상현의 2자가 계환(啓煥), 계환의 9대손 담(潭)이 동두천 하봉암으로 입향한 입향조가 된다. 담으로부터 10대가 계대되어 후손 10여 세대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이산되어 1세대만이 거주하고 있다.

5) 동두천 광산 김씨의 주요 인물

이 지역 인사로는 유림에 몸담았던 김봉수(金鳳洙) 씨가 있었으나 작고하였고, 그의 아들 김용운이 대전에 소재하는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이곳으로 이주하여 온 광산 김씨 50여 세대가 종친회(회장 김영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6. 진주 강씨

1) 시조

강이식(姜以式)

2) 가문의 개창 과정

진주 강씨(晋州 姜氏)는 서기 500년대에 고구려 병마도원수(兵馬都元帥) 강이식(姜以式) 장군을 시조(始祖)로 모시고 관향(貫鄉)을 진주(晋州), 즉 진주의 옛 지명 진양, 진산, 청천(晋陽, 晋山, 菁川)으로 정하여 천파일본(千派一本), 만지동근(萬枝同根)으로 동방(東方)의 대성(大姓 : 큰 성씨)임을 자랑한다.

그는 을지문덕과 함께 수양제의 대군을 격파하여 대공을 세웠고 이후 그의 자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여 후대를 이어가게 된다.

3) 가문의 발전

강씨의 본관은 문헌상으로 114본이 전한다. 그 중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진주·금천·안동·배천·해미·동북·광주 등 7본의 시조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강씨는 대부분 진주 강씨에서 갈라진 것이 확실하다. 오늘날 강씨는 고구려 때 도원수를 지낸 강이식(姜以式)을 도시조로 삼는다.

진주 강씨는 다섯 파로 대별되는데, 그 중에서 인헌공파는 파조인 강감찬(姜邯贊)의 출생지가 금천(衿川)이라고 하여 금천 강씨라고 불리기도 한다. 강씨는 아득한 옛날부터 진양 지방(진주)에서 하씨(河氏)·정씨(鄭氏)와 더불어 '진양3성'으로 일컬어 오는 전통적인 영남의 명문이다.

4) 진주 강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진주 강씨의 명맥은 시조 강이식(姜以式)의 후손 강희경(姜希經)과 강민침(姜民瞻) 계보로 대별된다. 강희경 계보는 그의 7세손이 강군보, 군보의 아들인 강기(姜耆), 기의 아들인 강회백(姜淮伯), 강회중(姜淮仲), 강회계(姜淮季)이다.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세거해 온 진주 강씨의 선계는 회중으로부터 이어진다. 회중의 4세손이자 겸(謙)의 5세손인 효달(孝達, 1601-1680)이 병자호란 때 난을 피해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5) 동두천 진주 강씨의 발전

효달의 아들 윤(潤, 자는 덕보(德甫), 1642-1706)이 58세 때인 숙종 26년(1700)에 등과하여 판관을 지냈고, 윤의 현손이 영조 때 도승지를 증직받은 필규(必奎)이고 필규의 아들이 세희(世晦, 자는 형숙(亨叔))이다. 그는 영조 34년(1758)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더니 학업에 힘써 정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곳에서는 효달로부터 13대가 계대되었고, 그 후손들이 하봉암동에 20여 세대 거주하고 있으며 경향 각지에는 40여 세대가 분포한다.

6) 동두천 진주 강씨의 주요 인물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손으로는 동안동 동장을 역임한 강현석 씨, 하봉암동의 강규석, 의학박사 강창석(姜昌錫) 씨가 가톨릭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강돈구(姜惇求) 씨가 한신대 교수로 강문석(姜文錫) 씨가 한양공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강경석(姜景錫) 씨가 경기도청 서기관을 지내고 퇴직하였으며 그리고 강찬구(姜燦求) 씨가 현재 통신공사 자재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7. 한산 이씨

1) 시조

이윤경(李允卿)

2) 가문의 개창 과정

시조는 고려 숙종 때 호족으로서 권지호장직(權知戶長職)에 오른 이윤경(李允卿)이다. 중시조는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아버지인 이곡(李穀)이다.

이곡은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으로 당대의 대문장이며, 우탁 이동(易東), 포은 정몽주와 더불어 경학(經學)의 대가였으며 고려 충숙왕 7년 문과에 급제하고 원나라 제과(制科)에도 급제하여 벼슬이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에 이르렀다. 공민왕 때 문하시중에 이르렀고, 그의 문하에서 권근(權近), 변계량(卞季良) 등의 학자와 명신을 배출하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의 아들 목은(牧隱) 색(穡)이 1362년 홍건적의 난에 왕을 호종하여 공을 세워 한산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한산으로 하였다.

3) 가문의 발전

고려 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이색(李穡)을 비롯하여 사육신의 한 사람인

이개, 대문장가 이산해(李山海) 등으로 이름난 한산 이씨는 조선시대 상신 4명, 대제학 2명, 청백리(淸白吏) 5명, 공신 12명과 문과 급제자 195명을 배출했다.

4) 한산 이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동두천 생연동에서 8대를 세거해 온 한산 이씨의 상계는 목은(牧隱)의 차자 종학(種學, 제학(提學)으로부터 계대한다. 종학의 장자가 광주목사를 지낸 숙야(叔野)이고 증중 조에서 좌의정을 지낸 유청(1459-1531)은 숙야의 현손이다. 유청의 아들이 언호(彦浩, 전라도관찰사)이고, 한흥군(韓興君) 덕연(德演)은 언호의 현손이다.

덕연의 아들이 성원(性源, 1576-1629) 지평(持平)이고 성원의 아들이 비안(庇安)현감을 지낸 완(浣)이며 승정원 주서를 지낸 우명(雨明)은 완의 고손이 된다. 그의 아들 수창(秀昌)이 동두천 생연동에 입향하여 현재에 이른다.

5) 동두천 한산 이씨의 현황과 인물

입향조 수창(秀昌)의 후손 중에 이담면사무소에 근무하였고 동두천시 행정동우회장을 지낸 이기복 씨가 있으며 이기복 씨는 동두천 시민의장 지역사회부분을 1992년 10월 6일 수상한 바 있다. 이기복 씨의 아들 경제학박사 이경원 씨가 대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경원 박사는 재단법인 송암재단 이사장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경원 씨의 아들 의학박사 이형중 씨도 미국 코넬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8. 전의 이씨

1) 시조

이도(李棹)

2) 가문의 개창 과정

전의 이씨(全義 李氏)의 시조는 고려 개국공신인 이도(李棹)이다.

『조선씨족통보』에 의하면 그는 초명이 치(齒)로, 고려 태조가 건원을 정벌하고자 남하하여 금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이 범람하자 태조를 도와 무사히 건너게 해주었으므로 태조가 도(棹)라고 이름을 하사하고, 통합 삼한삼중대광태사 익찬공신으로 벼슬을 내리고 전의후(全義侯)에 봉했다. 그 후 그는 전의 이성산 아래로 이거하여 정착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전의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3) 가문의 발전

후손 문의공 언충(彦沖)과 효정공 정간(貞幹), 문장공 혼(混)의 후손에서 인물이 많이 나와 3대 인맥을 이루었다. 그 중 혼(混)은 시조 도(棹)의 8세손으로 고려 충선왕 때 첨의정승을 지냈으며, 언충(彦沖)은 고려 고종 때의 장군 천(仟)의 손자로서 충렬·충선·충숙·충혜왕의 4대에 걸쳐 벼슬한 명신이며 정당문학, 예문관 대제학, 지춘추관사 등을 지냈다.

정간(貞幹)은 천(仟)의 현손으로 노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으며, 세종 때 강원도관찰사를 지냈으며 증추원사에 임명되었고 왕으로부터 궤장을 하사받았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의 이씨(全義 李氏)는 남한에 총 2만6,970가구, 11만2,08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의 이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시조 이도의 6세손인 이천(李仟)은 고려 고종 때 온수현에서 몽고병과 싸워

대승을 거둔 명장이었으며 이천의 손자 이언충(李彦忠)은 전의 이씨 인맥의 기점을 이룬 분이다. 언충의 고손 직간(直幹, 형조정랑)이 동두천 안흥동에 뿌리를 내려 이 지역의 명문으로 번성시키게 된다.

5) 동두천 전의 이씨의 발전

직간의 아들 굉식(宏植)이고, 굉식의 현손이 선조 때 명상인 이탁(李鐸 1509-1576 호는 약봉, 시호는 정숙공)이다. 이탁의 아들이 이이, 정철 등과 함께 교유하며 가문을 떨친 이해수(李海壽, 자는 대중, 호는 약포, 관직은 도승지, 1536-1599)이고 해수의 아들이 광해군 때 벼슬을 내놓고 은둔하였던 이권(李勸), 이권의 아들이 광해군 때 360인 상소의 소두로 유명했던 이성신(李省身, 동부승지)이다. 그리고 성신과 그 아들 재(桀), 항(杭), 삼부자가 모두 한림으로서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이었다. 또한 해수의 둘째 아들 매(勸), 매의 아들이 경신(敬身)이다. 경신의 아들이 추(樞)이며 전 대법원장 이영섭(李英燮)은 추의 11세 손이다. 직간이 동두천시 안흥동 담안에 뿌리를 내려 후손들 중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으며 현재 21대가 이어지고 있어 30여 세대가 명문의 가통을 이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6) 동두천 전의 이씨의 인물들

전 대법원장 이영섭, 전 국회의원 이철승(李哲承) 등이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유명 인사들이며, 우리 지역에서는 이담면 5대 면장 이병하(李炳夏), 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이재성, 동두천시 소요동 (전) 주민자치위원장 이흥섭 씨가 있으며 이종섭 씨가 동서가구를 운영하며 종친회의 업무를 보고 있다.

29. 벽진 이씨

1) 시조

이충언(李淸言)

2) 가문의 개창 과정

벽진 이씨(碧珍 李氏)의 시조(始祖) 이충언은 신라 말에 벽진군(碧珍郡) 태수(太守)를 지내고 왕건(王建)을 도와 고려창업(高麗創業)에 훈공을 세워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벽진장군(碧珍將軍)에 올랐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이충언을 시조로 받들고 본관(本貫)을 벽진(碧珍)으로 삼게 되었다.

3) 가문의 발전

시조 이충언의 아들 이영(李永)은 18세의 나이로 왕건을 따라 삼국을 정복, 고려개국에 공을 세워 대제학에 올랐고 손자 이방회(李芳淮)는 추밀원사, 증손 이경석(李慶錫)은 평장사에 이르는 등 초기부터 명문거족으로 번성한 벽진 이씨는 후에도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냈다.

고려시대의 인물로는 이회(李會), 이실(李實), 이극송(李克松), 이옹(李雍) 등을 꼽는데 이 중 이극송은 고려 고종 23년 명경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청렴강직한 청백리로 판삼사사의 벼슬에 올라 '맑고 깨끗하여 아무 티가 없는 정신을 지녔다' 하여 고종이 친히 영옥(永玉)이라는 호를 내렸다. 특히 시조의 10세손 이옹의 아들 4형제 중 장남 이견간(李堅幹)은 고려 충렬·충선·충숙왕 등 3왕대에 걸쳐 벼슬이 진현관대제학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킨 이맹전(李孟專) 등이 이씨 가문의 충의와 절개의 맥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성종 때 대사성에 이른 이철균(李鐵均),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자결한 이상길(李尙吉)은 높은 학문과 충의의 인물로 가문을 빛냈다.

또한 기묘팔현(己卯八賢)의 한 사람으로 중종 때 대사헌, 병조판서를 지낸 이장곤(李長坤), 조선 말기의 거유(巨儒) 이항로(李恒老) 등이 있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벽진 이씨(碧珍 李氏)는 남한(南韓)에 총 1만9,807가구, 8만66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벽진 이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시조 이충언(李忠言) 아들 이영(李永)은 태조의 부마로 관직과 전답을 하사 받아 정착하였다. 이에 후손들이 본관을 벽진으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이영의 15세손이 청백리 이약동(李約東)이며 약동의 5세손이 이상길, 상길의 아우가 이상급 즉 충강공(忠岡公)이다.

동두천의 벽진 이씨는 충강공 이상급의 배위 정부인(貞夫人) 울산 박씨(1602-1682)가 1636년 병자호란을 피해 아들 5형제 중 두 형제 이곤, 이배를 데리고 현 동두천시 광암동 골말(谷末)에 피신하였다. 이후 부인은 그곳에 불당을 쌓고 남편의 무운을 빌며 은둔하다가 병란이 끝난 뒤 남편의 부음을 듣고는 다시 귀경하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렸다.

5) 동두천 벽진 이씨의 발전

현재 우리 고장에는 상급으로부터 14대가 계대되었고 그 후손이 동두천시 탑동에만 20여 세대가 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아울러 경향 각지에 30여 세대가 분포한다.

6) 동두천 벽진 이씨의 현황과 주요 인물들

이 지역의 유명 인사로는 1881년 탑동에서 출생하시어 1907년 연기우 의병 부대에 들어가 양주, 포천, 적성 등지에서 구국활동을 하시다가 1910년 일제에 피체되어 수많은 고초를 겪으신 애국지사 이명기 씨가 있고, 오랫동안 이장을 역임하신 이종문 씨, 동두천시 시의원을 역임한 이석기 씨, 의학박사 이우상 씨가 있다. 1997년 당시 중증회장 이종문 씨가 주동하여 조상을 제향하는 사당을 2000년 9월, 6개월의 공사 끝에 준공하고 사당의 이름을 강정재(剛靜齋), 재실문을 충희문이라 이름하고 음력 10월 5일 시향을 모시고 있다. 현재 탑동 동 산193번지 일원 33정보를 중증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회장 이종범 씨가

관리하고 있다.

한편, 동두천에 뿌리 내린 또 다른 벽진 이씨 인맥은 이지걸의 아들 이세근과 이세진으로부터 계대된다. 이들 형제가 동두천시 보산동 빈양말(濱陽末)에 입향하여 그곳에 묻히고 세진의 아들 7형제가 번창하여 뿌리를 내려 이후 10세가 계대된다.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영기 씨는 한성판윤 이세진의 9대손이며 후손 20여 세대가 이 고장에 거주하는 한편, 경향 각지에도 30여 세대가 분포한다. 보산동 산1번지와 소요산 남쪽 기슭 약 200정보(60만 평)를 종중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중산을 하사받았다는 구전이 전하여지나 근거가 되는 문헌은 찾을 수 없다. 이영기 씨는 동두천 시민의장 시민봉사장을 2002년 10월 5일 수상하였다.

30. 광주 이씨

1) 시조

이자성(李自成)

2) 가문의 개창 과정

시조는 신라 내물왕 때 내사령을 지낸 이자성(李自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본래 칠원에 세거해 온 호족의 후예로, 신라에서 벼슬을 세습해 오다가 제56대 경순왕에 이르러 신라가 망하자 이에 불복하고 절의를 지켰으므로 고려 태조가 회안 호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본관을 회안으로 칭관하다가 940년 지명이 광주로 개칭됨에 따라 광주를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3) 가문의 발전

고려 말에 이르러 실권을 장악한 대인(大人)들이 광주(廣州)의 향리(鄉吏)로 이속(移屬)시켰는데, 향리는 과거에 나갈 수 있었으므로 그를 계기로 광주에 세거하던 휘 당(唐)께서 과거에 응시하여 생원(生員)이 되시니 이때부터 광주

를 관향으로 하여 생원공이 광주 이씨의 시조가 되신다.

생원공에게는 인령(仁齡), 원령(元齡, 후에 집〈集〉으로 개명), 희령(希齡), 자령(自齡), 천령(天齡)의 오형제를 두셨는데 오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리하여 940년 고려 태조 23년에 광주(廣州)를 관향으로 하여 광주 이씨가 크게 번성케 되었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주 이씨(廣州 李氏)는 남한에 총 3만3,816가구, 14만1,8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광주 이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석탄공(石灘公) 양중파(養仲波)는 한희(漢希)를 1세조로 하여 세계를 계대하고 후손 이당(李唐)이 광주(廣州) 유수(留守)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5형제 모두가 1세로 각각의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 중 원령(元齡) 일명 이집(李集)은 고려 충목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전교시사(判典校寺司)에 이르렀는데, 지직(之直, 직제학 청백리), 지강(之剛, 좌참찬, 시호는 문숙공), 지유(之柔, 성주 목사) 등 세 아들을 두었고, 지직은 장손(長孫, 사인), 인손(仁孫, 우의정), 예손(禮孫, 관찰사) 등 3형제를 두었다. 인손은 5형제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가 문과에 급제하고 현관(顯官)으로 영달하였다. 장자 극배(克培, 영의정 광능부원군, 차자가 극감(克堪, 판서 광성군), 3자가 극증(克增, 좌참찬, 광천군), 4자가 극돈(克墩, 좌찬성 광원군), 말자가 극균(克均, 좌의정 광남군)으로 소위 5자 당상의 영예를 누렸고 화려한 지맥을 형성하였다. 광이장안팔극당상(廣李長安八克堂上)이라는 말처럼 이때가 광이(廣李)의 전성기였다. 광주 이씨 지맥이 동두천에 뿌리내린 것은 광원군(이극돈)의 6대손 지운(祉運, 의영부도사(義榮府都事))이다.

5) 동두천 광주 이씨의 발전과 현황 주요 인물들

지운의 아들이 상욱(相頤, 전라병마절도사)이고, 상욱의 현손 시문(時聞)이 아들 5형제를 두어 동두천 광주 이씨 인맥을 번창시킨다. 장자가 기렴(基濂)이고, 차자가 삼척도호부사를 지낸 기초(基祖), 3자가 기락(基洛), 4자가 풍양 현감을 지낸 기풍(基豐), 5자가 고향을 지킨 기동(基東)이다.

시문의 현손 경래(競來)가 을미의병에 앞장 서 싸운 애국지사이며 5대손 용관(容寬)의 배위가 효열부인 수성 최씨이다. 다시 소급하여 기림의 손병두(秉斗, 무과 사과(司果)), 기조의 아들 승회(升會, 삭주도호부사), 손병준(秉準, 무과 급제) 등이 가문을 빛냈고, 입향조 지운으로부터 12대가 되어 300여 년의 인맥사를 형성하여 현재 동두천에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경향 각지에 150여 세대가 분포하는 성향을 이룬다.

이와는 별도로 어수동(御水洞)에서 누대를 살아 온 광주 이씨의 상계는 광원군 이극돈의 현손 윤덕(潤德, 전라병마사)의 아들 대에서 분파된다. 그는 장자 여온(汝溫), 차자 여량(汝良) 3자 여공(汝恭)의 3형제를 두었는데, 여공의 아들이 효성(孝誠)이고, 효성의 현손이 수백(壽栢)이며 그의 장자 명교(命喬)가 가문을 크게 융성시킨다. 그는 경종 임인(1722)년에 무과에 올라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참판에 오른 인물이다. 명교의 아우가 명성(命成)이고 그의 손자 기풍(基豐)이 우리 고장에 입향하여 10대를 계대한다. 그의 후손 10여 세대가 동두천에 거주하며 이 중 유명 인사로는 1981년 2월 11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선거에서 4,866표를 얻어 이 지역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정재가 있고, 보산동 동장을 역임한 이종현 그리고 신구전문대학 교수로 있는 이종찬 등이 있다.

31. 수성 최씨

1) 시조

최영규(崔永奎)

2) 가문의 개창 과정

수성 최씨(隨城 崔氏)는 영규계(永奎系)와 거경계(居涇系)의 두 계통이 있는데, 영규계의 시조(始祖) 최영규(崔永奎)는 신라 경순왕(敬順王) 김부(金傅)의 후손으로 본래 성(姓)이 김씨(金氏)였다. 1261년(원종 2) 문과에 급제하고 남조전서(南曹典書)에 있으면서 보문각대경(寶文閣大卿)을 겸하고 문학으로 서경(西京)의 학도(學徒)들을 가르쳐 명망이 높았다. 충렬왕(忠烈王) 때 수주(水州)

일대(一帶)의 풍속이 퇴폐하고 이륜(彝倫)을 지키지 않아 사람의 행동이 금수(禽獸)와 다름없음을 왕(王)이 개탄하니, 그가 자청(自請)하여 호장(戶長)으로 부사(副使) 안설(安說)과 함께 나가서 효제(孝悌)로 백성을 다스리고 의리(義理)로 설득하여 일 년이 못되어 윤강(倫綱)이 부흥하자 왕(王)이 가상(嘉尙)히 여겨 1302년(충렬왕 28) 수성백(隨城伯)에 봉(封)한 후 최씨(崔氏)로 사성(賜姓)하여 이때부터 문호(門戶)를 열었다.

한편 거경계(居涇系)는 고려 때 서운관부정(書雲觀副正)을 지낸 거경(居涇)을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3) 가문의 발전

영규의 아들 흠(洽)은 충렬왕(忠烈王)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전서(工曹典書), 정당문학(政堂文學)을 거쳐 뒤에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고, 그의 아들 원개(元凱)는 공민왕(恭愍王) 때 문과에 급제하여 봉상대부(奉嘗大夫)로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러 치사(致仕)하고 향리(鄉里)에서 후진 양성과 저서로 일생을 보냈으며, 그의 후대에서 안양공파(安養公派), 가산공파(嘉山公波) 등 다섯 파로 갈라졌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성 최씨(隨城 崔氏)는 남한(南韓)에 총 1만 619가구, 4만4,00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성 최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서기 1497년 동두천 하봉암동에 뿌리를 내린 입향조는 시조의 8세손인 최영(崔瑛)이다. 연산군 당시 목청전(穆淸殿) 참봉인 장사랑(將士郎)을 지내시다가 학정과 난세에 회의를 느껴 벼슬을 버리고 이곳 양주땅에 입향하게 된다.

5) 동두천 수성 최씨의 발전

서기 1570년 그의 현손 의원(義元)과 예원(禮元)이 선조 때 무과에 등과하여 적순부위(迪順副尉)와 어모장군(禦侮將軍) 겸 선전관을 지냈으며 서기 1600년 의원의 아들 준(峻)은 현신교위(顯信校尉)를 지내게 된다. 준이 7형제를 두어

수성 최문에 봉암종중(鳳巖宗中)을 번창시켰다. 서기 1651년 장자 효술(孝述)은 24세(효종 2년 1651 신미) 때 무과에 올라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3도 통영(統營) 우후(虞侯)에 올랐으며 1670년 차자 효석(孝碩)은 진용교위(進勇校尉), 3남 효태(孝泰)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운수도찰방(運輸道察訪), 4남 효희(孝熙)는 어모장군(禦侮將軍) 행 선전관(宣傳官), 5남 효계(孝繼)는 통덕랑(通德郎) 6남 효순(孝純)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7남 효민(孝閔)은 판관(判官)을 지냈다.

서기 1750년 효술의 3남인 만(曼)은 통덕랑, 현손인 치창(致昌)은 통훈대부를 추증받았고, 그의 아들 일승(日升)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일승의 아들 명윤(命尹)은 가선대부(嘉善大夫) 검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냈으며, 명윤의 아들 관석(寬錫)은 가선대부를 지내면서 본 봉암종중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서기 1916년 효희의 7세손인 태석(泰錫)은 일찍이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에 들어가 김중암(金重庵), 유성재(柳省齋), 최면암(崔勉庵), 유용계(柳龍溪) 등과 함께 당대 성리학의 대가를 이루며 석학으로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1923년 수성 최씨 대동보가 전 27권으로 간행되었다.

6) 동두천 수성 최씨의 주요 인물들

현대에 이르러 18대손 종세(鐘世)는 46년간 초등학교 교장으로 봉직했으며 15대손 상우(相宇)는 중고교 교감으로 인재를 길러냈고, 자손들이 각 분야에서 의학박사나 이학박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입향조로부터 21대를 계승하였고 동두천 수성 최씨 봉암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초6일 사당에서 시향을 지내고 있다.

32. 문화 류씨

1) 시조

류차달(柳車達)

2) 가문의 개창 과정

시조 류차달(柳車達)의 초휘는 해(海), 자는 응통(應通), 호는 아사(鵝沙), 공은 신라(新羅) 말기에 유주(儒州), 지금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黃海道 信川郡 文化面) 묵방동(墨坊洞)에서 태어났는데 가세(家勢)가 넉넉한 부호(富豪)였다.

후삼국(後三國)시대에 궁예(弓裔)의 신하 왕건(王建)이 신망을 얻어 천하를 통일코자 후백제(後百濟)의 견훤을 정벌하려 할 즈음 군량이 부족하여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었다. 이때 공께서 수레를 많이 내어 군량을 보급함으로써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高麗)를 건국, 태조(太祖)가 되었다. 이에 태조께서 공에게 삼한공신(三韓功臣)에 봉함과 아울러 대승(大丞)의 관작을 내리고, 차운달량(車運達糧)의 뜻을 취하여 차달(車達)이라 사명하시었다.

고려 개국 이후 조선을 거쳐 우금 천여 년 동안 많은 명경석학(名卿碩學)이 계속 배출되어 국가와 휴戚(休戚)을 함께 한 명벌(名閥)로써 예부터 삼한갑족(三韓甲族)이라 일컬어 왔다.

3) 가문의 발전

씨족통고(氏族通考)에 류씨의 관향이 15본이 전하는데 즉 대종(太宗)이 문화(文化)를 비롯하여 풍산(豐山), 서산(瑞山), 선산(善山), 전주(全州), 진주(晉州), 고흥(高興), 영광(靈光) 8본은 현존하며, 육창(陸昌), 정주(貞州), 연안(延安), 백천(白川), 부평(富平), 약목(若木), 인동(仁同) 등 7본은 미약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4) 문화 류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동두천에 세거해 온 문화 류씨 상계는 시조의 8대손인 택(澤)으로부터 계대한다. 택의 5세손이 조선 개국좌명공신으로 정종 때 영의정을 지내고 왕자의 난에 연좌되어 죽임을 당한 류만수이고 만수의 8세손이 응립(應立), 응립의 증손이 중기이며 중기의 손자 숙영이 동두천에 뿌리를 내려 12대가 계대되어 후손 2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되었고,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다.

5) 동두천 문화 류씨의 현황 및 주요 인물들

민족지사 류재만 선생은 1882년 안흥리 출생으로 1907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투신한 후 인근 각지에서 구국 무장투쟁을 벌이시다 1908년 일본군에 피착되어 3년간 혹심한 옥고를 치르셨는데, 2008년 그 공로가 인정되어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되었다.

그 후손 중 문화농장을 경영하던 류연상 씨는 동두천시 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하였고, 류호근 씨의 장남 류준상은 시청 사회복지과 계장, 동생 류범상 씨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로 파견을 나갔다. 류순상 씨의 처 석영희 씨는 아름다운문화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보산동 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류호정 씨는 이담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적십자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중앙의 연예 및 방송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류민상 씨도 동두천 문화 류씨 일문이다.

33. 평해 황씨

1) 시조

황락(黃洛)

2) 가문의 개창 과정

황씨는 문헌에 163본관이 전하나 현재는 55개의 본관이 있다. 우리나라 황씨의 시초는 중국 후한 때 유신(儒臣)이었다는 황락(黃洛)으로 전해진다. 그는 서기 28년(신라 유리왕 5년)에 장군 구대림(丘大林, 평해 구(丘)씨의 시조)과 함께 교趾국(交趾國, 옛 월남의 한 지방)에 사신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평해에 도착하여 정착하여 살면서 황장군이라고 칭하며, 우리나라 황씨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3) 가문의 발전

황락의 후손에 갑고(甲古), 을고(乙古), 병고(丙古) 3형제가 있었는데 각각 기성군(현 평해군), 장수군, 창원 백에 봉해져서 각각 본관을 평해, 장수, 창원 황씨로 하였다고 한다. 현재 전하는 제안, 항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황씨는 이 3본에서 분관 되었다고 한다.

4) 평해 황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1세조 온인의 8대손 양무공 황희석은 우왕 14년(1338) 요동정벌 때 이성계와 함께 회군하여 조선왕조를 열고 개국 2등 공신 평해군으로 봉해졌다. 이희석의 장남 황상(黃象), 차남 황린(黃麟), 3남 황란(黃鸞), 4남 황곡(黃鵠)이 있다.

동두천 평해 황씨의 계보는 양무공의 아들 황란과 황곡 그리고 황상의 아들 황계조(黃繼曹)가 함께 이곳에 입향하여 황씨촌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 세 인맥은 전국에 분포한 평해 황씨 후손들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5) 동두천 평해 황씨의 발전

황계조의 아들 자중은 5형제를 두었는데 장자가 심(諡), 차자가 전(諡), 3자가 순(詢), 4자가 근(謹), 5자가 겸(謙)으로 모두 관직에 진출, 평해 황씨 문중을 일으켜 죽선 증중 조의 명문 대족으로 번성하였다.

서(瑞)는 심의 손자인데 그는 동두천이 낳은 인물로 증중 9년(1514) 광암동

승지골에서 태어나 중종 32년(1537) 사마시와 정시 문과에 등과하고 대사간, 부제학, 이조참의를 거쳐 충청·전라·경상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서의 아들 윤신은 부친의 뜻에 따라 무인이 되어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 충좌위(忠佐衛) 대호군(大護軍)으로 출병하여 회인 피발령에서 왜적 수십기를 베었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순국한 절신이다.

다시 검의 아들이 세달이고, 세달의 아들이 기인데 충렬공 황선신은 기의 아들이 된다. 선신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함락될 때 강화부의 중군(中軍)으로 강홍립과 밀려오는 적군 수십 명을 죽이고 최후까지 항전한 절신이다. 이렇듯 국난을 당할 때마다 순국 충절의 의인 맥이 동두천 평해 황씨 문중에서 이어져 내려왔다.

평해 황씨는 우리 고장에 입향한 계조로부터 24대가 계대되었으며 황란, 황곡, 황계조에서 각각 세계된 인맥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 동두천은 평해 황씨 중시조 후손들의 세향(世鄉, 약 4,000세대)이 되어가고 있다.

6) 동두천 평해 황씨의 주요 인물들

애국지사 황용길(黃龍吉) 선생은 1881년 광암동 좌기골에서 출생하여 1921년 평양을 거쳐 중국 임강현에 본부를 둔 항일 무장단체 백산무사단(白山武士團)에서 구국활동을 전개하시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험악한 고초를 겪으신 우리 동두천이 배출한 걸출한 애국지사이다.

동두천 지행동에 황성만, 황석봉 등 10여 세대가 세거하고 있다.

34. 창원 황씨

1) 시조 및 가문 개창의 과정

시중공파의 시조 황신의 원조는 고려 때 문하시중을 지낸 황충준이며 그 후의 세계는 알 수가 없으나, 창원 황씨가 확실하다고 한다.

공희공파의 파조 황석기(黃石奇)는 원래 고려 공민왕 때의 중서문하 평장사였다. 종래에는 그가 원나라 사람으로 고려 공민왕 때 노국공주를 수행하여 고

려에 온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미 이전에 고려에서 여러 벼슬을 지내고 1339년에 '조적의 난'을 평정하는 등 활약한 사실이 『고려사』에 잘 기록되어 있다.

1348년 고려 29대 충목왕이 죽자 황석기는 이제현(李齊賢)과 함께 원나라에 가서 30대 충정왕의 승습(承襲)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 이듬해에 앞서 원나라에 와 있던 공민왕(江陵大君)이 원나라 위왕(衛王)의 딸 노국공주와 결혼하여 귀국하게 되자 황석기는 그때 따라왔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평해 황씨의 시조인 황락을 도시조로 하여 한국 내의 황씨 전체를 일통으로 파악하는 별도의 시각이 있다. 황락(黃洛)은 중국 후한(後漢)의 학사(學士)로서 나라의 사신(使臣)이 되어 서기(西紀) 28년 신라 유리왕 5년, 중국 후한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4년에 구대림장군(丘大林將軍)과 함께 교지국(交趾國)을 향하여 뱃길을 떠났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서 지금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平海) 월송(月松) 북록(北麓)에 표착(漂着) 상륙했으며, 그 후에 굴산(掘山) 북원(北原)의 동해(東海) 사안(沙岸)에 대지(垓地)를 축조(築造)하고 세거(世居)의 영지(嶺地)를 닦아 그곳에 정착하였다. 이로써 “洛”은 한국 황씨(黃氏)의 원시조(原始祖)가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 만세보(萬世譜)의 황씨(黃氏) 고사편(古史編)도 “洛”은 “동국 황씨(黃氏)의 시조(始祖)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들 갑고(甲古), 을고(乙古), 병고(丙古) 삼형제(三兄弟)를 두었는데, ‘갑고’는 서기 13년 기유생(己酉生)이시고 고구려 민중왕(閔中王)을 섬기시어 기성군(箕城君 = 平海의 古號)에 봉(封)하였으므로 ‘평해 황씨(平海 黃氏)’의 시조가 되었고, ‘을고’는 서기 9년 원년(元延) 4월 임자생(壬子生)이고 백제(百濟) 다루왕(多婁王)을 섬기시어 장수군(長水君)에 봉(封)하였으므로 ‘장수 황씨(長水 黃氏)’의 시조가 되었으며, ‘병고’는 서기 35년 을묘에 신라(新羅) 유리왕(儒理王)을 섬기시어 창원백(昌原伯)에 봉(封), 이분이 바로 ‘창원 황씨(昌原 黃氏)’의 시조가 되셨다.

이와 같은 제설은 아직도 문헌적인 탐구가 필요하며 아직 어느 설이 옳다고 확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후자의 설명이 전체 황씨를 하나의 인척으로 일통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2) 가문의 발전

창원 황씨(昌原 黃氏)는 황씨(黃氏)의 도시조(都始祖)인 황락(黃洛)의 후손으로, 창원백(昌原伯)에 봉해진 병고(丙古)의 지손(支孫)에서 계대(系代)를 알지 못하는 다음 3파(派)로 크게 분류(分類)한다.

첫째, 고려(高麗) 충정왕(忠定王) 때 도첨의참리(都僉議參理)를 지냈고 회산군(檜山君)에 봉해져서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에 오른 황석기(黃石奇)를 파조(派祖)로 하는 회산군계(檜山君系)와 둘째, 시중(侍中)을 역임한 황충준(黃忠俊)을 파조(派祖)로 하는 시중공계(侍中公系)가 있으며, 셋째는 호장공계(戶長公系) 황양충(黃亮沖)의 계통이다.

한편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위의 3파를 포함하여 8파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연원(淵源)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2000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 남한에 총 7만8,894가구, 25만2,81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 전체는 64만4,294명이다.

3) 창원 황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동두천시 탑동동에 400여 년을 세거해 온 창원 황씨의 시조는 고려조에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황충준(黃忠俊)이다. 중시조 황신(黃信)의 7세손이 황순경(黃舜卿, 內資寺副正)이고 순경의 차자가 황림(黃琳)이며 묘소는 용인시 고기동 낙생저수지 동쪽 산기슭에 있다.

황림(1517-1597)의 호는 겸재(謙濟),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옥당(玉堂)에 올라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승품을 거듭하여 명종 17년(1562)에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에 이르렀다. 선조 11년(1578)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해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공신에 책록되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판서와 대사헌(大司憲)에 올랐다. 림의 아들 신중(愼中 1561-1627)은 북별검(北別檢)을 지내다 동두천시 탑동동으로 입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현재 까지 15세가 이어져 왔으며 그의 11세손이 유학자 석재(石齋) 황학성(黃學性)으로 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4) 동두천 창원 황씨의 주요 인물

현재 문중의 후손은 각지에 1,000여 세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동두천에는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행정고시(42회)에 합격한 황범순(黃範淳), 동두천 청년회의소 회장 황수현(黃洙鉉), 탐동3리 이장을 역임한 황우현, 황대현, 동두천시청 생연1동에 근무하는 황규한 등이 있다.

35. 양천 허씨

1) 시조

허선문(許宣文)

2) 가문의 개창 과정

허씨(許氏)는 연원을 멀리 가락국 김수로왕의 비(妃) 허황옥(許黃玉)에 두고 있다. 허황옥은 원래 인도(印度)의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로서 16세(서기 48년) 때 배를 타고 지금의 경남 창원시 웅동면 용원리에 있는 부인당(夫人唐)으로 들어와 정박을 했는데 김수로왕이 의장(儀仗)을 갖추어 영접한 후 왕비로 맞이했다고 한다. 그 후 아들 10명을 낳았는데, 맏아들 거등(居登)은 김씨로 왕통을 잇게 하고, 두 아들은 허황후의 뜻을 살려 허씨(許氏)로 사성(賜姓)했으며, 나머지 일곱 아들은 불가에 귀의(歸依)하여 하동칠불(河東七佛)로 성불(成佛)했다고 한다.

허씨의 본관은 『조선씨족통보』 등의 문헌에 59본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것은 세거지(世居地)일 뿐이며 현존하는 본관은 양천(陽川)·하양(河陽)·김해(金海)·태인(泰仁) 4본이 관향으로 되어 있다. 양천 허씨는 조선조에서 20대 명족(名族)으로 손꼽혔으며 비록 많지 않은 인구로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명문으로서의 지위를 굳혀왔다.

양천 허씨(陽川許氏)의 시조(始祖)는 가락국(駕洛國) 김수로왕비(金首露王妃)의 30세손으로 전하는 허선문(許宣文)이다.

선문(宣文)은 공암현(孔巖縣)에 대부호(大富豪)로 살았으며, 이때는 후삼국이 대립을 하던 시기인데 고려의 태조 왕건이 견훤군을 정벌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던 중 군량미가 떨어지고 병마(兵馬)가 매우 피로하여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다. 이때에 공께서 마필과 식량을 내어 줌으로써 왕건은 전쟁에 승리하여 고려건국에 지대한 힘을 보태게 되었다. 왕건은 공의 충의에 감동하여 의부(義父)로 모시고 공암촌주로 봉하여 공암현을 식향(食鄉)으로 사(賜)하니 이로 말미암아 관직을 공암 허씨(公巖 許氏)로 한 것이며 후에 공암이 양천으로 고쳐짐에 따라 양천 허씨(陽川 許氏)로 불리게 되었다.

3) 가문의 발전

양천 허씨는 조선조에서 20대 명족(名族)으로 손꼽혔으며 비록 많지 않은 인구로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명문으로서의 지위를 굳혀왔다.

4) 양천 허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양천 허씨가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뿌리를 내린 것은 시조의 20세손 허난이다. 난(欄)의 부친 허자는 명종 때의 공조판서로 윤원형 등과 함께 윤임을 제거한 공로로 보익공신(保翼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난의 형인 허강은 학문에만 정진하여 부친이 편찬하던 『역대사감(歷代史鑑)』 30권을 완성하였다. 허난의 아들이 현감을 지낸 허수(1564-1642)이고 수의 아들이 허도이다. 허도는 광해군 13년(1621)에 무과에 급제하여 승계가 거듭되어 현령에 올랐으며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워 도호부사(都護府使)로 아홉 고을을 목민하였고, 이후 낙향하여 철산보(鐵山洑)를 설치하고 농사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자가 허황, 차자가 허근, 3자가 허박이다. 이들 세 형제의 후손들이 인근 각지에 흩어져 200여 세대가 거주하며 14대가 계대되었고 동두천에는 약 50여 세대가 분포되어 있다.

5) 동두천 양천 허씨의 주요 인물들

이 지역의 인물로는 상패동 동장을 역임하고 동두천시의료보험조합장을 지

낸 허의강, 예비군 중대장을 역임한 허영무, 이 지역에 한문과 서예를 보급하고 교육한 세명서예학원 원장 허영무, 동암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허인강, 협신양행을 운영한 허신강 등이 있고, 허의강은 동두천시 시민의장 향토애향장을 수상한 바 있다.

36. 한양 조씨

1) 시조

조지수(趙之壽)

2) 가문의 개창 과정

한양 조씨의 시조(始祖) 조지수(趙之壽)는 덕원부 용진현(德源府 龍津縣)에 세거해 온 사족(士族)의 후예로 고려조에 조순대부 첨의중서사(朝順大夫 僉議中書事)를 지냈다. 그 후 후손들은 조선이 개국하자 한양(漢陽)으로 이거하여 가세가 크게 번창하였고, 많은 명신과 훈신·유현을 배출하였으므로 본관을 한양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 왔으며 명문거족으로 성장하였다.

3) 가문의 발전

시조 조지수(趙之壽)의 아들인 조휘(趙暉)와 손자인 동정군부원수(東征軍副元帥) 조양기(趙良琪)가 초대, 2대 쌍성총관(雙城總管)이 되고 증손자인 용천부원군(龍川府院君) 조림(趙琳),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 조돈(趙墩)같은 걸출한 후손들을 낳아 명문귀족(名門貴族)의 반열(班列)에 오르게 되었다. 그 뒤 조선조(朝鮮朝)에서 개국공신(開國功臣) 조인옥(趙仁沃), 개국 정사 좌명공신(開國 定社 佐命功臣) 조온(趙溫),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우의정(右議政)을 역임한 조연(趙涓) 등이 한양(漢陽)에서 명문귀족(名門貴族)의 기반을 공고히 닦아 많은 명신현유(名臣賢儒)들을 배출하였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양 조씨는 남한에 총 6만

4,881가구, 27만3,40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양 조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동두천 지역에 누대를 살아 온 한양 조씨의 상계는 열세 살에 원나라의 일본 정벌에 원군을 거느리고 참전했다가 전군을 무사히 데리고 귀환한 명장 양기(良琪)로부터 계대한다. 상패동 남산에 묻혀 있는 조중려(趙中呂)는 응문(應文)의 현손이다.

중려의 장자가 종면(宗冕)이다. 그는 음보(蔭補)로 화순(和順), 괴산(槐山), 장수(長水) 세 고을의 목민관을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다. 차자 종저(宗著)는 7세 때에 사서(四書)를 떼고 최지천에게 동갑인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와 함께 수학하였으며 38세 때인 현종 10년(1669)에 수증교(授中敎)가 되고 42세 때인 현종 13년(1672) 문과에 등과하여 사서(司書)를 거쳐 숙종 12년(1686) 통정대부가 되었다. 평생을 학문 연구에 힘써 『남악집(南岳集)』 3권과 『민제신사(民齊新筭)』 1권을 남겼다. 종면, 종저 형제가 우리 고장에 입향하여 후손 대에서 명현관들을 배출하였으며 증여로부터 14대가 계대되어 경향 각지에 100여 세대, 동두천 지역에 10여 세대가 분포한다.

5) 동두천 한양 조씨의 주요 인물들

주요 인사로는 동두천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조성문,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예편한 조원희, 육군 공병 중위로 예편한 조규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수료한 조성학,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성민, 영남대학교 토목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백기, 평택경찰서장을 역임한 조관형, 초등학교 교감 조성찬, 칠레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조성욱 등이 있다.

37. 공주 이씨

1) 시조

이천일(李天一)

2) 가문의 개창 과정

시조(始祖)는 신라 때 사람 천일(天一)이다. 그는 박혁거세 5년(기원전 53년)에 문명이 뛰어나 중국 한나라에 들어갔다. 대사마대장군이 되어 흉노적을 정벌하고 요동백(遼東伯)에 봉해진 후 신라에 돌아와 공산군(公山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무공(文武公)이다.

3) 가문의 발전

공주 이씨 세계도에 의하면 신라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그 자손들은 상신 봉군 현공의 대를 이어 왔으며 특히 31세 백령(栢齡)이 양산 이씨(陽山 李氏)의 관조로, 34세 자송(子松)이 수원 이씨(水原 李氏)의 관조로 분적되었다. 고려조 후대 36세인 전공시랑 양호공(楊胡公)의 아들 저(苴)는 보문각대제학 화성 부원군이며 손자 사손(思孫)은 첨의 정승이고 증손 엽(曄)은 강원도관찰사 전 공판서 정충공(貞忠公)으로 청백리이고 그 아우 서(曙)는 찬화공신으로 참지의정부사이며 그 아들 대에서 7파로 갈라졌다. 즉 엽의 여섯 아들이 경력공파(經歷公：明善), 문송공파(文成公：明誠), 공숙공파(恭肅公：明德), 지평공파(持平公：明保), 참의공파(參議公：明尹), 현감공파(縣監公：明義) 그리고 서의 아들이 강양공파(剛襄公：敷)로 분파되었다.

공주 이씨 인구는 2000년 인구조사에서 1만1,762가구에 3만8,38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주 이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시조의 38세손 은자광록대부첨의정승(銀紫光祿大夫僉議政丞) 사손(思孫)의

손자 7인을 각각 파조로 하여 경역공, 문성공, 공숙공, 참의공, 현감공, 강약공 등 7개 파로 분리되었다.

5) 동두천 공주 이씨의 주요 인물들

현재 동두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요 인물로는 59세손 이윤형(李允瀾) 씨가 있다. 그는 2000년 8월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32호(송서, 율창 부분)로 지정되었고, 동두천 시민의장(향토문화 창달 부문)을 1989년에 수상하였다. 이윤형 씨는 두 형제를 두었는데 형 이세규는 '시원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고, 동생 이요규 씨는 화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60세손 이철규(李哲圭) 등 20여 세대가 동두천을 위시한 전곡읍 양원리와 미산면 일대에 분포하며 강양공(剛襄公)파의 파조이며 고려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 조선 개국공신 흥원군(興原君)의 사위가 미산면 무등리에 소재한다.

38. 안동 김씨(구)

1) 시조

김숙승(金叔承)

2) 가문의 개창 과정

안동 김씨는 신라 김씨의 시조이신 대보공(大輔公) 휘 알지(諱 闕智)의 후손 중 한 성씨이다. 김해 김씨(金海 金氏)를 제외한 대부분의 김씨는 바로 대보공의 후손인 것이다.

안동 김씨는 평장사(平章事) 숙승(叔承-경순왕의 손자)을 시조로 경순왕의 8대 손으로 고려조의 명장인 충렬공(忠烈公) 방경(方慶)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다. 그는 항몽항쟁을 주도하고, 삼별초의 난을 평정하였으며 고려 도원수로서 일본에 원정한 후 정난 정국공신이 되고, 벼슬이 첨의령(僉議令)에 이르러 상락군(上洛郡) 개국공(開國公)에 봉해지고 안동을 식읍(食邑)으로 받았다. 이로

씨 안동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3) 가문의 발전

안동 김씨는 신라 왕손이며 고려왕의 외손(外孫)으로서 고려 500년간 대대로 공경장상(公卿將相)이 끊이지 않았다. 고려가 망하자 많은 사람들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忠節)을 지켜 각 지방에 흩어져 은거하였고, 그 후 형성된 세거지(世居地)를 중심으로 후손들이 번성하였다.

조선조에 와서도 태종조에 좌정승을 지내신 익원공(翼元公) 휘 사형(諱 士衡)을 비롯한 4분의 정승(政丞-士衡, 石質, 壽童, 自點), 여섯 분의 호당(湖堂-壽寧, 澍, 弘度, 瞻, 紱, 德龍), 여섯 분의 청백리(清白吏-砥, 延壽, 粹, 時讓, 斗南, 忞光), 두 분의 충무공(忠武公-時敏, 應河), 다섯 분의 장신(將臣-應海, 世翊, 重器, 滄, 善弼) 등이 배출되었고 수많은 고관대작(高官大爵)과 충신열사(忠臣烈士)가 끊이지 않았으며, 모름지기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서의 명분을 지켜왔다.

4) 안동 김씨 인구

2000년 통계청 발표 : 42만5,000여 명, 인구 순위 18위

안동김씨대중회 자체 추정 인원 : 약 60만 명(2000. 12. 현재, 재외교포 포함)

5) 안동(구) 김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김방경의 아들이 혼(忻), 순(恂) 형제이고, 순의 아들이 영돈(永頓), 영후(永煦) 형제이다. 영후의 손자가 사렴(士廉), 사형(士衡) 형제이다. 사형의 아들이 승(陞)이고 승의 아들이 종윤(宗潤), 종윤의 아들이 영(瑛)이고, 영의 아들이 바로 동두천 광암동에 입향한 유지(有智)이다.

유지의 9세손 장년(長年)이 고종 때 효자로 정려(旌閭)되고, 아들 진태(鎭泰)도 순종 때 효자로 포상을 받아 2대가 나란히 정려되어 효자문을 세우는 영광을 안았다. 광암동에는 유지로부터 19대가 계대되어 지금에 이르렀고, 동두천 지역에는 1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150여 세대가 분포되어 있다.

선영 아래 김재운, 김재만 형제가 거주하고 있다.

6) 동두천 안동 김씨의 주요 인물들

이 지역의 주요 인물로는 안동 김씨(구) 종친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훈 씨가 있으며 그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10여 년간 재임하였다. 종손으로는 김태환 씨가 여주에 거주하며, 이천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그의 동생 김태철 씨는 양평소방서 행정과장으로 있고, 종회 총무 김영수 씨가 의정부시청, 구리시청의 과장을 역임하고 공기업 처장으로 퇴임하였으며 김재운 씨는 새마을 지도자와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대통령훈장을 수훈받은 바 있다. 그의 동생 김재만 씨 역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지도자과정)을 마치고 유도회에서 활동하는 한편,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39. 경주 이씨

1) 시조

이알평(李謁平)

2) 가문의 개창 과정

경주 이씨의 시조(始祖)는 알평(謁平)이고 본관(本貫)은 경주(慶州)이다. 『삼국유사』에는 기원전 117년에, 경주 이씨의 시조인 알평공이 하늘에서 신라의 4영산(靈山)의 하나인 경주 서북에 있는 금강산(金剛山)의 표암봉(瓢巖峰)에 내려왔다고 한다.

3) 가문의 발전

경주 이씨의 시조는 알평공(謁平公)이지만 시조에서 신라 말의 거명(居明)까

지는 계대(系代)가 자세하지 않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이제현(李齊賢)의 묘지(墓誌)를 지으면서 신라 말에 소판(蘇判)에 이른 이거명(李居明) 이후의 세계(世系)를 자세하게 적은 것이 계기가 되어 소판공(蘇判公)을 중시조(中始祖) 곧 기세조(起世祖)로 모시고 있다.

경주 이씨는 알평의 후손 가운데 구(球)를 시조로 하는 우계 이씨(羽溪 李氏), 위(渭)를 시조로 하는 차성 이씨(車城 李氏), 개(開)를 시조로 하는 합천 이씨, 거명의 6세손인 주좌(周佐)를 시조로 하는 아산 이씨(牙山 李氏), 그의 아들 우칭을 시조로 하는 재령 이씨(載寧 李氏), 거명의 15세손인 편(翩)의 아들 임간(林幹)을 시조로 하는 장수 이씨(長水 李氏), 거명의 17세손인 수(蓀)의 아들 영재(永梓)와 군계(君梯)를 시조로 하는 진주 이씨(晉州 李氏), 거명의 19세손 반계(攀桂)를 시조로 하는 원주 이씨(原州 李氏) 등으로 분적되었다. 중시조(中始祖) 거명(居明)으로부터 분파한 본손(本孫)들은 11개 파로 나뉘었다.

대체로 거명으로부터 분파를 하기 시작하는데 16세 인정(仁挺)을 파조(派祖)로 하는 성암공파(誠菴公派), 17세 제현(齊賢)을 파조로 하는 익재공파(益齋公派), 역시 17세 천을 파조로 하는 국당공파(菊堂公派), 그 아우 매(邁)를 파조로 하는 부정공파(副正公派), 그 아우 과를 파조로 하는 상서공파(尙書公派), 그 아우 수(蓀)를 파조로 하는 사인공파(舍人公派), 15세 강을 파조로 하는 판사공파(判事公派), 17세 지수(之秀)를 파조로 하는 월성군파(月城君派), 19세 양오(養吾)를 파조로 하는 직장공파(直長公派), 19세 존오(存吾)를 파조로 하는 석탄공파(石灘公派), 19세 존사(存斯)를 파조로 하는 교감공파(校勘公派) 등이다. 대파(大派)의 종회(宗會) 가운데는 가장 현달(顯達)한 가문(家門)부터 별칭이 있는데, 상서공파의 오신(五臣)집이 있고 오신집 속에 백사(白沙)집이 가장 두드러지며 그 다음으로 익재공파의 팔별(八鼈)집이 있고 국당공파의 팔정(八廷)집이 있으며 우의정(右議政) 완(浣)의 매죽헌(梅竹軒)집과 좌의정 경억(慶億)의 화곡(華谷)집 등이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4) 경주 이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이거명의 8세손 이충섭(李寵暭, 문하시중), 충섭의 6세손 이핵(李翺)이며, 핵의 아들이 시인이요 학자인 인정(仁廷), 진(鎭, 검교정승), 세기(世基)인데 이들이 경주 이씨를 중흥시킨 중흥조들이다. 진의 아들이 관(琯, 상락군)과 이제

현(李齊賢, 문하시중)이다.

최고운(崔孤雲) 후의 최고의 학자라는 제현의 아들이 달충(達衷, 보문각 제학)과 달준(達尊, 직제학), 제현의 손자가 보림(寶林, 정당문학), 제현의 증손이 선(瑄, 판서)이고 점필재의 다정한 문우였던 지대(之帶, 판서)는 선의 아들이다. 다시 소급해서 세기 인맥은 그의 아들 천(薄, 문하평리), 천의 세 아들이 경중(敬中, 월성군), 달충(達衷, 정당문학), 성중(誠中, 좌의정)이다. 이 3형제에 의해 인맥이 다시 셋으로 갈라진다.

경중의 손자가 정보(廷輔, 감사 청백리), 정보의 6세손이 정암(廷龜, 선무공신 지중추), 정형(廷馨, 이조참판), 정협(廷謙, 이조참판)의 3형제이다. 이 세기파의 세 갈래 인맥 이외에 세기의 7세손 예신(禮臣, 찬성)으로 뻗은 인맥도 굵직하다. 예신의 아들이 몽운(夢尹, 보덕), 몽량(夢亮, 우참찬) 형제이고, 몽량의 아들이 바로 선조 조의 상신 백사 이항복(李恒福, 영의정 공신 청백리)으로 이덕형(李德馨), 이정립(李廷立)과 더불어 과거 동과생으로 혼조3리(昏朝三李)라 우러름을 받았다.

동두천시 광암동에 세거해 온 경주 이씨는 몽운으로부터 계대한다.

5) 동두천 경주 이씨의 현황과 주요 인물들

몽운의 아들이 광복(光福)으로, 그는 이항복의 제자이며 음보(蔭補)로 참봉이 되고 1650년(효종 1년) 증과 문과에 급제하여 회양부사를 거쳐 첨지중추부사를 지낸다. 1667년 승지에 발탁된 시성(時省)은 광복의 손자이며 시성의 현손이 중혁(重赫)이다. 중혁이 우리 고장에 입향하여 그로부터 13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르며 후손 3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하고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거주한다. 주요 인물로는 이담면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상덕(李相德)이 있다. 한편, 광암동이 아닌 생연3동에는 또 다른 갈래의 경주 이씨가 세거하고 있다. 이 갈래의 상계는 이경중(판병부사, 시호 문정)인데 그의 8대손 정협(廷謙, 감사 청백리)으로부터 계대한다. 정협의 차자가 현(瀾)인데 그의 후손 10여 세대가 거주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담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지역 유림으로 활동한 이종섭(李鐘燮)이 있으며 그가 바로 현의 10세손이다. 그리고 이종섭의 아들 이태우는 공학박사로 현재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딸 이신옥은 중

근당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육군 대령으로 현재 국방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상현 박사도 후손이다.

현재 동두천 경주 이씨는 종친회를 구성하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있는 이영일을 비롯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회장,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동두천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한 이명수, 전 동두천시 부시장 이규웅, 동두천시 회계과장을 역임한 서기관 이상용, 동장을 역임한 이상옥, 동두천문화원 이사 이영일 등이 주축이 되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40. 사천 목씨

1) 시조

목효기(睦孝基)

2) 가문의 개창 과정

사천 목씨의 유래는 구체적인 문헌자료가 없어 알 길이 없다. 예부터 ‘형제상목설(兄弟相睦說)’이 세간에 전해져 왔고, 이를 근간으로 사천 목씨의 연원을 잡고 있을 뿐이다. 옛날 경상도 사천(泗川)지방에 형제가 살았는데 우애가 어찌나 깊었던지 그 소문이 널리 퍼져 마침내는 조정에까지 알려졌다. 조정에서는 이 소문을 확인한 뒤 지극한 형제애(兄弟愛)를 표창하기 위하여 ‘화목’을 뜻하는 ‘睦’자를 성씨로 내렸다고 한다.

3) 가문의 발전

사천 목씨 가문은 고려조부터 가문이 융성하여 중앙관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33명이 문과급제를 하였으며 정승판서를 비롯하여 당상관(堂上官) 21명을 배출함으로써 명문대가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4) 사천 목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사천 목씨의 동두천 입향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13세 사흙(思欽)의 입향이다. 사흙(1572-1661)은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종4품 선전관을 지냈고, 1609년 광해(光海) 혼조(昏朝)에서 벼슬을 사양하고 지행동으로 낙향한 이래 14대를 이어 오고 있다.

또 다른 한 갈래는 대흙(大欽)의 아들 행선(行善, 황해감사)으로 그도 역시 지행동에 입향하여 정착하여 현재까지 14대를 이어 내린다. 이들 사천 목씨의 입향은 이후 동두천의 사천 목씨가 동두천의 중요 세거 문중으로 성장하며 이 지역의 문화와 정치,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5) 동두천 사천 목씨의 발전과 주요 인물들

사흙의 후손 24세 연욱(然旭)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후 조국 해방을 맞아 귀국하여 광복동지회 선전부장으로 활동 중 1948년 피습되어 사망하였다. 이담면 부면장을 지낸 영희(榮喜), 경찰서장을 지낸 영호(榮浩), 한국감정원 이사를 지낸 영민(榮敏), 장악원정공과 중증회장인 영진(榮鎭) 등이 그 후손이다.

다른 한 맥인 대흙(大欽)의 아들 행선(行善, 황해감사)의 후손인 24세 자상(子商, 호적명은 연철(然哲))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항일운동에 동참하여 의병활동 자금을 모금하던 중 일본 헌병에 피체되어 1910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13세 서흙(敍欽)의 아들 5형제 중 차남 기선(曄善)은 현재의 불현동 생골에 정착하였고, 기선의 아들이 효행으로 별천(別薦)되어 나주목사와 경상감사를 지낸 임형(林馨)이다. 이 지역에는 기선으로부터 15대가 이어져 후손 5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하여 살고 있으며 전 경기도 도의원과 양주군농협장을 지낸 태신(泰信),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지낸 4선 국회의원이며 판사 출신인 요상(堯相), 전국농민회 중앙회장과 대관령농협장을 지낸 찬균(瓚均) 등이 그 후손이다.

또한 기선의 아우로 조선 숙종 조에서 좌의정을 지낸 내선(來善)의 둘째 아들 임칠(林七)이 현재의 송내동 안골에 입향하여 12대가 이어져 내리며 후손 7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하여 살고 있는데 명지대학교 교수 찬상(贊相), 대한 탄질검사소(炭質檢査所) 소장 준상(俊相,) 현재 송내동에 거주하면서 동두천시 국악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상(裕相) 등이 그 후손이다. 그 외 동두천읍 총무과장을 역임한 효상, 송내리 이장을 역임한 우상,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현재 특허청 서기관으로 있는 성호(盛浩), 의학박사로 개업하고 있는 승희(勝姬), 문학박사로 이화여대 교수인 승숙(勝淑),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특허청 서기관으로 있는 동균(東均)이 있다. 목태신 씨가 1993년 동두천 시민의장(지역발전 유공 부문)을, 2003년 목유상 씨가 동두천시공도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이를 발전시킨 공로로 동두천 시민의장(문화체육 부문)을 각각 수상하였다.

41. 해주 오씨

1) 시조

오인유(吳仁裕), 오현보(吳賢輔)

2) 가문의 개창 과정

해주 오씨(海州 吳氏)는 고려 성종 조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지낸 오인유(吳仁裕)를 시조로 하는 성씨이다. 오인유는 송나라에서 고려에 귀화해 해주에 터를 잡았다. 오씨 중에서는 본관은 같으나 시조를 달리하는 또 한 파의 해주 오씨가 있다. 이들은 고려 고종 조에 거란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워 해주군(海州君)에 봉해진 오현보(吳賢輔)의 후손들이다. 오현보는 신라 지증왕 1년 중국에서 건너온 오침(吳瞻)의 24세손으로 전한다. 오침과 오인유와는 어떤 관계인지 역사적 문헌이 불확실해 고증하기 힘들다. 오인유와 오현보(吳賢輔)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3) 가문의 발전

오인유의 후손들은 7세 전후로 약 20여 개의 파로 갈라진다. 8세 오반(吳潘)

의 후손들은 찬성공파(贊成公派), 9세 오중수(五仲守)의 후손은 사복사정공파(司僕寺正公派)로 분파했다. 9세 오희(吳僖)의 대 이후로는 양정공파(陽亭公派)를 이루었고, 9세 오처권(吳處權)의 후손은 용강공파(龍岡公派), 9세 오생운(吳生韻)의 후손은 생원공파(生員公派)를 이루었다.

7세 오사정(吳士禎)의 후손은 묘제공파(墓齊公派), 7세 오사운(吳士雲)의 후손은 지군사공파(知郡事公派), 7세 오사염(吳士廉)의 후손은 사복사경공파(司僕寺卿公派), 7세 오광연(吳光延)의 후손은 전서공파(典書公派)로 나뉘었다.

8세 오선경(吳先敬)의 후손은 사인공파(舍人公派), 8세 오선의(吳先義)의 후손은 통덕랑공파(通德郎公派), 8세 오강(吳綱)의 후손은 장춘공파(長春公派)로, 오서(吳瑞)의 후손은 해성부원군파(海城府院君派)로 분파했으며 5세 오성(吳晟)의 후손은 판도정랑공파(版圖正郎公派), 9세 오국화(吳國華)의 후손은 징사공파(徵士公派)로 되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14세 오정방(吳定邦)의 후손은 정무공파(貞武公派), 12세 오경순(吳景醇)의 후손은 신녕공파(新寧公派), 14세 오윤겸(吳允謙)의 후손은 추탄공파, 14세 오윤성(吳允誠)의 후손은 월곡공파(月谷公派), 오윤성의 후손은 서하공파(西河公派), 13세 오희철(吳希哲)의 후손은 학생공파(學生公派), 14세 오윤충(吳允忠)의 후손은 처사공파(處士公派), 14세 오윤해(吳允諧)의 후손은 만운공파(晩雲公派) 등으로 분파하였다.

해주 오씨는 조선조에 문과급제 98명, 영의정 1명(吳允謙), 우의정 1명(吳命恒), 대제학 3명(吳道一), 오원(吳援), 오재순(吳載純)을 배출했다.

4) 해주 오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시조 오현보(吳賢輔)는 오씨의 비조(鼻祖) 등(騰)의 24세손이다. 서기 500년(신라 지증왕 1년) 등이 중국에서 동래(東來)하여 함양에 살면서 오씨의 연원(淵源)을 이루었고, 그의 자손이 신라 역조(歷朝)에서 벼슬하였으며 11세 희(禧)는 고려 태조의 국구(國舅)였다. 18세 연종(延龍)은 1107년(고려 예종 2) 부원수로서 여진을 토벌하였고, 24세 현보(賢輔), 현좌(賢佐), 현필(賢弼) 3형제가 거란을 토벌한 공으로 1216년(고려 고종 3년) 각각 해주군(海州君), 동북군(同福君), 보성군(寶城君)으로 봉해져 이를 계기로 해주, 동북, 보성 오씨로 각각 분적되었다. 그러나 고려조에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지낸 현보의 손자 인

유(仁裕)를 1세조로 계대하는 해주 오씨의 다른 흐름이 있다.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세거한 해주 오씨의 상계는 인유를 1세로 하여 계대한다. 인유의 7세손이 사염(士廉)이고, 사염의 7세손이 조선조 광해군 당시 여주 목사를 지낸 윤해(允諧)이다. 그 윤해의 아들이 달제(達濟, 시호 충렬(忠烈), 관직은 부교리(副校理))다.

그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후 남한산성에 들어가 화의를 적극 반대했는데 인조가 청군에 항복한 뒤 적진에 송치되었으나, 적장 용골대의 심문에 굽히지 않아 심양으로 이송, 거기서도 소신을 끝내 굽히지 않자 끝내 윤집, 홍익한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들을 삼학사라 한다. 달제의 아들이 도현(道玄), 도현의 손자가 영조 때 경상도관찰사를 지낸 명서(命瑞)이고, 형조판서를 지낸 언유(彦儒)는 그 명서의 아들이다. 언유의 고손 완선(玩善)이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입향하여 우리 고장에 뿌리를 내린다.

5) 동두천 해주 오씨의 주요 인물들

남영해산물상사(南榮海産物商社)를 운영하던 오준환(吳俊煥) 씨가 완선의 현손이며 동생 인환, 윤환, 순환 등이 지역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입향조의 직계는 아니나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현재 동두천시장으로 재임하는 오세창 시장 역시 해주 오씨 문중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42. 밀양 박씨

1) 시조

박언침(朴彦沈)

2) 가문의 개창 과정

신라 경명왕(박혁거세의 29세손)의 첫째 아들 박언침(밀성대군)이 밀성(밀양)대군에 봉해진 후 그 후손들이 박언침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밀양으로 하였

다. 밀양 박씨는 모든 박씨 가운데 종가이고, 밀양 박씨에서 10여 개의 본관으로 나뉘고, 밀양 박씨 내에서도 여러 개로 분파되었다. 이들은 또 여러 파로 다시 나뉘어져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밀양 박씨는 본관별 인구에서 김해(가락) 김씨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3) 가문의 발전

박씨는 다른 씨족과는 달리 역대 세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박씨의 세계는 박혁거세의 증손인 박씨의 세계는 신라 5대 파사왕(婆娑王)과 신라 7대 일성왕(逸聖王)에서 갈라졌는데, 파사왕계는 뒤에 영해, 면천, 강릉 등으로 분관했고, 비안, 우봉(牛峰), 이산(尼山), 해주(海州) 등도 파사왕의 후손이라 한다. 일성왕계는 그의 25대손인 경명왕(신라 54대)과 경애왕(신라 55대)대에서 다시 갈라졌다.

경명왕(景明王)은 다시 아들 9형제에서

- 첫째 아들 박언침의 밀성대군파(密城大君派) : 밀양, 반남, 진원 박씨
- 둘째 아들 박언성의 고양대군파(高陽大君派) : 고령 박씨
- 셋째 아들 박언신의 속함대군파(速咸大君派) : 함양, 삼척 박씨 등
- 넷째 아들 박언립의 죽성대군파(竹城大君派) : 죽산, 음성, 고성 박씨
- 다섯째 아들 박언창의 사벌대군파(沙伐大君派) : 상주, 충주 박씨
- 여섯째 아들 박언화의 완산대군파(完山大君派) : 전주, 무안 박씨
- 일곱째 아들 박언지의 강남대군파(江南大君派) : 순천, 춘천 박씨 등
- 여덟째 아들 박언의의 월성대군파(月城大君派) : 경주 박씨의 8대군파
- 아홉째 아들 박교순(朴交舜)의 국상공파(國相公派) : 울산 박씨로 분파되었다.

한편, 경애왕(景哀王)계는 계림대군파(鷄林大君派)를 이루었다.

밀양 박씨의 세계는 밀성대군의 7대손인 언부(彦孚: 문하시중)를 중시조로 하는 문하시중공파(門下侍中公派)를 비롯하여, 도평의사사공파(都評議使司公派), 좌복야공파(左僕射公派), 밀직부사공파(密直副使公派), 판도공파(版圖公派), 좌윤공파(左尹公派) 등으로 대별되고, 각 파는 아래대로 내려오면서 또 여러 파로 분파된다.

가장 규모가 큰 문하시중공파는 종파인 은산공파(銀山公派:永均), 행산군파(

杏山君派:世均), 좌상공파(左相公派:尙禮), 규정공파(糾正公派:鉉), 사문진사공파(四門進士公派:元), 밀성군파(密城君派:陟) 등으로 갈라지고, 이들은 또 여러 파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규정공파가 밀양 박씨의 분파 중 가장 후손이 번창하다. 또 규정공파에서 나누어진 파 중에서 특히 낙촌공파(駱村公派:忠元), 강수문도공파(江戒文度公派: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밀양 박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양주 회천읍과 동두천 하봉암동에 뿌리를 내린 박씨 인맥은 중시조 박척(朴陟)으로부터 계대된다. 척의 11세손이 척화신 박이서(朴彝叙, 이조판서)이고 이서의 아들이 노(魯, 참판)이다. 소급하여 이서의 조카가 이일(李鎰)을 따라 순절한 호(旆, 교리), 이서의 7세손이 장복(長福, 판서)이다. 동두천시 하봉암동으로 입향한 수소(守素, 영의정을 지낸 윤두수의 손자사위)는 노의 장자이며 그로부터 13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후손들의 분포는 동두천과 양주 지역에 40여 세대가 산재한다.

한편, 지행동에도 세거해 온 밀양 박씨 문중이 있다. 그 상계는 중시조 척의 7세손 시림(時霖, 어모장군 부사직)이 성종 16년(1485) 양주 회천으로 입향하면서 맥이 이어진다. 시림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연(演), 빈(濱), 환(煥)이다. 이서는 환의 증손이다.

지행동에 세거해 온 박씨 문중은 빈으로부터 이어진다. 빈이 손자가 장(裝 부사직), 장의 손자가 안공(安恭, 인조 때 영사원종공신 1등), 안공의 손자가 문동(文東), 문동의 증손이 장환(長煥), 장환의 손자가 길회(吉會), 길회의 손자가 시병(是秉)이다. 회천에서 지행으로 이거 입향한 이가 바로 시병이다. 그로부터 9대가 계대되었으며 자손 10여 세대가 거주한다.

5) 동두천 밀양 박씨의 주요 인물

사업에 종사하는 박상배 씨, 전 공무원 박상호 씨,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박관희 씨 등이 있다.

43. 남양 홍씨

1) 시조

비조: 홍천하(洪天河), 1세조: 홍은열(洪殷悅)

2) 가문의 개창 과정

남양(南陽)은 경기도 화성군(華城郡)에 위치한다. 남양 홍씨(南陽 洪氏)는 서기 643년에 당나라 8학사의 한 사람으로 동래(東來)한 홍천하(洪天河)가 당성(唐城: 지금의 南陽)에 도착하여 정착하므로 그는 남양 홍씨의 비조(鼻祖)가 되었다. 고구려(高句麗) 영류왕(榮留王) 때 당나라에서 8학사(學士)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학(儒學)을 강명(講明)하고 문화를 널리 혁신(革新)시켰다. 그는 고구려(高句麗)가 망하고 삼한통합(三韓統合)에 따라 신라(新羅) 선덕여왕(善德女王) 때 유학(儒學) 발전에 공(功)을 세워 문무왕(文武王) 때 당성백(唐城伯)에 봉해졌으며, 신문왕(神文王)이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추대했고 효소왕(孝昭王)은 당성후(唐城候)를 삼았다.

그 후 당성(唐城)의 지명이 개칭됨에 따라 후손들은 남양(南陽)을 본관(本貫)으로 삼고, 고려(高麗)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를 지낸 홍은열(洪殷悅)을 일세조(一世祖)로 하여 세계(世系)를 계승(繼承)하고 있다.

3) 가문의 발전

남양 홍씨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많은 인재가 등용되었고 문과에 급제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 9명의 상신(相臣, 政丞)과 3명의 왕비(王妃)를 배출하여 삼한 갑족의 반열에 올랐고 조선시대에는 8명의 상신(相臣)과 3명의 문형(文衡), 왕비(王妃) 1인을 배출하여 한국의 8대 각별(名閥) 1위로 기록되고 있어 고려개국공신 삼중대광태사 홍은열 시조로부터 조선의 말기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홍순목에 이르기까지 고려와 조선 양조에 걸쳐 1,000년 동안이나 17명의 정승을 배출한 것은 우리나라 3,342개 본관 별 성씨(姓氏) 중에 가장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정승을 많이 배출한 유일무이한 성씨로 명문의 반열(班列)을

유지하고 있다.

4) 남양 홍씨의 동두천 입향 과정

남양 홍씨는 12세 홍용(洪戎)의 아들인 13세에서 4형제가 4대파를 이루어 이때부터 더욱 번창하였다. 즉 맏아들 홍주(洪澍)는 남양군파(南陽君派), 둘째 아들 홍언박(洪彦博)은 문정공파(文正公派), 셋째 아들 홍언유(洪彦猷)는 판밀직파(判密直派), 넷째 아들 홍언수(洪彦修)가 판중추파(判中樞派)의 파조가 동두천의 입향조(入鄕祖)가 되었다.

남양 홍씨가 동두천시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역성혁명을 일으킨 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혁명 당시에 고려조정에서 공조판서의 현직에 재임 중에 있던 홍언수(洪彦修)는 혁명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벼슬을 버리고 동두천시 생연리로 낙향하여 은거함으로 입향조(入鄕祖)로 파세조(派世祖)가 되며 동두천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5) 동두천 남양 홍씨의 발전

홍언수는 현재의 동두천시 생연동 113, 114번지 일대에 저택을 새로 짓고 마당 앞에 연못(111번지)을 파서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운치를 더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 저택은 사라지고 없으나 그 연못은 현재까지도 600여 년간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그 연못의 샘이 아무리 가뭄이 심하여도 마르지 않는다 하여 생연동(샘이 솟는 연못), 못골(연못이 있는 마을), 생골(샘골)이라는 동명이 생기게 된 연유가 되었다고 한다.

홍언수는 7남 9녀를 두고 사망하여 그의 묘는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산34에 봉안되어 있고 그 자손들의 분묘는 동두천시 생연동 산16번지를 위시하여 동두천 시내 일원에 세장되어 있다. 홍언수는 판중추공파의 파시조가 되고 그의 후손들은 동두천과 양주시를 위시하여 수원시, 용인시, 부산시, 김해시, 대구시, 성주군, 논산시 등 전국에 약 5,000여 세대를 이루고 있어 남양 홍씨의 4대 파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홍언수의 7남 9녀 중 장남 호(浩)는 생원, 차남 연(연)은 공조참판(工曹參判) 3남 한(漢)은 병조판서, 4남 약(約)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 5남 적(迪)은 대

호군(大護君), 6남 승(勝)은 첨사(僉使), 7남 해(海)는 태조 이성계의 부마로 당성군에 봉해지므로 7형제가 모두 출사하는 영화를 누렸다.

7형제 중 4남 약(約)과 5남 적(迪)과 6남 승(勝)과 7남 해(海) 등 4형제는 안평대군과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수호에 앞장을 서다 적몰되기도 하였다. 특히 5남 적(迪)은 피화하여 영월 단종릉의 배식단과 계룡산 동학사 숙모전에 배향되어 있다. 또한 약의 맏아들 원로(元老)와 둘째 아들 형로(亨老)도 부형들과 함께 단종 수호에 앞장을 서다 적몰되고 강계와 종성에 각각 충군되었다. 이와 같이 한 가족 여섯 분들은 모두 동두천의 출신으로 함께 나서서 단종을 수호하려다 모두 적몰 충군되고 홍적은 피화하였으니 한 가족에서 6충신이 배출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충신지문이라 하겠다.

홍언수의 7형제 중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계통은 홍언수의 4남 홍약, 약의 넷째 아들 훈원원 도정 홍정로, 정로의 맏아들 우후공 홍결의 후손들은 수원으로 출향하였고 둘째 아들 수사공 홍준(洪濬)의 후손들이 못골의 고향을 지키고 대를 이어 세거하므로 600여 년의 토성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현재 수사공의 후손들은 동두천 시내 일원에 걸쳐 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생연1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수사공 홍준은 정주목사, 절충장군, 경상도수군절도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사망하여 그의 묘는 생연1동 산16번지에 모셔져 있어 그 자손들이 매년 음력 10월 3일 시향을 모시고 있다. 홍준의 맏아들은 교위공(校尉公) 홍수강(洪守綱)이요, 둘째 아들은 사직공(使直公) 홍수기(洪守基)이다. 동두천 출신으로 홍진(洪璫)과 홍극제(洪克濟)는 부자지간으로 2대에 걸쳐 문과(文科)에 급제하므로 가문을 빛나게 하였고 그의 묘는 보산동 산22에 있다. 특히 홍익범(洪益範)의 조선시대에 작성된 호적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서로 보존되고 있어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6) 동두천 남양 홍씨의 주요 인물들

근대 인물로는 애국지사 홍병준은 동두천에서 3·1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왜경에 체포되어 그 형독으로 사망, 상봉암동 산131번지에 애국지사비각이 있어 동두천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희영도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2대 면장을 지낸 홍기영, 초대 면의원을 지낸 홍재운, 양주향교의 전교 홍병현, 적

성향교의 전교 홍인섭 등이 있고 서예가 소농 홍정섭의 글씨는 소요산 입구의 반공희생자위령탑의 비문으로 남아있어 그의 서체를 볼 수 있고 언론인이며 대한언론인회 복지기금관리 위원장을 지낸 홍돈섭 등이 있다.

현대 인물로는 경기도경찰국장을 역임하고 은성무공훈장, 녹조소성훈장, 금성충무무공훈장을 수훈한 홍병식 씨, 동두천고교교장·동두천문화원장을 지낸 홍경섭(현 성균관 전인·성균관유도회 동두천지부장·한북신문 논설위원)은 40년간의 교육봉사로 대통령석류장을 수상하였으며 동두천시의 가장 영예로운 시민의장인 지역교육발전부문인 문화장을 1995년 10월 6일 수상하였다. 전 과천외국어고교 교장 홍배식(현 과천학교 명예교장, 중국대련시 육명중학 명예교장), 홍병훈(전 이담고등공민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홍병영·홍운섭·홍운섭·홍준섭, 미국 테네시주 앤리스 한인 학교 교장 홍기순, 전 동두천제건중학교 교장 홍수직, 서울대 문학박사 홍재범(건국대 교수), 경기대 교수 영문학박사 홍병호, 전 한양건설 쿠웨이트현장소장 홍재겸, 의학박사 홍재엽(이화여대 교수), 정치학박사 홍재환, 공학박사 홍재일(대학교수), 전 평화방송 아나운서 홍관섭(공주대 교수), 의정부 송현고 행정실장 홍종훈(사무관), 국민대 교육학 석사 홍순창(보령여고 교사) 등 교직이 다수이고 전 국보위 중령 홍양섭(중앙대 ROTC), 전 국방대학 중령 홍진섭(건국대 ROTC), 전 경무대 통신계장 홍계섭, 전 청와대 사무관 홍재민(충남도청 근무), 전 동두천시의회 사무과장 홍효섭, 전 중앙동장 홍재진, 현 동두천시 주택과장 홍익호,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전 양주시의회 의장 홍재룡, 시의원 홍운섭(2선), 주택은행 남양주지점장 홍재진, 안양상공회의소 상임부회장 홍정웅, 전 동두천시 시정자문위원회 상임위원·동두천시 청년회의소 9대 회장을 지냈고 남양 홍씨 판중추공파 종중회장인 홍종근, 홍재우 전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계장, 동두천시 새마을지도자회 회장 홍종서는 동두천시의 가장 영예로운 시민의장인 자연정화부문인 시민봉사장을 2005년 10월 6일 수상하였다. 홍재연 전 동두천시 청소시설계장, 홍재정 서울대 석사, 사단법인 작물보호제판매협회 경기북부지부 사무국장 홍재찬, 세종대 강사 홍난지, (주)효성 파나마지사장 홍재형, 홍순학 경기제2청사 6급, 공학박사 홍재화, 동작구청 세무과 홍종애, 초등학교 서무부장 홍덕상, 동두천시청 계장 홍정옥, 동두천단위조합 부녀부 차장 홍계숙, 1998년 10월 6일 선행부문 효행선행장의 시민의장을 수상한 홍재승, 동두천시의 가장 영예로운 시민의장인 효행 선행 부문에 관하여 시민의장을 수상

한 홍재우 등이 모두 수사공 홍준의 후손들이다.

동두천시 생연1동 427-18(동두천시청 앞)에 남양 홍씨 수사공 문중회관이 있어 종친들의 보화 등을 연찬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문중사를 논의하는 모임의 장소가 되고 있다.



제34장

인물

- 제 1 절 고대
- 제 2 절 고려시대
- 제 3 절 조선시대
- 제 4 절 조선시대 효자, 열녀
- 제 5 절 근대
- 제 6 절 현대
- 제 7 절 자료

DONGDUCHEON HISTORY OF



30 YEARS 1981-2011

東豆川市30年史



제1절 고대

1. 근초고왕(?~375)

백제 제13대 왕(346~375 재위)으로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룩한 영명한 군주이다. 즉위 초에 양주, 동두천을 기반으로 하는 진씨(眞氏) 세력과 연합하여 왕비족으로 맞이하고 이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한다. 그는 수도를 다시 한수 이북의 한성으로 옮겨 양주를 국가 발전의 중심지로 삼고 북방의 고구려와 대립하였다. 이에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하여 침공해 오자 이를 예성강변에서 대파하고 이어 북진하여 대동강 가에서 고국원왕을 사살하는 등 북방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아울러 마한의 잔여세력을 소탕하고 가야를 세력권 안에 두었다.

근초고왕은 화상문자경, 칠지도 등을 보내어 왜의 후왕들에 대한 통치권을 강화하고 요서, 산둥, 양자강 일대의 백제 영토 지배를 확립하였다.

2. 김범문(金梵文, ? ~825)

신라 후기의 혁명가, 강릉의 호족이자 왕위 계승자였던 할아버지 김주원(金周元)이 경주세력에 밀려 왕위 계승에 실패한 데 불만을 품고 아버지 김헌창(金憲昌)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자 다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양주 지역을 근거로 거병하였다. 고달산의 초적 수신(壽神) 등과 함께 평양(지금의 양주, 동두천)에 도읍하고자 북한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김범문의 반란에 그와 연고도 없던 양주, 동두천사람들이 동조한 것은 당시 신라왕실의 분열상과 함께 신라 말기 사회의 난맥상을 반영하고 나아가 신라사회의 해체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3. 소서노(召西奴, 기원전 66년?~기원전 6년?)

비류를 시조로 하는 백제 건국 설화에서 나오는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이자 고구려 동명성왕 주몽의 두 번째 부인이다. 연타발(延陀勃)의 딸이며, 북부여 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인 우태와 처음에 혼인하였다. 우태 사후, 동명성왕과 혼인하여 그를 도와 고구려 건국에 일조했다고 한다. 이후 부여에 있던 동명성왕의 장자 유리명왕이 고구려에 올 때 주몽과 결별하고 비류와 온조 두 아들과 함께 남하하여 백제를 건국했다고 전해진다.

4. 온조(溫祚)

백제를 세운 시조왕, 고구려 시조 추모의 아들이었으나 유리가 추모를 찾아와 태자가 되자 어머니 소서노, 형 비류와 함께 남하하여 한강 이북 위례성(양주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 그는 말갈, 낙랑 등 주변세력과 싸우며 나라를 확장하는 한편 미추홀의 비류세력을 통합하고 이어 마한을 정복하는 등 발전의 기틀을 세웠다. 동두천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기편을 비롯한 많은 유물들은 온조의 백제가 동두천 지역을 아우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5. 요석공주(瑤石公主)

신라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이다. 일찍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하여 독신이 된 후 원효와 다시 결혼하여 아들 설총을 낳았다. 일설에는 원효의 설법을 듣고 감복하였던 무열왕이 원효가 부르는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겠는가? 하늘을 떠받칠 큰 기둥을 깎으려네”라는 노래를 듣고 그 뜻을 짐작하여 딸 요석공주와 결혼시켰다고 한다.

자재암에는 소요산에 머물며 수도하는 원효를 요석공주가 찾아왔다는 전설이 전한다.

6. 원효(元曉, 617~686)

신라 중기 승려. 아명은 서당(誓幢)·신당(新幢), 속성은 설씨(薛氏), 압량(押梁; 지금의 慶山市) 불지촌(佛地村) 출신, 나마(奈麻) 담날(談捺)의 아들이며, 설총(薛聰)의 아버지이다. 그의 어머니가 만삭의 몸으로 울곡(栗谷)을 지나다 갑작스런 산기로 밤나무 밑에서 낳았는데, 이 나무를 사라수(娑羅樹)라 불렀다. 29세 때 출가를 결심, 집을 헐어 초개사(初開寺)를 짓고, 648년(진덕여왕 2) 황룡사(皇龍寺)로 들어가 각종 불전을 섭렵하며 수도에 정진했다. 34세 때 구법(求法)을 위해 의상(義湘)과 당(唐)나라로 떠났으나 중도에 귀환, 10년 뒤 다시 떠났다. 가는 도중 잠결에 해골에 끈 물을 마시고는 이튿날 <모든 사물과 법은 마음에서 난다>는 깨달음을 얻고 되돌아왔다. 장안 거리에서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느냐, 네 하늘을 반질 기둥을 꺾으리рода>라고 노래해 무열왕이 이를 듣고 홀로 된 요석공주(瑤石公主)와 짝을 지어 주어 설총을 낳았다. 실계(失戒)한 그는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복성거사(卜性居士)라 하며 속인 행세를 했다. 광대 복장으로 지내며 『화엄경(華嚴經)』의 이치를 쉬운 내용으로 담은 《무애가》라는 노래를 지어 민중 속에 퍼뜨렸다. 그는 불교사상의 종합과 실천에 노력하였으며, 많은 저서를 썼으나 총 100여 부 240권 중 20부 22권만이 현존한다. 특히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는 중국 고승들이 즐겨 인용하였고,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은 그의 세계관을 반영한 대 저술이다. 그는 학승(學僧)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중교회승으로서 당시 왕실 중심의 귀족불교를 민중불교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토교(淨土敎)의 선구로서 분파된 불교이론을 하나의 진리로 종합, 정리하여 세운 화쟁사상(和靜思想)은 그의 일심사상(一心思想)·무애사상과 함께 가장 독자적인 사상체계이다. 혈사(穴寺)에서 죽었고, 뒤에 고려 숙종이 대성화정국사(大聖和靜國師)라는 시호(諡號)를 주었다. 저서로 『화엄경소』, 『해심밀경소』, 『발심수행장』, 『삼론종요』, 『십문화쟁론』, 『무량수경종요』, 『아미타경소』, 『미륵상생경종요』 등이 있다.

제2절 고려시대

1. 견훤(甄萱 ?~936(고려 태조 19))

후백제(後百濟)의 시조(재위 900~935년), 황간 견씨(黃澗 甄氏)의 시조로 아자개(阿慈介)의 아들이다. 상주(尙州) 가은현(加恩縣) 출생, 신라에 태어나 서남해(西南海)의 방위에 공을 세워 비장(裨將)이 되었다.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892년(진성여왕 6) 반기를 들고 여러 성을 공략한 다음 무진주(武珍州; 광주)를 점령하여 독자적인 기반을 닦았다. 900년(효공왕 4) 완산주(完山州; 전주)에 입성, 스스로를 후백제왕이라 칭하고 관제를 정비하는 한편, 중국에도 사신을 보내어 국교를 맺으면서 궁예(弓裔)의 후고구려(後高句麗)와 자주 충돌하며 세력확장에 힘썼다. 그 뒤 왕건(王建)이 세운 고려와도 수시로 혈전을 벌여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였다. 926년 신라의 수도 경주(慶州)를 함락하여 친여정책(親麗政策)을 취하던 경애왕(景哀王)을 죽인 다음, 김부(金傅)를 왕으로 삼고 철수하여 신라인의 원한을 샀다. 929년 고창(高敞)에서 왕건의 군사에게 패전한 후부터 차차 세력이 기울어져 유능한 신하들이 왕건에게 투항, 934년 웅진(熊津; 공주) 이북의 30여 성(城)이 고려로 넘어갔다. 이듬해 왕위계승 문제로 맡아들 신검(神劍)에 의하여 금산사(金山寺)에 유폐되었다가 탈출, 왕건에게 투항하여 상부(尙父) 칭호와 양주(楊州)를 식읍(食邑)으로 받았다. 936년 왕건에게 신검 토벌을 요청하여 후백제를 멸망케 했으며 얼마 뒤에 황산사(黃山寺)에서 등창으로 죽었다.

2.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

나옹혜근(懶翁慧勤)스님은 1320년(충숙왕 7년) 경남 영덕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아(牙)씨이며, 선관서령(膳官署令)벼슬을 하던 부친 영해부인(寧海府人)

아서구(牙瑞具)와 모친 영산군인(靈山郡人) 정(鄭)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스님을 잉태할 때 모친은 꿈에서 황금빛 새 한 마리가 품 안에 알을 하나 안겨주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스님은 1320년 20세 되던 해에 공덕산 묘적암에서 요연(了然)선사를 스승으로 하여 출가했다. 이후 여러 곳을 유력(遊歷)하다가 양주(楊州) 회암사(檜巖寺)에서 4년간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스님은 제방의 선사를 찾아 자신의 공부를 시험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가를 얻고자 원(元)나라에 갈 것을 결심하게 된다.

1347년 스님은 원나라로 유학을 떠난다. 그곳에서 스님은 태고보우 스님의 스승인 석옥청공(石屋淸拱) 스님의 도반인 평산처림(平山處林) 스님과 인도 승려 지공선현(指空禪賢) 스님 두 분으로부터 법을 인가 받는 등, 원나라의 선종을 충분히 체득하고, 10년 만인 1358년 귀국한다. 이후 평양, 동해, 오대산 상두암 등 여러 곳에서 근기에 따라 설법하였고, 1371년 공민왕으로부터 왕사로 책봉받는다.

소요산에 머물며 수도하였고 〈소요굴천생석나한(逍遙窟天生石羅漢)〉 등의 시를 남겼다

3. 능현(能玄, 생몰년 미상)

신라 말, 고려 초의 호족으로 매조성장군(買曹城將軍)이라고 호칭되었다. 신라 사회가 골품제도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왕위 계승 다툼의 난맥에 빠지면서 지방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에 주둔하던 군 지휘관이 독립하면 주로 '장군(將軍)'이라는 호칭을 상용하였는데 능현 역시 이에 해당된다. 매조성은 나당전쟁의 주요 전장이었던 매초성(買肖城)이 확실한 것으로 보아 그의 세력 범위는 대개 동두천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왕건의 세력이 융성해지자 사신을 보내어 자진 투항하였다. 그의 투항으로 동두천 지역은 고려의 판도에 들어가 견주(見州)에 속하게 된다.

4.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종 22~고종28))

고려시대 문신·문장가, 초명은 인저,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백운산인(白雲山人)·지현(止軒), 본관은 황려(黃驪;驪州), 말년에

시·거문고·술을 좋아하여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고도 불리었다. 1189년(명종 19)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예부시(禮部試)에서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곧 관직에 나가지 못하여 빈궁한 생활을 하면서 왕정(王廷)에서의 부패와 무능, 관리들의 방탕함과 백성들의 피폐함 등에 자극받아 『동명왕편(東明王篇)』, 『개원천보영사시(開元天寶詠史詩)』를 지었다. 1199년(신종 2년) 비로소 사록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로서 전주목(全州牧)에 부임하였으나 1년 4개월 만에 면직되었고, 1202년 동경(東京; 慶州) 일대에 반란이 일어나자 수제원(修製員)으로 자원 종군하였다. 그 뒤 1213년(강종 2) 40여 운(韻)의 시 《공작(孔雀)》을 쓰고 사재승(司宰丞)이 되었다. 우정언 지제고(知制誥)로서 참관(參官)을 거쳐 1217년(고종 4) 우사간에 이르렀다. 1230년 위도(蜆島)에 귀양갔다가 다시 기용되어 1233년 집현전대학사(集賢殿大學士), 1234년 정당문학을 지내고 태자소부·참지정사 등을 거쳐 1237년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경전·사기·선교(禪敎)·잡설 등 여러 학문을 섭렵하였고, 개성이 강한 시의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말년에는 불교에 귀의하였다. 저서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백운소설』 등이 있고, 가전체(假傳體) 작품 <국선생전(龜先生傳)>이 있다. 시호는 문순(文順), 소요산에 찾아와 <다천약수(茶泉藥水)> 등의 시를 남겼다

5. 이인실(李仁實, 1081~1153)

고려 중기 문신·학자, 자는 자허(子虛), 본관은 견주(見州; 지금의 楊州), 견주 출신 삼한공신 흠률(歆律)의 6세손이다. 성균시를 거쳐 1106년(예종 1) 문과에 급제, 나주서기(羅州書記)·국자제주(國子祭酒) 등을 지냈다. 1135년(인종 13) '묘청(妙淸)의 난'이 일어나자 관군을 이끌고 출정하였으며, 이듬해 예부시랑으로 금(金)나라에 파견되어 만수절(萬壽節)을 축하하였다. 1145년 국자감시(國子監試)를 맡아 탁광유(卓光裕) 등을 뽑았으며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권판도병마사(權判都兵馬事) 등을 거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제사(諸史)와 육경(六經)에 두루 통달했다. 시호는 문정(文貞)

6.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

태고보우 선사는 열세 살에 양주 회암사에서 출가하였다.

선사는 원나라에 명성이 알려져 공민왕이 “내가 왕이 되면 태고선사를 반드시 왕사로 모시겠다”라고 하였다. 1396년(공민왕 5) 공민왕의 왕사로 책봉되어 불교계를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9산 선문의 통합과 백장청규를 통한 불교의 쇄신이었다.

하지만 화엄종의 신돈(?~1371)이 1365년부터 1371년까지 집권하여 국정은 물론 불교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화엄종승 진각국사 천희 스님(1307~1382)과 선현 스님이 왕사와 국사로 각기 책봉되면서 태고선사의 이러한 불교중흥의 노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속리산에 금고에 처해졌다. 1371년 신돈이 축출된 이후 국사로 책봉되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국사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1378년(우왕 4) 병을 핑계로 국사를 사직하고 1381년 재책봉되었으나 이듬해인 1382년에 입적하였다

나옹혜근 선사, 백운경한 선사와 더불어 여말삼사(麗末三師)로 추앙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계의 최대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중흥조이다. 선사는 1301년에 태어나 1350년 이후인 공민왕대에 활동하였으며 조선건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기 6년 전인 1382년에 입적하였다. 선사는 왕사와 국사에 책봉되면서 불교계에 대한 쇄신을 꾀하고자 하였고 선사가 진작시킨 선풍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 불교계에는 선사와 그의 문도가 계통적으로 이어진다는 법맥이 설정되어 있다.

소요산에 머물며 수도하였고 소요산의 경치를 노래한 〈백운암가(白雲巖歌)〉 등의 시문을 남겼다.

제3절 조선시대

1. 김계(金桂)

김계(金桂)의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중종조의 명신이자 정국공신이었던 청평군 김우증의 6세손으로 동두천 탑동에 정착한 입향조이다.

2. 김문기(金文起, 1399~1456)

조선 초기의 문신, 초명은 효기(孝起),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 본관은 김녕(金寧), 1426년(세종 8)에 등제한 뒤, 단종 때 이조판서(吏曹判書)까지 되었다가, 단종 복위(端宗復位)에 가담하여 사육신과 함께 피살되었다. 영조 때 9대손 정구(鼎九)의 송원(訟冤)으로 복관, 지례(知禮)의 섬계서원(奚溪書院)에 향사되고 동두천 삼충단에 위패비가 모셔졌다. 시호는 충의(忠毅)

남효온의 <육신전>에서는 사육신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이후 단종 복위 과정에서 그의 주도적인 역할이 인정되어 새로이 사육신에 추록되고 그의 묘가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3. 김연경(金演慶, 1543~1591)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다. 휘(諱) 연경(演慶), 본관은 강릉(江陵)으로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낸 충열(忠烈)의 아들이다. 선조 1년(1568) 사마(司馬)에 올랐고, 선조 10년(1577)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등과(登科)하여 괴원(槐院)에 초배되었으며, 차례로 성균전적(成均典籍)·좌랑(佐郎)·정언(正言)·지평(持平)등을 거쳐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를 지냈으며, 48세의 나이로 조졸(早卒)하였다. 묘소는 파주 교하읍 다올리에 있다. 그의 아들 몽상(夢祥) :

1592~1640)도 벼슬이 사직(司直)에 이르렀으며, 묘는 동안동 어운곡(魚雲谷)에 있다.

4. 김육(金輅)

김육의 본관은 경주(慶州)로 아버지는 응교(應敎)를 지낸 구연(九淵)이며, 형제인 김협과 함께 동두천 창말에 정착하였다.

5. 김정려(金晶麗)

김정려(金晶麗)의 본관은 김녕(金寧)으로 호는 송은(松隱)이다. 아버지는 충윤(忠尹)으로 1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본래 경상도 상주에 살다가 광주로 이거한 후 다시 동두천의 상패동으로 이주, 정착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사후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6. 김협(金鉞, 1538~1622)

조선 선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경직(敬直)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고려 충신 상촌(桑村) 자수(自粹)의 7대 손이며, 좌찬성(左贊成)을 증직(贈職)받은 구연(九淵)의 아들이다. 16세 때 동몽교관이 되었고, 선조 1년(1568) 증광별시(增廣別試)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차례대로 승차되었으며, 선조 20년(1587) 금산군수(金山郡守)로 나갔다가 선조 25년(1592) 철원부사(鐵原府使)로 자리를 옮겼다. 선조 30년(1596) 전주부윤(全州府尹)에 승차되었고, 선조 30년(1599) 부평부사(富平府使)로 나갔다가 선조 38년(1605) 승계되어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전란 후의 민생 구휼에 힘썼다. 광해군 2년(1610) 의정부 참찬(參贊)에 임명되었으나 출사하지 않고, 광해군 4년(1612) 원종공신 1등에 녹공되어 정 2품에 가자(加資)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난정을 거부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노원에 퇴거하여 서체(書體)연구에 전념하다 광해군 13년(1621) 84세로 죽었다. 초서를 잘 썼으며, 사후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고 묘소는 절산동(傑山洞)에 있다.

7. 김충렬(金忠烈, 1503~1560)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다. 휘는 충렬, 자는 국간(國幹)으로 연산군 9년(1503)에 회인현감(懷仁縣監)을 지낸 중윤의 4자로 태어났다. 중종 20년(1525)에 진사가 되었다. 중종 26년(1531)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전적(典籍)·사헌부 감찰 등을 거쳐 중종 27년(1532)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좌랑에서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경기도사(京畿道事)를 지냈다. 호조(戶曹)·예조(禮曹)·형조(刑曹)의 정랑(正郎)을 거쳐 장령·사간을 지내다 명종 때 제주목사를 지내고, 명종 8년(1552) 오랑캐가 침범하니 삭령군수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발병하여 집으로 돌아와 명종 15년(1560) 58세에 죽었다. 묘는 동안동 어운곡(魚雲谷)에 있다.

8. 김현(金俔, 1557~1637)

조선 광해군~인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경이(馨而), 호는 오월당(梧月堂)이고,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장취현(長趣軒) 익휘(益輝)의 아들이며 광산부원군 좌의정 국광의 5대손으로 명종 12년(1557)에 태어났다. 세가 현손으로 정훈을 이어받고 삼중형인 사계(沙溪) 장생 선생의 견문을 받아 경술도학을 준수·실천하였다. 사옹원첨정을 거쳐 신천군수로 부임한 지 3년 만에 임지에서 80세를 일기로 죽었다. 묘는 동두천시 걸산동 진흥골에 있다.

9. 남을진(南乙珍, ?~?)

고려 말기의 충신으로 본관은 의령(宜寧), 지영광군사(知靈光郡事)를 지낸 천로(天路)의 아들이다. 공민왕 17년(1368) 현량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역임한 뒤 공양왕 때 참지문하부사가 되었다. 성품이 곧고 학문을 좋아하며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 등과 교유하였다. 고려 말 정치가 문란하여지자 사천현(沙川縣, 현 동두천시 상패동)에 은거하였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한 후 태조가 출사를 권유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충절에 감복한 태조가 사천백(沙川伯)으로 봉하고 계속 회유하였으나, 신하된 사람으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감악산(紺岳山)에 은거하였다. 그가 은거하였던 남선굴(南仙窟)이 감악산에 남

아 있다. 영조 때 사천서원(沙川書院)에 배향되었다.

10. 민신(閔伸, ?~1453)

민신 선생의 호는 둔암(遯菴),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문종 때 병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단종 원년 계유정난 때 현릉(顯陵) 비역(碑役)을 감독하던 중 김종서의 일파라 하여 비역소(碑役所)에서 참살당했다. 정조 때 복관되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동두천시 상패동 삼충단에 그의 위패비가 모셔져 있다.

11. 목기선(睦嗜善, 1597~1673)

목기선(睦嗜善)의 본관은 사천(泗川)으로 아버지는 예조참판을 지낸 서흠(紱欽)이다. 동두천 내행동 생골에 정착한 입향조이다.

12. 목사흠(睦思欽, 1572~1661)

목사흠(睦思欽)의 본관은 사천(泗川)으로 선조 조에 선전관, 용양위 부호군 등을 지냈으며, 지행동에 정착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13.목인각(睦仁珪, 1812~1874)

목인각(睦仁珪)의 본관은 사천(泗川)으로 아버지는 형중(亨中)이고, 어머니는 광주 이씨(廣州 李氏)이다. 통덕랑을 지냈고 무덤이 생연동에 있다.

14.목임형(睦林馨, 1623~1698)

목임형(睦林馨)의 본관은 사천(泗川)으로 아버지는 기선(嗜善)이고, 효행으로 별천되었으며, 김화현감(金化縣監), 신천군수(信川郡守)등을 지냈다.

15. 목행선(睦行善, 1609~1661)

조선 때 문신으로 자는 행지(行之), 호는 남간, 본관은 사천(泗川)이다. 장흥의 아들, 숙부인 승지 대흥의 양자가 되었다. 인조 8년(1630) 진사가 되고 인조 11년(1633) 갑과(甲科)에 1등으로 올라 성균전적과 예조좌랑·사헌부의 지평·홍문관의 수찬·대사성, 예조·호조·병조참의·대사간·승지 등을 역임하고, 효종 4년(1653) 황해도관찰사가 되고, 효종 7년(1656)에 다시 상주목사가 되었다. 효종 10년(1659)에 예조참의로 의병사퇴한 후 군직에 있는 지 3년 만인 1661년에 죽었다. 묘는 지행동 산2번지에 있다.

16. 목호룡(睦虎龍, 1684~1724)

조선 경종 때 사람, 고변의 공으로 부사공신(扶社功臣) 3등으로 동성군에 봉해지고 동지중추부지사에 올랐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의 상소로 신축사화가 무고로 일어났음이 밝혀지자 체포되어 옥중에서 사망했다.

17. 박수소(朴守素, 1600~1669)

조선 효종 때 사람, 휘는 수소(守素), 본관은 밀양, 병조참판 노(魯)의 아들이다. 관직은 적공감역 인의겸참군(引儀兼參軍)을 역임하였고, 간혹 파직 당하기도 하고 기용되기도 하면서, 사도시주부(司導寺主簿), 별제(別提), 사포랑(司圃郎), 금오(金吾)를 지내다가 예산현감, 봉화현감을 역임하였다. 크게 빼어난 치적을 쌓지 못하였고, 관직 또한 세상에서 현달하지 못하였지만 뛰어난 문장으로 시대를 풍미하였다. 부인은 해평 윤씨로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윤두수의 손녀이다.

묘는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있다.

18. 박장휘(朴長輝)

박장휘(朴長輝)의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입향조이다. 관직은 동몽교관(童蒙敎官) 등을 지냈다.

19. 박주(朴綽, 1623~1690)

박주(朴綽)의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군보(君補)로 박수소의 아들이다. 외조는 우찬성을 지낸 윤휘(尹暉, 1571~1644)이다. 일찍이 벼슬에 관심을 두지 않아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묘가 상봉암동에 있다.

20. 방륜(方輪, 1464~1534)

휘는 룬(輪)이며 자(字)는 중여(仲與), 호는 송강(松江), 본관은 온양(溫陽)이다. 세조 9년에 계화(季和)의 아들로 태어나 성종 22년(1491) 무과에 급제, 오위(五偉)에 배속(配屬)되었다가 강계판관(江界判官)으로 배수(拜搜)되었고, 연산군 11년(1505) 만기(滿期)가 되어 내직으로 들어와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을 역임하다 갑산부사(甲山府使)로 나갔다. 중종 1년(1506) 승차되어 함경도 병마우후(兵馬虞候)를 제수받고, 누차(累次) 공로(功勞)를 쌓아 주비(朱紉)를 하사(下賜)받고 연경(燕京)에 다녀왔으며 중종 10년(1515)에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되어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官)을 겸직, 중종 15년(1520) 다시 명나라에 다녀와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특진되었고, 다시 회령부사(會寧府使)를 역임하고 죽으니, 나라에서는 30년간이나 변방(邊方)을 수호한 공로를 가상히 여겨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증직하였다. 묘는 생연동(황말음리)에 있다.

21. 방희진(方曦進, ?~1177)

방희진(方曦進)의 본관은 온양(溫陽)으로 중시조 운(雲)의 9세손이다. 고려 의종(毅宗) 때 상서령(尙書令)을 지내고, 동두천 지행동에 묻히면서 그 후손(2009년에 이장)이 이곳에 정착하였다.

22.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씨(尹氏, 1894~1966)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1894~1966)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황후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이다. 본관은 해평(海平)이고, 해평부원군(海豐

府院君) 윤택영(尹澤榮)의 딸로 동두천 동점마을에서 출생하였다. 황태자비 민씨가 1904년에 홍서(薨逝)하자, 1906년 12월 13세의 나이로 간택되어 입궁, 황태자비로 책봉되었고, 이듬해 순종이 즉위하자 황후가 되었다. 1907년에 여학(女學)에 입학하여 황후 전(殿)에 여시강(女侍講)을 두었다. 1910년 국권이 강탈될 때 병풍 뒤에서 어전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엿듣고 있다가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합방조약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므로, 황후가 이를 저지하고자 치마 속에 옥새(玉璽)를 감추고 내놓지 않았으나 숙부인 윤덕영(尹德榮)에게 강제로 빼앗겼다. 광복 후 황가의 모든 재산이 국유화되자 출궁하였고 어렵게 한국전쟁을 겪어내고 이후에도 곁에 머무는 소수의 궁인들과 함께 정릉 골짜기 사가에 머무는 등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황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만년에 환궁하여 영친왕비, 덕혜옹주 등 황족들과 함께 낙선재에 머물렀다. 고독과 비통함을 달래기 위하여 불교에 귀의, 대지월(大地月)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1966년 낙선재(樂善齋)에서 심장마비로 서거하여 유릉(裕陵)에 순종과 합장되었다.

23. 신량(申亮, 1596~1663)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자는 양지(養之), 호는 호은(湖隱)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좌부 승지 응구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조수륜(趙守倫)에게 학문을 배워 사마시에 합격한 뒤 산감역이 되고, 뒤에 한성부참준·공조좌랑·구례현감을 지내고 남포에 우거하였다. 그 뒤 익위·사익위·금산군수·호조정랑을 사양하였으며, 인조 26년(1648) 태안군수 재직 시 남미문제(濫徵問題)로 사직하였다. 효종 때 군기시 제용감과 군자감·예빈시정을 지냈다. 저서로는 『호은집』이 있다. 묘는 상패동 마고개 북향에 있다.

24. 신벌(申機, 1523~1616)

신벌(申機)의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자는 제백(濟伯)이며, 아버지는 가평군수 여주(汝柱)이고, 어머니는 우의정 이명구(李明龜)의 딸이다. 1552년(명종7)에 효자로 천거받아 사재감(司宰監) 참봉(參奉)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중부시

주부, 개성부도사, 단양군수 등을 지냈다. 나이가 90세가 넘어 나라에서 동지 중추원사(同知中樞院使)에 제수하였다.

25. 신여주(申汝柱, 1502~1558)

신여주(申汝柱)의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자는 사직(士直)이며, 아버지는 장예원판결사 한(澣)이고 어머니는 첨지중추부사 임맹영(任孟瑛)의 딸이다. 음사(蔭仕)로 1534년(중종 29) 성현찰방(省峴察訪)에 임명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부여현령, 군자감판관, 선공감첨정, 가평군수 등을 지냈다.

26. 신용개(申用溉, 1463~1519)

호는 이요정(二樂亭)이며, 조선 중요종 때의 문신, 자는 개지(慨之), 본관은 고령으로 영의정 숙주(叔舟)의 손자이다. 성종 19년(1488) 별시문과에 급제, 승문원 부정자(副正字)가 되고, 홍문관 정자·수찬·교리를 역임하여 성종 23년(1492) 사가독서했다.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에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투옥되었다가 곧 석방되어 직제학·도승지 등에 기용되었으나 강직한 성품이 연산군의 비위에 거슬려 갑자사화 때 영광에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등용되어 이후 형조참판·대제학·우참찬·대사헌을 거쳐 이조·병조·예조의 판서를 역임하였고, 우찬성을 거쳐 우의정이 되고 중종 13년(1518)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 저서로는 『이요정집(二樂亭集)』, 편서로는 『적속문선(積束文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있으며 묘소는 상패동에 있다가 2011년 4월에 화성시로 이장하였다.

27. 신익상(申翼相, 1634~169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字)는 숙필(叔弼), 호(號)는 성제(醒齋),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예빈시정을 지낸 량(涼)의 아들이다.

현존 1년(1660) 사마시를 거쳐 1662년 정시 문과에 병과를 급제하여 검열·봉교 등을 거쳐 1672년 홍문록에 올랐다. 숙종 즉위 후 남인이 득세하자 충청

도 아산에 은거하였다가, 숙종 6년(1680) 경신(庚申)환국 때 특지로 도승지가 되었으며, 이어 이조참판·전라도관찰사·부제학·대사성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己巳)환국 때 인현왕후를 폐하려 하자, 그 부당함을 즉간하고 사직하여 양주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甲戌)옥사로 소론이 집권하자 등용되어 공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우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시문에 능하고 전서에 조예가 깊었다. 시문집으로는 『성재집』이 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묘는 상패동 마고개 북향에 있다.

28. 신응구(申應渠, 1553~1623)

문신으로 호는 만퇴헌(晩退軒),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동지중추부사 발(撥)의 아들이다. 선조 15년(1582) 사마시에 합격하고 학문에만 정진하다가 천거로 장원(掌苑)이 된 후 선조 21년(1588) 괴산현감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했다. 선조 33년(1613) 광주목사가 되고 이어 삭령군수, 공조참의를 거쳐 양주목사가 되었다. 광해군 5년(1613) 이이첨(李爾瞻) 등이 폐모론을 주창하자 사직하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형조참의, 좌부승지를 거쳐 판결사를 지내다 춘천부사가 되어 죽었다.

저서로는 『일퇴집(晩退集)』이 있고, 묘소는 상패동에 있다.

29. 신한(申澣, 1482~1543)

신한(申澣)의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자는 중용(仲容)이다. 아버지는 좌의정 용개(用溉)이며, 어머니는 정국공신(靖國功臣) 박건(朴健)의 딸이다. 중종반정 때 아버지와 같이 공을 세워서 선전관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장흥고(長興庫) 주부(主簿), 장례원(掌隸院) 판결사(判決事) 등을 역임하였다.

30. 어계장(魚季璋)

어계장(魚季璋)의 본관은 함흥(咸興)으로 송내동에 정착한 입향조이다. 관직은 동부참봉을 지냈다. 그는 함흥 어씨의 시조 어화인(魚化仁)의 16세 손으로 양숙공(襄肅公) 어세공(魚世恭)의 현손인데 어세공은 어유소와 함께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였고 우의가 남달랐다고 한다. 이 인연으로 어계장은 어유소의 손녀 즉, 어유소의 아들 예원군(藥原君) 어승복(魚承福)의 딸과 혼인하였다. 묘가 송내동에 있다.

31. 어득해(魚得海)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명장 어유소의 부친이다. 문종 1년 태천군사(泰川郡事)가 되어 북방에 파견되었고 세조 즉위 후에는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가 되어 영월로 유배되는 단종을 호송하였다. 정난(靖難)의 공으로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세조 5년 경상좌도 처치사가 되고 이후 북방 여진족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강원·함경도체찰사로 부임하는 한명회의 막하로 종성에 주둔하였다가 다시 평안도절제사로 부임하였다. 북방 여진족의 침노가 수습되자 다시 첨지중추원사로 복귀하여 서울로 돌아왔다가 1471년(성종 2년)에 죽었다.

그는 세조의 가장 친애하는 무신으로 특히 활쏘기에 능하여 자주 세조를 모시고 시사(侍射)하였고, 세조 때 북방 방어의 핵심이 되었다. 그의 아들 어유소가 명궁으로 이름을 떨친 것과 북방 야인의 침탈을 제어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이로써 알 수 있다.

32. 어승진(魚升震)

어승진의 본관은 충주(忠州)로 탐동에 정착하게 된 어씨의 증시조이다. 충주 어씨는 시조 지중익의 겨드랑이에 비늘이 있어 왕으로부터 어씨(魚氏)를 사성(賜姓)받고 충주를 본관으로 하였으나 이후 실계되어 어승진을 증시조로 계대(繼代)한다. 따라서 어승진은 충주 어씨의 증시조이며 동시에 동두천 충주 어씨의 입향조가 된다. 어승진은 고려 말의 문인으로 오직 학문에만 힘쓰는 한편, 고려조에 절의를 지켜 조선이 개창된 후에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33. 어유소(漁有沼, 1434~1489)

공은 세종 16년(1434)에 양주(현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평안도병마수군도절

제사 어득해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자는 자유(子遊)이다. 문종 원년(1451)에 내금위에 선보(選補)되고 세조 2년(1456) 무과에 1등으로 장원하여 사복시직장(司僕寺直長)과 감찰을 역임하였다. 세조 6년(1460) 여진정벌에 공을 세워 통례문통찬(通禮文通贊)이 되고, 세조 9년(1463)에는 회령부사가 되었다. 세조 13년(1467) 5월에 함길도에서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좌대장이 되어 이시애의 반군을 토벌하였다. 이시애는 일찍이 회령부사를 지냈으며, 그의 아버지 이인화는 판영흥대부사를 지냈고, 그의 할아버지는 검교문하부사를 지낸 길주의 호족이었다. 그는 상(喪)을 당하여 회령부사를 퇴임하고 집에 있다가 아우 이시함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어유소는 예종 원년(1469)에 함경북도절제사가 되었으며, 성종 2년(1471)에는 좌리공신 4등이 되고 이어 평안북도절도사를 지냈다. 성종 7년(1476)에는 우참찬으로 도총관을 겸임하였으며, 다음해에 병조판서를 거쳐 성종 9년(1478)에는 우찬성에 올랐다. 어유소는 이듬해인 성종 12년(1481) 이조판서지중추부사·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성종 19년(1488)에는 판중추부사 겸 도총관을 지내다, 성종 20년(1489) 10월 왕께서 경기에서 열무하셨는데, 공이 호종하여 영평현에 이르러 원내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였다. 성종께서는 크게 슬퍼하시며 위를 거두고 부의를 후하게 내렸으며 시호를 정장공(貞莊公)으로 하였다. 묘소는 동두천시 광암동(미 2사단 제2여단 관내)에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어유소의 줄기에서 그의 인품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성격이 진실하고 솔직하여 사람들과 거슬림이 없이 누구나 사랑하고 대중을 용납하여 겉으로 꾸미는 짓을 하지 않았고, 집에 있을 적에도 산업(產業)을 일삼지 않았다. 양계(兩界)에 드나들어 오랑캐들의 실정을 알았으며 사졸(士卒)들과 고락(苦樂)을 같이 하여 가는 곳마다 금방 공로가 있었고, 높은 벼슬을 역임(歷任)했지만 교만하거나 귀하게 처신하지 않았다.”

34. 울산(蔚山) 박씨(朴氏, 1602~1682)

울산 박씨는 충강공(忠剛公) 이상급(李尙偑)의 부인으로 1636년 병자호란을 피해 아들 삼형제인 이타·이곤·이배를 데리고 광암동 골말(외부인 통속)에 피신하였다. 울산 박씨는 이곳에 불당을 쌓고 남편의 무운을 빌며 운둔하였는

데, 병란이 끝난 뒤 남편이 적과 싸우다 순국하였다는 부음(訃音)을 듣고는 이에 귀경(歸京)하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로써 동두천의 벽진 이씨의 세거(世居)가 시작되고 부인은 실질적인 입향조가 되었다.

35. 윤충지(尹忠祉)

윤충지(尹忠祉)의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냈다. 아들이 없었지만 양자를 들이지 않고, 사위 이지운(李祉運)에게 의지하여 현재까지 외손봉사가 이어지고 있다.

36. 이기조(李基祖, 1803~?)

조선 말의 무신으로 자는 도원(道源), 본관은 광주(廣州), 진사(進士) 시문(時聞)의 아들로 동두천시 광암동 내촌에서 태어났다.

고종 3년(1866) 병인양요(丙寅洋擾)가 일어나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 일대에 서 군기(軍旗)·양식·서적 등을 약탈하는 등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별군관으로 있다가 한성근(韓聖根)·양헌수(梁憲洙)·이원희(李元熙) 등과 함께 양화진(楊花津)·광성진(廣城鎭)·문수산성(文殊山城) 등지에서 진을 치고 강화도 방어를 나섰다. 그러나 엄청난 화력을 앞세운 프랑스군의 공격에 밀려 강화성을 일시 빼앗겼다. 1868년 삼회부사를 지냈다. 고종 8년(1871) 신미양요(辛未洋擾)가 일어나 미국 군함 3척이 강화도에 쳐들어 왔다. 이때 부평부사로 조정의 훈령을 받고 현지에 파견되었다. 미국 함대측과 군사·외교적 절충을 충실히 수행하여 그들을 물러가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묘는 동두천 광암동 내촌 사곡산(寺谷山)에 있다.

37. 이굉식(李宏植)

이굉식(李宏植)의 본관은 전의(全義)로 직간(直幹)의 아들이다. 구례현감(求禮縣監)을 지냈으며,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38. 이달준(李達俊, 1585~1669)

이달준(李達俊)의 본관은 전주(全州), 조선 제2대 임금인 정종(定宗)의 제15왕자 무림군(茂林君)의 6세손으로 충의교위(忠毅校尉)를 지냈으나 오직 학문에만 뜻을 두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탐동에 정작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그의 사후 후손들이 묘 앞에 만든 인공 산(山)은 지금도 조산(造山)이라는 명칭으로 남아 있어 동두천 비보(裨補) 풍수(風水)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39. 이민백(李敏白, 생물년 미상)

이민백(李敏白)의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효령대군의 8대손이다. 사복시 첨정을 지냈고 완안군(完安君)에 봉해졌다. 사후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아버지는 인조반정 공신으로 완풍군(完豐君)에 봉해진 이서(李曙)이다. 묘가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다.

40. 이상경(李商卿)

이상경(李商卿)의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덕천군파(德泉君派)로 안현군(安賢君) 성동(盛叢)의 8남이다. 연천부정(漣川副正)에 봉해졌고, 상패동에 정착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41. 이상급(李尙伋, 1571~1637)

조선 인조 때의 문신이다. 자는 사언(思彦), 호는 습제(習齊), 본관은 벽진(碧珍)이며,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지낸 희선(喜善)의 아들이다.

선조 33년(1606)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正字)·저작(著作) 등을 지내고 형조좌랑(刑曹佐郎)으로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평안도(平安道) 도사(都事)와 형조정랑(刑曹正郎)을 거쳤으며, 풍기군수로 나갔다가 사임하고 학문 연구에만 전념했다.

인조반정 후 장령(掌令)·집의(執義)·군수 등을 거쳐 병조참지(兵曹參知)에

올라 군비 확장에 노력했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인조를 호종(扈從)했다가 40여 일 만에 왕이 삼전도(三田渡)에서 항복하고,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묘사(廟社)를 모시고 강화도로 간 형 상길(尙吉 : 工曹判書)을 찾아가는 도중 적에게 살해되었다. 배위(配位) 울산 박씨 묘는 탑동(塔洞) 중봉(中奉)에 있다.

42. 이성신(李省身, 1580~1651)

조선시대의 문신이다. 호는 입암(笠巖)이며, 자는 경삼(景三), 본관은 전의이다. 그의 아들이 우암과 동문수학하고 집의(執義)를 지낸 이재(李穡)이다. 김장생의 문인으로 선조 38년(1605) 진사시에 합격하고 광해군 시절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인목대비를 시해하려던 사건이 있었다. 이때 이안진 등 360여 명의 성균관 유생들과 궁궐에 얹드려 음모자의 처벌을 상소했으나 대노한 왕에게 쫓겨나서 고향으로 은퇴하였다. 인조 1년(1623) 정시문과 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거쳤다. 이듬해 이괄의 난 때에 인조를 모시고 공주로 피난하였다. 그 후 헌납·부수찬·지평·수찬·교리장령 등을 역임하였다. 1627년 정유재란 때는 청과의 화친을 반대하다가 강화회의가 성립되자 관직을 떠나 낙향하였다. 1633년 사간으로 기용되어 집의(執義)를 거쳐 인조 16년(1638) 동부승지를 지냈으며, 10년간 청백한 자리만을 역임한 데서도 그의 청렴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43. 이세진(李世璉, 1669~1749)

영조 때의 문신이다. 자는 명서(明瑞), 본관은 벽진(碧珍)이며, 영덕(盈德)을 지낸 금호공(琴湖公) 지걸(志傑)의 아들이다.

영조 1년(1725) 양정시(兩庭試) 을과(乙科) 2등으로 합격하여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교리(敎理) 등을 거쳐 예문관(藝文館) 응교(應敎)가 되고, 외직인 군수(郡守)로 나갔다가 내직으로 들어와 성균관(成均館) 사성(司成), 다시 대사성(大司成)에 올랐다. 예문관 제학(提學)으로 승계되었고,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제수되었다. 말년에 고령으로 지중추(知中樞)가 되어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묘소는 동두천동 가정

자(柯亭子)리 산에 있다. 신도비(神道碑)는 영의정(領議政) 조현명(趙顯命)이 찬(撰)하였다.

44. 이세근(李世瑾, 1676~1749)

이세근의 자는 성진(聖珍), 호는 울리(栗里)이며 숙종 2년(1676)에 출생하였다. 12세 되던 해부터 명제 선생 문하에서 수업하여 숙종 23년(1696) 정시문과(廷試文科)에 2등으로 장원하여 옥당에 올랐다. 이후 역리의관, 이조참판을 거쳐 대사헌에 이르러 영조 9년(1733)에 봉조하(奉朝賀)가 되었으나 퇴유하여 울리(栗里)로 내려가 수초열(手抄列)·성조가언·쟁쟁록을 짓고, 영조 24년(1748)에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니 양주(현 동두천시 보산동) 이담면 가정자리 자좌(子坐)에 안장하였다.

지문으로 『자제유(自製有)』가 문집으로 전한다.

45. 이재(李梓, 1606~1657)

조선 인조~효종 때의 문신이다. 호는 쌍계(雙溪), 자는 제백(濟伯), 본관은 전의로 인조 때 동부승지를 지낸 성신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김집(金集)에게 나아가 우암 송시열·동춘당 송준길과 함께 학문에 전념하고, 인조 11년(1633) 사마에 올랐으며, 5년 뒤인 163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에 들어가 박사(博士)로 있다가 주서로 천거되었다. 또 한원으로 들어가서 검열이 되었다가 전적(典籍)으로 좌랑과 정랑을 거쳤으며 여러 번 지평(持平)으로 임명되었고, 무관인 선전관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인조 25년(1647) 봄에 개성부로 나갔다가 이듬해에 장령(掌令)으로 들어와서 필선(弼善)이 되었다.

효종 때에는 호남을 염찰(廉察)하였으며, 효종 원년(1650) 직강(直講)에서 집의로 옮겨 있을 때 광주부윤인 기진흥을 논핵(論劾)하다가 왕이 노하여 삭직(削職)되었다. 그러나 기진흥이 김자점(金自點)과 반역을 음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뒤에 다시 사간(司諫)으로 복직되어 집의(執義) 자리로 돌아왔다. 효종 4년(1653) 거상(居喪)을 마치고 옥당 홍문관(弘文館)에 들어가서 교리아수찬이 되었고,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을 거쳤고 또 보덕(輔德)·필선(弼

善)·사성(司成)·상의(常衣)·군자감정 등을 겸직도 하였다.

그는 형제간에도 우의가 깊어 아우 항(杭)과는 한 집에 살면서 조정에 올라가 영특함을 드날리고 수려한 용모를 서로 자랑하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두 형제를 칭찬하였다고 한다. 아우(杭, 執義)가 죽은 지 1년(1657) 만에 그도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마차산 선영에 있다.

46. 이장혁(李鰲赫)

이장혁의 본관은 전주(全州)로 효령대군의 12세손이며, 지행동에 정착하여 이곳의 입향조가 되었다.

47. 이정매(李挺梅, 1698~1756)

영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화경(和卿), 본관은 벽진(碧珍),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낸 세진(世璉)의 3자(三子)로 동두천시 동두천동 가정자리에서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두뇌가 명석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셋을 아는 수재였다. 일찍이 명제(明濟) 윤증(尹拯) 선생 권유로 서사(筮仕)로 감역(監役)에 초배되었으며, 승계를 거듭하여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이르렀으나 59세로 죽었다.

48. 이정집(李挺輯, 1691~1750)

영조 때의 문신이다. 자는 용여(用汝), 본관은 벽진(碧珍), 충강공(忠剛公) 상급(尙倂)의 현손(玄孫)이며,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낸 세진(世璉)의 큰아들로 동두천시 동두천동 가정자(柯亭子)에서 태어났다.

영조 4년(1727) 진사(進士)가 되고 서사(筮仕)로 출사하여 교하군수(交河郡守)에 이르렀으나, 노부(老父)의 병환으로 사직하고 효성을 다해 간병하여 천수를 누리게 하였다. 그가 죽자 나라에서 효자정려(孝子旌閭)문을 내렸다. 묘소는 가정자리에 있다.

49. 이종건(李鍾建, 1843~1930)

한말의 문신으로 자는 치행(致行), 본관은 전주(全州), 병조판서 규철(圭澈)의 아들로 동두천시 탑동(塔洞)에서 태어났다.

17세 때인 철종 10년(1859) 별군으로 특천되었고, 같은 해 무과에 급제하여 훈정에 임명되었다. 이어 어경리장위·오영사 등을 지냈다. 고종 22년(1885) 대원군의 환국에 즈음하여 우포도대장에 임명되어 임오군란의 죄인을 처형하였다. 협판내무부사·상리국총판·친군전영감독 등을 거쳐 형조판서 신기선(申基善) 사건을 다루기도 하였다. 뒤이어 이루어진 군제개혁 때 총어사에 올랐고, 연무공원관리사무사로서 운영담당위원으로 일했다. 1889년 전환국총판 임명에 이어 다음해 다시 협판내무부사와 장위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894년 온건 개화파에 의한 갑오개혁으로 척신이 제거될 때 면직당했다. 이후 다시 등용되어 1897년 중추원의관과 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하였고, 육군부장으로 심순택(沈舜澤) 밑에서 군부대신을 지냈다. 이후에도 시종원총판·호위청총판·한성부판윤 등에 올랐는데 주로 시위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편, 1898년 박정양(朴定陽) 밑에서 의정부찬성이 되어 종로에서 열리는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려다가 도리어 만민공동회에 참석하여 헌의육조(獻議六條)에 동의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12월 초 독립협회가 황국협회에 의해 해산된 뒤에 관직을 박탈당했다. 그 뒤 중추원관제가 개편되고 독립협회 복설을 허가하지 않을 계책으로 협회에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중추원의장에 임명되어 다시 벼슬에 올랐다. 당시 만민공동회가 보부상들과 충돌하자 회의 해산을 종용하였지만, 시민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즉 시민들은 그가 전에 군부대신 서기일 때 보부상들의 만민공동회 습격을 방치하였고, 순검과 병사들이 그것을 돕도록 하였다고 비난하고 그의 집까지 습격하였다.

이와 같이 주로 수구파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1880년대 민씨 정권 아래에서는 순조롭게 승진을 하였지만, 이후 개화파의 정치적 등락에 따라 벼슬길에 많은 굴곡을 보였다. 또한 박정양·김홍집 등과의 소원한 관계와 한규설(韓圭晷) 등과 친밀하였던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광무 4년(1900) 법규교정소의 의정관으로서 황제의 정치적 전제권을 명시한 대한제국 제정에 참여하였다. 뒤에 농상공부 대신·군무국총장·강원도와 평안남도 관찰사·군부대신 등을 지냈다.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직후 일제에 의한 '조선 귀족령'으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1930년 10월에 죽었다.

50. 이중경(李重庚, 1680~1757)

휘는 중경, 자는 백야(白也), 호는 쌍호(雙湖)로 조선 영조 때의 문신이다.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석영(錫齡)의 아들이다.

그는 숙종 28년(1702)에 진사가 되고, 영조 3년(1727)에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설서(設書)·전적(典籍)·정언(正言)을 거쳐 헌납(獻納)·장령(掌令)에 이르러 청도군수, 무주와 안동부사를 역임하고 도승지를 지냈으며 수직(壽職)으로 기로사에 들어가고 77세 때인 영조 32년(1756) 증로연을 행하였다. 사후에 아들 장오(章吾)의 은전으로 공조판서에 추증되고 좌찬성이 더해졌으며 묘는 동두천 가정자리(柯亭子里)에 있다. 아들 장오는 영조 때 훈련대장, 손자인 득제(得濟)는 정조 때 형조판서, 증손 석구와 철구는 순조 때 형조참판, 금장을 지낸 철구의 아들 경순(景純)은 철종 때 훈장(訓將), 경순의 아들 봉의는 고종 때 형조판서를 지내는 등 오세육장(五世六將)이 계승되었다.

51. 이직간(李直幹)

이직간(李直幹)의 본관은 전의(全義)로 아버지는 구(龜)이고, 형조정랑(刑曹正郎) 등을 지냈으며, 사후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안흥동은 전의 이씨가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지역으로 이직간이 입향조(入鄕祖)가 된다.

52. 정명호(鄭明湖, 1559~1585)

정명호(鄭明湖)의 본관은 광주(光州)로 자는 정이(靜而)이다. 아버지는 이주(以周)이며, 사호(賜湖)의 동생이다. 1580년(선조 13)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를 지냈으나, 문과에 급제한 지 5년 만에 병으로 죽었다. 후에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묘지명은 선조 대의 명신 이항복이 지었다.

53. 정사호(鄭陽湖, 1553~1616)

자는 몽여(夢與), 호는 화곡(禾谷)으로 성재 이주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조선 중기의 정치가이자 학자이다.

선조 6년(1573)에 사마시양장(司馬試兩場)에 급제한 후 주서(注書)·호조좌랑이 되었다가 금성현령(金城縣令)으로 임진왜란을 맞아 왕자 일행의 북행길을 호위하고 현민 소개(疏開)에 힘썼다. 또 정유재란 때 안동부사로 명병(明兵)과 함께 외적을 토벌하여 큰 공을 세워 선조 34년(1601) 이래로 다섯 번이나 사헌부 대사헌을 지냈다. 선조 35년(1602)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황해도 관찰사가 되고, 뒤이어 경상도·평안도·경기도관찰사가 되었다. 1609년 선조가 죽자 이조참판과 동지춘추관사를 겸임하여 『선조실록(宣祖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그리고 한성판윤(漢城判尹)을 거쳐 형조판서로 있다가 광해군 8년(1616) 64세로 별세하니 좌찬성에 추증되고 충민(忠敏)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묘는 안흥동 산21번지에 있다. 시장(諡狀)은 경기도관찰사 홍계희(洪啓禧)가 찬(撰)하고, 신도비문은 영의정 유척기의 찬으로 되어 있다.

54. 정순인(鄭純仁)

정순인(鄭純仁)의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덕로(德老)로 아버지는 청도군수를 지내고 찬성(贊成)에 추증된 찬우(纘禹)이고, 어머니는 동래(東萊) 정씨(鄭氏)이다. 관직은 아산현감을 지냈다.

55. 정이주(鄭以周, 1530~1583)

정이주의 자는 방무(邦武), 호는 성제(惺濟)이며, 선조 때의 문신으로 중종 25년(1530)에 진사 경의 아들로 태어났다.

명종 16년(1558)에 생원과 진사에 합격하였고, 명종 20년(1565)에 요승(天僧) 보우를 태학생(太學生)들이 탄핵하는 글을 올릴 때, 공은 많은 상소를 지어 올렸다. 선조 1년(1568)에는 갑과에 장원하여 의영고직장, 예문관검열, 승문원 주서, 공조·형조·예조의 3조 좌랑을 지냈다.

성절사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올 때는 향 하나, 책 한 권 없이 돌아와 그나마 남은 물건을 아랫사람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또 정주목사로 있을 때는 백성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공무를 물흐르듯 하였고(愛民如子 居官如水),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옷과 그릇 2개가 있는 것을 보고 노하여 불태워 버렸다.

사간원정언·지평·헌납·장령을 역임하고, 경기·강원·경상 3도 순무어사로 두 번이나 3도(三道)를 순회하면서 맑게 처리하였다. 또한 정언을 세 번, 지평을 네 번, 장령을 여섯 번 지냈으나 국정에 너무 강직하여 미움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율곡 이이·초당 허엽·남봉 정지연 등의 성현과 교분이 두터웠다.

선조 16년(1583)에 54세로 졸(卒)하니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묘는 외안흥동 산21번지에 있다.

56. 정치상(鄭致相, 1658~1722)

조선 숙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퇴경(退卿), 호는 허주(虛舟)이며,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선조 때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낸 화곡(禾谷) 사호(賜湖)의 증손(曾孫)이며, 율탄(栗灘) 전창(展昌)의 아들로 안흥동(安興洞)에서 출생하였다. 일찍부터 학문에 힘써 시(詩)를 잘 지었으며, 관직은 음사(蔭仕)로 하양현감(河陽懸監)을 지냈고, 『전국유람시화집(全國遊覽詩話集)』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담팔경(伊淡八景)>이 유명하다. 64세(1722)를 일기로 죽었으며 묘소는 안흥동 선영에 있다.

57. 조극관(趙克寬, ?~1453(단종 1))

조선 초기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1414년(태종 14)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에 기용되었다. 1418년 정자(正字)로서 서연(書筵)에 나가 세자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을 보필하던 중 세자의 그릇된 행동을 막지 못했다 하여 파직되었다. 1420년(세종 2) 다시 등용되어 우정언·이조정랑·평안도관찰사·병조참판·이조참판을 지내고 1446년 황해도관찰사로 임명되었으나 칭병(稱病)하며 부임하지 않자 전라도 용안현(龍安縣)에 중도부처(中途付處) 되었다. 1449년 재기용되어 예조참판·형조판서 등을 거쳐 1453년 이조판서에 올랐으나 수양대군(首陽大君)의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김종서(金宗瑞) 일파로 몰려

살해당했다. 영조 때 신원(伸冤)되었다.

58. 조종저(趙宗著, 1631~1690)

조종저(趙宗著)의 본관은 한양(漢陽)으로 자는 취숙(聚叔), 호는 간재(艮齋), 남악(南岳)이다. 아버지는 홍문관 교리 중려(重呂)이며, 어머니는 지중추부사 신경진(申景珍)의 딸이다. 1672년(인조13) 별시 문과 을과로 급제하였고, 병조좌랑, 사헌부지평, 성균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남악집』, 『간재신사』 등이 있다.

종면(宗冕), 종저(宗著) 형제가 동두천에 정착하여 한양 조씨의 입향조가 되었다.

59. 조중려(趙重呂, 1603~1650)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휘는 중려(重呂), 자는 중경(重卿)이다. 호는 휴천(休川), 본관은 한양(漢陽)으로 도사를 지낸 간(幹)의 아들이다.

인조 8년(1630) 진사시에 올라 선능참봉·조지서(造紙署) 별제에 제수되었으나 불취(不就)하고 인조 11년(1633)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보직되고 다시 시강원(侍講院) 설서(說書)에 승계되어 형조좌랑(刑曹佐郎)과 병조 겸 지제교를 거쳐 사간원 정언, 헌납, 사헌부, 지평, 장령 다시 옥당에 올랐고 수찬에서 교리로서 당대의 문신으로 명망이 높아질 때 아까운 나이로 죽었다. 묘는 동두천 상패동(남산모루)에 있다.

60. 조진주(曹進周, 1669~1739)

숙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군욱(君郁), 호는 율촌(栗村)으로 시호는 문충,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춘천부사를 지낸 한달의 아들이고, 중종 때 의정부 우찬성을 지낸 계상(繼商)의 6세손으로 현종 10년(1669)에 태어났다.

숙종 17년(1691) 사마시(司馬試)에 올랐으며, 숙종 28년(1702)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 사헌부 지평(持平), 한성부 서윤(庶尹)을 거쳐 의정부 사인(舍人)을 지내다가 외직에 나가 온양도호부사를 지내고 춘추관 수찬관에

봉직되었으며, 숙종 35년(1709)에 승계되어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가선대부에 녹봉되었다. 영조 10년(1734)에 율목동으로 낙향하여 영조 15년(1739)에 죽으니, 나라에서는 문충의 시호를 내리고 광암동 석목에 장사하였다.

61. 최영(崔瀛)

최영(崔瀛)의 본관은 수성(隋城)으로 아버지는 강서현령(江西縣令)을 지낸 천령(千齡)이다. 연산군 때 목청전(穆淸殿) 참봉(參奉)을 지냈으나 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하였다가, 중종반정 후 정계에 다시 참여하였다.

62. 최태석(崔泰錫)

최태석(崔泰錫)의 본관은 수성(隋城)으로 자는 백형(伯亨), 호는 신암(新菴)이며, 창덕궁 위장(衛將),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의 벼슬을 지냈다.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제자로 최익현(崔益鉉), 김평묵(金平默) 등과 함께 수학하였다.

63. 허도(許道)

허도(許道)의 본관은 양천(陽川)으로 아버지는 허수(許售)이고, 어머니는 장흥(長興) 임씨(任氏)이다. 1621년(광해군 13)에 무과에 급제하여 현령(縣令) 등을 역임하였으며,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공을 세워 도호부사(都護府使)를 역임하고 동두천에 입향하여 철산보(鐵山洑)를 설치하고 농사에 전념하였다.

64. 허란(許欄)

허란(許欄)의 본관은 양천(陽川)으로 아버지는 명종 때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윤원형(尹元衡) 등과 함께 윤임(尹任) 등을 제거한 공으로 위사공신(衛社功臣) 일등에 책록된 허자(許磁)이다. 허란은 양천 허씨 시조의 20세손으로 상호군(上護軍)을 지냈으며, 동두천 하봉암에 정착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65. 허수(許售, 1564~1624)

허수(許售)의 본관은 양천으로 아버지는 동두천 하봉암에 정착한 허란이고, 어머니는 한양 조씨이다. 관직은 청양현감(靑陽縣監)을 지냈으며, 사후에 형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무덤이 동두천 하봉암동에 있다.

66. 허재(許磁, 1496~1551(연산군 2~명종 6))

조선 중기 문신. 자는 남중(南仲), 호는 동애(東厓), 본관은 양천(陽川).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1523년(중종 18)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박사·부교리·전한(典翰)·이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534년 김안로(金安老)가 실권을 잡자 황주목사(黃州牧使)로 밀려났으나 1537년 김안로가 실각한 후 동부승지에 이어 병조참지·이조참의가 되었다. 명종 즉위 후 대사헌이 되어 윤원형(尹元衡) 등과 함께 소윤(小尹)으로서 을사사화에 가담하여 대윤(大尹) 윤임(尹任)을 제거하고 위사공신(衛社功臣)으로 양천군(陽川君)에 봉해졌고 우찬성에 올랐다. 강경파와의 대립으로 좌천되고, 대윤 일파의 신원(伸冤)을 주장하다 유배된 민제인(閔齊仁)의 동생을 당진현감(唐津縣監)에 임명한 일로 탄핵받아 홍원(洪原)에 유배되었다. 뒤에 관작이 복구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양천 허씨의 동두천 입향조인 허란(許欄)의 아버지이다.

67. 홍결(洪潔, 1470~1516)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 자는 청원(淸源), 본관은 남양(南陽), 훈련도정(訓練都正)을 지낸 정로(貞老)의 아들로 동두천시 생연동 못골에서 태어났다.

19세 때인 성종 19년(1488)에 특천되어 내금위에 보직되었다가 무과에 급제하여 병마절제도위 감목관(兵馬節制都尉 監牧官)에 배속되었으며, 임기를 다해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로 승계되었고,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도 병마우후(兵馬虞候)에 이르렀으나, 중종 11년(1516) 5월에 47세를 일기로 죽었다. 묘는 출생지인 못골에 있다.

68. 홍극제(洪克濟, 1545~?)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이다. 자는 사숙(思淑),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정주목사(定州牧使)를 지낸 준(浚)의 현손(玄孫)이며, 역헌(轅軒) 진(璉)의 아들로 생연동 못골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학문에 뜻을 두고 일찍이 우암 송시열(宋時烈) 문하에 들어가 수업하며, 숙종 17년(1691) 신미증광(辛未增廣)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형조(刑曹)의 별제(別提), 공조좌랑(工曹佐郎),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 예문관응교(藝文館應敎),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등을 거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이르렀다. 묘는 생연동 황말음에 있다.

69. 홍순로(洪純老, 1416~1476)

호는 안양(安襄), 시호는 정충공(貞忠公),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판중추원사를 지낸 약(約)의 서자(庶子)이다.

어려서부터 완력이 출중하여 궁마(弓馬)를 잘하였는데, 세종의 특명으로 내금위에 배속된 후 벼슬이 사직에 이르렀을 때 세조를 따라 서울에 갔고, 계유정란(癸酉靖難) 때에 3등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세조 9년(1464)에 동지중추부사에 올라 당성군(唐城君)에 봉해졌다.

70. 홍약(洪約, ?~1460)

고려 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판중추 연수(彦修)의 아들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판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고려가 망하게 되자 불사이군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친구인 이이화정(李梨花亭)의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정신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 땅의 백성들은 누가 구제하겠는가”라는 말을 듣고 정치에 참여하였다. 병농(兵農), 예악(禮樂)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묘는 생연동 황말음에 있다.

71. 홍언수(洪彦修, 1347~1650)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공양왕(恭讓王) 3년에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임하였으며, 1392년 7월 이성계가 조선(朝鮮)을 개국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켜 조선 개국에 참여하지 않고 송도(松都)를 떠나 동두천시 생연동(못골)으로 낙향, 은거하였다. 조선 태조가 출사를 권유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자 첨지문하부사(僉知門下府使)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제수하여 예우하였으나 끝내 출사하지 않았다. 이에 윤방경의 예에 따라 조선개국원종공신(朝鮮開國原從功臣)에 책록(策錄)하여 예우하였다.

72. 홍진(洪璉, 1595~1654)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이다. 자(字)는 경미(景美), 호(號)는 역헌(轢軒), 사직(司直)을 지낸 수기(守紀)의 증손(曾孫)이며, 무과(武科)로 첨지중추(僉知中樞)를 지낸 세충(世忠)의 아들로 선조 28년(1595) 생연동 못골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학자로서의 경지에 이르러서도 학문연구에만 몰두하고 광해군의 폭정에 항거하며 벼슬길에 나가지 않다가, 인조 15년(1639) 41세의 나이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등과하였다. 형조(刑曹)의 교수(敎授)직에 초배되었고, 형조좌랑(刑曹佐郎)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승차되어 외직으로 나갔다가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형조정랑(刑曹正郎)을 거쳐 승계되어 형조참의(刑曹參義)를 지내다가 효종 5년(1654)에 59세의 나이로 죽었다. 묘소는 생연동 황말음에 있다.

73. 홍원로(洪元老)

홍원로(洪元老)의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약(約)의 장남이다. 무예에 뛰어나서 세조 대에 국왕 친위병인 겸사복(兼司僕)으로 활약하였다. 묘가 생연동에 있다.

74. 홍정로(洪貞老)

홍정로의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약(約)의 4남이다. 무관으로 정주목사(定州牧使), 경원부사(慶源府使),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 등을 역임하였다. 직계(職階)는 절충장군(折衝將軍)이 이르렀고 묘가 생연동에 있다.

75. 홍준(洪濬, 1475~1525)

홍준의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을 역임한 정로(貞老)의 차남이다. 관직은 정주목사(定州牧使), 경상우도수군절도사, 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무인의 최고 직계인 절충장군에 이르렀고 묘가 생연동 남양 홍씨 묘역에 있다.

76. 홍형로(洪亨老)

홍형로의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약(約)의 차남이다. 주로 무관직에 임명되었으며 사직(司直) 등을 역임하였다. 세조 대에 아버지 홍약과 함께 단종(端宗)의 복위추진에 관여되었다고 하여 더 이상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다. 공조참판에 추증되었고 묘가 생연동에 있다.

77. 황계조(黃繼祖)

황계조(黃繼祖)의 본관은 평해(平海)로 할아버지는 조선 개국공신인 양무공(襄武公) 희석(希碩)이고, 아버지는 세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상(象)이다. 숙부인 황란(黃鸞)과 황곡(黃鵠)과 더불어 동두천에 정착하여, 이곳의 입향조(人鄕祖)가 되었다. 종8품 무관직인 수의부위(修義副尉)로 좌군협사직(左軍協司直)을 지냈다.

78. 황서(黃瑞, 1514~1569)

자는 정옥(廷玉), 본관은 평해(平海)이며 충좌위대호군(忠佐衛大護軍)을 지낸 세통(世通)의 아들로 광암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23세 때인 중종 32년(1537) 사마시(司馬試)에 올라 여러 관직을 거쳐 명종 7년(1552)에는 대사간이 되고 부제학 이조참의를 지냈다. 외직으로 충청·전라·경상3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선조 2년(1569)에 죽었다. 묘는 생연1동 못골에 있다.

79. 황선신(黃善身, 1570~1637)

자는 사수(士修), 본관은 평해(平海), 시호는 충열(忠烈)이다.

기(璡)의 아들로 지행동에서 태어나 선조 30년(1597) 무과에 급제, 벼슬이 훈련원정에 이르렀으며, 인조 14년(1636) 호적이 침입하여 강화부 중군으로 적과 싸우다가 이듬해 순국하였다.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추증되고 강화의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80. 황신중(黃愼中, 1561~1627)

황신중(黃愼中)의 본관은 창원으로 아버지는 평장공(平莊公) 황림이다. 북별첨(北別僉)을 지냈으며, 탐동에 정착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제4절 조선시대 효자, 열녀

1. 이지운(李祉運, 1606~1672)

효자 이지운의 자는 덕유(德裕)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조선 성종 때의 공신, 광원군(廣源君) 이극돈(李克墩)의 육세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효동으로서 인군에 알려졌다. 성장하여서는 춤고 더움을 가리지 않고 항상 부모를 옆에서 모셨으며 화기로운 안색과 음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즐겁게 하는 데 힘썼다. 부모가 어떤 일을 명하면 비록 잘 안될지언정 감히 이론(異論)을 제기하지 않으며, 그의 부친이 항상 집안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운이 나를 섬김에 있어 일찍이 나의 말을 어기지 아니하고 또한 나에게 근심을 주지 아니하니 오늘날의 증자(曾子; 孔子 제자로 유명한 효자)라 할 것이다” 하였다.

그의 부친이 병이 들어 달이 지나도 차도(差度)가 없었다. 지운은 몸소 약을 구하는 한편, 영양 있는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아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드렸다. 또한 안전도를 시험하려 변을 맛보아 안위를 살피고, 밤이면 목욕재계하여 북두칠성에 부친의 수(壽)를 빌으니 차차 나아졌다가 천수를 마치고 별세하였다. 지운이 애통함을 거의 스스로 지탱하지 못할 정도였다.

장사를 모신 뒤에 시묘를 살며 조석으로 절하고 호곡하기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피하지 않았으며, 묘 앞에는 손과 무릎이 닿은 자취가 완전하였다. 관에서 이 효행을 장계하여 명으로 사미포가급물특(賜米褒嘉及歿特)하고 관직 금오랑(金吾郎)을 내렸다.

2. 김진태(金鎭泰, 1835~1894)

효자 김진태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조선개국 일등공신이며 태조 때 좌의정을 지낸 익원공(翼元公) 김사형(金士衡)의 후손으로 현종 때 동두천시 탑동 장승마을에서 김장년(金長年)의 아들로 태어났다. 진태의 집안은 우리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4대가 계속 효자를 배출한 가문이었다. 그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출생하면서부터 눈과 귀는 효에 젖었고, 언행이 돈독하는 등 벌써부터 심성이 착하였다고 한다.

가세가 구차하여도 정성껏 부모를 봉양하면서 반찬이나 음식까지도 그 자신이 쓰고 짜고, 매운 맛을 점검하여 부모의 식성에 맞추었다. 여름과 겨울에는 시원하고 따뜻한 것을 때맞추어 조절하는 등 지성을 다하여 게을리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부모 옆에서는 소리를 높여 남을 꾸짖거나 짜증내는 일이 없이 언제나 한결 같았다. 그의 부친이 나이가 많아 노환으로 앓아 눕게 되었는데 한시도 그 옆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면서 대변으로 시험하되, 심하면 '단지 수혈'을 하는 등 정성을 다해 간병하였다. 그러나 워낙 노환이라 소생치 못하고 운명하여 예를 다해 장사지내고 3년을 하루같이 묘정에 앞드려 호곡하니 묘 앞의 풀이 자라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고종 4년(1867) 7월에 폭우가 쏟아져 밭과 논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날 저녁에는 산사태가 일어나 나무가 뽑히고 큰 돌이 굴러 떨어져 집을 덮치는 등 온동네가 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김진태의 집만은 감쪽같이 수난을 면하니 이것은 분명 신명이 효성을 도운 것이라고 칭송들하니, 인근 유림들이 그 효성을 조정에 계문하여 고종 24년(1887)에 효행을 표창하고 마을에 효자정문을 세웠다. 묘지는 광암동 옥금산하에 있다.

* 참고문헌 : 『효자첩지』, 『향토지』

3. 정석조(鄭錫祚, 1793~1871)

정석조의 자는 백영(伯永)이고 충민공(忠敏公) 사호(賜湖)의 8대손이며 좌승지(左承指) 재곤(載坤)의 아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벗 사이에 신의가 있었으며, 학문을 숭상하여 장래가 촉망되었다. 21세 때 모친 와산 최씨가 뇌후종(腦後腫)으로 고생하

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없자 할 수 없이 석 달 동안 날마다 입으로 환부를 빨았으나 낫지 않았다. 이에 의원에게 물으니 두꺼비가 특효약이라 하였으나, 철이 엄동이라 구할 길이 막연하였다. 그러나 집 뒤 마차산을 샅샅이 뒤져 한 바위 밑에서 두꺼비를 찾아내어 효력을 보았다. 또 모친이 잉어회를 원하여 백 리가 넘는 임진강 상류까지 가서 얼음을 깨고 낚아다 회를 해 드렸다.

이렇듯 지극한 효행으로 지성감천의 일화가 있었으니 하루는 고양이가 청어를 물고 왔기에, 빼앗아 시장 생선가게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또 한 번은 집에서 기르는 개가 뒷산에서 꿩과 토끼를 잡아오니 이는 모두 공의 효성에 감화된 것이라 하였다. 정석조는 수직(首職)으로 첨지중추부사를 지내다 79세로 졸(卒)하여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사후 3년 양주·포천 유림의 추천으로 효행 천장을 올리고 마차산 선영(先塋)에 있는 묘 앞에 효행을 새긴 비(碑)가 세워졌다.

그는 4남 1녀로 동지 인수(麟洙), 문과집의 면수(勉洙), 익수(益洙), 겸수(謙洙)를 두었고, 풍천 임정모(任鼎模)는 사위이다. 후손으로 5대 증손인 교육평가원에 근무하는 영호(英鎬)가 있다.

* 참고문헌 : 『향토지』

4. 안승덕(安承德, 1818~1943)

호는 성포(聖浦), 석하(石下), 본관은 죽산(竹山)이다.

세종 때 호조참판을 지낸 안의 후손으로 천성이 온순하고 어질어서 어릴 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였다. 구미에 맞고 몸을 따뜻하게 봉양하되 집이 가난하여 승덕이 산에 가서 나무하고 물에 가서 고기를 낚아 받들어 모시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가 젊었을 때 부친 규선(圭善)이 갑자기 중병(重病)에 걸리어 몇 달 동안 위중하였다. 낮이면 의원을 찾아 약을 구하며 밤이면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축수(祝壽)하여 부친의 수명연장을 밀었다. 그러나 효험없이 마침내 운명할 상태에 이르니 승덕은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흘려 넣으니 부친이 다행히 회춘하였다. 이로 인해서 10년 수(壽)를 더 누렸으니 그 정성스러운 효도가 고을 안팎으로 널리 알려져 전예조판서를 지낸 김종환(金宗漢) 외 정국유림을 대표한 24명이 장계하여 조정에서는 포상과 아울러 성균관 문예박사직의 벼슬을 내렸다.

* 참고문헌 : 『향토지』

5. 수원 윤씨(水原 尹氏)

윤씨의 남편 한진구(韓鎭九)는 청주인으로 병자호란 당시 무관으로 전쟁에 출전하였는데, 어느날 그가 타고 갔던 말이 홀로 돌아왔다. 이에 수상하게 생각한 부인 윤씨가 말에게 “너는 어찌하여 주인을 모시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느냐”라고 물어 질책하니, 말은 눈물을 떨구고 서 있었다.

윤 부인은 말에 올라 “네가 주인 있는 곳을 안다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하니 말은 윤 부인을 태우고 개성 방면으로 달려가 싸움터에 도착하여 주인이 누워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윤 부인이 남편을 만져보니 벌써 전사한 지라 그 시신을 안고 고향에 돌아와 예를 다해서 장사 지내고 3년 상을 치른 후에 윤 부인도 따라 죽었다. 부근 유학생들이 윤 부인의 열녀정문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여 나라에서는 정문을 내려 열녀 윤 부인을 추모했다.

정문은 전해오다가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다. 정문의 유적터는 송내동 송나마을 옛 상황당 옆이다.

* 참고문헌 : 『향토지』

6. 수성 최씨(隨城 崔氏)

효열 부인 최을석(崔乙石)은 최윤기(崔允基)의 장녀로 태어나 18세 되는 해 광주인 이용관(李容寬)에게 출가하였으나, 5년 만에 부군과 사별하고 빈궁한 가계를 유지하며 중풍으로 와병 중인 시아버지의 시탕지절을 지성껏 받들어 6년간 장수케 하였다. 또한 시어머니에게 효양을 극진히 하여 천수를 누리도록 하였으나, 본인은 불행하게도 49세에 조졸하니 모든 정력을 효와 열에 바치었다. 이후 지방 유림들이 성균관에 청원하여 성균관장의 추서표창을 받게 하였다. 아들 이규재(李奎載)가 세운 공덕비가 묘소 앞 광암동 내촌광곡에 있다.

* 참고문헌 : 『향토지』

7. 외손봉사(外孫奉祀) 350년

구전(口傳)에 의하면 둔천(遁村) 이집(李集)의 9세손 이지운(李祉運, 1606~1672)이 광암동 내촌(內村)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윤충지(尹忠止, 禦海將軍)의 딸(無男獨女)을 아내로 맞이하고부터라 한다. 권문세가(權門勢家)인 파평 윤문(坡平 尹門)의 가장인 충지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사위 지운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지운은 본시 충효를 중시하는 가문에서 성장했는지라 장인 장모를 친부모와 똑같이 효성을 다해 봉양하여 천수를 다하게 하였다. 사후(死後)에도 정성으로 제사(祭祀)를 받들어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지운이 죽은 다음, 그 자손들도 조상의 훌륭한 도리를 본받아 40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외손봉사(外孫奉祀)를 이어오고 있어 우리 지방의 자랑으로 전해지고 있다.

* 구술자 : 이규제(자료 : 동두천시사)

제5절 근대

1. 강기동(姜基東, 1884~1911)

의병장. 서울 출생. 본명은 기주(基周). 1907년 대한제국군 기병부위(騎兵副尉)로 있다가 군대가 해산되자 해산군을 규합하여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일본헌병대에 위장 귀순하여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포로의병과 동지들을 풀어주기도 하였고 무기·탄약을 탈취하여 경기도 포천·양주 등지와 강원도 금성·회양·통구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1908년에는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일본군을 습격하였고, 그 해 겨울 창의한북대장(倡義韓北大將) 연기우(延基羽)의 부대와 합세하여 20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포천·송우(松隅), 동두천 등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1911년 2월 원산에서 일본경찰에게 붙잡혀 옥중항쟁을 하다가 용산 일본군 행형장(行刑場)에서 총살당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2. 고복돌(高福沔)

1919년 3월 26일 동두천 독립 만세시위에 앞장서서 일본 헌병대와 투쟁하였고 특히 헌병대장이 탄 말을 쓰러트리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

3. 김병기(金秉氣, 1850~?)

독립운동가로 양주 출신이다.

한말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의병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아들 연성(演性)도 의병활동 중 적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당한 바 있는 의병 집

안의 가장이다. 1910년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으나 투쟁을 멈추지 않고 1913년 9월 의병장 임병찬·이인정·전용주 등이 의병 출신들을 모아 새로운 항일투쟁 조직체인 독립의병군을 조직하자, 여기에 참여하였다.

독립의군부는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조선총독부에게 국권반환요구서를 보내기도 하고 한국인이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외에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4년 4~5월 독립의군부 동지들과 함께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참고 문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5』(1973)

4. 김병시(金秉蓍)

1891년 동두천시 조산동에서 출생하여 17세의 나이로 1908년 김연성의병부대에 들어 양주, 포천, 적성 등지에서 활발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5. 김병원(金秉愿)

1882년 동두천시 보산동 싸리말에서 출생, 1908년 김연성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양주, 포천, 적성 등지를 무대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일제에 체포되어 많은 고초를 겪었다.

6. 김병주(金秉周, 1884~ 1908)

1884년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출생, 1907년 김연성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양주, 포천, 적성 등지에서 목숨을 건 항일 무력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끝내 일본 헌병부대에 체포되어 악형을 당한 후 출소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7. 김연성(金演性, 1870~?)

구한말의 성균관 박사로 자는 범일(範一), 호는 송천(松川),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애국지사 병기(秉氣)의 아들로 보산동(싸리말) 343번지에서 태어났다. 1891년 성균관 박사가 되고, 충청도도사(都事)로 재직 중에 일제에 의해 민

비가 시해되자 붓을 던지고 을미의병에 가담하여 대일 투쟁에 앞장섰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적으로 체결되고 1904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선생은 고향으로 내려와 의병을 모집하여 휘하에 3백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양주와 연천 지역의 의병장이 되어 윤인순(尹仁淳) · 정용대(鄭用大) · 황재호(黃在浩) 등의 의병장들과 같이 군성(軍聲)을 떨치었다. 1908년 양주군 주내전투 때 이인영(李麟榮) 총대장을 도와 선봉에서 싸웠으며, 소요산전투(원효대)에서 일본군을 격퇴시켰다. 삭령(朔寧) · 마전(麻田) · 적성(積城) · 철원(鐵原) 등지까지 작전 범위를 넓혀 일본군과 싸웠다. 그러나 휘하에 있던 전목기(全木基) · 유재만(柳在萬) 등의 지사들이 일제에 의해 체포되자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

8. 목연욱(睦然旭, 1916~1949)

광복군으로 동두천시 지행동 출신이다.

광복군 제3지대에서 복무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9. 목자상(睦子商, 1870~?)

의병으로 이담면 지동(현 동두천시) 출신이다.

농사를 짓다가 황재호의병부대에 들어가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군자금 확보,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08년 8월 영근면 상원리에서 같은 해 11월 이담면에서 체포되어 고초를 겪은 후 1909년 3월 9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첨 1)』 (1971)

10. 박경필(朴慶弼)

1895년 동두천시 동두천동에서 태어나 1919년 3월 26일 동두천장에 모인 사람들이 만세 독립 시위 운동을 벌일 때 적극 참여하였고 일제 헌병에 체포되어

심한 고초를 겪었다.

11. 박영철(朴永喆)

1893년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출생해 1919년 삼일만세운동 당시 동두천 장날이었던 3월 25일 거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일제 헌병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12. 박창배(朴彰培)

1899년 동두천시 동두천동에서 출생, 1919년 3월 26일 거행된 동두천 독립만세시위에 앞장서서 참여하여 일제 헌병에 체포당했다.

13. 송창근(宋昌根, 1888~?)

의병으로 덕도리에서 태어나 은현면 상패3리(현 동두천시)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었다. 1907년 일제의 침략에 분노하여 윤인순 의병부대에 들어가 항일투쟁을 펼쳤다. 송창근의 활동 중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군자금 확보투쟁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7년 12월 동료 의병 30여 명과 함께 묵은면 내묵은리에서, 1910년 8월 23일 백석면에서 각각 군자금을 확보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던 중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1910년 10월 26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별첨 1)6』 (1971)

14. 우병창(禹炳昌, 1866~1952)

의병으로 이담면 걸산리 출신이다. (현 동두천시) 1909년 농사를 짓다가 양주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의병투쟁을 계속하였다. 1911년 1월 현내면 선암리(현 은현면) 등지에서 군량미 확보가 그것이다. 그러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곧 항소하였으나 1911년 5월 31일 경성형소원에서 기각되어 복

역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 1)』 (1971)

15. 이금래(李兢來, 1883~?)

의병으로 이담면(伊淡面, 현 동두천시) 광암리(廣岩里) 출신이다. 1908년 농사를 짓다가 일제의 침략에 분노하여 정용대의병부대(鄭用大 義兵部隊)에 들어가 양주군(楊州郡) · 포천군(抱川郡) · 적성군(積城郡) · 영평군(永平郡) 일대에서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그의 활동 경력 중 특이한 것은 1908년 음력 10월 포천군 서면 왕방리에서 군량미를 확보하면서 당시 다른 의병들과는 달리 유상(有償)으로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의병투쟁을 벌이면서 가능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후 적에게 체포되어 1910년 7월 20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6. 이은찬(李殷瓚, 1878~1909(고종 15~순종 3))

조선 말기의 의병장. 일명 언찬(諱瓚) · 헌찬(憲瓚). 본관은 전주(全州). 강원도 원주(原州) 출신. 1907년(순종 1) 고종이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인영(李麟榮)을 대장으로 추대한 뒤 전국 각지에 격문을 보내어 양주(楊州)에 의병들을 규합시켜 13도 의병 연합부대를 편성하고 서울 공약을 계획했다. 그러나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여 돌아가 이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그는 소속부대를 이끌고 양평(楊平) · 포천(抱川) 방면으로 이동하여 임진강 유역에서 허위(許蔭)와 합세해 크게 위세를 떨쳤다. 1909년 일본군의 압력이 심해지자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남쪽의 연안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했다. 그해 양주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큰 타격을 입혔으나 의병 또한 많은 희생자를 냈다. 그러자 간도(間島)로 들어가 정병을 양성한 뒤 보다 적극적인 항전을 계획했으나, 이때 서울에 있던 박노천(朴魯天) · 신좌균(申左均)의 군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유인으로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17. 유재만(柳在萬, 1882~?)

의병으로 이담면 안흥리 출신이다. (현 동두천시)

1907년 농사를 짓다가 일제의 침략에 분노하여 김연성의병부대에 들어가 30여 명의 동료 의병들과 함께 양주군과 연천군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908년 10월 27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별집 1)』 (1971)

18. 윤인순(尹仁淳, 1880~1909(고종 17~순종 3))

조선 말기 의병장. 경기도 양주(楊州) 출생. 1907년(순종 1) 일본에 의하여 한국군대가 강제해산되자 양주에서 의진을 형성하고 진동창의부우군장(鎭東倡義府右軍將)으로 양주·파주(坡州)·적성(積城)·포천(抱川)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같은 해 이인영(李麟榮)을 총대장으로 한 13도 연합의진에 참여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폈으나 일본군에 의하여 좌절된 후 허위(許薦)를 대장으로 임진강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8년 허위가 체포된 뒤에도 소규모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09년 이은찬(李殷瓚)·정용대(鄭用大)·강기동(姜基東)·연기우(延基羽) 등과 연합하여 경기도와 황해도를 연결하는 육상과 도서지방에서 활약하다 그해 3월 양주 북방 16km 지점에서 부하 16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19. 이명기(1881~?)

동두천시 광암동 탑골에서 출생, 1907년 연기우의병부대에 입대하여 양주, 포천, 적성 등지에서 항일구국 운동에 참여하였다. 1910년 국권 침탈기에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심한 옥고를 겪었다.

20. 이병하

1873년 동두천시 광암동 조산마을에서 출생. 1908년 정용대의병부대에 들

어가 양주, 포천, 영평 등지에서 활발한 항일 구국운동을 펼쳤다. 1910년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갖은 악형을 당한 끝에 장애를 얻었고 이로 인하여 생을 마쳤다.

21. 전목기(全木基, 1881~?)

의병으로 이담면 창리(伊淡面 倉里, 현 동두천시) 출신이다. 농사를 짓다가 일제의 침략에 분노, 그들을 이땅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김연성(金演性)의병부대(義兵部隊)에 들어가 40여 명의 동료 의병들과 함께 양주군(楊州軍)과 적성군(積城郡)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908년 10월 27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유형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별첨 1)』 (197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1986)

22. 전순만(全順萬, 1879~?)

의병으로 이담면(伊淡面) 상봉암리(上鳳岩里) 철동(鐵洞)(현 동두천시)에서 농사를 짓다가 1907년 황재호의병부대(黃在浩 義兵部隊)에 들어가 양주(楊州)와 적성(積成)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체포되어 1908년 10월 8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유형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별첨 1)』 (197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1986)

23. 정두환(鄭斗煥, 1880~?)

의병으로 이담면 안흥리(현 동두천시) 출신이다.

일제를 이 땅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정용대의병부대에 들어가 항일투쟁을 펼쳤다. 1909년 의병장 정용대가 적에게 체포되고, 조선이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가 된 직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정용대의병부대의 남은 동료 의병들과 함께 양주군과 적성군 일대에서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의병장이 없는 부대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1910년 음력 9월에 흥원유의병부대에 들어가 8명의 동료

의병과 함께 양주군 일대에서 군자금 확보투쟁을 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적에게 체포되어 1910년 9월 26일 경성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별첨 1)』(1971)

24. 정용대(鄭用大, 1882~1910)

조선 말기 의병장. 경기도 파주시(坡州市) 적성(積城) 출생. 1908년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해산에 대한 의분으로 수백 명의 의병을 모집, 적성·풍덕(豐德)·통진(通津) 등지에서 활발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해 2월 인근에서 활약하던 다른 의병부대와 연합전선을 구축, 일본헌병대 및 경찰대와 교전하였다. 그 뒤 군자금과 군량미 조달 등 전투준비를 하다가 1909년 체포,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순국하였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25. 정원이(鄭元伊)

1895년 동두천시 동두천동에서 출생. 고학으로 경신중학교를 거쳐 배재학당에 재학 중 기미만세운동이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자 고향 동두천으로 내려와 거사계획을 짜고 중앙과의 연락책임을 맡았다. 1910년 3월 25일 동두천 장날에 모인 민중 1,000여 명을 지휘하여 만세시위를 거행하였다. 당일 일제 헌병에 체포되어 모진 고초를 겪었다.

26. 정제환(鄭濟煥, 1878~?)

의병으로 이담면 안흥리(현 동두천시) 출신이다.

1908년 일제의 침략이 더욱 노골화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연기우 의병진에 들어가 연천군과 삭녕군 일대를 중심으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정제환의 활동 내용 중 현재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군수품 확보투쟁에 관한 것인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8년 음력 9월 삭령군 서면에서 동료 의병 수십 명과 함께 그곳에 있는 포

목상으로부터 포목 수십 점을 확보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연천군 서면 면민들로부터 1천 냥의 군자금, 얼마 후 같은 군 서면 면민들로부터 5백 냥의 군자금을 각각 확보하였다.

그러던 중 적에게 체포되어 1909년 4월 17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별첨 1)』(1971)

27. 정충환(鄭忠煥, 1888~1962)

양주(楊州) 출생으로 서울 동부(東部) 연화방(蓮花坊) 연지동(連池洞)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의병이 되었다. 1908년 5월 12일 황재호의병부대(黃在浩 義兵部隊)의 동료 의병 80여 명과 함께 무장을 하고 양주군(陽州郡) 묵은면(默隱面)(현 은현면)에 진입, 의병투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확보하였다. 이어 같은 달 18일 포천군(抱川郡) 덕둔리(德屯里)에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되었다. 1909년 2월 4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경성공원소에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3월 19일 기각되었고, 대심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같은 해 4월 5일 기각됨에 따라 복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별첨 1)』(197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1986)

28. 차홍녀(車紅女)

경기도 동두천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고, 의정부공립보통학교를 1933년에 졸업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극단 희락좌에 입단하여 연극 배우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연극을 시작한 것은 극단 신무대에서 《장화홍련전》의 주인공 홍련 역을 맡은 이후이다. 신무대와 황금좌를 거쳤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신은봉의 제자 정도로만 알려진 무명배우였다.

1935년에 동양극장이 개관하면서 전속 극단인 청춘좌에 입단하였고, 《춘향전》의 춘향 역을 맡은 것을 계기로 동양극장의 간판 스타로 떠올랐다. 특히 임선규가 황철과 차홍녀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 크게

사랑 받으면서 인기 절정에 올랐다.

그러나 인기를 바탕으로 많은 연극에 출연하면서 점차 건강이 나빠졌다. 1937년에는 폐렴 진단을 받았다가 1938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1939년에 동양극장을 나와 아랑을 조직하고 순회 공연을 떠났는데, 겨울철 철원 공연 직후 폐렴이 재발하였다. 이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경성부 아현동의 자택에서 사망했다. 차홍녀는 대중극에서 순진한 비련의 여인 역을 주로 맡았다. 만 20세에 요절하였기 때문에 활동한 시기가 매우 짧았음에도 배우로서의 자질이 남달라 그만큼 주목받을 수 있었다. 함께 활동했던 박진은 두뇌가 명석한데다 연극에 대한 센스가 뛰어나 임기응변에 매우 능한 배우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29. 추담(秋潭, 1898~1978)

승려·교육자·독립운동가. 성은 박씨(朴氏), 속명은 정걸. 함흥 출생. 함흥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에 참가하여 여러 달 동안 옥고를 치렀다. 1921년 일본 다이쇼불교대학(大正佛教大學)에서 수학한 뒤 귀국, 1924년 설봉산 귀주사(歸州寺)로 출가하였다. 그 뒤 능인학원(能仁學院)을 창설하여 아동 교육에 힘쓰고 1927년 건봉사(乾鳳寺)에서 대교과(大敎科)를 이수하였다. 이 무렵 한용운(韓龍雲)과 연락하며 민족운동을 전개하다 투옥되었고, 출감 후 농촌계몽운동과 민립대학(民立大學) 설립운동 등에 노력했다. 1936년 5년여 동안의 투병·요양생활을 끝내고, 1937년 삼각산 약사사(藥師寺; 지금의 奉國寺)의 일승선사(日昇禪師) 밑에서 득도하였다. 1946년 이후에는 포교활동과 불교정화운동에 앞장 서다가 소요산 자재암(自在庵)에서 법랍 42세로 입적하였다. 조계종 총무원 초대교무부장과 금산사(金山寺) 등 여러 절의 주지를 지냈다. 저서로 『투병과 인생』, 『모순의 합리성』 등이 있다.

30. 추삼만(秋三萬, 1881~?)

의병으로 회천읍(檜泉邑) 출생이다. 이담면(伊淡面) 하봉암리(下鳳岩里, 현 동두천시)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다. 1907년 들어 일제의 침략은 더욱 노골화하여 헤이그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한국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분노하여 같은 해 8월 황재호(黃在浩)

의병부대에 들어가 동료 의병 20여 명과 함께 양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후 이재학(李在學)의병부대로 옮겨 적성군(積城郡)과 삭녕군(朔寧郡)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펼치면서 친일모리배들도 아울러 처단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7년 음력 9월 8일 밤 삭녕군(현 양주군) 남면(南面) 귀재리(貴在里) 양지동(陽智洞)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밀정이자 일진회원(一進會員)과 김영덕(金永德)과 이승영(李承寧)을 처단하기 위하여 의병장 이재학의 지휘하에 동료의병 30여 명과 함께 이 마을에 진주하였다. 먼저 김영덕을 포박한 후 담을 넘어 도망가는 이승영에게 발포하여 다리에 관통상을 입히고 그 역시 체포하였다. 다음날인 9일 아침 이재학 의병장의 명령에 따라 직접 두 친일배들을 처형하였다. 그 후 적에게 체포되어 1909년 12월 21일 경성재판소에 사형선고를 받았고 공소하였으나 1910년 1월 15일 경성공소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사형당하고 말았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별첨 1)』(197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1986)

31. 한원택(韓元澤)

1919년 3월 26일 동두천에서 전개된 만세독립시위를 주도하다가 피체되어 일제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렀다.

32. 홍다니슬라오(1813~1868)

동두천 출신으로 추정되는 천주교 순교자. 양주 출신으로 1868년 공주 감영에서 순교하였다. 그의 피난지이자 순교지인 공주에서 동두천 출신의 홍성선이 피난하였다가 순교하였다는 점과 같은 홍씨라는 점, 그도 역시 양주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홍성선의 아버지 홍몽로와 형들인 홍성국, 홍성원이 순교한 직후 홍성선이 연고를 찾아 피난한 곳이 공주라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그 역시 동두천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홍다니슬라오의 부모도 1827년에 순교한 신앙인들이었다.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다니슬라오라는 세례명만 치명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순교 당시의 나이는 55세였다.

33. 홍몽로(洪夢老, 1786 ~ 1868)

천주교 순교자. 양주 일담리(지금의 동두천시 생연동)에 세거(世居)하여 왔으나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박해를 피하여 포천 고약리 천주교 신자 마을에 이주하였다. 1868년 병인박해 당시 체포되어 82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세례명은 베드로이다.

34. 홍병준(洪秉俊, 1864~1925)

구한말의 애국지사로 자는 덕문(德文),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소작농을 하던 복영(福永)의 외아들로 고종 1년(1864) 10월 1일 동두천시 결산동(傑山洞)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천성이 강직충의(剛直忠義)하였다. 일제에 의해 한일합병(韓日合併)이 강제로 체결되자 국권회복을 부르짖으며 노심초사하던 중, 1919년 대한독립만세소리가 경향 각지에 진동함을 기하여 동년 음력 2월 25일 동두천 장날 정오에 1천여 명의 군중을 인솔하고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악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방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연창(連唱)하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의지를 보였다.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왜경(倭警)이 가한 형독(刑毒)으로 1923년 5월 17일 59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 후 선생의 의열(義烈)의 감(感)을 후세의 지표로 삼기 위해 1975년 동두천 노인회 주관으로 독립유공자추모위원회를 결성, 시민의 성금을 모아 소요산 입구에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이후 포천에서 화장한 뒤 모셔와 추모비 옆에 안치했다.

35. 홍성원(1825~1868)

동두천 출신 순교자로 세례명은 아오스딩, 독립자로 보아 남양 홍씨로 추정된다. 순교자 홍몽로의 아들로서 양주 일담리(현재의 동두천시 생연동) 세거인이었다. 일가족이 함께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박해를 피하여 포천 고약리의 천주교 신자촌에 이주하였다가 병인박해를 당하여 양주에서 파송된 포교에게 체포당하여 양주로 압송된다. 그리고 배교를 거부하고 1865년 5월 19일 양주

관아에서 43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였다.

36. 홍성국(1811~1867)

천주교 순교자. 홍몽로(베드로)의 아들이며 홍성원(아오스딩)의 형으로 세례명은 요한이다. 역시 양주 일담리(동두천 생연동)에 세거하였으나 박해를 피하여 경기도 광주 정임의 새말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병인박해 당시 체포되어 배교를 거부하고 1867년 4월 남한산성 형장에서 순교하였다. 홍성국이 순교한 남한산성 행형장에는 현재 남한산성 순교성지가 조성되어 있다. 당시 나이는 56세였다.

37. 홍성선(1829~1879)

동두천 출신의 천주교 순교자. 홍몽로의 아들이며 홍성국, 홍성원의 아우이다. 양주 일담리(동두천 생연리) 세거지를 떠나 미상의 장소로 피난하였다가 아버지 홍몽로와 형들이 순교하던 1866년 공주 적바위로 다시 옮겨 피난하였다. 1879년 포교에게 체포되어 배교를 거부하고 공주 감영 행형장에서 순교 치명하였다. 당시 나이는 50세였다.

38. 홍선(泓宣, 1905~1979)

승려. 속성은 이씨. 호는 태허(太虛). 서울 출생. 1928년 경성예비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인생의 근본문제에 회의를 품고 방방곡곡 사찰을 돌다가 1930년 선암사(仙巖寺) 경운장로(擎雲長老)의 제자가 되었다. 1931년부터 불경을 공부하다가 1935년 소요산 백운암(白雲庵)에 들어가, 1,000일 동안 안거하였다. 그 뒤 중국 산시성(山西省[산서성]) 명찰을 순례하고, 1940년 원불(願佛)인 목불상을 모시고 귀국, 서울 낙산(駱山) 밑에 묘각사(妙覺寺)를 창건하고 포교를 시작하였다. 6·25 때 경상북도 상주(尙州)에 백화암(白華庵)을 창건하고 선정(禪定)을 익히는 한편 《법화경(法華經)》을 베끼며 모리를 깨우쳐 갔다. 6년 후 서울로 돌아와 1957년 법화계통을 규합하여 일승불교현정회(一乘佛敎顯正會)를 창립하고 회장을 지냈으며, 1962년 12월

8일 대한불교 불입종(佛入宗)을 창종하였다. 1966년 불입종의 초대 종정(宗正)이 된 뒤 1971년 보국훈장을 받았고 1975년 한·중불교회 고문이 되었다. 1979년 6월 24일 74세에 법랍 50세로 묘각사에서 입적하였다. 128과(願)의 사리가 묘각사 사리탑에 봉안되었다. 저서에 유문집 『성불도(成佛圖)』가 있다.

39. 홍희영(洪喜永, 1881~?)

이담면 보안리(현 동두천시) 출신의 의병이다. 양주군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펼쳤다. 직업은 농업이다. 1907년 홍정순의병부대에 들어가 의병이 되었다. 이 해 음력 10월경 동료 의병 40여 명과 함께 양주군을 비롯하여 포천군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고, 같은 해 음력 12월에는 현내면(현 상패동) 신촌에서 군자금 확보 투쟁을 펼쳤다. 이같은 활동을 하던 중 적에게 체포되어 1908년 11월 10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유형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1)』(1971)

40. 황용호(黃龍浩, 1881~?)

독립운동가로 이담면 광암리(현 동두천시) 출신이다. 1921년 4월 24일 평양에서 중국 임강현에 본부를 둔 항일무장운동단체 백산무사단(白山武士團) 활동을 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7』(1990)

김정명, 『조선독립운동사2』(원서방, 1967)

41. 김병주(金秉周, 1884~?)

1884년 보산리 출생으로(현 동두천시) 의병에 투신하였다. 김연성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포천·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잡혀 모진 고문과 악형으로 출옥 후 형독으로 죽었다.

(김석경, 현 94세 구술)

42. 이명기(李明基, 1881~?)

1881년 탑동에서 출생하여(현 동두천시) 농사에 종사하다가 의병에 투신하였다. 1907년 연기우(延基羽)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포천·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10년 일경에 잡혀 많은 고초를 겪었다.

(최홍용, 황준노, 이사묵 구술)

43. 김병원(金秉愿, 1882~?)

1882년 보산리에서(현 동두천시) 출생했다. 농업에 종사하다가 의병에 투신하여 활동하다가 1908년 김연성(金演性)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포천·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해 평생 반신을 못쓰는 불구로 세상을 마쳤다.

(이병하, 이덕형, 김석경 구술)

44. 이병하(李秉夏, 1873~?)

1873년 탑동 조산(造山)마을(현 동두천시)에서 태어났다. 농사에 전념하다가 1908년 정용대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포천·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10년 일경에 잡혀 모진 악형으로 고문을 당해 불구가 되어 출옥하여 고초로 생을 마쳤다.

45. 김병시(金秉姬, 1891~?)

1891년 보산리에서(현 동두천시) 출생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다가 1908년 젊은 나이로 종질(從姪)인 김연성(金演性)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포천·적성 등지에서 전목기·유재만 지사들과 같이 투쟁을 전개하는 등 경기북부의 의병 운동이 지속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식량과 무기 등의 부족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김석경 구술)

제6절 현대

1. 민병철(동두천시 상패동 출신)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은현면 단부 감찰계장으로서 부락 청년을 훈련시켜 남로당원들과의 투쟁에 나섰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하여 순국하였다.

2. 박제철(동두천시 생연2동 출신)

서북청년단 이담면 단장으로 한국전쟁 시 반공투쟁에 앞장섰다가 북한군에 체포되어 순국하였음. 이담면 면민장으로 장례를 치루었고 묘소는 하봉암리에 있다.

3. 신명선(동두천시 생연1동 122 출신)

한국전쟁 시 국가가 위태로워지자 어린 나이로 학도병에 지원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였다.

4. 엄복동(1892년(고종 29)~1951년)

경기인. 서울 출생. 선양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김씨(金氏)이다.

당시 자전거 판매상인 일미상회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중 1913년 4월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와 매일신보사(每日申報社)가 인천(12일)·용산(13일)·평양(27일) 등에서 공동주최한 '전조선 자전거 경기대회'에서 우승하였다.

특히, 27일 평양 역전광장에서 한국인 2명과 일본인 4명으로 실시된 조·일 일류 선수 연합경기에서는 엄복동과 황수복(黃壽福)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여, 당시 일제의 침략야욕 앞에 국운이 쇠퇴해가던 상황에서 국민들의 환호와 감격이 절정에 달하였다.

그 뒤 1922년 5월 31일부터 2일간 평양 윤업회(輪業會) 주최로 광성고등보통학교(光成高等普通學校)운동장에서 열린 '전조선 자전거 경기대회'에서도 일본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초까지 선수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말년에 극히 불우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후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 부근에서 떠돌이생활을 하던 중 6·25사변 당시 동두천 부근의 어느 야산에서 비행기 폭격으로 숨졌다.

5. 정지용(鄭芝溶, 1903~1951)

시인. 충청북도 옥천(沃川) 출생.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 영문과를 졸업하고 모교인 휘문고등보통학교 교사가 되었다. 8·15 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조선문학가동맹을 가까이 했으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정부 수립 후 전향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으나 6·25 때 월북하였다. 휘문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박팔양(朴八陽) 등과 동인지 『요람』을 발간했으며, 대학시절에는 전위적인 모더니즘의 실험성을 보여주는 《카페 프랑스》를 발표, 시단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 신선한 감각의 《바다》, 《향수》 등을 발표했으며 1930년대 《시문학》 동인으로 《이른 봄 아침》, 《선취(船醉)》, 《피리》 등을 발표하였다. 밑바탕에 무욕(無慾)의 철학이 깔린 그의 시는 대부분 사물시(physical poetry)로서 감각적 이미지와 토착어의 활용, 지성에 의한 감정의 절제 등이 돋보인다. 1930년대 전 후에 현대시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그의 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현대시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가톨릭청년』의 편집 고문을 맡아 이상(李箱)의 시들을 발표하게 하였으며 청록파 시인들을 추천, 등단시키는 등 후배시인들의 육성에도 힘썼다. 시집에 『정지용시집(1935)』, 『백록담(1941)』, 산문집으로는 『지용문학독본(1948)』, 『산문(1949)』이 있다.

한국전쟁 중 북한의 종군기자로 서울에 와 있다가 국군의 반격으로 후퇴하던 중 동두천 소요산에서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6. 차영환(동두천시 생연동 출신) 씨의 가족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은현면 단부의 간부로 활동하며 반 좌익투쟁에 앞장섰고 한국동란이 발발하자 국군에 지원,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직할 유격부대에서 활동하였다. 1951년 10월 3일 북한군 패잔병에 의하여 차영환의 일가족 8명이 사살되었는데, 당시 희생된 차영환의 가족은 다음과 같다.

성명	성별	차영환과의 관계	비고
김봉이(金鳳伊)	여	백모(伯母)	동두천시 생연2동 688번지
차삼봉(車三鳳)	남	부친	
김다견(金多見)	여	모친	
차영례(車英禮)	여	누나	
차진환(車辰煥)	남	동생	
차현환(車現煥)	남	동생	동두천시 생연2동 688번지
정옥순(鄭玉順)	여	부인	
차재창(車載昌)	남	아들	

제7절 자료

1. 역대 경기관찰사 명단

역대	성명	발령일시	역대	성명	발령일시
초대	장자충 (張子忠)	1393.03.23(태조2)	2	임구(林球)	1393.03.23(태조2)
3	하륜(河崙)	1393.09.13(태조2)	4	이빈(李彬)	1393.09.31(태조2)
5	성석린 (成石璘)	1399(정종1)	6	김희선(金希善)	1394.06.25 (태조3)
7	홍길민 (洪吉旼)	1395.06.01(태조4)	8	유정현(柳廷顯)	1404(태종4)
9	최이(崔迨)	1395.07.05(태조4)	10	오사충(吳思忠)	1396(태조5/內子)
11	박경(朴經)	1396.06.01(태조5)	12	노송(盧崇)	1398.07.08(태조7)
13	최유경 (崔有慶)	1398.07.08(태조7)	14	이정보(李廷輔)	1398.07.19(태조7)
15	한상경 (韓尙敬)	1399.07.26(정종1)	16	신개(申槩)	—
17	정훈(鄭渾)	1401.01.24(태종1)	18	유향(柳珦)	1401.01.24(태종1)
19	이원(李原)	1402.01.20(태종2)	20	현맹인(玄孟仁)	1402.06.08 (태종2)
21	이래(李來)	1403.05.16(태종3)	22	허응(許應)	1404.03.13(태종4)
23	노한(盧閑)	1404(태종4/甲申)	24	함부림(咸傅霖)	1405.07.08 (태종5)
25	전백영 (全伯英)	1406.03.28(태종6)	26	안노생(安魯生)	1407.08.16(태종7)
27	김미(金彌)	1409.11.28(태종9)	28	김천석(金天錫)	1411.06.09(태종11)
29	이상(李湘)	1411.06.17(태종11)	30	권완(權緩)	1411.12.07(태종11)
31	허주(許周)	1412.10.10(태종12)	32	이은(李殷)	1413.04.07 (태종13)
33	오승(吳陞)	1414.3.11(태종14)	34	황자후(黃子厚)	1414.12.13(태종14)
35	구종지(具宗之)	1414.12.13(태종14)	36	윤림(尹臨)	1415.07.27(태종15)
37	우희열(禹希烈)	1415.12.07(태종15)	38	김분(金汾)	1416.10.27(태종16)
39	이관(李灌)	1417.03.20(태종17)	40	심회(沈澮)	1463(세조9)

41	목진공(睦進恭)	1417.10.01(태종17)	42	김자지(金自知)	1417.12.03(태종17)
43	허조(許綽)	1418.03.02(태종18)	44	강회중(姜淮仲)	1418.07.08(태종18)
45	서선(徐選)	1418.09.12(세종0)	46	조치(曹致)	1419.10.28(세종1)
47	최사강(崔士康)	1420.03.16(세종2)	48	성엄(成揅)	1421.02.13(세종3)
49	이추(李抽)	1421.08.06(세종3)	50	최부(崔府)	1421.12.07(세종3)
51	이맹균(李孟均)	1422.12.13(세종4)	52	유사눌(柳思訥)	1423.12.11(세종5)
53	김겸(金謙)	1424.09.27(세종6)	54	심도원(沈道源)	1425.09.28(세종7)
55	조뢰(趙賈)	1426.10.04(세종8)	56	이호손(李孝孫)	1427.08.18(세종9)
57	유계문(柳季聞)	1428.10.12(세종10)	58	이명덕(李明德)	1428.12.17(세종10)
59	최사의(崔士儀)	1430.03.09(세종12)	60	민익생(閔義生)	1431.02.20(세종13)
61	김익정(金益精)	1431.02.25(세종13)	62	권도(權蹈)	1432.02.01(세종14)
63	남지(南智)	1432.09.18(세종14)	64	허성(許誠)	1433.12.06(세종15)
65	성개(成槩)	1434.10.30(세종16)	66	김맹성(金盟誠)	1435.10.17(세종17)
67	이사관(李士寬)	1437.08.26(세종19)	68	황치신(黃致身)	1438.08.13(세종20)
69	윤반(尹璠)	1439.06.29(세종21)	70	한확(韓確)	1439.07.06(세종21)
71	이명신(李明晨)	1440.07.12(세종22)	72	안송선(安崇善)	1440.07.12(세종22)
73	유수강(柳守剛)	1440.12.03(세종22)	74	윤형(尹炯)	1441.11.14(세종23)
75	정갑손(鄭甲孫)	1442.10.08(세종24)	76	이계린(李季隣)	1442.10.27(세종24)
77	이선(李宣)	1443.10.04(세종25)	78	허후(許瑬)	1444.05.09(세종26)
79	민신(閔伸)	1445.07.01(세종27)	80	김세민(金世敏)	1446.06.27(세종28)
81	조혜(趙惠)	1447.07.01(세종29)	82	박중림(朴仲林)	1447.12.26(세종31)
83	홍심(洪深)	1452.02.03(문종2)	84	안송효(安崇孝)	1454.06.27(단종2)
85	민건(閔騫)	1455.06.28(세조1)	86	이승손(李承孫)	1456.09.27(세조2)
87	신석조(辛碩祖)	1457.07.05(세조3)	88	김연지(金連枝)	1458.06.28(세조4)
89	민건(閔騫)	1459.07.03(세조5)	90	황효원(黃孝源)	1459.12.01(세조5)
91	이극배(李克培)	1461.01.24(세조7)	92	이석형(李石亨)	1461.09.27(세조7)
93	김종순(金從舜)	1462.08.07(세조8)	94	권 개(權 愷)	1463.07.06(세조9)
95	심선(沈璿)	1464.12.14(세조10)	96	최한경(崔漢卿)	1465.07.04(세조11)
97	윤자(尹慈)	1465.09.19(세조11)	98	김필(金璵)	1465.10.19(세조11)
99	이계전(李季專)	1467.03.27(세조13)	100	권맹희(權孟禧)	1468.04.03(세조14)
101	이훈(李塤)	1468.05.25(세조14)	102	성윤문(成允文)	1469.05.21(예종1)
103	김관(金權)	1470.06.05(성종1)	104	정유길(鄭惟吉)	1568(선조1)
105	어세공(魚世恭)	1471.05.25(성종2)	106	이철건(李鐵堅)	1471.06.30(성종2)
107	윤계겸(尹繼謙)	1472.06.17(성종3)	108	이극균(李克均)	1473.06.28(성종4)
109	윤근수(尹根壽)	1573(선조6)이후	110	김양경(金良敬)	1473.07.04(성종4)
111	윤흥(尹欽)	1474.10.22(성종5)	112	한치형(韓致亨)	1475.11.10(성종6)
113	이로(李輅)	1596(선조29)이후	114	이덕량(李德良)	1476.12.21(성종7)
115	박중선(朴仲善)	1477.12.21(성종8)	116	이계손(李繼孫)	1478.02.21(성종9)
117	윤호(尹豪)	1479.03.11(성종10)	118	이윤인(李尹仁)	1479.03.11(성종10)

119	여자신(呂自新)	1479.10.22(성종10)	120	김승경(金升卿)	1480.11.25(성종11)
121	장순효(張舜孝)	1481.04.10(성종12)	122	이길보(李吉甫)	1482.06.02(성종13)
123	김작(金碓)	1483.06.06(성종14)	124	성준(成俊)	1484.06.01(성종15)
125	이직언(李直彦)	1601(선조34)이후	126	어세겸(魚世謙)	1485.04.27(성종16)
127	성건(成健)	1486.05.20(성종17)	128	김종직(金宗直)	1487.05.23(성종18)
129	한한(韓僞)	1487.05.27(성종18)	130	이세우(李世佑)	1488.05.07(성종19)
131	박송질(朴崇質)	1489.05.18(성종20)	132	송영(宋瑛)	1490.05.18(성종21)
133	김제신(金悌臣)	1491.05.22(성종22)	134	이계동(李季全)	1492.06.15(성종23)
135	이세좌(李世佐)	1493.06.01(성종24)	136	신종호(申從濩)	1494.06.23(성종25)
137	이륙(李陸)	1495.07.02(연산1)	138	권경우(權景祐)	1497.01.04(연산3)
139	홍명원(洪命元)	1623(인조1)이후	140	강구손(姜龜孫)	1497.06.14(연산3)
141	김응기(金應箕)	1498.04.04(연산4)	142	정미수(鄭眉壽)	1499.04.05(연산5)
143	이집(李諱)	1500.05.10(연산6)	144	노공필(盧公弼)	1501.06.12(연산7)
145	허침(許琛)	1502.06.04(연산8)	146	김수동(金壽童)	1502.06.16(연산8)
147	홍귀달(洪貴達)	1503.03.08(연산9)	148	안윤덕(安潤德)	1504.03.13(연산10)
149	송질(宋軼)	1505.01.06(연산11)	150	박원종(朴元宗)	1506.02.09(연산12)
151	윤금손(尹金孫)	1506.09.06(중종1)	152	권균(權鈞)	1507.09.20(중종2)
153	유빈(柳濱)	1508.06.29(중종3)	154	이계맹(李啓孟)	1509.01.22(중종4)
155	이자건(李自健)	1510.02.24(중종5)	156	성몽정(成夢井)	1511.04.21(중종6)
157	이자견(李自堅)	1511.10.11(중종6)	158	이점(李沾)	1512.09.23(중종7)
159	정광세(鄭光世)	1512.09.28(중종7)	160	홍숙(洪淑)	1512.10.07(중종7)
161	이유청(李惟淸)	1513.03.06(중종8)	162	임유겸(任由謙)	1514.03.21(중종9)
163	강훈(姜渾)	1515.04.14(중종10)	164	한형윤(韓亨允)	1516.05.02(중종11)
165	성세정(成世貞)	1516.08.06(중종11)	166	손주(孫澍)	1518.08.11(중종13)
167	한효원(韓效元)	1518.08.18(중종13)	168	이정기(李廷夔)	1664(현종5)
169	이자화(李自華)	1518.08.24(중종13)	170	윤은보(尹殷輔)	1520.07.29(중종15)
171	성운(成雲)	1520.11.16(중종15)	172	허광(許碻)	1521.12.17(중종16)
173	김당(金瑯)	1522.01.02(중종17)	174	손주(孫澍)	1523.01.26(중종18)
175	조옥곤(趙玉崑)	1523.07.14(중종18)	176	조순(趙舜)	1524.07.05(중종19)
177	신상(申鎬)	1525.08.10(중종20)	178	홍경림(洪景霖)	1526.07.11(중종21)
179	황맹헌(黃孟獻)	1527.07.29(중종22)	180	김극개(金克愷)	1528.08.12(중종23)
181	이수동(李壽童)	1529.04.21(중종24)	182	남세준(南世準)	1530.05.06(중종25)
183	채소권(蔡紹權)	1531.05.06(중종26)	184	유관(柳灌)	1532.05.01(중종27)
185	황사우(黃士祐)	1533.05.15(중종28)	186	홍언필(洪彦弼)	1534.03.22(중종29)
187	조정기(趙亭期)	1687(숙종13)이후	188	윤은필(尹殷弼)	1535.04.10(중종30)
189	오준(吳準)	1535.07.08(중종30)	190	김희설(金希說)	1537.01.02(중종32)
191	정옥형(丁玉亨)	1537.09.04(중종32)	192	상진(尙震)	1538.11.04(중종33)
193	김수성(金遂性)	1539.11.12(중종34)	194	신광한(申光漢)	1539.11.17(중종34)
195	정만중(鄭萬鐘)	1540.0404(중종35)	196	임백령(林百齡)	1540.12.21(중종35)

197	신거관(愼居寬)	1542.05.06(중종37)	198	이청(李清)	1543.02.15(중종38)
199	홍섬(洪暹)	1543.10.04(중종38)	200	김명윤(金明胤)	1543.10.17(중종39) 1554.11.18(명종9)
201	송기수(宋麒壽)	1545.11.10(명종0)	202	정유선(鄭惟善)	1546.11.26(명종1)
203	김인손(金麟孫)	1547.08.25(명종2)	204	남세건(南世健)	1548.08.02(명종3)
205	정언각(鄭彦愨)	1549.08.05(명종4)	206	채세영(蔡世英)	1550.07.13(명종5)
207	유진동(柳辰全)	1551.07.26(명종6)	208	권찬(權纘)	1553.03.15(명종8)
209	정대년(鄭大年)	1553.07.21(명종8)	210	성세장(成世章)	1554.08.12(명종9)
211	정응두(丁應斗)	1555.05.16(명종10)	212	이윤경(李潤慶)	1556.08.16(명종11)
213	이몽량(李夢亮)	1557.09.13(명종12)	214	원계검(元繼儉)	1558.08.24(명종13)
215	홍담(洪疊)	1558.11.01(명종13)	216	신희복(愼希復)	1560.09.18(명종15)
217	이감(李戡)	1560.11.06(명종15)	218	박필균(朴弼均)	1741(영조17)
219	심수경(沈守慶)	1561.10.08(명종16)	220	이언충(李彦忠)	1562.09.05(명종17)
221	심전(沈銓)	1563.09.06(명종18)	222	윤인서(尹仁恕)	1564.08.03(명종19)
223	남응운(南應雲)	1564.10.27(명종19)	224	유강(兪絳)	1564.11.26(명종19)
225	박계현(朴啓賢)	1566.10.08(명종21)	226	윤현(尹鉉)	1567.05.14(명종22)
227	송찬(宋贊)	1573.05.10(선조6)	228	이준민(李俊民)	1573.05.11(선조6)
229	강섬(姜暹)	1573.09.20(선조6)	230	박근원(朴謹元)	1576.09.13(선조9)
231	김순고(金舜皐)	1581.01.25(선조14)	232	정언신(鄭彦信)	1583.02.01(선조16)
233	이제민(李濟閔)	1584.01.22(선조17)	234	홍성민(洪聖民)	1585.04.01(선조18)
235	윤탁연(尹卓然)	1585.04.18(선조18)	236	김찬(金贊)	1587.09.18(선조20)
237	김명원(金命元)	1588.11.01(선조21)	238	권징(權徵)	1592.04.01(선조25)
239	심대(沈岱)	1592.07.25(선조25)	240	이정형(李廷馨)	1592.10.29(선조25)
241	이정암(李廷範)	1593.02.07(선조26)	242	성영(成泳)	1593.03.24(선조26)
243	유근(柳根)	1593.12.06(선조26)	244	황우한(黃佑漢)	1595.05.02(선조28)
245	유근(柳根)	1595.10.01(선조28)	246	송언신(宋言愼)	1596.06.16(선조29)
247	홍이상(洪履祥)	1596.11.21(선조29)	248	한준겸(韓浚謙)	1597.12.23(선조30)
249	유희서(柳熙緒)	1599.02.09(선조32)	250	김이원(金履元)	1599.03.11(선조32)
251	유영길(柳永吉)	1599.12.10(선조32)	252	한덕원(韓德遠)	1600.02.16(선조33)
253	남이신(南以信)	1600.09.13(선조33)	254	기자현(奇自獻)	1601.07.26(선조34)
255	심우승(沈友勝)	1601.10.05(선조34)	256	박동량(朴東亮)	1602.03.11(선조35)
257	강신(姜紳)	1603.08.22(선조36)	258	김수(金晬)	1603.12.17(선조36)
259	이(李)	1604.11.12(선조37)	260	이정구(李廷龜)	1605.01.14(선조38)
261	이재원(李載元)	1876(고종13)이후	262	이홍로(李弘老)	1606.01.01(선조39)
263	서성(徐渚)	1607.01.23(선조40)	264	노직(盧稷)	1608.01.04(선조41)
265	신흥(申欽)	1608.01.15(선조41)	266	심열(沈悅)	1608.04.01(광해0)
267	김신원(金信元)	1608.10.03(광해0)	268	윤형(尹洞)	1609.10.10(광해1)
269	이경함(李慶涵)	1610.01.04(광해2)	270	윤방(尹昉)	1610.03.09(광해2)
271	민몽룡(閔夢龍)	1611.08.18(광해3)	272	조탁(曹倬)	1612.11.07(광해4)

273	최유원(崔有源)	1613.10.25(광해5)	274	정사호(鄭賜湖)	1614.04.29(광해8)
275	노직(盧稷)	1615.05.07(광해7)	276	유희량(柳希亮)	1617.06.11(광해9)
277	안응형(安應亨)	1619.07.16(광해11)	278	정광성(鄭廣成)	1621.09.16(광해13)
279	박자흥(朴子興)	1622.12.28(광해14)	280	심열(沈悅)	1623.06.26(인조1)
281	이서(李曙)	1624.01.03(인조2)	282	한여직(韓汝漫)	1624.09.04(인조2)
283	권반(權盼)	1625.02.12(인조3)	284	이명(李溟)	1626.07.08(인조4)
285	권진기(權盡己)	1626.08.11(인조4)	286	이명(李溟)	1627.01.17(인조5)
287	남이웅(南以雄)	1627.11.13(인조5)	288	최명길(崔鳴吉)	1628.06.05(인조6)
289	남이공(南以恭)	1630.08.24(인조8)	290	이경직(李景稷)	1631.05.03(인조9)
291	김경징(金慶徵)	1632.11.22(인조10)	292	이성구(李聖求)	1633.04.13(인조11)
293	윤익립(尹毅立)	1634(인조12)	294	정백창(鄭百昌)	1635.06.18(인조13)
295	윤이지(尹貳之)	1635.08.29(인조13)	296	서경우(徐景雨)	1636.12.15(인조14)
297	여이징(呂爾徵)	1637.06.14(인조15)	298	서경우(徐景雨)	1637.08.23(인조15)
299	김남중(金南重)	1637.12.25(인조15)	300	이행원(李行遠)	1638.12.05(인조16)
301	허계(許啓)	1639.12.19(인조17)	302	박로(朴簾)	1640.07.24(인조18)
303	이필영(李必榮)	1641.07.23(인조19)	304	윤지(尹墀)	1643.01.21(인조21)
305	심연(沈演)	1643.12.22(인조21)	306	윤순지(尹順之)	1645.03.26(인조23)
307	한흥일(韓興一)	1646.04.01(인조24)	308	오준(吳竣)	1647.04.21(인조25)
309	유철(兪撤)	1644.10.26(인조25)	310	최래길(崔來吉)	1648.10.05(인조26)
311	남선(南銑)	1648.10.21(인조26)	312	허계(許啓)	1649.10.03(효종0)
313	최혜길(崔惠吉)	1649.11.08(효종0)	314	김광황(金光煌)	1650.10.18(효종1)
315	유철(兪撤)	1651.05.19(효종2)	316	오정일(吳挺一)	1651.10.04(효종2)
317	정지화(鄭致和)	1652.05.05(효종3)	318	송시길(宋時吉)	1653.02.07(효종4)
319	유철(兪撤)	1653.07.02(효종4)	320	정유성(鄭維城)	1653.07.08(효종4)
321	윤순지(尹順之)	1653.07.09(효종4)	322	조수익(趙壽益)	1653.12.26(효종4)
323	조계원(趙啓遠)	1654.12.19(효종5)	324	이시매(李時棣)	1655.09.14(효종6)
325	김좌명(金左明)	1657.07.05(효종8)	326	이일상(李一相)	1658.04.23(효종9)
327	오정일(吳挺一)	1659.07.04(현종0)	328	조형(趙珩)	1660.03.25(현종1)
329	유철(兪撤)	1660.08.01(현종1)	330	정지화(鄭知和)	1661.07.18(현종2)
331	박세모(朴世模)	1662.06.21(현종3)	332	오정일(吳挺一)	1663.05.19(현종4)
333	이행진(李行進)	1663.12.18(현종4)	334	이시매(李時棣)	1664.02.12(현종5)
335	남룡익(南龍翼)	1664.12.16(현종5)	336	김수흥(金壽興)	1664.12.21(현종5)
337	오정위(吳挺緯)	1666.01.24(현종7)	338	이경억(李慶億)	1667.03.29(현종8)
339	이경징(李慶徵)	1667.01.04(현종8)	340	장선호(張善湖)	1667.12.08(현종8)
341	강백년(姜栢年)	1668.05.19(현종9)	342	조한영(曹漢英)	1669.01.24(현종10)
343	남룡익(南龍翼)	1669.12.27(현종10)	344	임유후(任有後)	1672.03.09(현종13)
345	김우형(金字亨)	1672.03.20(현종13)	346	이준구(李俊壽)	1673.02.28(현종14)
347	홍처후(洪處厚)	1673.04.18(현종14)	348	이홍연(李弘淵)	1673.06.07(현종14)
349	심재(沈粹)	1674.04.04(현종15)	350	민기중(閔耆重)	1675.02.26(숙종1)

351	윤심(尹深)	1676.12.27(숙종1)	352	경취(慶取)	1676.12.11(숙종2)
353	권대재(權大載)	1677.12.11(숙종3)	354	오시복(吳始復)	1678.11.06(숙종4)
355	심재(沈梓)	1679.07.06(숙종5)	356	조사석(趙師錫)	1679.07.25(숙종5)
357	홍만용(洪萬容)	1680.04.27(숙종6)	358	이단하(李端夏)	1680.06.06(숙종6)
359	김우형(金字亨)	1680.08.04(숙종6)	360	최관(崔寬)	1681.02.02(숙종7)
361	정재희(鄭載禧)	1681.08.19(숙종7)	362	오두인(吳斗寅)	1682.07.17(숙종8)
363	이선(李選)	1683.03.05(숙종9)	364	김우석(金禹錫)	1683.06.13(숙종9)
365	이규령(李奎齡)	1684.05.15(숙종10)	366	박신규(朴信圭)	1685.11.17(숙종11)
367	윤이제(尹以濟)	1686.01.02(숙종12)	368	신익상(申翼相)	1686.10.29(숙종12)
369	이익(李翊)	1687.10.27(숙종13)	370	김덕원(金德源)	1688.01.10(숙종14)
371	신완(申玩)	1688.10.03(숙종14)	372	정유악(鄭維岳)	1689.03.25(숙종15)
373	이욱(李沃)	1689.07.29(숙종15)	374	목창명(睦昌明)	1690.04.26(숙종16)
375	권규(權珪)	1690.10.11(숙종16)	376	유명건(柳命堅)	1691.09.06(숙종17)
377	권해(權璿)	1692.01.26(숙종18)	378	심단(沈檀)	1693.07.24(숙종19)
379	정중휘(鄭重徽)	1694.05.19(숙종20)	380	김진규(金鎭龜)	1694.08.11(숙종20)
381	강현(姜覲)	1694.08.19(숙종20)	382	김재호(金載顙)	1695.02.25(숙종21)
383	윤진(尹楮)	1696.02.01(숙종22)	384	이언강(李彦綱)	1696.03.18(숙종22)
385	오도일(吳道一)	1697.01.06(숙종23)	386	이여(李畝)	1697.02.21(숙종23)
387	송창(宋昌)	1697.08.10(숙종23)	389	이징명(李徵明)	1698.08.07(숙종24)
389	조상우(趙相愚)	1699.02.16(숙종25)	390	조상우(趙相愚)	1701.01.25(숙종27)
391	서문유(徐文裕)	1701.02.18(숙종27)	392	이익수(李益壽)	1702.02.28(숙종28)
393	윤세기(尹世紀)	1703.02.11(숙종29)	394	홍수주(洪受疇)	1703.06.16(숙종29)
395	이사영(李思永)	1704.04.05(숙종30)	396	이세재(李世載)	1705.02.13(숙종31)
397	김우항(金字杭)	1706.01.10(숙종32)	398	박권(朴權)	1706.10.21(숙종32)
399	강현(姜覲)	1707.02.22(숙종33)	400	이건명(李健命)	1707.09.18(숙종33)
401	이언강(李彦綱)	1708.07.04(숙종34)	402	김연(金演)	1709.07.03(숙종35)
403	신임(申鉉)	1710.07.06(숙종36)	404	박필명(朴弼明)	1711.03.05(숙종37)
405	윤덕준(尹德駿)	1712.01.17(숙종38)	406	김만채(金萬采)	1712.08.20(숙종38)
407	홍만조(洪萬朝)	1713.01.06(숙종39)	408	정호(鄭濤)	1714.04.04(숙종40)
409	이선부(李善溥)	1714.08.20(숙종40)	410	최석항(崔錫恒)	1715.02.19(숙종41)
411	이만성(李晩成)	1716.02.14(숙종42)	412	유집일(兪集一)	1716.07.12(숙종42)
413	김흥경(金興慶)	1717.07.23(숙종43)	414	이선현(李宣顯)	1717.11.26(숙종43)
415	김연(金演)	1717.12.22(숙종43)	416	이태좌(李台佐)	1718.11.16(숙종44)
417	이택(李澤)	1718.12.12(숙종44)	418	이야(李堃)	1718.12.26(숙종44)
419	황일하(黃一夏)	1719.07.12(숙종45)	420	이광좌(李光佐)	1719.11.08(숙종45)
421	이조(李肇)	1719.12.07(숙종45)	422	유명웅(兪命雄)	1720.06.14(경종0)
423	이수(李藪)	1720.06.17(경종0)	424	심택헌(沈宅賢)	1721.05.29(경종1)
425	권업(權業)	1721.12.14(경종1)	426	권규(權珪)	1722.01.22(경종2)
427	박태항(朴泰恒)	1722.01.28(경종2)	428	조태억(趙泰億)	1722.03.13(경종2)

429	이정신(李廷薰)	1722.05.28(경종2)	430	이세최(李世最)	1723.05.07(경종3)
431	서명균(徐命均)	1724.04.08(경종4)	432	유명홍(兪命弘)	1725.03.07(영조1)
433	유교악(李橋岳)	1726.01.23(영조2)	434	권업(權澤)	1727.02.04(영조3)
435	유송(兪崇)	1727.02.04(영조3)	436	권이진(權以鎭)	1727.07.03(영조3)
437	남취명(南就明)	1727.08.07(영조3)	438	이정제(李廷濟)	1728.03.14(영조4)
439	조최수(趙最壽)	1729.03.27(영조5)	440	조상경(趙尙綱)	1730.02.04(영조6)
441	정형익(鄭亨益)	1731.03.07(영조7)	442	홍현보(洪鉉輔)	1731.10.18(영조7)
443	윤양래(尹陽來)	1732.07.29(영조8)	444	신방(申昉)	1733.06.11(영조9)
445	조명익(趙明翼)	1734.04.29(영조10)	446	심택현(沈宅賢)	1735.04.01(영조11)
447	이진순(李眞淳)	1735.07.25(영조11)	448	이종성(李宗城)	1736.09.01(영조12)
449	조석명(趙錫命)	1737.07.20(영조13)	450	서종급(徐宗級)	1738.06.24(영조14)
451	윤순(尹淳)	1738.05.10(영조14)	452	서종옥(徐宗玉)	1739.08.05(영조15)
453	정석오(鄭錫五)	1740.01.16(영조16)	454	이익정(李益炆)	1740.07.24(영조16)
455	이기진(李箕鎭)	1741.06.24(영조17)	456	윤룡(尹龍)	1741.11.17(영조17)
457	홍경보(洪景輔)	1741.12.07(영조17)	458	박문수(朴文秀)	1742.12.27(영조18)
459	신만(申晩)	1743.02.02(영조19)	460	유엄(柳嚴)	1743.05.20(영조19)
461	이기진(李箕鎭)	1744.07.02(영조20)	462	권적(權適)	1745.06.03(영조21)
463	서명구(徐命九)	1745.08.19(영조21)	464	이기진(李箕鎭)	1746.09.07(영조22)
465	이명곤(李命坤)	1746.12.24(영조22)	466	홍봉한(洪鳳漢)	1748.04.26(영조24)
467	김악로(金若魯)	1749.03.03(영조25)	468	이철보(李喆輔)	1749.08.24(영조25)
469	유복명(柳復明)	1750.04.14(영조26)	470	정휘량(鄭翬良)	1752.02.28(영조28)
471	김한철(金漢喆)	1752.03.28(영조28)	472	김상익(金尙翼)	1752.07.02(영조28)
473	이후(李厚)	1754.05.07(영조30)	474	심성진(沈星鎭)	1755.01.20(영조31)
475	민백상(閔百祥)	1755.02.18(영조31)	476	이종백(李宗白)	1755.05.09(영조31)
477	정광충(鄭光忠)	1756.08.17(영조32)	478	정홍순(鄭弘淳)	1756.09.25(영조32)
479	조돈(趙墩)	1757.12.16(영조33)	480	김치인(金致仁)	1759.01.21(영조35)
481	김상복(金相福)	1759.04.23(영조35)	482	윤급(尹汲)	1760.07.18(영조36)
483	채제공(蔡濟恭)	1760.12.07(영조36)	484	김시묵(金時默)	1761.10.07(영조37)
485	홍계희(洪啓禧)	1761.11.11(영조37)	486	이창의(李昌誼)	1761.12.23(영조37)
487	김기대(金器大)	1762.07.30(영조38)	488	홍낙성(洪樂性)	1763.02.19(영조39)
489	홍명한(洪明漢)	1763.07.04(영조39)	490	심성진(沈星鎭)	1763.07.22(영조39)
491	남태제(南泰齊)	1764.03.22(영조40)	492	원경순(元景淳)	1764.04.29(영조40)
493	이경우(李景祐)	1764.10.18(영조40)	494	홍인한(洪麟漢)	1765.12.06(영조41)
495	한광회(韓光會)	1766.07.23(영조42)	496	김종정(金種正)	1766.09.16(영조42)
497	남태제(南泰齊)	1767.07.13(영조43)	498	김화진(金華鎭)	1768.08.09(영조44)
499	조영진(趙榮進)	1770.02.26(영조46)	500	이중호(李重祐)	1770.07.16(영조46)
501	황경원(黃景源)	1771.09.10(영조47)	502	박상덕(朴相德)	1771.09.28(영조47)
503	서명응(徐命膺)	1771.10.17(영조47)	504	심수(沈繡)	1771.11.03(영조47)
505	홍인한(洪麟漢)	1772.06.28(영조48)	506	김상익(金相翊)	1772.09.17(영조48)

507	심수(沈繡)	1772.11.04(영조48)	508	김재순(金載順)	1773.11.13(영조49)
509	윤기동(尹耆東)	1775.03.01(영조51)	510	정광한(鄭光漢)	1776.06.01(정조0)
510	조시준(趙時俊)	1776.10.15(정조0)	512	김종수(金鍾秀)	1777.06.25(정조1)
513	권도(權導)	1777.08.16(정조1)	514	정상순(鄭尙淳)	1778.02.21(정조2)
515	정일상(鄭一祥)	1778.12.27(정조2)	516	정창성(鄭昌聖)	1779.03.11(정조3)
517	이명식(李明植)	1779.10.18(정조3)	518	정호인(鄭好仁)	1779.10.19(정조3)
519	이연상(李衍祥)	1780.01.25(정조4)	520	이진형(李鎭衡)	1780.06.14(정조4)
521	이형규(李亨逵)	1781.05.23(정조5)	522	심이지(沈頤之)	1783.06.17(정조7)
523	이재협(李在協)	1784.08.28(정조8)	524	김사목(金思穆)	1784.10.24(정조8)
525	서유방(徐有防)	1785.06.18(정조9)	526	홍수보(洪秀輔)	1788.05.25(정조12)
527	조정진(趙鼎鎭)	1788.09.06(정조12)	528	김사목(金思穆)	1790.03.14(정조14)
529	박종악(朴宗岳)	1790.09.04(정조14)	530	김희(金愷)	1790.09.07(정조14)
531	서정수(徐鼎修)	1790.12.15(정조14)	532	박우원(朴祐源)	1793.03.21(정조17)
533	정창순(鄭昌順)	1793.05.29(정조17)	534	서용보(徐龍輔)	1793.09.19(정조17)
535	심이지(沈頤之)	1795.10.21(정조19)	536	김문순(金文淳)	1795.11.04(정조19)
537	이면응(李冕膺)	1796.09.06(정조20)	538	이재학(李在學)	1797.03.03(정조21)
539	김사목(金思穆)	1799.06.04(정조23)	540	서정수(徐鼎修)	1799.09.17(정조23)
541	김면주(金勉柱)	1801.01.25(순조1)	542	이익운(李益運)	1801.02.04(순조1)
543	이조승(李祖承)	1801.04.19(순조1)	544	이시원(李始源)	1801.10.15(순조1)
545	서영보(徐榮輔)	1803.04.26(순조3)	546	김달순(金達淳)	1804.10.05(순조4)
547	서형수(徐澄修)	1805.06.29(순조5)	548	김이도(金履度)	1805.02.06(순조5)
549	김재창(金在昌)	1808.01.25(순조8)	550	권상신(權常愼)	1810.05.25(순조10)
551	이존수(李存秀)	1812.03.11(순조12)	552	박종훈(朴宗薰)	1814.06.12(순조14)
553	김노경(金魯敬)	1815.10.01(순조15)	554	이노익(李魯益)	1816.11.08(순조16)
555	홍우섭(洪遇燮)	1817.11.11(순조17)	556	이희순(李羲淳)	1819.02.29(순조19)
557	조종영(趙鐘永)	1819.04.02(순조19)	558	한금리(韓兢履)	1820.02.19(순조20)
559	이우재(李愚在)	1822.05.29(순조22)	560	박종기(朴宗琦)	1824.05.17(순조24)
561	서장보(徐長輔)	1826.01.29(순조26)	562	김겸(金謙)	1827.08.26(순조27)
563	이희준(李羲準)	1830.01.15(순조30)	564	정기선(鄭基善)	1832.12.20(순조32)
565	박기수(朴岐壽)	1833.08.03(순조33)	566	신재식(申在植)	1834.06.04(순조34)
567	김도희(金道喜)	1835.05.21(현종1)	568	이광정(李光正)	1837.01.24(현종3)
569	홍학연(洪學淵)	1838.04.11(현종4)	570	이규현(李奎鉉)	1840.03.18(현종6)
571	이악우(李若愚)	1842.04.06(현종8)	572	심익신(沈宜臣)	1843.10.08(현종9)
573	이계조(李啓朝)	1844.10.06(현종10)	574	김보근(金輔根)	1845.10.04(현종11)
575	이정신(李鼎臣)	1846.11.11(현종12)	576	김기만(金箕晩)	1848.07.03(현종14)
577	홍우철(洪祐喆)	1850.04.22(철종1)	578	이공익(李公翼)	1852.01.30(철종3)
579	조석우(曹錫雨)	1852.04.16(철종3)	580	서좌보(徐左輔)	1853.03.11(철종4)
581	이우(李垺)	1854.11.08(철종5)	582	이원명(李源命)	1855.10.26(철종6)
583	이진익(李晉翼)	1857.03.14(철종8)	584	김대근(金大根)	1857.12.24(철종8)

585	김병운(金炳雲)	1858.12.02(철종9)	586	조연창(趙然昌)	1860.04.27(철종11)
587	홍재철(洪在喆)	1860.12.10(철종11)	588	한정교(韓正敎)	1862.10.01(철종13)
589	조재응(趙在應)	1864.01.15(고종1)	590	유치선(俞致善)	1865.05.08(고종2)
591	이의익(李宜翼)	1866.12.02(고종3)	592	박영보(朴永輔)	1869.08.22(고종6)
593	김재현(金在顯)	1872.07.10(고종9)	594	정태호(鄭泰好)	1874.04.21(고종11)
595	민태호(閔台鎬)	1874.08.28(고종11)	596	김상현(金尙鉉)	1876.07.12(고종13)
597	윤자덕(尹滋惠)	1877.09.22(고종14)	598	조인희(趙寅熙)	1878.08.28(고종15)
599	김보현(金輔鉉)	1879.08.04(고종16)	600	조강하(趙康夏)	1882.06.06(고종19)
601	홍우창(洪祐昌)	1882.06.18(고종19)	602	김홍집(金弘集)	1882.10.24(고종19)
603	심상훈(沈相薰)	1884.09.03(고종21)	604	박재관(朴濟寬)	1885.03.04(고종22)
605	김명진(金明鎭)	1886.05.03(고종23)	606	오준영(吳俊泳)	1888.06.30(고종25)
607	조동면(趙東冕)	1889.06.20(고종26)	608	이헌직(李憲植)	1890.03.27(고종27)
609	조병식(趙秉式)	1891.03.13(고종28)	610	한장석(韓章錫)	1891.09.19(고종28)
611	민영규(閔泳奎)	1892.10.09(고종29)	612	이경직(李耕植)	1893.03.22(고종30)
613	김세기(金世基)	1893.11.15(고종30)	614	박기양(朴箕陽)	1893.11.19(고종30)
615	김규홍(金奎弘)	1893.11.29(고종30)	616	홍순형(洪淳馨)	1894.04.23(고종31)
617	신헌구(申獻求)	1894.08.19(고종31)	618	오익영(吳益泳)	1896.08.05(고종33)
619	민영기(閔泳綺)	1898.02.21(광무2)	620	김영덕(金永惠)	1898.04.07(광무2)
621	민영주(閔泳柱)	1899.07.20(광무3)	622	조종필(趙種弼)	1899.08.24(광무3)
623	이재극(李載克)	1900.07.09(광무4)	624	윤덕영(尹德榮)	1901.01.26(광무5)
625	윤태흥(尹泰興)	1901.03.15(광무5)	626	조중묵(趙重穆)	1901.06.04(광무5)
627	이근명(李根命)	1902.02.19(광무6)	628	정인승(鄭寅昇)	1903.01.19(광무7)
629	주석면(朱錫冕)	1903.08.16(광무7)	630	이근호(李根濤)	1904.03.31(광무8)
631	이근교(李根敎)	1904.04.27(광무8)	632	최익현(崔益鉉)	1905.02.17(광무9)
633	정주영(鄭周永)	1905.05.23(광무9)	634	이근홍(李根洪)	1906.02.21(광무10)
635	이지용(李址鎔)	1906.07.19(광무10)	636	민상호(閔商鎬)	1906.08.18(광무10)
637	성기운(成岐運)	1906.08.30(광무10)	636	최석민(崔錫敏)	1907.05.03(융희1)
639	이규환(李圭桓)	1907.08.09(융희1)	638	김사묵(金思默)	1908.06.11(융희2)

2. 일제하 경기도장관

역대	성명	발령	역대	성명	발령
초대	檜恒 直	1910	2	松永 武	1918
3	工藤 英	1921	4	時寶 秋	1923
5	米田 甚	1926	6	渡邊 忍	1930
7	松本 誠	1933	8	富永 文	1936
9	安井 誠	1937	10	甘蔗 義	1938
11	鈴木 壽	1940	12	高安 彦	1942

3.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역대	성명	취임일	역대	성명	취임일
초대	구자옥(具滋玉)	1946.02.15	2	이해익(李海益)	1950.11.23
3	김영기(金英基)	1952.09.12	4	이익흥(李益興)	1953.11.23
5	최헌길(崔獻吉)	1956.05.26	6	최문경(崔文卿)	1960.05.12
7	윤덕선(尹德善)	1960.10.07	8	신광균(申光均)	1960.12.29
9	박창원(朴昌源)	1961.05.24	10	이흥배(李興培)	1963.12.19
11	박태원(朴泰元)	1964.07	12	남봉진(南鳳振)	1968.09
13	김태경(金泰卿)	1971.06	14	손수익(孫守益)	1972.07
15	조병규(趙炳奎)	1973.01	16	손재식(孫在植)	1976.10
17	김주남(金周南)	1980.01	18	염보현(廉普鉉)	1980.09
19	김태호(金泰鎬)	1983.10	20	이해구(李海龜)	1984.10
21	김용래(金庸來)	1986.01	22	임사빈(任仕彬)	1987.12
23	이재창(李在昌)	1990.06	24	심재홍(沈載鴻)	1992.04
25	윤세달(尹世達)	1993.03	26	임경호(林敬鎬)	1994.03
27	김용선(金鎔善)	1994.12	28	이해재(李海載)	1995.02
29	이인제(李仁濟)	1995.07	30	임창렬(任昌烈)	1998.07
31	손학규(孫鶴圭)	2002.7.1	32	김문수(金文洙)	2006. 7. 1
32	김문수(金文洙)	2010. 7. 1			

4. 역대 양주목사 명단

- 조선시대 역대 양주 수령(지양주사, 양주부사, 양주도호부사, 양주목사, 양주군수)

역대	성명	발령일	역대	성명	발령일
초대	김대(온)(金對溫)	1392.06.16(태조1)	2	홍섭(洪涉)	1407.6.1(태종7)
3	이양(李楊)	1408.9.16(태종8)	4	이적(李漬)	1414.2.6(태종14)
5	전직(全直)	1419.12.5(세종1)	6	전직(全直)	1420.11.05(세종2)
7	홍리(洪理)	1421.2.13(세종3)	8	홍리(洪理)	1421.2.25(세종3)
9	이승직(李繩直)	1424.9.27(세종6)	10	권맹손(權孟孫)	1426.1.12(세종8)
11	송흥(宋興)	1430.4.21(세종12)	12	진중성(陳仲誠)	1430.8.10(세종12)
13	진중성(陳仲誠)	1433.9.27(세종15)	14	김종흥(金宗興)	1433.12.27(세종15)
15	안소지(安紹之)	1435.10.10(세종17)	16	안소지(安紹之)	1436.3.8(세종18)
17	이백상(李伯常)	1437.10.02(세종19)	18	이중(李重)	1440.10.1(세종22)
19	이중(李重)	1442.3.3(세종24)	20	민근(閔謹)	1446.8.19(세종28)
21	김진지(金震知)	1460.2.26(세조5)	22	경유근(慶由謹)	1462.2.29(세조7)
23	이효공(李孝恭)	1463.9.27(세조8)	24	홍의달(洪義達)	1468.2.12(세조13)
25	이원효(李元孝)	1470.2.6(예종1)	26	윤호(尹壕)	1471.3.1(성종2)
27	조지주(趙之周)	1475.7.1(성종6) 1478.1.16(성종9)	28	윤구산(尹龜山)	1482.04.17(성종13)
29	한천손(韓千孫)	1483.7.14(성종14)	30	안상계(安桑鷄)	1487.5.23(성종18)
31	안침(安琛)	1487.5.27(성종18)	32	이인문(李仁文)	1494.7.13(성종24)
33	홍빈(洪濱)	1494.11.26(성종25)	34	김휘(金暉)	1497.7.8(연산군3)
35	권인손(權仁孫)	1497.9.15(연산군3)	36	정건(鄭健)	1504.4.9(연산군10)
37	조금호(趙金虎)	1509.1.16(중종4)	38	김우(金祐)	1513.10.22(중종8)
39	이공달(李公達)	?(이문성묘갈명에 익거 추정)	40	이한원(李翰元)	1518.6.16(중종13)
41	한숙창(韓叔昌)	1520.10.22(중종15)	42	김극희(金克恢)	1524.6.16(중종19)
43	김세우(金世瑀)	1524.6.28(중종19)	44	홍신(洪愼)	1536.5.28(중종31)
45	김호(金瑚)	1536.8.14(중종31)	46	우사범(禹賜範)	1541.4.21(중종31)
47	전한(全翰)	1542.12.12(중종37)	48	변명윤(邊明胤)	1543.6.22(중종38)
49	김광진(金光軫)	1544.5.14(중종39)	50	유숙(淑)	1547.9.13(명종2)
51	백인영(白仁英)	1550.10.27(명종5)	52	윤옥(尹玉)	1555.11.12(명종10)
53	김약묵(金若默)	1557.5.19(명종12)	54	이문성(李文誠)	1558.추(명종13)
55	원호섭(元虎燮)	1561.8.4(명종16)	56	허세린(許世麟)	1564.2.28(명종19)
57	백인걸(白仁傑)	1567.1.9(명종22)	58	남언경(南彦經)	1573.8.27(선조6)
59	이제민(李齊閔)	1574.7.8(선조7)	60	이기(李璧)	1578.2.4(선조11)

61	고언백(高彦伯)	1592.7.1(선조25)	62	이민각(李民覺)	1595.2.15(선조28)
63	허흔(許昕)	1598.11.7(선조31)	64	박문영(朴文榮)	1599.10.23(선조32)
65	유대정(柳大禎)	1599.10.29(선조32)	66	윤수민(尹壽民)	1601.2.12(선조34)
67	김현성(金玄成)	1601.11.9(선조34)	68	윤경(尹暲)	1601.11.20(선조34)
69	여유길(呂裕吉)	1602.8.2(선조35)	70	이세온(李世溫)	1602.8.2(선조35)
71	윤의립(尹義立)	1602.8.027(선조35)	72	조존성(趙存性)	1603.6.19(선조36)
73	이정형(李廷馨)	1604.6.22(선조37)	74	정섭(鄭燮)	1605.10.28(선조38)
75	박경신(朴慶新)	1611.3.18(광해군3)	76	신응구(申應渠)	1611.8.18(광해군3)
77	이창정(李昌庭)	1616.1.15(광해군8)	78	허임(許任)	1617.2.12(광해군9)
79	이익빈(李翼賓)	1617.3.9(광해군9)	80	유순무(柳舜懋)	1618.5.04(광해군10)
81	이홍엽(李弘燁)	1619.5.7(광해군11)	82	박안례(朴安禮)	1623.3.14(광해군15)
83	이광영(李光英)	1624.1.17(인조2)	84	장신(張紳)	1624.9.04(인조2)
85	최유해(崔有海)	1629.2.13(인조7)	86	이시백(李時白)	1630.11.11(인조8)
87	신유(辛瞞)	1637.2.(인조15)	88	조박(趙璞)	1637.4.7(인조15)
89	정지우(鄭之羽)	1637.8.19(인조15)	90	이진경(李眞卿)	1637.8(인조15) 1639.1(인조17)
91	성하종(成夏宗)	1639.2(인조17)	92	배시량(裵時亮)	1640.6(인조18)
93	이일원(李一元)		94	이언척(李言惕)	1641.4/6(인조19)
95	이원(李浣)	1641.7(인조19)	96	조필달(趙必達)	1643.6.7(인조21)
97	이상원(李象元)	1644.4.16(인조22)	98	안몽이(安夢伊)	1645.1.2(인조23)
99	박경사(朴敬社)	1645.8.15(인조23)	100	안철(安澈)	
101	이준(李濬)	1646.2.12(인조24)	102	유념(柳諗)	1647.8.25(인조25)
103	윤형(尹珩)	1649.1.26(인조27)	104	이준양(李俊陽)	1649.1.27(인조27)
105	서상리(徐祥履)	1649.3.1(인조27)	106	이민수(李敏樹)	1651.2.10/6.9(효종2)
107	신속(申湑)	1651.6.23(효종2)	108	원두추(元斗樞)	1651.12.25(효종2)
109	이지형(李枝馨)	1654.12.26(효종5)	110	이원로(李元老)	1655.1.25(효종6)
111	성초객(成楚客)	1655.11(효종6)	112	정익(鄭楫)	1656.10/12(효종7)
113	홍위(洪葦)	1656.12(효종7)	114	남용익(南龍翼)	1657.6(효종8)
115	이광재(李光載)	1659.12(효종10)	116	권대운(權大運)	1660.3.6(현종1)
117	조구석(趙龜錫)	1661.4.5(현종2)	118	이한(李 閑)	한1662.7.6(현종3)
119	여증제(呂曾齊)	1662.8(현종3)	120	정박(鄭樸)	1662.10(현종3)
121	민희(閔熙)	1663.2(현종4)	122	김중일(金重鎰)	1663.10/11.5(현종4)
123	이유(李柚)	1663.10(현종4)	124	권집(權詰)	1664.3.25(현종5)

125	민진량(閔晉亮)	1664.7(현종5)	126	김소(金素)	1665.6(현종6)
127	심지명(沈之溟)	1665.8.25(현종6)	128	박정(朴挺)	1668.7(현종9)
129	박세성(朴世城)	1670.2(현종11)	130	오정위(吳挺緯)	1670.9.1(현종11)
131	이동직(李東植)	1671.1(현종12)	132	목내선(睦來善)	1671.2.11(현종12)
133	이원정(李元禎)	1671.7.24(현종12)	134	정시대(鄭始大)	1673.2.24(현종14)
135	정중휘(鄭重徽)	1674.4.7(현종15)	136	이단석(李端錫)	1674.9.19(현종15)
137	백서한(白瑞翰)	1677.2.12(숙종3)	138	이동로(李東老)	
139	임규(任奎)		140	황징(黃徵)	1679.4(숙종5)
141	목천성(穆天成)		142	이원구(李元龜)	
143	이유(李濡)	1682.2(숙종8)	144	이사영(李思永)	1683.12(숙종9)
145	조성보(趙聖輔)	1685.5.7(숙종11)	146	황윤(黃玠)	1686.9.20(숙종12)
147	민진장(閔鎭長)	1687.8(숙종13)	148	장시규(張是奎)	1687.10(숙종13)
149	최규서(崔奎瑞)	1688.6.25(숙종14)	150	권주(權儔)	1688.8(숙종14)
151	이이명(李頤命)	1689.1(숙종15)	152	이이순(李頤順)	1689.2.3(숙종15)
153	허지(許埈)	1689.1.5(숙종15)	154	남익훈(南益薰)	1689.5.25(숙종15)
155	이도원(李道源)	1690.3(숙종16)	156	원진택(元振澤)	1690.10(숙종16)
157	이형상(李衡祥)		158	이주징(李周徵)	
159	신회(申懷)	1694.5(숙종20)	160	윤취상(尹就商)	1694.윤5(숙종20)
161	홍숙(洪瀟)	1694.11.4(숙종20)	162	김성적(李盛迪)	1695.6.7(숙종21)
163	이정직(李廷稷)	1696.2.21(숙종22)	164	박신(朴紳)	1696.3.1(숙종22)
165	이세필(李世弼)	1697.8.8(숙종23)	166	송정규(宋廷圭)	1697.9.13(숙종23)
167	윤이도(尹以道)	1697.12.7(숙종23)	168	윤이복(尹以復)	1698.4.4(숙종24)
169	유성한(柳星漢)	1700.4.17(숙종26)	170	조태동(趙泰東)	1700.9(숙종26)
171	이희조(李禧朝)	1701.3(숙종27)	172	이홍조(李弘肇)	1701.8.4/11(숙종27)
173	이익수(李益壽)	1701.12.2(숙종27)	174	이중곡(李重哭)	1702.3.10(숙종28)
175	이민영(李敏英)	1702.7.13(숙종28)	176	이천근(李天根)	1703.7.12(숙종29)
177	윤지인(尹趾仁)	1704.5.16(숙종30)	178	김중삼(金重三)	1705.5.19(숙종31)
179	정재항(鄭載恒)	1706.7.18(숙종32)	180	박창한(朴昌漢)	1708.2.28(숙종34)
181	최창대(崔昌大)	1710.10(숙종36)	182	홍이도(洪以度)	1711.2/6.15(숙종37)
183	김일경(金一鏡)	1711.27(숙종37)	184	이조(李肇)	1712.5(숙종38)
185	권민(權愍)	1712.6.26(숙종38)	186	이진검(李眞儉)	1714.2.12(숙종40)
187	이정제(李廷濟)	1715.12.20(숙종41)	188	이횡(李弘)	1716.윤3.4(숙종42)
189	이삼(李森)	1717.1.17(숙종43)	190	홍계적(洪啓迪)	1717.12(숙종43)
191	조정만(趙正萬)	1718.1(숙종44)	192	이세상(李世詳)	1718.2(숙종44)
193	이정신(李正臣)	1718.9.3(숙종44)	194	이성조(李聖肇)	1719.4.12(숙종45)
195	이봉상(李鳳詳)	1720.2.7(숙종46)	196	신필현(申弼賢)	1720.9.1(숙종46)

197	이시번(李時蕃)	1721.4.26/10(경종1)	198	권중경(權重經)	1721.11.4(경종2)
199	이중술(李重述)	1723.4(경종3)	200	양정호(梁廷虎)	1723.12(경종3)
201	홍중주(洪重疇)	1725.3.1(영조1)	202	구성임(具聖任)	1727.윤3(영조3)
203	이징휴(李徵休)	1727.8(영조3)	204	유척기(兪拓基)	1728.3(영조4)
205	김협(金挾)	1728.5.25(영조4)	206	홍경보(洪景輔)	1729.2(영조5)
207	김호(金浩)	1729.8.8(영조5)	208	장태소(張泰紹)	1730.5.10(영조6)
209	홍덕망(洪德望)	1730.12.28(영조6)	210	이여적(李汝迪)	1731.12.24(영조7)
211	조경(趙敬)	1734.2(영조10)	212	유언적(兪彦迪)	1736.1(영조11)
213	김희로(金希魯)	1737.8(영조12)	214	신만(申晩)	1738.4(영조13)
215	유만중(柳萬重)	1739.2.29(영조14)	216	김도흠(金道洽)	1741.7.24(영조17)
217	조두수(趙斗壽)	1743.3.15(영조19)	218	이종백(李宗白)	1743.3.15(영조19)
219	윤급(尹汲)	1745.4(영조21)	220	김성로(金省魯)	1745.5(영조21)
221	홍봉한(洪鳳漢)	1746.2(영조22)	222	이중협(李重協)	1746.윤3/5.1(영조22)
223	정이검(鄭履儉)	1746.5(영조22)	224	정수송(鄭壽松)	1746.9(영조22)
225	민백행(閔百行)	1747.4/8(영조23)	226	구성필(具聖弼)	1747.8(영조23)
227	이익보(李益輔)	1748.6/10(영조24)	228	조돈(趙墩)	1748.10(영조24)
229	이의풍(李義豐)	1749.6(영조25)	230	김시희(金始禧)	1749.7.11(영조25)
231	조명겸(趙明儉)	1750.12(영조26)	232	원경순(元景淳)	1752.5(영조28)
233	임집(任 王集)	1753.6.2(영조29)	234	이장오(李章吾)	1754.6.27(영조30)
235	이봉상(李鳳祥)	1754.12.12(영조30)	236	안종규(安宗奎)	1755.1/2(영조31)
237	이중우(李重祐)	1755.4.6(영조31)	238	남태회(南泰會)	1756.5(영조32)
239	이익원(李翼元)	1757.2.1(영조33)	240	김시묵(金時默)	1758.2(영조34)
241	이지억(李之億)	1759.6.11(영조35)	242	이사관(李思觀)	1760.12.26(영조36)
243	홍준해(洪準海)	1762.7.7(영조38)	244	정광한(鄭光漢)	1762.12(영조38)
245	정익량(鄭益良)	1763.7(영조39)	246	이언형(李彦衡)	1763.12(영조39)
247	김상중(金尙重)	1764.2.11(영조40)	248	한광조(韓光肇)	1764.10(영조40)
249	이시중(李時中)	1766.7(영조42)	250	조중회(趙重晦)	1767.4(영조43)
251	박사눌(朴師訥)	1768.2(영조44)	252	정창성(鄭昌聖)	1769.2/5.4(영조45)
253	이윤성(李潤成)	1769.5(영조45)	254	김상택(金相澤)	1769.12(영조45)
255	윤면동(尹冕東)	1770.7(영조46)	256	이성규(李聖圭)	1771.4(영조47)
257	민백순(閔百順)	1771.9(영조47)	258	이득일(李得一)	1771.12(영조47)
259	이한응(李漢膺)	1772.8.1(영조48)	260	안종규(安宗奎)	1772.8.15(영조48)
261	이병징(李秉鼎)	1773.7(영조49)	262	홍찬해(洪贊海)	1775.2.18(영조51)
263	김하재(金夏材)	1775.9.18(영조51)	264	한정유(韓鼎裕)	1776.1(영조52)
265	김광묵(金光默)	1776.6.29(영조52)	266	홍익필(洪益弼)	1776.10(영조52)

267	정경순(鄭景淳)	1777.7(영조53)	268	엄숙(嚴瑤)	1778.2.20(영조54)
269	홍병찬(洪秉贊)	1778.2(영조54)	270	정존중(鄭存中)	1779.8(영조55)
271	조영진(趙英鎭)	1780.4.10(정조4)	272	김이주(金頤柱)	1780.9.28(정조4)
273	홍명호(洪明浩)	1780.12.25(정조4)	274	유언현(俞彦鉉)	1781.8.21(정조5)
275	임율(任崙)	1783.11.3(정조7)	276	김종수(金鍾秀)	1784.1.18(정조8)
277	이일증(李一曾)	1784.1.16(정조8)	278	윤행원(尹行元)	1786.윤7.26(정조10)
279	홍의영(洪義榮)	1787.6.11(정조11)	280	윤시동(尹蓍東)	1787.11.10(정조11)
281	박천행(朴天行)	1788.5.2(정조12)	282	임사철(林蓍喆)	1788.9.10(정조12)
283	이유경(李儒敬)	1789.10.19(정조13)	284	심진현(沈晉鉉)	1790.9.2(정조14)
285	윤행임(尹行任)	1791.8.9(정조15)	286	홍의영(洪義榮)	1792.1.4(정조16)
287	이민채(李敏采)	1792.윤4.16(정조16)	288	이동형(李東馨)	1793.4.23(정조17)
289	한광근(韓光近)	1794.10(정조18)	290	신헌조(申獻朝)	1795.8.(정조19)
291	채홍리(蔡弘履)	1796.12.21(정조20)	292	신봉조(申鳳朝)	1796.12.27(정조20)
293	오정원(吳鼎源)	1797.5(정조21)	294	김재익(金載翼)	1798.3(정조22)
295	이득제(李得濟)	1798.9(정조22)	296	서영보(徐榮輔)	1799.2(정조23)
297	당명길(唐命吉)	1800.2.24(정조24)	298	윤장렬(尹長烈)	1800.3(정조24)
299	신홍주(申鴻周)	1800.윤4(정조24)	300	김희(金熾)	1800.9(정조24)
301	유악주(兪岳柱)	1801.2.19(순조1)	302	이해우(李海愚)	1801.9.14(순조1)
303	김관주(金觀柱)	1801.12.18(순조1)	304	성정진(成鼎鎭)	1802.3.22(순조2)
305	김노충(金魯忠)	1802.12.13(순조2)	306	오의상(吳毅常)	1803.12.20(순조3)
307	안영(安榮)	1804.6(순조4)	308	홍희신(洪義臣)	1805.31.9(순조5)
309	김시근(金蓍根)	1806.2.24(순조6)	310	송면재(宋冕載)	1806.10.12(순조46)
311	안숙(安櫨)	1808.10.28(순조8)	312	이광익(李光翼)	1808.12(순조8)
313	민명혁(閔命爌)	1809.4(순조9)	314	서유망(徐有望)	1810.4(순조10)
315	김효건(金孝建)	1812.2.6(순조12)	316	홍희준(洪義俊)	1812.9.29(순조12)
317	박종경(朴宗慶)	1812.12.22(순조12)	318	김계온(金啓溫)	1813.11.13(순조13)
319	이장소(李章紹)	1814.3.22(순조14)	320	홍대연(洪大淵)	1814.4.16(순조14)
321	정학경(鄭學畊)	1815.6.10(순조15)	322	유경(柳畊)	1815.9.21(순조15)
323	이면구(李勉求)	1816.9.2(순조16)	324	김영(金英)	1817.4.12(순조17)
325	김양순(金陽淳)	1817.11.4(순조17)	326	박종형(朴宗珩)	1818.11.16(순조18)
327	한용의(韓用儀)	1819.6.1(순조19)	328	유상량(柳相亮)	1820.7.13(순조20)
329	조민화(趙民和)	1821.6.15(순조21)	330	조기(趙岐)	1822.7.26(순조22)
331	조경진(趙經鎭)	1822.12.1(순조22)	332	이종운(李種運)	1823.4.13(순조23)
333	이진연(李晉淵)	1823.11(순조23)	334	정조영(鄭祖榮)	1825.2.8(순조25)
335	서유구(徐有渠)	1826.7.26(순조26)	336	정기일(鄭基一)	1827.3.4(순조27)

337	박영원(朴永元)	1828.6.24(순조28)	338	이명운(李命運)	1829.7.11(순조29)
339	이철구(李鐵求)	1830.5.20(순조30)	340	김성연(金盛淵)	1831.1.7(순조31)
341	심영석(沈英錫)	1831.8.13(순조31)	342	유상필(柳相弼)	1832.윤9.9(순조32)
343	홍희조(洪義祖)	1833.9(순조33)	344	송상래(宋祥來)	
345	유기상(柳基常)	1835.5(현종)	346	민영훈(閔永勳)	1837.10.5(현종3)
347	윤의검(尹義儉)	1839.5.21(현종5)	348	서념순(徐念淳)	1839.7.29(현종5)
349	조함영(趙咸永)	1840.6.4(현종6)	350	백은진(白殷鎭)	1841.9.1(현종7)
351	서헌순(徐憲純)	1841.10.2(현종7)	352	서기순(徐耆純)	1842.5.2(현종8)
353	김수근(金洙根)	1844.1.18(현종10)	354	조석우(曹錫雨)	1845.8.16(현종11)
355	신석우(申錫愚)	1847.4.27(현종13)	356	이희경(李熙綱)	1848.7.20(현종14)
357	이경순(李景純)	1848.8.12(현종14)	358	김만근(金萬根)	1849.4.7(현종15)
359	김신근(金愼根)	1849.12.2(현종15)	360	이종병(李宗秉)	1850.12.24(철종1)
361	김한순(金漢淳)	1852.5.24(철종3)	362	김원식(金元植)	1853.12(철종4)
363	조계승(趙啓昇)	1855.3.5(철종6)	364	김영작(金永爵)	1855.11.6(철종6)
365	김양근(金穰根)	1856.6.2(철종7)	366	박상수(朴尙壽)	1856.9.17(철종7)
367	조규년(趙奎年)	1857.6.6(철종8)	368	신만휴(申萬休)	1859.6.28(철종10)
369	송태희(宋泰熙)	1860.2.1(철종11)	370	한계원(韓啓源)	1860.4.9(철종11)
371	조구해(趙龜夏)	1860.6.30(철종11)	372	서상지(徐相至)	1860.10.10(철종11)
373	조석원(曹錫元)	1861.3.3(철종12)	374	홍병수(洪秉壽)	1862.4.18(철종13)
375	최우형(崔遇亨)	1863.3.18(철종14)	376	황종현(黃種顯)	1863.6.12(철종14)
377	이정민(李鼎民)	1863.8.30(철종14)	378	성이호(成彝鎬)	1863.12.19(철종14)
379	임한수(林翰洙)	1864.3.29(고종1)	380	이봉의(李鳳儀)	1869.517(고종6)
381	김병우(金炳愚)	1871.8.8(고종8)	382	이철연(李喆淵)	1873.7.25(고종10)
383	정한조(鄭漢朝)	1874.2.7(고종11)	384	윤태경(尹泰經)	1874.7.4(고종11)
385	이희준(李熙準)	1875.2.17(고종12)	386	박선수(朴瑄壽)	1875.8.20(고종12)
387	신태운(申泰運)	1876.8.12(고종13)	388	신석년(申錫年)	1878.1.20(고종15)
389	이금주(李兢柱)	1880.1.24(고종17)	390	이태진(李泰鎭)	1882.5.10(고종19)
391	조영하(趙榮夏)	1882.11.17(고종19)	392	박정화(朴鼎和)	1883.11.13(고종20)
393	서형순(徐珩淳)	1884.10(고종21)	394	윤성진(尹成鎭)	1884.12.17(고종21)
395	심상한(沈相漢)	1885.4.21(고종22)	396	박희방(朴熙房)	1885.7.16(고종22)
397	임순헌(林淳憲)	1886.1.8(고종23)	398	서정순(徐正淳)	1886.4.13(고종23)
399	현재보(玄濟普)	1866.12.7(고종23)	400	이용원(李容元)	1887.3.29(고종24)
401	김철희(金喆熙)	1888.11.10(고종25)	402	이유인(李裕寅)	1890.1.25(고종27)
403	강윤(姜潤)	1892.2.23(고종29)	404	서병선(徐丙善)	1893.2.26(고종30)
405	황기연(黃耆淵)	1893.12.9(고종30)	406	임광호(任光鎬)	1895.3.4(고종32)

407	이두황(李斗璜)	1895.4.24(고종32)	408	신태휴(申泰休)	1895.7.17(고종32)
409	임원호(任原鎬)	1896.2.7(건양1)	410	조정구(趙鼎九)	1899.1.12(광무3)
411	홍태윤(洪泰潤)	2899.1.12(광무3)	412	노기돈(盧基敦)	1907
413	박영대(朴永大)	1908			

5. 선생 이름은 나타나지만 부임 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왕조실록』 등 전거문헌에도 관련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별도 명단

성명	생몰년	비고
윤담(尹譚)	미상	
안방경(安方慶)	1513~1569	
정응규(鄭應奎)	1531~?	
이한국(李憲國)	1525~1602	
황정욱(黃廷彧)	1532~1607	
윤인함(尹仁涵)	1531~1597	
박응천(朴應川)	? ~1581	
이경희(李慶禧)	1526~?	
이정암(李廷範)	1541~1600	1579 양주목사 부임
한수(韓修)	미상	
권봉(權鵬)	1537~?	
이충(李聰)	미상	
정복시(鄭復始)	1522~1595	
박점(朴漸)	1532~?	
홍훈(洪渾)	1541~1593	1592년 부임
유영길(劉永吉)	1538~1620	
안종도(安宗道)	1522~1600	
김복경(金復慶)	1555~?	
이흠(李洽)	1549~1608	
박익(朴宜)	미상	
임계영(任啓英)	1528~1597	1593년 이후 부임
남근(南瑾)	1556~1635	
조인징(趙仁澄)	미상	
윤명선(尹明善)	1547~1608	
권용중(權用中)	미상	

황락(黃洛)	1553~1620	
송응순(宋應詢)	1596~?	
유색(柳穡)	1561~1621	1606~1614년 사이에 부임
이성록(李成祿)	1559~?	
유덕신(柳德新)	미상	
김흥국(金興國)	1557~1623	1605년 부임
김식립(金植立)	미상	
신경식(申景植)	미상	
신경진(申景珍)	미상	
유순익(柳舜翼)	1559~1632	1624년 부임
정광경(鄭廣敬)	1586~1644	
이경식(李景奭)	1595~1671	1629년 부임
신득연(申得淵)	미상	
이유성(李惟聖)	미상	

6. 일제하 양주군수 명단

성명	재임기간	비고
고원식(高元植)	1911~1915	
강원달(康元達)	1916~1922	
송영환(宋榮煥)	1923~1926	
홍종국(洪種國)	1927~1930	
송문화(宋文華)	1931~1935	
원산수도(遠山秀道)	1936~1937	
조기행(趙箕行)	1938~1939	
가천의영(嘉川義英)	1940~1941	
삼산청오(森山淸吾)	1942~1943	
김정재(金正濟)	1943~1945	
김종규(金宗奎)	1945~1947	1945.3.25~1945.8.15

7. 양주군수 명단(광복 후에서 동두천시 승격까지)

역대	성명	재임기간
초대	김종규(金宗奎)	1945. 3. 25 ~ 1947. 3. 14
2	서병익(徐炳益)	1947. 3. 15 ~ 1953. 3. 14
3	이규복(李圭複)	1953. 3. 31 ~ 1953. 6. 27
4	이교원(李敎完)	1953. 6. 27 ~ 1954. 3. 16
5	남승희(南昇熙)	1954. 3. 16 ~ 1956. 7. 19
6	이기학(李起鶴)	1956. 7. 19 ~ 1957. 4. 8
7	이병연(李秉堧)	1957. 4. 23 ~ 1959. 10. 24
8	곽종석(郭琮錫)	1959. 10. 24 ~ 1960. 5. 23
9	이승화(李承和)	1960. 5. 23 ~ 1961. 6. 22
10	황석규(黃碩奎)	1961. 6. 22 ~ 1962. 4. 11
11	남영우(南永祐)	1962. 4. 11 ~ 1963. 3. 16
12	유문식(兪汶植)	1963. 3. 16 ~ 1965. 11. 10
13	이규선(李圭善)	1965. 11. 10 ~ 1966. 8. 21
14	김대근(金大根)	1966. 8. 22 ~ 1967. 8. 24
15	장용순(장용순)	1967. 8. 24 ~ 1969. 3. 2
16	이석봉(李碩峰)	1969. 3. 2 ~ 1971. 8. 17
17	민충근(閔忠根)	1971. 8. 21 ~ 1974. 3. 5
18	허 섭(許 燮)	1974. 3. 5 ~ 1976. 3. 31
19	김태수(金汰洙)	1976. 3. 31 ~ 1976. 8. 5
20	진만현(陳萬鉉)	1976. 8. 5 ~ 1978. 8. 2
21	강도희(姜道熙)	1978. 8. 2 ~ 1980. 2. 26
22	박창곤(朴昌坤)	1980. 2. 27 ~ 1980. 7. 31
23	백종민(白種旻)	1980. 8. 1 (이후 동두천시 시 승격 독립)

8. 일제강압기 역대 이담면장

역대	성명
초대	조규주(趙奎周)
2	홍기영(洪嗜泳)
3	이근하(李根夏)
4	신공우(申公雨)
5	어명례(魚命禮)

9. 대한민국 역대 이담면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초대	정완규(鄭完圭)	1945. 9. 1 ~ 1946. 4. 30
2	방태영(方台永)	1946. 5. 5 ~ 1947. 2. 28
3	이상익(李祥翼)	1947. 3. 5 ~ 1948. 3. 25
4	어명례(魚命禮)	1948. 3. 26 ~ 1951. 12. 22
5	이병하(李炳夏)	1951. 12. 23 ~ 1952. 11. 22
6	이기영(李基榮)	1952. 11. 23 ~ 1955. 1. 5
7	어명례(魚命禮)	1955. 1. 6 ~ 1959. 8. 12
8	양경환(梁璟煥)	1959. 8. 13 ~ 1960. 5. 12
9	도경원(都景原)	1960. 6. 24 ~ 1960. 11. 18
10	도경원(都景原)	1960. 12. 26 ~ 1961. 6. 25
11	이시철(李時澈)	1961. 6. 30 ~ 1962. 3. 21
12	차영환(車英煥)	1962. 4. 25 ~ 1962. 12. 31

10. 역대 동두천읍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초대	남상훈(南相薰)	1963. 1. 1 ~ 1966. 3. 31
2	백세기(白世基)	1966. 4. 1 ~ 1968. 3. 15
3	김양권(金洋權)	1968. 3. 16 ~ 1971. 5. 22
4	지덕운(池德雲)	1971. 6. 2 ~ 1973. 1. 23
5	윤달섭(尹達燮)	1973. 1. 24 ~ 1981. 6. 30

11. 역대 동두천시장(관선)

역대	성명	재임기간
1	김상호(金相鎬)	1981. 7. 1 ~ 1983. 4. 10 (1년 10월)
2	임석봉(任錫鳳)	1983. 4. 11 ~ 1983. 12. 26 (9월)
3	이헌원(李憲元)	1983. 12. 27 ~ 1985. 10. 06 (1년 10월)
4	김기형(金基亨)	1985. 10. 7 ~ 1986. 12. 23 (1년 3월)
5	김용선(金鎔善)	1986. 12. 24 ~ 1988. 2. 10 (1년 2월)
6	한세권(韓世權)	1988. 2. 11 ~ 1988. 6. 3 (4월)
7	유재천(柳在川)	1988. 6. 4 ~ 1989. 12. 26 (1년 7월)
8	최종구(崔鍾球)	1989. 12. 27 ~ 1991. 7. 15 (1년 7월)
9	백종민(白種旻)	1991. 7. 16 ~ 1992. 11. 18 (1년 4월)
10	방제환(方濟煥)	1992. 11. 19 ~ 1995. 3. 29 (2년 4월)
11	경의현(慶義顯)	1995. 4. 12 ~ 1995. 6. 30 (3월)

12. 역대 동두천시장 (민선)

역대	성명	재임기간
민선 1기 12대	방제환(方濟煥)	1995. 07. 01~1998. 06. 30 (3년)
민선 2기 13대	방제환(方濟煥)	1998. 07. 01~2002. 06. 30 (4년)
민선 3기 14대	최용수(崔龍秀)	2002. 07. 01~2006. 06. 30 (4년)
민선 4기 15대	최용수(崔龍秀)	2006. 07. 01~2007. 03. 05 (8월)
민선 4기 16대	오세창(吳世昌)	2007. 04. 25~2010. 06. 30 (3년)
민선 5기 17대	오세창(吳世昌)	2010. 07. 01~ 현재

13. 역대 부시장 명단 및 재임기간

역대	성명	재임기간
초대	이상건(李相乾)	1981. 07. 03 ~ 1983. 01. 31 (1년 7월)
2	최복인(崔福仁)	1983. 02. 01 ~ 1985. 01. 16 (1년 11월)
3	박두남(朴斗南)	1985. 01. 17 ~ 1986. 09. 17 (1년 8월)
4	한명진(韓明震)	1986. 09. 18 ~ 1987. 12. 31 (1년 4월)
5	남상훈(南相薰)	1988. 01. 01 ~ 1989. 01. 09 (1년)
6	진종희(秦宗熙)	1989. 01. 10 ~ 1990. 01. 05 (1년)
7	박건양(朴建陽)	1990. 01. 06 ~ 1991. 01. 05 (1년)
8	정수룡(鄭秀龍)	1991. 01. 06 ~ 1992. 01. 05 (1년)
9	이성호(李星鎬)	1992. 01. 31 ~ 1994. 11. 12 (2년 10월)
10	임승춘(林承春)	1995. 01. 01 ~ 1995. 07. 28 (7월)
11	김규완(金圭完)	1995. 07. 29 ~ 1996. 06. 18 (11월)
12	장석인(張錫寅)	1996. 06. 19 ~ 1997. 06. 30 (1년)
13	윤영우(尹英友)	1997. 07. 09 ~ 1999. 08. 01 (2년)
14	한택수(韓澤洙)	1999. 08. 02 ~ 2000. 04. 20 (8월)
15	우병권(禹炳權)	2000. 04. 21 ~ 2000. 08. 13 (4월)
16	황치문(黃致文)	2000. 08. 14 ~ 2001. 06. 18 (10월)
17	이규웅(李圭雄)	2001. 06. 19 ~ 2002. 08. 15(1년 2월)
18	조병석(趙炳錫)	2002. 08. 16 ~ 2004. 02. 07(1년 5월)
19	박상국(朴相國)	2004. 02. 09 ~ 2005. 02. 10(1년)
20	이병기(李丙基)	2005. 02. 11 ~ 2007. 01. 21(1년 11월)

21	이종인(李鍾寅)	2007. 01. 22 ~ 2007. 12. 23(11개월)
22	김태한(金泰韓)	2007. 12. 24 ~ 2008. 12. 29(1년)
23	도윤호(陶允鎬)	2008. 12. 30 ~ 2009. 6. 30(6개월)
24	유인선(兪仁善)	2009. 07. 01 ~ 2011. 06. 26(2년)
25	이강석	2011. 06. 27 ~ 2012. 01. 05
26	임봉재	2012. 01. 06 ~ 현재

14. 동두천 출신의 각계 인사들

1) 정치

성명	경력
목요상	국회의원
이덕호	국회의원
김형광	국회의원
정범구	국회의원
강성종	국회의원
이희정	수원시의회의원
권기범	호주 노동당 스트라스필드지구 당대표
목영대	민주노동당 의정부지구당 대표

2) 행정

성명	기관명	직위
조병석	군포시청	부시장
양영숙	고양시청	문화관광담당
이봉하	구리시 농산물 센터	사장
이춘하	한국전력	과장
이스란	기획예산처	제1팀장
김영동	대전지방 기상청	서무과장
김대경	의정부시청	녹양동장
정명환	성남시청	재정경제국장
조경원	경인지역 고용관리센터	센터장
송계영	농촌지도소	소장
김광수	안양소방서	119구조대장

이종하	기상청	사무관
안영창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경영지도과장
최문용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
방인성	관세청 인천세관	외환조사과
황범순	중앙인사위원회	사무관
윤승노	지방공무원제도팀	사무관
박용걸	서초구청	위생계장
서동욱	법무부	서기관
오광일	쌍문세무서	
이재우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남	양주시 부시장	
유혜경	호주 재무부 공사	
조규응	안양시 전기공사	사장
정명환	성남시 분당구청	과장
노일석	의정부보호관찰소	사무관
김인규	육군본부	사무관
남재우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

3) 교육

성명	기관명	직위	비고
강신경	한북대학교	총장	신흥재단 창립자
강순경	보령여중,고등학교	(전) 교장	
김동석	김천대학교	교수	
강성애	김천대학교	총장	
강성화	신흥대학	사무처장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역임
원종구	동두천중, 고등학교	(전)교장, 설립자	
박찬혜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	(전) 교장	세종고등학교 교장 역임
홍경섭	동두천고등학교	(전) 교장	
김옥경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광희	전주대학교	교수	
목찬상	명지대학교	교수	
정화수	송내초등학교	교장	
남부희	강원대학교	교수	
김창환	중앙교육위원회	위원	
양금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유재춘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이정우	배재대학교	교수	
김관유	안산공과대학	교수	
김종길	강남대학교	교수	
이경원	대진대학교	교수	알바니아 명예총영사
오성찬	김천대학교	교수	
원동연	몽골국제대학, DID대학	총장, 이사장	
정기호	인하대학교	교수	
정광호	인하대학교	교수	
정완호	한국교원대학교	(전) 총장	
신희영	경주대학교	교수	
장현미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김관선	서남대학교	교수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수	
심화섭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동두천시의회 의원
박광서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권남석	안동정보대학	교수	
박통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강석	이강석어학원	원장	
홍병호	강남대학교	교수	
김광회	전주대학교	교수	
정병모	경주대학교	교수	
최봉이	우성산업대학교	교수	
홍진섭	국방대학원	교수	
호교순	상지대학교	교수	
윤수남	국방대학교	교수	
오성삼	건국대학교	교수	
이건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종찬	신구대학	교수	

4) 기업

성명	기관명	직위
김태형	한신공영	사장
허진	광림포장(주)	대표
목대상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목영빈	주물공장	사장
조규은	전기공사	사장

홍낙섭	계분사료	사장
이재호	삼원기원	사장
장세창	한림예식장	대표이사
차재경	조일밸브(주)	전무
경병하	한미은행	지점장
김선엽	(주) 빙그레	공장장
강인덕	(주) 국일프레스	대표이사
이병길	이병길특허법률사무소	소장, 변리사
노영국	대한항공	인도네시아지점장
장진호	(주) 진로	(전) 회장
박병재	영창약기	부회장
오명화	신진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이형철	(주) 부천수지	회장
이경묵	삼원여객	대표이사
이대창	현대자동차	경영전략팀장
이정우	을플랜건축사무소	건축사
홍병구	(주) 신천개발	부장
이준근	보고여행사	회장
박문순	대우통운	대표
장문구	대경산업	사장
목동균	스키마시스템즈	대표이사
홍정웅	(주) 명진	대표이사
최종철	청산김치	공장장
최창수	(주) 엠아이벨리	대표이사
김창덕	조이에너지	대표이사

5) 연구기관

성명	기관명	직위
황진봉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분석평가팀장
오성업	한국메리아스의류검사소	부장
김창식	(주) 삼원설비연구소	상무이사
이민규	현대자동차 연구실	차장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연구원
이복형	명원다도예절문화원	원장
이명수	동두천향토사학연구소	소장
김택기	동두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안국승	한북사학회	회장
윤준수	21세기지식경영연구소	소장

6) 법조

성명	기관명	직위
이현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오천	의정부지방법원 민사2부	판사
권종철	휘은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7) 군인

성명	기관명	직위
오운학	육군	중령
김용규	수도방위사령부	공병부장 대령
최종일	군단장	중장
이상현	육군대학	교수, 대령

8) 종교

성명	기관명	직위
황철중	홍은성결교회	목사
황재중	창현고등학교	교목
이기응	샘물성결교회	목사

9) 연예

성명	분야	활동지역	비고
남능미	탈렌트	한국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
유현상	록밴드 <백두산>		동두천초등학교
양세형	개그		동두천고등학교

정주리	개그	한국	동두천고등학교
박규선	개그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
양세찬	개그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
이병철	가수		
나 미	가수		
성대현	가수		그룹 <알이에프>
유민상	개그		KBS 개그콘서트
태양	가수		
윤수일	가수	한국	
박일준	가수		
윤미래	가수		
권지용	가수		
유상호	가수		
조용필	가수		
인순이	가수		
취 랩	래퍼		본명 김대룡
에이머리	가수	미국	

10) 체육인

성명	분야	비고
김두현	축구	국가대표
김동진	축구	국가대표
민영국	축구	
이유성	축구	
윤대근	축구	
하인즈 워드	미식축구	2009년의 전 미국 미식축구 MVP
이은정	프로골프	LPGA 우승
강수일	축구	인천유나이티드
양수진	프로골프	
원종일	야구	
최은경	쇼트트랙	
송재근	쇼트트랙	알베르빌동계올림픽 금메달
심용수	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코치
박해성	축구	청소년국가대표
이경남	축구	국가대표
유영록	축구	국가대표
이상철	축구	LG소속

조성남	축구	주택은행
임승근	축구	한국전력
양종길	축구	한국전력
최기락	축구	한국전력
송영호	축구	한국전력
정인철	축구	서울시청
강한상	축구	유공
안성남	축구	강원FC
김용두	빙상	국가대표팀 코치
김기홍	펜싱	장애인올림픽 금메달
이유미	펜싱	장애인올림픽 동메달
장동신	펜싱	장애인올림픽 은메달

11) 예술인

성명	분야	비고
이만재	서예	
강간남	서예	
이호석	화가	
손종길	행위예술	
김옥심	국악	(고인) 지행동 출신의 명창

제35장

금석문

- 제 1 절 신응구 묘갈명(申膺渠 墓碣銘)
- 제 2 절 정명호 묘지명(鄭明湖 墓誌銘)
- 제 3 절 신랑 묘비명(申澆 墓碑銘)
- 제 4 절 조종저 묘지명(趙宗著 墓誌銘)
- 제 5 절 박수소 묘갈명(朴守素 墓碣銘)
- 제 6 절 박주 묘갈명(朴綯 墓碣銘)
- 제 7 절 정석조 묘갈명(鄭錫祚 墓碣銘)
- 제 8 절 신벌 묘갈명(申撥 墓碣銘)
- 제 9 절 이지운 묘표(李祉運 墓表)
- 제10절 이세근 묘갈명(李世瑾 墓碣銘)
- 제11절 목행선 묘갈명(睦行善 墓碣銘)
- 제12절 김충렬 묘갈명(金忠烈 墓碣銘)
- 제13절 김협 묘갈명(金鉞 墓碣銘)
- 제14절 조중려 묘갈명(趙重呂 墓碣銘)
- 제15절 이중경 묘음기(李重庚 墓陰記)
- 제16절 홍약 신도비명(洪約 神道碑銘)
- 제17절 정사호 신도비명(鄭賜湖 神道碑銘)
- 제18절 정이주 비명(鄭以周 碑銘)
- 제19절 정장공 신도비문(貞莊公 神道碑文)
- 제20절 방륜 신도비명(方輪 神道碑銘)
- 제21절 신용개 신도비(申用溉 神道碑)

DONGDUCHEON

HISTORY OF

路以公不畏強禦聽斷平明請仍之
 數服病辭移授掌隸院判決事出拜
 臺爲同副承旨序陞左副在職啓翌
 悉罷偏勲公始改正勲封除授刑曹

字之時屢辭不授略爲之叙而
 於逝者今也永川君復申前請
 門上哭尚有餘帑金石之託每
 百有餘年不惟喜公之知我我

年久之拜忠州牧使以親老陳疏乞
明年秋拜朔寧郡守庚戌中朝有須
官思公以師傳薦勞特授通政上救
皆鑿鑿可行拜工曹叅議亡何又出
陞嘉善封靈川君初崔有源等告王
廷事甚暗昧欲引公恥之屢疏請削
遺子書曰吾死後若勲名猶在以責
有司痛辭官庀以明吾意否者使余
不壤也癸丑州有殺人者借勢權倖反
得捕賊公奮移公聯國家所待以立

權倖先自壞之國不亡何歟所謂權
膽廣蓄鷹犬噬害公迂耐問光海素
見釋叙為高陽郡守丙辰丁同知公
勲封甬瞻首發廢母論迂議靡然公

上以為彼此皆王民母改不得
至十月十二日卒壽七十有一
臨筵每以未及大用為恨以其
葬于揚州金村里先塋下申向
州吳氏合葬焉公凡三娶初娶
政金悌甲之女無子再娶振威
二女長女壻金就白無子早歿
時發生二男一女男慶徽司憲
安縣監女適縣監徐貞履吳夫
監後希文之女生一男一女男

家群女適某官李基祚側室一
李垌女生三男一女女長適別
某次某次幼公少負重名自待
果敏高論橫溢不肯舍己從

1981-2011

東豆川市30年史

제1절 신응구 묘갈명(申膺渠 墓碣銘)



申應渠(1553~1623)의 본관은 高靈으로 자는 子方, 호는 晩退軒이며,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별이다. 成渾과 李珥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82년(선조 15)에 사마시에 합격, 학문에만 정진하다가 천거로 벼슬길에 나갔다. 이후 형조정랑, 양주목사, 공조참의, 좌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門先生一見問其志大加稱賞期以達人又從業
谷先生周業一時勝流皆折行第與交以道義相
切□由是益有名庚辰餘部舉授內□泰奉不就
壬午中司馬自此謝絕公車不復應試提躬執行
從容養重不銜飾以衆人耳目再爲王子師傳皆
不久仕朝過擢用名行之士超叙六品授寧苑出
拜授山縣監有所不樂數月病辭四年除任寶縣
監庚寅棄歸三年拜成悅縣監又未久棄歸丁酉
遭世喪服除拜刑曹正郎移謫城廐尹出爲利川
府使壬寅先生爲慨正者所証被罪遂棄官歸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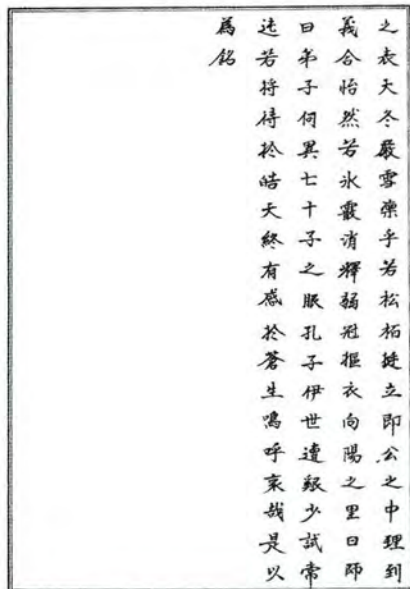
中應渠墓碣銘 金尚憲
成文簡公以傳家正學教授于牛溪之上成就弟
子亦易數至若庶幾如夫子所謂門人加親者惟
高實中公最先進公諱應渠字子方在議政文景
公用漉之使文景之父兩爲成吉道觀察使死即
李施愛之亂至孫如柱加平郡奇家廟失火冒入
臂帛不出朝廷拉其門觀察以下皆以忠孝傳廉
考諱樞以備良顯壽壽二品世一口稱厚德表者
登海平尹義樹女嘉靖癸丑生公天性方嚴自少
端緒已見雅同輩不數以狎進十八學于先生之

門屏居者六年久之拜忠州牧使以親老陳疏乞
 遣命換唐州明年秋拜朔寧郡守庚戌中朝有須
 詔慶普推百官思公以師傳薦勞特授通政上教
 與十條其言皆鑒鑒可行拜工曹恭議亡何又出
 為揚州牧使陞嘉善封靈川君初崔有源等告王
 子臨海君謀逆事甚暗昧欲引公和之屢疏請削
 已名不許乃遣子書曰吾死後若勲名猶在以責
 宅官即請命有司痛辭官庀以明吾意否者使余
 重獲罪於泉壤也癸丑州有殺人者借勢權倖反
 毆官吏禁不得捕賊公奮移公牒國家所待以立

者紀綱也今權倖先自壞之國不亡何歟所謂權
 倖即賊臣爾瞻廣蓋鷹犬喉舌公迂耐問光海素
 重公止奪職見釋叙為高陽郡守丙辰丁同知公
 憂服除例授勳封爾瞻首發廢母論迂議靡然公
 歎曰綱常絕矣天地開矣向所以遜個未去者只
 以老親故即上章辭職歸忠清道藍浦地屢召不
 就癸亥反正悉罷偶勳公始改正勳封除授刑曹
 參議俄入銀臺為同副承旨序陞左副在職啓翌
 弘多同列皆歎服病辭移授掌諫院判決事出拜
 春川府使言路以公不畏強禦聽斷平明請仍之

上以為彼此皆王民母改不得已遂行在官遺疾
 至十月十二日卒壽七十有一歲上追思不已
 臨筵每以未及大用為恨以其年十二月十一日
 葬于楊州金村里先塋下申向之原與淑夫人海
 州吳氏合葬焉公凡三娶初娶江原監司贈領議
 政金悌甲之女無子再娶振威縣令權大勳女生
 二女長女婿金就白無子早段次適刑曹判書李
 時發生二男一女男慶徽司憲府持平次慶德扶
 安縣監女適縣監徐貞履吳夫人贈領議政繕工
 監後希文之女生一男一女男澆永川郡守能嗣

家祥女適某官李基祚側室一男曰溪澆發某官
 李炯女生三男五女女長適別坐金光斌次某次
 某次某次幼公少負重名自待不淺蓋公之才識
 果敏高論橫溢必不肯舍己役人公亦自思大有
 顯見以行於世忌者與知者錯不能展素蘊有識
 莫不痛惜余與公幼壯同閭閱風慕風儀三世周旋
 百有餘年不惟喜公之知我我亦自以為知公暇
 門上哭尚有餘時金石之託每記咸言深恐有負
 於逝者今也永川君復申前請大書之年願非文
 字之時屢辭不獲略為之叙而仍係之銘曰望公



〈역문〉

성문간공이 집에 전하는 정학으로 우계상에서 교수하여 정취한 제자 바꾸지 않는 지극함이 이 같으니, 거의 공부자의 이른바 문인가친이라. 고령신공이 최선진이니 공의 휘는 응구, 자는 자방, 좌의정 문경공 용개의 후예라. 문경공의 아버지 면이 함길도관찰사가 되어 이시에난에 사절하고, 손자 여주에 이르러 가평군수가 되니, 가묘를 실화하고 답답한 바를 무릅쓰고 조정에 나가지 아니하여 정문을 세웠다.

관찰사 이하 충효로 전가하니, 아버지 발은 순양으로 나타나고, 수직으로 2품이 증직되어 세상이 다 후덕장장이라 하였다. 해평 윤의형의 딸과 혼인하여 계축년(1553)에 공을 낳으니, 천성이 방엄하고 어려서부터 단정하여 동배들이 감히 누르지 못하였다. 18세에 선생의 문하에 배우니, 선생이 한 번 그 뜻이 큼을 보고 칭찬을 더하고 후일 큰일을 기약하며 또 율곡 선생조차 수업하니, 한때 성류가 다 도의로 사귀어 더욱 이름이 있었다. 경진년(1580) 전부내침 참봉을 나가지 아니하고, 임오년에 사마시 합격한 뒤로 다시 응시를 아니하고, 조용히 양중하더니 두 번 왕자사부가 되었으나 오랜 기간을 아니하였다.

조정이 명행지시를 뽑아 6품으로 장원(掌苑)에 제수하고 직산현감으로 부임

하였으나 퇴하고, 4년 뒤 임신헌감이 되고 3년 뒤 함열현감이 되었다가, 정유년(1597)에 모친상을 당하고 결복 후 형조정랑으로 한성서윤을 거쳐 이천부사로 나갔다. 임인년(1602)에 선생이 추정자의 무고로 죄목에 걸려 벼슬을 버리고 두문불출한 지 6년이 지나서 충주목사로 제수되었으나, 어버이 늙으심으로 상소하여 명을 빌었으나 광주(廣州)로 바꾸었다. 이듬해 가을 백관을 미루어 경보하는 조서가 있어 공의 사부 구로의 은공으로 통정을 특수하고, <구폐십조>를 올리니 그 말이 착착 가행되어 공조참의가 되고, 양주목사가 되어 영천군(靈川君) 가선대부에 승진되었다. 처음 최유원 등이 왕자 임해군 모역사건이 심히 암매하여 공론이 소중한 자를 끌어들이 후일에 편안할 계책으로 공훈록에 기록되어, 공이 여러 번 상소하여 나의 이름을 삭제하라 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유자서(遺子書)>를 쓰니 내가 죽은 뒤 만약 훈명이 있으면, 무덤까지 꾸밀 것이니 곧 유사에게 청하여 관비에 통사하고 나의 뜻을 밝히라. 그렇지 않으면 죽은 뒤에도 거듭 죄를 얻으리라. 계축년에 고을에 살인한 자가 권세를 빌리어 오히려 관리를 몰아내고 도적을 잡지 못하게 하니, 공이 분연이 공첩을 내어 국민이 믿고 사는 것은 기강이라. 지금 권세 있는 자 먼저 무너트리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권행은 곧 적신 아침이니 매와 개를 많이 길러 공정을 해롭히니, 공은 광해주의 소중으로 탈직됨을 알고 돌려 고양군수가 되었다. 병진년에 부친 동진공상을 당하고 3년 후 훈봉을 받게 되어 이침이 먼저 폐모론을 내니 조정이 미연이라. 공이 탄식하기를 강상이 끊어지고 천지가 닫혀 먼저 배회하며 가지 못한 것은 늙은 어버이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글을 올려 사직하고, 충청도 남포 땅으로 돌아가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아니하였다. 계해년 반정되니 위훈이 다 파하였다. 공이 처음 훈봉을 개정할 때 형조참의가 되었다가 은대에 들어가 동부승지가 되니 차례로는 좌부승지로 올라야 된다고 재직의 동열이 탄복하였다. 장예원 판결사로 옮겨 춘천부사가 되었다. 사람의 언로는 공으로 하고 강압을 두려워 아니하며 듣는 것은 공평함으로 끊어야 한다고, 상에게 올려 피차가 다 왕민이니 부득이 수행은 고치지 마소서. 관에서 병들어 10월 12일 졸하니 수가 71세라. 상이 추사하여 영연에서 크게 쓰지 못한 것이 한이라 하였다.

12월 11일 양주 금촌리 선영에 숙부인 해주 오씨와 합좌하였다. 공은 삼취하였으니, 초취 강원감사 증영의정 김제갑의 딸로 무자하였고, 재취 진위현령 권대훈의 딸로 두 딸을 두니 만사위 김취백은 무자조물하고, 둘째 사위 형조판서

이시발은 2남 1녀를 두니 아들 경휘는 사헌지평이 영천군수로 능히 가성을 잇고, 딸 이기조는 측실의 아들이라. 양이 이형의 딸을 취하여 3남 5녀를 두니, 큰딸은 별좌 김광식이요 다음은 어렸다.

공이 어려서 증명을 받고 스스로 기다리고 실천을 아니하니 대개 공의 재식이 과민하고 고담준론이 넘쳤다. 또한 스스로 크게 현달할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꺼리는 자와 아는 자 능히 쌓인 바를 펴지 못하니 아는 자 통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내공으로 더불어 한 동리에서 자라나 풍의를 사모 3대를 주선한 지 백여 년이라. 공이 자신을 아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나 역시 공의 침문에 곡소리 쟁쟁하여 금석지문의 부탁을 매양 기록하여 글을 지었으나 간 사람의 부탁을 저버릴까 깊이 두려워하여 이제 영천군이 다시 대질지년을 청한다 하고 문자하던 때가 아니라 대략 펴서 써 새기기를

공의 표석을 바라보니 큰 거울의 엄설이요,
 늠름하고 늠름하도다 소나무같고 잣나무같네.
 버티고 서 있는 모양은 곧 공의 중심이라.
 이치에 맞고 의가 합하면 얼음과 같고
 비가 흠어지고 구름 개이니 약관에 옷을 거두네.
 양을 향하는 마음 사부라 부르고 제자라 부르네.
 공자님 저 세상에서 70제자의 복이라
 어려움을 만나 시험보니 항상 머뭇거리었네
 흰 하늘에서 기다리고 창생을 느끼도다.
 슬프고 또 슬프다.

-의정부좌의정 김상헌(金尙憲) 지음

제2절 정명호 묘지명(鄭明湖 墓誌銘)



鄭明湖(1559~1585)의 본관은 光州로 자는 靜而이다. 아버지는 以周이며, 사호의 동생이다. 1580년(선조 13)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를 지냈으나, 문과에 급제한 지 5년만에 병으로 죽었다. 후에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묘지명은 선조 대의 명신 이항복이 지었다.

以訖告蓋得年二十七余私惟曰是前處其前事
一何神耶後十六年遇交道其事其人曰大夫不
惟文思有水湧之遠天文地理醫藥諸技無不精
妙尤遠於陰陽家嘗在槐院余歷舉同僚以問則
愀然曰俱非遠器任君不過一月李耶得令終幸
矣惟尹君僅頂王我亦不能過三十後二十二年
任君果遺疾天又後五年渠繼殞又後八年李君
有罪杖死又六年尹以承育遊言一出口如哭數
而燭照茲非所謂神耶余聞而益驚曰紀其少時
與公夜少中庭漫指星次略論天象公聞而悅之

鄭明湖墓誌銘
李恒福
歲乙酉春余以天曹郎政罷歸家有女奴來致其
主婦之命曰胤子明湖平居凡有所爲此曰李某
云何得一可否輒服膺而色洒如也今不幸新焉
在憂恤之中去拜期未一月越禮爲瘡病日臻幾
滅性矣未止人謹致草木之滋而持不可如賴大
之靈惠徵福於寡家得君子一言庶有以自解余
聞卽馳省執殯修左胸而曲臂之方方猶不曰曰
吾豈敢迷不悟也大命已窮豈在數日今從禮與
遠死等耳余不忍於吳也悵出門去越六日室老

自是往來講問始余知困俄相資以發藥既久則
顧乃就學而鋪鈍滯不進者多矣未踰年遂為一
世名蒙其穎脫刀解多觀此今去其殺二十有三
年其孤斗深以家狀來乞銘嗚呼吾尚忍銘吾君
也乎鄧出光州國初有諱龜晉以文鳴世而官至
江原道觀察使五世而有進士諱聚有文行隱居
照陽江上生諱以周文科為獻納有諱臣風仕至
民州牧使亦老於照陽江上生三子長賜湖今為
慶尚道觀察使次君字某生於嘉靖己未某月年
二十二登第選補承文院正字發司禁金士銘女

生一男即乞銘者與余善君疾痛謂人曰我命在
今年二月儻冀天假以少延耶然教奇矣吾其休
矣一日晨興正衣冠為文以舒情甚悲遂臥不復
言而逝今葬在楊州唐又山下銘曰
執賦之重而施之當若新舉也而中瑣唐又尉其
墓靈從先人而受祉

〈역문〉

을유년(1585) 봄에 내 천조랑으로 사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계집종이 그 주부의 명을 전해 말해 말하기를, 아들 명호(明湖)가 평상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이 아무의 옳고 그른 것을 얻어 복응하여 얼굴빛이 쇤연하더니 불행히 아버지상을 당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던 중 3년 상을 맞이하고 너무 슬퍼하여 여위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되어 이 어미 삼가 초목의 명약으로 다스리나 하늘의 영험을 힘입지 못하고 이 집의 복을 받지 못하오니 군자의 한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풀리리다. 내 이 말을 듣고 곧 달려가 포를 가지고 왼쪽 가슴을 만지며 만방으로 간곡히 말하였으나 오히려 들리지 아니하여 내 어찌 어두워 깨닫지 못하리요마는 나의 명이 몇 날 남지 않았다. 이제 예를 좇아 죽을 따름이라 하여 내 이때 슬픔을 참지 못하고 문을 나와 6일 후에 집 늙은이 부고하니 겨우 나이 27세라. 내 먼저 지난 일이 귀신같이 앓을 괴이하게 여기노라. 공이 죽은 후 16년에 친구를 만나 그 일을 이야기하니 그 사람이 가로되 장하고 장하도다. 오직 문사에만 샘물 솟듯 하는 것이 아니라 천무지리와 의약 모든 기술에 정묘하지 못한 것이 없고 더욱 음양가에 투철하다 하더라. 일찍이 괴원(槐院)에 있을 때에 내가 동료들을 열거하여 물은즉 추연해 가로되 다만, 그릇이 아니라 임군은 1개월을 지내지 못할 것이요, 이군은 영을 들고 죽으면 다행이요, 오직 윤군은

겨우 옥관자를 부칠 것ियो. 나도 또한 30을 지내지 못하리라 하더니 그후 20일에 임군은 과연 병에 걸려 죽어 그 말이 한결같이 수를 세어 촛불을 비춘 것 같으니, 이는 이른바 신이 아니고 무엇이랴. 내 듣고 더욱 놀라 인하여 소시에 지낸 일을 기록하노라. 하룻밤은 뜰에서 거닐며 부질없이 별을 가리키며 대략 천상을 의논하니 듣고 기뻐하여 이후로 자주 왕래하여 물어보는 지라 내 처음은 곤한 줄 알았더니 얼마 아니되어 쉽게 깨달아 임의 오라고 한즉 내가 오히려 둔채 하여 도리어 배울 것이 많았다. 몇 해가 지나지 아니하여 드디어 일세에 명가가 되니 그 영예하고 인해함이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세상을 뜬 지 2, 3년이라. 그 아들 두원이 가장을 가지고 와서 명을 청하니 슬프다. 내 차마 어찌 그대의 명을 쓰리요. 정씨 광주에서 나니 국초에 휘 구진은 문장으로 명세하여 벼슬은 강원도관찰사요, 5대에 진사 휘 경은 문행이 있어 소양강 위에 온거하고, 아들인 주는 문과하여 시간원 헌납으로 간신평(諫臣風)이 있어 정주목사로 있다가 또한 소양강 위에서 늙고 아들 3형제를 두니 장남 사호는 지금 경상도 관찰사요, 둘째 가군이니 자는 정이라. 명종 기미년(1559)에 나서 22세에 등과하여 승문원정자라. 사예 강릉 김사섬의 딸을 취하여 아들 하나를 낳으니 두원이라. 내가 군으로 더불어 좋아하였으니 병이 들어 사람에게 이르기를 나의 명이 급년 2월이라. 혹 하늘이 늦추어 주기를 바랄뿐이다. 그러나 수가 기이하니 나는 끝나리로다. 하루는 새벽에 나의 관을 정제하고 글을 써놓으니 말이 심히 슬픈지라. 드러누워 말을 아니하고 가니 양주 마차산 아래 장사지내다. 명하여 왈 누가 기품은 풍부하게 주고 인색하게 가져갔는고. 마루와 같이 쳐들어 놓고 중도에 쓰러지게 했네. 울연한 저 마차산은 그 영영을 저축해 두었으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을 따라 터를 받음이로다.

— 추충분의 평난충건정량갈성표절협책 호승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오성부 원군 이항복 지음

제3절 신량 묘비명(申澐 墓碑銘)



申澐 (1596~1663)의 본관은 高靈으로 자는 양지, 호는 湖隱이다. 아버지는 좌부승지 應 구이며, 어머니는 海州吳氏로 希文의 딸이다. 四山監役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공조좌랑, 태안 군수, 濟用監, 禮賓寺의 正을 지냈다. 저서로는 「호은집」이 있다.

旋□然若成人一部驚異無不噴古講遠仍寶以
大學書稍長爲文詞才格出人成滄浪文濟爲著
讀書七核以貽之咸童發解司馬早問彌彰狀已
務爲保重不以一執自多嘗赴戡屬草葉未及駕
日幾向晦公折卷置諸囊中有欲爲罵之竟不穩
聞者擊節知其非凡士也弱冠所與遊皆當時勝
流先輩如伯舅撤離公允謙玄軒中文貞公期許
允深天啓癸亥丁未承旨公憂厭除除四山監役
既而不仕使歷右水運判官漢城府參軍工曹佐
郎求禮縣監數歲葉旼時被經處難遂報公車葉

申澐碑銘
惟申氏籍于高靈遠有代序至本朝領議政諱叔
舟始大著辛謚文忠公及其孫諱用胤左議政謚
文景公勲業德望並載國史實公五世祖也曾祖
諱汝柱君守以孝放閑祖諱權同知中樞府事考
諱德讓左副承旨以學行名世世稱脫退先生妣
海州吳氏贈領議政諱希文之女公諱澐字說之
□號湖隱以萬曆二十五年丙申正月生幼則溫
粹聰穎見者稱以王人甫此從風王軒趙公守倫
學不善仰異趙公奇愛之會當試諸禮部誦習周

〈역문〉

신씨의 본관은 고령이니 여러 대(代)를 거쳐 내려와 본조에 이르러 영의정 숙주로 부터 비로소 크게 드러났다. 졸후의 시호는 문충공이다. 손자 용개는 좌의정으로 시호는 문경공이다. 훈업과 덕망이 국사에 실려 있으니 공의 5대조라. 증조 여주는 량효자 정문이 있고 군수이다. 조부 발은 등지증추부사요 부친 응구는 좌부승지이니 학행으로 명세하여 세칭 만퇴 선생이다. 어머니 해주 오씨는 증 영의정 희문의 딸이다. 공의 명은 량, 자는 양지, 호는 호은이라. 만력 병신년(1596) 정월생으로 어려서부터 온수총례하여 보는 자 재상감이라 하였다. 마침 시강을 당하여 예부에서 외우는 연습에 주선이 엄연하여 성인 같으니, 일부가 놀라고 칭찬않는 이가 없었다. 강이 끝나니 대학서를 주었다. 점점 자라 문사와 재격이 출인하여 창랑 공 성문준이 지으신 독서 7초를 주어 성동에 발해하니 진사영화라 하고 미창하며 힘써 보증하고, 한 재주가 스스로 많지 않다고 하며 일찍이 시속초고로 나가 미쳐 쓰지 못하여 날이 어두워지자 공이 책을 꺾어 전대에 두었다가 쓰고자 하나 마침내 듣지 않으니 듣는 자 칭찬하며 비범한 선비임을 알았다. 약관에 더불어 노는 자 다 당시 청류니, 선배 백구 추탄공 윤겸과 현현 신문정공으로 더욱 깊어 계해년(1623) 승지공 상을 당하고 복제 후에 사산감역이 되고, 우수운판관·한성부참군·공조좌랑·구례현감을 지내고 몇 해 후 병자호란이 끝나자 공이 남포전사에 우거하며, 다시 세상에 나올 뜻이 없었다. 조정에서 익위사익위·금산군수·호조정랑·태안군수를 제수하였으나 다 사직하고, 혹 관에 나갔으나 즐겁지 않은 것을 만난 것 같아 또한 중일이라. 그러나 항상 탄식해 가로되 내가 젊어서 고아 되어, 이에 증상으로 추양할 계획이었으니, 그렇지 않다면 어찌 처로를 돌아보리오 하니, 청음 김문정 공이 사랑하여 동전(이조)에 있을 때, 탁용하려다가 안되고, 효종 초에 이삼명 기덕을 조정에 두고 대성에 천거한다. 이르거늘 공이 듣고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이 또 나로서 세상을 속이고자 하느냐 하고 이후로 영천·안산·청송부사를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파해버렸다. 정유년은 이미 주갑이 지난 해라. 해주목사·담양부사를 제수하였으나 다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일찍이 윤공 순거에게 글을 보내 가로되 지금부터 문을 닫고 성남향에 있으니, 60년의 밝음도 어제가 그르다 하였으니 그 뜻을 볼 수 있다. 군기시·제용감·예빈시 제정을 다 사양하였으나, 두 번 제용을 제수하거늘 또 탄식해 가로되

내가 70세가 임박하여 다시 관록을 하면 수치가 아니냐 하고 이에 병으로 사양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묘(1663) 8월 29일 졸하여, 양주 판곡리 승지공묘 하 부간지원에 장사지냈다. 부인 성주 이씨는 지중추부사 형의 딸이요, 충숙공 상길의 손녀이니, 충숙공이 깊이 사랑하던 손녀로 공에게 돌아와 열녀전을 좋아하고 공을 어김없이 섬기고 자녀를 법도로 가르쳐, 둘째 아들 익상이 귀하게 되어 공을 이조판서로 이씨를 정부인으로 증직되었다. 3남 5녀를 두었으니 필상은 주부, 익상은 부제학, 우상은 참봉, 여 김광식은 군수 구봉익, 이규명은 참판, 신종률은 좌랑, 권세경은 부사요, 내외손 10여 명이라. 공의 위인이 청명 단아하고 조리가 간정하며 어려서부터 가훈을 이어받아 동정에 함단하고, 마음을 가지고 몸을 삼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 아니하여 스스로 말하되, 아이일 때 친구가 얼음판에 들어가 손을 드리우니 한 어른이 불러 말하여 가로되, 단정이 손을 쫓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법이라 하여, 이로 인하여 살피고 깨달아 감히 소홀히 못하였다. 말년에 서울로 돌아와 방을 쓸고 떠드는 저자를 아니가고 정신을 화하게 하며 성품을 길러 항상 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좌우가 도사라 구부리고 우러러 스스로 즐기었다. 또 소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 학을 기르니 경계가 청정유연하여 산림에 취미와 높은 운치를 보고 내행을 도탐게 하고 효도와 우애를 갖추고 향사에 전심하며, 정성과 예를 다하여 50년을 하루같이 자매와 두 이 씨 부인과 더불어 손발 같이 살면서 주야로 화합하더니 죽어 장사지낼 때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 족당으로부터 우울하고 관에 있을 때 처사에 가까운 이름을 경계하니 이르니 곳이 다 은혜에 정치요 출처거취를 한결같이 의로 재판하며, 옳고 그른 것을 분석하고 착한 일을 들으면 몸에 있는 것과 다를 게 없고, 악한 일을 보면 서로 두려워하며 혹 심술이 사나운 자는 아프도록 물리침을 더욱 더하여 근심이 있을 때 민망한 풍속을 늠을 때까지 효유해 가로되 조정과 집의 기강이 문란하고, 사대부 염치가 상하면 그 나라가 어찌 나라가 될 수 있으랴! 모든 아들을 항상 훈계하고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배우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을 속여 끝까지 되는 일이 없느니라. 차자 익상이 등과할 때 기쁨을 감추며 더욱 힘써 성품이 산수간을 좋아하여 금강산을 유람하여 본래 계획을 상상하고 능히 못할 것은 머리 이끌고 천석에 당양하며 젊어서 고금에 시를 좋아하여 권석주 필과 이구원 춘원이 칭찬하였다. 평생을 일찍이 친구를 대하지 아니하여, 아는 자 항상 옳은 것이 적고 어진 사람이 멀어졌다. 공은 셋째 아버지의 친구이라, 내 또한 상

하에 한두 번 배알하여 조용한 가운데 마음으로 기쁘게 사모하였으나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나니 부제학의 청으로 사행을 대략 쓰고 이어서 명하여 왈 옛 성인이 말하되 배움이 몸을 위하는 것이다.

옳은 것을 반대하면 오직 선비의 부끄러움이라.

의여라! 호은이여, 일찍 옳은 방향을 들었도다.

그 있는 것은 크고, 나머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네.

세상이 과거를 귀하다하나 공은 스스로 취하지 않았네.

세상이 영화복록을 따르나 공은 스스로 두지 않았네.

몸을 삼가 행실을 닦으니 늙어서 떨어뜨리지 않네.

행동은 분명하여 움직임이 절차가 있네.

지키는 바는 분수요 분별하는 바는 뜻이라.

어찌 쉬는 선비뿐이리오. 이것을 군자라 이른다.

천마산 기슭에 공의 선영 장지를 쫓았네.

내명으로 후인에 고하니 백세를 우러르는 바라.

— 의정부 좌의정 박세채(朴世采) 지음

제4절 조종저 묘지명(趙宗著 墓誌銘)



趙宗著(1631~1690)의 본관은 漢陽으로 자는 聚叔, 호는 艮齋·南岳이다. 아버지는 홍문관 교리 重呂이며, 어머니는 지중추부사 申景珍의 딸이다. 1672년(인조 13) 별시문과 을과로 급제하였고, 병조좌랑, 사헌부지평, 성균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남악집』, 『간재신사』 등이 있다.

識 魏休川批曰平山申氏知中樞景珍之女判書
文節公錦之玄孫也以榮積四辛辛未先生少
德悟絕人七歲能屬文錫鼎先祖運川公爲履
之獎許甚庚子登國庠儒林大文字必歸於先生
如成李兩賢成祀宋三賢成祀啓聖廟 神德王
后祠廟諸疏多先生所撰云丁未漢人九十餘人
乘舟漂到耽羅朝議將執送燕京先生奮筆草疏
數十言極陳其不可仍具劄紙密論計策屬淹疾
伏桂使其子儀微投進喉可拒不納望而惡民之
蠶遂以民扁其背已而秋校堂蒙赦官以母憂去

趙宗著 墓誌銘 崔錫鼎
先生諱宗著字聚叔自號艮齋晚居終南下青鶴
洞復號南岳云漢陽之趙自勝國輝妣夫世遠祖
曰之壽余族中書生輝實城提管生良琪龍壽生
獻龍城君仍世有勲伐生仁璧龍源府院君以
太祖輝夫際興王之運遷居金即諡襄烈是生消
策國初佐命勲封漢平府院君官至右議政攝良
敬六世而至可憲府掌令諱應文先生之高祖也
曾祖曰榮男晏辛不仕祖曰幹儀賓府都事考曰
重昌弘文館校理贈史事參判能文章有至行高

壬子臘除復授其冬擢文科別試隄院陸典籍
移兵曹佐郎俄過侍請院司書時今上在春官
拘忌瘴瘧廢講者數月先生跪陳其不可請宮僚
宿齊進講 顯廟賜批嘉獎使之先生登建講說
剖析經旨問難史乘要以明發證靡不日中晏
世子願傾心焉退部擬先生諫憲官前後十數終
不迂蓋顯廟欲先生入於諸官也其明年陸文學
無如製教移拜司諫院正言以應制文許旨除慶
尚都事以守宰親嫌不赴拜司憲府持平 顯廟
禮部差行狀撰集即應移時省上新即位以初

喪廢經筵先生既陳冲年講學為急居喪廢讀書
非禮意仍撰進冲年龜鑑上便簽輟馬輿以衰
之又拜正言許旬告假民困於饑土北使車輟相
屬先生登請親履糧賜明年牛租上不叙于朝
憲及之兩歲所減殆數萬斛許民賴之乙卯春拜
兵曹正郎掌試湖西秋出福襄陽席弊如洗一境
騰頌御史以治家聞民刻石以思明年冬以弘文
館副修撰承召未至引疾辭適丁已憂除成均館
司執移獻納時金相圖壽典以故禮覓論經成有
敕命重臣方諸收回先生引避不與奪又掌試湖

南道拜獻納未久適自吳杜門北疾無仕宦意凡
拜修撰者五副修撰者三持平宗正者各一司成
者二皆梓不就庚申受始拜宗簿正移司成單實
正又入日班為副校理全官撰誣謗論遠之違
除司成及單實奉常司導詩寺獻納掌令執義等職
皆不赴退處廣政者七年蕭然以書史自娛丙寅
拜司諫疏論勸商賈者微服非直上下其議
廟堂遂發微布之命時知日以先生位過差池勸
其在京進取先生曰老少交惡儒林相聞禍解作
矣遂引疾辭適自吳某拜司諫執義司成並不起

餘曹如其確然無復出意授以淮陽府使先生謂
曰此錫可以報故夫佐民興學治如在衰時時廢
而大饑先生上疏請減奉大同又乞還京穀以救
上嘗從之方伯上疏請于朝己已奉命特陞通
政以襄之時時事繁劇先生已有提議意及咸亨
兩賢然文廟稱疾不即奉行得罪罷去淮民利金
石以志去思先生素患風竟以庚午正月四日卒
享年六十葬于楊川治北伊漢里即先大夫墓北
麓云先生娶安東金氏高麗名臣方慶之使司憲
所掌令恭基之女生三男儀徵文科前承旨次儀

鳳儀祥承旨娶都奇柳命才女有二男一女鎮福
鎮祿女適洪錫輔鳳儀前娶承旨尹彬女無子復
娶士人朴成翼女生一女儀祥娶士人呂必升女
生一男一女并幼先生天資和易與人詩由由然
而其守甚確若若憤憤不備而中甚嚴密少私本
中夫人志勸兩至事姑如事母事伯氏甚謹視諸
姪如其子宅心主於恕接物任其真其於編校割
微之論編校衣履之行非惟身不為見人有近是
者亦戲然不樂年未弱冠慨然有志於問學取四
子諸書焚讀窮研浚浦諸趙相國講貫沛翁許以

見辭超諸旋以痼疾中輟顧審好文書於書無所
不覽少嗜昌黎左氏既以貫穿百篇自關堂典常
以不朽事自期其於天才天得也詳則取載於轉
理則原本於朱馬章疏輒呈明劉必以指陳事情
開導主權為主真所謂經世之文也樂泉南相公
嘗病先生應舉文字句鉤絲及觀其散作古文及
章疏大異於切令遂心許為詩不主一格少作通
溫李之體晚攻五言古寄杜韓之獻若其近休則
白之訓也獲之逸也當代文壇鉅匠輩讓公一頭
地或曰給谷於文得法品澤堂得妙品達川得神

品而公之文亦可入於神品云篤論者可以取衷也所著詩文有南岳稿十數編良常新筍一卷藏于叢記性過人尤長於史傳揣摩情形根據義理要歸於宋用歷代沿革典故法律以至中國山川陰阻靡不掩貫通曉有沉鑒遠識指言時事久而愈微論度邊機敵勢注注縣斯奇中是不惟稽古之力然也竺典碑說亦皆搜攬領會兼除星命堪輿匠染諸家多所房通而未晉自多也其海人也隨才設教廣譬善誘使學者犁然有得雖初學杆格之類亦必諄，開導不少懈以故重蒙之成就

者甚多其治郡也廉以視身恪以莅事明以察奸至於為民興除利害孜孜如渴飢寬証蠲賦不事奇羨而勵饒充物區書處置不乖近效務為長遠慮雖以吏治名者聞先生理道軌矚為推服少患症發憚幾危者數沉淹床第數十年能操劄即宣李年神精強茂蓋其操養有方也方其在病以著書重渡為志細羅戎東君臣行事為野史屬筆而書未成平居穆然清坐終日有書未晉造詣於人性喜儉約於外物本身者隨遇而安所居樸塵滿布晏如也早有當世之志卷舒古今出入王伯毋欲

尊主威嚴明憲以振國綱立朝以來見違設不咸駿捷屢兆輒色舉達引或棲違郡符以自屏未克辰布其所蘊惜哉先生嘗謂不佞先祖遵川公當丙丁槍攘之時能主祀設以存宗社拒敵兵以扶大義合於古人之經權規先生丁未一疏非有諫官御史之言責者不顧主議者借怒抗論不已言雖不見用其所以樹民莫張義聲則大矣顧先生此疏與先祖扶義前渡一揆其心事議論見於著述深誤人必有知之者與錫鼎先君東岡之契許最深類古范張之遺先君不幸中身棄世先生

有絕艱之痛為其平日相約為傳請文於先生以銘其出先君沒後十年而吳先生余髮已蒼唐矣先生之胤承旨君授之狀俾誌先生之靈寔不願然而泮手記錫鼎年十三從先生受左氏傳且得聞讀書現史之甚法悉先生每讀書長吟徐嚼有餘味穗者忌其倦其誨人易寤而深喻得於言語之表亦以此念先生文執也師表也今於述墓之役義不敢以不能文辭謹叙次如右而詞以為之曰
謹若先生中乎其似有道方恍乎其若無營也數

〈역문〉

선생의 휘는 종저, 자는 경숙, 자호는 간재라. 종남하 청학동에 만거하여 다시 남악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양 조씨는 고려로부터 선면혁세하니 원조는 지수는 침의중서요, 휘는 쌍성총관, 양기는 습작이요, 돈은 용성군이니 대대로 훈별이요, 인벽은 용원부원군이니 태조의 제부로 돈거전절하고 시호 양열공이라, 연은 국초 좌명공신 한평부원군 우의정 양정공이요, 사헌부

장영 응문은 고조요, 증조 영남은 조졸불사하고, 조는 간이니 의빈부도사이며 고 증여는 홍문관교리로 증 이조참판이니 문장에 능하고 지행고식이 있고 호는 휴전이라. 어머니는 평산 신씨 지중추 경진의 딸이며 판서 윤절공 상의 현손이라. 인조 신미(1631)생이니 선생이 어려서 충오절인하여 7세에 능히 글을 지어서 나의 선조 지천공이 이끌어 가르치시니 경자(1660)에 성균관유림의 선생에게 돌아오니 성우계·이율곡 양현을 문묘에 모시고 송조 3현을 계승사에 모시며, 신덕왕후를 종묘에 모시게 한 글을 선생이 지었다고 한다. 정미년에 한인(漢人) 90여 명이 배를 타고 탐라에 표박하여 조정의 의론이 연경으로 집송한다 하여, 선생이 분연히 글 수천언을 초하여 극히 반대하고 별지 밀론계책을 갖추었더니, 그 아들의 징으로 진후사에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련한 양의 고혹이라 하여 간재라 편액 하였다. 기유년 가을에 동몽교관을 받고 모친상을 당하여 임자년에 복을 벗고 다시 받았다. 그해 겨울에 문과별시에 뽑히어 체과원전적에 오르고 병조좌랑·시강원사서로 옮겼으나 지금 상(숙종)이 춘궁에 있을 때 두창(痘瘡)을 꺼리어 강을 폐한 지 수월이라. 선생이 불가함을 상소하고, 궁요숙재에 강을 청하니 현종이 기꺼이 좇아 선생이 자리에 나가 경서의 뜻과 사기의 중요함을 강설하면 문득 종일토록 세자 자못 마음을 기울였다. 간현관을 가리어 전후 십수년을 옮기지 않음은 대개 현종이 선생을 강관으로 오래 있게 하고자 함이라. 다음해 문학 겸 지제교에 올라 사간원정언으로

復而自考芳不隨俗而晦明也樂草玄之却掃芳
 也惟江漢之相傾也昌厥諱而用老芳極百氏之精
 造方尚來古而傲之也

옮겨 글 지음을 응함으로 뜻을 거스려 경상도사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사헌부지평이 되니 현종이 예섭차행장찬집랑청을 기성에 옮기고 상이 새로 즉위하여 초상으로써 경연을 폐하니 선생이 상소하여 충년에 강학이 급하고 거상에 독서를 폐함은 예가 아니어서 충년귀감을 지어드리니 상이 수결하시고 말끝을 걷어 보창하며, 또 정언을 배하고 경기도의 주린 백성이 복토에 곤함을 고하니 이것은 장관들로 하여금 개탁케 하니 선생이 계로 청하여 재촉해주었다. 이듬해 반조로 주니 상이 존정에 의론하지 않고 다 쫓으니 두 해에 소감이 자못 수만가마니라, 백성이 탁감을 힘입었다. 을묘년 봄에 병조정랑으로 호서에 시험을 관장하고, 가을에 양양에 나가 묵은 폐단이 씻은 것 같으니, 일군이 어사에 등승하여 정치가 최고라 하고 돌에 새겨 생각하였다. 이듬해 겨울에 홍문관부수찬으로 부르거늘 병이 들어 사퇴하고, 정사년 여름에 나서 대신들이 돌아올 것을 청하였다. 또 호남에 시험을 관장하고, 현납이 되었다가 체직되니, 이로부터 두문불출하였다. 수찬을 다섯 번, 부수찬을 세 번, 지평·종점을 각각 한 번, 사성을 두 번 사양하였다. 경신년 여름에 종부정을 배하고 사성·군자정 또 부교리로 들어가 현납·장영·집의를 나가지 않고, 광릉에 퇴거한 지 7년 소연히 스스로 즐기고 병인년에 시간으로 훈신들의 곧지 않음을 상소하고, 때에 영서지방이 크게 주리어 선생이 상소하여 감할 것을 청하고 또 서울 곡식을 운반하여 구원할 것을 애걸하니 상이 다 허락하였다. 기사년 봄에 통정에 오르고 숙종 경오년(1690) 정월 4일 환풍으로 졸하니 향년 60세이라. 양주 북면 이담리에 장사지내니 선고묘 북쪽이라. 선생의 부인 안동 김씨는 고려 명신 방경의 후예로 사헌부장령 대기의 딸이라. 3남을 낳으니 의징은 문과 승지요, 의봉은 의상이며 승지 군수 류명재의 딸과 혼인하여 2남 1녀를 두었으니, 진희·진조라. 딸은 홍석보에게 출가하고 의봉은 승지 윤빈의 여식에게 초취하여 무자하고 사인 방성익의 딸을 재취하여 1녀를 두고, 의상이 사인 여필승의 딸을 취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선생은 천자온화하여 사람과 더불어 대화할 때, 유연함은 심히 확실하고 모양이 호탕하나 중심은 조밀하였다. 젊어서 부친이 별세하자 신씨 부인을 지물로 받드니 시모 섬기기를 어머니 같이 하고 백씨를 섬길 때 심히 삼가고 여러 조카 보기를 자식같이 하였다. 약관에 학문에 뜻이 있어 제자백가서를 숙독하고 연구하며 포저 조상국을 쫓아 강하며 한창 여 글을 즐겨보며 약천 남상국이 일찍 병들어 선생의 응거문자와 그 산작, 고문·장서를 보고 크게 다르게 여겼

다. 혹 왈 계곡의 글과 택당의 묘품과 지천의 신품을 얻었다고 하였다.

지은 시문 남악교 수십 편과 간재신사 1권을 집에 두었다. 역대 연혁과 전고 법률이며 중국산천에 협조를 관통치 않음이 없었다. 선생이 항상 나에게 이르 시기를 선조 지천공이 병정(丙丁)난에 능히 주화를 의론하여 종사를 맡아 장병을 막고 대의를 펼쳐 고인의 경관에 합하였다. 그리고 정미년에 상소하니 간판 어사의 책하는 자 있지 아니하며 불고주의자 시기하여 함론이 있어 말은 비록 쓰지 못하였으나, 백성에 뿔뿔한 의를 심어 그 소리가 컸으니 돌아 보건대 선생의 상소는 선조의 의를 받들고 한 가지라. 그 심사의론을 저술에 보이면 후인이 아는 자 있으리라. 석정선군동강에게 옛날 범장의 끼침과 같으나 불행 중 기세하시고, 선생이 절현지통이 있어 그 평일 상약하고 선생께서 그 유택에 명을 청하고, 선군이 물한 후 10년에 선생이 기세하여 선생의 아들 승지군이 지명을 지으라 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록하노라.

석정의 나이 열세 살 때 선생을 좇아 좌씨전을 받았고 또 독서하는 법을 들으니 글을 읽을 때 음을 길게 하고 천천히 씹어 여운이 있는 듯 한데 듣는 자는 그 게으름을 꺼려하고 그 가르치는 사람은 깨닫기 쉬워 깊이 옛말에 표를 터득하고, 또한 이 생각으로써 선생은 부집이며 사표이라. 이제 묘에 역을 지움에 의에 감히 글이 능하지 못하다며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오른쪽과 같이 펴고 이어서 명사하니 왈

선생이 충년에 그 도가 있는 것같고 경영은 없는 것같으나
감복하며 스스로 상고하여, 시속을 따라 어둡고 밝지 않았네
초현을 즐기어 문득 쓰레질하고 턱이 기우러짐을 웃고,
창궐한 말을 늙어서 씹이 여백대에 정기를 거두었네.
오직 가히 씹지 않는 것은 이름일세.
뒤에 죽는 자 그 지음이 있으니 오히려 옛일을 증명하리라.

- 의정부 영의정 최석정(崔錫鼎) 지음

제5절 박수소 묘갈명(朴守素 墓碣銘)



朴守素(1600~1669)의 본관은 密陽으로 자는 太素이며, 병조참판 魯의 아들이다. 부인은 해평윤씨로 선조때 영의정을 지낸 尹斗壽(1533~1601)의 손녀이며, 우찬성을 지낸 尹暉(1671~1644)의 딸이다. 관직은 刑曹佐郎, 奉化縣監 등을 역임하였는데, 관직은 비록 낮았지만, 문장으로는 당대에 이름을 날렸다.

朴守素 墓碣銘

密陽之朴世有顯仕有諱栗掌令 贈吏曹判書
生諱舜叙吏曹參判 贈判書大提學生諱等兵
曹參判夫人安東權氏 郡守暉女公諱守素字太
素生庚子卒己酉楊州道遠山北麓負牛之原其
壽藏也繕工監役引儀兼參軍中閒或罷或叙主
司渠濤判提司園郎金吾秋實再任監祭監禮山
奉化所履歷也績藝不成宜又不達超乎世巧者
當自過不待文也故入海平尹氏刊書 贈領相
暉女領相府院君斗壽孫女生己亥先公十年卒

葬從公左長房緒保升東以次附曾孫前縣監瑞
寶主祀繼子道儒次房紹升東琛繼子道溫李秀
繹昌東前郡守道愚道儒道琛道溫道泰東瑞
道胤道全璋道善緒翼東繼子琛四女婿正字李
周郡事晚聲參判鄭哲郡守重基進士重規文府
使鄭壽使女進士睦重信趙斗震元望亨望庶女
梁泉各自出也內外孫曾女不盡載

〈역문〉

밀양 박씨는 대대로 현달(顯達)하여 사환(仕宦) 자로는 올(栗)이 있으니 장령(掌令)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다. 이서(彝叙)를 낳으니 판서 대제학(判書大提學)에 증직되었고, 이 분이 휘 노(魯)를 낳으니 병조참판이다. 부인은 안동 권씨로 군수 엽(曄)의 따님이다.

공의 휘는 수소(守素)이며 자는 태소(太素)로 경자년(1600)에 출생하여 기유년(1669)에 돌아가시어 양주 소요산 북쪽 기슭 부오(負午)의 언덕에 장례지내니 공이 수장(壽藏: 살아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지기, 자신이 묻힐 무덤으로 수실(壽室) 또는 수가(壽家)라고도 함) 한 곳이다.

공은 선공감역(繕工監役)·인의 겸 참군(引儀兼參軍)을 역임하고 간혹 파직당하기도 하고 서용되기도 하면서 사도시 주부(司導寺主簿), 별제(別提), 사포랑(司圃郎), 금오(金吾), 추조(秋曹: 형조)를 재임(再任)하였으며 예산현감(禮山縣監)·봉화현감(奉化縣監) 등을 지냈다. 이것이 공이 역임한 관직이다.

공은 크게 빼어난 치적을 쌓지 못하였고, 관직 또한 세상에서 현달(顯達)하지 못하였지만 문장(文章)에 뛰어난 자들이 공의 문장에 접하여서는 감히 비교하지 못하였다. 부인은 해평 윤씨로 판서(判書) 증 영의정(贈領議政) 휘(暉)의 따님이며, 영상부원군(領相府院君) 두수(斗壽)의 손녀로 기해년(己亥年)에 출생하여 공보다 10년 먼저 돌아가시니 공의 왼쪽에 장례하였다. 장방(長房)은 주(胄)이며 손자는 승동(升東)으로 같은 장소에 차례대로 부장(附葬)되어 있다. 증손은 전현감(前縣監) 서(瑞)로 공의 제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도유(道儒)이다. 차방(次房)은 소(紹)요, 손자는 정동(井東)이며, 증손은 침(琛)이고, 그의 계자(繼子)는 도온(道溫)이다. 계방(季房)은 겸(謙)이요, 손자는 창동(昌東)이며 증손은 전군수 종(琮)이고, 그의 계자는 도우(道愚)와 도유(道儒)이다. 또 진(瑱)의 아들은 도순(道淳)과 도온(道溫)이다.

겸의 아들로는 또 태동(泰東)이 있으며, 그의 아들은 관(琯)이요, 손자는 도윤(道胤)과 도전(道全)이다. 태동의 아들로는 재(宰)와 빈(墳)이 있는데, 재의

아들은 도선(道善)이다. 검의 아들로는 또 익동(翼東)이 있으며 그의 계자는 굉(琕)이다. 공은 또 딸들을 두었는데 사위는 정자(正字) 이주(李周), 도사(都事) 만형(晩馨), 참판(參判) 정석(鄭晳)이며 군수(郡守) 중기(重基), 진사(進士) 중규(重規)는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府使)로 있는 정수준(鄭壽俊)의 딸의 소생이다. 진사 목중신(睦重信), 조두진(趙斗震) 그리고 원망(元望)과 형망(亨望)은 서녀(庶女)인 양창(梁)의 소생이다. 내외손(孫), 증녀(曾女)를 모두 다 기록할 수 없다.

제6절 박주 묘갈명(朴綰 墓碣銘)



박주(1623~1690)의 본관은 密陽으로 자는 君補로 박수소의 아들이다. 외조는 우찬성을 지낸 尹暉(1671~1644)이다. 일찍이 벼슬에 관심을 두지 않아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朴綰 墓碣銘

我朝世閱而才者類多鵬鯢龍變命舛者猶得以
吏事進以注則終者蓋鮮而公以名門賢胄簡整
有儀鳳著華譽膏油一帷巾衍常滿每就試已能
鳴者欽鋒推先指幾一二屈而身隕公車名福銓
刻文階一脚無以揭玄隨而標方來嗚呼其天也
公諱綰字君補考佐郎諱奇素祖叅判諱管曾祖
叅判贈刊書諱彝叙高祖掌令贈刊書諱秉外祖
刊書贈領相尹暉天啓癸亥十一月二十一日生
我肅廟庚午十月八日卒妣宗姓李氏判官尙

儉女縣監贈刊書璜修撰任奇正其内外祖也瑞
莊慈惠結髮偕老生先公一年二月二十二日歿
與公同年十一月十五日稍佐郎公墓下一男升
東亦順祔三世同兆自有表備戴子女令略之一
女適鄭氏早歿左旋甲龍午壘子向卯得士破
崇禎紀元僕再乙卯五月日立

〈역문〉

아조(我朝)에서는 세벌(世閥)로 재주있는 사람은 의례히 봉조(鵬鳥)가 찍히고 용이 움츠린듯한 자가 많았고, 명운이 기구한 자는 오히려 이사(吏事:行政事)로 진출하여 고초를 겪거나 형벌로 마친 자가 거의 없었는데 공은 명문(名文)의 현주(賢胄)로 간정(簡整)하고 풍의(風儀)가 있어 성화(聲華)가 일찍부터 드러났다.

등불과 휘장 속에 지내면서 건연(巾衍: 글을 지어서 담는 그릇)은 항상 가득하였다. 매양 시장(試場)에 나가면 이미 능하다고 이름이 난 사람도 붓을 거두고 공에게 선두(先頭)를 추양(推讓)하여 첫째나 둘째로 손가락을 꼽았는데 몸은 공거(公車: 科擧)에 미끄러지고 이름은 전염(詮炎, 이과거)에 빠져 문관 품계의 한 직함도 묘도에 걸어 장래에 표방할 수가 없으니 오호라! 이는 아마도 천운이었을 것이다.

공의 휘는 주(紉)주 자는 군보(君補)인데, 고(考)는 좌랑 수소(守素)요, 조고는 참판 휘 로(魯)이며, 증조는 참판에 증판서 휘 이서(彝敍)요, 고조는 장령 증판서 휘 울(栗)이며, 외조는 판서에 증영상 윤휘(尹暉)이다. 공은 천계(天啓) 계해(癸亥, 1623) 11월 21일에 낳아 숙종 경오(1690) 10월 8일에 졸하였다. 배위는 종성인 이씨로 판관(判官) 상검(尙儉)의 따님인데 현감 증판서 진(璘)과 수찬 임수정(林守正)은 내·외조이다.

단장(端裝) 자혜(慈惠)하여 공과 결발해로(結髮偕老)하였는데 공보다 1년 전이 2월 22일에 낳아 공과 한해인 11월 15일에 몰하여 좌랑공의 묘하에 공과 합장하였다. 외아들 승동(升東)도 차례로 계하에 묻히니 3세가 동조(同兆)인 셈으로 묘표가 있어 자녀를 모두 실었으니 여기에는 약한다. 1녀는 정씨가(鄭氏家)에 출가하였는데 조요(早夭)하였다. 좌선 갑룡(左旋 甲龍)에 오좌자향(午坐子向)이다. - 승정기원 후 재을묘(再乙卯) 5월 세움

제7절 정석조 묘갈명(鄭錫祚 墓碣銘)

정석조(鄭錫祚) 1815~1858, 28세 자(字)는 영노(永老) 세신(世臣)의 아들로 1844(헌종10) 증 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지(承旨),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역임했다.

進耕漁而供甘旨凡於承奉之節靡不用極而
誠所感祥應屢見性在純廟甲戌母夫人患腫
公吮之三月而完合尚運醫云難瘳良時值臘冬
公呼泣皇皇而求之果得便山若穴下用之即効
母夫人又思生魚公性求百里之浦而不得江路
彷徨見魚游冰底以石鑿之一鯉躍出掘之而歸
尋又犬獲狸貓街魚而來復取而供之此典小學
所載王祥董邵市事相類茲奇矣其遺前僕喪凡
藥餌含殮葬祭無一有餘減而日必上墓衣號雪
則躬掃墓域未嘗或間每當夫日潔齋踰禮必得

贈嘉善大夫戶曹參判行食知中樞府事光
祿公錫祚墓碣銘并序
維揚州之北三十里唐釵山之原有向震而封望
之寧如者鄭公錫祚之墓也隱居養親於此山
之下盡其誠孝以歿其藍墓于此今七十九年山
下之人猶指而相語公孝行不訖而慨泣表之闕
如公卒之四年高宗甲戌州儒林七十餘人狀
公孝行申于牧使請報道臣御史鄭塔聞旌表其
狀曰公自髫髻已善事父母致其誠敬及長力學
造詣過人早負一時偶望而以家食親老絕意仕

刑曹判書忠敬公爲宣廟名臣世稱木谷先生公
其八世冢嗣也曾祖諱姬望祖諱姬望祖諱德輝
贈司僕寺正考諱戴坤贈左承旨妣密陽朴氏學
生諱文女完山崔氏學生大享女公崔氏出也公
生正祖癸丑二月十日高宗乙丑以次男侍
從恩授檢校中樞府事越六年辛未九月九日卒
以長男階資恩贈戶曹參判夫人李氏宗室寧山
君愔之右學生仲著女從公附焉有四男一女男
長麟誅同知中樞府事次勉誅文科執義出爲族
父錫民右次益誅諱誅女適任品模長房三男樂

所嗜屬之而術極過時年七十九官食極而終
終嗟然曰天不假我數年不得陞一階而違榮三
世是可恨也又可謂終身慕矣民等居在同鄉習
其實行相語公甲戌舊事而歎異之今曆紀重回
哀情倍激茲敢齊聲仰觀云云蓋是時爲長吏者
未遑考理政教之未而不之舉故旌表姑歸之典
闕焉可慨也然孝本於性而得於天公既盡於此
而致天之威旌表姑贈何加於性與天哉公字伯
永系出光州上祖高麗殿直諱臣庖再傳而龜晉
入本朝吏曹參議贈禮曹判書又六傳而諱賜湖

九樂賢樂俊二房三男樂溫樂淵樂臣二女適士
人金定齊牧使任光錫三房三男樂楊樂選樂均
一女適尹宗植四房二男樂三任品模一男奎錫
適李主顯內外曾玄今百餘人公嗣玄孫用成賣
儒狀與家錄來示承烈且曰方謀碣於墓額賜之
銘承烈屢辭不能仕而不獲賜惟鈞其狀爲之序
而他善行皆考之推也不具述銘曰
人於兩間賦而且忽不敵者存忠孝大節公成至
行備仰何愧誠則有物物莫容偶孟荀王蘇炳然
著明古今一理當無虧孟既獲乎天何待於人可

愼不匱後昆振振孫辭于石庶幾永年時敬不敬
孝子之所
己丑十月 日(一九四九) 月城金承烈撰并序

〈역문〉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행첨지중추부사 광주정공(석조)묘갈명병서

양주읍에서 북쪽으로 30리 마차산 언덕 동남향으로 두드러진 묘는 정공석조의 무덤이라. 이 산 아래 은거하며 부모님께 효도를 정성껏 다하며 살다가 돌아간 지 지금부터 79년이라. 산하에 사는 사람이 서로 가르치며 공의 효행이 그치지 아니하여 정문을 세우지 못하게 됨을 개탄한다. 공이 졸한 지 4년 고종 갑술(1879)에 양주유림 70여 인이 공의 효행을 써서 목사님께 올리어 도지사와 어사에게 장계(狀計)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공이 어려서부터 정성과 공경을 다하더니 장성하여 힘써 배우고 조예가 과인하여 일시준망을 받았다.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은 늙으시어 벼슬길에 나아 갈 생각은 끊어버리고 밭 갈고 고기 잡아 맛있는 음식을 공양할 제 지성이 감응함을 여러 번 보았다. 순조 갑술년(1814) 22세 때 모부인이 뇌종이 생기어 3개월이 지나도록 입으로 빨았으나 완함이 더디었는데, 의사가 이르기를 두꺼비가 좋다고 하여 때마침 깊은 겨울이라, 울며 황황이 구하다가 뒷산 바위굴에서 얻어 효력을 보았고 모부인이 생어(生魚)를 생각하시니, 백 리나 되는 고랑포에 가서도 구하지 못하고 강가에서 방황하다가 고기가 얼음 밑에서 노는 것을 보고 돌로 두드리니 잉어 한 마리가

놀라 뛰어 나와 이를 잡아 돌아왔고, 또 개가 핏을 잡아오고 고양이가 고기를 물고 와서 공양하였다.

이는 옛날 왕상(王祥)과 동소남(董邵南)의 일과 같이 더욱 기이하다. 그 전후 부모상을 당할 제 약을 쓰고 장례를 모시며 제사를 드릴 제 여감이 없이 하며 날마다 산소에 올라가 부르짖으며 울고 눈이 오면 몸소 무덤을 쓸고 한 번도 빠짐이 없었다. 매양 제삿날을 당하면 정결하게 재계하고 평생에 즐기던 것은 반듯이 구하여 예절에 넘치도록 천신하였다. 79세에 첨지중추부사를 받으니 임종시 슬퍼하여 이르되 하늘이 나를 몇 해만 더 주지 않아 한 계급 더 올라 삼대를 추영(追榮)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종신모이(終身慕吏)라 우리 백성들이 한 고을에 살며 갑술년 실행에 옛일을 칭탄하며 서로 말한 지 회감해가 되어 충정이 배나 격동하여 감히 소리를 가다듬어 고하나이다. 대개 이때에 효리정교지본(孝理政敎之本)을 들지 않아 정표고증(旌表誥贈)이 꺾히니 가히 슬픈일이라. 그러나 효도는 성의 근본이 되어 하늘에 없는 것으로 공이 이미 이것을 다하여 하늘에 감동을 이루었으니 정표고증을 어찌 하늘보다 더하리요.

공의 자는 백영(伯永)으로 광주 정씨이니 상조는 고려 전직 휘 신호(臣扈), 구진(龜晉)은 본조의 이조참의(吏曹參議) 중 예조판서(禮曹判書), 사호(賜湖)는 형조판서(刑曹判書) 충민공(忠敏公)으로 선조 대 명신이니 세칭 화곡(禾谷) 선생이라 하니 공은 8대 종손이라. 증조는 희망(嬉望), 조무인 덕휘(德輝)는 사복시정(司僕侍正), 아버지인 재곤(載坤)은 증 좌승지(贈左承旨), 어머니 밀양 박씨는 장문(璋文)의 딸, 완산 최씨는 대형(大亨)의 딸이니 공은 최씨출이다. 정조계축년(1793) 2월 10일에 출생하여 고종 을축년(1871) 9월 9일에 졸하니 장남 인수(麟洙)가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부인이씨는 종실 영산군(寧山君) 전(佺)의 후손으로 증저(仲著)의 딸인데 공을 좇아 합장하였는데, 4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인수는 동지중추부사요, 차남 면수는 문과집의(文科執義)로 족부 석민(錫民)에게 출계하고, 익수(益洙)와 겸수(謙洙)요, 딸은 임정모(任晶模)에게 출가하였다.

장방 삼남은 낙윤(樂允)·낙현(樂賢)·낙준(樂俊)이요, 차방 삼남은 낙온(樂溫)·낙연(樂淵)·낙신(樂臣)이며, 2녀는 사인 김정제(金定濟)와 목사 임광호(任光鎬)에 출가하였고, 삼방 삼남은 낙희(樂禧)·낙선(樂選)·낙균(樂均)이고 1녀는 윤종식(尹宗植)에게 출가하고, 사방 2남은 낙일(樂一)·낙삼(樂三)이며,

임정보의 아들은 규호(奎鎬)이며 딸은 이규현(李圭顯)에 출가하니 내외 증현손이 지금 백여 인이다. 공의 현손 용성(用成)이 유림의 장계와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서 승렬에게 보이며 가로되 묘갈을 세우고저 하니 원컨대 명을 써주소서라고 하였다.

승렬이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어찌 못하고 그 글을 낙서질하여 서하니 다른 선행은 다 효행으로 미루어 갖추지 못하고 명(銘)하여 왈

사람이 두 사이에 멀리하고도 소홀히 하네
폐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충과 효의 큰 절개라
공은 지행을 이루었으니 부양에 무엇이 부끄러우리오
지성에 먼물이 있으니 물은 거짓이 없으리오
이미 하늘에서 얻으니 어찌 사람을 기다리리오
없어지지 않음을 증명하니 후손들이 진진하도다
이 말을 돌에 기록하니 거의 긴긴 세월가리라
누가 감히 공경하지 않으리 효자의 무덤을

-1949년 10월 월성 김승렬 씀

제8절 신벌 묘갈명(申撥 墓碣銘)



申撥(1523~1616)의 본관은 高靈 으로 자는 濟伯 이며, 아버지는 가평군수 汝柱 이고, 어머니는 우의정 李明龜 의 딸이다.

申撥墓碣銘
 監奉本要政度恭殿濟用監得源殿轉廣與倉奉
 事掌樂院直長宗簿寺主簿移典柱署選授稷山
 縣監考滿最績八為造紙署司總陞開城府都事
 使主典柱簿拜安山郡守母憂去官服除拜信川
 郡守三年連轉歷掌篆院司詳宗廟署令獨山郡
 守四年罷歸久之拜丹陽郡守三年病辭明年
 宣祖自龍灣還駕遠迎于海而信川吏民望見喜
 公亡恙爭欲再厝為父母者會溫陽在兵衛焚創
 難理鈐部奉公樓之曰難老焉為人明平病連
 尋拜鄉衛司衛手轉司農改繕工監判官病辭歸鄉

申撥墓碣銘
 金尚憲
 樞府同知申公年九十四終於位以壽考者通國
 無兩而聞恨公不百歲者豈以德高於年也公高
 重人韓諱字濟伯左議政文景公諱用說之曾孫
 判決事諱瀚之孫加平郡守諱汝柱之子先故累
 公累卿至文景當中顯朝文章器業望臨一時與
 鄭文翼公光弼並相齊心輔理朝廷倚以為重南
 寒枕正域何憚公不收整公卒楊作士林益追思
 之判決以循良顯名加平公焚死族孝世數名家
 守法必舉文景之後公年三十用才子子補司宰

里公先在溫陽上遊登榮儒真謀狀最哲朝廷
嘉之未及賞大臣爲言於上陞授通禮院相禮
謝恩即歸時公年過七十筋力尚堪供職事自以
年至不復有仕官意客有調勸度支方急財用望
八者許入贊得緋玉亦足爲暮年鄉里之榮公正
色曰老物不死猶有它日何乃區區至此終不穩
容復公年八十始以國典陞堂上又十年年九十
進二品自僉知中樞特授同知再加一資以示優
禮皆異數也遂推恩兩世贈王父左承旨父吏曹
參判母完山李氏貞夫人於其聞者以爲不但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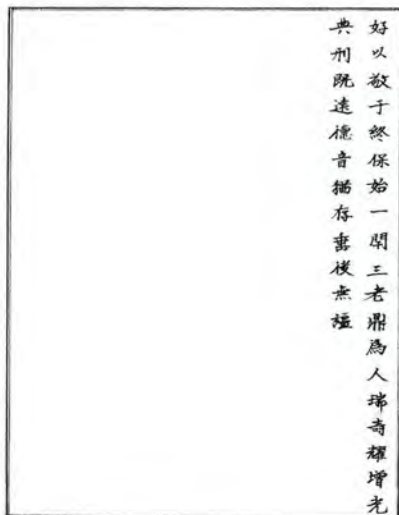
之福過人其操履之堅老而不衰尤爲難及也公
爲人既厚恭謹全然德備自少誠信言行不違人
皆愛慕親屬之朋友憲家間終始無彼此言內行
純篤不毀之年居戚如前表老過忌日必躬奠子
弟請攝則曰登豈可人代也既不能自行猶冠帶
正坐以俟卒禮所居郡理邱民事罔不曲盡凡所
施政合於物宜不尚威嚴而謹錫率下不教爲非
然常謙退不自顯其能以吳維爲長者共去稷山
也聞邑民治石欲碑遠人聲碑既去民更用它石
立之曰公雖不喜吾等受賜多矣終不可忘也前

僕歷六郡十八官俸祿之外家無餘蓄平生不事
眠食修煉之功而審慾省慮怡然順理勿失天和
能享遐考豈無所由也嘗傲香山故事修九老會
一日邀集社中諸老曰神氣覺日獲人事無常思
欲從容至第三日起居無少度已而就枕若熟寐
者然攝之已瞋矣宋萬曆丙辰七月九日也朝野
相傳莫不嗟悼訃聞遠官吊祭贈賻有加以是年
十月某甲寅子楊州治東金村里典向之原配貞
夫人海平尹氏同原與塋夫人宣務郎義衛之女
大學士陽谷蘇公世讓之外孫天性和順甚得婦

道先公十年丁酉卒壽七十三生一男三女男應
樞官至承旨女長適李讓火郎守閑字慶次觀察
使朴東說承旨一男二女男曰沆郡守女判書李
時發泰判李基祚李讓一男曰晚生進士女許淑
鄭天卿縣監郡守四男曰理直長曰暉曰晔曰晔
觀察三男二女曰濬郡守曰漢泰判曰諱判官長
女婿泰議尹顯之次女婿承旨李成文簡公參贊
重名卒不究用沆清明有志操嗣守家法外生彌
蕃彬競爽君子謂中氏之福有遺贏也銘曰
於康自我先君游道寔廣兄事者二公壘峒隱以

〈역문〉

추부동지 신공이 94세로 벼슬 자리에서 졸하니 수로서 높으신 분 나라에서 둘도 없다. 오히려 불백세를 한하나 어찌 나이가 높은 것이 덕이 높은 것만 하리오. 공은 고령인이고, 휘는 발, 자는 제백이며, 좌의정 문경공 용개의 증손이요, 판결사 한의 손자이며 가평군수 여주의 아들이라. 선조에 여러분 공경이 나왔으니 문경



공은 중종대 문장이 일시에 덕망이라. 문익공 정광필과 한때 정승으로 강직한 마음으로 보필하여 조정이 중하게 의지하더니, 남곤이 정도를 원수로 삼아 역내를 살피 공을 탄핵하였으나 감히 쓰지 못하였다. 공이 졸한 후에 사화가 일어나 사림이 더욱 판결사 공의 순양현명을 추모하고, 가평공이 불 속에서 죽어 효행으로 대대로 명가 지키는 법을 반드시 문경공 후 공을 꼽으니 나이 30에 효자되고 아들이 사재감참봉에 보직되고 여러 번 경기전 · 제용감 · 선원전 · 광흥고봉사 · 종부시주부로 옮기고, 전생서로 옮기었다가 직산현감으로 선발되어 공적이 많은 것을 상고하여 조지서사지가 되었다. 이어 개성부도사로 승진되고 다시 전생부를 주관하다가, 안산군수가 되어 어머니상을 당하자 벼슬을 내놓고 삼년복이 끝난 뒤 신천군수로 부임한 이래 장례원사평 · 종묘서령 · 여산군수 · 단양군수가 되어 병으로 사양하고, 이듬해 선조대왕이 의주에서 돌아온다 하여 멀리 황해도로 영접할 제 신천의 민들이 공의 건강함을 바라보고 기뻐하여 군수로 다시 와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기를 빌었다. 온양에 있을 때 병충의 폐가 극하여 이전부터 어려운 일인데, 공을 선발하니 공이 가로되 내가 비록 늙었으나 바꾸지 말라 하였다. 이듬해 익위사 사어로 선공감판관이 되었다가 병으로 사양하고 향리로 돌아오니, 온양은 공의 선조가 계시는 곳이라 조정이 아름답게 여겨 상을 받기 전에, 대신들이 상계 말하여 통례원 상례로 제수되어 사은사로 돌아오니, 공의 나이 70이 넘었으나 근력은 오히려 건달만하였다. 공직사에 스스로 나이 많아 벼슬을 못하겠다고 하니 객이 권하기를 탁지방급(度支方急)이라. 재물

은 80에 더쓰는 것이니, 재물 얻은 곳에 들어가 배회하는 것도 또한 죽하고 저물 어가니 어찌 구구하게 이같이 하리오. 객의 말을 끝내 듣지 않았다. 그후 80세 되는 해에 비로소 당상관이 되는 국전에 오르고 또 90세에 첨지중추에서 동지로 2품을 특진하니 한 계급 더 올려 우대하였다.

조부를 좌승지, 아버지를 이조참판, 어머니 완산 이씨를 정부인으로 가자하니 이에 듣는 자 비단 공의 복 만아니라 그 조리에 굳건하고 늙어서도 쇠하지 아니함이 더욱 미치기 어렵다 하더라. 사람이 방후공근(厚恭謹)하고 덕을 갖추어 젊어서부터 성신하고 언행이 어긋남이 없어 사람이 다 애모하고 친하게 접대하며 친구 간에 시종이 여일하여 행동이 순독하여 젊은 나이에 부친상을 당하여 전상같이 하고 늙어서도 기일은 반드시 몸소 행하니 자제들이 그만 두시기를 청한즉 대답하되 어찌 가히 사람을 대신하여 행하리오. 이미 능히 스스로 행하기 불능하면, 의관을 정제하고 제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었다. 사는 곳의 민사에까지 곡진하지 않음이 없으며, 무릇 정치를 물의에 합한 바를 시행하고 위엄을 쓰지 않고 아래 사람에게 삼가고 또 삼가니 아래 사람이 감히 그르치지 못하였다.

항상 청렴하여 스스로 능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직산에 있을 때 읍민이 비석을 세운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깨뜨려버리니 백성들이 다른 돌을 써서 입석해 가로되 공은 비록 기쁘지 아니하나 우리들은 받은 것이 많으니 끝까지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전후 고을의 군수와 18처의 관을 역임하였어도 녹봉 이외에 탐하는 것이 없었다. 평생을 의식에 수련하는 공을 일삼지 않고 욕심이 적고 살피고 생각하며 이연순리하여 천하를 잃지 않아 능히 하수를 누렸으니 어찌 근본이 없으리오. 일찍이 향산고사를 모방하여 구로회(九老會)를 조성하여 매일 모이니 사중에 모든 노인들이 가로되 신기가 해를 깨달아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무상하니 객을 쫓아 집으로 가고자 하노라. 삼일을 기거하되 조금도 피곤함이 없이 취침하여 깊이 잠든 것 같아 흔들어 깨우나 이미 눈을 감았으니 병진년(1616) 7월 9일이라. 조야가 상전하여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부고를 듣고 예관을 보내 치제하고 이해 10월에 양주 금촌리 선향에 장사를 지냈다.

정부인 해평 윤씨는 선무랑 의형의 딸이요, 태학사소 세양의 외손이라. 천성이 온순하고 부도가 있어 공보다 10년 앞서 졸하니 73세라.

1남 3녀를 두니 남 응구는 승지요 장녀는 이양에게 출가, 2녀는 군수 민우경

에게 출가하고, 3녀는 관찰사 박동열에 출가하였다. 승지는 1남 2녀를 두니, 양은 군수 딸들은 각각 판서 이시발, 참판 이기조에게 출가하였다. 이양의 아들 만은 진사이고 딸들은 허전, 정천경(현감, 군수)에게 시집갔고 4남 성(직장), 길, 탁, 질(관찰사)인데 관찰사는 세아들을 두었으니 호(군수), 황(참판), 정(판관)이며 장녀는 첨의 윤순지, 차녀는 승지 이행원에게 시집갔다. 내외 증현은 능히 다 기록하지 못한다. 승지는 성우계선생의 문인으로 일찍이 증명이 있었으나 쓰이지 못하고, 양은 청명한 지조가 있어 가법을 지키고 외손들은 미번 빈번하여 경상군자 신씨의 복이 남아 있다고 이르니 명하여 왈

슬프다 우리 선군으로부터 형제는 둘인데,

공은 군세계 동굴에 숨었네.

좋은 일과 공경하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했네.

한 이문에 세 늙은이 솟발처럼 단정한 사람이라.

수성이 더욱 빛나게 비추니

옛법은 이미 멀었네

덕있는 음성 오히려 후대까지 무강하리라.

— 의정부 좌의정 김상헌(金尙憲) 지음

제9절 이지운 묘표(李祉運 墓表)



李祉運(1606~1672)의 본관은 廣州. 자는 德裕 로 아버지는 현령 孝 동이며, 廣源君 李克墩 의 6세손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포상하고, 金吾郎 에 제수하였다.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포상하고, 金吾郎 에 제수하였다.

之思不之以稱公之孝云配坡平尹氏生三男二女男長相軒宣傳官次相明次即相項女適進士金時鼎都事金猷男叙晴女適尹光奎相軒出也男叙道叙維叙紀女適洪夏叙叙金永福相明出也男衡在龍在女適洪洪李洛佐即尹天成金時鼎出也相項以叙紀爲浚公卒於先朝士子壽云十七始葬于忠州今年九月移定于楊州北伊凌左丘里項于之原 原任議政府右議政李顯命識 進士柳迪書	昔在先朝胡西啓聞忠州士人李祉運父病進疾良已孝感之應比古冬筍冰魚宰臣又薦其行命賜米褒嘉及段特贈官金吾郎其子相項以武舉扶二品加贈參判公字德裕廣州人進村先生諱集之九世孫也進村之右官多顯考諱孝詞縣令贈承旨妣清州韓氏府使德久之女公爲人孝友文雅少有場屋聲譽發解中年以志分於孝養逆廢舉奉親居松楸和顏愉色左右服勤其親意以大老至終世之知公者以爲錫米贈職
--	--

〈역문〉

옛날 먼저 주상 때 충청감사가 장계 올렸는데 들으니, 충주의 선비 이지운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 누우매 지운이 울며 하늘에 축수하며 울부짖었는데 홀연히 물동이에서 생선이 뛰는 것을 보고 그 생선을 잡아 삶아 드리니 그것을 먹고 병이 낫으니 효도의 응함이라. 옛날에 효자가 겨울에 죽순과 얼음 속의

생선을 비유하며 재신이 그 효행을 또 천거하여 쌀과 가자를 명하여 주고 죽은 뒤에 특별히 금오랑을 주고(의금부도사), 아들 상욱이 무과에 올라 2품이 되어 가선대부 참판을 더 주었다. 공의 자는 덕유요, 광주인이니 둔촌선생 휘 집의 9세손이다. 둔촌선생 뒤에 벼슬한 자손이 많았으며 아버지 효행은 현령으로 승지에 증직되고, 어머니 청주 한씨는 부사 덕구의 딸이다.

공의 사람됨이 효도하고 우애하여 학문에 밝았다. 젊어서 과장에 여러 번 나갔다가 중년에 뜻을 부모효양으로 돌리어 과거의 업은 폐하고 부모를 받들어 묘하에 살며 항상 화평한 얼굴빛으로 부지런하여 그 부모의 뜻을 복종하며 80노인으로 세상을 뜨니 공을 아는 자는 쌀과 벼슬을 준 은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그 효행을 칭송하였다. 부인 파평 윤씨는 3남 2녀를 낳으니 장남 상현은 선전관이고, 차남이 상명, 3남이 상형인데 상현의 딸은 진사 김시정과 도사 김감에게 시집갔고, 상현은 아들 서주를 낳고 딸은 윤광규에게 시집갔으며 상명은 아들 서도, 서유, 서기를 낳고 딸은 각각 홍하서와 김영복에게 시집갔다. 아들 현재, 용재를 낳고 딸은 병사 이용좌에게 시집갔으니 이들은 윤천성, 김시정의 자식들이라 상현은 서기로 후사를 삼았다. 공이 현종 13년(1672) 임자에 졸하니 수가 67세였다. 충주에 장사지냈다가 1708년 9월 양주 북이담 좌구리 자좌에 이장하였다.

원임 의정부 우의정 이이명 기록

－ 진사 류적 씀. 승전기원후 81년 숙종 34년(1708) 9월

崇禎紀元
八十一
年戊子
九月
日

제10절 이세근 묘갈명(李世瑾 墓碣銘)

1664(현종5) - 1735(영조11) 수기세 문신. 자는 성진(聖珍)이고, 호는 정헌이며, 본관은 벽진이다. 지갈(志傑)의 아들이고 윤증의 문인이다. 맹동면 쌍정리 배미 사람이다. 1699년(숙종23) 문과 갑과(甲科)로 급제 사헌부 지평(地平)이 되고, 1699년(숙종25)에 음성현감(陰性縣監)을 지내고, 1709년(숙종35) 병조정랑(兵曹正郎), 이듬해 수찬(修撰)이 되고, 숙종41년 동래부사(東萊府使)를 지냈다. 1721년(경종1) 충청도·경상도 관찰사를 지내고, 1725년(영조1) 남양부사 도승지에 오르고 영조5년에 대사헌을 지냈다. 1733년(영조9)에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나라에서는 봉조하(奉朝賀)의 예우(禮遇)를 내리었다. 고향에 돌아와서 갯장록(羹牆錄)을 써서 진상했다. 저서로 『정헌집(靜軒集)』이 있다

李世瑾 墓碣銘
正憲大夫行禮曹判書 曹錫興 書
公諱世瑾字聖珍號栗里農翁 星州人始祖諱
念言羅本爲碧珍將軍因爲貫其後金紫輝煌
十七代諱約東即老村先生也爲嚴宰清白吏
平請至五代諱尚假兵曹參知丙子殉節諡忠剛
憲公之曾祖也祖諱棟 承旨 考諱志傑
金知贈贊成號琴湖有遠稿公顯承甲辰三月一
日生肅宗丁丑擢庭試屬文局以持平掄時事出
補陰賊烏尹又敬公宜舉文成公臣請誦入館錄

壁春坊瀋尹萊伯錦伯史議崔伯都令副提學大
司憲同義禁戶參駕入清自史進寶錄遜乞歸凡
十一路政仕奉朝賀英宗乙卯九月二日考終壽
七十二有遠稿嗚呼公德行之純恬靜之操不取
管窺賦性謹慎持論和平然於義理上奮發激昂
屹然有壁立千仞之像屢典雄藩環堵蕭然再使
□京封還例題 景宗論書飲水燕館囊中無而
也碩敦畧記焉 配海州吳氏封貞夫人翊贊斗
寅之女咸平李都正楚老之外孫也丙午正月

二十九日生甲子十月二十五日卒壽七十九生
二男一女男提柱侍直提摺參奉出右提村縣監
侍直子熙普兼普生員兼普出右縣監子烈普參
奉子顯普都事衛普熙普子景壽縣監生員子景
老景憲進士景中烈普子景魯景會景曾都事子
景基景載衛普子景遠景榮普子景星廣子景
還景昇內外雲仍職至數百餘人多不可盡記焉
輔國崇祿大夫敬仕奉 朝賀 世子貳
師李敦子樸
繕工監假監復林敦珠書

朝鮮國王中復四百八十九年庚辰三月
五世孫承明立碣

〈역문〉

공의 휘는 세근으로 자는 성진이고, 호는 율리 또는 사옹이며, 성주인이다. 시조 휘 총언은 신라 말에 벽진 장군이 되어 관향이 되고 이후 금자광록대부로 선련하고, 17대 휘 약동은 곧 노촌선생이니 총재 청백리로 시호는 평정공이요,

5대에 와서 휘 상급은 병조참지니 인조 14년(1636)에 순절하였으며 시호는 충강공이며 공의 증조요, 조부 휘는 간이며 승지요, 고는 휘 지걸이며 첨지로 찬성에 증직되고 별호는 금호이니 유고가 있다.

공은 현종 3년(1664) 3월 1일 생이며, 숙종 23년(1697) 정시문과로 벼슬길에 올라 지평으로 시사를 논하고 음성군수로 나갔다가 문성공 윤증이 그의 아버지 문경공 시호를 청할 때 관에 들어와 세자 시강원을 지내고 의주부윤, 동래 부사, 나주목사, 이조참의, 경상감사, 도승지, 부제학, 대사헌, 동지의금부사, 호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청백리에 천거되어 《갱장록》을 발간하고 드디어 열한 번을 상소하여 봉조하를 치사받고 고향에 돌아와 영조 11년(1735) 9월 2일에 졸하니 72세요 유고가 있다.

슬프다. 공의德行과 순전함과 깨끗한 몸가짐을 감히 엿볼 수 없으나 성품이 근신하며 지론이 화평하였다. 그러나 의리상에는 분발격양하고 홀연히 천길벽에서 있는 기상이 있어 여러 번 큰상을 받았으나 집둘레가 쓸쓸하였다. 두 번이나 연경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와 예사에서 노자를 받았다. 경종대왕 유서에는 호사스러운 연경에 다녀왔어도 주머니에는 남타에 금제비단이 없고, 의주 물위에는 동쪽에 고기 잡는 경계가 없다하고 영조대왕 제문에는 크고 곧은 효유는 이에 하늘에서 덮고 삼조의 기구는 청백을 집에서 전하였다고 하였다. 큰비를 세우지 말라는 공의 유교를 좇아 지나칠라 두려워 이에 감히 대략 기록한다.

부인 해주 오씨는 정부인을 봉하니 익찬 두성의 딸이요, 함평 이도정 초로의 외손이다. 선조 39년(1606) 1월 29일 생하여 숙종 10년(1684) 10월 25일 졸하니 수는 79세였다.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정주는 시직이요, 정해는 참봉이니 출후하고, 정재는 현감이다. 시직의 아들은 회보와 훈보인데 다 생원이요,

검보는 출후하고 현감의 아들은 열보요, 참봉의 아들은 현보 도사요, 형보, 회보의 아들은 경원·경규·검보의 아들은 경성, 서자는 경섬·경승이다. 내외 후손이 거의 수백여 인이라 가히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

- 보국승록 대부 치사 봉조하검 세자이사 이돈우 찬
선공감 가감역 임돈수 서
조선 개국 임신 후 489년(1880) 3월. 5세손 승명 세움

제11절 목행선 묘갈명(睦行善 墓碣銘)



睦行善(1609~1663)의 본관은 泗川으로 자는 行之, 호는 南磎이다. 아버지는 호조참판을 지낸 長欽인데, 숙부인 공조참의 大欽에게 입양되었다. 1633년(인조 11)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 병조좌랑, 대사간, 예조참의, 황해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昔居散班久不遷丙子爲兵常佐即移京畿都事
觀察使尹履之心器之方上之天遷才學之士以
公屬之冬金人大舉來侵都城不守廟社燬如
燬王太子皆入江都公臨亂慮事多過人者人倚之
及燕當大亂殘破之餘畿內爲尤甚觀察使李演
曰此時無此人不可答諸仍任專管賑恤事夏渡
爲兵事佐即兼記事官轉司憲有特平賊改弘文
修撰戊寅承旨公辛辛已恭判公又辛服閏或在
士堂或在館職乙酉清人令我渡海路裕軍食事
期急公以獻納特差御史督遼湖南餉餉還爲制

睦行善墓碣銘
公諱行善字行之朔冕南嚳姓睦氏本泗川人玄
軒先生世稱之曾孫吏曹參判贈領議政唐之孫
戶曹參判長欽之子世貞夫人宜寧南氏軍資監
主簿璉之女公爲叔父承政院承旨大欽之澳其
所後母散夫人柳氏籍晉州訓錄院正海之女也
萬曆三十七年六月丙寅公生自爲兒時不喜戲
抑未成童已有成人器度又詞蔚然平歲崇禎三
年退成均進士六年擢甲科第一入初授成均典
簿移禮曹佐即兼記事官和製教修經史特用事

睦行善墓碣銘

許穆

校理韓史曹佐郎兼世子文學夏漢以副校理乞
 養為延安三年以修撰召還遷史曹正郎尋改應
 教兼世子弼善己丑以濟用監正為謝恩書故官
 如燕京還陞通政為兵曹叅知再為大司成禮曹
 叅議三為吏戶刑三曹叅議八為大司諫承旨己
 丑出洪州一年以疾歸癸巳為黃海道觀察使丙
 申復出尚州皆為叅知洪州時患風痺病十年己
 亥以禮曹叅議謝病不復仕仕在軍機三年其七
 月癸卯卒享年五十三訃聞上遣禮官賜祭賜
 轉如儀公敦厚有雅量未嘗疾言遽色臨事周慎

不稅於利害不營立產業以自累其居孝友皆稱
 循家道法云前夫人李氏叔相文翼公德馨之孫
 觀察使如瑛之女生三男一女男長曰宗儒次曰
 昌朝進士為伯文觀察使性善之波次曰昌期益
 長一婿叅判俞益模夫人尹氏掌令孝永之女
 生一男一女男曰昌明叅議塔士人鄭光面公之
 妻在楊州治北伊潭村丁向之原與李夫人尹夫
 人同塋銘曰
 周而慎庶而仁不姑不姑以嗣其古人

〈역문〉

공의 휘는 행선, 자는 행지, 호는 남간이며, 본관은 사천이다. 현헌선생 세평의 증손이며, 이조참판 증 영의정 첨의 손자요, 호조참판 장흥의 아들이다. 어머니 정부인 의령 남씨는 군자감주부 위의 딸이다. 공이 숙부 승정원승지 대흠의 뒤를 이으니 모 숙부인 진주 류씨는 훈련원정 해외 따님이시다. 공은 광해기유년(1609년) 6월 병인에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희롱을 좋아아니하여 나이가 어렸어도 어른다움이 있었다.

기도와 문사가 올연 조성하여 인조 경오년(1630)에 성균진사 때 뽑히고 3년 후에 갑과 제1인으로 급제하여 처음으로 성균관 전적을 받고 예조좌랑 겸 기사관 지제교로 옮겨 역사를 편찬할 때 윗사람을 거스림으로 한직에 머물러 오래 옮기지 못하였다. 병자에 병조좌랑으로 경기도사에 옮기니 관찰사 윤이지가 대선을 올려 재학지사로 공을 천거하더니 그해 겨울에 청나라 대병이 들어와 도성을 침범하여 종묘사직을 지키지 못하고, 모든 비빈왕자가 강도로 들어갔다.

공이 난을 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 매진하니 사람이 많이 의지하니, 대란을 당하여 파괴되고 망가짐이 경기와 서옹이 더욱 심하여 관찰사 이명이 가로되 이때에 이 사람이 아니면 불가라 하고 장계를 올려 백성들 구휼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맡기기를 청하여 병조좌랑 겸 기사관이 되고 사헌부지평으로 홍문관수찬이 되었다. 무인년에 승지 공이 졸하고 신사년에 참판 공도 졸하여 복을 마치고 흑 옥당에 있거나 관직에 있었다. 을유년에 청인이 나로 하여금 해로에 급군식사로 기약이 급하다고 하자, 공이 헌납특차어사 독운 호남궐향으로 있다가 돌아와 교리가 되고 이조좌랑겸 세자문학으로 옮기고, 여름에 다시 부교리가 되었다가 연안읍에 나아가 3년을 걸양하고 수찬으로 불러 돌아와 이조정랑으로 옮기고, 응교겸 세자필선이 되었다. 기축년에 제용감정으로 사은서장관이 되어 연경에 갔다가 돌아와 통정대부병조참지에 오르고 두 번 대사성 예조참의가 되고 세 번 이·호·형 3조의 참의가 되며, 여덟 번 대사간 승지가 되었다. 기축년에 홍주목사로 나갔다가 1년만에 병이 들어 돌아와 계사년에 황해도 관찰사, 병신년에 상주목사로 나가니 다 휴양을 위함이라. 홍주에 있을 때 환풍비병으로 10년이 되었다. 기해년에 예조참의로 병이 심하여 다시 종사를 아니하였으니, 군직에 있으니 지 3년이라, 7월 계묘에 졸하니 향년 53세이라.

부고를 듣고 상이 예관을 보내 재물과 부의를 보냈다. 공은 돈후한 아량이 있고 항상 질언 거색이 없으며, 일에 임하여 두루 삼가고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산업을 세우지 않으며, 효우로 거하여 다 옛집에 끼친 법이라 하더라. 전부인 이씨는 문익공 덕형의 손녀로 관찰사 여황의 딸이다. 3남 1녀를 두니 장은 종유, 차는 창조로 진사니 백부 관찰사 성선의 후가 되고 다음 아들 창기는 직장, 사위는 참판 유하익이요, 후부인 윤씨는 장령 효영의 딸로 1남 1녀를 두니, 아들 창명은 참의요, 사위는 정광도이라. 공의 묘는 양주 고을 북편 이담촌 정향이니, 이부인과 윤부인 같은 무덤이다. 명을 지어 이르되 두루 삼가며 청렴하고 어질어 허물도 없고 티도 없으니, 그 옛사람을 이음이라.

— 의정부 우의정 허목(許穆) 지음

제12절 김충렬 묘갈명(金忠烈 墓碣銘)



김충렬(1503-1560)의 본관은 江陵 으로 자는 국간이다. 1503년(연산군9)에 회인현감을 지낸 증윤의 4자로 태어나 1525년(중종20)에 진사가 되었다. 1531년(중종26)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전적, 사헌부감찰, 형조지랑, 한성부판관, 호조·예조·형조의 정랑 등을 지냈다. 명종 때 제주목사를 지내고 1552년(명종8) 삭령군수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발병하여 집으로 돌아와 1560년(명종15) 58세로 죽었다.

垠之女以弘治癸亥二月乙卯生公諱忠烈字國幹生而聰穎自和讀書勤敏強記早喪恃堅志奮礪期以立揚學屬聲律儼對之作捷若未始稍思者中乙酉司馬試始遊太學遠究經學魁辛卯科例授典簿遷司憲監察士辰以喜狀官如京師賀聖節還拜刑曹佐郎移漢城府判官出爲京畿都事入戶禮刑三曹爲正郎所至職辦竭竭山郡缺尋公以母夫人在堂力丐便養執政策其意許之丁酉春在郡遭外艱已亥服闋拜奉常金正俄出守寶城郡入拜成均司憲甲辰中廟禮陟

金忠烈墓碣銘 洪道
兵曹正郎金君添慶袖其叔父朔寧公家業泣而告曰叔父寔宰事完墓道無碣夫人易石而請銘於公惟公知叔父之先有曰國元者即新羅太宗以不文辭謹按金之先有曰國元者即新羅太宗王之孫受封江陵子孫仍象焉其後仕羅代者曰貞茹曰陽仕高麗者曰上琦曰仁存史皆有傳有諱先乙亥忠烈奉封漢源府院君府院生工曹典書金典書生司憲持平陽南持平奉事道奉事生諱貴亨實生監祭諱宗 監祭贊司憲字令郭

公董役橋山以勞見褒尋出為長興府使遺病徑
 通達校司憲掌令移陞司諫院司諫然俱有直
 名歷掌樂司正僉修兩廟實錄先是出授濟州
 者率多武將失於撫綏民不羣居朝望屬公陞授
 堂上階以達蒞官未幾民蘇儲足士于島夷使紀
 州境公能乘機截殺多至百餘級偶有殘孽偷船
 滑遁者言者詆以失誤軍機充軍于西徽之方山
 鎮乙卯朝廷遣侍從宣慰濟州州民追訴公寬還
 以 上聞始見賜環旋授西徽兼五衛將以畿之
 朔寧郡地僻務簡且近松楸力亦出奇僅二期謝

病未就醫葉竟不復起庚申正月二十三日也亭
 年五十八以是年三月癸酉葬于楊州金村先祖
 地次丑坐未向之原公性仁且慈敦睦親戚下逮
 童僕咸得其歡心出宰五邑軌有去後思方佐秋
 省吾先君議政文僖公為判書見公料事出人意
 表歸語還曰使汝壯元他日必吾坐非老夫之所
 可及嘗徵公湖南之作示還曰恨不合此人居館
 閣也為之延譽公則殊不以才高不居中為憾公
 性直不阿其在刑曹訟遠巨室前後總理者
 恟威怵禍奄至累歲公立為之辯人皆快之遂見

忌許遽還漢城其謫于西道適接卽行遽把酒奉
 慰公公自引咎了恨色其不以曲直較人所處而
 安類此及奇翔郡志專撫恤期見安堵而反被掣
 肘志不克展駢致勞瘁成疾而終命也公初娶虞
 候洪潔之女綺室以生貧金永統之女生二男一
 女男曰應慶娶司果南彭錫之女餘皆幼銘曰於
 玉比德溫而貞也澄字止水潤而明也學焉為已
 遠守經也少試其有魁羣英也審乎即署期道享
 也強亦不吐訟得乎也言不賣直欲達名也塞不
 變乎涉海瀛也執直厥究斯在詆也安于寧郡病先

櫻也天厚其賦施不贏也善于何勸世有碣巍然
 表公塋也冲襟合名共崢嶸也

〈역문〉

병조정랑 김군 침정이 그 숙부 식녕공 가승을 가지고 와 올면서 가로되 숙부의 무덤일은 마치었으나, 묘도에 비석이 없어 부인이 돌을 바꾸어 명을 청하니 공은 숙부를 잘 아시오매 사양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슬프다! 공은 우리 장원이니 어찌 글 못한다고 사양하리오. 삼가 더듬어 보건대 김씨의 선조 주원은 신라 태종왕의 손으로 강릉에 봉을 받아 자손들이 살았으니, 그 후 신라에 버슬한 자 정여와 양사이오. 고려시대에 들어와 상기와 인존이 역사에 전하고 광율은 고려 말에 효충하여 명원부원군에 봉해졌고, 부원군은 공조전서 수를 낳고 전서는 사헌부 지평 양남을 낳고 지평은 봉사 식을 낳고 봉사는 귀형을 낳고 식은 감창종을 낳으니 감찰이 사헌부 장령 광은의 딸을 취하여 홍치 계해년(1503) 2월 을묘에 공을 낳으니 공의 휘는 충열, 자는 국간이라, 나면서 충예하여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고 부지런하고 민강하였다. 일찍이 아버지 상을 당하여 뜻을 굳게 하고 분발하며 입신양명을 기약하고 배우며 울음을 소리로 하며 구상하는 이 같지는 않았다. 중종 을유년(1525) 사마시에 합격하여 태학에 들어가 경학을 연구하고 신묘년 문과에 장원하여 전적으로 사헌부 감찰에 옮기고 임진에 서장관으로 하성절사가 되어 남경에 갔다가 돌아와 형조좌랑에 제수되었고 한성부판관으로 옮겼다가 경기도사가 되었다. 이후 호조·예조·형조 등 삼조정랑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명관 소리를 들었다. 여산군에 귀양 갔는데 군수가 공석이였다. 공이 모부인을 편히 모시고자 하니 집정이 그 뜻이 슬퍼 허락하였다. 정유년 봄에 고을에 있으며 아버지상을 당하고 기해년에 결복되어 봉상시첨정이 되고, 보성군수로 나갔다가 들어와 성균관사예가 되었다. 갑진년에 중종대왕이 예로 공을 교섭하여 교산동역에 수고한 보상으로 찾아와 장흥부사로 임명하였다. 병에 걸려 체직하고, 사헌부장령에서 사간원사간이 되었다가 장악원 사재감정이 되고 두 선왕의 실록을 편수하였다. 전에 제주목사로 나간 중에 무장을 많이 거느리고 백성을 어루만지지 않아 백성이 곤핍함에 공이 조정에 상소하여 위관을 보내니 곧 백성이 소생하였다. 임자년(1552)에 섬오랑캐가 지경을 침범하자, 공이 능히 기회를 타 백여급을 죽이고 잔당이 배로 잠입하자, 방산진으로 출군하였다. 을묘년에 조정에서 시종선위를 제주에 보내니, 제주백성이 공의 원통함을 호소하여 돌아오다 상이 듣고 비로소 환선을 주고 서직에 겸하여 오위장을 제수하며, 경기 식녕군 땅은 궁벽하

나 업무는 간략하고 송추도 가까워 그곳 수령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마침 내 병으로 사양하고 병이 들어 의약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경신년 정월 이십삼일 향년 58세다. 이해 3월 계유에 양주 금촌 선조묘하 측좌에 장사지냈다.

공의 성품이 어질고 또 사랑하며 친척에 화목하여, 동복에 이르기까지 다 환심을 얻었다. 5읍을 나가 다스리니 모두 칭송이 있었다. 우리 선군 영의정 무희공이 판서가 되어 공의 일을 해아리고 사람을 내는 의표를 보고 돌아와 섬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네가 장원이 되어 다른 날 내 자리에 앉으면 노부가 가히 미칠 바 아니라, 상징공의 호남지작을 섬에게 보여 왈 이 사람으로 하여 관각에 거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한이라 하며, 연하여 공을 기리니 특후한 것은 재주가 아니요 높은 것은 중앙이 아니다 하며 섭섭해 하였다. 공은 성품이 곧고 아침 하지 않아 그가 형조에 있을 때 송사가 고관과 관련되어 맡은자들이 겁을 내고 화가 많이 미칠까 두려워 하되 공이 서서 단호히 판단하니 사람이 다 상쾌하다고 하였으나, 꺼리는 자의 미움을 받아 한성으로 체천되고 서호로 귀양갔다. 섬이 마침 접절행변(接節行邊)에 술을 가지고 공을 위로하니 공은 스스로 허물을 말하되, 한하는 빛이 없고 잘잘못으로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며 소처에 편안하게 함이 이 같으니, 삭녕군수 때 옳은 뜻으로 어루만져 편안히 살게 하였으나 도리어 체제로 몰려 뜻을 펴지 못하고 혼치되니 노쇠(勞瘁)로 병이 되었다고 하였다. 공이 우후 홍결의 딸을 초취하고, 생원 김영순의 딸을 재취하여 2남 1녀를 낳으니 응경은 사과 남평석의 딸을 취하고 나머지는 다 어리다.

명에 왈

저 옥을 덕에 비유하면 온화하고 곧으며 맑은 것이 물에 비치니,

못이 되어야 밝네,

배움이 몸을 위하니 것이니 깊고 멀도다.

글이여! 젊어서 시험이 있으나 충장원이 영웅일세.

낭서에 말거름을 배워 도가 형통하길 기약하고,

한 것은 드러내지 않고 송사에 순조로움을 얻었네.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명예를 구하지 않았네.

변방을 굳게 지켜 큰바다를 평안히 하였다네.

누가 저 원통함을 굳게 할꼬 하소연은 백성에 있고

군수가 되어 고을을 편안하니 병이 먼저 몸을 찢렀네.

하늘은 그 기품만 후하게 하고 베풀기는 넓게 못하니,

착한 사람 무엇을 권하리오. 세상의 평가만 있네. 비같이 있어 외면하니 공
의 무덤을 포함이오

옷깃을 화하게 하는 그 이름 다같이 재명하도다.

－ 의정부 영의정 홍섬(洪暹)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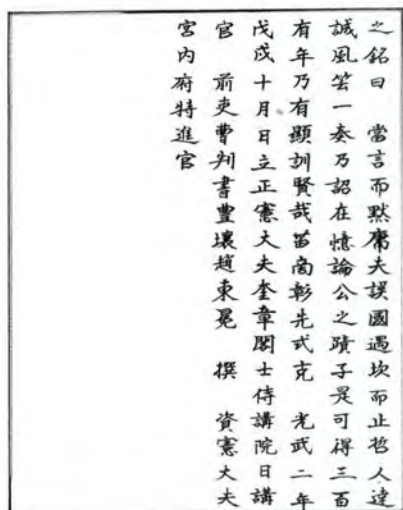
제13절 김협 묘갈명(金鉞墓碣銘)



김협(1538 ~ 1622)은 조선 선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敬直 이며, 본관은 慶州 이다. 아버지는 應敎를 지낸 九淵 이며, 형제인 김육과 함께 이곳에 정착하였다. 1568년(선조 1) 增廣別試 丙科로 급제하여 富平府使, 全州府尹 등을 역임하였고, 1612년(광해군 4) 원종공신 1등에 녹공되어 정2품에 가자되었다. 초서를 잘 썼으며, 사후 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宣退去也辭官歸薦原考終年八十四仁
祖題公不附爾瞻特贈資憲大夫史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
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 配貞敬夫人延安李
氏監司電女附公墓在 楊州道遼山下民生原
長壽臣郡寺次壽仁司僕寺正 壽臣子鳳郡寺
噫觀公一節亦可想見公為人其事行必多有可
紀者而不少概見文獻之無徵可慨也已公之
十一世孫榮府都事秉秀將樹石于隧道揚余以
文余當慕公之行且嘉實仍之能進遠先蹟樂爲

并書 贈資憲大夫史曹判書慶州金公鉞墓碣銘
公諱鉞字敬直姓金氏貫慶州高麗忠臣桑村先
生自粹七世孫也祖諱滄贈兵曹判書考諱九淵
宣顯宣武一等功臣議政府左贊成妣貞敬夫人
靈山辛氏大司成世成女公幼而聰穎八歲以易
意策講宣顯戊寅擢廣文科第一官吏曹參判
光海時李爾瞻迎合時意倡廢母議公方詣公有
意子歌於道曰金車子莫向路上去須從路下回
公聞曰金吾姓也車吾名也謂吾進無以匡救則



〈역문〉

공의 휘는 협이고, 자는 경직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고려 충신인 상촌 선생 휘 자수의 7세 손이다. 조부는 흡으로 병조판서요, 아버지 구연은 선조 때에 선무원종 1등공신 의정부 좌찬성이요, 어머니는 정경부인 영산 신씨로 대사성 세성의 딸이다.

공이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8세 때 동몽강의에 응하고 선조 11년(1578)에 증광문과에 1등으로 뽑혀 이조참

판으로 광해군 때는 이이첨이 시의에 영합하여 폐모론에 바야흐로 공을 끌어 넣는지라. 아이들이 길에서 “금수레야 금수레야 길위로 가지 말고 길 아래로 돌아가라”라는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공이 심각하게 판단하기를 금은 나의 성이고 수레는 나의 이름이니 내가 나가는 것을 이름 함이라. 내가 나서서 넓게 구원을 못할 것 같으며 마땅히 물러가야 하겠구나 하는 결심이 서 벼슬을 내놓고 양주 노원으로 돌아와 집에서 죽으니 향년이 84세였다. 인조대왕은 공이 끝내 이이첨 편에 서지 않은 것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자헌대부 이조판서겸 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좌빈객을 증직하였다. 배인 정경부인 연안 이씨는 감사 이전의 딸로 공과 합장하니 묘는 양주 소요산 아래 간좌이다.

큰아들 수신은 군수요, 둘째 수인은 사복시정이다. 수신의 아들 율은 군수라. 슬프다.

공의 한 가지 절개를 보고 또한 공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때에 공이 행한 훌륭한 업적이 많고, 기록에도 많이 있을것이나 문헌이 없어 상고 할 길이 없으니 개탄할 따름이다.

공의 11세손 금부도사 병수가 장차 돌을 무덤에 세우고저 나를 보고 글을 지으라 하니, 내 그윽히 공의 행적을 사모하고 또 후손들이 능이 신적을 진술하는 것이 아름다워 즐거히 밝히니, 명을 지어 이르되 말할 때를 당하여 침묵하니 용열한 지아버가 나라를 그르치고, 구덩이를 만나 그치는 것은 철인 달식이

라. 봉황에 피리로 한번 아뢰면 풍류소리 가슴에 있고 공의 행적을 이에 가이
쓰니 3백 여 년이라. 이런 현각이 있으니 어질다 후손이여 능히 선조를 빛내네.

- 서기 1898년 10월 세움

정현대부 규장각 학사겸 시강원 일강관

이조판서 풍양 조동면 찬

자현대부 궁내특진관 안동 김덕규 씀

제14절 조중려 묘갈명(趙重呂 墓碣銘)



趙重呂(1603~1650)의 본관은 漢陽으로 자는 重卿. 호는 休川이다. 아버지는 幹이며, 어머니는 沈諫의 딸이다. 1633년(인조 1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장령, 헌납, 교리 등 淸要職을 여러 차례 지냈다. 문관이었으나 將才에 뛰어났으며 효행이 널리 알려져있다. 저서로 『휴천집』이 있다.

承旨祖諱崇男不仕考諱幹都事妣青松沈氏
諱諫之女公以萬曆癸卯正月十三日生少已
竅不群出句語驚人稍長從姑同樞宋公吳考
任疎庵叔吳學二公重其文仍勉以節行家積
于中進士試連除宜陵參奉造紙署別提督不
就也癸酉面中文科由承文院正字拜侍講院
陞利曹佐郎移兵曹兼知製教自吳出八三司
在諫院爲正言獻納在憲廟爲侍平掌令在玉
堂由修撰至校理最入而屢至馬在泰坊復爲
在國子爲司業在尙衣司導諸寺爲正丁亥丁
丙

趙重呂墓碣銘
休川趙公當仁祖朝以文學節行有名薦紳間
顧公屏居郊外論議仕進未嘗有所苟合遂不
其用以歿聞者愈惜之復四十餘年公孫儀徵累
然在鑲服中以先人命將鑿石于墓余請余文不
敢辭公諱重呂字重卿休川其號也趙氏爲漢陽
大族至諱良琪觀壽觀城樞密院龍城君父子
俱有征討功事見忠烈史諱仁壁龍源府院君達我
朝初與遜逃以還其志益烈諱諫右議政漢平
府院君諱良敬其族益顯曾祖諱應文掌令贈都
朴世采

艱服未闋而疾作以庚寅十一月五日起享年四十有八葬于揚州治北伊漢里賀幸之原公氣度俊整見載超邁存心制事介而能寬性尤才統十二歲喪所恃制如成人僕值追享治饌條芻親自往視癸之日必致愛如聞手容聲雖有疾病亦不使人代也事都事公竭誠儆惕務在養志化奉諱哀毀過禮咽柔未粥以終三年某不入口朝夕哭奠必盡哀移晷乃已時或脚弱仆地而獨不廢親舊交諫公曰死生有命吾死福不稱大辟見父母又何感焉趙文孝公翼適寓隣舍每敬歎

曰三年哭泣如一日吾於趙君見之過庶母克盡恩義以及諸弟妹友愛備至有嘆細馬成乃於朝廷大體君德間失必挺身力爭間請甲得則與賊杜通謀辱國之罪又極言宮人詛呪獄宜付有司不宜使中官雜治諱義正且勁喉司喉喉之失物論多之其在經筵反復闢陳引喻明當時稱真請官云嘗以行書赴藩水禁自持象笏不敢有干請陰金文正公時拘北宮聞而嘉之以詩相贈金賦自點方為上使觀嘗所進春宮策公之識以有困寵意自點心怒必欲中傷求公無所得

只削儒將薦內男有以高熱致相位者威權甚盛公素如其非罕與往來規責不少貸一家始頗致訝未幾以謀叛誅所親撰羅其柄而公獨超然無累人蓋奇之姻黨亦有勳戚大臣屢致懇懇意公終不一見偶值責人非義而得紹懶者公即其座視而斥之左右亡不色動其平生行已又如此為文章雄渾有氣必以先秦西漢為法古今詩體格清健我道盛唐或為一特贈文弱照豁各張公雅趣近酬曹亟加補獎有他日相期我輩人之句譚堂李公植益服公文學偉欽同儕昏朝史有趙

某才起一代眼老千古等語其為文苑鉅公所賞者多此類平居素食不問生產有無杜門閑靜襟懷洒然常有物外之趣然而好善嫉惡出於天性持論峻潔操履端確其於榮祿勢利尤泊如也公雖不善交游能以信義終死生厄困中有奇恤人以為難有違謫若千卷藏子家公娶戚置李氏郎奇先哲之女幼娶平山中氏知事景之女并以婦德稱孝氏一男宗冕縣監中氏一男宗著中文科累踐從班終淮陽府使其文益奇縣監生四子儀漢道長儀廷儀敬儀華府使生三子儀徽承

言即乞銘者儀履祥曾去男女總幾人銘曰蓋聞文士鮮立于即期伊至行惟孝文母竟以捐生乃曰有命既誠之篤又識之達義謂賦性雄詞清操百不一施是將誰病故崇者石我刻其文萬世欽盛

〈역문〉

휴천 조공이 인조대왕대에 문학절행으로 유명하여 천신간고하였으나, 공이 교외에 병거하고 벼슬에 나가는 것이 논의가 안되어 마침내 연구해 쓰지 못하고 졸하니 듣는 자 애석함이 넘치었다. 사십여 년 후 공의 손자 의징이 여러 양복 중에 있다가 선인의 명으로 장차 묘비를 세우고자 나에게 글을 청하니 감히 사영치 못하노라.

공의 휘는 중여, 자는 중경, 호는 휴천이라. 조씨 한양에 대족이 되니, 휘 양기는 습작으로 쌍성총판이오, 휘 돈은 용성군이니 부자가 정토에 공이 있어 《고려사》에 보이고, 휘 인벽은 용원부원군으로 우리 조선이 처음 일어날 제 그 뜻을 지키어 자취를 감추니 시호는 양열공, 휘 연은 우의정으로 한평부원군 양경공이니, 그족이 더욱 나타났다. 증조 응문은 문과장원으로 증도승지, 할아버지 휘 영남은 벼슬을 아니하고, 아버지 휘간은 도사 청송 심씨는 군수 간의 딸이라. 공은 선조 계묘년(1603) 정월 13일 생으로 젊어서 이미 의의하여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는 글을 지어 사람을 놀라게 하더니 점점 자라 동지중추 송영구와 임송암 숙영을 쫓아 배우니 절행으로 학문을 중히 여겨 더욱 힘쓰더니 인조 경오년(1630) 진사시에 합격하여 선능참봉·조지서별제를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계유년 문과에 올라 승문원정자를 거쳐 시강원설서가 되고 형조좌랑으로 올라 병조검 지제교로 옮겨 이때부터 삼사에 출입하니 간원에는 정언, 헌납이오, 헌부에는 지평, 장령이오, 옥당에는 수찬교리로 가장 오래 있었다. 춘방에 들어와 다시 필선이 되고 국자감의 사예로 상의원과 사도시정이 되고 정해년에 어머니상을 당하여 복을 마치지 못하고 병이 생겨, 경인년 11월 5일 일어나지 못하니 48세라. 양주 북쪽 이담리 신좌에 안장하였다.

공의 기도가 준정하고 견식이 초매하며, 마음에 있어 일을 하는데 능히 너그럽고 성품이 매우 효순하여 12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지제가 성인 같고, 뒤에 추향을 만나 찬을 만들고 그릇을 씻는 것을 친히 하며 제삿날은 반드시 슬프고 공경함을 이루고 음성과 용모를 보고 듣는 것 같이하여 비록 질병이 있어도 판사람으로 대신하지 않았다. 도사공을 섬길 때 성의를 다하고 뜻을 양하여 휴일에 애회과례하며 혹 다리가 약하여 땅에 넘어져도 오히려 폐하지 아니하니 친구들이 간하면 답왈 “사생이 유명이라, 내가 죽어도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없을진대, 돌아가 부모를 뵈오면 또 무엇이 슬프리오” 라고 하였다.

문효공 조익이 마침 이웃집에 살며 매양 경탄해 가로되 삼년 곡읍을 하루같이 하는 것은 조군에서 보았노라고 하였다. 서모 대우를 은의가 극진하였으며, 모든 누이동생과 모든 이모에게도 어머니같이 봉급을 나누어 드렸다. 버리면 정신 역제하며, 신득연이 도적규로 더불어 꾀하여 나라를 욕되게 한 죄를 간청하고, 또 궁인이 저주한 옥사는 마땅히 유사에게 부칠 것을 극언하며, 중관으로 다스림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사의가 정대하였다. 사양광에 실물을 의론이 많으니 그 경연을 열어 반복하여 효유해 밝히니 당시 참관관이라 일컬었다. 일찍이 심양행매에 못사람이 감히 간섭 못하게 하니, 청음 김문정공이 북으로 끌려가 해를 당한지라, 듣고 아름답다 하여 시를 지어 서로 주었다. 적신 김자점이 바야흐로 상감과 친하고자 하여 일증춘궁에 채장을 진상한다. 하여, 공이 비루하게 여겨 굳은 충신의 뜻으로 기롱하니 자점이 노하여 반드시 중상코자, 공의 흠을 구하나 얻을 바 없어 다만 선비장군을 삭직하고 내구를 천거하여 높은 공훈과 정승자리를 주어 위엄과 권세가 심히 성하였다. 공이 본디 그의 그릇됨을 아는 고로 드물게 왕래하며, 엿보아 적지 않게 질책하고 집 하나를 빌려 의아함을 풀까 하더니 얼마 안되어 모반으로 죽고 그 소친이 화를 입고 공은 홀로 초연하니, 여러 사람이 더욱 기이하게 여기더라. 인당에 또한 훈척대신이 있어 자주 은근한 뜻을 보이거늘, 공이 마침내 한 번도 보지 아니하고 우연히 귀한 사람이 비리로 돈피모자를 얻은 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물리치니 좌우에 얼굴빛 변치 않는 이가 없었다. 평생 해적이 이와 같다. 문장 옹혼이 되어 기운이 반드시 선진서경으로 법을 삼고, 고급시 체격을 성하게 하여 혹 일시 회적도 하였다. 약관에 계곡장유와 해후 수창하며 장여를 극가하고 타일상기아배인(他日相期我輩人)이란 글귀가 있다. 태당, 이공 식이 공의 문학을 더욱 탄복하여 항상 같이 수업하고자 하며, 집이 본래 가난하여 생산의 유무를 묻지 않고, 두문한정하며 금화가 쇄연하여 항상 물외에 취미를 두었다. 그러나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함은 천성에서 나와 가진 의론이 준결하고, 조리가 단확하며 연옥과 세리에는 더욱 고요하였다. 공이 비록 사귀어 놀지는 않았으나, 신의로 사생을 마치었으며 곤액에 권휼하여 사람들은 어려운 이라 하였다. 유고 약간에 책이 있어 집에 감추었다. 공이 함풍 이씨 군수 광철의 딸을 취하고, 재취는 평산 신씨 지사 경진의 딸이니 모두 부덕으로 칭하고 이씨 1남 종면은 현감이요, 신씨 1남 종저는 문과에 합격하여 여러 번 반열을 쫓아 옮겨 희양부사로 벼슬을 마쳤으나 그 문장은 현감보다 더욱 기이하였다. 현감이 4자

를 두니 의한은 직장·의정·의현·이화는 부사요, 3자를 두니 이정은 승지로
곧 글을 청한 사람이요, 의봉·의상과 증현 남녀 몇사람이라.

명에 왈 대개 들으니 문사는 절개를 세운 이 적다. 하물며 저 지극한 행실은
오직 부모님께 효도라. 마침내 삶을 버리었으니, 이미 정성이 돈독하고 도 아
는 것이 통달했네. 무엇이 일러 멸성이라 하오. 영웅스런 말 맑은 지조라. 백에
하난도 베풀지 않으니 이것은 장차 누구의 변인고. 저 높은 것은 돌이니, 내 그
글을 새겨야 세상에 성하는 바라.

－ 의정부 좌의정 박세채 지음

제15절 이중경 모음기(李重庚 墓陰記)



李重庚(1680~1757)의 본관은 全州로 자는 白也, 호는 雙湖이다. 아버지는 錫齡이며, 어머니는 黃應老의 딸이다. 1727년(영조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正言, 獻納, 都承旨, 工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1727년(영조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오언, 등을 역임하였다.

御自亞謀擢承善俄佐秋官出治安東府後人銀
堂春郎加元眠以掌禮勞陞嘉善授知申武水部
騎省金吾總府宰茂朱還拜嚴垣長屆棒年以子
章吾從班見進嘉義後特命扶正卿知敦府入書
社達大司空尋加正憲丁丑四月二十六日考終
于正腹上悼惜命有司庀葬從厚六月乙酉葬于
楊州嘉亭里面已之原配貞夫人徐氏達城府院
君宗暉之女貞聖王右之卿也生于辛酉四月丁
亥以丙子子歸有婦德宜於福茂寅十一月一日
卒翼年正月柩于左珠瑩而枕子去舉二男二女

正憲大夫工曹判書李公重庚之墓陰記
府君諱重庚字白也系出瑯琊孝寧大君諱補躬
有清操之德安社於後冕笏勲德女草婦至諱繼
漢世推長德位路而專于一縣後馳吏曹判書其
王父也曾祖諱尚淵判官贈吏曹判書考諱錫齡
同知中樞贈吏曹判書姚貞夫人昌原黃氏金正
應老之女大司成康之孫也府君以肅宗庚申九
月丁丑生壬午中司馬丁未登文科隸槐院除自
如察訪施擬說書陞典籍移騎郎正言子清道郡
歷文學獻納掌令獨善輔德大僕正常帶三字口

耆益康建回承之曰子孫列為壽觀者艷其福履
府君晚年登朝恬於進取前後踐履不足以展施
又其雅意不啻於求閑諫業已焚口碑寢遠令於
誌□之丈無以闡揚其萬一此不肖孤無窮之恨
也然上尊論道臣日李某於松邱無一觀予多其
雅操也草襲一襲獨其所存此可以掩曲而無憾
矣於是收泣敬書如右云爾
男資憲大夫刑曹判書 章敬撰并書面 孫
通政大夫行成從府使 得濟 敬書 歲甲午
男章吾偉竊登使試唱竿之白 上春念晦昔親

長明吾僉正次章吾婿沈鎭金運恒側室男謙吾
即麗亨吾萬戶婿李邦詰縣監柳煥章明吾男得
璣參奉得諱得齊婿趙允遇章吾以得濟為嗣婿
鄒存德采翼休也府君天資溫知雅性剛簡接物
以性悌慈祥而遇事則堅確弗撓不事違暢容儀
任真誠通而明於涇渭言約而切於繁寢白首奉
兩親志養備至與弟正字公篤於友愛百口黃髮
庭無間言素尚儉約暇食無華侈制市用土繭不
喜交遊杜門守靜以恭書自娛文章得於天分加
以勤勵尤長於詩儂大小科 試軒入高選享大

製文賜祭于第
顯恩也不肖孫亦蒙進扶昌切刊金吾用恩例贈
府君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世孫貳師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
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總府都德官贈先
妣貞敬夫人依符遠蔭蘇奉制宴之寵命攀慕靡
洎唯有感涕子明吾後陞品至知中樞孫得濟階
嘉善章吾謹追識 崇禎紀元後三壬辰月日立

〈역문〉

부군의 휘는 중경이며 자는 백야요. 왕가 출신이다. 효령대군 보가 끝까지 청권지덕을 지니어 왕위를 사양하더니 휘 유한에 이르러 세상이 장덕을 추대하여 한 고을의 목민관을 지낸 후 이조참판으로 옮기니 이 분이 당부이다. 증조 휘 상연은 판관으로 이조판서로 증직되고 고의 휘 석령은 동지충추부사로

이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어머니 정부인 창원 황씨는 침정 응로의 딸이며 대사성 상의 손녀이다.

부군은 숙종 6년(1680) 9월에 나서 숙종 38년(1702) 사마과를 마치고 정미년에 문과에 올라 예·귀원을 거쳐 찰방으로 나갔다가 설서·전적으로 오르고, 기랑·정언으로 옮기었다가 청도군수가 되고, 문학·헌납·장령·필선·보덕·대북정을 지내니 항상 3자에 함자대간으로부터 승선에 뽑히고 추관을 도와 안동부사로 나가고 다시 들어와 세자원복을 더할 때 예를 관장한 수고로 가선대부가 되고, 지신 수부 기성검 금오총부가 되었다. 무주군수에서 돌아와 미원장을 배하니 회년을 계하여 아들 장오의 종반으로 가의대부를 은진하고 후에 특령으로 정경 지돈부에 올라 로사기에 들어가 대사공에 정헌대부를 더하였다. 1757년 4월 26일 정침에서 고종하였다. 상이 슬퍼하며 유사를 명하여 후하게 장례를 갖추어 6월 을유(乙酉)에 양주 가정리 사향에 장사지냈다.

배 정부인 서씨는 달성부원군 종제의 딸이요, 정성 왕후의 언니이다. 숙종 7년(1681) 정해에 나서 숙종 22년(1696) 결혼하여 부덕과 복이 있었다. 영조 34년(1758) 11월 1일 죽으니 다음해 정월에 왼쪽에 부장하니 무덤이 다르고 임좌. 2남 2녀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명오로 관이 첨정이요, 차자는 장오요, 사위는 심홍과 김운항이다. 측실 남 겹오는 광청, 형오는 만호 사위 이방철은 현감 유환장이요, 명오 남 득준은 참봉 득호 득제요, 사위는 조운우이다. 장오는 득제로 뒤를 이었고 사위는 정존덕·송익휴라. 부군이 천자온화하고 아성이 강간하여 접물에 개제 장상하고 일을 만나면 굳건하고 확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복에 일 아니하고 용의 기임을 진하며 아는 것이 통해야 경위에 밝고 언약은 계관에 간절하여 백수에 양친을 모시고 봉양이 갖추고 아우 정자공과 더불어 우애가 돈독하며 백 명이 한 숯밥을 먹되 이간하는 말이 없고 본래 검약하여 의식에 화려함이 없어 세제를 또한 누에고치를 쓰며 교류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문을 닫고 고요하게 있어 바둑과 글을 즐기며 문장이 하늘에 닿았으나 부지런하고 시에 더욱 힘써 대소과 시험에 등단되었고, 70세가 넘도록 더욱 건강하여 회혼되는 날 자손이 많으니 보는 자 복을 부러워하였다. 부군이 만년에 조정에서 진취하며 지나온 것을 생각하니 죽히 펴어 볼 것이 없다하고 맑은 뜻은 구해 듣지 않으며 직간한 문고를 불사르고 칭찬하는 말은 멀리하여 지금 기록하는 글에 만에 하나도 찬양함이 없는 것이 이 불초고의 무궁한 한이라. 그러나 상이 항상 연신에게 효유하여 가로되 이모가 사저에 한 번도 나를 보지 아니

하니 그 맑은 지조가 높다고 하였다. 화려한 곤룡포 한번 비추어 주어 그 있는 곳을 보창하니 이미 유택을 덮어 유감이 없으니 이에 올음을 거두고 위와 같이 공경하였습니다. 승정기원 후 3임진(1772)

남 자헌대부 형조판서 장오 경찬 병서, 손 통정대부전행 함중부사 득제 경서 영조 50년(1774) 아들 장오 요행히 준시에 올라 차례로 부를 때 상이 옛날을 전 념하시어 친히 제문을 지어 집에 제사지내 주시니 광은이라. 불초고 또한 진질을 힘입어 부군을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겸 판의금부사 세손이사 지경연사 홍문관 대제학 지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증선비 정경부인 호적에 의하여 음후로 봉제밀지하니 고인의 명을 사모하여 오직 감사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구나. 아들 명오는 품계 지중추에 오르고 손 득제는 가선대부에 올랐다.

장오 삼가 추후에 기록함

제16절 홍약 신도비명(洪約 神道碑銘)



洪約(?~1460)은 세종대의 무신으로 본관은 南陽 이다. 주로 국왕의 호위무관직을 지냈다가 判中樞院事 에 이르렀으나, 端宗 의 복위에 관여되었다고 하여 더 이상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 했다.

崇祿大夫判中樞院事洪公神道碑銘 並序

嘉善大夫前行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侍講院檢校司書知製教中應善 並著

粵若殷李箕師東來興工藝半千渡江而半千之役無聞焉與漢初田橫東來與義士五百居島而五百之後亦無聞焉惟南陽洪氏粵在高句麗末唐遠八才子之一也自是厥後氏葉繁衍曾纓冠纓碩德卓行豐功偉烈不顯亦世至今為東方大姓固如芝根纓漂果有所自而抑豈非祖先積累

之修德乎謹按高麗有曰諱悅佐太祖功開國官太師吳為始祖也 繼而曰諱權平章事上柱國諱忠平公曰諱奎左議政亦南陽府院君數仕端臣定曰諱我大匡三司左事南陽府院君端臣世不顯忠臣名相載在震乘曰諱彥修判議政府事吳生公公諱約判中樞宗祿爵也公中麗茅素與梨花亭李某相善麗社既屋李公同僕自靖隱於楓岳公往從之李公不納曰前者黃鵬村來欲從我我力拒之曰通播諸人非不知殷仁齊鳩之義而人人皆奇夷鳩之風則東人莫罪焉君其出世

以先知覺後知毋負吾意則是亦從權之一道也吾今以拒鵬村之事復以拒公公亦為我出與鵬村共濟我東億萬生靈則第非天地好生之心乎公遂憐然連簡在王庭有暇在大條臺閣規模農便宜禮樂制作日思贊襄因革損益殷之周之彬彬郁郁允為揆策以來一愛之會公實權輿其盛矣時則有若國隱治隱而論者謂伯夷太公俱以殷之遠民樹立各異子與氏稱之曰二老者天官之大老故二老之易地則皆然爾蓋嘗論之五百年必有王者興其間必有名世者何

以言之天下之生久矣一治一亂固其理也否極而泰剝極而復亂極而治必待問世之淑人君子其儀不貳以匡王國然後可以屬大事判大業行天道教民於水火享民於春臺大宰豈可容易得乎天之生公非為一時大任而降也實為永世澤民而觀也昇平五百駕馭三五實出於缺缺得君行道規遠而德深也宜其子孫之說說其昌茂也此其大教也若夫尋常行誼則乃公□□□□□□□□□□
於公墓之右麗育四男長元老官上護軍次亨老

官工曹參議決利老官牧使並無名次貞老官牧使訓錄院都正次順老靖亂功臣嘉靖大夫唐城君靈椿一株丹桂五枝於公見焉銘曰太師佐麗南陽鼻祖開國元勳贊贊天造忠平匡定莊簡相繼議政生公考在麗李公誰適從楓岳梨苞梨苞詔公不出吾擠公迫歸然於整頓鎮否開泰勝於行通顯蓋損益殷之周之臺閣規模兵農便宜禮樂則作樂我王猷佐元功翼翼厥猷五百榮懷整公素襟零曰古民□到于今佳城鬱鬱淮海之陽龜頭剝落不可因仍耳孫食謀重修繁牲青

山不變黃梅不零遠條之實繁衍益升後學起敬非阿斯銘

大成至聖文宣王誕降後二十四百七十一庚申月 日重建右碑銘故議政思庵先生朴公諱之所撰而片石藹藹今焉□設字碑故食謀重新部有司書承牧尉公嗣孫泰燮司直公嗣孫秉夏

〈역문〉

은나라 말기 기자 동쪽으로 올 때 기술자 500명과 함께 강을 건넜으나 반천의 뒷일은 들은 바 없고 한나라 초기 전횡이 동으로 건너와 의사 오백인과 섬에서 살았으나 오백인의 뒷일은 들은 바 없지만, 남양 홍씨는 고구려 말기 당나라에서 파견됐던 여덟 제자 가운데 한분이다. 이로부터 자손은 번성하고 높은 벼슬아치로 빛을 내어 아름다운 덕행과 큰 공훈은 대대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대성의 하나이다. 이는 뿌리 깊은 나뭇가지 잎이 무성하듯 선조의 오랜 적덕으로 이루어진 결과 아니겠는가.

고증해보면 고려의 휘 열은 태조를 보좌한 개국공신으로 벼슬은 태사에 이르렀는데, 이 분이 시조이다. 이어서 휘 관은 평장사상주국으로 시호는 충평이며, 휘 규는 좌의정승 남양부원군으로 휘는 광정이고, 휘 용은 대광삼사좌사 남양부원군으로 휘는 장간이며, 대대로 크게 빛낸 충신과 명상은 우리나라 역사에 실려 있다. 휘 언수는 판의정부사인데 이 분이 공을 낳으셨다.

공의 휘는 약이요 판중추원사는 벼슬이다. 공은 고려 말 과거에 등제했는데, 이화정과 친분이 두터웠다. 고려가 망하자, 공은 망복자정하여 풍악에 숨었다. 공은 이공을 찾아 따르려하니, 이공은 받아들이지 않고 전날 황방촌이 찾아와 나를 추종하려하므로 내가 여러 사람을 숨겨 줄 수 없음은 은나라의 인과 제나라 축의 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백이와 왕축의 이상을 좇아 은둔하려고만 한다면, 버림받는 우리 민족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대는 세상에 나아가 선지로서 후지를 깨닫게 하여 나의 뜻을 저버림이 없게 하라.

이도 임기응변하는 한 방법일 것이라고 간곡해 거절하였다. 나는 방촌을 거절했던 일을 들어서 다시 공을 거절하니, 공도 나의 뜻을 받아들여 돌아가 방촌과 같이 우리의 많은 생명을 구제한다면 생을 좋아하는 천지의 덕을 본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거절했다. 공은 드디어 뜻을 바꾸고 돌아가 왕정에 발탁되어 높은 지위에서 일을 하였다. 대각의 지위, 병·농정 적의, 예악의 제정 등 왕을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생각했고 침체를 개혁하여 활기를 불어넣으니 찬연히 빛을 띠었다. 참으로 단군기자 이후 일대 변화를 가져올 계기를 공이 처음 시도했다.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때는 포은·야은 같은 분이 있었으며

로 논객들은 백이와 태공은 은나라 일민이었으나 걷는 길은 각각 달랐다고 했고, 자여씨는 이 두 늙은이는 천관인 대로이다. 그러므로 두 늙은이는 서로 처지가 바뀌었다면, 걷는 길도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해보면 오백년에 반드시 왕자가 일어난다.

그사이에는 명성을 날린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천하가 생긴 지 오랫동안,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짐은 신의 섭리다. 극도에 시련을 거쳐야 안정이 오고 극도에 혼란이 와야 치정이 이루어진다. 품행이 바른 숙인군자가 국기를 안정시키길 기다려서야, 대사를 맡기고 대업을 판단하고 대도를 행해야 국민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안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용이한 일이겠는가. 하늘이 공을 내심은 한때에 대임을 위해서가 아니고 실은 길이 국민에게 덕택이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백년이 승평했음에도 왕권이 바뀔은 현군을 맞아 도를 행하게 하려는 깊은 뜻에서 일 것임으로, 자손이 수없이 번성함도 당연한 것이리라.

이상 대강만을 말하고 작은 선행은 곧 공의 큰 인품이다. 공의 배위 정경부인 풍양 조씨는 사직 승평의 딸로 공의 묘 오른편 산등에 장사지냈다. 다섯 아들을 기르니 맏이 원노는 상호군, 둘째 형노는 공조참의, 셋째 이노는 목사니 모두 무후되고, 넷째 정노는 목사 훈련원도정이고, 다섯째 순노는 정난공신 가정대부 당성군이다. 다섯형제 모두 현달함으로써, 영춘 한 그루에 단가 다섯가지를 공에게서 보겠도다. 명왕 태사공이 고려를 도우니 남양 홍씨의 비조이요, 원훈이니 하늘의 뜻을 돕고 도움이라. 충평공·광정공·장간공이 서로 이어와서 의정공이 공을 낳으니 지나간 고려 말기라. 공은 누구를 쫓을 것인가 풍악의 이화정이라. 이화정이 공에게 고하되 돌아가 국민을 도우라.

공이 이에 뜻을 뒤집어 모든 것을 정돈하고 기우는 것 바로 잡으니 이것도 다 도망가는 길. 손익을 크게 그렸으니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가서 대각의 규모와 병기와 농기구를 편의하게 하였네. 예약을 제작하여 우리 왕의 생각을 빛나게 하고 왕명을 도와 으뜸공으로 날아갈 듯한 그 심정일세. 오백년 영화의 회포로 공이 본래에 옷깃을 여미고 자랑해 가로되 옛날 백성이 지금에 이르렀네.

가성이 울울하니

구부와 이수가 떨어져

여러 자손 뜻을 모아

희해에 양지이오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중수하고 제사를 올리니

청산은 변하지 않고
멀리 뻗은 가지 열매 열어
이후학은 존경심이 생기어
- 의정부 영의정 박순(朴淳) 지음

황매는 떨어지지 않네
번성하여 차오르니
아부하지 않는 이 명이오



제17절 정사호 신도비명(奠陽易湖 神道碑銘)



鄭賜湖(1553~1616)의 본관은 光州로 자는 夢輿, 호는 禾谷이며, 아버지는 以周이다. 1577년(선조 10)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吏曹參議·大司憲·刑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했고, 사후 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忠敏이다.

禾谷鄭公神道碑銘 並序 萬歷庚戌中外多士合辭齊頌陞享五賢于夫子廟庶職臣鄭仁弘方用事挾舊憾妬晦退二先生士論大愕大司憲鄭公諱賜湖率同僚陳劉極言其侮慢先賢眩亂主聽請亟痛絕之以定國是以正士趨明年光海主欲獨御新宮蓋有以也鄭桐溪蘊爭之被譴公又陳疏力言其可獎不可罪請納官以留蘊且曰臺諫者祖宗之所設朝廷四方之所責以言者如非其人檢佞其言私邪祖宗朝廷四方之所同棄者則殿下不得	以殿下好惡而斥逐之也前後其言雖未行而一世莫不避之公字夢輿文辭夙就筆法臻妙甫勝冠中司馬兩試越五歲丁丑登文科分隸槐院薦拜丞政院注書方李潑樹黨公面斥不少詭校陰釐丁憂制除時栗谷李文成公已沒而士流俱不容於朝公低徊冗散丁亥拜高山縣監適倭寇鹿島朝廷命將發列邑兵公調數千人整伍而進所過肅然後上問何者南徵有事孰爲善將兵兵曹判書鄭彦信對曰臣聞高山兵有紀律也鄭汝汝立居全州盜虛名觀察使欲發縣民爲汝立
---	---

堰田公再移牒執不許又直民之與汝立訟者頃
之汝立謀逆誅列邑治其黨甚急公獨靜以鎮之
士人誣其仇如賊謀公燭其誣竟罪告者事聞
就理公對以實人又有上書言之者得釋明年遠
拜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李潑既鞠死而其老
母幼子又在囚公謂按獄相臣柳成龍曰潑不服
而死法不宜及其母子柳驟然而謝人皆多公之
不宿憾而以直報也辛卯以禮曹佐郎拜金城縣
令明年倭難作士女避入北者累千計縣前川大
漲公治筏而濟之全活甚多按使論公不能遏賊

鋒遮職甲午由司僕寺僉正為延安府使病辭遭
內艱既吉歷司僕寺正左通禮執義為水原潭陽
二府使俱不赴拜安東府使是時天將楊經理
錫復大舉感倭于島山兵糧之出安東幾半之而
民散無以運公乃嚴拘土豪之為逋逃主者括其
丁輸之得不乏軍餉土豪志怨體使罷之倭又深
忌公綴反間構公經理聞而驚曰盡心國事者從
古多見忤恃公彌厚遠以文綺令伴使聞于朝
上嘉之特進秩俄入為戶曹參議管京餉益以能
著稱陞嘉善戶曹參判副總管轉大司憲吏曹參

判奉仕赴京還除黃海道觀察使石潭書院亂後
荒頽公新之遠為義州府尹不赴拜南原有使未
幾罷為安邊府使不及赴拜慶尚道觀察使康而
有威士民咸頌戊申辭歸首授李梧里元翼清選
知民事者四五人別設一局專主貢物軍民等事
及期磨勘公與金公晬李公時發韓公百謙與焉
又差實錄廳堂上三為大司憲慈殿欲拜山
陵公率同僚固爭以論奇自獻濁亂除謫諸遠窺
他陳列亦多歷大司諫吏禮刑三曹參判漢城府
右尹書 銘仁王后廟主陞資憲知中樞府事行

大司憲士子出為平安道觀察使請堅碑箕子廟
備述事蹟傳示無極從之公以西關近虜設五
營以便戰守葺安州城以壯關防癸丑囚人鄭浹
受凶徒嗾廣引諸名節以參延興家宴會為樂而
公名亦出為臺諫請拿問李月沙延龜方在物主
進而問鄭某參宴否李公對曰
此人常戒臣之參宴故前後皆未之見矣臺言雖
不售而公竟罷歸甲寅由判尹拜京畿觀察使明
年為刑曹判書知經筵春秋館事賊臣雨瞻嘖
臺官劾公公杜門謝病不復仕丙辰十月二十二日

卒于京第享年六十四公之先光州人我朝開城尹允孚江原道觀察使龜晉以文章行于世司憲府掌令之夏連世貴顯掌令生繼高郡守贈贊成於公爲四世曾祖諱純仁縣監贈丞旨祖諱紫成均進士贈參判考諱以同亦掌令贈領議政以清直稱妣東萊鄭氏司果應瑞之女公前配仁川蔡氏成均進士無畏女早卒無育後配昌原俞氏同中樞必英女同定于楊州伊陵里西生之原二男玄源星源俱不仕一女適觀察使洪處厚庶男長源廣源慶女適李擢縣令孫男展昌義

禁府都事儀昌亨昌輔昌佑昌孫女婿張檀郡守李壽元外孫洪受河掌令受曉府使受澳進士受憲判書外孫婿任清韓聖佑泰判朴斗望縣令金偶相參議李山輝郡守內外曾玄以下幾數百餘人不盡記五世孫文柱新擢第外裔大司諫洪禹瑞李壽李存中大司憲洪啓迪李顯祿留守韓顯蕃參判韓翼蕃說書李海重最顯公美髯髯自持簡默不妄笑語教行孝友立朝四十年愛君憂國一出於誠所與遊皆當世名勝而李白沙恒福黃秋浦慎中象村欽及李月沙最相善公之始仕既

述遺名塗及至干戈旁午奔走外官積庸始大著而庚戌以後朝廷日素善類進退公亦冠勉淳沉以設其世知公者至今惜之然觀其始終屈伸之際而公之爲公又可知已其見重於一時名號也宜哉公之後孫萃基等以公墓闕願刻爲大藏來請銘余不敢辭旣叙而又爲之銘銘曰
鄭起南眼展緒顯奕掌憲勵操直絃告藥公承義訓簡謹自飭早歲發軔已見梁斧與時消長我守不易無有易類隨著聲蹟望實漸孚晉塗稱闕旣按藩臬旣長臺聞孰侮大賢這厥毒螫公乃奏牘

甄義嚴斥直臣獻規荃聰填塞公請納官還其諱謫言雖不入士林勳色偏側危朝劣容散跡舍用未究君子攸惜維楊之麓吳公幽宅我撮其大銘
茲貞石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俞拓基撰

〈역문〉

만력 경술년(1510) 중외의 많은 선비들이 김광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 오현을 공부자 사당 동·서무에 모시고자하니 적신 정인홍이 당시 영의정으로 옛 감정을 품고 이회재·이퇴계 두 선생을 투기하니 사론이 크게 놀랐다. 대사헌 정공 휘 사호가 동료들 거느리고 국시를 정하고 선비의 나갈 길을 바로 잡게 하소서 라고 통절이 청하고, 이듬해 광해주 신궁에 거처할 때 동계 정온이 불가함을 말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자 공이 또 상소하여 권면하기를 “죄를 내림은 불가하다 역설하니 대간은 조종에서 만든 바나 조정과 사방의 책임이오. 말은 그 사람이 아첨하여 간사하면 조정 사방의 책임이오. 말은 그 사람이 아첨하여 간사하면 조정 사방이 다같이 버릴 것이니 전하 옳고 그른 것을 가려 물리치소서” 전후에 그 말이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한 세상이 위대하다 하였다. 공의 자는 몽여, 문사가 숙취하고 필법이 진묘하여 약관에 생원 진사시를 마치고, 5년 후 정축에 문과를 통해 예·과원을 거쳐 승정원주서가 되었다. 이발이 당을 세워 공이 면책하여 음해를 입었다. 부친의 3년상을 마치니 울곡선생의 운명하고 선비가 다 조정에 있지 못하여, 공이 정해년(1587) 고산 현감으로 부임하니 마침 녹도에 왜구가 침입하며 조정이 여러 고을에 군을 모으고 있어 공이 수천 명을 훈련시켜 나가니 지나는 곳마다 엄숙하였다. 후에 주상이 문기를 향자의 남쪽에 일이 있을 때 누가 그 중 잘하였는고, 병조판서 정언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고산병이 규율이 있다 들었나이다. 정여립이 전주에 거할제 허명을 도적하여 관찰사 현민을 풀어 여립을 위하여 밖을 막거늘 공이 두 번이나 첩지를 옮기여 허락하지 않고 또 곧은 백성이 여립과 송사하는 자를 기울게하여 여립이 역모로 죽으니 여러 고을이 그 당을 다스리기를 심히 급하게 하였다. 공은 홀로 고요히 집무하니, 선비들이 그 원수를 속이어 적에 피를 알고 공이 무고한 일을 밝히어, 주리를 틀고 공이 실지로 대답하고 또 글을 올리어 말하는 자 있어 풀리게 되었다. 이듬해 사간원정언·사헌부지평이 되어, 이발이 국문으로 죽은 뒤 그 노모와 어린 아들이 옥중에 있어 옥사를 살피니 상신 류성룡에게 이발이 죽으니 법이 그 모자에까지 미칠 수 없다하니 류공이 궐연이 사례하고 사람들이 다 공의 숙감으로 보복하지 않음을 칭찬하였다. 신묘년(1591) 예조좌랑을 거쳐 금성현령이 되었고, 이듬해 왜란이 일어나 남녀 노소 북으로 피란하는 자 수천 명이라. 장마로 시냇물이 불어나 공이 뗏목을

만들어 건너게 하였으나, 안무사는 공이 능히 왜적을 막지 못하였다 하여 관직을 교체하였다.

갑오년 사복시첨정을 거쳐 연안부사가 되었다가 병으로 사퇴하고, 어머니상을 당하여 3년 후에 사복시첨정·좌통예 집의를 지내고 수원부사와 담양부사가 되었으나 나가지 아니하고 안동부사가 되니, 이때 명나라 경리 양호가 다시 도산에 왜구를 칠 때 군량이 안동에서 반이 나올 것이나 백성이 흩어져 운반할 수 없어, 공이 토호의 도망간 장정을 모아 운반하여 군량을 대니 토호가 노하여 체찰사에게 고하여 파직시키고, 왜구 또한 공을 심히 꺼리어 반간하니 양경리 듣고 놀라 국사에 진심하는 자를 옛날부터 미움받는 것이라 하며 조정에 글을 올리고 공을 후하게 대하였다. 상이 아름답게 여겨 호조참의가 되어 서울의 군량을 관리하고 호조참판을 거쳐 대사헌 이조참판이 되어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난리에 퇴락된 석담서원을 중수하고 남원부사와 안변부사를 지내고 경상도관찰사가 되니 청렴하고 위엄이 있어 백성이 모두 칭송하였다. 무신년(1608)에 사양하고 돌아오니 오리 이원익이 민사를 잘 아는 자 4~5인을 칭선하여 국을 별설하여 공물 군민 등의 일을 전주로 하니 군기마감에 공과 김수(金睟)와 이시발(李時發)과 한백겸(韓百謙)이라. 또 실록청 당상이 되고 세 번 대사헌이 되니 자전이 산릉(山陵)을 배하고자 하거늘 동료들 거느리고 기자헌(奇自獻)의 탁란음휼함을 논란하여 멀리 귀양보낼 것을 청하고 다른 진열이 많았다. 대사간·이조·예조·형조참판을 지내고 한성부 우윤으로 의인왕후 위패를 쓰고 자헌대부지중추부사대사헌으로 승진되고 임자년(1612)에 평안도관찰사가 되어 기자 묘비(墓碑)를 청하여 사적을 세우고 서관(西關)에 오영을 설치하여 지키기 편하게 하고 안주성을 쌓아 방어에 장엄하게 하고 계축년에 죄수 정협이 흉도의 부추김을 받아, 모든 명절에 연흥가(延興家)에 참석하게 하여 안을 만드니 공의 이름이 있어 대간에서 문초할제 월사 이정구가 국문의 주장이 되어 정모가 잔치에 참석하였느냐 물으니 이공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항상 신에게 잔치에 참석을 경계하는 고로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하여 대간이 비록 핑계는 아니나 공이 파직되어 돌아오다. 갑인년에 판윤으로 경기감사가 되고 이듬해 형조판서 지경연 춘추관사가 되니 적신 이이첨이 대관을 부추겨 공을 탄핵하거늘 공이 병으로 사양하고 두문불출하다가 병진년(1616) 10월 22일에 서울집에서 졸하니 64세라. 공의 선향은 광주 사람이니 개성부윤 윤부와 강원도관찰사 구진은 문장으로 행세하고, 사헌부장령

지하는 아버지를 이어 귀하게 되고 장령이 찬우를 낳으매 청도군수 찬우는 찬성에 증직되니 공의 4세조요, 증조 순인은 현감으로 승지에 증직되고, 조부 경은 성균진사로 참판에 증직되고, 부친은 이주이니 장령으로 청직으로 이름이 있어 영의정에 증직되고, 어머니 동래 정씨는 사과 응서의 딸이라. 공의 전부인 인천 채씨는 진사 무외의 딸이니 조졸하여 무육하고, 재취 창원 유씨는 동지중추 필영의 딸로 양주 이담리 유좌에 3합장이다. 큰아들 현원과 둘째아들 성원은 벼슬을 아니하고, 딸은 관찰사 홍처후에게 출가하였다. 서자 장자는 광원이며, 서녀는 현령 이제에게 가고, 손자 전창은 의금부도사요, 의창·형창·보창·우창과 손녀 서장선은 군수요 이수원이며, 외손 홍수하는 장령 홍수량은 부사요 홍수환은 진사, 홍수현은 판서요, 외손서 임육 한성우는 참판, 박두망은 현령, 김준상은 참의, 이산휘는 군수라. 내외 종현 이하 수백여 명을 다 기록하지 못하노라. 5세손 문주 새로이 문과에 합격 외후손의 대사간 홍우서·이흠·이존중·대사헌 홍계적·이현록·유수 한현모, 참판 한익모·설서 이해중이 가장 뛰어났다.

공은 수염이 아름답고 스스로 간목을 지녔으며, 망녕되이 웃고 말하지 않고 효우를 돈독히 행하여, 조정에서 40년동안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함이 한결같이 성의에서 나와 더불어 노는 이 모두 당세에 명상이니 백사 이항복과 추포 황신과 상촌 신희와 월사 이정구가 서로 좋아하였다.

공이 처음 벼슬에 나갈 때 이미 이름 내기를 머뭇거리고 난리에 이르러 분주히 내외직으로 드나들어 외직에 공적이 크게 나타나고, 경술년 이후에 조정이 날로 문란하여 착한 사람은 다 물러나니 공이 또한 오르고 내림에 힘쓰다가 세상을 하직하니 공을 아는 이 지금도 아깝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종굴신을 보면 공의 공됨을 가히 알리라. 일시 명유에 중하게 봄이 마땅하도다. 공의 후손 화기(華期), 공의 묘에 현각이 없음을 크게 슬프게 여겨 와서 명을 청하니 내 감히 사양치 못하고 서하며 또 위하여 명하여 왈

정씨 남쪽에서 일어나니 그 실마리 빛나게 나타나고
범을 잡으매 조항을 힘쓰니 곧은 줄이 그루를 고하네
공이 의훈을 이어 받으니 간목근신으로 힘썼네
이른 나이로 바퀴를 발하여 임이 등마루를 보았네
자라고 사라질 때가 있으니 바뀌지 않음에 내가 지키네

쉽고 어려움이 없으니 수시로 성적을 나타냈네
 실지를 보아 점점 믿으니 나가 일하여 점점 열리네
 이미 지방장관을 지내어 대각에 장이 되었도다
 누가 대현을 업신 여길고 그 독사를 무이었도다
 공이 찾아와 소를 아뢰어 밝은 의로 엄히 물리쳤네
 곧은 신하로 법을 드리어 충명이 막힘을 열었네
 도로 부를 것을 주청하여 귀양지에 돌아오게 했네
 말은 비록 듣지 않았으나 사람의 빛을 움직였네
 법을 어기면 조정이 위태하고 용렬한 얼굴 공적이 흩어지네
 쓸 사람을 쓰지 아니하니 군자에 가까운 바로다
 오직 양주땅 산록에 이 공의 유택이로다
 내가 그 큰 것만 추리어 이 정석에 명하노라
 영조 임오(1762) 시호를 주니 충민공 (나라를 생각하여 집을 잊어버리는 것
 - 충, 모든 일에 공이 있는 것을 - 민)
 - 순조 계해(1803) 청주 수락서원 춘추향사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기계유척기 지음
 승정대부 판의금부사 청주 한익모 씀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연안 이천보 전자
 공졸후 삼백이십사년 기묘(1939) 10월 12일 세움

제18절 정이주 비명(鄭以周 碑銘)



鄭以周(1530~1583)의 본관은 光州로 자는 邦武, 호는 醒齋이며, 아버지는 진사 경이다. 1568년(선조 1) 增廣文科에 갑과로 급제하여, 戶曹正郎, 掌令 등을 역임하였으며, 李珥, 鄭芝衍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及門不觀贈承政院左承旨姚平康蔡氏贈收大
人高麗判典儀調之復成均進士恂之女以嘉靖
庚寅正月生公公聰明過人力學有文名而獨復
於進取戊午始中主貢進士試乙丑周太學生諸
罪妖僧普雨文多出公手化得請亦公作成以回
天之力歸之登戊辰甲科除義盈庫直長居數月
薦補藝文館檢閱業調七品自非甚選人不必過
入吏局國朝以來僅二人而公其一也轉承政院
注書遷成均館典簿歷工刑禮三曹佐即以聖節
使青狀官朝京歸索無省一枝書一卷或謂曰如

公諱以周字邦武一字由盛號醒齋出光州為
望族諱遠而派益分即公自出可譜者七世祖臣
庖高麗殿直六代祖允享本朝開城尹五代祖龜
晉江原道觀察使所為文章行于世高祖考諱之
夏司憲府掌令曾祖考諱續高靖道郡守贈議政
府右贊成祖考諱純仁牙山縣監贈通禮考諱榮
成均進士竊疑有立為齊說揀望早廢舉子業故
述江湖無仕進意外舅柳議政順訂表兄尹議政
觀交薦之擬於金吾即公深以不相踰為恨至於

鄭以周碑銘

崔立

書籍購之何妨曰書籍在我國者亦不能盡讀沒
江之日悉制行李留餘者分之下輩曰始吾不辭
列邑能遠正為萬里慮外費耳今幸無事還何用
為拜司諫院正言頗有爭臣之風值一外戚登科
方親臨賜名大小臣僚爭趨後拜班列為空公獨
端立不動以此見持出平安道都事未幾呂拜司
憲府持平伊時朝著雖成朋比有一餘即欲授公
為重過訪至三公一不曰謝以視之意改均館
直講刑權戶三曹正郎國家大學軍籍以嶺南素
稱豪富難於括丁其教甚官特命擇遠公行果稱

旨強情怙伏隱漏無所容本道一士人方以據官
歸過訪公有意視其家公面責之曰如君通列之
人且如此乎其人色變即座上書與家下良丁若
千而去遂心術之暗啖臺官程靜輝射上臨筵
問大臣盧守慎曰鄭某則直子所知也今論者如
是卿南中人抑有問乎對曰臣聞其盡心國事多
得聞丁而已他無所聞上曰然遂不允公謝病
還事竟失緒識者嗟惜既又以巡撫御史出本道
將吏望風震懾上臺有自徽遇刺屋者入拜司諫
院獻納會沈義誥金孝元角立並起不靖之端公

與大司諫鄭芝衍副提學李得通議俱出兩人諫
外意在鎮定間有峻論偏收者力止之以廢陞司
憲府掌令恩奉常寺金正成均館司藝司成司禮
寺正僕奉命京畿巡撫御史文儒敬差官及江原
道教差官所至澄澈凡為正言者三持平者四掌
令者六朝廷因以綱紀言論之責寄公而公亦奉
職無所避竟以直道不容於時一應赴空呼救使
至則愛民如子居官如水以納取足為指征入夫
民歎齊之歲時問飽惟於親舊相寒不違要顯家
初非矯激以然及其群組野也視裝有新衣籠二

怒而立焚之到家之日相與於醉方始舉火舊業
在春川簿甚然有優游卒歲之計區馬東歸陳堵
蕭然居之晏如也萬曆癸未二月以疾卒享年五
十四其年五月葬于嘉平郡遠南面望良之原
夫人東萊鄭氏遂原府院君昌孫之五代孫副司
果應瑞之女生三男一女長男賜湖癸酉司馬丁
丑文科黃海道觀察使初娶進士蔡無畏女幼娶
奉奉翁必笑女生一女幼側室生一子長源次男
明湖庚辰文科承文院正序早死娶司藝金士銓
女生一子斗源次男雲湖戊子司馬世子翹衛司

洗馬初娶忠義衛李純仁女純娶幼學康允女
連縣監鄭晦生二子彭公斗全斗源娶判官沈華
謙女生一子幼夫人因士辰避亂寓于溫陽鄭晦
家甲午五月疾卒不克以喪北歸葬于清州地山
外坐民之原公為人端嚴簡默自少處明顯之間
戲言諛語未嘗出口人得其一笑重於金王無敢
不起敬焉時屢登士禍以理學為諸公發憤獨得
於大學章句近思錄性理諸書甚遠許草堂暉為
大司成與之道揆歎曰不啻斯世復見斯儒也家
居過祭日沐浴齊戒必書城敬號游熱必躬服

雖有疾恙不廢為官無小大一意奉公不問難以
一毫私情非惟公不以聞即及人人亦不敢以聞
即沈公公選靜室一室左右圖書以終日唯復詩
養松竹相與蕭洒而已其於選往馳逐斷如也不
以家事累心屋頤則博雅荒疏而不為子孫營立
一畝之莊雅不喜雜技然晚而學琴頗用寄趣焉
以公有學有守而有威是以精神朝廷之上折衝
封疆之外而如公者鮮忘公者多命亦不過不得
試其什一宜其歸成子後夫人慈厚多陰德人
亦曰必有報果以胤子數位天官少宰故得推恩

〈역문〉

공의 휘는 이주, 자는 방무, 일자 유성이요. 호는 성재로 광주 정씨라. 근원이 멀고 파가 나뉘이니 공의 7대조 신호는 고려 전직이요, 6대조 윤부는 본조에 개성 부윤이요, 5대조 구진은 강원도관찰사니 문장으로 행세하고, 고조 지하는 사헌부 장령이요, 증조 찬우는 청도군수로 우찬성에 증직되고, 조부 순인은 아산현감으로

公視子秩夫人與貴焉然方且未艾也觀察謂宜
審遊於文子開碣墓微文豈或不得靜則據墓狀
叙本末而係之銘詩曰
舉刑庶爲國芳獨持方也遂與者之競芳不易以
芳也濁流染足方去而之清也繫自命其居芳古
遺醒也以寔常世芳適盡其至也故餘于後芳吾
如其未已也

통예원좌통예에 증직되었으며, 부친 경은 성균진사로 친구들의 억 억한 표망이 되어 강호에 노닐고 벼슬할 뜻을 버리니, 외숙 영의정 류순정과 표형 영의정 윤개와 교대로 금오랑에 천거되나 서로 보지 아니하였다. 졸후에 승정원좌승지에 증직되고 모친 평강 채씨는 고려 관전의 연의 후요, 성균진사 순의 따님이다. 중종 25년(1530) 정월에 공을 낳으니 총명이 과인하고 힘써 배워 문명이 지취되어, 명종 무오년(1558) 생원진사에 합격하여 을축년(1565)에 태학생이 되어 요승 보우를 청죄할 제 공이 글을 많이 써서 상감의 마음을 돌리었다. 선조 무진년(1568)에 갑과 장원하여 의영고직장을 거쳐 예문관검열이 되니 7품이라, 사국에 사람 가릴제 심하게 아니하니, 국조 이래 겨우 두 사람인데, 공이 그 한 분이라. 승정원주서와 성균관전적으로 공조·형조·예조좌랑을 지내고 성절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올 때 전대에 향 한 가지와 책 한권이 없으니 혹자 이르기를 서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에 해로운고 하나, 우리나라에 있는 책도 다읽지 못하였다 하였다. 압록강을 건너고 나서 행장에 남은 것을 아랫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며 여러 고을에서 주는 것을 사양함은 만리원정에 여비를 근심하였는데 다행히 무사하게 돌아왔으니 무엇에 쓰리오 하였다. 사간원정언으로 있을 때 자못 쟁신에 풍이 있어, 등과하여 상감께서 친임호명할 때 대소 신료가 반열을 다투되, 공은 홀로 서서 움직이지 아니하여 미움을 받아 평안도도사로 나가게 되었으며, 사헌부지평으로 부르니 이때에 조정이 붕당을 만들고자, 전랑 한 사람이 공을 끌어 들이고자 세 번이나 방문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성균관 직강을 거쳐 형조·예조·호조의 정랑으로 있을 때, 국가가 군인을 뽑는데 영남을 본래 호국이라 부르나 군인을 뽑기 어려워, 경차관으로 특명하여 보내니 교활한 아전이 첩지를 숨기어 소용이 없었다. 본도에 한선비 간관을 시켜 나의 집을 보호해 달라하여 이열지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면책하니 그 사람이 얼굴빛이 변하며 자기 집에 양정 약간을 보내기로 하고 돌아가 대간으로 하여금 공을 탄핵하였다. 주상이 대신 노수신에게 묻기를 정모의 강직함은 영에 아는 바인데, 지금에 논란이 이같으니 경은 남중인이라 들은 바 있는가 하니 국사에 진심하여 한정, 마침내 질서를 잃으니 아는 자는 아깝다 하였다. 또 순무어사로 영남에 가니 영장과 아전과 토호들이 지나친 가옥을 헐어버렸다. 들어와 사간원 헌납이되니 마침 심의겸과 김효원이 부정한 끝을 각각 세워 공이 대사간 정지연과 부제학 이이와 더불어 두사람을 외직으로 보낼 것을 의론하였지만, 준론평공하는 자 힘써 막아 그치고 말았다. 사헌부장영에 올라 봉상시첨정과 성균관사에·사성과 사섬시정을 지내고 다시 경기순무어사와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 강원도경차관을 역임하며 이르는 곳마다 맑게 하니 정언을 세 번, 지평을 네 번, 장령을 여섯 번이나 지냈다. 조정이 기강으로 굳은 언론에 책임을 공에게 맡기니 공이 또한 피하지 않고 한결 같이 끈게 시회하니, 정주목사로 부임하여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고, 관에 거하기를 물과 같이 하여 언약한 것은 풍족하게 다 주어 아전과 백성이 노래하고 춤추며 선물은 오직 친구의 외로운 사람에게 하며, 요직의 현달한 집에 이르지 아니 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나 돌아오니, 새로 만든 옷과 그릇을 보고 노하여 불 질러 버리고, 집에 이르는 날에 이웃집에서 꾸어다 불을 지폈다. 춘천에 있는 구업이 심히 박하였으나, 필마로 돌아와 가난한 살림에 편안히 거하였다. 선조 계미년(1583) 2월 병으로 졸하니 춘추 54세라. 그해 5월에 가평군 원남면 간좌에 안장하였다. 부인 동래 정씨는 봉원부원군 창손의 5대손이요, 부사관 응서의 딸이라. 3남 1녀를 낳으니, 장남 사호는 계유년에 진사, 문과급제하여 황해도관찰사로, 진사 채무와의 딸과 초취하고, 참봉 유필영의 딸과 재취하여 1녀를 낳으니 어리고, 측실의 아들은 장원 차남 명호는 경진년 문과하여 승문원정자로 조졸하고, 사예 김사섬의 딸과 결혼하여 1남을 두니 두원이다. 삼남 운호는 무자년 진사로 세자익위사 세마로 충의위 이순인의 딸과 초혼하고, 유학 강윤의 딸과 재혼하고 1녀는 현감 정희에게 출가하여 2남을 두니 팽경·두경이다. 두원이 판관 심제겸의 딸과 혼인하여 1남을 두니 어리다. 부인이 임진왜란

을 피하여 사위 정희집에서 졸하니 능히 북으로 오지 못하고 청주산외 간좌에
안장하다. 공의 위인이 단엄간묵하여 어려서부터 친구와 노는 사이에도 농담
을 하지 아니하여 한번 웃는 것을 금옥보다 더 중하게 여겨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사화가 빈번하여 이(理)학으로 지목하니 공이 홀로 《대학》장구
와 《근사록》승리서에 심히 통하여, 초당 허엽이 대사성과 더불어 읽어보고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선비를 보았다고 칭송하였다. 집에 있을때 제삿날이면 목욕
재계하고 문구를 수리하며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세척할숙(洗滌割塾)을 몸소
행했다. 관직에 있을 때는 크고 작은 것 없이 한결같이 공적으로 하여 일호도
사정을 쓰지 아니하며 오직 공이 아니면 뇌물로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하니, 감
히 뇌물로 공을 회유하지 못했다. 퇴청하여 방안에 고요히 앉아 좌우에 도서로
하루를 보내며 오직 송죽을 길러 물 뿌리고 쓸며 오고 가는 것을 끊은 것같이
하여 한이랑의 전장을 장만하지 아니하며 잡기를 멀리하였다. 그러나 늦게 거
문고를 배워 즐겼다. 공이 배움과 위엄이 있어 정신은 족히 조정에 사이되어
절충봉강(折衝封疆)에 올랐으나, 공을 아는 자 적고 공을 기리는 자 많으며, 명
이 또한 불우하여 열에 하나도 얻지 못하니, 마땅히 후인에게 돌아가 성공하리
라. 부인은 인자하고 음덕이 많아 사람들이 이르기를 반드시 보가 있으리라 하
더니, 과연 그 아들이 천관소재(天官少宰)에 이르러, 공과 부인이 추은되어 귀
를 보았다. 그러나 바야흐로 싹이 트지 아니하였도다. 관찰이 최입(崔笠)에게
이르기를, 우리 부자 사이에 항상 놀았으니, 묘갈에 글을 지으라 하여 이에 사
양할 수 없어 가장에 응거하여 본말을 펴고 이어서 명시하여 알

세상이 다 깎여 둥글어도 홀로 모난 것을 가졌으며
냄새를 쫓아 다투어도 꽃다운 것을 바꾸지 아니했네
흐린 물에 발이 물들어 맑은 곳으로 나가고
천명에 맡겨 살지니 옛것을 깨달아 남기었네
옴으로 세상을 맛봄이여 그 지극함을 맞게 되었고
남은 것을 후로 거두음이여 내 그치지 않음을 알리라
- 서조 갑진(1604) 3월

간성군수 최입 지음

제19절 정장공 신도비문(貞莊公 神道碑文)



어유소(1434~1489)의 본관은 忠州, 자는 子游로 아버지는 得海이다. 1456년(세조 2) 3월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460년(세조 6) 북방의 야인 정벌로 折衝將軍이 되었다. 李施愛의 난을 평정하여 敵愾功臣 1등으로 藝城君에 봉해지고, 명나라가 여진의 建州衛를 칠 때 좌대장으로 큰 공을 세웠다. 이후 병조판서, 이조판서, 의정부우찬성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貞莊이다.

藝城君貞莊公神道碑文

天生聖君必有俊傑之士爲之輔翼其所托重而得以盡內修外攘之治者惟相與將耳夫以武藝名於時者不一然才略之美功業之盛未有如公之爲將者也豈非山河鍾氣應時而生耶公諱有諱字子游忠州人也遠祖重翼本姓池仕高麗王太祖朝體貌奇偉膂力有三麟甲太祖異之賜姓魚曾祖諱升震進士祖諱仲淵廣州牧使考諱得海中武科才高一世楊歷中官至宰相爲時名將贈右議政妣忠公劉氏生員永贊之女也公生而異及長射御絕倫景奉丙子中武科第一爲可便直長俄陞司憲府

監察天順庚辰北虜擣蒙朝廷舉兵誅之公從戎功最起拜本列大夫通禮門通贊兼傳官宜傳之機世祖始置之凡軍政機務宣命等事悉掌之其任非輕上常自還用幸其擢拜上護軍兼知兵曹事癸未加壽善爲會寧府使以其開防重鎮特起授之丁亥通爲上護軍兼五衛將時李施愛兄弟作亂於咸吉道盡害朝廷所遣大小官人其勢甚熾朝廷徵諸道兵討之公以諸將封征賤先登形便悉衆據陰遼截官軍伐卑憚其鋒銳莫敢先進公所令攻之地海邊窮崖勢極險峻公獨以部兵冒白刃魚貫而進

通先登大破之賊象前遣諸將乘勝鐵饒逐跡施
愛兄弟北道悉平凱還之日上歎策功為第一賜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號封藥城君還授正憲大
大工曹判書賜回上藏獲甚優是年冬嘉帝遠兵討
建州人令我國失功之上命三大將應之公為左
大將直截建州衛新賊無數勦穴研樹白而書之曰
某年月日朝鮮大將軍歲建州而還天兵使到者見
之聞于帝帝嘉之特選使賜白銀若干兩餘服若干
匹上亦奴婢八口戊子丁亥憂朝廷改咸吉道為
咸鏡道且分為南北道起復公為北道節度使辛卯

今上又賜純忠佐理功臣號封藥城君壬辰加崇政
復拜為永安道節度使咸鏡道至其再更其號公以
母老若辭上諭之曰豫察朝廷鎮安北道非卿不
可卿母則勿以為憂所以惠恤其母者佛至乙未期
滿上亦離其人馳諭曰卿若遠仕誰代卿者卿休豫
意獎勵不忘其所以任倚公者如是歲賤犯鍾城
之鏡公應機殲之上下特遣經筵官諭旨因賜衣靴
宴樂以慰之而已進授議政府右贊成兼都統有表
結管丁面轉兵曹判書戊戌陞議政府右參贊己亥
建州野人犯上國之境帝為征之命我持南上以

公為元帥兼三道巡察使還兵一萬應之教曰聞外
之事自有將軍節度所管衛將以下任卿處置公領
軍至滿浦鎮時江水未合糧料必盡不得已罷兵而
來時朝議非之然非為一己利害之計若使久留食
盡兵疲敵遂越江往遠之擒耳將焉用之公計之熟
矣辛丑復封君兼都總管尋拜吏判書政權重任也
公歷判兩曹公議然也士實水安道城廩野人挈所
部潛移深處特命公往慰安之因招還舊居公受
命倍道而進先使人問諭且示教盡野人頗傲不
信曰誰代單使人口無令公今至矣汝果不信乎

野人曰令公來則畏我父也可得見乎公即馳其部
虜皆羅拜公諭以教旨莫不歸命還率其酋長十
五而還使安舊寨上賜弓矢甚嘉實之弘治戊申
改判中樞府事兼都總管以公之忠勤也典禁兵帶
宿衛者久矣已酉冬上聞武于鐵甸公扈從至永平
縣暴卒享年五十六上震悼為之撤園賜葬有
加賜諡貞莊公凡在朝廷下至卒但莫不慟惜曰公
遠遊乎公本寬和與人無忤汎愛容物恂恂如也雖
以弓馬為業晚達吏務處事詳密有儒者氣象反其
臨陳對敵意思安閒推鋒陷陣所向無前嘗往建州

而還也虜騎數十持其號銳衛與我復軍公瞋目不
出戎士卒無得相從遂以單騎馳射虜皆應弦而倒
公窮追不還虜不敢更窺我軍其旗北首尾十餘
年野人懷服絡繹而至公為之候撫置酒款犒弓力
百鈞射必命中虜皆悅服或有執質來現皆拒之曰
吾不取也一毫無犯辱其位而遣之野人皆舉加
額莫不歡喜遠境賴以無事隱然為國長城嗚呼公
之不幸國家之不幸也公配靈山辛氏內禁衛信之
女也有三男一女男長曰孝誠宣略將軍次曰孝禮
次曰孝恭皆秉節持尉女適參奉閔懷發中樞考源

之子也側室子曰自光次曰孝光皆修義副尉銘曰
麟符厥姓王及有命惟家之慶雙世重祐有祖有父
克繼其武先光令胤山河氣振千夫之俊擢魁科目
登跡大僕躋騰是遠出入陞遷屢當劇權器具方圓
東征西討電擊風掃前無橫草四逞其威虜孽殲
展也其嚴身除巨害暗功斯最皆捐河帶就長銓衡
進貳胡羹使哉寵榮受執事樞相乎將乎丞贊訂誤
聖鑒泉邊標傾揀舉誰惜前著有烈其秩太史所籍
副在銘石
推忠定難翼戴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역문〉

공의 휘는 유소(有沼), 자는 자유(子游), 본관은 충주로 본성은 지씨(池氏)이다. 먼 조상 중익(重翼)은 나면서 체구(體究)와 상모(狀貌)가 기이하고 거드랑 밑에 세 개의 비늘이 있었다. 장성하여 고려의 왕건 태조를 섬겼는데 사람들이 “아무개는 비늘이 있으니 비상(非常)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왕건 태조는 중익을 불러 확인하고 말하기를 “너는 비늘이 있으니 물고기이다”라고 ‘어(魚)’로 사성(賜姓)했다.

공의 증조 승진(升震)은 진사요, 조 중연(仲淵)은 통훈대부광주목사(通訓大夫廣州牧使)이고, 고 득해(得海)는 무과에올라 벼슬이 재상에 오르고 당시 명장이 되었으니 좌의정을 추증(追贈)했다. 비 충주 유씨는 생원 영찬(永贊)의 따님이다.

공은 나면서 영특(英特)했고 성장하면서 활쏘기와 말타는 기예가 절운(節倫)했으니 나이 열여덟에 내금위에 선보(選補)되고 경태 병자(1456) 세조 2년에 무과에 제1인에 뽑혀 곧 사복시직장에 임명되고, 얼마 안되어 사헌부 감찰로 승진되었고, 천순 경진(天順庚辰) 세조 6년(1460)에 북쪽 오랑개가 혼란을 일으켜서 조정에서 군대를 보내어 주토(誅討)하였는데 공의 종용(從戎)한 공로가 가장 뛰어나서 봉열대부 통례문통찬검 선전관에 최초배(最超拜)되고, 세조 7년(1461)에과의(果毅) 상호군 지병조사(上護軍知兵曹事)에 승진되고, 절충장군(折衝將軍)을 더했으며, 세조 9년(1463)에 가선대부회령부사(嘉善大夫會寧府使)에 임명되었다. 세조 12년(1467)에 벼슬이 바뀌어서 상호군겸 오위장(上護軍兼五衛將)이 되었다.

이때에 이시애(李施愛) 형제가 백성을 속여 함길도(咸吉道)에서 난을 일으켜 수령진장(守令鎭將)을 모두 죽이니 그 세가 심히 컸다. 급기야 조정에서도 제도(諸道)의 군대를 징발하여 이를 토벌하였는데, 공은 장수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에 임했다. 적이 먼저 유리한 형세를 차지하고 험요(險要)에 응거하여 관병을 막으니 진용이 십 여리에 뻗치고 그 예봉을 당하기 어려웠으므로 장수들이 감히 먼저 나서지 못했다.

그런데 공이 공격을 맡은 곳은 바닷가에 깎아 놓은 듯한 벼랑으로써 지세가 매우 험준했다. 공이 홀로 휘하의 병력으로써 거리를 물어 앞으로 나가면서 칼날을 세워 힘써 싸워 선등(先登)하여 크게 깨뜨리니 적진이 일시에 무너졌다.

제군이 승세에 편승하여 적을 모조리 섬멸하고 적당 이시에 형제를 죽이니 북비(北鄙)가 완전히 평정되었다.

세조께서는 그 공로를 가상하매 특히 내전(內殿)에서 인견하시고, 진작(進爵)케 하셨으며 전공(戰功) 제1로 녹공(錄功)하시고,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의 작위를 내렸으며 예성군(藥城君, 충주의 고호(古號))에 봉하였다. 이어서 정헌대부(正憲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초수(超授)하시고 노비 12구와 전 일백오십 결을 하사하였다. 이해 겨울, 명나라 황제는 군대를 보내어 건주(建州) 야인(野人)을 정벌하는데 우리나라에게 협공(挾攻)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세조는 세 사람의 장수와 군대를 보내어 응접(應接)하게 하였다. 공은 좌대장(左大將)이 되어 곧장 건주위로 진격하여 그 소굴을 무찌르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적의 목을 베었다.

한편 공이 수백(樹白: 나무속의 흰 부분) 짙어서 쓰기를 “모년 모월 모일에 조선국대장(朝鮮國大將) 어유소가 건주를 멸하고 돌아 간다”고 했다. 천병(千兵: 명나라 군대라는 뜻)이 뒤늦게 이르러서 그 백서(白書)를 보고 이 일을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는 기뻐하며 우리나라에 사자를 보내어 그 전과를 치하하고, 은 오십량과 비단 각 네필씩을 하사하니 세조께서도 노비 팔구(八口)를 내려 주셨다.

세조 14년(1468)에 부친상을 당하고 다음해인 예종 1년에 기복(起復)되어 함경북도절도사(咸鏡北道節度使)가 되었고, 성종 2년(1471)에 성종께서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의 호를 내렸으며 아울러 장호(藏護) 노비를 하사하고 예성군(藥成君)으로 고쳐 봉했다.

다음해인 임진년에 숭정계(崇政階)로 올리고, 다시 영안북도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에 임명(任命)되었다. 본도(本道)는 병란(이시애의 난) 이후에 예전 도명(道名)을 고치고, 또 남북도로 나눈 것이다. 공의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올면서 절하며 사은(謝恩)할 때에 북비(北鄙)에서 심상치 않은 경보가 있었다.

성종이 유시(諭示)하기를 “내 조정의 신하들을 살펴보았으나 북도를 진정하여 평안히 함은 경만 같은 이 없다. 때문에 경으로 하여금 다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경의 어머니는 “근심하지도 마라”하시며 옥교자(屋轎子)를 내리셨으며, 또 궁의(宮衣)와 어주(御廚)의 찬선(饌膳)을 내리시어 그 집을 돌봄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성종 6년(1475)에 임기가 차니 그 사람 얻음을 어렵게 여기며 사람을 보내 유

시하기를 “경은 임기가 만료되어 마땅히 체차(遞差, 交贊)되어야 하지만 자주 경보가 있고 또 오랑캐의 실정을 바로 알고 어루만져 제어함이 마땅함이라. 만약 경을 교체한다면 누가 경을 대신하라. 경은 내 뜻을 알아서 더욱 힘써 게을리 하지 말라” 하였다.

이 해에 적이 경성(鏡成)의 지경(地境)을 침입하니 공이 기회에 맞추어서 이를 섬멸하니 성종께서 특별히 직제학 홍귀달(直提學 洪貴達)을 보내서 전지하고, 비단 침리(沾裡, 의복일체) 투화(套靴, 외의 신발일체)를 하사하시고 잔치하여 위로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벼슬은 의정부 우찬성(議政府 右贊成)겸 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管)이 되었으며, 성종 8년(1477)에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고 다음해인 무술년에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에 오르니 물의(物議)가 마땅하다고 하였다. 성종 10년(1479) 건주 야인(建奏野人)이 명국의 지경(地境)을 범하니 명황제(明皇帝)가 요동지휘(遼東指揮)를 보내어 조선에 청병하니 성종은 공을 도원수(都元帥) 겸(兼) 3도순찰사(三都巡察使)에 명하고 전교하기를 건주의 야인이 명나라를 침범하여 천주(天誅)를 자인(自引)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의 적이니 마땅히 이를 응징할 대장을 임명해야 하나 조정의 신하들을 생각해 보았건만 경 같은 이 없기로 경을 명하여 원수로 삼고 삼도(三道)의 군사 일만 명을 간발(簡拔)하여 명나라 황제의 요청에 대응한다.

“곤외(困外)가 장군절도영(將軍節度營)의 소관이니 위장(衛將)이하의 용명(用命, 명령을 받드는 것)과 불용명(不用命)은 경의 처치에 맡긴다” 했다. 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진(滿浦鎭)에 이르렀을 때는 강물이 아직도 합빙(合氷)되지 아니하여 물결이 사납게 흘러 내렸으며 두 기슭에 지세가 매우 험준하여 끝내 건널 수 없었다.

만약 머물러 있어 빙수(氷水)되기를 기다린다면 양식이 반드시 다하고 인마가 피곤하기 마련이매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간다면 하더라도 가면 반드시 포로의 신세가 될 것이니 나라를 욕되게 함이 이보다 더한 것이 있으랴! 하여 할 수 없이 군대를 거두어 돌아왔다.

조정에서도 그 사세에 어찌할 수 없음을 알지만 명나라의 보복이 염려되어 권도(權道)로 공책(公責)하여 외군으로 보냈다. 공도 군대를 돌이키면 견책이 몸에 있을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요는 우리백성을 이롭게 하고 평안히 하는데 뜻이 있을 뿐이지 어찌 내 한 몸이 사사로움을 돌아보랴! 이것 또한 대신

된 자의 마음가짐인 것이다.

성종 12년(1481) 공을 기용하여 다시 봉군(封君)하고 도총관(都總管)을 겸했으며, 또한 이조판서의 중임을 맡았다. 조정에서 공을 생각함도 지극하였고, 공의 처신 또한 마땅함을 얻었다. 성종 13년(1482)에 영안도성(永安道城) 밑에 야인이 온 부(部)의 무리를 이끌고 비밀리에 탄 곳으로 옮겨 갔다. 조정에서는 다른 혼란이 생길까 두려워 하여 특히 공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가서 위안하고, 다시 옛 부로 불러 돌아오게 했다. 공은 명을 받고 배도(倍道, 이를 갈 것을 하루에 가는 것)하여 앞으로 나가고 먼저 사람을 그 부로 보내서 교서를 열어 보이니 야인이 처음에 믿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이다” 하면서 글을 땅에 던졌다.

사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참으로 어영공(魚令公)께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나” 하니 야인이 말하기를 “영공(令公)께서 정말 오셨단 말인가. 어영공께서 오셨다면 이는 우리 아버지시다. 뵈올 수 있겠는가” 했다. 공이 이 말을 듣고 말을 달려 그 부로 들어가니 오랑캐가 모두 늙어서서 절하며 반기더라. 공께서 교서의 뜻을 유시하고, 성심으로 어루만져 납득시키니 저들은 모두 열복(悅服) 명령에 따랐으므로 추장 15인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옛집에 안주케 했다. 성종께서는 궁시(弓矢)를 내려 주어서 심히 가상해 하셨다.

성종 19년(1488)에 판중추부사겸 도총관에 임명했다. 다음해인 기유년 겨울에 성종께서 경기에서 열무(閱武)하셨는데 공이 호송하여 영평현(永平縣)에 이르러 위내(圍內)에서 폭졸(暴卒, 갑작스럽게 죽음)했다. 왕께서는 크게 슬퍼하시어 위(圍)를 거두고 부의를 후하게 주었으며 무릇 조정을 비롯하여 아래로 졸오의 천인에 이르기까지 슬퍼하고, 아까워하지 않는 이 없어 말하기를, “공은 어찌 그다지도 빨리 가셨나”했다.

공의 심성이 너그럽고 화평하여 사람들과 대립되는 일이 없었으며, 널리 사랑하고 못사람을 응납하며 언제나 화락하였다.

비록 궁마로 업을 삼았으나 늦게 이사(吏事, 벼슬아치의 일)에 통달하고, 겸하여 문무에 정통했으며 처사가 자상하고 정밀하여 유자(儒者)의 기상이 있었다.

전진(戰陳)에 임하여 적을 대처하기에 이르러서는 의사가 안문했으며, 예봉을 꺾고 적진을 함몰시켜서 향하는 곳에 대립할 자가 없었다. 일찍이 건주(建州)를 치고 돌아올 때에 기병 수십이 그 효용(驍勇)함을 믿고 우리 후군과 충돌

하니 우리 군대가 크게 어지러웠다. 이때에 공이 눈을 부릅뜨고 나서며 병사를 경계하여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단기(單騎)로 달리면서 활을 쏘며 적을 공격하며 연속 활을 쏘아 적병을 죽이니, 마침내 오랑캐 진영이 무너지고 병기를 버리며 달아나고 말았다.

공이 수리(數理)를 진격하고 돌아오니 감히 우리 군대를 엿보지 못했다. 공께서 북비(北鄙)를 진수(鎭守)함이 전후 18년에 야인의 열복하여 끊임없이 찾아왔으며, 공이 이들을 어루만져 사랑하고 술을 주어 환대했으며 과녁을 설정, 고군(古筠)의 활을 쏘면 반드시 백발백중하니 오랑캐가 혹 폐백(幣帛)을 가져와 받치고져 하나 공은 이를 거절하며, 일호(一毫)도 범함이 없었으며, 후하게 노수(路需)를 주어 보내니 야인 모두 손을 들어 말하기를 “공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칭송하였다. 변경이 공으로 하여 무사하였고, 은연(隱然)히 나라의 장성이 되었다.

아! 아! 공의 졸함은 국가의 불행이었다. 공의 배위는 영산 신씨(靈山辛氏)며 내금위(內禁衛) 신지(信之)의 딸로 슬하에 삼남 일녀를 두고, 공이 졸한 지 한 달만에 졸했다. 장남인 효성(孝誠)은 선략장군(宣略將軍)이며, 차남 효례(孝禮), 삼남 효공(孝恭)은 모두 병절교의이며, 여서는 참봉(參奉) 민회발(閔懷發)이며 그의 부가 중추부사(中樞府使) 효원(孝源)이다.

공의 측실에서 자광(自光)과 효광(孝光) 두 아들은 수의부위(修義副尉)를 지냈다.

제20절 방륜 신도비명(方輪 神道碑銘)



方輪(1463~?)의 본관은 溫陽. 字는 仲與. 호는 松江 이다. 1463년(세조 9)에 季和 의 아들로 태어나 1491년(성종 22) 무과에 급제하여 兵馬節度使, 五衛都摠府 副摠官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30여 년간 변방에서 봉직한 공로를 인정받아 兵曹判書에 추증되었다.

者累世有諱十柱過跡自奮獨登顯仕辛官卑弱
寺正於公曾祖諱致延贈工曹叅議考諱李和
贈兵曹參判母博士白世康之女封貞夫人皆公
故公自乘遂初載贊力絕人落多謙慨志業護
書不成去學乃馬能挽百斤弓走報奔騎初補黑
衣輩類洽然以將帥目之年二十八擢武學授五
衛將未幾擢拜江界判官西方管轄國長白池五
衛與五衛皆攬即成風雷公初下府帥素聞其
非其人五衛皆攬即成風雷公初下府帥素聞其
勇欲試之頃戎苗諸榜錄會獵山中有射獸數十

四道兵馬節度使諱輪神道碑銘
維皇明嘉靖十三年甲午四月方元帥公卒享年
七十一計閏朝廷悼夫良將贈賻有加命經由縣
邑殯輻輳返葬古丘禮也其年三月嗣子好義等
以公之喪還楊州葬公于伊波里之原既卒事好
義之弟好智扶而臨門禮請銘其惻慙余嘉方尼
李家世武人能執喪以禮如良謹按世系名蹟公
諱輪字仲與溫陽人其先口玄在高麗以博洽五
經業科其所著詩選在東文選其後有諱枝柱登
第爲版圖判書遂爲東方顯族入本朝由顯不根

之運遠無牧馬自是朝廷特公如堅城尤欲試之
於邊出領四道兵馬三衛將再朝燕京所至有聲
其陞嘉善以嘗經會寧府使故也公安性溫然愛
人好施平主不治產業及卒之日家無所儲公乃
謂貴而能貧者也公齊南陽洪氏兵曹參議孝禮
女主饋有聲多內行生四男長曰好仁未仕而早
卒次曰好義早歲登第嘉善為特名將次曰好
禮為美錢金使次曰好智登第為訓錄判官孫男
女若干人銘曰方氏三韓世文儒玄始詩鳴通典
撰奮藻擒華開進塗降及枝柱登版圖聯紹今勇

輦負松青芽撥巖右咆囂跳躍以至勢不可當公
即躍馬挽轂以前衆皆揮之不得止一發殲三如
畏者再軍條皆驚歎一時下馬稱服由之名聲益
騰踴大聞世扶滿原軍器寺判官都德府經歷甲
山府使中外積勳累勞特賜朱雜陞北道虞候北
道五衛六鎮軍民之會元帥府無於春秋節日大
合樂大設燕以餉諸蕃酋長特置塩幣紙穀為注
令諸戎射的中者得之又於百步外射設木偶被
以甲令軍官射之壯軍容戎性焚而點實不一失
戎以為神皆下度躍拜外稱其能內實恟之終公

〈역문〉

중종 29년(1534) 갑오에 서방원
수(西方元帥) 방공이 서거하니 향
년이 70세라, 부음이 조정에 들리
니 양장(良將)을 잃었다고 슬퍼한
다. 부의를 하사하고 현읍(縣邑)에
명령하여 공의 빈상여(殯喪輿)가
편히 지나가게 하니 상여를 끄는
말들이 뒤를 이어서 옛 묘소로 반
장(返葬)하는 것은 예법이라. 이해

3월 사자인 호의(好義) 등이 공의 상이 양주로 돌아와서 공을 이담리(伊淡里)
황말음리(篋末音里)·묘원에 장사를 지내고 이미 장례를 마쳤다고 하면서 호
의의 친제(親弟) 효지(孝智)가 상장(喪杖)을 짚고 내집 문에 임하여 예로 갈명(各
銘)을 청하기를 심히 지성스럽고 간곡하게 하는지라. 나는 비갈을 엮으니 방
씨 곤제(昆弟)의 가문이 대대로 무변(武邊)으로서 능히 집상삼례(執喪三禮)로
써 함이 여차히 가상(佳賞)스러워 세계명적(世系名蹟)을 엮노라.

방공의 휘는 룬이요, 자는 중여(仲與)며 온양인(溫陽人)이라, 선조 휘(諱) 현

秋鶴射能百中強七扎長城西北于邦國四領節
鎮三郡邑三十餘年邊鎮鑄一朝屋頤天亦祀三
良代一邊前烈續銘燕然壯其瑞
安分堂 李希綽撰

(玄)이니 고려시대 널리 오경에 정통하고 문과와 명경업과(明經業科)에 응시하여 등방(燈榜)하고, 공의 구작시운(舊作時韻)은 《동문선(東文選)》에 발췌되어 있다. 이후 휘 지주(枝柱)가 있으니 과거에 등과하여 판도판서(版圖判書)가 되어 드디어 동방에 운족(韻族)이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적적(寂寂)하게 떨치지 못한 채 한미하게 누대가 내려오더니, 휘 천주(天柱)는 학업에 여진분려하여 등과에 통방(通榜)하여 이름을 떨치고 사환(仕宦)하다가 타계하니 벼슬은 군기시정(軍器寺正)이며 공에게는 증조가 되시고, 고조의 휘는 치정(致廷)이니 벼슬이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증수(贈授) 받았고, 조부 휘 계화(季和)인데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증직하였다. 모친은 박사(博士) 백세강(百世康)의 여이니 정부인을 봉한 것은 모두 공의 까닭이다.

공은 어릴 때부터 기력이 출중하여 의기가 솟구쳐 남의 원통한 일에 동정과 자비심이 많으며 처음에 학문과 독서에 입지(立志)하였다가 이루지 못하고 궁술(弓術)과 승마술을 습득하고 능히 백근이나 되는 활을 당기며 달리는 수레나 달아나는 말등에서도 자유자재로 행동할 수 있는지라. 처음에 위사(衛士)로 보충되니 흡연(洽然)히 장수로서 지목하는지라. 나이 28세 무과에 등과하여 오위장(五衛將)에 제수되었다. 얼마되지 않아 강계판관(江界判官)으로 배수(拜受)하였다. 서방관할국(西方管轄國)의 장백지(長白池) 두노(頭魯)와 오위(五衛)로 더불어 용만(戎蠻)의 보오(保伍)로 접하였지만 강읍(江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지라. 장수가 만약 적격자가 많으면 오위가 모두 동요되어 곧 질풍뇌화(疾風雷火)를 이루는지라. 공이 처음에 수레에서 내려 부임하자 부수(府帥)가 본래 그의 용맹을 들었는지라. 이것을 시험코자 용추(戎酋)를 거느리고 방진(傍鎭)에 집합하여 수렵하기를 청하였다. 산중에 큰 멧돼지 수십 두가 몰려 있어 솔포기를 뒤집고 암석을 굴리며 소리를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며 그 기세가 가히 위험하고 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지라. 공이 곧 말에 뛰어 올라타고 대궁(大弓)을 당기니 물이끈들이 감내를 못하는지라. 일궁(一弓)에 멧돼지 세 마리를 거꾸러 누이고 이같이 하기를 2번이나 하니 군료배가 모두 경탄하였다. 일시에 하마하여 탄복하고 이로 인하여 공의 명성이 더욱 충천하였으며 크게 세상에 들리었다. 마기가 차서 군기시판관(軍器寺判官)에 도총부(都摠府)를 거쳐서 갑산부사(甲山府使)를 지내었다. 중외에 근무를 쌓아 누차 공로가 유함으로 특히 주비(朱維)를 하사받고 북도우후(北道虞侯)에 올랐다. 북도오위(北道五衛)와 육진(六鎭)의 군민들이 원수부에 회합하여 매양 춘추로 명절날이면 두

루 풍악을 갖추고 연회를 베풀고 모든 변경 추장들에게 먹이고 특별히 소금·표면·종이·식량 등을 두고 표를 하여 모든 읍으로 하여금 쏘아 마치는 자는 이것을 차지하게 하고 또 백보 밖에 별도로 표를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를 설치하고 갑주(甲冑)를 입히고 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쏘라하여 군기를 씩씩하게 하고 오랑캐의 성질이 탐욕함이 많아 알짜를 점찍고 표적을 얻고자 또한 허실을 엿봄으로 새로운 원수에게 거짓으로 잘 쓴다고 허여(許與)하고 공에게 명하여 재조를 비교해보자고 하였다. 공이 유승(柳乘)같은 쇠화살을 쏘니 열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오랑캐들이 신이라 하고 모두 뜰아래 내려가서 열을 지어 절하며 길으로 공의 능숙함을 칭찬하고 실제로는 겁을 내는지라. 마침내 공이 전직함으로 변방에 목마가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조정에서 공을 믿기를 견성(堅城)과 같이 여기고 이를 변방에 시험하고자 하여 나아가서 사도병마(四道兵馬)를 거느렸고 3번 위장(衛將)이 되었다. 2번 연경(燕京)에 입조하였으니 가는 곳마다 이름이 떨쳐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른 것은 일찍이 회령부사(會寧府使)를 지낸 때문이다. 공이 자품(資品)과 성질이 온화하듯 사람을 자애롭게 사랑하고 역경에 처한 자는 활빈(活貧)하기를 좋아하며 평생 검소하여 취재(聚財)를 몰랐으니 평생 동안 가정에 아무 것도 쌓아둔 재물이 없었다. 이에 사람들은 공을 몸은 귀하나 빈한에 능한 청빈인이라고 호칭하였다. 공의 배는 남양 홍씨 병조참의(兵曹參議)의 호례(好禮)의 딸로서 내규를 맡아 공궤(供饋)하는데 이름이 있었으며 밖으로 부군의 일을 돕고 가정에서 처신과 행동이 다 망한지라. 4남을 출산하였으니, 장자 호인(好仁)은 백두(白頭)로 요절하고, 차남은 호의(好義)이니 급제하여 가선대부로 승격하고 무관으로서 명장이 되었다. 3자는 호례(好禮)니 미전첨사(美錢僉使)가 되었고, 막내는 호지(好智)로 급제하여 훈련판관(訓練判官)이 되었으며, 손자는 약간 명이 있었다.

명(銘)에 가로되 방씨가 삼한에 대대로 문학의 선비였던 것을 방현(方玄)이 비로소 시로 올렸으며, 요전무모(堯典舞謨)에 통달한지라, 문장에 분발하여 뛰어났으며 여러 길을 열었다. 지주(枝柱)에 미쳐서 벼슬이 판도판서(版圖判書)에 올랐다.

고관대작이 삼넝쿨처럼 무성하더니 한 때 떨치지 못한 채로 오래 쇠박(衰薄)하다가 이미 극하면 이에 통하게 되는지라. 공이 뒤를 이어 문헌가이던 집안이 장족(將族)이 되었다. 공의 힘은 소와 범같이 용맹스러워 가을 독수리라 할까. 활을 쏘면 능히 백발백중이요, 강하기가 일곱 번을 뿔힌지라. 자성하여 서북을

방국방어(邦國防禦)하는 방패가 되었다. 4군데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3고을을 진압했으며 30년을 변방에 쇠를 잠가거늘 하루아침에 장성이 떨어지니 하늘도 또한 답답한지라. 세 어진 사람이 하나를 대신하여 전례에 갈마들었으니 명한 뒤를 이어서 평안하소서. 그 차취는 아 썩썩하도다.

- 안분당 이휘보 지음

제21절 신용개 신도비(申用溉 神道碑)



申用溉(1463~1519)의 본관은 高靈 으로 자는 溉之, 호는 二樂亭 이며, 할아버지는 영의정 文忠公 叔舟 이다. 金宗直 의 문인으로 1488년(성종 19)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를 시작으로 교리, 도승지, 대제학,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文景 이다.

申用溉 神道碑 李符

人之所秉各有偏長政事之才或短文章文章有餘事業蓋關合其長而施之者又志之復其惟我大景公乎公姓申氏諱用溉字灝之其先高靈人曾祖輝播工書左丞判書法妙一時祖諱叔舟即文忠公累策勲官至議政府領議政封高靈府院君歷相四朝文章事業煥然一代雖小童愚婦皆知稱誦考諱灝由承政院都承旨出觀察成吉進李施愛諱吉弼列爲執六所嘗以公貴贈議政府領議政妣室光都丁氏右軍司勇湖之女公以天

省累世有諱千柱遊郡自奮儒登顯仕卒官軍器寺正於公曾祖諱致延贈工曹參議考諱李和贈兵曹參判母博士白世康之女封良夫人皆公故公自來遂初載贊力絕人俗落多謙慨志業讀書不成去學乃馬能挽百斤弓走報奔騎初補黑衣軍類洽然以將帥目之年二十八擢武學教授五衛將未幾擢拜江界判官西方管轄國長白池五曹與五衛成雲接保任而居惟一水爲之限帥若非其人五衛皆挽即成風雷公初下府帥素聞其勇欲試之領戍苗諸楊鎮會觀山中有封畝數十

廢寺疏讀書當選一時文學之士賜休暇為歲修之所公亦與是選人望之若瓊洲然由吏曹佐卽陞司憲府持平復入為吏曹正卽薦議政府檢詳陞舍人大夫人固在受其卷公痛先公非命嘗拜疏闕下請赴北方得仇人以復大饑朝廷不之許至是公詞知仇人至都下夜格殺之道上三省將殉殺人者公欲詣吏自首雖死在所甘心大夫泣涕固止之朝廷亦終置不問丁巳秋遭大夫憂廬墓三年服闋授弘文館校理未幾陞應教魚藝文館應教國判兼應教只一貲乃得主文衡

耆也歷司憲府掌令司諫院司諫以弘文館直提學權承政院副承旨轉至都承旨在懷古兄二年剛正自守不能隨上意低昂燕山出甚不悅壬戌冬出公為忠清道水軍節度使雖加嘉善階實脫也公能仕既一年以疾辭俄起為刑曹參判連禮曹甲子夏賀聖節于京師時朝政已紊清名之士皆不得保公還未及境亦收職謀竟配于金羅之靈光郡及聖上卽位以刑曹參判召還文衡聞其位且久朝論洽然推公特超資階以如中樞府事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

館事公以推望頌德領袖斯文上亦傾心待之正始之政裨益弘多丁卯秋以昌山府院君成公希願為奏聞使命公為副請詰命于朝政事而還賜原從功臣之號歷議政府右參贊司憲府大司憲吏兵禮工四曹判書進階崇政拜議政府右贊成昌山成公為首相病且革薦公自代丙子夏進階大匡輔國崇祿大夫拜議政府右議政兼領祭筵監春秋館事戊寅春陞左議政國家新復署事之法公身撫庶務盡心輔理朝野方倚為重而公已病適有地震之變上書乞解兼陳時事引古按

今詞意漸至又連上章乞骸骨上終不許竟以職終寅正德己卯十月三日也卦聞上震悼報朝三日賜贈有加遠承旨吊其孤用明年二月甲申禮葬于楊州東金村里乾生共向之原夫人朴氏密原府院君健之女與公生同歲年三十一殁葬同州沙邑寺洞至是遷其柩柩同塋異塚公天安臺□號宇坦易望之毅然若不可犯卽之溫然雖典臺下賤俱得放心當官處事一毫無所抗入亦不敢于以私為文章道切簡古屏去草靡無一點塵俗氣初若不經意出輒驚人蓋得之天性然

〈역문〉

사람의 기품이 각각 치우치고 깊이가 있어, 정치에 재주가 있으나 문장이 단아하고 문장은 유여하나 사업이 대개 꺾이니, 긴 것을 합하여 시행한 자는 문충공 이후에 오직 우리 문경공이다. 공의 성은 신, 휘는 용개, 자는 개지로 선조는 고령인이라. 증조 휘는 색, 공조참판으로 서법이 일시에 유명하고, 조부 휘는 숙주로 문충공이다. 여러 번 공훈을 받고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고 고령부 원군에 봉해져 사조를 지내오며, 문장사업이 일대에 유명하여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도 칭찬하였다. 아버지는 면, 승정원 도승지로 함길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길주에 웅거하는 이시애난에 해를 입어 영의정에 증직되고, 어머니는 영광군 부인정씨니 우군사용 호의 딸이라. 공이 천순 계미생(1463)으로 문충공이 북악산에 내려앉는 꿈을 꾸어, 백악이라 지으니 문충공의 집을 올리었으며, 북쪽산이 곧 백악이라,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므로 문충공이 친히 가르쳤다. 한번 읽고 나면 곧 외워버려 문충공이 기특하게 여겨 이름과 자를 고쳤다. 겨우 약관인 계묘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문장이 일시에 친구 중 거벽이 되며 감히 겨를 자 없으며, 궁마에 출중하여 선비들이 아는 자는 타일에 제상의 그릇이라 하더니 무신년(1488) 봄에 성종대왕이 친림하여 네 명을 뽑을 때 공이 병과로 급제 어사포 어사로 유가하여 영화라 하였다. 승문원에 있다가 권지심이 홍문관정자로 뽑았으며, 수찬 시경악에 있는 지 4년에 성종이 해함(解衡) 영영(永永)외를 해석함에 이르러, 사람이 비로소 공이 논사의 힘이 있음을 알고 성종이 문치에 굳센 뜻으로 용산폐사를 수리하여 독서당이라 이름 짓고 일시에 문학하는 선비를 불러 모아, 휴가를 주어 수련케하니 공이 도한 여기에 뽑혀 사람들이 영주산과 같이 우러러 보았다. 그 후 이조좌랑을 거쳐 사헌부지평에 승진되고 다시 이조정랑으로 들어왔다가 의정부 검상사인으로 승진되니 대부인이 그 문권을 고집하고 받아두니 공이 선공의 비명을 원통하게 여겨 일찍이 꺾하에 상소를 올려 북방으로 나가 원수를 얻어 큰 원수를 갚기를 청하나 조정이 허락지 않으니, 이에 이르러 공이 원수가 도성 아래로 밤에 오는 것을 염탐하여 알고 로상에서 죽이니, 삼성장이 살인자를 국문하여 공이 아전을 데리고 자수하여 비록 죽으나, 마음이 달다 하니 대부인이 울며 굳이 말리니 조정이 또한 치지불문하였다. 정사년 가을에 대부인상을 당하여 3년을 시묘하고, 복을 마치며 홍문관교리로 제수되었다가 응교로올라 예문관응교를 겸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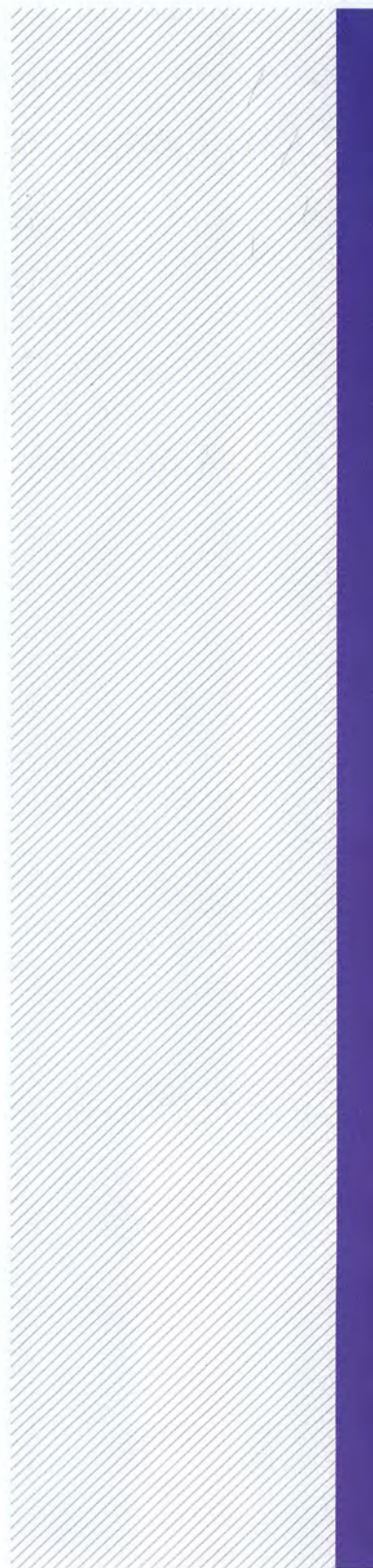
니, 국제에 응교를 겸하는 것은 한사람뿐인데, 이에문형이 생겼다. 사헌부장령·사간원사간·홍문관직제학·승정원동부승지로 도승지가 되니 후설(喉舌)에 있는 지 2년에 강정(剛正)으로 스스로 지켜 능히 주상의 뜻을 우러르지 아니 하니 연산주가 심히 기뻐 아니하여 임술년(1502) 겨울에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취임하니 비록 가선을 더하였으나 한 계급 아래이라. 취임한지 1년 만에 병으로 사양하고 얼마 안되어 형조참판이 되고 예조로 옮기었다가 갑자년 여름 하성결사(賀聖節使)로 남경에 갈때 조정이 이미 문란하여 청명한 선비가 다 보전치 못하여 공이 돌아 올제 지경에도 이르지 못하여 직첩을 거두고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되었다가 성상이 즉위하여 형조참판으로 순환하니 문형이 그 지위를 떨치고, 도 조정에 강윤이 배인지 오래되어 공으로 자헌대부 지충추부사겸 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지성균관사로 임명하니 공의 석덕이 사문의 영수로 추앙되어 상이 또한 마음을 기울여 바르게 대접하고, 정치를 시작하여 더욱 큰 것을 맡았다.

정묘년(1507) 가을에 창산부원군 성희만을 주문사(奏文使)로 명하고 공을 부사로 명하여, 남경에 고명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원종공신으로 의정부우참찬·사헌부대사헌·이조·예조·병조·공조의 판서를 지내고 창산군 성공의 병이 급하여 공을 천거하여 스스로 대리케 하고 병자년 여름에 우의정으로 진급되고 무인년 봄에 좌의정에 승진되어 국가가 새로 판공서법을 회복 할 제 공이 서무를 총괄하니 조야가 바야흐로 중히 의지하였다. 공이 이미 병이 생기고 지진의 변이 있어, 상소하여 풀어주길 청하고 상소하여 퇴직코자하나 상이 끝내 허락지 않았으니, 마침내 벼슬자리에서 졸하니 기묘(1519) 10월 13일이라. 부고를 듣고 상이 슬퍼하여 3일을 철조하고 승지를 보내어 부의하며 명년 2월 갑신에 양주 동쪽 금초리 건좌에 예장하다. 부인 박씨는 밀원부원군 건의 딸로 공과 더불어 31년을 살다가 졸하여 합묘하니라. 공의 천자가 호상하고 기우가 단아하여 망지의연하며 약불가범이라. 천인에게도 온화하고 벼슬에 있을 때 일호라도 흔들림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사사로운 일로 이간하지 못하며 문장도경으로 옛병이 간략하고 화한 것을 버려 한 점에 진세속기가 없으며 처음은 날이 아니 것 같으나 뜻이 나오면 문득 사람을 놀라게 하니 대개 천에 으뜸이 그리하였다.

2남 2녀를 두니 장남 종은 건원릉 참봉으로 조졸하고, 차남 한은 개성 경력이오, 큰딸은 박언년에게 출가 18세에 등과하여 홍문관수찬문행으로 명세타가

갑자사화에 죽어 도승지에 증직되고, 차녀는 예빈시별과 김응청에게 시집가 조졸하였다. 측실에 6남을 두니 청·린·침·심·정·원이요, 경력은 2남 3녀를 두니 장은 여주, 차는 여양이요, 큰딸은 최흠에게 출가하고 승지가 3남 2녀를 두니 장은 인양, 차는 공양원야이며, 여장은 김요에 출가하고, 여차는 이원정에게 출가하니 원정은 곧 나의 아들이라, 내가 수찬과 더불어 지기지우라 한 집안 같더니 내가 해직 되거 할 제 공이 병중에 글을 보내서 내가 눈물을 흘리었더니, 얼마 안되어 부고를 듣고 술한잔 올리며 이별하니 슬프다. 위로 국가를 위하고, 아래로 우리의 사사로움을 위하여 애통하노라. 후하지 못한 글을 공은 알리라. 감히 명하여 알,

오직 하늘이 명하고 오직 산악이 울리네
 이름은 우리에 있고 위는 우리를 쫓네
 높도다 덕업이여 빛나도다 문장이여
 일대에 몇이 나 있을 고조부님 손자가 바라보네
 문충공의 실마리를 우리 공이 이어가네
 공은 그 경사가 두터워 후손 등이 이어가리라
 공의 덕이 어둡지 않아 국승이 증명하리라
 네가 슬프게 명을 쓰니 대대후손에 고하노라
 -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이행 찬



제36장

고문서

- 제 1 절 교지 1
- 제 2 절 교지 2
- 제 3 절 교지 3
- 제 4 절 호구대장 1
- 제 5 절 호구대장 2
- 제 6 절 호구대장 3
- 제 7 절 호구대장 4
- 제 8 절 호구대장 5
- 제 9 절 호구대장 6
- 제10절 호구대장 7
- 제11절 호구대장 8
- 제12절 고목
- 제13절 시호
- 제14절 재산 분할 기록 [分財記]
- 제15절 간찰(簡札)
- 제16절 토지매매문서
- 제17절 成績戶口帳 [호구대장]
- 제18절 진정 및 청원서[白活] 1
- 제19절 진정 및 청원서[白活] 2
- 제20절 동두천의 지도

DONGDUCHEON HISTORY OF



道遥寺東
方化窟

墨道子

30 YEARS 1981-2011

東豆川市30年史

- 1) 교지는 국왕이 4품이상의 문무관 원에게 준 임명장이다.
- 2) 정5품의 문관 품계이다. 조산대부(朝散大夫)와 조봉대부(朝奉大夫)의 아래이고 통선랑(通善郎)의 위에 속한다.
- 3) 종2품의 문무관 품계이다.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의 아래이다.
- 4) 왕명에 따라 수사하던 의금부(義禁府)에 둔 종2품 관직이다.
- 5) 군정(軍政)을 관장하던 병조와 함께 군령(軍令)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정2품의 도총관(都總管)과 종2품의 부총관(副總管)이 각각 5명이 있어 각 위마다 1명씩 배속되었다.

제1절 교지1



教旨

通德郎鄭遂相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者

乾隆三十八年 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鄭林基考依法典追贈

교지¹⁾

통덕랑²⁾ 정수상을 가선대부³⁾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⁴⁾, 오위도총부 부총관⁵⁾으로 추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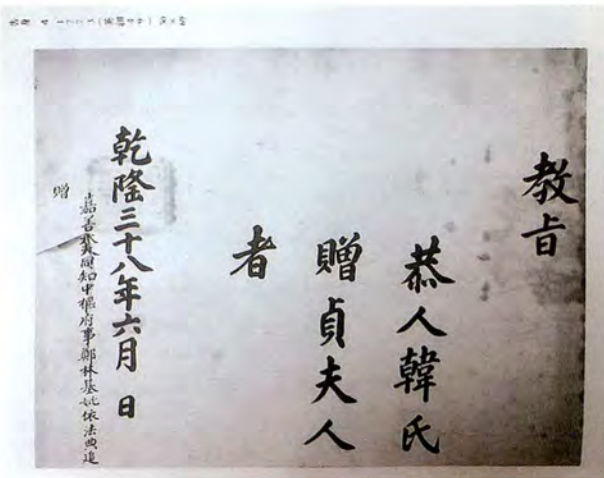
청 건륭38년 월 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정립기를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

제2절 교지 2

6) 정·종5품 문무관의 정처에게 주는 작호(爵號)이다.

7) 정·종2품 문무관의 정처에게 주는 작호(爵號)이다.



教旨

恭人韓氏贈貞夫人者

乾隆三十八年六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鄭林基妣依法典追贈

교지

공인⁶⁾ 한씨에게 정부인⁷⁾을 추증한다.

청 건륭38년 6월 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정림기의 돌아가신 모친을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

8) 청3품의 문관 품계로서 통훈대부(通訓大夫)보다 상위이며 당상관(堂上官) 가운데 가장 낮은 직급이다.

9)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부의 보고와 청원 등을 전하는 국왕의 비서 기관이다.

제3절 교지 3



教旨

學生鄭一輝贈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者

光緒十七年八月 日

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兼五衛侍鄭錫仁祖侏法典追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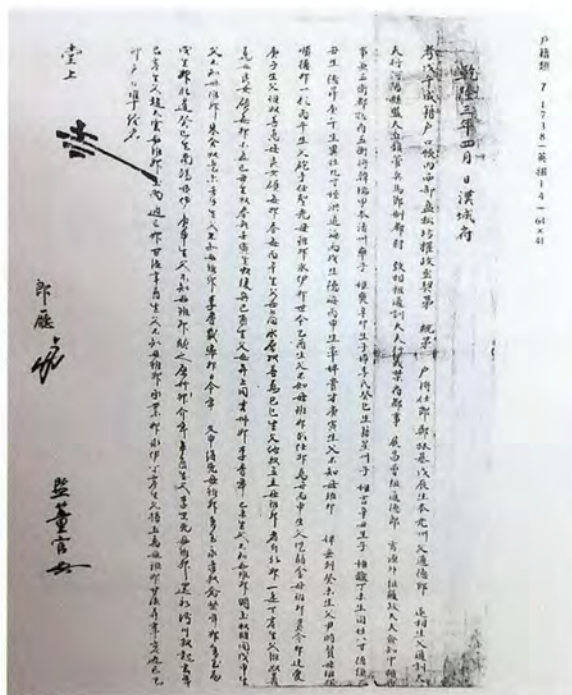
교지

학생 정일휘를 통정대부⁸⁾ 승정원⁹⁾ 좌부승지 겸 경연참찬관으로 추증한다.

청 광서17년 8월 일

가선대부 행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시 정석인의 조부 정조주를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

제4절 호구대장1



乾隆三年四月 日漢城府

考戊午成籍戶口帳內，西部盤松坊權政丞契第 統第 戶

將仕郎鄭林基，戊辰生，本光州；父通德郎遂相，生父通訓大夫行河陽縣監大丘鎮管兵馬節制都尉致相；祖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展昌；曾祖通德郎玄源；外祖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兼五衛都總府五衛將韓瑞甲，本清州。

率子姬奭，辛卯生。子婦李氏，癸巳生，籍星州。子姬吉，辛丑生。子姬叔，丁未生。同姓八寸德謙，乙丑生。

德昇，庚午生。異姓九寸姪洪道海，丙戌生；德海，丙申生。

率婢貴才, 庚寅生, 父不知, 母班婢。婢岳列, 癸未生, 父尹時贊, 母班婢順德。婢一禮, 丙午生, 父砲手任聖光, 母班婢冰伊。婢世今, 乙酉生, 父不知, 母班婢武任。婢萬母, 丙申生, 父勃弱金, 母班婢貴今。婢遷愛, 庚子生, 父班奴善萬, 母良女碩每。婢春每, 丙午生, 父母上同。

水原奴善萬, 己巳生, 父他奴五主, 母班婢者斤禮; 婢一每丁亥生, 父班奴善萬, 母良女碩每; 婢小每己丑生; 奴春興壬寅生; 奴復興己酉生, 父母并上同。

吉州婢李香, 年己未生, 父不知, 母班婢明玉; 奴朋同, 戊申生, 父不知, 母班婢朱合; 奴夏末, 壬子生, 父不知, 母班婢李香。

載寧婢日今, 年, 父申得先, 母班婢多玉。

永柔奴命堅, 年。婢多玉, 丙戌生。婢禮暹, 癸巳生。

南陽順伊, 庚申生, 父不知, 母班婢頌之。

原州婢介年, 年辛酉生, 父李末先, 母班婢口禮。

沔川奴起玄, 年己亥生, 父趙太雲, 母班婢玉尚。

逃亡婢甘儉, 辛酉生, 父不知, 母班婢承業。婢冰伊, 丁亥生, 父孫五萬, 母班婢甘儉, 并辛亥逃亡。

乙卯戶口準給者。

堂上 [서명]

郎廳 [서명] 監董官 [서명]

청 건륭3년(1738, 戊午) 4월 일 한성부는 무오년(1738)에 기성의 호구장적을 검토한 바, 서부 반송방 권정승계 제 통 제 호의 장사랑 정립기는 무진년 생이고 본관은 광주이다. 그 부친은 통덕랑 정수상이며, 생부는 통훈대부로 하양현 감 대행과 대구진 관할 병마절제도위를 지낸 정치상이며, 조부는 통훈대부로서 의금부도사를 지낸 정전창이며, 증조부는 통덕랑 정현원이다. 외조부는 통정대부로서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오위장을 지낸 한서갑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동거 가족으로, 아들 희섭은 신묘년 생이다. 며느리 이씨는 계사년 생이며 본관은 성주이다. 아들 희길은 신축년 생이다. 아들 희숙은 정미년 생이다. 동성 8촌 정덕점은 을축년 생이며, 정덕승은 경오년 생이다. 성이 다른 9촌 조카 홍

도해는 병술년 생이고 흥덕해는 병신년 생이다.

동거 노비로, 여종 귀재는 경인년 생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이다. 여종 악렬은 계미년 생으로 아버지는 윤시찬이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순덕이다. 여종 일례는 병오년 생으로 아버지는 포수인 임성광이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빙이다. 여종 세금은 을유년 생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무임이다. 여종 만모는 병신년 생으로 아버지는 발약금이며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귀금이다. 여종 천애는 경자년 생으로 아버지는 양반의 남종인 선만이고 어미는 양가 여자 석매이다. 여종 춘매는 병오년 생으로 아버지는 천애와 같다.

수원에 사는 남종 선만은 기사년 생으로 아버지는 다른 집 남종 오주이며,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자근례이다. 여종 일매는 정해년 생으로 아버지는 양반의 남종인 선만이고 어미는 양녀인 석매이다. 여종 소매는 기축년 생이며, 남종 춘홍은 임인년 생이고, 남종 복홍은 기유년 생인데 아버지는 모두 일매와 같다.

길주에 사는 여종 이향은 기미년 생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명옥이다. 남종 봉동은 무신년 생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주합이다. 남종 올미는 임자년 생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이향이다.

재령에 사는 여종 일금은 ○세이고, 아버지는 신득선이며,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다옥이다.

영유에 사는 남종 명전은 ○세이고, 여종 다옥은 병술년 생이다. 여종 예섬은 계사년 생이다.

남양에 사는 순이는 경신년 생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기지이다.

원주에 사는 여종 개년은 신유년 생으로 아버지는 이말선이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모례이다.

면천에 사는 남종 기현은 기해년 생으로 아버지는 조태운이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옥상이다.

도망간 여종 감검은 신유년 생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승업이다. 여종 빙이는 정해년 생으로 아버지는 손오만이고 어미는 양반의 여종인 감검이다. 함께 신헌년에 도망갔다.

이상 을묘년 호구에 의거하여 발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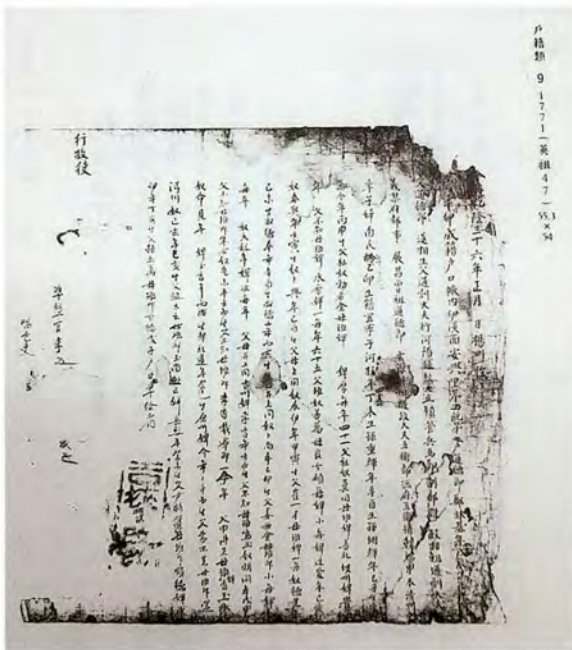
당상 [서명]

낭청 [서명]

감동관 [서명]

제5절 호구대장 2

[戶籍類9, 1771(英祖47)]



乾隆三十六年正月 日杨州牧

考辛卯成籍戶口帳內伊淡面安興里第五统第二戶

通德郎郑林基，年戊辰生，本廣州人。父通德郎遂相，生父通训大夫行河阳县监，大丘镇管兵马節制都尉致相；祖通训大夫义禁府都事展昌；曾祖通德郎玄原；外祖通政大夫五卫都摠府五卫将韩瑞甲，本清州。

率子妇南氏齡，乙卯生，籍宜寧；子河柱年丁未生；孙重辉年辛酉生；孙翊辉年乙丑生。

率[婢]萬今，年丙申生，父私奴勃若金，母班婢。婢厚每，年四十一，父私奴莫

10) '땡'은 등본을 소리 내어 읽는 관리이고, '準'은 '땡'을 들으며 호구대장 원본을 보고 대조하는 관리인데, 한 사람이 겸하기도 한다. 출납담당인 監官과 '色吏' 역시 한 사람만 서명하였을 수도 있다.

同, 母班婢善禮。

坡州婢貴才, 年, 父不知, 母班婢。

水原婢一每, 年六十五, 父班奴善萬, 母良女碩每。婢小每, 婢迁愛年己亥生。奴春輿, 年壬寅生。奴卜興, 年己酉生, 母上同。奴奉伊, 年甲寅生, 父崔一才, 母班婢一每。奴德先, 年己未生; 奴德奉, 年辛酉生; 奴德山, 年丙寅生, 父母并上同。奴卜尚, 年乙卯生, 父姜無金, 母班婢小每。婢口每, 年; 奴天起, 年; 婢次每, 年, 父母并上同。

吉州婢李香, 年壬子生, 父不知, 母班[婢]鳴玉。奴明同, 年戊申生, 父不知, 母班婢朱合。奴芑未, 年壬子生, 父不知, 母班婢李香。

載寧婢一奈, 年, 父申得先, 母班婢香玉。

永柔奴命見, 年。婢玉香, 年丙戌生。婢禮暹, 年癸巳生。

原州婢介年, 年辛酉生, 父李末先, 母班婢口禮。

沔川奴已玄, 年己亥生, 父趙太云, 母班婢玉尚。

逃亡婢岳烈, 年癸未生, 父尹時資, 母班婢順德。婢永伊, 年丁亥生, 父孫五萬, 母班婢甘德。

戊子戶口準給者。

行牧使 [서명]

準¹⁰⁾: 監官 李 [서명] 咸 [서명]

唱: 色吏

청 건륭36년(1771, 辛卯) 정월 일 양주목은,

신묘년(1771)에 기성의 호구장적을 검토한 바, 이담면 안흥리 제5통 제2호의 통덕랑 정림기는 무진년 생이고 본관은 광주이다. 그 부친은 통덕랑 정수상이며, 생부는 통훈대부로 하양현감 대행과 대구진 관할 병마절제도위를 지낸 정치상이며, 조부는 통훈대부로서 의금부도사를 지낸 정전창이며, 증조부는 통덕랑 정현원이다. 외조부는 통정대부로서 오위도총부 오위장을 지낸 한서갑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동거 가족으로, 며느리 남씨는 을묘년 생이고 본관은 의령이다. 그 아들 정하주는 정미년 생이고, 손자 정중휘는 신유년 생이며, 손자 정의휘는 을축년 생이다.

동거 노비로, 여종 만금은 병신년 생으로 아버지는 사노인 발약금이고, 어머니는 양반의 여종이다. 여종 후매는 41세로 아버지는 사노 막동이고, 어머니는 양반의 여종인 선례이다.

파주에 사는 여종 귀재는 ○세로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머니는 양반의 여종이다.

수원에 사는 여종 일매는 65세로 아버지는 양반의 남종 선만이고 어머니는 양가 여자 석매이다. 여종 소매와 천애는 기해년 생이고, 남종 춘오는 임인년 생이며, 남종 복홍은 기유년 생인데 어머니는 모두 위와 같다. 남종 봉이는 갑인년 생으로 아버지는 최일재이고 어머니는 양반 여종 일매이다. 남종 덕선은 기미년 생이고, 남종 덕봉은 신유년 생이고, 남종 덕산은 병인년 생인데, 아버지는 모두 위와 같다. 남종 복상은 을묘년 생으로 아버지는 강무금이고 어머니는 양반 여종 소매이다. 여종 ㅁ매는 ○세이고, 남종 천기는 ○세이며, 여종 차매는 ○세인데, 아버지는 모두 위와 같다.

길주에 사는 여종 이향은 임자년 생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머니는 양반의 여종 명옥이다. 남종 명동은 무신년 생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머니는 양반의 여종 주합이다. 남종 올미는 임자년 생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머니는 양반 여종 이향이다.

재령에 사는 여종 일내는 ○세로 아버지는 신득선이고 어머니는 양반 여종 향옥이다.

영유에 사는 남종 명견은 ○세이고, 여종 옥향은 병술년 생이며, 여종 예섬은 계사년 생이다.

원주에 사는 여종 개년은 신유년 생으로 아버지는 이말선이고 어머니는 양반 여종 ㅁ례이다.

면천에 사는 남종 이현은 기해년 생으로 아버지는 조태운이고 어머니는 양반 여종 옥상이다.

도망간 노비인 여종 악렬은 계미년 생으로 아버지는 윤시자이고 어머니는 양반 여종 순덕이며, 여종 영이는 정해년 생으로 아버지는 손오만이고 어머니는 양반 여종 감덕이다.

이상 무자년 호구에 의거하여 발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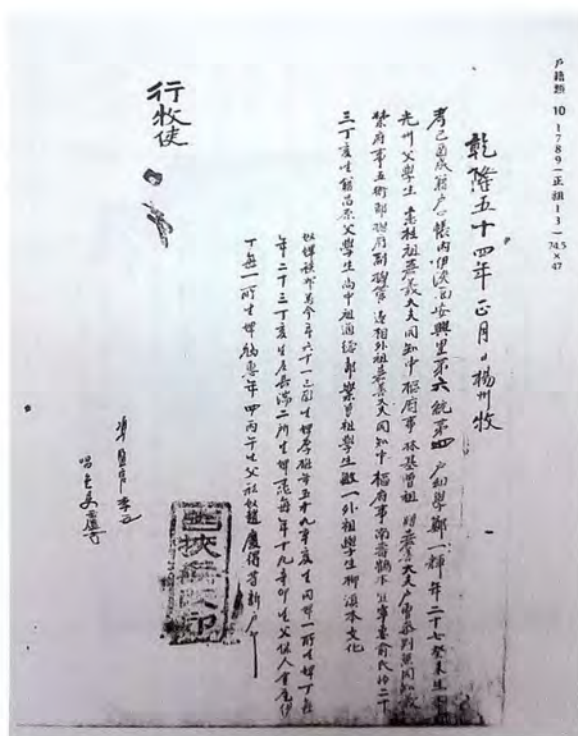
목사대행 [서명]

준 : 감관 이(李) [서명] 함(咸) [서명]

창 : 색리

제6절 호구대장 3

[戶籍類10, 1789(正祖13)]



乾隆五十四年 正月 日楊州牧

考己酉成籍戶口帳內，伊淡面安興里第六統第四戶幼學鄭一輝，年二十七，癸未生，本光州。父學生憲柱；祖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林基；曾祖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遂相；外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南壽鶴，本宜寧。

妻俞氏，齡二十三，丁亥生，籍昌原。父學生尙中；祖通德郎棄；曾祖學生敏一；外祖學生柳真，本文化。

11) 厚梅: 뒤에는 모두 厚每로 기록되어 있음

12) 福惠: 뒤에는 모두 卜惠로 기록되어 있음

13) 趙慶得: 戶籍類(2, 乙卯(1795)년 자료에는 趙京得으로 기록되어 있음

14) 保人은 군역자기족의 농사를 돕는 장정을 말한다.

奴婢秩: 婢萬今, 年六十一, 己酉生。婢厚梅¹¹⁾, 年五十九, 辛亥生; 同婢一所生婢丁每, 年二十三, 丁亥生, 居長湍; 二所生婢泰每, 年十九, 辛卯生, 父保人金庾伊; 丁每一所生婢福惠¹²⁾, 年四, 丙午生, 父私奴趙慶得¹³⁾。

等新戶印。

行牧使 [서명]

準: 監官 李 [서명]

唱: 色吏 盧 [서명]

청 건륭54년(1789, 己酉) 정월 일 양주목은 기유년(1789)에 기성의 호구장적을 검토한 바, 이담면 안흥리 제6통 제4호의 유생(儒生) 정일휘의 나이는 27세로 계미년 생이며 본관은 광주이다. 그 부친은 유생 정현주이고, 조부는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정임기이며, 증조부는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추증 받은 정수상이다. 외조부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남수학이며 본관은 의령이다.

처 유씨는 23세로 정해년 생이며 본관은 창원이다. 그 부친은 유생 유상중이고, 조부는 통덕랑을 지낸 유업이며, 증조부는 유생 유민일이다. 외조부는 유생 유전이며 본관은 문화이다.

노비로는, 여종 만금은 61세로 기유년 생이다. 여종 후매는 59세로 신해년 생이고, 그 첫째 아이인 여종 정매는 23세로 정해년 생이며 장단에 살고 있으며, 둘째 아이인 여종 말매는 19세로 신묘년 생이며 아버지는 보인¹⁴⁾ 김홀이이며, 여종 정매의 첫째 아이인 여종 복혜는 4세로 병오년 생이며 아버지는 사노 조정득이다.

이와 같이 새 호적을 인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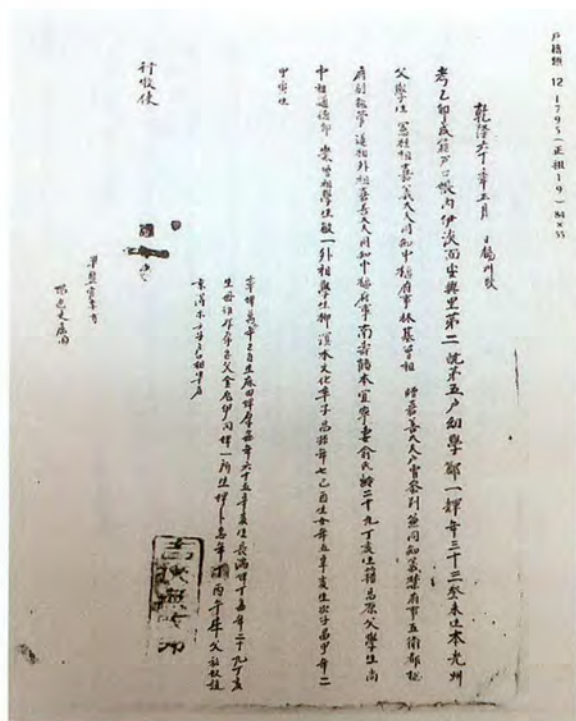
목사대행 [서명]

준: 감관 이(李) [서명]

창: 색리 노(盧) [서명]

제7절 호구대장 4

[戶籍類12, 1795(正祖19)]



乾隆六十年正月 日楊州牧

考乙卯成籍戶口帳內伊淡面安興里第二統第五戶幼學鄭一輝，年三十三癸未生，本光州。父學生憲柱；祖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林基；曾祖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遂相；外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南壽鶴，本宜寧。

妻俞氏，齡二十九丁亥生，籍昌原；父學生尚中；祖通德郎業；曾祖學生敏一

；外祖學生柳溟，本文化。

率子昌孫，年七己酉生；女年五辛亥生；次子昌甲年二甲寅生。

率婢萬今年己酉生；麻田婢厚每，年六十五辛亥生；長湍婢丁每，年二十九丁亥生，母班婢厚每，父金庾伊；同婢一所生婢卜惠，年十丙午生，父私奴趙京得。等壬子戶口相準者。

行牧使 [서명]

準：監官 李 [서명]

唱：色吏 盧 [서명]

청 건륭60년(1795, 乙卯) 정월 일 양주목

을묘년(1795)에 기성(既成)의 호구장적을 검토한 바, 이담면 안흥리 제2통 제5호의 유생(儒生) 정일휘의 나이는 33세로 계미년 생이며, 본관은 광주이다. 부친은 유생 정현주이고, 조부는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정임기이며, 증조부는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추증 받은 정수상이다. 외조부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남수학으로서 본관은 의령이다.

처 유씨는 29세로 정해년 생이고 본관은 창원이다. 그 부친은 유생 유상중이고, 조부는 통덕랑을 지낸 유업이며, 증조부는 유생 유민일이다. 외조부는 유생 유전으로서 본관은 문화이다.

동거가족으로, 큰 아들 정창손은 7세로 기유년 생이며, 딸은 5세로 신해년 생이고, 둘째 아들 정창갑은 2세로 갑인년 생이다.

동거노비로 여종 만금은 기유년 생이고, 마전의 여종 후매는 65세로 신해년 생이고, 장단의 여종 정매는 29세로 정해년 생인데, 어미는 양반 여종 후매이고 아버지는 김액이다. 같은 여종 소생의 첫째인 여종 복혜는 10세로 병오년 생이고, 아버지는 사노인 조경득이다.

임자년 호구조사를 주관한 자

목사대행 [서명]

준창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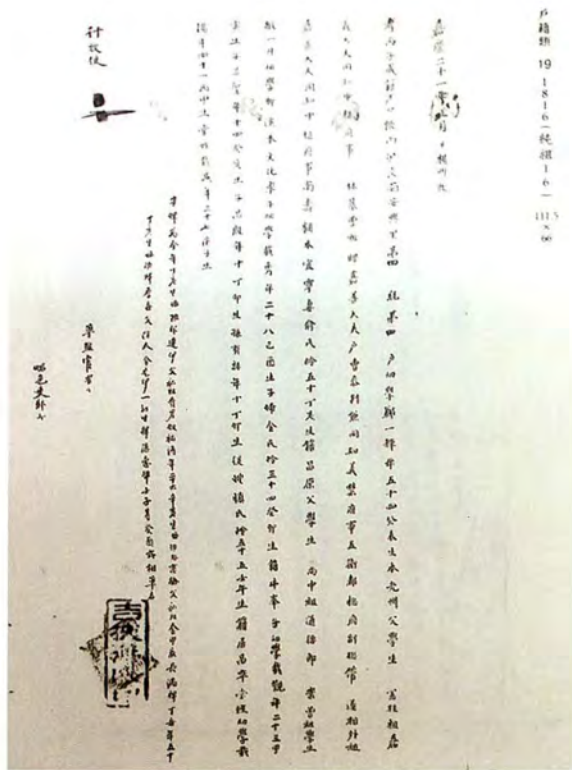
감관 [서명]

색리 [서명]



제8절 호구대장 5

[戶籍類19, 1816(純祖16)]



嘉慶二十一年正月 日楊州牧

考丙子成籍戶口帳內伊淡面安興里第四統第四戶幼學鄭一輝，年五十四癸未生，本光州父學生先柱；祖嘉義大夫同知中枢府事林基；曾祖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遂相；外祖嘉善大夫同知中枢府事南寿鶴，本宜寧。

妻俞氏, 齡五十丁亥生, 籍昌原; 父學生尚中; 祖通德郎嶽; 曾祖學生敏一;
外祖學柳湊¹⁵⁾, 本文化。

率子幼學載秀, 年二十八己酉生; 子婦金氏, 齡三十四癸卯生, 籍牛峯。

子幼學載觀年二十三甲寅生。

子昌聖年十四癸亥生; 子昌殷年十丁卯生。

孫有喆年十丁卯生。

从嫂慎氏齡五十五壬午生, 籍居昌。

率堂姪幼學載陽年四十一丙申生; 堂姪載誠年三十七庚子生。

率婢萬今年丁亥生, 奴班婢¹⁶⁾; 奴連伊, 父私奴貴男; 奴福得, 年二十六辛亥
生, 母班婢; 姪每, 父私奴金甲辰。

長湍婢丁每, 年五十丁亥生, 母班婢。

厚每, 父保人金庾伊; 一奴生婢德惠, 年壬子等。

癸酉式相準者

行牧使 [서명]

准: 監官 崔 [서명]

唱: 色吏 鄭 [서명]

청 가경21년(1816, 丙子) 정월 일 양주목

병자년(1816)에 작성한 호구장적을 검토한 바, 이담면 안흥리 제4통 제4호의 유생 정일휘의 나이는 54세로서 계미년 생이며, 본관은 광주이다. 정일휘의 부친은 유생 정현주이고, 조부는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정임기이며, 증조부는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추증받은 정수상이고, 외조부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남수학으로서 본관은 의령이다.

정일휘의 처 유씨는 50세로서 정해년 생이면 본관은 창원이다. 유씨의 부친은 유생인 유상중이고, 조부는 통덕랑을 지낸 유업이며, 증조부는 유생인 유민일이고, 외조부는 유생인 유전으로서 본관은 문화이다.

슬하의 아들로 유생 정재수는 28세로서 을유년 생이며, 며느리 김씨는 34세

15) '淸'은 '淸生'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16) '奴班婢'는 '母班婢, 奴'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로서 계묘년 생이고, 본관은 우봉이다.

둘째 아들 유생 정재관은 23세로서 갑인년 생이다.

셋째 아들 정창성은 14세로서 계해년 생이다.

넷째 아들 정창은은 10세로서 정묘년 생이다.

손자 정유철은 10세로서 정묘년 생이다.

사촌 제수 신씨는 55세로서 임오년 생이며 본관은 거창이다.

데리고 있는 당질 재양은 유생으로서 41세이며 병신년 생이고, 당질 재성은 37세로서 경자년 생이다.

동거노비로 여종 만금은 정미년 생이며, 어미는 양반 여종이다.

여종 연이의 아버지는 사노인 귀남이다.

여종 복득은 26세로서 신해년 생이며, 어미는 양반 여종이다.

여종 말매의 아버지는 사노인 김갑진이다.

장단에 사는 여종 정매는 50세로서 정해년 생이며, 어미는 양반 여종이다.

여종 후매의 아버지는 보인인 김액이다.

한 여종이 여종 덕혜를 낳았는데, 임자년 생이다. 이상.

계유년 호구조사를 주관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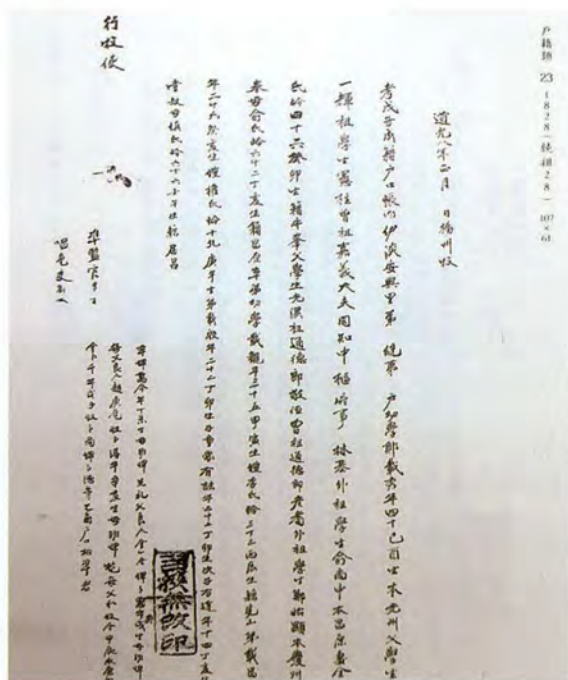
목사대행 [서명]

준 : 감관 최 [서명]

창 : 색리 정 [서명]

제9절 호구대장 6

[戶籍類23, 1828(純祖28)]



道光八年正月 日楊州牧

考戊子成籍戶口帳內伊淡安興里第 統第 戶幼學鄭載秀, 年四十己酉生, 本光州。父學生一輝; 祖學生先柱; 曾祖嘉義大夫同知中枢府事 林基; 外祖學生俞尚中, 本昌原。

妻金氏, 齡四十六癸卯生, 籍牛峯; 父學生光漢; 祖通德郎敬恒; 曾祖通德郎彦壽; 外祖學生鄭始显, 本庆州。

奉母俞氏, 齡六十二丁亥生, 籍昌原。

率弟幼学載觀, 年三十五甲寅生; 嫂李氏, 齡三十三丙辰生, 籍完山。

弟載昌, 年二十六癸亥生; 嫂叔氏, 齡十九庚午生。

弟載殷, 年二十二丁卯生。

子童蒙有喆, 年二十二丁卯生; 次子有达, 年十四丁亥生。

堂叔母慎氏, 齡六十六壬午生, 籍居昌。

率婢萬今, 年丁未生, 母班婢; 先禮, 父良人金一金; 婢卜惠, 年庚戌生, 母班婢; 丁每, 父良人趙庚芻; 奴卜得, 年辛亥生, 母班婢; 芑每, 父私奴金甲辰。

水原奴金卜千, 年戊子; 奴卜尚, 婢卜德等。

乙酉戶口相準者

行牧使 [서명]

準: 監管 李 [서명]

唱: 色吏 刘 [서명]

청 도광8년(1828, 戊子) 정월 일 양주목

무자년(1828)에 작성한 호구장적을 검토한 바, 이담 안흥리 제 통 제 호의 유생 정재수의 나이는 40세로서 기유년 생이며, 본관은 광주이다. 정재수의 부친은 유생 정일휘이고, 조부는 유생정현주이며, 증조는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정임기이고, 외조부는 유생 유상중으로서 본관은 창원이다.

정재수의 처 김씨는 46세로서 계묘년 생이며, 본관은 우봉이다. 김씨의 부친은 유생인 김광한이고, 조부는 통덕랑을 지낸 김덕항이며, 증조부는 통덕랑을 지낸 김언구이고, 외조부는 유생인 정시현으로서 본관은 경주이다.

모시고 사는 모친 유씨는 62세로서 정해년 생이고, 본관은 창원이다.

데리고 사는 동생인 유생 정제관은 35세로서 갑인년 생이며, 제수 이씨는 33세로서 병진년 생이고, 본관은 완산이다.

동생 정재창은 26세로서 계해년 생이며, 제수 권씨는 19세로서 경오년 생이다.

동생 정재은은 22세로서 정묘년 생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정유철은 22세로서 정묘년 생이며, 둘째 아들 유달은 14세로서 정해년 생이다.

당숙모 신씨는 66세로서 임오년 생이고, 본관은 거창이다.

동거노비로 여종 만금은 정미년 생이며, 어미는 양반 여종이다. 여종 선례의 아버지는 양인인 김일금이다.

여종 복혜는 경술년 생이며, 어미는 양반 여종이다. 정매의 아버지는 양인인 조 경돌이다. 남종 복득은 신해년 생이며, 어미는 양반 여종이다. 열매의 아버지는 사노인 김갑진이다.

水原奴金卜千, 年戊子; 奴卜尚, 婢卜德等。

수원에 사는 남종 김복천은 무자년 생이다. 남종 복상과 여종 복덕 등이 있다.

을유년 호구조사를 주관한 자

목사대행 [서명]

준 : 감관 이 [서명]

창 : 색리 유 [서명]

率婢萬今, 年丁未生, 母班婢; 先禮, 父良人金一金; 婢卜惠, 年庚戌生, 母班婢; 丁每, 父良人趙丁亨等。

戊午戶口相準者

行牧使 [서명]

準: 監官 朴 [서명]

唱: 色吏 金 [서명]

청 함풍11년(1861, 辛酉) 정월 일 양주목

신유년(1861)에 작성한 호구장적을 검토한 바, 이담면 안흥리 제○통 제○호의 유생 정재수의 나이는 73세로서 기유년 생이며, 본관은 광주이다. 정재수의 부친은 유생 정일휘이고, 조부는 유생 정현주이며, 증조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정임기이고, 외조부는 유생 유상중으로서 본관은 창원이다.

유생인 큰아들 정석원은 56세로서 정묘년 생이며, 부인 홍씨는 60세로서 임술년 생이고, 본관은 남양이다.

유생인 작은 아들 정석인은 47세로서 을해년 생이며, 부인 이씨는 28세로서 갑오년 생이고, 본관은 전주이다.

유생인 손자 정만수는 30세로서 임진년 생이며, 부인 이씨는 30세로서 임진년 생이고, 본관은 전주이다.

率婢萬今, 年丁未生, 母班婢; 先禮, 父良人金一金; 婢卜惠, 年庚戌生, 母班婢; 丁每, 父良人趙丁亨等。

동거 노비는, 여종 만금은 정미년 생이며, 어미는 양반 여종이다. 선례의 아버지는 양인인 김일금이다. 여종 복혜는 경술년 생이며, 어미는 양반 여종이다. 정매의 아버지는 양인인 조정돌이다. 이상

무오년 호구조사를 주관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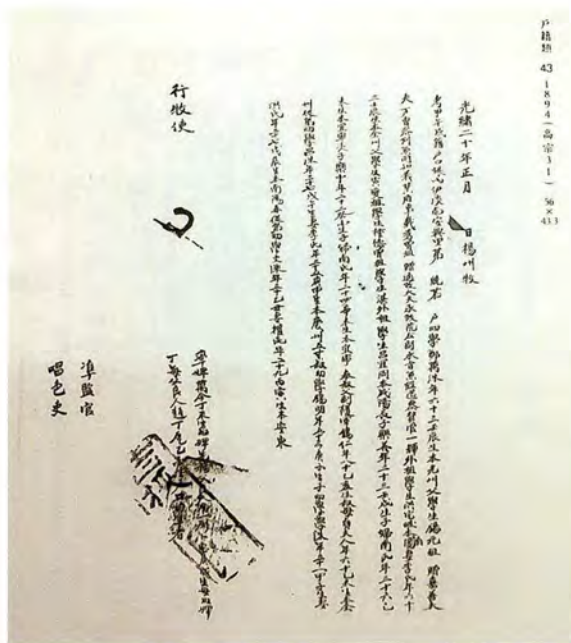
목사대행 [서명]

준: 監官 朴 [서명]

창: 색리 김 [서명]

제11절 호구대장 8

[戶籍類43, 1894(高宗31)]



光緒二十年正月 日楊州牧.

考甲午成籍戶口帳內伊淡面安興里第○統第○戶幼學鄭萬洙, 年六十三壬辰生, 本光州。父學生錫元; 祖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載秀; 曾祖贈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一輝; 外祖學生洪宅畦, 本南陽。

妻李氏, 年六十三壬辰生, 本全州; 父學生寅燮; 祖學生種德; 曾祖學生湛; 外祖學生呂宜周, 本咸陽。

長子樂善, 年三十三壬戌生; 子婦南氏, 年三十六己未生, 本宜寧。

次子樂中, 年二十二癸酉生; 子婦南氏, 年二十四辛未生, 本宜寧。

奉叔父副護軍錫仁, 年八十乙亥生; 叔母貞夫人, 年六十乙未生, 本全州。

從弟幼學昌洙, 年三十七戊午生; 妻李氏, 年三十五庚申生, 本慶州。

五寸叔幼學錫明, 年五十五庚子生。

子幼學學洙, 年三十一甲子生; 妻洪氏, 年二十七戊辰生, 本南陽。

再從弟幼學文洙, 年三十乙丑¹⁸⁾; 妻權氏, 年二十九丙寅生, 本安東。

18) '乙丑'은 '乙丑生'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19) '班婢'는 '母班婢'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率婢萬今, 丁未生, 班婢¹⁹⁾; 先禮, 父良人金一金; 婢卜惠, 庚戌生, 母班婢;
丁每, 父良人趙丁夏。

乙未主戶口相準者

行牧使 [서명]

準: 監官 [서명]

唱: 色吏 [서명]

청 광서20년(1894, 甲午) 정월 일 양주목

갑오년(1894)에 작성한 호구장적에 따르면 이담면 안흥리 제○통 제○호의 유생 정만수의 나이는 63세로서 임진년 생이며, 본관은 광주이다. 정만수의 부친은 유생인 정석원이고, 조부는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추증 받은 정재수이며, 증조는 통정대부, 승정원좌부승지 겸 경연참찬관을 추증 받은 정일휘이고, 외조부는 유생인 홍택휴로서 본관은 남양이다.

정만수의 처 이씨는 63세로서 임진년 생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이씨의 부친은 유생인 이인섭이고, 조부는 유생인 이종덕이며, 증조는 유생 이담이고, 외조부는 유생인 여의주로서 본관은 함양이다.

큰아들 정악선은 33세로 임술년 생이며, 며느리 남씨는 36세로 기미년 생이고, 본관은 의령이다.

둘째 아들 정악중은 22세로 계유년 생이며, 며느리 남씨는 24세로서 신미년 생이고, 본관은 의령이다.

모시고 사는 숙부 정석인은 부호군을 지냈고 80세로서 을해년 생이다. 숙모인 정부인은 60세로서 을미년 생이고, 본관은 전주이다.

사촌동생인 유생 정창수는 37세로서 무오년 생이며, 처 이씨는 35세로서 경

신년 생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오촌숙인 유생 정석명은 55세로서 경자년 생이다.

(정석명의 아들인) 유생 정학수는 31세로서 갑자년 생이며, 처 홍씨는 27세로서 무진년 생이고, 본관은 남양이다.

재종제인 유생 정문수는 30세로서 을축년 생이며, 처 권씨는 29세로서 병인년 생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동거노비 만금은 정미년 생이며, 어미는 양반 여종이다. 선례의 아버지는 양인인 김일금이다. 여종 복혜는 경술년 생이며 어미는 양반 여종이다. 정매의 아버지는 양인인 조정돌이다.

을미년 호구조사를 주관한 자

목사대행 [서명]

준 : 감관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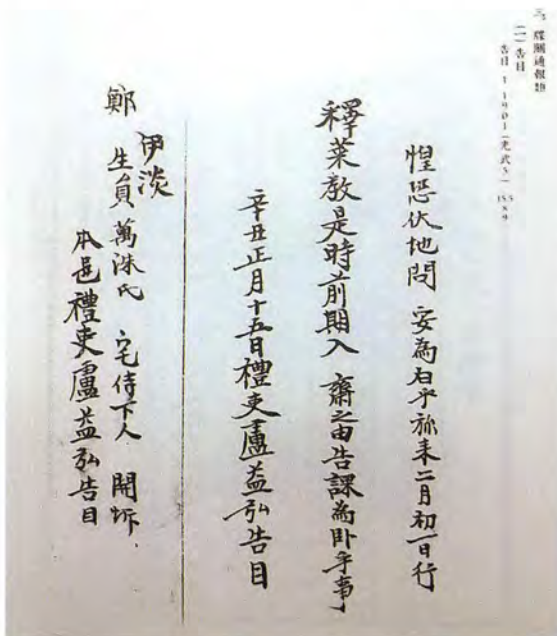
창 : 색리 [서명]

제12절 고목²⁰⁾

20) 고목(告目)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리는 편지를 말한다.

21) 석채(釋菜)는 석전(釋奠)이라고도 하며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문묘(文廟)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牒關通報類-1, 告目-1, 1901(光武5)]



惶恐伏地問安為白乎。於來二月初一日行釋菜教，是時前期入齋之由告課為臥乎事。

辛丑正月十五日禮吏盧益弘告目

伊淡 鄭生員 萬洙氏 宅侍下人 開圻

本邑禮吏盧益弘告目

황공스럽게도 땅에 엎드려 문안을 여쭙습니다. 다음달 이월 초하루날 석전제²¹⁾

때 먼저 재실에 들어가 위 분들에게 고해주시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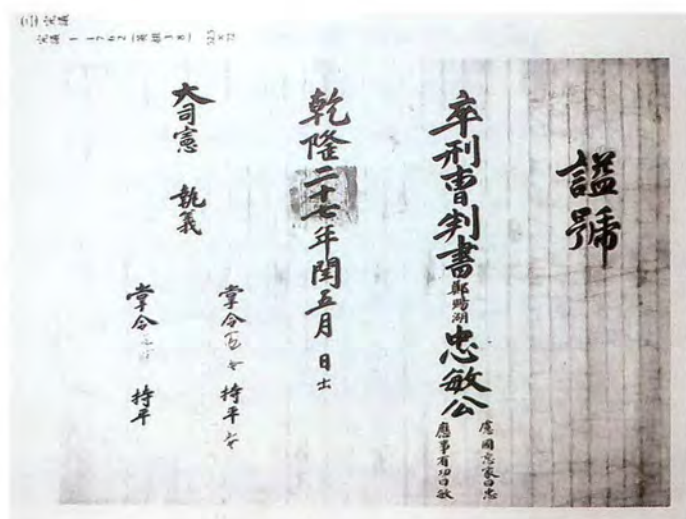
신축년 정월 15일 예리 노익홍 올림

이답면 정생원 만수씨댁 시하의 분이 개봉하여 주십시오.

본읍 예리 노익홍 올림

제13절 시호

[完議-1, 1762(英祖38)]



謚號

卒刑曹判書鄭賜湖忠敏公慮国忘家曰忠, 应事有功曰敏

乾隆二十七年閏五月 日出

掌令 [서명] 持平 [서명]

大司憲 執義

掌令 [서명] 持平 [서명]

시호

사망한 형조판서 정사호를 충민공 시호를 내린다. 국가의 일을 염려해 집을
잊어버림을 충이라 하고, 일에 응하여 공로가 있음을 민이라 한다.

건륭 27년 윤5월 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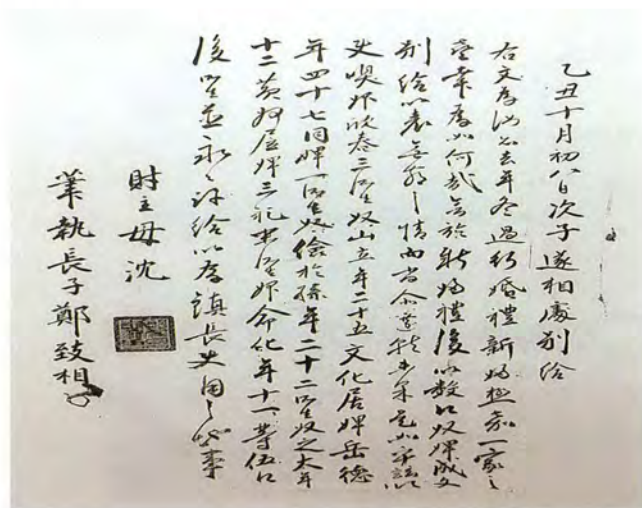
장령 [서명] 지평 [서명]

대사헌 집의

장령 [서명] 지평 [서명]

제14절 재산 분할 기록[分財記]

[明文文記類-1, 分財記-1, 1685(肅宗11)]



乙丑十月初八日次子遂相處別給

右文为臥亦，去年冬過行婚禮新婦，極嘉一家之喜幸为如何哉！欲於新婦禮後以數口奴婢成文別給以表無窮之情而尙爾遷就未果是如乎。茲以使喚婢欣春三所生奴山立，年二十五；文化居婢岳德，年四十七；同婢一所生奴儉於孫，年二十；二所生奴之大，年十二；黃州居婢三禮末所生婢命化，年十一等伍口；後所生並永永許給以爲鎮長使用之地事。

財主母沈氏 [인장]

筆執長子鄭致相 [서명]

을축년 시월 초팔일 둘째 아들 수상(遂相)에게 별도로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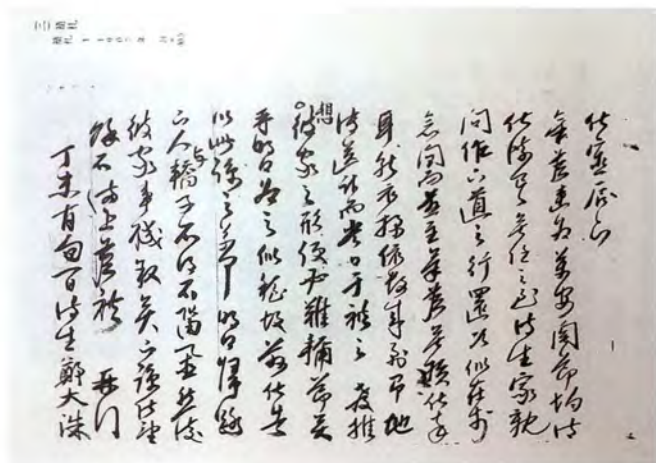
위 문서는 작년 겨울 혼례를 치른 신부를 위한 것이다. 한없이 기쁜 온 집안의 경사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부에게 혼례를 마친 뒤 노비 몇 명을 주고 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무궁한 정을 표하고자 하였는데 아직까지 실행치 못하고 미루어왔다. 이제 (내가) 부리던 여종 흔춘(欣春)의 셋째 아이인 25세의 남종 산립(山立)과 문화에 외거하는 47세의 여종 악덕(岳德), 같은 여종(즉 岳德)의 첫째 아이인 20세의 남종 검어손(儉於孫)과 둘째 아이인 12세의 남종 지대(之大), 황주에 사는 여종 삼례(三禮)의 막내 아이인 11세의 여종 명화(命化) 등 다섯명,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낳을 아이들까지 모두 영원히 허여(許與)하니, 진중하게 길이 사용할 일이다.

재산의 주인(財主) : [친정] 어머니 심씨(沈氏)

문서 작성자(筆執) : 그 큰아들 정치상(鄭致相)

제15절 간찰(簡札)

[簡札-1, 1907]



伏審辰下氣候連爲萬安,關節均侍,伏僣區區無任之至。侍生家親間作下道之行,還次似在於念間,而慈主氣候無損,伏幸耳。

就衣樣,依數成到卽地傳送計,而當日于禮之敦,推想彼家之形便,必難稱節矣。再明日爲之似穩,故茲伏告,以此諒之若何? 明日歸路下人與轎子不得不留置然後彼家事機紋矣。下諒伏望。

餘不備上候禮。

丁未十月旬一日侍生鄭大洙 再拜

삼가 살펴 알고 있기로, 근래 옥체의 일만 기운이 늘 평안하시고 가내 제절도 안녕하시다니, 우러러 기뻐하는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시생(侍生)은 아버님이 그 동안 하도(下道)에 다녀오셨는데 [유배생활에서] 귀환하신 뒤에도 [그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건강에 손상이 없

으시니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예복은 양식에 따라 숫자에 맞춰 완성되는 데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일로 예식을 치르시자는 말씀은, 짐작컨대 저쪽 집안의 형편에 필시 예절을 다 갖추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모레로 하심이 온당할 것 같아 삼가 말씀드리오니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내일 귀로에는 부득불 하인과 교자를 멈춰두시고 저쪽 집안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해량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다른 말씀은 갖추지 못한 채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정미년 시월 십일일 시생 정대수 재배

제16절 토지매매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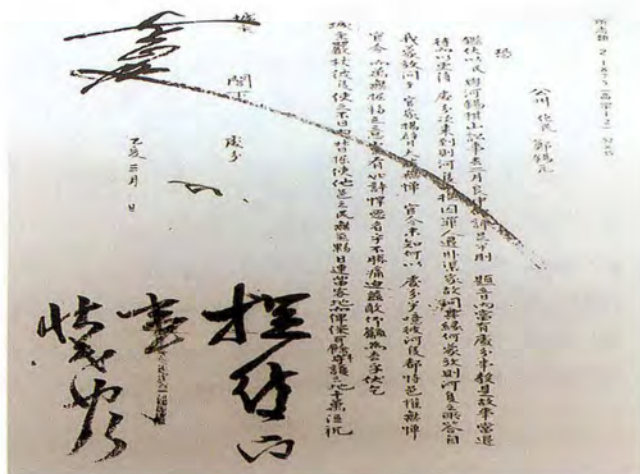
1. 해제

發給: 崔生員宅奴 向月

受給: 尹生員宅奴 亨多(돌몽)

地名: 楊州 伊淡 內洞

年紀: 光武元年(1897)九月



발급: 최생원댁 중 향월

수취: 윤생원댁 중 돌몽

지명: 양주 이담 내동

년도: 광무 원년(1897) 9월

22) 谷字는 지번의 대분류를 말한다.

23) 卜數는 負數라고도 하며 토지에 대한 세금, 즉 농지세 기준을 말한다.

2. 내용

光武元年(1897)丁酉九月初二日

崔生員宅奴丁得前明文

右明文事段無他, 以移買次, 楊州伊湊面內洞伏在, 谷第五十二田半日畊, 卜數則二卜五束, 四標段東睦奴連得田, 西山南睦奴仁福田, 北睦奴雙女田標內, □明分麓. 右人前他折錢文八百五十兩, 依數捧上是遣, 本文杞段他田畚並付, 故不得許給是遣, 後背爻周以新文記一丈, 永永放賣為去守, 日後若有携貳之端, 則持此文記告, 官卞正事.

田主: 崔生員宅奴 向月 (署名)

證人: 尹生員宅奴 亨夕 (署名)

筆執: 李生員宅奴 小天大 (署名)

광무원년(1897)정유년 9월 초2일

최생원 닥 남종 정득(丁得)에게 주는 [매매 사실 증명] 명문(明文)

이 명문의 사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매(移買)를 위해 양주군 이담면 내동에 있는 곡자(谷字)²²⁾ 제52호의 밭 반나절 같이, 부수(卜數)²³⁾는 두 짐(二卜) 닥아름(五束)이고, 사방경계(四標)는 동쪽은 목(睦)씨 닥 남종 연득(連得)의 밭, 서쪽은 산 남쪽의 목(睦)씨 닥 남종 인복(仁福)의 밭이고, 북쪽은 목(睦)씨 닥 남종 쌍녀(雙女)의 밭인데 그 안의 토지를 위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850량을 숫자에 맞게 받았으며, 본래의 문기(文記)는 다른 전답이 함께 붙어있어 내줄 수 없기에 그 배면(背面)에 말소내용을 표시(爻周)하고 새 문기 한 장을 주어 영원히 매각하였으니, 뒷날 만약 닥툼거리가 있게 되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가에 고(告)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발주인 : 최생원 닥 종 향월 (서명)

증인 : 윤생원 닥 종 돌몽 (서명)

작성자 : 이생원 닥 종 소천대 (서명)

제17절 成績戶口帳 [호구대장]



1. 해제

發給:漢城府

受給:崔載洙

地名:慶幸坊漢原君東邊契

年紀:嘉慶三年(1798)

嘉慶三年 月 日 漢城府

24) 뒷 부분이 누락되어 온전치 못한 문서인 것으로 보임

발급:한성부

수급:최재수

지명:경행방 한원군 동변계

연도:가경3년(1798) 가경3년 월 일 한성부

2. 내용

考戊午成籍戶口帳內, 中部慶倖坊漢原君東邊契第五統第一戶, 啟功郎崔載洙家挾戶住: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直崔光國, 己巳生, 本隋城; 父禦侮將軍行龍驤衛副護軍允迪; 祖武科及第景稷; 曾祖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時瞻; 外祖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金世纘, 本漢陽。

妻金氏, 齡庚午生, 籍慶州; 父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履章; 祖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泰逸; 曾祖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正是樑; 外祖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直李允芳, 本完山。

率弟禦侮將軍行龍驤衛副護軍光謹, 壬申生; 次弟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光澤, 乙亥生; 妻朴氏, 齡戊寅生, 籍咸陽; 子啟功郎。

무오년에 기성의 호구장적을 검토한 바, 중부 경행방 한원군 동변계(현 낙원동) 제5통 제1호의 계공랑 최재수 집안의 가정에 사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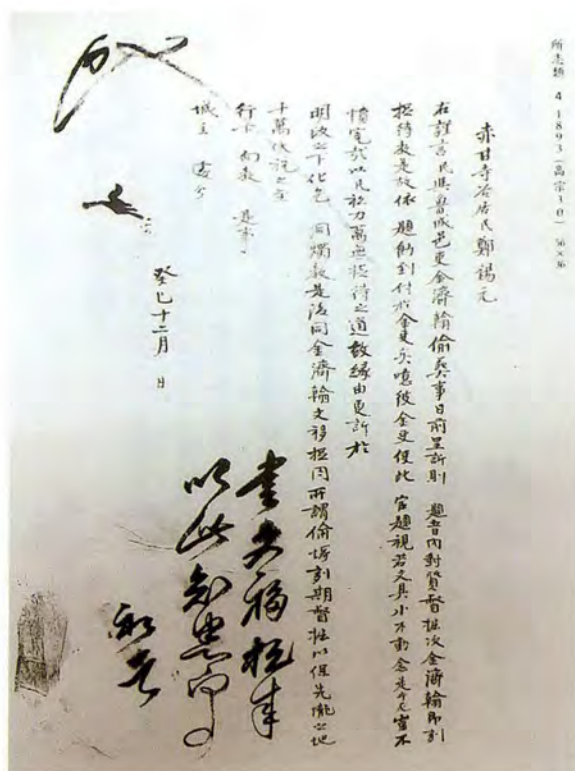
어모장군 행룡양위부사직 최광국은 기사년 생으로 본관은 수성이다. 그 부친은 어모장군 행룡양위부호군을 지낸 최윤적이며, 조부는 무과급제한 최경직이며, 증조부는 어모장군 행룡양위부사과를 지낸 최시첨이다. 외조부는 어모장군 행룡양위부사과를 지낸 김세찬이며 본관은 한양이다.

처 김씨는 경오년 생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그 부친은 어모장군 행룡양위부사과를 지낸 김리장이고, 조부는 어모장군 행룡양위부사과를 지낸 김태일이며, 증조부는 어모장군 행룡양위부사정을 지낸 김시량이다. 외조부는 어모장군 행룡양위부사직을 지낸 이운방이며 본관은 완산이다.

동거 가족인 큰 아우 어모장군 행룡양위부호군 최광근은 임신년 생이다.

둘째 아우 어모장군 행룡양위부사과 최광택은 을해년 생이다. 그 처 박씨는 무인년 생이며 본관은 함양이다. 그 아들은 계공랑이다.²⁴⁾

제18절 진정 및 청원서[白活] 1



1. 해제

伊淡面紙洞裡所任白聖官 白活

이담면 지동리 소임(所任) 백성관(白聖官)이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2. 내용

25) 軍保는 조선 시대에 군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현역에 동원되는 대신 현역병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것을 말한다. 후에는 軍布로 대납하게 하면서 軍布라고도 하였다.

26) 동포는 조선 철종 말부터 고종 8년(1871)까지 동네에서 공동으로 바치던 세금으로서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장정마다 1년에 두 냥씩 매겼다. 그리고 납부의 최종 책임을 마을 전체에 공동으로 부과하였다.

右謹陳至寬極痛情由。段軍保者，三政之大關也。去丁巳良中虛名閑丁互相充代，白骨無寬，黃口未填，而里無田，宜(=宜)懲之弊，是白遺。且於年前，或設洞布，各樣軍保有定無加矣。不意再昨年以來未見印押傳令，以片紙稱以虛名白岳只金紙洞軍錢，暗自督棒於身役之外，而年年加懲。至於今番則官差與主人虛名，軍錢五兩五錢，以傳令來督於矣。身等即但三漢也，一身兩役至寬分除良，且況朝令之下，祠院墓村閑丁想必除減，而至於紙洞則虛名，軍保一向加出。哀此小民將至於流離之境，是乎則緣由。茲敢仰訴於明庭之下為白去乎，伏乞參商教是後，特為頒給虛名使矣。身亦如前案堵之地，千萬望良為只為。行下向教是事。

使道主處分

甲子十一月 日 所志

삼가 우와 같이 지극히 크고 원통한 사정을 진정합니다. 군포²⁵⁾는 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정사년부터 양인 가운데 거짓 이름으로 국역(國役)을 기피하는 장정[閑丁]들이 서로 감싸니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면제하는 일이 없고, 어린 사람은 아직 보충되지 아니하였으며 마을에 전답도 없으니 마땅히 그 폐단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기에 청원드립니다. 몇 해 전에 동포(洞布)²⁶⁾를 신설하였는데, 각종 군포는 일단 정해지면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재작년부터 관인도 없는 전령이 (공식문서가 아닌) 편지를 들고 와서 백악이라는 있지도 않은 사람의 군전을 우리 지동마을에 요구하고, 은연중에 신역 외의 것도 요구하더니, 그나마도 해마다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관에서 주인의 허명을 빌려 군전 5량 5전을 내라고 전령 와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겨우 세 사람인데 한명이 두사람의 역을 담당하고 있으니 관대하게 처분해 주십시오. 더구나 조정의 명령에는 사원 묘촌의 한정(閑丁)은 반드시 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동마을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명의의 군포를 계속 내게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백성이 (세금 부담을 못 이겨) 장차 떠돌아다닐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감히 관에 연유를 아뢰며 엎드려 바라오니 부디 참작하시고 허명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을 헤아려 책임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전히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천만번 바랄 뿐입니다. 이 일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삼가 관찰사(觀察使)의 처분을 바랍니다. 갑자년 11월에 청원합니다.

제19절 진정 및 청원서[白活] 2



1. 해제

伊潭面紙洞里睦藍浦宅奴石和白活

이담면 지동리 목람포(睦藍浦) 대 남중 석화(石和)가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2.내용

右謹陳萬萬切迫情由所矣。宅老上典年滿七旬，自四月至于今月老病侵尋，常委床茲，且勢本赤貧，朝夕難繼，萬無調將之道是如。只有弱牛一隻，馱柴上京是如可，為冰路所蹶，前一腳致傷，運動不得，故使理牛人看之，則腳折之故，不得山將屠之，取其頭足以供老上典，一時上調補為計。故茲敢緣由仰訴為白去乎，伏乞參商教是後，特為立旨出給一，以為去皮立本之地，千萬幸甚，行下向教是事。使道主處分。

丁卯十二月 日 所志

위와 같이 삼가 만만 절박한 사정의 연유를 아뢰입니다. 저희 댁의 연로한 상전이 만 칠순의 나이이온 바 4월부터 이달에 이르기까지 노환을 당하여 항상 누워 계시는데다가 본래 가세가 빈한하여 조식을 잇기 어려운지라 병 조리를 할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마리 있는 힘 약한 소가 땔나무를 싣고 서울을 가다가 언 길에 넘어져서 앞 다리 하나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기에 소 돌보는 이에 게 보게 하니 다리가 부러진 것이라 합니다. 이에 부득이 도살하여 그 소머리와 족으로 나이든 상전을 공양하여 한 때나마 조리와 보양하고자 합니다. 이에 감히 연유를 아뢰며 엎드려 바라오니, 부디 참작하시고 특별히 입지(立旨)를 내주시어 지말(支末)을 버리고 근본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달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관찰사(觀察使)의 처분을 바랍니다.

정묘년 12월에 청원합니다.

제20절 동두천의 지도



경기도 동국지도 부분



경기도 천지명도



경기도 최신조선분도지도 부분



경기도 팔도지도



고구려 남변양도강역도



고려 관내해양등도후위양광서해도도

제37장

문헌자료

- 제 1 절 「고려사」
- 제 2 절 「조선왕조실록」
- 제 3 절 「추강집(秋江集)」
- 제 4 절 「율곡전서(栗谷全書)」
- 제 5 절 「졸옹집(拙翁集)」
- 제 6 절 「창랑집(滄浪集)」
- 제 7 절 「기언별집(記言別集)」 卷之九
- 제 8 절 「중암선생문집(重庵先生文集)」 卷之二
- 제 9 절 「기봉집(騏峯集)」 卷之一
- 제10절 「용헌집(容軒集)」
- 제11절 「편양당집(鞭羊堂集)」
- 제12절 「윤치호 일기(尹致昊日記)」 9卷
- 제13절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
- 제14절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卷之十
- 제15절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卷之二十七
- 제16절 일제시대 독립군 체포 보고
- 제17절 제목 동두천우편소(楊州郡 伊湊面 東豆川)
- 제18절 「삼천리」 제8권 제6호
- 제19절 동두천 소재 회사
- 제20절 해방 후 신문 기사

DONGDUCHEON HISTORY OF



30 YEARS 1960

東豆川市30年史

제1절 「고려사」

사천현은 본래 고구려 ‘내을미현’인데 다르게는 ‘내이미’라고도 부른다.
신라 경덕왕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견성군의 영현으로 삼았다가 현종 9
년에(양주에) 옮겨 속하게 하였다.

高麗史 卷五十六 志 卷第十

地理 一 楊廣道 南京留守官楊州 沙川縣

沙川縣 本高句麗內乙買縣 一云內仁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堅城郡領縣
顯宗九年 來屬

제2절 「조선왕조실록」

1. 태조와 소요산

1) 태종 1년 11월 17일 (신축)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나갔으니, 태상왕께서 중사(中使)를 보내어 불렀기 때문이었다. 태상왕이 잠저(潛邸) 때의 일과 무진년에 회군해서 집[家]을 화(化)하여 나라를 만든 등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날이 저물어 임금이 환궁하였다. 태상왕이 장차 소요산(逍遙山)에 행행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밤을 이용하여 동가(動駕)하였다. 임금이 이날 저녁에 또 태상전에 나가니, 태상왕이 과연 행하지 못하였다.

2) 태종 1년 11월 26일 (경술)

밤중에 태상왕이 소요산(逍遙山)에 가니, 임금이 문밖에서 전송하려고 하였는데 미치지 못하였다.

3) 태종 1년 12월 17일 (신미)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정용수(鄭龍壽) · 승녕부윤(承寧府尹) 유창(劉敞) 등이 소요산(逍遙山)의 태상왕(太上王)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갔다. 용수 등이 문안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오래 머물러 영선(營繕)의 폐단을 갖추 전달하였더니, 태상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장차 나의 후사(後事)를 닦으려는 것이다. 경들은 돌아가라. 내가 치재(致齋)하겠다. 경의 주상(主上)은 설 뒤에 와서 보는 것이 좋다.’ 하셨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소요산에 가려 하다가, 이 말을 듣고 정지하고 설 뒤를 기다렸다. 태상왕이 소요산에 이르러 근처의 본궁(本宮) 노예(奴隸)와 좌도(左道)·강원도·충청도의 가까운 고을의 사람들을 징발하였는데, 날은 차고 얼음이 얼어 쉼을 불피워 가며 땅을 파서 터를 쌓고 대궐을 경영하여 연말(年末)에 이르니, 백성들이 몹시 괴롭게 여기었다.

4) 태종 1년 12월 21일(을해)

좌정승(左政丞) 김사형(金士衡)을 소요산(逍遙山)에 보내었으니, 태상왕(太上王)께 문안하기 위함이었다.

5) 태종 2년 1월 8일(신묘)

임금이 소요산(逍遙山)으로 가서 태상왕에게 조회하려고 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행하지 못하자,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을 보내서 문안하였다. 태상왕이 말하였다.

“이 절에 명사(名師)가 있으니, 절 아래에다 집을 짓고 거처하고자 한다.”

6) 태종 2년 1월 12일(을미)

대간(臺諫)이 상언(上言)하기를,

“늙고 친한 대신을 보내어 태상왕의 환궁(還宮)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이지(李至), 김이음(金爾音) 등이 대궐에 나와서 아뢰기를,

“때가 몹시 추사운데, 태상왕께서 소요산에 계시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모시는 사람들은 한데서 자고, 나무와 돌을 다듬는 사람은 모두 동상에 걸려서 살가죽이 얼어 터졌습니다. 또 경기(京畿)에서 공역(供億)으로 인하여 왕래가 번거로와 폐단이 되오니, 나이 많고 덕이 높은 대신에게 명하여 돌아오시기를 간청함이 옳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들의 말이 옳소. 내가 병이 나서 신년(新年)에 들어 아직 조알(朝謁)하지 못하였는데, 먼저 늙은 대신을 보내면 태상왕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여기시겠소? 내가 친히 가 뵈 뒤엔 경들의 말대로 하겠소.”

7) 태종 2년 1월 16일(기해)

비가 와서 소요산의 큰 돌이 무너졌으므로,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황하준(黃河濬)을 보내어 양도(襁褓)하였다.

8) 태종 2년 1월 28일(신해)

임금이 태상왕을 소요산에 가서 뵈었다. 임금이 조용히 헌수(獻壽)하였다. 태상왕과 임금은 술이 지나하자 시(詩)를 읊고 화답하였다. 시연(侍宴)하였던 종친(宗親)과 성석린(成石璘) 등이 태상왕의 환가(還駕)를 극력 청하였다. 또 사퇴하기를,

“염불하고 불경을 읽음에 어찌 꼭 소요산이라야만 되겠습니까?”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뜻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위를 위함이다.”

하고, 공중에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들도 이미 서방정토(西方淨土)로 향하여 있다.”

고 하였다. 태상왕은 무인년에 병이 든 뒤로부터 마음이 항상 답답하여 즐겁지 아니하기 때문에, 놀기 위한 행사가 점점 잦아졌다.

9) 태종 2년 2월 1일(갑인)

대가(大駕)가 소요산에 이르렀다.

10) 태종 2년 2월 5일(무오)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과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정용수(鄭龍壽)가 소요산에서 돌아왔다. 성석린 등이 아뢰었다.

“태상왕께서 빨리 돌아오실는지, 늦게 돌아오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11) 태종 2년 2월 11일(갑자)

임금이 정사(政事)를 보았다. 대간(臺諫)이 면대하여 아뢰기를,

“태상왕께서 소요산에 오래 계심은 불가하옵니다. 산람(山嵐)으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지실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달 24일은 의비(懿妃)의 기일(忌日)이니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12) 태종 2년 3월 9일(임진)

태상왕이 소요산 아래에다 별전(別殿)을 지었다. 태상왕이 경기우도 도사(都事) 이명덕(李明德)에게 말하기를,

“전(殿)을 하나 지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다.”

하니, 이명덕이 의정부에 고하고,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바로 경기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역사에 나가게 하였다.

13) 태종 2년 3월 19일(임인)

임금이 태상왕을 소요산으로 가서 뵈었다. 장차 북방(北方)의 일을 의논하려고 함에서였다. 임금이 활과 화살을 차고 가다가 사냥을 하였다.

14) 태종 2년 3월 24일(정미)

임금이 소요산으로부터 돌아왔다. 중국 조정의 병부(兵部)에서 자문(咨文)이 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本部)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말 7천 필을 바꾸기로 하여 이제 이미 바꾸어 왔습니다. 조선에서 1만 필을 채울 수 없다면 억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사신을 돌아오게 함이 옳겠습니다.”

임금이 기뻐하였고 축맹헌, 단목지도 자문을 보고 모두 기쁘다고 말하였다.

15) 태종 2년 4월 21일(계유)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박만(朴蔓)이 소요산(逍遙山)으로 가서 하직을 고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동북면의 사람들은 모두 내 형제들이다. 지난번에 순문사(巡問使) 윤사덕(尹師德)이 매우 시끄럽게 굴었다. 경이 편안하게 어루만져 줘서 좋겠다.”

하매, 박만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기를,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니, 태상왕이 웃었다. 박만이 울면서 아뢰기를,

“지금 도망 온 군대가 많이 양계(兩界)에 이르러 국가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전하의 환궁(還宮)을 바라고 있사온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속히 환궁하시지 아니하옵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전하께서 나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여기옵니다.”

하니, 태상왕이 말하였다.

“옳다. 내 장차 돌아가겠다.”

16) 태종 2년 4월 28일(경진)

태상왕이 소요산(逍遙山)으로부터 신도(新都)에 행차하여 승도(僧徒)를 모아 법회(法會)를 흥천사(興天寺)에서 베풀었으니, 이달 그믐날이 환왕(桓王)의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내관(內官) 이용진(李龍進)을 보내어 중들에게 포(布) 1백50필을 시주하였다.

17) 태종 2년 5월 1일(계미)

태상왕이 소요산으로 다시 행차하였다.

18) 태종 2년 5월 3일(을유)

임금이 소요산에 가려고 하였으나 물이 막혀 그만 두었다.

19) 태종 2년 5월 8일(경인)

임금이 소요산에 가서 헌수(獻壽)하려고 하였으나 행하지 못했다. 태상왕이 능엄 법회(楞嚴法會)를 베풀고 외인(外人)의 왕래를 금했기 때문이었다.

20) 태종 2년 6월 1일(계축)

임금이 소요산에 가서 태상왕께 헌수(獻壽)하려고 하였으나 행하지 못하였다. 사간(司諫) 최궁(崔兢)과 정언(正言) 신개(申勸) 등이 청하기를,

“때가 한창 농사철이오니 7월을 기다려서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종(侍從)을 감(減)하고 또 전중(田中)에서 사냥도 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농사에 해로움이 있겠는가? 벌써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공역(供億)을 번거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하룻밤을 자고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려는 것이다.”

하였다. 최궁 등이 다시 청하기를,

“비록 시종을 감한다고 하시오나, 곡식[禾稼]이 들에 가득하오니, 어찌 밭로 밟아 손상시킬 폐단이 없겠사오며, 비록 공역(供億)을 감생(減省)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폐단이 없다고는 못할 것이옵니다. 태상왕의 뜻도 근현(覲見)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폐단을 입는다면 마음이 편치 못하실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봄·여름에는 부왕(父王)께 찾아뵙지도 못한단 말인가?”

21) 태종 2년 6월 9일(신유)

태상왕이 소요산에서 회암사(檜巖寺)로 행차하였다. 태상왕이 회암사를 중수(重修)하고, 또 궁실(宮室)을 지어 머물러 살려고 하니, 임금이 그 뜻을 어기가 어려워서 대부(隊副) 1백 50명을 보내어 부역(赴役)하게 하였다. 어느 한 사람이 망명(亡命)하였으므로, 태상왕이 체포하여 죽이라 명하였다.

22) 태종 5년 3월 19일(갑인)

소요산(逍遙山)의 이궁(離宮)에 불이 났으니, 산불로 연소(延燒)된 것이었다.

23) 태종 16년 3월 5일(정유)

보장산(寶藏山)에서 물이하고, 저녁에 사천현(沙川縣)의 소요산(逍遙山) 아래 머물렀다. 대가를 따르는 사람들로써 숙소에 이르러 독초(毒草)를 잘못 먹고 갑자기 죽은 사람이 6인이었는데, 약을 복용하여 살아난 사람이 2인이었다. 임금이 죽은 상황을 물으니, 대답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물을 먹은 지 순식간(瞬息間)에 황홀(恍惚)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귀·눈·입·코에서 피가 흐르듯이 나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매우 가슴 아파하여 좌우(左右)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이것은 강무(講武)의 소치(所致)라.’ 할 것이다.”

하고, 찰방(察訪)과 상호군(上護軍) 전흥(田興)으로 하여금 깊은 골짜기마다 단단히 묻게 하고, 6인의 집에는 쌀과 콩 각각 2석씩을 주게 하였다. 독초(毒草)의 이름은 망초(莽草)이고, 향명(鄉名)은 대조채(大鳥菜)인데, 뿌리는 거여목[蝗隆]과 같고 줄기는 쑥갓[襟菜]과 같았다. 임금이 사옹(司饗)에게 명하였다.

“이제부터 어선(御膳)에는 쑥갓과 거여목을 올리지 말라.”

2. 「세종실록 지리지」 -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

본래 고구려의 남평양성(南平壤城)인데,【또는 북한산(北漢山)이라 한다.】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취하여, 그 25년 신미에【곧 동진(東晉) 간문제(簡文帝) 함안(咸安) 원년】남한산(南漢山)으로부터 도읍을 옮기어 1백 5년을 지나, 개로왕(盖鹵王) 20년 을묘에【곧 송나라 폐제(廢帝) 원휘(元徽) 3년】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이 와서 한성(漢城)을 에워싸니, 개로왕이 달아나다가 고구려 군 사에게 살해되매, 그 해에 그 아들 문주왕(文周王)이 도읍을 웅진(熊津)으로 옮기었다. 그 뒤 79년, 신라 진흥왕(眞興王) 13년 계유에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방을 취하고, 15년 을해에 왕(王)이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이르러 국경(封疆)을 정하였으며, 17년 정축에【곧 진(陳)나라 고조(高朝) 영정(永貞) 원년】북한산주(北漢山州)를 두었고, 경덕왕(景德王) 14년 병신에 한양군(漢陽郡)으로 고쳤다. 고려가 양주(楊州)로 고치어, 성종(成宗) 14년 을미에 12주(州)의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는데, 양주 좌신책군(楊州左神策軍)이라 하여, 해주 우신책군(海州右神策軍節度使)와 더불어 이보(二輔)를 삼았다. 현종(顯宗) 3년 임자에 이보(二輔)와 십이절도사(十二節度使)를 폐하여 안무사(安撫使)로 고치고, 9년 무오에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시켰다가, 숙종(肅宗) 9년 갑신에【곧 송나라 휘종(徽宗) 숭녕(崇寧) 3년】남경 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승격시켰으며, 충렬왕(忠烈王) 34년 무신에【곧 원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원년】한양부(漢陽府)로 고쳤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3년 갑술에 도읍을 한양에 정하고 부치(府治)를 동촌(東村) 한골[大洞里]에 옮겨, 다시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시켰다가, 4년 을해에 부(府)로 승격시켜 부사(府使)를 두었고, 정축에 또 부치(府治)를 견주(見州) 옛터로 옮겼으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하였다. 속현(屬縣)이 3이다. 견주(見州)는 본래 고구려의 매초현(賣肖縣)인데, 신라가 내소군(來蘇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견주(見州)로 고치어,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별호(別號)는 창화(昌化)이니, 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사천현(沙川縣)은 본래 고구려의 내을매현(內乙買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견성군(堅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으며, 고려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 풍양현(豐壤縣)은 본래 고구려의 골의노현(骨衣奴縣)인데, 신라가 황양(荒壤)으로 고쳐서 한양군(漢陽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풍양현(豐壤縣)으로 고쳐,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포천(抱川)에 옮겨 붙였으며, 금상(今上) 원년(元年) 기해에 다시 본부(本府)에 붙였다.

삼각산(三角山)【부(府) 남쪽에 있다. 일명(一名)은 화산(華山)이니, 3봉우리가 우뚝 뻗어나서 높이 하늘에 들어가 있다.】 오봉산(五峯山)【부(府) 남쪽에 있다.】 천보산(天寶山)【부(府) 동쪽에 있다.】 소요산(逍遙山)【부(府) 북쪽에 있다.】 양진(楊津)【부(府) 남쪽에 있으니, 곧 한강[漢水]의 남쪽이다. 단(壇)을 쌓고 용왕(龍王)에게 제사지내는데, 봄가을의 가운데 달[仲月]에 <나라에서> 향(香)·축(祝)을 내리어 제사지낸다. 신라 때에는 북독한산하(北瀆漢山河)라 칭하고 중사(中祀)에 올렸으나, 지금은 소사(小祀)에 실려 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포천에 이르기 18리, 서쪽으로 원평(原平)에 이르기 22리, 남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47리, 북쪽으로 적성(積城)에 이르기 83리이다.

건원릉(健元陵)은 우리 태조 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을 장사지냈다.【부(府) 남쪽 검암산(檢岩山)의 기슭에 있으니, 자룡[坎山]에 계좌 정향(癸坐丁向)이다. 능 남쪽에 신도비(神道碑)가 있고, 능지기[陵直]·권무(權務) 2인과 수호군(守護軍) 1백 호(戶)를 두고, 매호(每戶)마다 밭 2결(結)을 주었으며, 동리에 재궁(齋宮)을 짓고 개경사(開慶寺)라 하여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4백 결을 주었다.】 낙천정(樂天亭)【부(府) 남쪽 황대산(皇臺山) 언덕에 있으니,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우리 태종(太宗)이 거둥하여 계시던 곳이다.】 풍양 이궁(豐壤離宮)【부(府) 동남쪽에 있으니, 곧 풍양현(豐壤縣)의 옛터이며, 또한 태종이 거둥하여 계시던 곳이다.】

호수(戶數)가 1천 4백 81호, 인구가 2천 7백 26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백 33명, 선군(船軍)이 1백 32명이다.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4이니, 한(韓)·조(趙)·민(閔)·신(申)이요, 내성(來姓)이 5이니, 함(咸)【양근(楊根)에서 왔다.】·박(朴)【춘천(春川)에서 왔다.】·홍(洪)【남양(南陽)에서 왔다.】·최(崔)【수원(水原)에서 왔다.】·부(夫)【과천(果川)에서 왔다.】요, 망성(亡姓)이 2이니, 정(鄭)·예(艾)이다. 전주(見州)의 토성(土姓)이 7이니, 이(李)·김(金)·송(宋)·신(申)·백(白)·윤(尹)·피(皮)요, 사천현(沙川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경(耿)이며,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임(任)·송(宋)·허(許)이다. 풍양현(豐壤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조(趙)요,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강(姜)·윤(尹)·유(劉)이다. 인물(人物)은

중추원사 한산군 충정공(中樞院使漢山君忠靖公) 조인옥(趙仁沃)이다.【본조(本朝)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 태조 묘정(太祖廟庭)에 배향되었다.】

땅이 기름지고, 간전(墾田)이 1만 5천 1백 90결(結)이다.【논이 10분의 3이 넘는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메밀·뽕나무요, 토공(土貢)은 느타리(眞茸)와 지초(芝草)이며, 토산(土産)은 송이(松茸)와 잣(松子)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부 북쪽 사천현(沙川縣) 한탄리(大灘里)에 있으니, 하품(下品)이다.】 도기소(陶器所)가 2이니, 하나는 부(府) 북쪽 소요산(消遙山) 아래에 있고,【증품이다.】 하나는 부(府) 동쪽 도혈리(陶穴里)에 있다.【하품이다.】

역(驛)이 6이니, 청파(靑坡)·노원(蘆原)·영서(迎曙)·평구(平丘)·구곡(仇谷)·쌍수(雙樹)요, 목장(牧場)이 2이니, 하나는 살고지들(箭串坪)이요,【부(府) 남쪽에 있으니, 동서가 7리요, 남북이 15리이다. 나라의 말을 놓아 먹인다.】 둘째는 녹양벌(綠楊坪)이다.【부(府) 남쪽에 있으니, 동서가 5리요, 남북이 12리이다. 중군(中軍)과 좌군(左軍)의 말을 함께 놓아 먹인다.】 봉화(烽火)가 2곳이니, 대이산(大伊山)과【부(府) 동남쪽에 있으니, 북쪽으로 포천(抱川) 잉음점(仍邑帖)에 응하고, 남쪽으로 가구산(加仇山)에 응한다.】 가구산(加仇山)이다.【부(府) 남쪽에 있으니, 북쪽으로 대이산(大伊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서울 목멱산에 응한다.】 회암사(檜巖寺)【천보산(天寶山) 아래에 있다. 불전(佛殿)과 승료(僧寮)가 수백 기둥이 되며, 승도(僧徒)들이 가리어 대가람(大迦藍)을 삼았다. 선종(禪宗)에 불이고 밭 5백 결(結)을 주었다. 절에다 서번(西蕃)의 지공 화상(指空和尚)의 부도(浮屠)를 안치(安置)하였고, 비(碑)가 있다.】 소요사(逍遙寺)【소요산(消遙山) 허리에 있다. 태종(太宗) 3년 임오에 태조(太祖)가 절 남쪽 행전(行殿)에 머물러, 여러 달을 두고 〈절의〉 온갖 그림을 새롭게 하였으며, 금상(今上) 6년 갑진에 태조(太祖)의 원당(願堂)으로 하여 교종(敎宗)에 불이고, 밭 1백 50결(結)을 주었다.】 진관사(眞觀寺)【삼각산(三角山) 서남쪽에 있다. 나라에서 수륙제(水陸祭)를 지내며, 선종(禪宗)에 불이고 밭 2백 50결(結)을 주었다.】 승가사(僧伽寺)【삼각산(三角山) 남쪽에 있다. 선종(禪宗)에 불이고 밭 1백 45결(結)을 주었다.】 중흥사(重興寺)【삼각산(三角山) 아래에 있다. 선종(禪宗)에 불이고 밭 2백 결(結)을 주었다.】

관할(所領)은 도호부(都護府)가 1이니, 원평(原平)이요, 현(縣)이 6이니, 고양(高陽)·교하(交河)·임진(臨津)·적성(積城)·포천(抱川)·가평(加平)이다.

3. 사천현

세종 2년 2월 21일(기미)

변계량, 홍섭(洪涉) 및 봉녕 부원군(奉寧府院君) 덕근(德根), 익평 부원군(益平府院君) 석근(石根), 길창 부원군(吉昌府院君) 권광(權尙),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 판한성 치사(判漢城致仕) 안의(安義), 지병조사 곽존중(郭存中)이 와서 문안하였다. 저녁에 사천현(沙川縣) 풍천(楓川)에 머물렀다. 상왕이 명령하기를,

“지금부터 부원군 이하는 교지를 얻은 뒤에야 풍양 이궁에 와서 문안할 수 있다.”하였다.

4. 어유소

1) 세조 2년 3월 26일(을미) / 새로 급제한 문과 임원준·무과 어유소 등에게 은영연을 내리다.

새로 급제(及第)한 문과(文科) 임원준(任元濬), 무과(武科) 어유소(魚有沼) 등에게 의정부에서 은영연(恩榮宴)을 내려 주고,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좌승지 구치관(具致寬)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져다 내려 주게 하였다.

2) 세조 8년 8월 29일(신묘) / 사정전에서 2품 이상을 불러 주연을 베풀고 평안도에 가는 어유소를 인견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고는 2품 이상을 불러 입시(入侍)하게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첨지중추원사 어유소(魚有沼) 등이 평안도에 부방(赴防)하므로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어유소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였다.

3) 세조 11년 6월 25일(신축) / 함길도 도절제사 허종이 회령 절제사 어유소의 보고에 의거해 아뢰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허종(許琮)이 아뢰기를,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 어유소(魚有沼)가 보고하기를, ‘알타리(幹朶里) 이가홍(李家紅)의 일족 가룽개(加弄介) 등 남녀 29인이 다시 오음회(吾音會)의 땅에 살고자 하여 니마거(尼麻車)로부터 도망하여 이가홍의 집에 이르렀다 하니, 만약 니마거(尼麻車) 근심(根尋)이 오면 어떻게 응해야 합니까?’ 하기에, 신은 저번에 내린 유서(諭書)에 따라 대답하기를, ‘알타리가 우리에게 귀부(歸付)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만약 그 형세가 궁(窮)하면 들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짐작(斟酌)하여 잘 처리하고, 올적합(兀狄哈)이 혼단(黷端)을 내지 말게 하며, 또한 알타리(幹朶里)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제3절 「추강집(秋江集)」

기사명 逍遙山。經元曉舊居。削木題詩。

대체제목 詩 五言古詩。秋江先生文集卷之二

저자 남효온(南孝溫)

내용 兮昔新羅代。高僧元曉居。青山元不俗。雨後靑更舒。茫茫千萬古。代序一談餘。神通不生滅。法象應如初。栢渡向何處。如聞響木魚。

해석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 원효가 살았다지
청산은 본래 속됨이 없는데
비 맞고 나니 더욱 푸르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는 전설만 남았네
깨달음에는 생멸(生滅)이 없고
진리는 근본(根本)에 머무네
배도화상이여 어디로 가셨는가?
한자락 목어(木魚) 소릴세

제4절 「울곡전서(栗谷全書)」

기사명 與牛溪共尋逍遙山

대체제목 詩/栗谷先生全書拾遺卷之一

저자 이이(李珥)

내용 草谷山溪雨壞橋。不知何處向逍遙。相逢似是曾相識。引入煙蘿共月宵。

해석 비 내린 계곡에 다리조차 무너져

소요산길 못 찾고 헤매었었지

마치 옛 벗처럼 나를 반기며

안개 낀 숲에서 달 보자 하네

제5절 「졸옹집(拙翁集)」

기사명 贈松都人安慶昌昌以周遊四方。逍遙山水爲事者。

대체제목 詩。七言絕句/拙翁集卷之四

저자 홍성민(洪聖民)

내용 天地中間身可放。海山隨處杖頻移。東西南北元無礙。來去飄飄不自知。

해석 천지의 어느 곳인들 몸 둘 곳 없으랴
산 찾아 물따라 어지간이 떠다녔네
동서남북 어디나 막힌 곳 없으니
바람처럼 흐르는 일 나도 몰라라

제6절 「창랑집(滄浪集)」

기사명 新菴寺十四歲作

대체제목 詩/滄浪先生詩集卷之一

저자 성문준(成文濬)

내용 朝發逍遙山。暮投新菴寺。石峯生晚雲。苔逕落松子。
脫衣臥虛堂。疏磬空山裏。

해석 아침에 소요산을 떠나
저녁에 신암사에서 묵네
산봉우리에는 저녁 구름 솟아오르고
이끼 낀 길에는 솔방울 흩어졌네
빈 방에 옷 벗고 누우니
풍경 소리가 빈 산에 성글다

제7절 「기언별집(記言別集)」卷之九

저자 허목(許穆)

記

逍遙山記

逍遙山。楊州治北四十里。不及大灘津二十里。爲王方西麓別山。谷口內外山下人相傳。王宮遺墟二處。荒草中有石砌數重而已。此永樂間太上行宮云。去京城百里。豐壤宮又百里。谷口有廢井石欄。入山中。山皆石。爲石巒。爲石洞。爲石燈。爲石梁。山木多松多楓多躑躅。宮墟南山。石極高峭。最上有白雲臺。少下有中白雲。又少下東北下白雲。在中臺上。宮墟上有瀑布。高八九仞。其下從陰崖。上中臺。最大剎。今皆墟矣。瀑布傍當石絕十餘仞。橫木爲梯。上元曉臺。過元曉臺有逍遙寺。逍遙壁記云。新羅僧元曉住此山。後三百年甲戌。麗僧覺圭奉太上旨。築精舍。二百年癸酉。精舍燬。明年甲戌。關東僧覺玲重作佛殿僧寮。牧庵記云。元曉當新羅太宗文武之世。曆年紀自新羅太宗。至我康獻大王甲戌。七百六十七年。又至萬曆甲戌百八十年。記曰。三百年何也。東隅觀瀑布。其上有大石。起立臨壁五六丈。巖壁間石竇。石泉涓涓。元曉井也。李奎報詩曰。循山渡危橋。疊足行線路。上有百仞巔。曉聖曾結宇。靈蹤渺何處。遺影留鵝素。茶泉貯寒玉。酌飲味如乳。此地舊無水。釋子難棲住。曉公一來寄。甘液湧巖壁。登臨巖壁。循絕壑石上。望九峯皆山石奇處。從中峯石竇。出懸庵東南。登義相臺。最高爲絕頂。其北獅子庵。從谷口過瀑布。緣崖上義相臺九千丈。十月山深谷陰。朝雨後溪石綠苔如春。楓葉不枯。四年癸卯十月己亥。孔巖眉叟記。

四年癸卯孟冬戊戌。穆與完山李晉茂 上黨韓均，吾外甥李綬，李茂卿三子遠紀，鼎紀，玄紀。宿逍遙寺。明日。同遊義相臺下。仍題名。孔巖許穆書。

元曉臺下瀑布傍石竇。又題名夕宿茂卿青草別業。明日。渡大灘津十里。至九折灘。李甥溪莊古花巖舊業。山水最佳。眉叟識。

해석

소요산기

소요산(逍遙山)은 양주읍(楊州邑) 북쪽 40리에 있으니, 대탄진(大灘津, 지금의 한탄강(漢灘江))에서 20리가 못 되고 왕방산(王方山) 서록(西麓)의 별산(別山)으로 되어 있다. 그 골짜기 입구 안팎의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왕궁의 옛 터 두 곳이 있는데 우거진 숲 속에 두어 층의 층계만이 남아 있으니, 이것은 영락(永樂, 명 성조(明成祖)의 연호) 때에 태상왕(太上王)의 행궁(行宮)이다.”라고 하였다. 서울서 1백 리인데 풍양궁(豐壤宮)도 또 1백 리이다. 골짜기 입구에는 옛날 우물의 돌난간이 있다. 산중에 들어서면 산이 모두 돌이어서 봉우리와 동굴, 장명등(長明燈)과 다리도 다 돌로 되었으며, 산의 나무는 소나무·단풍나무·철쭉나무가 많다. 궁터가 있는 남산(南山)에는 돌이 뽕족하게 솟았으니, 가장 높은 곳에 백운대(白雲臺)가 있고 조금 아래 중백운(中白雲)이 있고 또 조금 아래 동북으로 하백운(下白雲)이 중대(中臺) 위에 있다. 궁터 위에 폭포가 있는데 높이는 8, 9인(仞, 1인은 8척)이 되고, 그 밑으로 계곡을 따라 중대로 올라가면 큰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빈터만 남았다. 폭포 옆 높이가 10여 인이나 되는 절벽에 비스듬히 걸쳐 있는 나무사다리를 올라가면 원효대(元曉臺)이고 원효대를 지나면 소요사(逍遙寺)가 있다. 소요사 벽기(壁記)에,

“신라의 중 원효가 이 산에 머물러 있었고, 그 뒤 3백 년 갑술년에 고려(高麗)의 승려 각규(覺圭)가 태상왕(太上王)의 명을 받들어 정사(精舍)를 지었고, 그 뒤 2백 년 계유년에 이 정사가 불에 탔고 그 이듬해 갑술년에 관동(關東)의 승려 각령(覺玲)이 불전(佛殿)과 법당을 중건했다.”

라고 하였는데, 목암(牧庵)의 기(記)에는,

“원효는 신라의 태종(太宗)과 문무(文武) 때의 승려이니, 그 연대를 따져보면 신라의 태종 때부터 우리 강헌대왕(康獻大王) 갑술년까지는 767년이 되고, 또 만력(萬曆) 갑술년까지는 180년이나 되는데, 벽기에 ‘3백 년’이라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하였다. 동쪽 모퉁이에서 폭포 구경을 하는데, 그 위에 5, 6장이나 되는 큰 돌이 절벽 위에 서 있다. 암벽 사이의 돌구멍에서는 샘물이 졸졸 흐르는데 이것이 원효정(元曉井)이다.

이규보(李奎報)는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었다.

산 따라 위험한 다리 건너 / 循山渡危橋
 발을 포개며 좁은 길 걷네 / 疊足行線路
 백 길이나 높은 산마루에 / 上有百仞巔
 원효가 일찍이 절을 지었네 / 曉聖曾結宇
 신령한 자취는 사라지고 / 靈蹤渺何處
 초상만이 흰 비단폭에 남았구나 / 遺影留鵝素
 차 끓이던 샘에 찬물이 고여 / 茶泉貯寒玉
 마셔보니 젓같이 맛있네 / 酌飲味如乳
 이곳에 예전에 물이 없었기에 / 此地舊無水
 중들이 머물러 살 수 없었는데 / 釋子難棲住
 원효가 와서 거처하매 / 曉公一來寄
 단물이 돌구멍에서 솟았네 / 甘液湧晷竇

암벽을 오르고 깊고 험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구봉(九峯)을 바라보니, 산의 돌이 모두 기이하게 생겼다. 중봉(中峯)의 바위굴을 지나 현암(懸庵)의 동남쪽으로 나와서 의상대(義相臺)에 오르니, 여기가 최고의 정상이요, 그 북쪽은 사자암(獅子庵)이다. 골짜기 입구에서 폭포를 지나 층벽을 따라 의상대에 오르기까지 높이가 9천 장(丈)이다. 10월이어서 산은 깊고 골짜기는 음산한데, 아침 비가 지나간 뒤에 시냇가 돌에 낀 푸른 이끼는 봄철같고, 단풍잎은 마르지 않았다.

4년 계묘 10월 기해에 공암 미수는 기(記)한다.

4년 계묘 맹동(孟冬) 무술에 목(穆)은 완산(完山) 이진무(李晉茂), 상당(上黨) 한균오(韓均吾), 외생(外甥) 이구(李綏)와 이무경(李茂卿)의 세 아들 원기(遠紀)·정기(鼎紀)·현기(玄紀)와 함께 소요사에서 자고, 그 이튿날 같이 의상대 아래서 논 뒤에 제명(題名, 명승지(名勝地)에 등람(登覽)한 날짜와 등람자의 이름을 적는 것)하였다.

공암 허목은 쓴다.

원효대 아래 폭포 옆 바위굴에 또 제명하고, 저녁에 무경(茂卿)의 청초별업(靑草別業)에서 잤다. 그 이튿날 대탄진(大灘津)을 건너 10리를 가서 구절탄(九折灘)에 있는 이생(李甥)의 계장(溪莊)에 당도하니, 옛날 화암(花巖 최유원(崔有源))의 별업으로 산수가 가장 아름다웠다.

미수는 기록한다.



제8절 「중암선생문집(重庵先生文集)」 卷之二

기사명 逍遙山白雲庵會講。次尤翁韻。

대체제목

저자 김평묵(金平默)

내용 興國風流更欲追。白雲深處歲寒時。溪山蕭灑猶堪聚。庠序荒涼誰解悲。莫守門庭甘斲甕。相看容髮愛華滋。壯心不逐年光謝。拄杖行歌抑戒辭。

해석 흥성하던 옛 시절의 풍류를 다시 좇고자

이 추운 계절 백운암에 모였네
산과 계곡의 경치는 더욱 맑은데
황폐해진 도의는 누가 세울꼬
문에 들어서는 이들을 막지 말게나
마주보는 얼굴들 꽃 핀 듯하이
깊이 품은 장한 마음 세월이라 막을손가
노래 한 자락에 깊은 뜻을 실었나니

제9절 「기봉집(騏峯集)」 卷之一

기사명 次黃子涵逍遙山卜居韻

저자 이시성(李時省)

내용 紅樹玲瓏碧藕殘。九霄風露一簾寒。閒居謝絕人間事。乾寶秋山對酒看。

해석 황자함의 소요산 시를 차운하여

푸른 빛 남았어도 단풍숲은 영롱한데
하늘 가득 내리는 이슬 주렴 밖에 차구나
인간사 모두 잊고 숨어서 사노라니
가을 산은 내게 술을 권하네

제10절 「용헌집(容軒集)」

기사명 在普興寺。聞天使入京。

대체제목 詩/容軒先生文集卷之二

저자 이원(李原)

내용 逍遙山下鑾輿駐。興義門前玉節臨。此日一身兼兩道。斜陽回首摠關心。

해석 보흥사에서 중국 사신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요산 아래에 수레를 멈추고

의흥문 앞에 옥절이 머문다

오늘은 비록 멀리 떠나왔어도

마음은 비긴 노을 저편에 있네

제11절 「편양당집(鞭羊堂集)」

저자 언기(彦機)

遊逍遙山

晩陟逍遙洞 奇觀自異同 地偏天若少 川遠曲迷重
亂竹岩前徑 輕霞霽後峰 高吟徒遣興 揮筆句難工

해석 소요산을 찾아

느린 걸음으로 소요동에 오르니
참으로 멋진 경관이로세
땅은 치우치고 하늘은 좁아도
냇물은 길게 굽이치며 흐르네
대나무 우거진 바위 사이 길
산봉우리는 안개에 싸였는데
흥에 겨워 큰 소리로 노래 불러도
이 마음 어디에나 새길 길 없네

제12절 「윤치호 일기(尹致昊日記)」 9卷

1928년

OCTOBER

1st. Monday. Pretty. Warm.

Seoul home. 京師附屬男女學校大運動. Whole day on the 訓練院運動場.

Dinner at Mr. 申興雨's home to meet Bishop and Mrs. Baker, the new Bishop for the Northern M.E. Mission in Korea. Were present besides them 宋鎮愚, 申錫雨, 具滋玉, 金活蘭, 金鍾雨, Barnhart and his wife.

2nd. Tuesday. Pretty. Warm.

To Song Do per 9:15 morning train. Returned to Seoul per 7 p.m. train.

3rd. Wednesday. Pretty. Pleasant.

Seoul home. Received a fat volume on the Proposed Plan for a Larger Seoul. I am supposed to be one of the Committee. But what interest can I or any other Korean have in such a plan? If the present rate of Japanization of Seoul proceed without any unforeseen hindrance, there will be no Korean resident or merchant living in the central and business sections of the city 15 years hence. Since the Governor General's office or 總督府 came to the new building in 景福宮 two years ago, the Japanese officials and private citizens have been feverish in

Japanizing the district surrounding the old North Palace. The streets have been macadamized, the carlines have been double tracted, new Japanese houses

〈9권 175〉

have been built with a rush. In less than five years the north section of the city surrounding the new 總督府 will be as fully Japanized as the districts surrounding the former Japanese Legation. I or any other Korean can have no more interest in the Seoul to be than in the improvements or enlargement of New York or Chicago.

4th. Thursday. Beautiful. Very warm.
Seoul home.

5th. Friday. Cloudy. Pleasant.
Seoul home.

6th. Saturday. Cloud and sun. Pleasant.
Left Seoul 4:30 p.m. train for Song Do with 璋善 and 琦善.

7th. Sunday. Pretty. Cool.
Song Do home. Children seem to enjoy the beautiful surroundings without knowing why. Pretty and clear weather after the storm of rain and hail, in the early hours of the day.

Called on 劉元杓氏(蜜啞子). This bright and interesting talker is getting aged beyond recovery. His eyes are dim and is hardly able to walk.

8th. Monday. Cloud and sun. Cool.
Seoul home.

9th, Tuesday, Cloud and sun, Cool,
Seoul home,

10th, Wednesday, Pretty, Pleasant,

〈9권 176〉

Seoul home,

11th, Thursday, Beautiful, Pleasant,
Seoul home,

12th, Friday, Beautiful, Pleasant,
Seoul home,

13th, Saturday, Pretty, Pleasant,
Seoul home,

14th, Sunday, Bright, Pleasant,
Seoul home,

15th, Monday, Rain 7~9 a.m, Pleasant,
Seoul home,

16th, Tuesday, Pretty, Pleasant,
Seoul home, 文姬 left Seoul 7:30 a.m, for Japan with the 第一女子高普
旅行團,

17th, Wednesday, Pretty, Pleasant,
Seoul home,

18th, Thursday, Beautiful, Pleasant,

Seoul home.

19th, Friday. Beautiful, Pleasant.

Seoul home.

20th, Saturday. Beautiful, Pleasant.

Seoul home.

21st, Sunday. Beautiful, Pleasant.

Seoul home.

22nd, Monday. Beautiful, Pleasant.

Seoul home.

〈9권 177〉

23rd, Tuesday. Beautiful, Pleasant.

Seoul home. To 逍遙山 with cousins 致昭 and 趙寔. The walk from the 東豆川 Station to the Temple would have been pleasant but for the fact that I had a very poor sleep last night. 明姬 and her schoolmates seemed to enjoy the outing. The hills in the vicinity of the temple beautiful with the Autumn colors of the season. But the temple and the monks and hired men who served the table look all so dirty and stupid—I didn't like the place at all. Returned by 3:45 p.m. train thoroughly tired.

제13절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

1. 「개벽」 제5호

발행 연월일 1920년 11월 01일

기사제목 “淸秋의 逍遙山”

필자 朴春坡 박춘파

기사형태 기행문

淸秋 逍遙山 (청추의 소요산)

朴春坡

가을! 가을!! 맑은 가을!! 달 밝고 바람 찬 가을! 기력이 울고蟋蟀 노래하는 가을! 구름이 희고 입히 누른 가을 모도가 결실 아니면 黃落되는 가을! 아~과연 산아이의 가을이다. 劒이 잇스면 한 번 어루만질만 하고 말이 잇스면 한 번 달릴만 하다. 燈을 親하야 書를 讀함도 가을 산아이의 일거리며 琴을 把하야 月을 弄함도 가을 산아이의 할 만한 일이겠다. 그러나 가을이거든 아니 산아이거든 들로 가거라. 산으로 가거라. 바다로 가거라. 그리하야 氣껏 고함치며 힘껏 발 굴러라. 장부의 쾌사는 그에서 비릇오 맛볼 것이다 함은 이 나의 주장이다. 가을의 들. 가을의 바다. 가을의 산. 어대로 갈 것인가? 모도가 사랑하는 단풍을 팔아서 모도가 떠드는 逍遙山을 갈 맛게 업겠다.

여행에 어찌 동무가 업슬가 보냐. 적어도 2,3인의 携手者는 잇서야 될 것이다. 산행에 어찌 持品이 업슬가 보냐. 못하야도 短杖 하나는 들어야 된다. 때마침 동무 잇스니 <115> 同德學校 직원일동이며 학생 全般이다. 天高하고 氣爽한 10월 13일의 微明을 期하야 간단한 행장으로 南門驛에 이르니 預備性 만흔 趙 선생은 직원 이하 90명 天真兒를 領率하야 車中을 점령하엿 섰다. 晩到의 禮를 표하고 미안한 낮으로 고개도 못들고 한쪽 의자에 외로히 안즈니 인정 만흔 선생님들은 「無關係」「同席樂」을 連하야 말하며 손목을 끌어 天真國으로 인도해 준다. 모든 학생은 수집은 이내로 더욱 수집게 눈으로 입으로 別樣의 風을 보내군 한다. 車가 구은다. 속도를 가한다. 龍山을 지나 西氷庫를 지난다.

아-반가워라. 扶桑紅日이 南漢山 꼭대기로 身數조케 비죽이 올라오며 「여러분 밤사이 어떠하십니까?」하고 인사를 엿쭈는다. 밤새도록 잠 못자고 여행준비에 시달렸던 天真의 손님들은 태양의 光으로써 새 세례를 바드며 半笑의 顔에 桃花色을 帶하얏다. 黃霧가 沈沈하야 遠山은 보일락 말락 한데 水道局은 黑烟 기차의 연기와 勢를 합하야 晴空을 정복하기에 매우 분주한 모양이다. 두무개 절의 曉鐘은 인간의 깊은 잠을 다시금 불러 깨우는데 이집 저집으로서 물동이 낀 婦女 흐미낫 든 남자-하나들 식 보이기 시작한다. 아-어느덧 漢江 일대는 琉璃世界이다. 水晶席을 펴노흔 듯 하다.

아- 강의 朝日! 朝日의 강?! 月夜의 강. 강 上의 月과 그-好否-如何할가? 아마도 강의 朝日은 새 것이며 강의 夜月은 옛 것이다. 하나는 산아이 것이며 하나는 계집의 것이다. 이러한 淸秋의 이러한 아침 漢江의 대자연에 누가 상괘치 안하랴. 아니 조흐란들 어찌할 거냐. 불기짝이 자연 들먹어리며 노래가 스스로 나온다.

아-무정하다. 어느덧 그 세계와는 작별이 된다. 아-외롭도다. 이 것이 찰나의 美가 아니냐? 아니다. 有情이오 또 영원이다. 그 세계의 代에 이 세계가 잇고 그 美의 代에 이 美가 나타난다. 漢江의 紅日보다 淸涼山 樹林이 오히려 가상하고 자연의 방종보다 인정의 相交가 더욱 반갑다. 徐선생의 정으로 주는 붉은 감을 바다들며 趙선생의 진심으로 솟아 오르는 교육담을 들을 때에 나의 몸이 얼마나 조hat슬가. 朴선생은 이곳저곳을 들어 학생에게 소개하며 全선생은 三角山을 쳐다보며 빙긋이 웃는다.

議政府를 지나 德亭을 지나 東豆川에서 하차하니 때는 8시 50분이다. 紅日을 가슴에 안고 朝露를 툇툇 차면서 驛頭를 지나 市中을 一覽하고 京元線 新

작로에 步를 放하니 光風에 나비 날 듯 스택춤이 절로 난다. 벼 비는 농부에게
근로의 功을 謝하며 목화 따는 村婦에게 <116> 溫袍의 德을 頌하면서 趙氏와
더불어 전원의 美를 서로 그릴 때 나의 몸은 어느덧 전원화가 되고 말았다. 東
豆川邊의 釣翁도 되어 보고 逍遙山 中の 樵夫도 되어 보았다. 村家의 마당에
禾黍가 滿腸함을 보고 伊淡原의 黃草가 추풍에 偃仰함을 볼 때 자유의 낙원이
이곳임을 다시금 늑갸섰다. 5리 신작로를 直破하여 淸川이 橫流하는 곳에서 거
름을 꺾어 돌리니 이게 곳 逍遙山의 입구이다. 바위를 차며 물을 건느며 步一
步 들어 四圍의 景色이 眞可畫別境界다. 山履山頂이 모도 다 단풍인데 靑松蒼
栢이 간간이 圈을 點하여 滿山紅綠이 畫屏을 들은 듯 하다. 기암은 倒하여 낙하
하는 듯 하며 괴석은 兀하여 天을 挿한 듯 하다. 白石蒼苔에 山鼠의 舞도 眞是
자유의 낙이며 淸川石溪에 小魚의 遊泳도 역시 可觀의 景이다. 杖을 擲하고 石
逕에 坐하니 鳥歌水聲은 逍遙의 搔擾이며 點點紅圈圈綠은 逍遙의 秋景이다.
趙는 취한 듯 余는 어린 듯 口로 능히 成言을 못하고 다만 指로 形하여 嘆*뽀한
지. 良久에 다시 步를 轉하여 逶迤히 들어가니 愈出愈奇며 益加淸勝이라. <117
> 세인이 逍遙를 칭하여 小金剛이라 함은 과연 허언이 아니다. 遙히 石臺가 우
뚝히 솟은 곳에 7,80명 처녀(先行한 同德 학생)가 團聚而談樂함은 瑤臺의 仙
娥가 분명하다. 步를 從하여 층층한 石逕을 越하여 登하니 이게 곳 逍遙山의 名
勝인 元曉臺이다. 좌우가 모다 百尺斷崖이며 압히 또 千丈深淵인데 飛流噴犀
斷崖에 倒下함은 恰然히 仙娥가 白布로써 岸을 尺하는 듯하다. 銀珠를 慣하는
듯 玉屑을 散하는 듯 細霞가 起逍하는데 松은 俯하여 賀하며 楓은 仰하여 頌한
다. 飄然한 臺上에 우연히 佇立하여 元曉大師의 往事를 그윽히 늑기는 우리의
일행은 선생의 道通을 다시금 말하게 된다.

元曉臺는 元曉大師의 道通處다. 大師-일즉 果川三幕寺에서 知友되는 義湘
法師, 尹筆居士로 더불어 도를 修하다가 후에 逍遙山의 이곳으로 道장을 更
設하였다. 大師-그윽히 誓願하되 백일 기도면 觀音의 眞像만을 可見약하리라.
백일 기원에 觀音의 眞像을 못보게 되면 萬里萬事-모다 허위라. 我-苟苟히 살
지 아니 하리라. 반듯이 千崖 절벽에 낙하하여 혼도 肉도 永滅이 되고 已하리라
하였다. 誓願대로 大師-日로 日에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致할 세 백일이 다
되도록 별로 영험이 업는지라 觀音菩薩은 影子부터 不露하는지라. 自嘆의 極에
落望이 되어 만사-허위임을 痛說하고 결연히 起하여 斷然히 岸頭에 立하니
身은 이미 공중에 낙하하는 正其時 不知不識의 중에 신이 扶하며 佛이 護하여

觀音의 眞像이 완전히 現露되며 「元曉元曉여 何其太急고」하는 지라, 大師-문득 覺하니 身은 臺上에 의연히 섰는데 心神이 통쾌하여 만사천리를 通見하겠는 지라 이에 觀音에게 合掌禮를 모하고 臺에 下하여 사원을 建하며 徒弟를 聚하니 遠近의 승려-구름 모히듯 大師의 文에 進하얏더라.

元曉大師의 修道談은 此에서 止하고 다시 臺를 下하여 溪를 渡하여 또 石逕을 越하니 四圍石壁이 鐵筒然한데 寺中 妙寺 自在菴이 目前에 보인다. 一步에 直入하여 寺內를 一覽하고 元曉窟에 入하여 元曉藥水를 먹어보고 다시 元曉폭포에 眼光이 眩煌하얏다. 소년소녀의 中에 끼어서 楓을 折하며 石을 轉하며 하여 이윽히 玩賞타가 어떤 和尚의 소개로 寺飯山菜에 배를 불리고 석양을 待하여 步를 向하니 逍遙洞天이 모다 우리의 洞天갓다.

逍遙山은 元曉의 산이며 自在菴도 元曉의 菴이다. 窟도 元曉窟 瀑도 元曉瀑이다. 楓과 松 岩과 石이 모다 元曉인 듯 하다. 아-거룩한 元曉시어 우리 일행은 元曉化가 아니 되었슬른지? <118>

<115-118>

2. 「동광」 제38호

발행 연월일 1932년 10월 01일

기사제목 “가을의 誘惑, 가을이면 내가 가는 숨은 명소는 어디어디”

필자 최독건, 이종명

기사형태 문예기타

“가을의 誘惑, 가을이면 내가 가는 숨은 명소는 어디어디”

1) 「산이 그리워」

崔獨鵬

問東答西

아침 잠이 많것마는 오늘은 유난히 일찍 이러나서 세수를 하랴으로 대아물에 손을 잠근 나는 새삼스러히 가을을 느끼었습니다. 대아물 속으로 솟아오르는 가을, 손끝에 부딪치는 가을!(이날 바로 나는 東光社로부터 이 숙제를 받았습니 다)

가을이 되면 산이 그리워집니다. 여름철에는 躍動, 奔放의 바다에 유혹을 받는다 면 가을에는 정적, 준엄한 산을 연모하게 됩니다.

아득히 바라보이는 수평선 우으로 발밑에 굴슬거리는 滄浪 속으로 몸과 마음을 아울러 내던지고 싶은 해방의 충동을 주는 것이 바다이라면 단풍에 물 峽谿를 거슬러 다름질 치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나무 끝에 자자드는 황혼을 굽어 보며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불상처럼 앉아서 사색의 충동을 <50> 산으로 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름에 받는 바다의 유혹보다도 가을에 느끼는 산의 戀慕가 좀 더 심각합니다.

이러케 산을 그리워 하기는 하면서도 「東光」이 묻는 데에 신통한 대답거리를 가지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벌써 10여 년 동안 주거를 京城에 두고 잇는 나는 해마다 단풍소식을 따라 逍遙山을 찾어갑니다. 내가 처음으로 찾 을 그때에만 해도 逍遙山은 어느 정도까지 숨은 명소의 感이 깊더니 요즘처럼 단풍시절이 되면 逍遙山行 임시열차를 發하느니 假停車場을 設施하느니 「장사 치」의 눈이 붉게 타게 되어서는 마치 昌慶苑의 벚꽃, 아니 그보다도 시골처녀가 분을 바르고 遊廓으로 팔려오는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그러치 았었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 았고 서울 시민의 질탕관처럼 끝는 뇌를 하로 세척할 곳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규모는 적을 망정 폭포가 잇고 峽谿이 잇고 楓林이 可以 정차할만하고 尼僧의 염불소리 고요히 들리고...

逍遙山 보다도 더 가까운 곳으로써 서울 시민을 부르는 彰義門 밖 洗劍亭 일대의 秋色은 擲할 만합니다. 감(柿)이 붉은 彰義門 밖, 水石이 맑은 洗劍亭,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은 넘어 많어서 여기에 모다 적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하나만 적을 것은 俗漢들의 발에 좀더 짓밟히기 전에 소위 교통이 좀더 편해지

기 전에 가을의 金剛山을 샅샅히 뒤져보고 싶은 것이외다.

2) 「逍遙山の 단풍」

李鍾鳴

소생은 아직 널리 여행을 해보지는 못 했고 또 그러한 자연에 대하여는 대단히 둔감하여 무슨 숨은 명소라든지 또는 그 風光을 말할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구타여 소생이 질기는 곳을 말하라 하시면 소생은 逍遙山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 해 전에 신문에서 무슨 小金剛이니 무엇이니 하고 선전을 해 놓았으니까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간 소규모이나마 그 아담한 맛이 마음을 이끕니다.奇石이 있고 폭포가 있고 단풍이 있고 암자가 있고—그야말로 金剛山の 모형을 떠 뉘것 같아서 가난한 서울의 양복쟁이들의 하로의 享樂地로는 가장 좋은 곳 같습니다.

그러나 이 逍遙山이나마 어디 내가 놀러 가 본 것은 아닙니다. 집안일로 가을이면 抱川 방면을 한번씩 가게 되니까 자연히 그 驛路에 지나치게 된 것이지요.

3. 「별건곤」 제33호

발행 연월일 1930년 10월 01일

기사제목 “朝鮮各地 丹楓名所 巡禮記(조선각지 단풍명소 순례기)”

필자 壽春山人(청춘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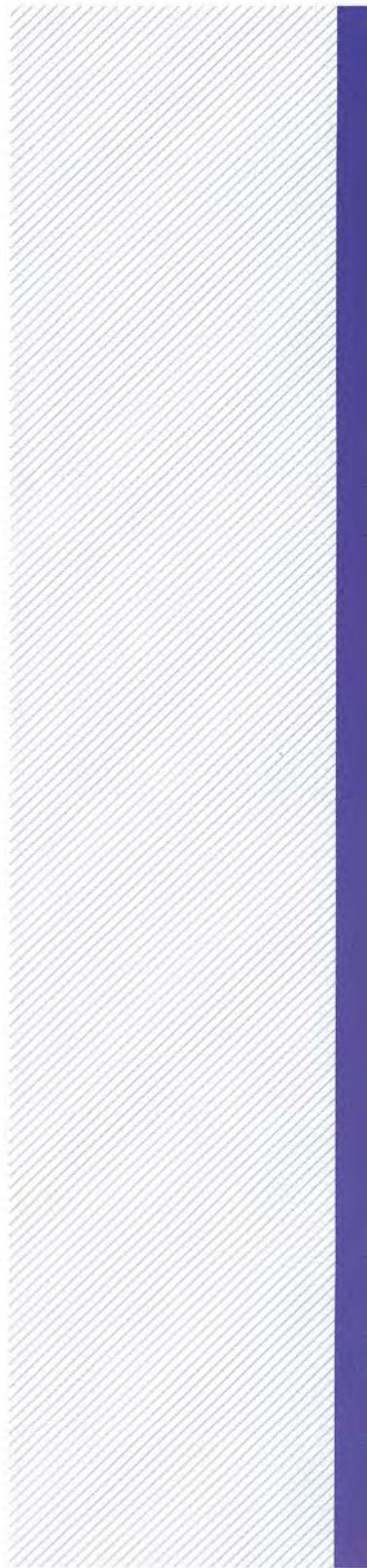
기사형태 기행문

「逍遙山丹楓」

京元線 東豆川驛에서下車하여 東北으로 約7里(朝鮮舊里)-가령을 걸어가면 近畿의<94> 小金剛이라稱하는 清楚秀麗한 山이 있스니 이것은 서울의 普通學校學生들도 春秋의 遠足を 흔히 가는 逍遙山이다. 이 山에는 옛날 新羅의 名僧 元曉法師가 棲息하던 逍遙寺란 절이 있섯기 때문에 因하여 이름한 것이니 그 절은 元曉法師와 가터 벌서 그 자취가 살어저 업서진지 오랫동안 그 이름만은 아즉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水石도 絶佳하거니와 가을에는 특이 단풍이 좇기로 이름난 곳이다. 옛날에는 所謂 春南漢, 秋北漢으로 北漢의 丹楓이 近畿에서 惟一한 膾炙을 바닷지만은 京元線이 開通되며부터 이 處女地인 逍遙山이 차차 世上에 알려지게 되며 저- 500年來 獨勢道하던 北漢도 이 山에 對하여 一頭를 讓하지 안이치 못하게 되었다. 山中에는 水石風光이다. 絶好한 自在菴白雲菴이란 두 庵子가 있스나 一夜或一時 休憩하기에 便利하려니와 自在菴의 近側에는 絶崖石壁에서 높히 約20尺가량 되는 飛瀑이 쏘다져 나려오고 그 瀑布의 沼沔에는 約2,30人이 안질만한 巨石盤石이 있스니 이 盤石에 跨坐하여 압뒤에는 무르 녹은 千紅萬紫의 紅葉를 구경하며 仰하야는 萬里長天에서 落下하는 銀河와 가튼 瀑布를 바라보면 참으로 奇絶壯快함을 늦기지 안이치 못할 것이다. 단풍은 이 瀑布로 하야 더욱 生色이 나고 瀑布는 또 丹楓으로 異彩를 더 하게 되니 이것은 可謂 이 山의 雙絶이라 안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盤石에는 예로부터 傳해오는 자미스러운 傳說이 있스니 觀楓客의 한 閒談거리로 잠간 紹介하라한다.

옛날옛적 新羅時代였다. 逍遙山에는 얼굴도 어엽부고 性行도 암전하며 佛經공부조차 잘하는 한 어린 僧이 있섯는데 하루 아침에는 불공을 드리려고 이 瀑布떠러지는 消로 물을 뜨러 갔더니 약가까지 고요하던 水面이 별안간에 물이 용소슴치며 물속으로부터 집뎀이만하게 크다란 미역이 한마리가 龍의 줄가튼 긴 수염을 뺏지르고 水面에 나타나서 몸을 꿈틀거리며 공중으로 올라가려 하더니 별안간에 입으로 靑氣를 吐하며 달여드려 이 어린중의 머리를 꼭 물으니 이 어린중은 잠간 새에 그 미역이의 뱃속으로 드러가고 마렸다. 그 때에 空中에는 별안간 黑雲이 몰여 들고 번개불이 번적번적하며 雷聲벽력을 하더니 난 데업는 큰<95> 부처가 나와서 이 큰 바위를 번적 들고 空中을 向하야 미역이를 힘껏 늘러치니 미역이는 그만 바우에 마저서 땅우으로 떠러지며 몸둥이가 四

分五裂이 되어 죽고 그 뱃속에 드러든 어린중은 그만 박그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어린중은 벌써 生命 끈어져서 가엾게도 죽었슴으로 그의 스승과 洞里사람들은 그것을 불상하고 가엾게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며 장사를 잘 지내주고 밤마다 念佛을 하고 祝願하였다 한다. 그때에 부처가티 던지던 바위는 곳 지금에 잇는 그 盤石인데 全面이 瀑布의 굵센 물결에 씨치여서 익기 한 點업시 깨긋하게 되고 그 바위굴 속에는 只今에도 尺餘되는 數尾의 미역이가 잇는데 그 엽헤 물을 뜨러가는 사람을 보와도 조금도 겁을 내지 안코 그대로 잇스나 그곳의 僧侶와 村民들은 이 미역이를 사람 잡아먹는 惡한 미역이의 子孫이라고 하여 잡아먹도 안코 그대로 두는 까닭에 그 傳說의 主人公인 미역이의 子孫은 代代로 生命을 잘 保存하여 잇다.



제14절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卷之十

저자 김시습

1. 詩.遊關東錄

行宮址

煙埋野草草埋墟。曾是先王駐彩輿。龍去鼎湖雲已變。紫藤枯樹謾相拏。
梅月堂詩集卷之十

잡초 우거진 빈터에 안개가 가득한데
일찍이 이곳은 임금님이 머무셨던 곳
임금은 떠나가고 세월이 흘러
넝쿨만 나무 등걸에 얹힐 대로 얹혔네

2. 詩.遊關東錄

逍遙寺

路入寒溪洞。千峯落照明。四山皆峯嶽。一澗正清冷。殿有金銀像。僧多雲水情。上
王曾駐輦。徑廢少人行。
梅月堂詩集卷之十

길이 찬 계곡으로 들고

봉우리들은 노을에 물들었네
 둘러선 산은 높고 높은데
 계곡물이 차고 맑구나
 절집엔 부처 있어도 중들은 모두 절을 떠났네
 옛 임금 계시던 곳이언만
 길이 끊어져 찾는 이 없네

3. 詩.遊關東錄

門前飛瀑

一道寒泉落遠峯。對門常噴玉玲瓏。龍駕不回雲寂寞。水聲牽恨和疏鐘。
 梅月堂詩集卷之十

한 줄기 찬 물줄기가 산봉우리에서 떨어져
 영롱한 옥빛으로 문 앞에 부딪히더라
 임금의 수레는 가고 없는 채 구름만 적막하거니
 물소리만 쓸쓸히 종소리에 섞이네

4. 詩.遊關東錄

大田途中

日暮人稀飢鶻鳴。途中秋思正崢嶸。何當一上逍遙頂。快得逍遙不世情
 梅月堂詩集卷之十

대전리 가는길에

날 저무는 빈 들에 송골매는 길게 울고
 가파른 시골길에 가을이 깊었구나
 언제쯤이나 저 소요산에 올라서
 세상사 모두 잊고 소요해볼까

5. 詩。遊關東錄

渡大灘

渡口波清淺。臨流可數魚。江山初霽後。風月九秋餘。葦岸漁舟穩。山城古木疏。前程何處是。桑柘暗村墟。

물 맑은 나루를 건너려니
해엄치는 물고기를 헤일 듯하다
먼 산은 환히 개어가는데
단풍든 가을빛은 아직 남았네
갈대 언덕에 고깃배 뜨니
옛 성터에는 고목이 성글다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되나
텅 빈 마을 뽕나무에 노을이 진다

제15절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卷之二十七

저자 장유(張維)

逍遙寺

靑山上琬琰。碧殿煥金銀。忽覺塵喧隔。因瞻像設新。亂峯當戶闌。飛瀑洒衣巾。岐路長形役。從今結勝因。

소요사

푸른 산은 구슬인 양 영롱하고
 절집은 금, 은으로 아로새겼네
 문득 속세를 떠났음이 새삼스럽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더욱 새롭네
 봉우리들 위태롭게 둘러섰는데
 떨어지는 폭포물에 옷 다 젖는다
 갈림길은 아득히 뻗어 있는데
 어찌하면 좋은 인연 맺어 갈거나

제16절 일제시대 독립군 체포 보고

1. 七.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一) 一月, 京畿道

暴徒의 件 報告

기사제목 暴徒의 件 報告

발송자 開城警察署長 警部 楠本茂作

수신자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발송일 隆熙 三年(明治 四二) 一月

開城警察署長

警部 楠本茂作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의 件 報告 本日 漣川駐在所
巡查로부터의 報告에 依하면

一, 本月 四日 抱川守備隊를 襲擊한 暴徒 約四百名은 七日 午前三時頃 楊州
郡 東豆川 中山里 憲兵分遣所를 襲擊하여 一時間餘 戰鬪끝에 同所 憲兵中 補
助員 四名은 楊州邑內로 避難하고 憲兵 四名 及 補助員 若干名은 同日 午後五
時까지는 行方不明이었다고 한다.

一, 本月 七日 午前十一時 金化守備隊에서 派遣한 特務曹長 以下 十六名
討伐隊 永平郡邑 北方 一里의 곳에서 約五十名の 暴徒와 마주쳐 交戰 約一時

間後 漣川郡 官仁面 上下里 方向으로 退却시켰다. 그리고 此戰鬪에서 賊 一名을 殲하였다.

一. 本月 七日 以來 漣川郡 憲兵分遣所 及 駐在所를 襲擊하였다는 報告가 頻繁하여 邑內民中 避難準備中의 者가 있다. 憲兵 警察은 共同警戒中
右 報告함

2. 문서제목 (172) 情報 [暴徒首領 金演性 · 鄭容大 楊州郡에 告示文配布 件](京畿道)

문서번호 憲機第五六一號

발송일 明治四十二年三月十五日 (1909-03-15)

(172)情報 [暴徒首領 金演性 · 鄭容大 楊州郡 告示文配布 件] (京畿道)
憲機第五六一號

暴徒首領 金演性, 鄭容大

右兩名ノ名ヲ以テ二三日前楊州郡伊淡面, 於等山面, 泉川面, 古州內面ノ四面
ニ大要左ノ如キ告示ヲ發シタリト

近來我々カ日本軍隊ト屢々交戰シ爲メニ彈藥缺乏シ且ツ又軍資金費消セリ
故ニ各面長ハ每戶ヨリ金參拾錢ヲ徵收シ來ル二十日迄我義軍ニ持來ル可シ若
シ違反スル者アラハ軍法ニ依リ處分ス云々

以上

明治四十二年三月十五日

3. 四. 隆熙 二年(1908 · 明治 四一)

(二) 四月, 京畿道

京城憲兵分隊長 藥師川 少佐 報告 柵山里憲兵分遣所長 今給黎 伍長 報告

기사제목 京城憲兵分隊長 藥師川 少佐 報告 柵山里憲兵分遣所長 今給黎
伍長 報告

발송일 隆熙 二年(明治 四一) 四月

京城憲兵分隊長 藥師川 少佐 報告

柵山里憲兵分遣所長 今給黎 伍長 報告 (四月 六日) 一. 本月 三日 午後四時
頃 楊州郡 伊談面 安興里 北方 森林 中에 暴徒 約 六,七十名이 集合하여 同 六
時 同面下 鳳岩里에 至하여 土人에게 命하여 夕食을 喫하고 同 八時 漣川 方
面을 向하여 出發하였다.

二. 本月 四日 午後六時頃 暴徒 約 百名이 於等山面 方向으로부터 來하여 泉
川面 德亭里, 默隱面을 向하여 通過하였다 한다.

三. 伊談面 柵山里 賊魁 前博士 金演性은 月日 未詳 美國으로 渡航한 旨 土
人間에 風評하고 있었다.

四. 土人의 言에 依하면 目今 當所 附近을 徘徊하는 暴徒는 總數 約 三百名으
로 武器는 三十年步兵銃 及 騎銃 約 七,八挺, 獵銃 約 三十挺, 火繩銃 約 十五
挺, 其他 韓兵用 單發銃을 携帶하였다 한다. 暴徒의 一部는 武器를 山中에 隱
匿하고 討伐隊 及 憲兵의 視線을 巧妙히 避하여 行動하고 있는 것 같다.

右 報告함. 憲兵隊長(四月 六日) 四月 三日 楊州郡 伊談面 安興里에 賊徒 約
六十名이 來到 食事後 漣川 方面으로 退去하였다 한다.

四月 四日 賊徒 約 百名이 同郡 泉川面 地方을 來往하였다.

伊談面 柵山里 前博士 金演性은 일찌기 賊徒의 巨魁이었으나 美國으로 渡
航하였다는 說이 있다.

當 地方에는 約 三百名の 賊徒가 徘徊하였다 한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의병편Ⅵ)

4. 七.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一) 一月, 京畿道

暴徒來襲 報告

기사제목 暴徒來襲 報告

발송자 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수신자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발송일 隆熙 三年(明治 四二) 一月

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來襲 報告 本日 午前三時十分 匪首 李殷贊이 引率하는 約二百名の 暴徒가 楊州郡 伊淡面 杻山里(當邑을 距하기 北方 四里) 憲兵分遣所에 來襲하였으나 交戰 約二時間後 此를 擊退하였다.

一. 暴徒는 楊州郡 縣內面 南山偶 方面으로부터 杻山里에 來襲하였으나 交戰 二時間後 楊州郡 伊淡面 松蘿里 方面에 退却하였으므로 同憲兵은 此를 追擊하였으나 其踪跡을 失하였다.

一. 此 戰鬪에서 賊의 死 一 鹵獲品 軍刀 一挺으로 我에 損害 없다.

一. 該 情報에 接하자 當憲兵分遣所 憲兵上等兵 三 同補助員 十 當署 日巡查 二 韓巡查 二는 急行 偵察中이다.

右 報告함.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의병편Ⅵ)

5. 七.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一) 一月, 京畿道

匪首 李殷贊 及 尹仁淳 行動의 件

기사제목 匪首 李殷贊 及 尹仁淳 行動의 件

발송자 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警視 岩井敬太郎

수신자 內部 警務局 保安課長

발송일 隆熙 三年(明治 四二) 一月

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內部 警務局 保安課長 警視 岩井敬太郎 앞 匪首 李殷贊 及 尹仁淳 行動 件 一. 一月 二十日(陰曆 昨年 十二月 二十九日) 楊州郡 檜岩面 茅亭里에 있었던 匪首 李殷贊 及 尹仁淳은 使者로 하여금 楊州郡 古州內面 面長 趙鍾九를 同地에 拉來하여 告하기를 火藥代로 翌二十一日 夕刻을 期하여 金二千兩(四十圓)을 提供하라고 命하였다.

一. 當時 賊은 約 七 · 八十名의 人員으로 一月 十二日 逃走한 楊州郡 柵山里 憲兵分遣所 憲兵補助員 三名은 首魁等과 膝을 交하고 있었던바 豫히 面識이 있는 趙面長이 當到하자 別室로 退去하였다. 그리고 外國人 及 淸人은 附隨하지 않았다.

一. 柵山里 憲兵補助員 五名(其 中 二名은 京城에서 逮捕되었다 한다)이 逃走한 것은 人民으로부터 金錢을 强請한 非行의 暴露를 두려워함에서 出한 것이 一原因이나 金範一의 脅迫이 있었음은 其 一 大原因이다.

一. 金範一(演性이라고도 한다)은 柵山里의 出로서 往年 京城 成均館에서 修學 博士號를 갖어 사람이 呼稱 金博士라고 한다. 昨春 暴徒에 加入 同夏로부터 其 消息이 없었던 者이다. 憲兵補助員이 逃走한 數日前 鄉里인 柵山里 卽 憲兵分遣所 所在地에 來하여 親族을 通하여 憲兵補助員에 對하여 「汝等은 韓國 臣

民인데 日本의 憲兵補助員이 되어 우리 義兵을 討伐함은 不當하다. 只今에 此를 辭免치 않으면 汝의 身命은 勿論 三族에 至하기까지 모두 危害를 加하겠다 云云하고 脅迫하고 또 贈賄하였다는 所聞이 있다. 同地의 大部分은 金의 親族이라고 한다.

一. 古州內面 面長은 賊의 請求한 金額의 調金이 어렵고 恐怖를 不堪하여 一月 二十三日 京城으로 避難하였다. 去二十七日 歸家하였던바 不在中 賊은 不斷히 使者로써 請求하여 왔었다고 한다.

二. 尹仁淳은 가만히 陰曆新年을 楊州郡 石積面 檜村里에서 맞이하였다고 한다.

一. 本月 二十四日 李殷贊은 元帥府中軍의 名으로써 楊州郡 伊淡面 面長 其他에 對하여 同二十六日을 期하여 粃 三十石의 提供을 命하였다. 其通文에 「軍用米云云」이라 하였으나 陛下行幸의 言은 아니었다.

一. 賊團은 二·三日 前 古州內面山佳堡에 來한 形跡이 있다. 그리고 彼等은 常人の 風體를 假裝하고 三三五五 各處에 分宿하고 聯絡을 通하여 時時로 集散하는 것 같다.

一. 同上 江原道 平康郡 方面에 있는 匪首 延基浩에게 淸人 三·四名이 附隨하고 있다는 所聞이 있다.

延基浩는 前陸軍將校로서 李殷贊 尹仁淳과 氣脈을 通하고 있는 者이다.
右 報告함.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의병편 VI)

6. 七.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一) 一月, 京畿道

暴徒來襲 報告

기사제목 暴徒來襲 報告

발송자 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수신자 内部 警務局長 松井茂

발송일 隆熙 三年(明治 四二) 一月

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内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來襲 報告 本日 午前三時十分 匪首 李殷贊이 引率하는 約二百名の 暴徒가 楊州郡 伊淡面 杻山里(當邑을 距하기 北方 四里) 憲兵分遣所에 來襲하였으나 交戰 約二時間後 此를 擊退하였다.

一, 暴徒는 楊州郡 縣內面 南山偶 方面으로부터 杻山里에 來襲하였으나 交戰 二時間後 楊州郡 伊淡面 松蘿里 方面에 退却하였으므로 同憲兵은 此를 追擊하였으나 其踪跡을 失하였다.

一, 此 戰鬪에서 賊의 死 一 鹵獲品 軍刀 一挺으로 我에 損害 없다.

一, 該 情報에 接하자 當憲兵分遣所 憲兵上等兵 三 同補助員 十 當署 日巡查 二 韓巡查 二는 急行 偵察中이다.

右 報告함.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의병편Ⅵ)

7. 七.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二) 二月, 京畿道

暴徒에 關한 件 楊州警察署長 報告 要領

기사제목 暴徒에 關한 件 楊州警察署長 報告 要領

발송자 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수신자 警務局長 松井茂

발송일 隆熙 三年(明治 四二) 二月

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관한 件 楊州警察署長 報告 要領 本月 十三日 夜 楊州郡 伊淡面 城隍堂 居住 庖肆商 趙石根은 暴徒에 依하여 同郡 內洞面에서 慘殺當하였다.

一. 十三日 午後十一時 趙石根의 門을 두드리며 我是 憲兵補助員이다. 開扉하라고 呼起 趙에 對하여 暴徒의 狀況 等を 물은 後 突然 我是 義兵이다. 汝는 柵山里憲兵分遣所의 密偵이므로 其罪을 容恕할 수 없다 하고 同人家에 滯在中 鄭大根이란 者와 共히 拉去하였다.

一. 賊 李殷贊의 部下 六·七名으로 該 賊中에는 元柵山里 憲兵補助員도 加入하고 있었던 模様이라고 한다. 그리고 賊은 內洞面에서 趙石根을 慘殺하고 鄭大根은 現在 賊手에 있다고 한다.

右 報告함.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의병편Ⅷ)

8. 九. 隆熙 三年(1909 · 明治 四二)

(四) 十月, 京畿道

楊州警察署長 警部

기사제목 楊州警察署長 警部

발송자 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수신자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발송일 隆熙 三年(明治 四二) 十月

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内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九月 二十九日 未明 楊州郡 廣石面

暴徒 洪元裕에게 拉去當한 李性九(聖九는 誤記)에 對한 搜查狀況은 左와 如하다.

一. 李性九는 翌三十日夜 暴徒 二十一名과 共히 楊州郡 白石面 古靈里 普光等(當地로부터 西南方 約四里의 佛閣)에 宿泊하고 翌十月 一日 坡州郡 泉峴面 屯防里에 이르러 同地에서 一泊하고 翌二日 다시 楊州郡에 入하였다.

一. 暴徒는 李性九로 하여금 銃器를 擔게 하고 同行하여 曰 汝는 賣國賊이다. 總理大臣 李完用은 實로 其主된 者이다 云云.

一. 右는 密偵의 言이므로 信을 두기 難하나 目下 憲兵隊와 協力 極力搜查中 右 報告함.

追而 開城警察署長에게 打電 및 書面으로써 通告하였다.

十月 九日

朝眞野警部

國友警部 앞

李性九에 對한 件

一. 本月 六日 暴徒 洪元裕는 楊州郡 伊談面 廣岩里 逍遙洞에 潛伏中으로 同地 居住 曹汝長이란 者가 秘密히 該 暴徒를 爲하여 軍糧 及 被服을 供給하고 있었다고 聞知하였다.

一. 此報에 接하고 當署巡查 及 當憲兵混成一隊가 되어 廣岩里 坐起洞(當地로부터 北方 五里強) 居住 曹汝長方을 夜襲 亂問하였으나 何等 得한 바 없다.

一. 그런데 同里 逍遙洞에 本月 五日 午後一時 暴徒가 來하였다는 것을 探知하고 直時 同地로 向하였던 바 果然 同日 午後一時 十一名이 來하여 約一時間 休息 後 抱川郡 西面 方面으로 去하였다 한다. 따라서 西面으로 가던 바 同面 銅店里에 來하였다고 한다.

一. 暴徒는 同日(五日) 午後六時頃 同地 宋四仲方에 來하여 同人을 毆打 夕食을 命하였다.

一. 目下 宋四仲方에 滯在中인 京城 居住 材木商 崔明玉이가 當署巡查에게 말한 바에 依하면 暴徒 中 一人은 二十前 後로 色白 面長 斷髮 無鬚髯의 學生 風인 一人이 他暴徒의 隙을 보아 말하기를(오히려 獨語이었다 한다) 余는 總理大臣 李完用의 甥侄인 바 過日 楊州郡 所在 先祖의 展墓次 來하였을 時 拉至

當한 者이라고하고 그리고 憂愁의 色이 있었으며 服裝은 他暴徒同樣 茶褐色의 韓服을 着하였다 한다.

(十一名中一人軍刀 他是 韓式古銃)

一. 該 暴徒는 夕食을 喫한後 抱川郡 西面 旺方里(楊州郡界) 方面으로 向하였다 하여 直時 同方面으로 急行하였던 바 同午後八時 西面 木洞으로 來하여 洞民을 見 案内로 하여 抱川郡 上松隅로 갔다. 案内者의 言에 依하면 夜中이므로 人相服裝 等 判明 않으나 暴徒 中 一人이 발이 아프다고 하니 他者는 督促하여 빨리 걸으라고 하였다 한다.

또 暴徒 中 一人이 曰 余等은 姜大將(元憲兵補助員이었던 姜基東)을 찾는 것이다. 宮村(楊州郡 柴北面)은 몇 리나 되느냐고 물었다 한다.

一. 該 暴徒 等은 上松隅 李建益이란 酒店에 至하여 飲酒하였다. 女將의 말하는 바에 依하면 恐怖의 나머지 暴徒에 關한 評細는 判明되지 않으나 暴徒 中 一人은 普通 韓足袋를 穿하고 있었던 者 있다. 若干 飲酒하였다 한다(他的 暴徒는 布片으로써 足を 卷하였다).

一. 該 暴徒는 다시 下松隅 里長이 門戶를 두드리므로 里長은 戶外로 出하였던 바 檜岩峴은 어느 길로 가느냐고 問議하므로 이리이리라고 對答하니 그대로 去하였다 한다. 그리고 暴徒는 里長의 戶外로 出함을 늦다 하여 銃臺로써 門扉의 一部를 打破하였다(巡查의 目擊한 바).

一. 따라서 警憲隊는 檜岩峴(楊州郡 檜岩面으로부터 抱川으로 通하는 峻路)에 이르렀던 바 來한 形跡 없고 同時에 出發方面 不明에 屬하였다.

一. (右는 昨夜까지의 分)

一. 繼續 搜查中

一. 金警部 昨日來楊하였다. 本日は 抱川郡 內北面 七聖寺로 向한다.

一. 總理大臣으로부터 直接派遣한 者 二名(常人) 楊州郡의 東方을 搜查하고 있었다. 其 手段은 아는 小作人을 歷訪 搜查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一. 今日에 이르러서도 發見치 못하여 未安하다.

一. 甚히 罪悚하나 本件 飯田部長 앞으로 通話を 付托한다

제17절 제목 '동두천우편소'(楊州郡 伊淡面 東豆川)

연월일 1913년 10월 11일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13.9.20

내용

東豆川郵便所(楊州郡 伊淡面 東豆川里) 九龍浦郵便所(長鬐郡 外北面 土羅里)를 設置하다.

朝鮮總督府官報 1913.9.20

제18절 「삼천리」 제8권 제6호

발행 연월일 1936년 6월 1일

기사제목 “눈물의 主人公 車紅女孃의 對答은 이러합니다.”

필자 秋葉

기사형태 대담 · 좌담

눈물의 主人公 車紅女孃의 對答은 이러합니다

秋葉

나 - 고향은 어디세요?

車 - 경원선(京元線) 동두천(東豆川)역에서 마루택을 하나 넘으면 밤나무 옥어진 동리 초가집 한 20戶 되는 마을이 바로 내 고향이랍니다.

나 - 무대에 나서기는 어느 때 이었세요?

車 - 바로 의정부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든 해, ...그러니 열다섯 살 때입니다.

나 - 그러니 무대 생활하기를 무릇 몇 해나 하셨나요?

車 - 벌써, 엇그제 갓흔 것이 4년이나 되나봐요.

나 - 그 동안 엇떠한 무대를 밟아왔세요?

車 - 히락좌(喜樂座) 신무대(新舞臺) 황금좌(黃金座) 그리고 지금의 청춘좌(靑春座)까지 내려옵니다.

27) pp.535-536은 노비문서가 아니라 일반 호적으로서 위의 내용과 중복됨

나 - 「스크림」에 나타났든 일은 잊었세요?

車 - 아니요 업습니다.

나 - 음식으로 조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車 - 짜구 매운 조선 음식이 제일 조와요.

나 -菓子로는?

車 -菓子로는 아무거나 다-조와하답니다. 그래서 대사(臺辭) 외울 때나 과작(料作)을 배울 때나 틈만 잇스면 늘 과자를 입에 문답니다. 그 중에서도 「쪼코레-트」를 제일 조와하지요.

...그러치만 쪼코레-트를 조와한다면 입이 넘우 고급이라고 듣는 이들이 <155> 막 욱하게요! 그러니 쪼코레-트를 조와한다는 말은 쓰지 마세요. 호호호.

나 - 무대 생활 4년 동안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맞는 연기(演技)를 어느 극단 때 어떤役에서 발휘해섯세요.

車 - 아이 참...제가 무엇을 번번히 할 쫌이나 암니까. 인제는 배우는 길인데요. 억지루라도 마음에 맞는 연극을 골는다면 황금좌 때에 한 박영호씨의 작인 「木花」가 그 중 나스 것 갓해요.

나 - 금년 정초(正初) 동양극장(東洋劇場)에서 한 춘향전(春香傳)의 춘향역(春香役)은 어땠서요?

車 - 글세요...그것도 마음에 들었서요.

나 - 그러면 어떠한役이 가장 적역(適役)인 것 갓흔가요?

車 - 「春香」의 옥중(獄中)막 갓흔 눈물을 자아내는데도 조치만 「木花」와 갓치 순진한 시골 처녀의 역도 마음에 맞는 것 갓해요.

나 - 올해 나이 몇 친가요?

車 - 열아홉입니다.

나 - 본명(本名)은 무엇인가요?

車 - 본명(本名)은 차홍녀(車紅女)랍니다.

나 - 전날에 제일 김부든 때가 언젠가요?

車 - (그 셋맑은 두 눈동자에 추억을 자아내듯이 두어 번 깜박깜박하드니)
어려서 철모를 때 뒷山 언덕 밤나무 밋, 큰 바위 우에서 덩굴든 시절이 지금도
각금 그리워진답니다.

나 - 아-그러서요...그러치만 무대 생활을 한 뒤에는요?

車 - 머-별반 업섯세요..

제19절 동두천 소재 회사

1. 1927년 09월 10일

내용 동두천운송(東豆川運送, 合資)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년판), 東亞經濟時報社

회사명 : 東豆川運送(合資)

업종 : 운수창고

설립일 : 1927-09-10

대표자 : 金炳皓

목적 : 운송 및 운송 취급업

자본금 : 3,000

본점주소 : 경기도 이담면 동두천리

주제어 운수창고업

출전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년판), 東亞經濟時報社

2. 1930년 09월 17일

내용 길문상점(吉門商店, 合資)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회사명 : 吉門商店(合資)

업종 : 상업

설립일 : 1930-09-17

대표자 : 內藤正二

목적 : 薪炭제조 도소매

자본금 : 8,000

본점주소 : 경기도 이담면 동두천리

주제어 상업무역

출전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3. 1941년 01월 09일

내용 동광주조(東光酒造, 合資)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2년판), 東亞經濟時報社

회사명 : 東光酒造(合資)

업종 : 양조업

설립일 : 1941-01-09

대표자 : 大倉德藏

목적 : 조선주의 양조 판매

자본금 : 20,000

본점주소 :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제20절 해방 후 신문 기사

1. 제목 “5월중 만여 명의 북조선 동포 월남”

게재지명 「동아일보」

게재일자 1948년 06월 02일

날짜 1948년 05월 31일

내용

남조선의 2천만 동포의 열렬한 애국지성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독립조선 중앙정부의 수립을 위한 국민의회에서 민족의 여망을 등지고 헌법을 제정하며 국가구성법을 기초하는 등 중요한 의사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거니와 소련진주군의 억압과 공산당 계열 반동분자들의 굴욕을 참어가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국권의 회복을 바라는 애절한 비원이 하늘에 사모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일의 총선거의 감격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구경이라도 하려고 보파리 짐작으로 38선을 눈물로 넘어오는 동포는 날을 더하여 늘어가 지난 한달 동안에 개성방면으로 6천7백여명, 동두천방면으로 3천7백여명, 주문진 5백여명, 춘천 6백여명 총계 1만1천5백여명에 달하였고 계속하여 어제도 오늘도 남부여대하여 울며 넘는 38선을 남하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북의 통일은 이들 월남동포의 증가와 아울러 가속도적으로 어질것기 기대되어 있으므로 남조선동포들도 그들의 서러운 사정을 힘과 정신으로 헤아려 주어야 할 것이 동족애로서 요청되는 바이다.

「동아일보」 1948년 06월 02일

2. 제목 “청량리 철도경찰대, 김일성대학 출신 남조선노동당 세포 30여 명 체포”

계재지명 「연합신문」

계재일자 1949년 05월 25일

날짜 1949년 05월 25일

내용

신판 남로당 지하세포 공작대를 철도경찰대에서 대량 체포하였다. 즉 청량리 철도경찰대에서는 지난 7일 이후 3차에 걸쳐 동두천 방면 열차 내에서 남로당원 黃孝吉(35) 외 12명과 여자당원 襄玉姬(20) 외 9명을 검거하였는데 취조한 결과에 의하면 전기 黃 등은 작년 가을 남로당 중앙본부의 지령으로 38선을 넘어 월북하여 평양에 있는 김일성대학 부속 정치학원에서 6개월 동안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라 하며 그네들이 이북 소위 인민정부에서 받고 온 임무는 남한의 민국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정치주도하의 인민정부를 수립할 것과 국방군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킬 심산으로 국군에게 보내는 ‘국방군 이어 그대들은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가?’라는 제목의 인쇄물 수백 매를 소지하고 있었다 한다.

또한 그네들이 고백한 바 현재 평양에 있는 동 정치학원에는 1,000여 명의 동무(?)들이 강습을 받고 있으며 이번 월남한 세포도 약 400여 명으로 각지에 잠복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 바 철경 본대에서는 금후 맹렬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 한다.

「연합신문」 1949년 05월 25일

동두천시3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명단

위원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부위원장	안민규	동두천문화원장
위원	박형덕	동두천시의회 의장
	홍운섭	전 동두천시의회 의원
	유원준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무장	건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김택기	전 동두천시의회 의장
	이명수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홍경섭	전 동두천문화원장
	안국승	한복사학회 회장

상임위원	홍정덕
연구위원	백운화
간사	김진왕, 라귀남, 박상정
서기	장화자, 김혜경, 전홍식

집필위원	이명수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문화재, 지명유래)
	이인규	신흥고등학교 교감 (지리)
	전동백	동두천중학교 교사 (식물, 동두천사진)
	백운화	시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연표(현대), 사건·사고, 언어)
	윤종일	서일대학 교수 (삼국, 고려, 현대사)
	안국승	한복사학회장 (대한제국기의 동두천, 의병, 교육)
	길광준	미 1지역사령부 민사처장 (한국전쟁과 미군주둔)
	최무장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유물, 유적, 선사)
	김택기	전 동두천시의회 의장 (행정, 세거성씨, 사라진것들)
	여명근	경기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농업, 임업, 축산업)
	이상구	신흥대학 교수 (제조업, 금융업, 상업)
	이계홍	전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문화, 예술)
	김경식	시인, 이담문화회장 (고전문학, 민간신앙)
	전영숙	평론가, 한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문학)
	홍경섭	전 동두천문화원 원장 (새마을운동, 유림, 문화원)
	서수연	한북대학교 교수 (체육)
	신장섭	경민대학 교수 (민속)

이수민	경민대학 교수 (건축)
김평	경민대학 교수 (도시계획)
유원준	경희대학교 교수 (고문헌)
최수경	전 동두천문인협회 회장 (노포)
김동균	한북대학교 교수 (교통, 철도, 도로)
박용민	한북대학교 교수 (관광)
황화숙	한북대학교 교수 (사회복지)
권영길	한북대학교 교수 (의료)
이원종	차우림 대표 (불교)
장인봉	신흥대학 교수 (정치)
류주하	전 동두천시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보훈)
김지명	한북대학교 교수 (서비스)
이영일	동두천문화원 이사 (사회단체)
임승희	한북대학교 교수 (여성)
박은희	대진대학교 교수 (언론)
홍정덕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연표근대이전, 묘지, 기독교, 문헌자료, 동두천사람들, 일제강압기의 동두천, 연혁, 조선시대, 옛사진, 금석문, 천주교 등)

(*괄호안은 각 집필위원의 집필분야를 표기)

감수위원	정기호	전 인하대학교 교수
	이창성	신흥고 교사
	홍재진	전 동두천시 과장
	홍효섭	전 동두천시 과장
	이상용	전 동두천시 과장
	정용관	전 보영여고 교장
	박현희	동두천시의회 의원
	홍운섭	전 동두천시의회 의원
	최수경	전 동두천문인협회 회장

교열위원	김택기	전 동두천시의회 의장
	이명수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표지 제자	석파 문홍수
-------	--------

동두천시 30년사

발행처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031)865-7101, www.ddc21.net

발행인 오세창

발행월 2012년 7월
(본 동두천시 30년사는 2010. 12. 31 기준으로 편찬되었습니다.)

기획 · 제작 · 인쇄 코레드디자인
서울시 중구 초동 21-1 기영빌딩
(02)2266-0751~2

※ 저작권은 동두천시와 동두천문화원에 있습니다.
※ 전 8권으로 분책 제작되어 있습니다.
※ 사진 및 내용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시
30년사